

남포집

1

김만영 지음
金萬英

聖神文武卓出百王正心以公
 人之面目深考國人之心術携貳
 私之念賁若草木萌於不覩不聞之
 爲之間朝廷之上公論不行閭巷之
 樂或西形迹判然督愚邪正是非相
 兩端一進一退定其勝負者爲
 山之念反在第二段矣其間或有持
 欲定人心務盡國事者出於

일러두기

1. 이 책의 번역 대본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남포선생집(南圃先生集)》으로 하였다.
이 문집은 한국고전번역원 발간 한국문집총간 속 36집에 수록되어 있다.
2. 내용이 간단한 역주는 간주(間註)로, 긴 역주는 각주(脚註)로 처리하였다.
3. 한자는 필요한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하여 넣었으며, 운문(韻文)은 원문을 병기하였다.
4. 맞춤법과 띄어쓰기는 한글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을 따랐다.
5. 이 책에 사용한 부호는 다음과 같다.
 - () : 번역문과 음이 같은 한자를 묶는다.
 - [] : 번역문과 뜻이 같으나 음이 다른 한자를 묶는다.
 - “ ” : 대화 등의 인용문을 묶는다.
 - ‘ ’ : “ ”안의 재인용 또는 강조 문구를 묶는다.
 - 「 」 : ‘ ’안의 재인용을 묶는다.
 - 『 』 : 「 」안의 재인용을 묶는다.
 - 《 》 : 책명 및 각주의 전거(典據)를 묶는다.
 - 〈 〉 : 책의 편명 및 운문 산문의 제목을 묶는다.
 - □ : 원문의 결자 빈자리를 비워 둠을 나타낸다.

발간사

(재)한국학호남진흥원은 호남권 한국학 진흥과 민족문화 균형 발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공동 출연한 학술기관입니다. 개원 2년의 성과를 상재합니다.

본원은 그동안 고문서 수집 집성, 근대 문집의 표점 영인, 고문서·일기·선현 문집 국역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상의 과제는 두 범주로 요약됩니다.

하나, 호남한국학 기초자료 발굴
둘, 호남 사상·생활문헌 국역

이상의 연구사업은 서세동점 이후 구학(舊學)·구습(舊習)으로 폄하되었던 전통적 학술사조와 생활세계를 탈근대 차원에서 재구성한다는 목표 아래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지난 위망과 극단의 세월에 덧씌워진 ‘소국 트라우마’ ‘문명 콤플렉스’와 같은 문화심리의 질곡을 걷어내고자 합니다. 또한 호혜 공존의 생활지혜 나아가 법고창신(法古創新) 연구혁신(沿舊革新)의 사유 역정 이야기말로 당당한 새로운 미래 설계의 자양임을 응변하고 싶습니다.

2020년 1월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원장 이종범

목차

일러두기	2
발간사	3
남포집 해제	41
《남포선생집》 후서 南圃先生集後序	59 569
《남포선생집》 신간 발문 南圃先生集新刊跋	63 570
《남포선생집》 옛날 발문 南圃先生集舊跋	67 571

남포집 제1권

오언절구 五言絕句	번역문 원문
주정 主靜	75 575
감회가 일어 有感	76 575
두 번째 其二	76 575
아버이 곁을 떠나며 감회를 읊다 離親寓懷	76 575

밤중에 앉아 읊조리다 夜坐口號	77 575
산을 바라보며 看山	77 575
눈 감고 짓다 瞑作	78 575
용호주인에게 수답하여 보내다 酬寄龍湖主人	78 575
동명 정군평의 <제승축> 시에 화운하다 和東溟鄭君平題僧軸韻	79 575
윤생[선기]이 술을 들고 찾아와 준 것에 감사하며 謝尹生【先夔】携酒見過	79 576
이재를 허물고서 제생을 작별해 보내며 毀二齋後謝送諸生	80 576
제생과 작별하며 준 시 贈別諸生	80 576
행자 운을 써 시를 지어 오길에게 보여주다 用行字韻示吳侄	81 576
도원량의 <지주> 시에 화답하다 和陶元亮止酒詩	81 576
고청사가 매백 장인에게 준 시에 차운하여 이문백에게 보여주다 次韻高晴沙贈梅栢丈人詩 示文伯	82 576
일가 형제들과 종갓집 터에 있는 배나무 아래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與同宗兄弟共飲宗基梨樹下	82 576
어떤 중의 시축에 제하다 2수 題僧軸 二首	83 576
두 번째 其二	83 576
흑변의 도화옹에 쓰다 題黑邊桃花翁	83 577
김[중원]에게 남겨주어 후일을 기약하며 留別金【仲源】爲後期	84 577
일기에 쓰다 題日記	84 577
순상 심공[택]이 사람을 시켜 문안을 하기에 巡相沈公【澤】使人問安	84 577

한가로이 읊다 閒吟	85 577
이른 봄에 早春	85 577
몽헌이라 자호하며 自號夢軒	86 577
감회가 일어 有事	86 577
잠에서 깨어 일상을 적다 睡罷書事	86 577
천지음 3수 天地吟 三首	87 578
두 번째 其二	87 578
세 번째 其三	87 578
남산 바위의 노래 南山石謠	88 578
한가로운 흥취가 일어 閒興	88 578
밭고랑의 양귀비화 田間鸞粟	88 578
묵매에 쓰다 題墨梅	89 578
비 온 뒤에 깨달음이 있어 雨後有得	89 578
시월 어느 날 새벽에 일어나 감회가 일어 十月曉起有感	89 578
유쾌하여 3수 快意 三首	90 579
두 번째 其二	90 579
세 번째 其三	90 579
장성 가는 도중에 長城道上	91 579
전원의 집으로 돌아오다 歸田園居	91 579
대수음 大樹吟	91 579
비 온 뒤에 雨後	92 579
우연히 벽에 쓰다 偶書壁上	92 579

감회가 일어 有懷	92 579
눈 내리는 밤에 雪夜	93 580
들녘의 학 野鶴	93 580
<영월> 시에 화운하다 和詠月韻	93 580
생각나는 대로 읊다 漫吟	94 580
술이 없음을 한하며 恨無酒	94 580
술이 없는 아쉬움을 달래며 寬無酒	95 580
벽에 쓰다 書壁	95 580
윤유월 칠일에 장난삼아 읊다 閏六月初七日戲吟	96 580
밤에 앉아서 夜坐	96 580
고객 賈客	97 581
새벽에 일어나 曉起	97 581
홀로 나는 기러기에게 주다 贈孤鴈	98 581
그 기러기가 나에게 답하다 鴈答余	98 581
저물녘의 구름 暮雲	99 581
선달 그믐날 밤에 除夕	99 581
느즈막하게 일어나서 晏起	99 581
산을 노래하다 詠山	100 581
용촌에 유숙하며 감회가 일어 留宿龍村有懷	100 581
경물에 감흥하여 뜻을 말하다 感物言志	101 581
가을날의 회포를 읊은 절구 두 수를 지어 당질에게 보여주다 秋懷二絕 示堂侄	102 582

두 번째 其二	102 582
책을 보며 看書	102 582
《역도설》을 보고 觀易圖說	103 582
고요히 앉아 靜坐	104 582
셋별이 창틈을 통해 내 품으로 들어오기에 감회가 일어 明星從窓隙入懷有感	104 582
봄을 보내며 送春	104 583
비 온 뒤 경치가 기이하기에 雨後奇形	105 583
봄을 보내며 감회가 일어 送春有懷	105 583
책을 읽으며 讀書	105 583
저물녘 풍경 暮景	106 583
강가에서 생각나는 대로 읊다 江上漫吟	106 583
함정에 빠진 호랑이를 비웃으며 嘲陷中虎	107 583
새장에 갇힌 학을 비웃으며 嘲籠中鶴	107 583
산속에서 즉흥으로 읊다 山中卽事	108 583
백봉산에서 白鳳山	108 584
일상을 적다 書事	108 584
홀로 술잔을 기울이며 獨酌	109 584
맑은 새벽에 두견새 소리를 듣고서 清曉聞鶉	109 584
꿈에서 깬 뒤에 나중에 <몽중상별> 시에 차운하여 짓다 夢覺後 追次夢中相別詩	109 584

남포집 제2권

오언율시 五言律詩

홀로 앉아 獨坐	113 587
그냥 짓다 漫成	113 587
산에 살면서 객을 사절하다 山居謝客	114 587
밤에 앉아 있자니 감회가 일어 夜坐有感	114 587
윤후가 부쳐 온 시에 차운하여 시를 지어 보내다 次尹侯寄詩韻以呈 ..	115 587
당질에게 주다 贈堂侄	116 587
상인 삼근에게 주다 贈上人三勤	116 588
한창려의 선대체로 쓴 시의 운을 사용하여 감회를 적다 用韓昌黎扇對體書懷	118 588
강사의 문한에 종사하는 여러 어른에게 부치다 寄江舍翰墨諸老	119 588
나자정의 만휴당 시운으로 시를 지어 수답하다 酬羅子整晚休堂韻	120 588
금릉의 조 사군에게 부쳐 보내다 寄贈金陵使君趙	120 588
봄날 종제 영중에게 부치다 春日寄從弟英仲	121 588
회포를 적어 종제 영중에게 보이다 書懷示從弟英仲	121 589
청화에 부슬비가 내리기에 배를 남강에 띄워놓고 淸和微雨 泛舟藍江	122 589
조보의 기사를 듣고 聞朝報紀事	123 589

꿈에 대성전에 들어 술잔을 올리고 인하여 이 읊시를 지었는데 꿈에서
 깨어 기록하다 夢入大成殿奠爵 仍作此律 覺而記之 123 | 589

여름날 너무도 덥기에 장남 삼아 쓰다 夏日甚炎戲題 125 | 589

두 번째 其二 125 | 589

구강에서의 멋진 유람 龜江勝遊 126 | 589

여름 구름이 매우 기이하였는데 누군가가 전한 시가 신운이 있으므로
 마침내 흥내 내어 짓다 夏雲奇甚 有人傳有神韻 遂效嘖而成 .. 127 | 590

흐뭇하여 自怡 128 | 590

소요음 逍遙吟 128 | 590

피끄리 우는 소리를 듣고 장난삼아 영물체를 모방하여 짓다
 聽鶯聲戲 效詠物體 129 | 590

마음을 달래며 自遣 130 | 590

종형 최운로에 대한 만사 挽崔從兄雲路 130 | 591

서 상사에 대한 만사 挽徐上舍 132 | 591

어떤 이에 대한 만사 挽人 132 | 591

나운봉에 대한 만사 挽羅雲峯 133 | 591

오언배율 五言排律

효종대왕에 대한 만사 孝宗大王輓辭 134 | 592

나 동지에 대한 만사 挽羅同知 136 | 592

이성암에 대한 만사 挽李惺庵 139 | 592

남포집 제3권

오언고시五言古詩

감흥 感興	143 595
밤에 앉아 夜坐	151 596
자다 깨서 睡起	152 596
두 번째 其二	152 596
산새에게 말하다 語山鳥	153 596
산새가 답하다 山鳥答	153 596
유쾌하여 快意	154 596
밤에 앉아 그냥 짓다 夜坐漫成	155 597
그냥 짓다 漫賦	155 597
천명음 天命吟	156 597
감회가 있어 有感	157 597
월하음 月下吟	157 597
봄날 비 내린 뒤 객을 마주 대하고서 감회가 있어 기록하다 春日雨後 對客有懷紀事	158 597
동일음 冬日吟	159 598
자연음 自然吟	160 598
여름날 독서하다 시커먼 파리에게 시달려서 짓다 夏日讀書 爲阜蠅所困有作	160 598
김중원이 부처온 것에 차운하다 次金仲源見寄	162 598

남포집 제4권

칠언절구 七言絶句

벽 위에 제하다 題壁上	165 601
뜻을 부치다 寓意	165 601
가을 국화 秋菊	166 601
늦은 오후 日晏	166 601
동지 冬至	167 601
한가한 가운데 감회가 있어 閒中有感	167 601
은거하는 집의 세 가지 빼어난 것 幽居三勝	168 601
안성초(安性初)의 ‘천(天)’자와 ‘원(圓)’자 운(韻)을 쓰다 用安性初天圓韻	169 602
벗에게 주다 贈友	170 602
이생(李生)과 이별하며 주다 贈別李生	170 602
두 번째 其二	170 602
당조카에게 주다 贈堂侄	171 602
회문시 回文詩	172 602
두 번째 其二	172 602
자술 自述	172 602
두 번째 其二	173 602
성상의 은혜에 감격하다 感天恩	174 602

두 번째 其二	174 603
가을날 재실(齋室)에서 秋日齋居	174 603
가을밤 秋夜	175 603
족회(族會)에서 감회를 적다 族會敘懷	175 603
2월 2일 북창(北窓)을 봉했던 종이를 처음 뜯으니 시원하게 확 퍼지는 느낌이 있었다. 이에 이 일을 써서 기록하다. 二月初二日 始開北窓封紙 敞然有伸蠖之意 仍書此以志之	176 603
제비를 읊다 詠鷺	176 603
눈 내린 뒤 밤에 앉아 雪後夜坐	177 603
취중에 스스로를 슬퍼하며 醉中自悼	177 603
술 깬 뒤 자조(自嘲)하며 醒後自嘲	177 603
큰 거북이 당 아래로 와서 엎드려 있기에 느낀 바 있어 짓다 大龜來伏堂下 感而作	178 604
산을 읊다 詠山	179 604
거울을 보고 그림자에게 주다 看鏡贈影	179 604
밤에 앉아 우연히 읊다 夜坐偶吟	179 604
초장군 草將軍	180 604
옥전자 玉錢子	180 604
초승달을 읊다 詠新月	181 604
향기로운 국화가 만개하여 香菊盛開	181 604
강가의 옛 농막으로 돌아가고자 하여 은거하며 지내는 끝은 벗에게 남겨 주고 이별하다 將歸江上舊庄 留別隱逸貞友	182 604
낙화를 불쌍히 여겨 憐落花	182 604

비 내린 뒤 雨後	183 605
들학 野鶴	183 605
특명(特命)으로 군직(軍職)을 회복시켜 주었다는 소식을 듣고 감격하여 짓다 聞特命復軍職 感而有作	184 605
눈이 개어 雪晴	184 605
농사지을 시기에 소를 잃어 말을 팔아 소를 사들이고서 장난삼아 절구 한 수를 짓다 臨農失牛 賣馬買牛 戲成一絕	184 605
새벽 생각 曉思	185 605
두 번째 其二	185 605
차를 마시며 飲茶	186 605
술잎을 복용하며 服松葉	186 605
전가(田家)의 새해 음악 田家歲樂	186 605
겨울날 한가로워 冬日閒意	187 606
춘일음 春日吟	187 606
선영(先塋) 아래 마을에 묵으며 느낀 바 있어 宿先塋下村有感	188 606
두 번째 其二	188 606
세 번째 其三	189 606
여름밤에 달을 감상하는데 홀연 뜬구름에 가려지다 夏夜翫月 忽爲浮雲所蔽	189 606
감회가 있어 有懷	190 606
두 번째 其二	190 606
기해년(1651)에 대기근이 들어 구걸하는 백성들이 길에 가득하니, 느낀 바 있어 짓다 己亥大饑 丐民盈路 感而有作	190 606

아침노을 朝霞	191 607
비를 빌다 祈雨	191 607
비에 감사하다 謝雨	191 607
강이 흐르다 江行	192 607
작은 창에 쓰다 書小窓	192 607
꿈속에서 짓다 夢作	192 607
두 번째 其二	193 607
미인을 그리워하는 노래 戀美人詞	194 607
꿈을 기록하다 紀夢	194 608
새벽에 읊다 曉吟	195 608
구고음 九臯吟	196 608
금리초사(錦里草舍) 23영 錦里草舍二十三詠	202 609
구암서실(龜巖書室) 8영 龜巖書室八詠	208 611
구담승경(龜潭勝景) 10영 龜潭勝景十詠	210 611
구호정사(鳩湖精舍) 8경에 제하다 題鳩湖精舍八景	214 612
명옥헌(鳴玉軒)에 제하다 題鳴玉軒	217 613
원운(原韻)을 붙임 附原韻	217 613
두 번째 其二	218 613
원운을 붙임 附原韻	218 613
세 번째 其三	219 613
원운을 붙임 附原韻	219 613
네 번째 其四	220 613

원운을 붙임 附原韻	220 614
다섯 번째 其五	221 614
원운을 붙임 附原韻	221 614
여섯 번째 其六	222 614
원운을 붙임 附原韻	222 614
일곱 번째 其七	223 614
원운을 붙임 附原韻	223 614
여덟 번째 其八	224 614
원운을 붙임 附原韻	224 614
아홉 번째 其九	225 614
원운을 붙임 附原韻	225 614
열 번째 其十	226 614
원운을 붙임 附原韻	226 615
열한 번째 其十一	227 615
원운을 붙임 附原韻	227 615
열두 번째 其十二	228 615
원운을 붙임 附原韻	228 615
남 교리(南校理)에게 답례로 주다 謝贈南校理	229 615
윤 사군(尹使君)【종지(宗之)】가 부쳐온 시에 차운하다 酬尹使君【宗之】寄詩韻	229 615
성석전(成石田)【로(輅)】의 〈수후(睡後)〉 시에 차운하다 次成石田【輅】睡後韻	230 615

영평(永平)의 제생(諸生)에게 부쳐 주다 寄贈永平諸生	230 615
송석정(松石亭) 양군(梁君)의 시에 차운하다 次松石亭梁君韻	231 615
두 번째 其二	231 616
강가 정자에서 주인의 시에 차운하여 남겨 주고 이별하다 江亭次主人韻留別	232 616
강가의 제로(諸老)에게 장난삼아 주다 戲贈江上諸老	232 616
김중원(金仲源)에게 주다 贈金仲源	232 616
옥수암(玉岫庵). 박연파(朴煙波)의 시에 차운하여 높이 우러르는 마음을 부치다 玉岫庵 次朴煙波韻 以寓景仰之懷	233 616
원운을 붙임 附原韻	234 616
과거에 응시하기 위해 서울로 가는 종제【해영(海英)】를 전송하며 送從弟【海英】應舉之京	234 616
두 번째 其二	234 616
순정 상인(淳淨上人)의 시축에 제하다 題淳淨上人軸	235 616
산인(山人) 희현(熙絢)이 구고(九臯)의 양정재(養正齋)로 나를 찾아와 몹시 간절하게 시를 구하기에 부질없이 제하여 주다. 山人熙絢訪余于九臯養正齋 求詩甚勤 慢題以贈	236 616
두 번째 其二	236 616
정처직(鄭處直)【지(檣)】의 정사(精舍)에 부쳐 제하다 寄題鄭處直【檣】精舍	237 617
두 번째 其二	237 617
배생(裴生)【명석(命錫)】에게 주다 示裴生【命錫】	237 617
김생(金生)에게 부쳐 국화를 부탁하다 寄金生倩菊	238 617

용호 주인(龍湖主人)에게 부치다 寄龍湖主人	238 617
신여퇴(愼汝賚)에게 화답하다 酬愼汝賚	239 617
두 번째 其二	239 617
원운을 붙임 附原韻	239 617
광곡자(廣谷子)의 시에 차운하다 次廣谷子韻	240 617
이공(李公)【단상(端相)】의 시에 차운하여 명(明)나라 사람 임인(林寅) 등에게 주다. 次李公【端相】韻 贈大明人林寅等	241 617
윤 사군(宗之)이 천관산(天冠山)을 노닐고서 엮은 시록(詩錄) 뒤에 제하다 題尹使君【宗之】遊天冠山詩錄後	242 618
허 상국(許相國)【적(積)】이 편지를 보내다 許相國【積】送書	243 618
안렴 어사(按廉御史) 민공(閔公)【정중(鼎重)】이 방문하였기에 절구 한 수를 쓰다 按廉御史閔公【鼎重】來訪 仍紀一絕	243 618
퇴계 선생(退溪先生)의 <도산서(陶山序)>를 읽고서 나도 모르게 상쾌한 느낌이 들어 절구 한 수를 짓다 讀退溪先生陶山序 不覺爽然 因成一絕	244 618
성석전(成石田)【로(輅)】의 <전가잡흥(田家雜興)>에 화운하다 和成石田【輅】田家雜興	244 618
고생(高生)【부금(溥金)】의 시에 답하다 答高生【溥金】韻	245 618
다시 고생(高生)에게 답하다 又答高生	245 618
스님에게 주다 贈僧	246 618
종형 문백(文伯)에게 부치다 寄宗兄文伯	246 618
정생(鄭生)의 시에 답하다 答鄭生韻	247 619
여러 족형에게 주다 贈諸族兄	247 619

정생(鄭生) [지(檜)]에게 주다 與鄭生【檜】	248 619
종형에게 드리다 呈宗兄	248 619
금릉(金陵) 조후(趙侯) [성(惺)]에게 화답하다 酬金陵趙侯【惺】	249 619
두 번째 其二	249 619
금리(錦里)에 사는 여러 형에게 장난삼아 제하여 부치다 戲題寄錦里諸兄	250 619
혜 상인(惠上人)에게 주다 贈惠上人	250 619
김 상사(金上舍) [종량(宗亮)]에게 화답하다 酬金上舍【宗亮】	251 619
김중원(金仲源) [오(溍)] 형께 사례하다 謝金仲源【溍】兄	251 620
산승에게 주다 贈山僧	252 620
김장이(金丈而) 신(愼)의 시에 차운하여 오군(吳君)의 소헌(小軒)에 제하다 次金丈而愼韻 題吳君小軒	252 620
남 은대(南銀臺) [구만(九萬)]에게 주다 贈南銀臺【九萬】	253 620
학도(學徒)에게 주다 贈學徒	253 620
당길[이상(履相)]에게 부치다 寄堂侄【履相】	254 620
두 번째 其二	254 620
복초당(復初堂)에 부치다 寄復初堂	255 620
두 번째 其二	255 620
세 번째 其三	256 620
여러 형을 모시고 이틀 밤을 묵으며 뜻을 말하다 陪諸兄信宿言志	256 621
광곡주인(廣谷主人)이 동자 두세 명으로 하여금 배를 저어 나를 맞이하게	

하니, 내가 배 안에서 입으로 시 한 수를 읊다
廣谷主人令童子數三 棹艇邀余 余於舟中 口占一律 256 | 621

금강(金剛) 시에 차운하다 次金剛韻 257 | 621

도민(道民)의 옛 집 벽 위에 제하다 題道民舊居壁上 257 | 621

구암서실(龜巖書室)에 부쳐 제하다 寄題龜巖書室 258 | 621

두 번째 其二 258 | 621

제생(諸生)의 운을 쓰다 用諸生韻 258 | 621

제생(諸生)에게 부쳐 쓰다 寄筆諸生 259 | 621

삼학재(三學齋)에 제하다 題三學齋 259 | 621

도화선(桃花扇)에 장난삼아 제하다 戲題桃花扇 260 | 622

성암 惺菴 260 | 622

종이 창에 제하다 題紙窓 261 | 622

학을 그린 벽 위에 제하다 題畫鶴壁上 261 | 622

종제가 약속하고서 이르지 않아 從弟有約不至 261 | 622

제생(諸生)과 함께 주자(朱子)의 <동지음(冬至吟)>에 화운하다
與諸生和朱子冬至吟 262 | 622

제생(諸生)의 <독서(讀書)> 시의 운을 쓰다 用諸生讀書韻 262 | 622

맑은 가을날 지강(砥江)에 배를 띄우다 淸秋泛舟砥江 263 | 622

두 번째 其二 263 | 622

눈을 읊다 詠雪 263 | 622

동쪽 언덕에 핀 매화를 보며 看梅東臯 264 | 623

한가로이 거닐며 閒行 264 | 623

어떤 사람이 수박을 부쳐왔기에 장난삼아 제하다 有人寄西瓜戲題	264 623
춘첩 春帖	265 623
동지음 冬至吟	265 623
덕룡산(德龍山)의 구름을 바라보고서 짓다 望德龍山雲而有作	266 623
비 온 뒤 새벽에 읊다 雨後曉吟	266 623
한가한 흥 閒興	266 623
아침노을을 읊다 朝霞詠	267 623
밤에 앉아 夜坐	267 624
봄날 春日	267 624
갈대 자란 물가에서 한가로이 낚시하다 蘆磯閒釣	268 624
매화를 읊다 詠梅	268 624
가을밤 하얗게 누인 밝은 은하수를 올려다보며 秋夜仰見明河練白	269 624
국화를 띄우다 泛菊	269 624
저녁에 동작(銅雀)을 건너며 晚渡銅雀	270 624
아침에 차령(車嶺)을 넘으며 朝踰車嶺	270 624
새벽에 양강(楊江)을 출발하며 曉發楊江	271 624
저물녘 전원으로 돌아가며 暮歸田園	271 625
큰 바람 大風	271 625
북쪽의 소식을 듣고 뜻을 말하다 聞北奇言志	272 625
늦게 일어나 晏起	272 625

한(漢)나라 역사를 보고 감회가 있어 讀漢史有感	273 625
두 번째 其二	273 625
달밤에 피리 소리를 듣고 月夜聞笛	274 625
굶주린 백성이 길에 가득하니 느낀 바 있어 짓다 饑民盈路 感而有作	274 625
산사(山寺)에 묵다 宿山寺	275 625
경인년(1642) 정월 庚寅正月	275 626
비 갠 뒤에 감회가 있어 霽後有感	275 626
공당(公堂)의 제비 公堂鷺	276 626
한가로이 지내며 閒居	276 626
부질없이 제하다 謾題	277 626
밤에 일어나 떨어지는 꽃을 완상하며 夜起翫花下	277 626
구월 저녁 九月日夕	277 626
섬들 앞의 늦은 국화 階前晚菊	278 626
즐거움을 기록하다 誌樂	278 626
달빛 아래서 읊다 月下吟	279 627
조는 새 眠鳥	279 627
한가로이 지내며 성찰하다 【4수】 閒居省察 四首	279 627
오랜 장마 久霖	281 627
두 번째 其二	281 627
우연히 읊다 偶吟	281 627
밤에 앉아 夜坐	282 627

감회를 쓰다 書懷	282 627
책을 보다 看書	282 628
두 번째 其二	283 628
《참동계(參同契)》를 읽었으나 그 오묘한 이치를 궁구하지 못하였다. 국화를 심다가 감회를 일으키다 閱參同契 莫究其妙 仍種菊起感	283 628
병이 나아 우연히 쓰다 病已偶書	284 628
시황 始皇	285 628
낙화 落花	285 628
밤을 읊다 詠栗	285 628
도민촌 道民村	286 628
가을밤 잠 못 이루고 홀로 앉아 秋夜獨坐無眠	287 628
입으로 읊조려 어리석은 아이들을 비웃고 꾸짖다 口號嘲責頑兒輩	287 629
두 번째 其二	287 629
집안에 쌀이 떨어져 장난삼아 절구 한 수를 짓다 舉家絕粒 戲成一絕	288 629
구름 봉우리 雲峯	288 629
피꼬리 鷲	289 629
두 번째 其二	289 629
제비 鷺	289 629
구름 雲	290 629
양류음 楊柳吟	291 629

두 번째 其二	291 629
오랜 비에 술을 보내 준 사람에게 사례하다 久雨謝人送酒	291 630
새벽 曉	292 630
고을 사람이 군정(軍丁)을 징발하려고 어린 종을 끌고 가니 허탈하게 웃으며 시 한 수를 짓다 縣人括軍丁挽僮僕而去 笑成一律	292 630
집 뒤의 장송 家後長松	292 630
감회가 있어 有懷	293 630
자리 옆에 제하다 題座隅	293 630
남평(南平) 수령 송시걸(宋時杰)이 영장(營將)과 함께 구담(龜潭)을 노닐다 南平倅宋時杰 與營將遊龜潭	294 630
밤에 비 내리고 아침에 개어 夜雨朝晴	294 630
어둑어둑할 무렵에 짓다 暝作	294 630
빗속의 해당화에 대해 장난삼아 제하여 아이들에게 보여준다 戲題雨中海棠 示兒輩	295 631
청야음 淸夜吟	295 631
3월 그믐날 술 사러 간 사람이 이르지 않아 三月晦日 沽酒不至	296 631
맑은 가을밤에 앉아 秋晴夜坐	296 631
꿈에서 짓다 夢作	297 631
잠깨어 꿈속 시에 화운하다 覺和夢中韻	297 631
겨울날이 매우 따뜻하므로 감회가 있어 冬日甚溫有懷	297 631
중구일의 외로운 심사 九日孤懷	298 631
두 번째 其二	298 631

신묘년(1643) 정월 초하루 辛卯元日	298 631
잠깐 뒤 覺後	299 632
4월에 배를 띄우다 淸和泛舟	299 632
두 번째 其二	299 632
세 번째 其三	300 632
앞 들의 농부가 종일 밭 갈고 김매고서 소를 풀어놓다 前郊農夫 盡日耕耨解牛	301 632
밭 개구리가 노니는 모습을 보고 짓다 見田蛙游弄有作	301 632
큰 새가 밭에서 배회하는 모습을 보고 짓다 見大鳥逡巡於田間有作	301 632
꿈을 기록하다 紀夢	302 632
두 번째 其二	302 633
뜻을 말하다 言志	303 633
마음대로 읊다 浪吟	303 633
대수음 大樹吟	305 633
긴 무지개 長虹	305 633
한가로운 뜻 閒意	306 633
두 번째 其二	306 633
종형[한장(漢章)]에게 부쳐 은빛 봉어를 보내주지 않음을 조롱하다 寄宗兄[漢章]嘲不送銀鯉	306 633
아이들이 지은 시의 운을 쓰다 用兒輩韻	307 634
두 번째 其二	307 634

세 번째 其三	308 634
네 번째 其四	308 634
백로 白鷺	308 634
오랜 비 뒤에 무등산(無等山)을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며 久雨喜見無等山	309 634
비 내린 뒤의 푸른 산 雨後靑山	309 634
이성암(李惺庵) [수인(壽仁)]에 대한 만사 挽李惺庵【壽仁】	309 634
호가정(浩歌亭) 어른에 대한 만사 挽浩歌亭丈人	310 634
이웃 노인에 대한 만사 挽隣老	310 635
어떤 이에 대한 만사 挽人	311 635
두 번째 其二	311 635
세 번째 其三	311 635
정생(鄭生) [온(榘)]에 대한 만사 挽鄭生【榘】	312 635
두 번째 其二	312 635
나운봉(羅雲峯) [염(裨)]에 대한 만사 挽羅雲峯【裨】	313 635

남포집 제5권

칠언율시七言律詩

- 인지음 仁智吟 317 | 639
- 비래각(飛來閣) 주인에게 드리다 呈飛來閣主人 317 | 639
- 종형의 영사재(永思齋)에 부쳐 제하다 寄題宗兄永思齋 318 | 639
- 정백자(程伯子)의 <타괴음(打乖吟)>의 운(韻)을 쓰고 이어서 그
체(體)를 본받다 用程伯子打乖吟韻 仍效其體 319 | 639
- 사군(使君) 정지호(鄭之虎)가 부쳐온 시에 화답하다
酬鄭使君【之虎】見寄 320 | 639
- 승지 남구만(南九萬)과 이별하며 주다 贈別南承旨【九萬】 321 | 640
- 상사(上舍) 나위(羅禕)의 강가 우소(寓所)에 답하다
酬羅上舍【禕】江上寓所 321 | 640
- 동종(同宗) 형제와 배 띄워 노닐며 與同宗兄弟泛舟 322 | 640
- 박사암(朴思菴) 상공(相公)의 시에 차운하다 和朴思菴相公韻 323 | 640
- 신여퇴(愼汝賚)【성필(聖弼)】의 시에 차운하다 次愼汝賚【聖弼】韻 324 | 640
- 두 번째 其二 324 | 640
- 앞의 운을 다시 써서 자술(自述)하다 復用前韻自述 325 | 641
- 고청사(高晴沙)의 문집에 있는 청음(淸陰) 김 상공(金相公)의
시를 읽고 감회가 있어 그 시에 차운하다
高晴沙集中 讀淸陰金相公詩有感 步其韻 326 | 641
- 인조대왕(仁祖大王)의 인산일(因山日)에 사암사(沙巖寺)로

나와 우거하며 감회를 쓰다 仁祖大王因山日 出寓沙巖寺書懷	327 641
현학정(玄鶴亭) 시에 차운하다 次玄鶴亭韻	328 641
종제(從弟)의 세심정(洗心亭)에 제하다 題從弟洗心亭	329 641
수운정(岫雲亭)에 제하다 題岫雲亭	329 642
오래 병중에 윤 사군(尹使君)【종지(宗之)】께 드리다 久病呈尹使君【宗之】	330 642
김생(金生)의 운을 쓰다 用金生韻	331 642
영암(靈巖) 홍(洪) 수령【종운(鍾韻)】에게 부치다 寄靈巖倅洪【鍾韻】	332 642
두 번째 其二	333 642
사군(使君) 윤종지(尹宗之)가 천관산(天冠山)을 유람한다는 소식을 듣고 부쳐 올린다 聞尹使君【宗之】遊天冠山寄呈	334 642
구강정사(龜江精舍)의 시에 차운하여 김중원(金仲源)【오(渚)】 에게 보이다 次龜江精舍韻 示金仲源【渚】	335 643
종제(從弟)가 사암산(莎巖山) 아래에 작은 정자를 지으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멋대로 써서 부치다 聞從弟將構小亭于莎巖山下 謾筆以寄	335 643
사군(使君) 윤종지(尹宗之)의 운에 화답하다 酬尹使君【宗之】韻	336 643
금릉(金陵) 조 사군(使君)【성(惺)】에게 화답하다 酬金陵使君趙【惺】	337 643
이 감여(李堪輿)【계현(啓玄)】에게 주다 贈李堪輿【啓玄】	338 643
김중원(金仲源)의 시에 차운하다 次金仲源韻	339 643
두 번째 其二	339 644

김장이(金丈而) 신(愼)의 시에 차운하여 김 거사(金居士)에게 화답하다 次金丈而愼韻 酬金居士	340 644
나자정(羅子整)의 만휴당(晩休堂) 시에 차운하다 次羅子整晩休堂韻	341 644
원운(原韻)을 붙임 附原韻	341 644
조보(朝報)를 보고 감회가 일어 見朝報有感	342 644
서 감사(徐監司)【필원(必遠)]가 관찰사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聞徐監司【必遠]按節	342 644
이 상공(李相公)【경여(敬輿)]의 시에 화운하다 和李相公【敬輿]韻	344 645
윤 충의(尹忠義)【장훈(長勳)]의 산실(山室)에 부치다 寄尹忠義【長勳]山室	345 645
오 씨(吳氏)에게 주다 贈示吳	346 645
김중원(金仲源)【오(攄)]에게 답하다 答金仲源【攄]	346 645
이 사군(李使君)【정(暹)]이 찾아온 데 대해 사례하다 謝李使君【暹]來訪	347 645
종제【해영(海英)]의 산당(山堂)에 부치다 寄從弟【海英]山堂	348 646
부질없이 읊다 漫吟	349 646
두 번째 其二	350 646
묵은 등걸의 분매(盆梅) 古査盆梅	351 646
도동(道洞) 산재(山齋)에 제하다 題道洞山齋	351 646
동짓날 감회가 있어 長至日有感	352 646
거울을 보며 看鏡	353 647

기해년(1651) 봄 응지상소(應旨上疏)를 짓고 점을 쳤는데 둔괘(屯卦)와 둔괘(遯卦)의 점괘를 얻었으므로 올리지 않았으니, 감회가 있어 짓다 己亥春 應旨筮疏 遇得屯遯不進 感而作	354 647
한가한 흥 閒興	355 647
늦봄 暮春	355 647
불어난 물을 보며 觀漲	357 647
두 번째 其二	357 647
경인년(1642) 제야 庚寅除夕	358 648
감시음 感時吟	359 648
생일날 감회 生朝感懷	359 648
한가한 가운데 감회를 적다 閒中書懷	360 648
삼학재(三學齋)에서 제생에게 보이다 三學齋示諸生	360 648
두 번째 其二	361 648
한가히 지내며 장난삼아 제하다 閒居戲題	362 649
노을 霞	363 649
늦봄에 꽃이 만개하였는데 눈바람이 몹시 매서워 시동으로 하여금 운자를 부르게 하여 장난삼아 제하다 暮春花盛 風雪甚烈 令侍童呼韻戲題	363 649
풍토(風土)를 읊다 詠風土	364 649
승지(勝地)를 읊다 詠勝地	364 649
저물녘의 일을 적다 日暮書事	365 650
작은 정자가 강가에 임해 있는데 작은 산이 둘러 있으니, 경치가 기이하고 훌륭하여 붓 가는대로 장난삼아 제하다 小亭臨江 微山橫障 景像奇勝 信筆戲題	366 650

구름을 보며 看雲	366 650
다시 죽림사(竹林寺)를 노닐며 重遊竹林寺	367 650
유거(幽居). 사실체(四實體)를 본뜨다 幽居 效四實體	367 650
제석(除夕)에 감회를 쓰며 스스로 슬퍼하다 除夕書懷自悼	368 650
금사탄 金梭歎	369 651
도민고현 道民古縣	370 651
중원(中原)에 전란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聞中原多亂	371 651
부들부채를 읊다 詠蒲扇	372 651
중구일(重九日)에 홀로 술을 마시다 감회가 있어 九日獨酌有感	373 651
섬돌 옆 푸른 잣나무 아래海棠花(海棠花)가 있어 붉고 푸른빛이 서로 비쳤다. 이에 감회가 일어 제하다 階邊翠栢下有海棠紅綠相映 仍起感而題	374 652
《삼략(三略)》을 읽고 讀三略書	375 652
한가로이 거닐며 閒行	376 652
제석 除夕	376 652
병중의 심회 病懷	377 652
이거 移居	378 652
어떤 사람의 말에 삼신산(三神山)이 모두 우리나라에 있다고 하였는데, 내가 사는 땅이 선포(仙圃)이다. 이에 이 시를 지어 감흥을 일으키다 有人言三神山皆在我國, 吾所居地是仙圃, 仍題此而起興.	378 653
봄날 맑은 강의 저물녘 흥취 春日淸江晚興	379 653
친족 모임 族會	380 653
중용 中庸	380 653

대학 大學	381 653
논어 論語	383 654
맹자 孟子	384 654
비 내린 뒤 雨後	385 654
저물녘 교외를 지나다 우연히 뱀새들이 무리 지어 지저귀는 것을 보고 日暮過郊外 偶見鷓鴣羣噪	386 654
벽 위에 쓰다 書壁上	386 654
겨울날 본 것을 기록하다 冬日記所見	387 654
달 아래에서 감회가 있어 月下有懷	388 655
눈을 읊다 吟雪	388 655
홍 장령(洪掌令)【중운(鍾韻)】에 대한 만사 挽洪掌令【鍾韻】	389 655
종형(진영(震英))에 대한 만사 挽從兄【震英】	390 655
나운봉(羅雲峯)【염(衿)】에 대한 만사 挽羅雲峯【衿】	391 655
윤 충의(尹忠義)【장훈(長勳)】의 내상(內喪)에 대한 만사 挽尹忠義【長勳】內喪	392 655
이씨(李氏)【화백(和伯)】의 개장(改葬)에 대한 만사 輓李【和伯】改葬	393 656
영평(永平) 채후(蔡侯)【충립(忠立)】에 대한 만사 挽永平蔡侯【忠立】	394 656
윤양로당(尹養老堂)【보(保)】에 대한 만사 挽尹養老堂【保】	395 656
외종숙 문장(文丈)【완(玩)】에 대한 만사 挽外從叔文丈【玩】	396 656
정 태의(鄭太醫)【후계(後啓)】에 대한 만사 挽鄭太醫【後啓】	397 656
김생(金生)【일장(日章)】에 대한 만사 挽金生【日章】	398 656

남을 대신하여 지은 이웃 부인에 대한 만사 代人輓隣婦	399 657
윤 충의(尹忠義) [경(敬)]에 대한 만사 挽尹忠義【敬】	400 657
남을 대신하여 지은 만사 代人挽	401 657

남포집 제6권

칠언고시七言古詩

『송사(宋史)』의 희풍(熙豐) · 원우(元祐) 연간의 기록을 읽고 讀宋史熙豐元祐紀	405 661
칠석탄 七夕歎	411 661
행로난 行路難	413 662
월출을 보며 觀月出	418 662
예전의 유람을 추억하며 종형 문백(文伯)에게 부치다 憶舊遊行 寄宗兄文伯	420 662
두 번째 其二	423 663
금릉수(金陵守) 조씨(趙氏) [성(惺)]에게 부쳐 주다 寄贈金陵守趙【惺】	427 663
종제에게 부쳐 주다 寄贈從弟	429 663
장계곡(張谿谷)의 「세서(洗鋤)」 시에 차운하다 次張谿谷洗鋤詩韻	433 664
중양절(重陽節)에 장병에게 연향을 베푼 시 重陽饗將士詩	434 664
불어난 물을 바라보며 觀漲	437 664

명주(明珠)를 읊다 明珠詠 440 | 665

거처를 옮기고서 자술(自述)하다 移居自述 441 | 665

두 번째 其二 444 | 665

연환체 連環體 446 | 666

남포집 제7권

부賦

대풍부 大風賦 451 | 669

감흥부 感興賦 452 | 669

사辭

일유인사 一幽人辭 454 | 670

국슬사 鞠蟲辭 456 | 670

남포집 제8권

소疏

인조의 분묘(墳墓)에 달려가 곡을 한 후 국사에 대해 논한 상소
山陵奔哭後言事疏 469 | 675

남포집 제9권

書

우산에게 올린 질의서 上牛山質疑書 511 | 689

맹교를 대신하여 한퇴지의 ‘명’이라는 글자에 관한 송서에 답한 편지
代孟郊答退之鳴字序書 521 | 691

나【두삼】태서의 별지에 답하다 나두삼이 예에 대해 물었으므로 선생이
답한 것이다 答羅斗三 台瑞別紙 羅斗三問禮 故先生答之 ... 525 | 692

별폭 別幅 529 | 693

심경문목 心經問目 533 | 694

이사원(李士元)【문석(文碩)】에게 주는 편지
贈李士元【文碩】書 537 | 695

신씨(愼氏)【성필(聖弼)】에게 답하는 편지 答愼【聖弼】書 540 | 696

신씨(愼氏)【성필(聖弼)】에게 답하는 편지 答愼【聖弼】書 543 | 697

신씨(愼氏)【성필(聖弼)】에게 부치는 편지 寄愼【聖弼】書 545 | 697

신씨(愼氏)【성필(聖弼)】에게 답하는 편지 答愼【聖弼】書 546 | 697

이 정언(李正言)【수인(壽仁)】에게 답하는 편지
答李正言【壽仁】書 548 | 698

이 전한(李典翰)【수인(壽仁)】에게 답하는 편지
答李典翰【壽仁】書 550 | 698

별록 別錄 553 | 699
 이생(李生)【유인(有仁)】에게 주는 편지 與李生【有仁】書 558 | 700
 문생(文生)【사고(師古)】에게 주는 편지 與文生【師古】書 559 | 700
 정처직(鄭處直)에게 부치는 편지 寄鄭處直帖 561 | 700
 정씨(鄭氏)【세륜(世綸)】에게 답하는 편지 答鄭【世綸】書 562 | 701
 윤군(尹君)【선삼(先三)】 및 문생(文生)【팔주(八柱)】, 조카
 정씨(鄭氏)【세경(世經)】 등에게 주는 경계의 편지
 與尹君【先三】暨文生【八柱】鄭侄【世經】等戒書 563 | 701

남포집

《남포선생집》 후서 南圃先生集後序

《남포선생집》 신간 발문 南圃先生集新刊跋

《남포선생집》 옛날 발문 南圃先生集舊跋

남포선생집(南圃先生集) 해제

나천수 / 나주시 향토문화연구회 부회장

1. 생애와 출신 배경

남포 김만영¹은 당약김씨 9세로 자는 영숙(英叔) 호는 남포(南圃)로 아버지 김태흠(金泰洽)과 어머니 나주나씨 사이에서 장남으로 1624년에 태어나 1671년에 졸하였다.

살아생전에 세자의위사 세마(世子翊衛司 洗馬) 그리고 내시교관(內侍敎官)에 제수되었으나 벼슬이 화려하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그의 학문은 심오한 경지에 몰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유집에 수록된 작품만 보더라도 매우 심오한 학문의 경지를 득도한 것 같다. 이처럼 그가 문학으로 명성을 날릴 수 있었던 것은 당대에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문학적 자질 또는 문학적 DNA가 핏줄로 이어 온 것 같아, 선생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여기에 소개 하고자 한다.

선생은 당약김씨 9세인데 그의 5대 선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나주 왕곡면 귀업리(龜業里)에 자자일촌을 이루며 살았던 당약김씨 터와 당약김씨를 세상에 널리 알린 인물이 있으니, 바로 진사 김효정(金孝禎)이다. 당약김씨 4세 진사 김효정은 충주박씨 박우(朴祐)를 사위로 맞아들인다. 구전되어오는 이야기로는 대체로 부유하게 살았던 김효정은 사위 박우를 나주 처가 쪽으로 불러들여 공부를 시켜 마침내 1510년(중종5) 식년시 문과에 16위를 급제를 하였으니 얼마나 기뻐했겠는가? 더더욱 김효정의 외손자 사암 박순(朴淳)은 1553년(명종8)에 문과 장원 급제하고, 이조참의, 대사헌, 예조판서, 우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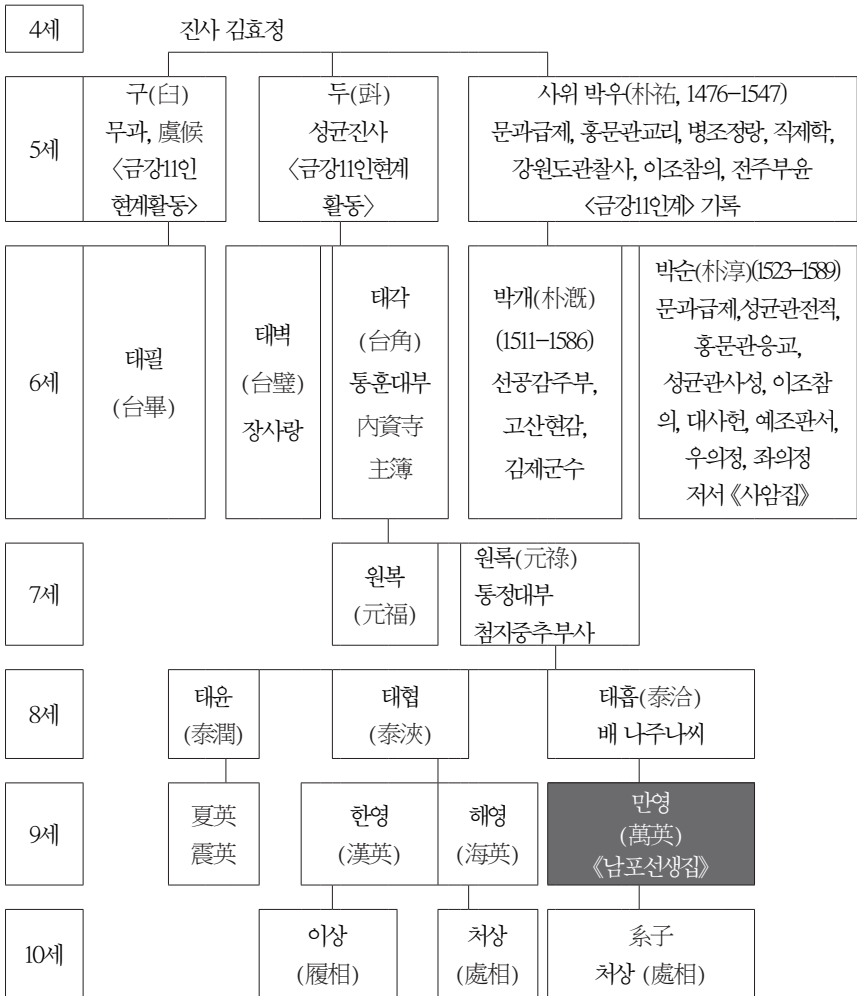
1 이하 선생이라 호칭한다.

좌의정을 역임한 문신이 되었으니, 나주 당약김씨는 더더욱 빛을 보았을 것이다.

한편 1519년 기묘사화 때에 나주출신 선비 11명이 성균관에서 숙식을 하며 공부를 하고 있었다. 그중에 두 명이 바로 김효정의 두 아들 김구(金臼)와 김두(金斗)도 있었다. 이들 11명이 궁궐에 가서 조광조를 신원하는 하소연을 하다가 쫓겨나게 되자, 그러한 정치상황에서 벼슬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라고 반문하고 11명 모두 나주로 낙향하여 소위 「금강11인 현계(錦江11人賢契)」를 결성하여 매양 좋은 날에 영산강을 선유하며 시주(詩酒)로 세월을 보냈다는 것이 여지승람과 나주읍지에도 기록될 정도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당시에 지었던 정자와 글이 모두 정유재란 때 불타 없어지고, 오로지 김두의 시한수와 당시 회원인 나일손의 아들 나창[羅昶], 세자시강원 필선이 남긴 차운 시 한수만 남아 있다.

선생의 가승을 보면 김효정 - 김두 - 김태각 - 김원록 - 김태흡 - 김만영의 핏줄이 이어짐을 볼 수 있다. 또한 그는 남평에서 활동하다가 물러나 고향에 돌아와 정유재란 이후에 맥이 끊어진 「금강11인 현계」의 계척을 복원하고 현계 회원의 후손들 간에 모임을 계속 이어지도록 복원 하였다. 그러한 활동의 숨은 공로가 오늘날 왕곡면의 금사정(錦社亭)에 담겨져 있다. 「금강11인 현계」가 태동한지 어언 500년이 흘렀지만 그 후손들이 오늘날까지 교류를 하고 있어 이 분야도 학문적으로 연구해 볼 만하다.

〈표1〉 나주 귀업리 당악김씨 문학 가승도



2. 《남포선생집》 서지(書誌) 사항과 문집 구성내역

《남포선생집(南圃先生集)》은 1831년에 목활자본으로 간행하였다. 권수제나 판심제나 모두 같으며, 권책은 원집(原集) 16권, 부록(附錄) 2권의 2책으로 행자는 10행 20자에 규격은 25.7×18.1(cm)이다 어미는 상일엽화문어미(上一葉花紋魚尾)이다. 총392쪽으로 되어 있다.

《남포선생집》은 문인 나만성(羅晩成/金漢明)의 외조카, 1678년 문과급제의 편집을 거쳐 1831년(순조31)에 5세손 김양국(金亮國)이 주축이 되어 간행하였다.

목활자본이 간행되기까지의 과정은 세 사람의 권수(卷首) 글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가장 오래된 발문은 1698년(숙종24)에 이현일(李玄逸, 1627-1704)에게 써 받았는데, 이현일은 1627-1704년대 인물로 사헌부장령, 이조참판, 대사헌 등을 역임한 문신이며 학자인데, 선생의 제자이며 당시 사헌부 지평 나만성(羅晩成, 1646-1700)이 서울의 이현일 집을 찾아가 《남포선생집》의 서발(序跋)을 창하였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다. 그 후 이현일은 1697년 광양현에 이배(移配)한 것으로 보아, 전라도로 귀양 온 이현일을 선생의 외손자 나경성(羅景聖)이 찾아가 남포집 발문을 예전 나만성이 부탁한 바를 상기시키면서 마침내 써 받은 듯하다.

그렇다면 이때는 필사본으로 된 《남포집》이 먼저 탈고되었을 것으로 유추되나 그 흔적을 알 수 없고 나만성, 나경성 사후 여러 해를 미루었다가 선생의 5세손 김양국(金亮國/字 明叟)이 목활자본으로 발간하고자 1831년 지제조(知製敎) 안동김씨 김유헌(金裕憲)에게 부탁하여 후서(後序)를 써 받고, 또한 1831년 무안 현감 한용간(韓用幹)에게 신간발(新刊跋)을 써 받았다. 그리하여 이현일의 발문을 구발(舊跋)로 넣어 목활자본을 만들어 낸 것이다. 김양국의 가승을 보면 다음과 같다. 台角-元福-泰溟-百英-國亨-汝澤-命祚-禎瑜-亮國이다.

<표2> 남포선생 문집 수록 현황

목차 NO	항 목		내 용
권1-권6	詩	5언절구	78제 86수
		5언율시	27제 29수
		5언배율	3제 3수
		5언고시	17제 18수
		5언절구	231제 278수
		7언율시	100제 106수
		7언고시	12제 14수
	소계		460題目 534수
권7	賦, 辭		賦/2편 辭/2편
권8	疏		疏/ 2편
권9	書		書/17편
권10	序,記,跋		序/11편, 記/9편. 跋/3편
권11	經義說		17편
권12	贊,銘,頌,箴, 상량문, 제문, 묘갈명	贊/3, 銘/3, 頌/1, 箴/8, 상량문/2, 제문/6, 묘갈명/2	
권13	論, 傳, 檄, 義,	論/2 傳3, 檄/2, 義/1	
권14-권15	日記		南郊日記 上, 下
권16	經世通典		經世通典
부록 권1-권2	가장, 행장, 묘갈명, 서술, 제문, 축문, 발문	가장, 행장, 묘갈명, 서술15조, 제문2, 축문, 발문	

《남포선생집》은 제목으로 보아도 총565편의 많은 글이 수록되었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특징이 보인다.

첫째, 작품을 쓴 간지(干支)를 거의 기록해 놓지 않아서 작품 생산의 연보를 쓸 수 없다는 점이 단점이다. 다만 몇 군데 글만 간지를 알 수 있게 하였다.

특히 오언고시 <감흥(感興)>에서 “나이 14살에 짓다”란 기록 한곳이 있다. 오언고시 132연의 시를 14살에 지었다는 것은 천재성을 보여준 것이다.

둘째, 1831년 간행본을 발간하면서 특히 시에서 “일작(一作)” 즉 어떤 본에는 글이 다르게 써졌다는 것을 13번이나 기록하고 있다는 점은 1831년 이전에 미상(未詳)의 초간본이 있었다는 말이다. 그런 연유 때문인지 1831년 간행하면서 무안현감 한용간에게서 써 받은 발문이 “신간발(新刊跋)”로 썼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렇다면 최초 간행본은 언제쯤 만들어졌을까? 그 해답은 「갈암집 제21권 > 발」에 쓰인 이현일이 쓴 <書南圃金公行狀後>에 그 해답이 있다. 여기에서 “호남(湖南)의 징사(徵士)인 남포 김공 만일(金公萬鎰)은 죽은 지 이미 28년이 된다. 그 문인인 간의(諫議) 나만성(羅晩成)이 서울 집으로 나를 찾아와 그의 유문(遺文) 3권을 주고”라 한 것을 보면, 남포의 최초 문집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러나 그의 이름을 만일(萬鎰)로 하였는데, 만영(萬英)의 오기(誤記) 같다. 그러므로 “구발(舊跋)”은 ‘나간의(羅諫議/나만성)가 써달라고 한 것을 미루다가 이현일이 1697년 광양현에 이배(移配)한 것으로 보아, 전라도로 귀양 온 이현일을 외손자 나경성(羅景聖)이 찾아가 1698년도에 써 받은 것으로 유추되며, 구발(舊跋)의 기록 내용과 일치한다.

셋째, 문집의 발문(跋文)을 권수(卷首)에 놓아 서문(序文)역할을 하게 한 점이다. 서문(序文)은 대체로 선생 살아생전에 교유했던 문장가에게 받아야 맞는데, 이때를 놓치고서 훗날 후세사람에게 서문을 써 받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사후 28년만[1698년에 써 받은 발문을 1831년에 문집 간행하면서 책머리에 넣어 간행하면서 ‘舊跋’ 이라고 한 것이다.

선생의 사승(師承)관계는 문집에 특별히 기록해 놓지 않아서 글의 내용이나 족보기록으로 유추해 낼 수밖에 없다.

족보에 보면 아버지 김태흠(金泰洽)은 문장과 학행이 뛰어나, 당세에 향시

(鄉試)에서 1등을 하여 여러 번 천거되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선생의 유년 스승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여 진다.

한편 문집 서간문 편에 보면 스승을 대체로 유추할 수 있는데, 그런 맥락으로 보면 우산 안방준(安邦俊)과 이수인(李壽仁)을 스승으로 볼 만하다.

안방준은 1573-1654년 대 인물이니 선생의 51년 대선배이다. 서간문 편 첫째 수록된 편지가 <상우산질의서(上牛山質疑書)>인데 이는 ‘이때에 우산 안방준이 <우산답문>이라는 글을 지었는데, 그 의론이 편벽되었다. 그러므로 선생이 변론을 지어 질의하신 것이다.’라 기록해 놓고 있으며, 글의 내용을 보면 사제 간 자신의 견해를 논하여 스승께 올리는 편지임을 알 수 있다.

이수인(李壽仁)은 1601-1661년대 인물이니 나이로 보아도 선생보다 23살 위이다. 1633년 문과급제하고 진직, 병조좌랑, 지평 등을 역임한 문신이다. 1654년 홍문관교리·집의·장악원정·사간·부수찬 등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그 뒤 여러 차례에 걸쳐 관직이 제수되었으나 모두 사양하였다. 경사·성리학에 모두 밝았다. 이수인에게 올리는 답서의 글과 <부시선생 이심경질문(附時先生以心經質問)>를 보면 사승관계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는 남평과 고향 나주 귀업리에 와서 살 때 배우러 오는 제자들을 물리치지 않고 가르쳤다. 특히 남평에서는 백록동서원(白鹿洞書院)의 유의(遺意)와 같이 하였는데 문하에 출입하는 자들 중에는 또한 이론가(異論家)의 자제들이 있어 마침내 문생(門生)과 자제(子弟)들이 심히 미워하여 유언비어(流言蜚語)로 험뜯고 억지로 죄안(罪案)을 만들었기에 마침내 가솔(家率)들을 이끌고 나주(羅州)의 고향으로 왔다. 나주에서도 배우는 자가 끊이지 않으니 그의 평생은 가르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가르치는 교학상장(教學相長)의 수범이 된 듯하다.

3. 문집 항목별로 특이점

시편을 보면 <표2>에서 본바와 같이 그는 평생 460제목에 534수의 시를 지었다. 특히 본 유집에는 13세 때부터 지은 시가 수록되었는데 14세 때 지은 오언고체시 <감흥>은 총132연으로 그가 시의 천재임을 여기서 보여준다 하겠다.

이현일도 ‘나이 겨우 훼손(毀齷 이를 갈 정도의 나이인 7, 8세)에 언어와 행동이 보통의 아이와 달랐고, 나이 12, 3세 때에는 《대학(大學)》, 《중용(中庸)》을 배웠다’라 한 것을 보면 그가 범상치 않은 인물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면서 벼슬을 제수하여도 나아가지 않고 두문불출 배우면서 가르치는 일에 몰두 한다. 그가 지은 시제(詩題)를 보면 자연의 사물, 현상, 경치 등을 마음의 눈으로 보고 쓴 시가 매우 많다. 마음의 눈으로 보면 자연이 경승(景勝)으로 보인다. 자신의 서재인 구암서실(龜巖書室)에서 이른 바 팔경을 읊었는데, 1경 구암효운(龜巖曉雲), 2경 오령만하(鰲嶺晚霞), 3경 죽포어적(竹浦漁簃), 4경 송암범중(松庵梵鍾). 5경 북록청송(北麓晴松), 6경 동정제월(東亭霽月), 7경 봉악조돈(鳳岳朝暾) 8경 저탄모범(猪灘暮帆)이다.

영암 구림에 중제 해영(海英)이 사는데 아마 해영의 구호정사(鳩湖精舍)에서도 팔경(八景)을 지었으니 1경 서호추월(西湖秋月), 2경 용산락조(龍山落照), 3경 강촌모연(江村暮烟), 4경 전교춘흥(前郊春興), 5경 동원청견(東園聽鶉), 6경 남맥문앵(南陌聞鶯), 7경 학령귀운(鶴嶺歸雲), 8경 구봉만풍(龜峯晚風)이다.

이러한 시문은 장차 향부(鄉富)의 자원으로 상품화가 될 여지가 매우 많다.

소(疏)편을 보면 단 두 편만 수록된 것을 보면 그가 정치 지향적 인물이 아니란 것을 알 수 있다. <산릉분곡후언사소(山陵奔哭後言事疏)>는 인조 승하 후 올린 상소로, 국론이 분열된 현실과 국론 분열이 망국의 길임을

역설한 후, 임금이 마음을 바르게 하여 시기하고 편당하는 구습(舊習)을 일소해야 나라가 안정될 수 있음을 주장한 상소이다. <만언소(萬言疏)>는 지었지만 상소를 올리지 않은 것인데, 1659년 효종에는 기근이 매우 심하였다. 내용 가운데 대동법이 근기(近畿) 지방에는 유효하나 원방(遠方)인 경우에는 적실하지 못하다는 주장과 향병(鄉兵)의 창설 주장 등은 조세(租稅)와 병제(兵制) 개혁 논의가 활발했던 당시 시대상과 관련하여 주목된다.

서간문은 총 16편인데, 스승 안방준과 이수인과의 학문에 관한 의견을 나누는 편지가 돋보인다. 기타 편지를 보면 영암의 효자 신성필(愼聖弼)에게 답하는 편지가 4편이고, 나머지도 제자나 벗들에게 답하는 글이다.

권10은 序(11), 記(9), 跋(3) 편인데, 모두 청탁을 받아 쓴 것이지만 유독 <금강중수계서(錦江重修禊序)>는 1665년 남평에서 나주 고향마을로 돌아와 기묘사화 때 결성된 <금강11인현계>의 후손들과 수계를 복원하고자 노력하였다. 더더욱 선생의 고조부 김구와 김두는 11인중에 두 분이 참여하였기에 <금강11인 현계>에 연민의 정이 많았던 것 같다.

서문에 보면 ‘기묘사화 때 결성된 수계가 정유재란 때 끊어졌는데, 1603년 조부 김원록(金元祿)이 이를 이어 받았다가 1665년 선생이 남평에서 고향 나주로 와서 계부 김태윤(金泰潤)과 상사 정국현(鄭國賢)과 함께 계칙을 중수하였다.’라 하였으니 그 중수계칙의 서문에 쓴 글이다. 한편 그의 조카 김이상(金履相)은 <중수계안후서>를 썼다. 이렇게 계칙을 복원하고 매년 후손 자손들이 만남의 장을 갖게 되었고, 그 후 1869년 나주 도약장(都約長)을 역임한 나동륜(羅東綸)은 이를 이어 받아 금사정(錦社亭)을 개축한 기록이 현재에도 금사정에 현판으로 게첨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비록 미미하기는 하나 <금강11인 현계>가 오늘날까지 회장 총무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다만 옛일로 간과해서 아니 될 것 같다.

권11은 경의설(經義說)인데 주로 경문(經文)에 관한 것으로 <중설(中

說)), <중용스장지도(中庸首章之圖)), <중용수장존양성찰지도(中庸首章存養省察之圖)), <중용분절변의(中庸分節辨義)), <중용분위오대절(中庸分爲五大節)), <덕성문학도(德性問學圖)) 등 중용(中庸)에 대한 글들이 많다.

중용(中庸)에 관한 도설(圖說)에도 그의 독자적인 해석 이 드러난다. 중용수장지도(中庸首章之圖)는 성(性), 도(道), 교(教)를 주제어로 파악해 도표화 한 것이며 인심도심도(人心道心圖)는 왕백(王白)의 「인심도심도」의 문제점이 있음을 발견하고 독자적인 시각으로 새롭게 그린 것이다. 이 두 도표는 주자(朱子)와 왕백(王白)의 해석과 일정하게 변별되는 독자성을 갖는다.

그는 또 중용장구 제1장의 존양, 성찰에 해당하는 부분을 중시하여 중용수장존양성찰지도(中庸首章存養省察之圖)를 별도로 그렸는데 존양공부와 성찰공부를 통해 지정(至靜), 지동(至動)에 이르러 치중화(致中和)함을 도표화 한 것이다. 또한 「중용장구」 제27장의 존덕성(尊德性)과 도문학(道問學)을 존심(存心)과 치지(致知)로 나누어 「덕성문학도(德性問學圖)」를 그렸다.

<역상소결(易象小訣)>은 “경술년(庚戌年, 1670년, 현종11)에 여러 학생들을 위하여 저술하기 시작했으나, 병이 위독하여 송괘(訟卦)에서 그치고 말았다”는 부기(附記)가 있다.

특히 경의(經義說)은 곧 경서의 뜻을 말하는 것으로, 조선조 하반기 1894년 식년시를 마지막으로 문과 과거 시험이 폐하게 되자 많은 선비들이 대거 반발하자, 조선정부는 1904년과 1907년 두 번에 걸쳐 성균관에서 경의 문고 답하는 경의문대(經義問對)의 시험을 치러 인재 발탁을 끝으로 조선조의 과거제도는 막을 내렸다.

권12는 찬(贊), 명(銘), 송(頌), 잠(箴), 상량문(上梁文), 제문(祭文), 묘갈명(墓誌銘) 등

총24편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그가 주장하는 잠(箴/경계)을 보면, 마음을 오로지하여 잡된 것을 들이지 말라는 주일잠(主一箴), 배움을 경계하는 경학잠(警學箴), 자신을 경계하는 자경잠(自警箴), 자신을 새롭게 한다는 자신잠(自新箴), 술을 조심하라는 계주잠(戒酒箴), 여색을 조심하라는 계색잠(戒色箴), 게으름을 조심하라는 계타잠(戒惰箴), 몸가짐에서 족(足), 수(手), 목(目), 구(口), 성(聲), 두(頭), 기(氣), 입(立), 색(色)의 아홉 가지에 있어서 군자가 지녀야 할 자세를 말하는 구용잠(九容箴)에서 선생의 철학이 무엇이고 행동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해 주고 있다.

권13은 논(論), 전(傳), 격(檄), 의(義)로 총 7편이 수록되어 있다.

〈유기졸격(喻氣卒檄)〉은 지(志)를 장수로 기(氣)를 병졸로 의인화하여 지수(志帥)가 기졸(氣卒)에게 명을 따를 것을 효유하는 격문이다. 〈광나양읍전에격(光羅兩邑戰藝檄)〉은 나주 유생의 입장에서 광주 유생들에게 서로 만나서 문예(文藝)를 겨룰 것을 요청한 격문으로 전쟁과 관련된 역사적 인물들을 문장에 결부시켜 비유하고 있다.

권14~15는 남교일기(南郊日記)로, 김만영이 남평에서 살고 있을 때인 1649년(효종 즉위) 7월부터 1665년(현종 6) 2월까지의 일기이다. 그는 시편에서 「제일기(題日記)」라는 시를 지어 인간사를 사절(謝絶)하고 소책자에 한가한 생활을 기록한다고 하여 일기를 처음 쓰게 된 배경을 밝혔다. 일기는 매일 매일의 것이 아니라 중요한 날짜의 것만 있다.

이 일기의 하권에는 효종이 승하하자 조대비의 복상문제로 남인·서인 사이에 있었던 예설 논쟁을 날날이 기록하고 있다. 당시의 당쟁사를 이해하는데 참고자료가 된다. 그리고 남평·나주 지역 양반들의 동향이나 선생의 지인·제자 동향, 그리고 기근이나 세금 등 지역사회의 생생한 모습이 이 일기에 담겨 있다.

권16은 〈경세통전(經世通典)〉으로 사(士)·농(農)·공(工)·상(商)·병

(兵)·승(僧)을 조치하는 데 있어서의 타당한 방도를 논하였다.

부록 권1에는 나만성(羅晩成)이 지은 가장(家狀), 임원(任遠)이 지은 행장(行狀), 이명적(李明迪)이 지은 묘갈명(墓誌銘)이 수록되었고, 말미에 심계석(沈啓錫)이 지은 후서(後敍)가 있다.

부록 권2에는 윤증(尹拯)의 《명재유고(明齋遺稿)》, 남구만(南九萬)의 《약천집(藥泉集)》 등 각종 문헌에 실린 저자 관련 기사와 저자 문인(門人)들의 기록, 남용익(南龍翼)의 《기아(箕雅)》에 실린 저자의 시 등을 수합한 〈서술(敍述)〉과 문봉의(文鳳儀), 나위(羅禕)가 지은 제문, 유명현(柳命賢)이 지은 〈풍산사우춘추향축문(楓山祠宇春秋享祝文)〉이 수록되어 있다.

4. 남포 김만영의 작품 연보 및 행력

이상의 기록을 종합하여 선생의 행력을 표로 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3〉 남포선생 연보

왕력	서기	간지	연령	기사	
인조	2	1624	갑자	1	2월 17일, 羅州 龜業里에서 태어나다.
인조	14	1641	병자	13	칠언절구 〈寓意〉를 짓다
인조	15	1637	정축	14	○ 132연의 오언고체시 〈感興〉을 짓다 ○ 칠언율시 〈呈飛來閣主人〉을 짓다 ○ 오언절구 〈題黑邊桃花翁〉를 짓다.
인조	16	1638	무인	15	부친상을 당하다. ○ 이 당시 일가 친지 십여 명이 瘵疾에 걸려 죽고 부친 또한 이 병에 걸렸는데, 저자가 집안의 獨子인 관계로 가족들이 전염을 우려하여 侍病과 治喪을 하지 못하도록 하다. 이후 저자를 공격하는 이들이 이 일을 비난의 빌미로 삼다.
인조	20	1642	임오	19	○ 칠언절구 〈戲題桃花扇〉을 짓다
인조	27	1649	기축	26	2월, 鄉薦으로 內侍敎官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 趙綱의 천거로 翊衛司 洗馬 [정9품]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 오언절구 〈題日記〉를 짓다 ○ 칠언절구 〈晚渡銅雀〉, 〈紀夢【並序】〉, 〈酬尹使君【宗之】寄詩韻〉를 짓다 ○ 칠언율시 〈仁祖大王因山日, 出寓沙巖寺書懷〉, 〈聞尹使君【宗之】遊天冠山寄呈〉를 짓다

효종	1	1650	경인	27	御史로 내려왔던 閔鼎重이 조정에 褒啓하다. ○ 칠언절구 〈庚寅正月〉, 〈贈堂侄【履相, 履相時年十二】〉를 짓다 ○ 칠언율시 〈庚寅除夕〉을 짓다 ○ 칠언고시 〈觀月出〉를 짓다
		1651	신묘	28	○ 칠언절구 〈辛卯元日〉, 〈宿先塋下村有感【辛卯正月, 以改窆事, 留金崖盤之谷】〉을 짓다
효종	3	1652	임진	29	安邦俊의 〈牛山答問〉에 대한 반론 편지인 〈上牛山質疑書〉를 쓰다.
		1653		30	○ 칠언절구 〈己亥大饑, 丐民盈路, 感而有作〉를 짓다
효종	5	1654	갑오	31	모친상을 당하다.
		1655		32	○ 칠언율시 〈寄靈巖倅洪【鍾韻】〉를 짓다
효종	7	1656	병신	33	南平縣으로 移居하다. ○ 칠언율시 〈謝李使君【最】來訪〉를 짓다
효종	8	1657	정유	34	
효종	9	1658	무술	35	○ 칠언율시 〈寄從弟【海英】山堂〉, 〈聞徐監司【必遠】按節〉, 〈挽洪掌令【鍾韻】〉을 짓다
효종	10	1659	기해	36	〈萬言疏〉를 짓다. ○ 오언배율 〈孝宗大王輓辭〉를 짓다 ○ 칠언절구 〈聞特命復軍職, 感而有作〉, 〈雪晴〉, 〈己亥大饑, 丐民盈路, 感而有作〉을 짓다 ○ 칠언율시 〈應旨筮疏, 遇得屯遯不進, 感而作〉, 〈謝贈南校理【時南公九萬以暗行御史來訪故云】〉를 짓다
효종	-	~	~	~	門生이 慈懿大妃의 服制 논쟁에 대한 시비를 묻자 許穆과 尹鑄의 3년설을 지지하다.

현종	1	1660	경 자	37	司勇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 어사로 내려왔던 南九萬이 조정에 褒啓하다. ○ 칠언절구 〈사증남교리(謝贈南校理)를 짓다 ○ 서간문 〈贈李士元【文碩】書〉를 보내다
현종	2	1661	신 축	38	敎官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 칠언절구 〈雪後野坐〉, 〈挽李惺庵【壽仁】〉, 〈挽羅雲峯【禎】〉를 짓다 ○ 칠언율시 〈挽羅雲峯【禎】〉를 짓다 ○ 오언율시 〈挽羅雲峯【禎】〉를 짓다 ○ 오언배율 〈李惺庵【壽仁】〉를 짓다
현종	3	1662	임 인	39	○ 서간문 〈答鄭【世綸】書〉를 보내다
현종	4	1663	계 묘	40	○ 오언율시 〈寄贈金陵使君趙【惺】〉를 짓다 ○ 칠언고시 〈寄贈金陵守趙【惺】〉를 짓다
현종	6	1665	을 사	42	南平 縣令 宋時杰이 저자가 모친상 중에 아이 낳은 것을 문제 삼아 공격하자 羅州에 은거하다. ○ 서간문 〈與尹君【先三】暨文生【八柱】鄭侄 【世經】等戒書〉를 보내다 ○ 오언율시 〈龜江勝遊〉를 짓다 ○ 칠언절구 〈自述〉, 〈南平倅宋時杰, 與營將遊 龜潭〉를 짓다
현종	7	1666	병 오	43	○ 칠언절구 〈紀夢〉을 짓다 ○ 〈錦江重修禊序〉를 쓰다.
현종	8	1667	정 미	44	○ 칠언절구 〈己酉十一月十八日夢, 余從竹籬 下歸來, 仍聳身高飛, 快似登天然. 乃詠此 絕, 覺後記之〉를 짓다 ○ 오언배율 〈挽羅同知【緯素】〉를 짓다
현종	9	1668	무 신	45	○ 칠언절구 〈紀夢〉를 짓다.

현 종	10	1669	기 유	46	○ 칠언절구 <其二【己酉十一月十八日夢, 余從竹籬下歸來, 仍聳身高飛, 快似登天然. 乃詠此絕, 覺後記之.】>, <贈惠上人>, <閱參同契, 莫究其妙, 仍種菊起感>를 짓다
현 종	11	1670	경 술	47	<易象小訣>을 짓다. ○ 칠언절구 <祈雨>, <謝雨>, <玉岫庵. 次朴煙波韻, 以寓景仰之懷>, <次廣谷子韻>, <庚戌四月初八日, 午潮方平……>를 짓다
현 종	12	1671	신 해	48	○ 칠언절구 <夢作>을 짓다 ○ 칠언절구 <春帖>을 짓다 5월 10일, 졸하다. ○ 南平 牆巖山에 장사 지내다.
숙 종	4	1678	무 오	-	羅州 楓山祠에 제향되다.
순 조	31	1831	신 묘	-	5대손 金亮國 등이 목활자로 문집을 발행하다.

※ 참고자료 : 승정원일기 검색 결과 참조. 죽은 이의 연도 족보 참조 등

※ 금릉사또 즉 강진현감 趙惺은 趙礪의 오기 같다. 승정원일기 1663년 조에 趙礪爲 康津縣監라 하였으며 榜目에도 趙礪으로 되어 있다.

5. 마무리 글

남포 김만영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금강11인 현계」의 연구가 같이 되어야 남포를 제대로 알 수 있다. 그리고 기묘사화 이후 500년이 흘렀고, 선생이 돌아가신지 2019년 현재 348년이 지났으나 <금강11인현계>의 맥이 오늘날 까지 이어져 현재는 당악김씨 김승병이 회장이고 나누나씨 나중석이 총무로 일하고 있다.

세월이 흘러 선생의 사당 풍산사(楓山祠)가 남평에 있었던 것을 2005년

경에 나주 귀엽리 고향으로 이축된 것이 변화의 모습이다. 그러나 변하지 않은 것은 선생의 유집 속에 녹아있는 선생이 혼이다. 선생의 문집이 학계에서 관심을 두고 번역과 학술적 재조명을 하게 되니 만사지탄이지만 참으로 호남학 연구에 다행한 일 아니겠는가.

《남포선생집》 후서 南圃先生集後序

기자(箕子)²가 <홍범(洪範)>에서 “편벽됨이 없고 편당함이 없다.[無偏無黨]³”라고 하였고, “음당한 벗을 두지 아니한다.[無有淫朋]⁴”라고 하였으니, 이는 붕당(朋黨)에 대해 깊이 마음을 쓴 것이다.⁵ 우리 동방은 기자를 조종(祖宗)으로 삼아서 역사서에서는 “어진 이의 교화(仁賢之化)”라고 일컬었는데,⁶ 붕당에 대한 의론이 우리나라에 가장 성행하여 떠나 할 것 없이 온 나라 사람이 탕평(蕩平)하고 정직(正直)한 길로 나아가는 이가 거의 없는 것은 또한 유독 어째서인가.

금성(錦城) 김군 명수(金君明叟)⁷가 그의 선조인 남포선생(南圃先生)의 유집(遺集)을 보여주었는데, 단지 두 책(冊) 뿐이었다. 시문(詩文)·서(書)·소(疏)·기사(記事) 몇 편뿐이었으나, 그 언의(言義)의 공정함과 기상(氣像)의 광대함은 거의 근세의 문장에서는 보지 못한 것이었으니, 오호라!

- 2 기자(箕子) : 기자는 비간(比干)·미자(微子)와 더불어 은(殷)나라 삼인(三仁) 중의 한 사람이다. 은나라가 멸망한 후에 주(周)나라 무왕(武王)의 물음에 답하여 천하를 다스리는 아홉 가지의 대법(大法)인 홍범구주(洪範九疇)를 가르쳐 주고는 조선의 평양(平壤)으로 옮겨와 기자조선(箕子朝鮮)을 세웠다고 전해진다.
- 3 <홍범(洪範)>에……없다 : <홍범>은 《서경》<주서(周書)>의 편명으로, 기자가 지었다고 한다. 참고로, 그 구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편벽됨이 없고 편당함이 없으면 왕도가 평탄하며, 편당함이 없고 편벽됨이 없으면 왕도가 안정되며, 상도(常道)에 위배됨이 없고 기우이 없으면 왕도가 정직할 것이다.[無偏無黨, 王道蕩蕩; 無黨無偏, 王道平平. 無反無側, 王道正直. 會其有極 歸其有極]”라고 하였다.
- 4 음당한……아니한다 : 위와 마찬가지로, 《서경》<주서 홍범>에 나오는 말이다. 참고로, 그 구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무릇 그 서민이 음당한 벗을 두지 아니하며, 사람이 사사로운 덕을 두지 아니함은 오직 임금에 극을 짓기 때문이다.[凡厥庶民, 無有淫朋, 人無有比德, 惟皇作極.]”라고 하였다.
- 5 깊이……것이다 : 《사기(史記)》권84 <굴원전(屈原傳)>에 “군주를 보호하고 나라를 일으키며 그것을 반복하려거든 한편 가운데 깊이 마음을 쓸 것인가.[其存君興國, 而欲反復之, 一篇中, 三致意焉.]”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 6 역사서에……일컬었는데 : 《동몽선습(童蒙先習)》에 “주나라 무왕이 기자를 조선에 봉하되, 기자가 백성들에게 예의를 가르쳐서 여덟 조목의 가르침을 베푸니, 어진 이의 교화가 있었다.[周武王, 封箕子于朝鮮, 教民禮義, 設八條之教, 有仁賢之化.]”라고 한 것을 가리킨다.
- 7 금성(錦城) 김군 명수(金君明叟) : 누구인지 자세하지 않다.

선생은 참으로 홀로 우뚝이 선 호걸지사(豪傑之士)라고 일컬을 만하도다.

효종(孝宗)과 현종(顯宗) 무렵에 당론(黨論)이 더욱 거세져 현자(賢者) 들까지도 옷자락을 걷어 올리고서⁸ 허둥지둥 쫓아다니는 지경이었는데, 선생은 이러한 때에 숲속에서 도(道)를 강론하여 아름다운 명성이 크게 드러났다. 저마다 문호(門戶)를 세운 자들이 공사(公事)를 빙자하여 좌지우지해서 득세하고자 하지 않는 이가 없었는데, 선생은 우뚝이 홀로 서서 편벽되지도 않고 치우치지도 않으면서 논의하는 사이에 오직 올바른 것만을 허여하니, 알지 못하는 자들은 떠들썩하게 촉(蜀)나라 해를 보듯이 하였으나,⁹ 공론(公論)도 또한 이 때문에 선생을 훌륭하게 여겼다. 공경대부(公卿大夫)들이 일제히 천거하여 초빙하는 활과 깃발¹⁰이 여러 차례 사립문에 이르렀으니, 성대하도다. 확연(廓然)히 매우 공정하여¹¹ 털끝만큼도 사호(私好)가 없는 것이 아니라면 어찌 사람의 마음을 감복시키며 이와 같을 수 있단 말인가.

그 마음을 보존함이 이와 같았다. 그러므로 시문(詩文)에 발로 된 것이 모두 유연(悠然)히 자득하고 만물과 화락하여 기수(沂水)와 무우(舞雩)의

8 옷자락을 걷어 올리고서 : 남을 따르는 것을 형용한 표현이다. 《시경》〈정풍(鄭風) 간상(褰裳)〉에 “그대가 나를 사랑하여 그리워할진댄, 내 치마를 걷어 올리고서 진수를 건너가리.[子惠思我, 褰裳涉溱.]”라고 하였다. 이 시에서의 치마는 아래옷의 옷자락을 의미한다.

9 촉(蜀)나라……하였으나 : 당시에 선생처럼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올곧게 행동하는 사람이 없었으므로, 이를 과이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선생에 대해 많은 논의를 하였음을 의미한다. 유종원(柳宗元)의 〈답위중립논사도서(答衛中立論師道書)〉에 “굴자의 부에 이르기를 ‘고을의 개들이 떼를 지어 짖는 것은 과이한 것을 보고 짖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내가 지난번에 들으니 ‘용·촉의 남쪽에는 항상 비가 내리고 해 뜨는 날이 적어 해가 뜨면 개가 짖는다.’라고 하였다. 나는 이 말을 지나친 말이라고 여겼었는데, 지난 6, 7년 전에 내가 남쪽지방으로 온 지 2년째 되던 겨울에 다행히 큰 눈이 고개를 넘어 남월 가운데의 여러 고을에 눈이 덮이니, 여러 고을의 개들이 모두 창황히 짖고 물고 미쳐 달리기를 여러 날 동안 하여 눈이 녹아 없어진 뒤에 이르러서야 그만두니, 나는 그런 뒤에야 전에 들은 바를 믿게 되었노라.[屈子賦曰, 邑犬群吠, 吠所怪也。僕往聞庸蜀之南, 恒雨少日, 日出則犬吠。予以爲過言, 前六七年, 僕來南二年冬, 幸大雪踰嶺, 被南越中數州, 數州之犬, 皆蒼黃吠噬狂走者累日, 至無雪乃已然後, 始信前所聞者.]”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여기에서 굴자는 굴원(屈原)을 가리킨다.

10 초빙……깃발 : 원문의 ‘궁정(弓旌)’은 고대에 선비를 초빙할 때 신물(信物)로 쓰이던 활과 깃발을 가리키는데, 전하여 보통 현자를 초빙하는 예물의 뜻으로 쓰인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소공(昭公) 20년 조(條)에 “활로 사를 초빙하고 정으로 대부를 초빙한다.[用弓招士, 用旌招大夫.]”라고 한 데서 유래하였다.

11 확연(廓然)……공정하여 : 정호(程顥)가 《정성서(定性書)》에서 “확연히 크게 공평하여 사람이 오면 순히 응한다.[廓然大公, 物來而順應.]”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二程文集 卷3》

기상¹²이 있었던 것이다. <경세통전(經世通典)>은 간략하고 요약되면서도 광대하였고, 세밀하고 자세하면서도 균형하여 위로는 <주관(周官)>의 육전(六典)¹³의 뜻을 좇고 아래로는 병농합일(兵農合一)의 부위(府衛)의 제도¹⁴를 잃지 않았다. <만언소(萬言疏)> 한 소장은¹⁵ 민생(民生)의 행복과 불행에 대해 더욱 간곡하였으니, 그 귀결점은 군상(君上)의 한 마음이 천지를 제자리에 있게 하고 만물을 잘 기르는¹⁶ 근본이 된다는 것이었다. 비록 둔괘(遯卦)를 만나¹⁷ 침묵하고서 꼭꼭 싸서 골수에 간직해 두었으나,¹⁸ 가슴 속에 보존하고 있는 것은 대강 알 수 있었다.

-
- 12 기수(沂水)……기상 : 인욕(人慾)이 없고 천지의 만물과 함께 유행하여 천리(天理)가 충만한 기상을 말한다. 각자 자신의 뜻을 말해 보라는 공자의 명에 따라, 제자 증점(曾點)이 “모춘에 봄옷이 이루어지거든 관을 쓴 어른 대여섯 사람과 동자 예닐곱 사람과 함께 기수에 목욕하고 무우에서 바람을 쐬고 시를 읊으면서 돌아오겠습니다.[莫春者, 春服既成, 冠者五六人, 童子六七人, 浴乎沂, 風乎舞雩, 詠而歸.]”라고 대답한 데서 온 말이다. 《論語 先進》
- 13 <주관(周官)>의 육전(六典) : <주관>은 <서경>의 편명이다. 육전은 나라를 다스리는 여섯 가지 방면의 법으로, 치전(治典)·교전(教典)·예전(禮典)·정전(政典)·형전(刑典)·사전(事典)을 말한다.
- 14 병농합일(兵農合一)의……제도 : 부위제(府衛制)이다. 서위(西魏)에서 시작되어 북주(北周)와 수(隋)를 거쳐 당(唐)나라 초기까지 실시된 군사 제도로, 부병(府兵)들이 경사(京師)에 와서 숙위(宿衛)하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부병제(府兵制)라고도 한다. 당나라 때의 부병은 중신토록 복역하고, 징발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각자 별기(別騎)와 군량을 마련해서 출정하며, 정기적으로 경사에 숙위하거나 변경에 수자리를 섰다. 《新唐書 卷50 兵志》
- 15 <만언소(萬言疏)> 한 소장은 : <만언소>는 구언(求言)에 응하여 1659년(효종10) 효종 승하 후 지어졌으나, 접괘가 불길하여 실제로는 올리지 않은 상소이다. 대동법(大同法)이 근기(近畿) 지방에는 유효하나, 원방(遠方)인 경우에는 적실하지 못하며, 향병(鄉兵)의 창설을 주장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 16 천지를……기르는 : <중용장구> 제장에 “중과 화를 지극히 하면 천지가 제자리에 있게 되고 만물이 잘 길러진다.[致中和, 天地位焉, 萬物育焉.]”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 17 둔괘(遯卦)를 만나 : 소장을 올리지 못하게 됨을 의미한다. 송(宋)나라 영종(寧宗) 정원(慶元) 연간에 한탁주(韓侂胄)가 승상 조여우(趙汝愚) 등을 무함하여 축출하고 도학(道學)을 위학(僞學)으로 규정하였다. 이에 주희가 봉사(封事)를 올려 한탁주의 간사함을 밝히고 조여우의 억울함을 변호하려고 하였는데, 제자들이 화가 미칠 것을 염려하여 올리는 것을 말렸다. 주희가 계속 뜻을 굽히지 않자 채원정(蔡元定)이 접을 쳐버릴 것을 권하였다. 접을 쳐보니, 소인이 뜻을 얻은 상황에서 군자는 집 안에 들어앉아 집 안의 일만 돌본다는 의미의 둔(遯)의 가인괘(家人卦)가 나와 상소의 초고를 불태우고 호를 둔옹(遯翁)으로 바꾸었다고 한다. 《周易筮述 卷8 推驗》《吹劍錄外集》《朱子大全 附錄 卷6 年譜》
- 18 꼭꼭……두었으나 : 한유(韓愈)의 <귀팽성(歸彭城)>에 “상소문을 꼭꼭 싸서 골수에 간직한 채, 그래도 홀륭하다 부질없는 혼자 생각.[緘封在骨髓, 耿耿空自奇.]”이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韓昌黎集 卷2》

오호라! 말이란 마음의 발로요, 글은 그 마음이 더욱 드러난 것이다. 이 마음이 한번 편당에 의해 가려지면 시비(是非)에 대해 어두워지고 의론이 협소해지는 법이니, 비록 꾸미고 수식하여 가린다 한들 눈이 있는 자라면 어찌 분별하지 못할 자가 있겠는가. 주자(周子 주돈이(周敦頤))가 말하기를 “밝으면 통하고, 공정하면 넓어진다.[明則通, 公則溥.]”¹⁹라고 하였으니, 선생은 이에 가까울 것이다. 선생이 비록 당시에는 쓰이지 못하였으나 선생의 글은 반드시 후세에까지 전해질 것이니, 명수는 그날을 기다릴지어다.

신묘년(1831, 순조31) 맹하(孟夏 4월)에 지제교(知製敎) 석릉(石陵) 김유헌(金裕憲)²⁰은 삼가 쓴다.

19 주자(周子)가……·넓어진다 : 주자는 주돈이(周敦頤)를 가리킨다. 주돈이의 《통서(通書)》 권 20 <성학(聖學)>에 “밝으면 통하며, 동할 때에 마음이 곧아지면 공정하고, 공정하면 넓어지니, 밝고 통하며 공정하고 넓으면 거의 배울 수 있는 것이다.[明則通, 動直則公, 公則溥, 明通公溥, 庶矣乎.]”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20 김유헌(金裕憲) : 1781~?. 자는 치간(禪間), 본관은 안동이다. 부친은 김수신(金秀臣), 조부는 김성한(金星漢)이다. 상세하지는 않으나, 유학(幼學)으로서 순조(純祖) 4년(1804) 갑자(甲子) 식년시(式年試) 병과(丙科)를 친 기록이 남아있다. 《국조방목(國朝榜目)》 석릉(石陵)은 안동의 옛 지명이다.

《남포선생집》 신간 발문 南圃先生集新刊跋

옛날에 사마천(司馬遷)²¹이 <백이전(伯夷傳)>을 지어서 허유(許由)의 광의(光義)가 매우 높다고 하는데, 문사(文辭)에서는 그 대강도 볼 수가 없다²²고 탄식하고는 말하기를 “암혈(巖穴)에 사는 선비는 진퇴(進退)에 알맞은 때가 있는지라, 이 같은 부류는 이름이 매몰되어 일컬어지지 않은 경우이니, 슬프도다.”라고 하였고, 한창려(韓昌黎)²³는 <송서무당남귀서(送徐無黨南歸序)>에서 또한 학자들이 옛 성현을 사모하여 자신의 한 일생을 부지런히 문자 사이에 마음을 다하며 보내다가 끝내 사라지고 마는 것이 슬피할 만하다고 탄식하였으니,²⁴ 나는 이 말은 모두 고인(高人)과 지사(志士)가 생을 마칠 때까지 이름이 일컬어지지 못한 데에 감개가 일어 한 말이라 생각되는데, 나 또한 일찍이 이것을 크게 탄식하지 않은 적이 없다.

내가 근래에 면성(綿城)²⁵의 인끈을 차고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승선(承宣) 김치문(金稚問)²⁶이 내게 편지를 보내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고(故) 세마(洗馬) 남포(南圃) 김 선생(金先生)은 현종(顯宗)·숙종(肅宗)의 시대를 당하여, 약천상공(藥泉相公)²⁷이 암행어사(暗行御史)가

21 사마천(司馬遷) : 사마천은 한 무제(漢武帝) 때의 사가(史家)로, 자는 자장(子張)이다. 전한(前漢)의 태사령(太史令)이었기에 흔히 태사공(太史公)이라고 한다. 《사기(史記)》를 지었다.

22 허유(許由)의……없다 : 《사기(史記)》 권21 <백이열전(伯夷列傳)>에는 “내가 들은 바로는 허유는 광의가 매우 높다고 하는데, 문사에서는 그 대강을 조금도 볼 수 없는 것은 어찌 서인가.[余以所聞由光義至高, 其文辭不少概見, 何哉.]”라고 되어 있다.

23 한창려(韓昌黎) : 한유(韓愈)로, 당나라의 문인이자 사상가이다. 자는 퇴지(退之)이며, 선조가 창려(昌黎) 출신이므로 이렇게 부른 것이다.

24 <송서무당남귀서(送徐無黨南歸序)>……탄식하였으니 : <송서무당남귀서>는 사실 한유가 아닌 구양수(歐陽修)의 글로 확인된다. 그 글에 “지금 배우는 자들은 옛 성현의 불후를 사모하여 한 세상을 부지런히 힘써서 문자 사이에 마음을 다하지 않는 자가 없으니, 이는 모두 슬피할 만하다.[今之學者, 莫不慕古聖賢之不朽而勤一世, 以盡心於文字間者, 皆可悲也.]”라고 하였다. 《唐宋八大家文鈔 卷46》《古文眞寶 後集 卷7》

25 면성(綿城) : 전라남도(全羅南道) 무안(務安)의 별칭이다.

26 승선(承宣) 김치문(金稚問) : 누구인지 자세하지 않다.

27 약천상공(藥泉相公) : 남구만(南九萬, 1629~1711)으로, 약천(藥泉)은 그의 호이다. 본관은 의령(宜寧), 자는 운로(雲路),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저서로는 《약천집(藥泉集)》, 《주역참

되었을 때²⁸ 별단(別單)으로 선생을 포창하며 추천한 일이 있습니다. 그 뒤에 상이 약천상공에게 인재(人才)에 대해 묻자, 공이 일전에 추천하였던 김 아무개가 아직도 등용되지 못하였다고 대답을 하니, 곧바로 선생을 교관(教官)에 제수하였습니다. 《명재집(明齋集)》²⁹에도 자주 칭찬하고 있는데, 본집 가운데 <남유기문(南遊記聞)>과 <송임사가서(送林士駕序)>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포 선생의 구세손(九世孫) 김양국(金亮國)³⁰을 보내며 부탁하노니, 이 사람은 옥처럼 매우 아름다운 인물입니다. 거의 남쪽으로 와서는 거의 보지 못한 인물이니, 정답게 대해 주십시오.”

내가 마침내 김아(金雅)를 읍하고서 맞이하고는 간단한 안부 인사를 하고 나자,³¹ 김아가 남포 선생의 유집(遺集) 두 국(局)을 손수 떠맡들고서 나에게 서발(序跋)을 부탁하는지라, 내가 무릎을 꿇고서 그것을 받아 손을 씻고 공경히 완미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거듭해 읽어보았다.

그 시는 온아(溫雅)하고 간담(簡淡)하여 염락(濂洛)³²의 풍아의 의취가 있고, 그 글은 전중(典重)하고 화섬(華瞻)하여 구소(歐蘇)³³의 거려(巨麗)한 풍취가 있었다. 그 경술(經術)은 고정(考亭)³⁴에 뿌리를 두었는데 이

동계주(周易參同契註) 등이 있다.

28 암행어사(暗行御史)……때에 : 남구만은 31세 때인 1659년(효종10)에 호남 암행어사, 1662년(현종3) 경상도 암행어사로 나간 바 있다. 《韓國文集叢刊解題 131, 132輯 藥泉集》

29 《명재집(明齋集)》 : 조선 후기 학자인 윤증(尹拯, 1629~1714)의 문집인 《명재유고(明齋遺稿)》를 가리키는 것으로, 명재는 그의 호이다. 윤증은 본관은 파평(坡平), 자는 자인(子仁), 또 다른 호는 유봉(西峯)이며, 성혼(成渾)의 외증손이고, 부친은 윤선거(尹宣舉)이다. 권시(權詵), 김집(金集), 송시열(宋時烈)의 문인이다.

30 김양국(金亮國) : 글을 통해 저자인 김만영(金萬英)의 5대손으로 확인될 뿐, 누구인지는 상세하지 않다.

31 간단한……나자 : 원문의 ‘寒暄’은 날씨의 춥고 따뜻함에 대해서 말하는 것으로, 겨울에는 춥고 봄에는 따뜻한 것과 같은 것이다. 전하여 간단한 안부 인사를 의미한다. 송나라 사마광(司馬光)의 《서(書儀)》 <거가잡의(居家雜儀)>에 “날씨를 말하거나 기거를 여쭙 뒤에 또 세 번 재배하고 그친다.[叙寒暄, 問起居訖, 又三再拜而止.]”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32 염락(濂洛) : 염계(濂溪)에 거주하던 주돈이(周敦頤)와 낙양(洛陽)에 거주하던 정호(程顥)·정이(程頤) 형제의 합칭이다.

33 구소(歐蘇) : 구양수(歐陽修)와 소식(蘇軾)의 합칭이다.

34 고정(考亭) : 송(宋)나라 주희의 별호이다. 이는 원래 복건성(福建省) 건양(建陽) 서남쪽에 있

따금씩 이전에 발명되지 않은 것을 많이 발명하였고, 그 경륜(經綸)은 한 통의 <만언소(萬言疏)>에 보이니, 가생(賈生)의 <치안책(治安策)>³⁵과 매우 유사하였는데, 군심(君心)의 바름과 시폐(時弊)의 구제에 대해 온 마음을 쏟았으니 완곡하면서도 측달(惻怛)한 뜻이 말 밖에 넘쳐났다. <경세통전(經世通典)>은 또한 《주례(周禮)》의 육전(六典)과 비슷하였는데, 조리가 정연하고 핵심에 정확히 들어맞았다. <남교일기(南郊日記)>는 마음을 보존하여 본성을 기르며 몸을 닦고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것에 관한 자경편(自警編)이 아님이 없었는데, 그 봉당의 편파성에 대해 논하면서 “글은 한기(韓琦)·범중엄(范仲淹)과 같고 학문은 정자·주자와 같더라도 만일 혹 지금의 편당에 얽매인다면 그 사람은 볼 만한 것이 없다.”라고 하였으니, 여기에서 그가 세상에 뛰어나 우뚝이 선 군자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일사로서 산림에 숨어³⁶ 은거하여 의를 행하면서³⁷ 비록 예를 갖추어 초빙하여도 지절(志節)을 숭상하여 일어나지 않았으니, 어찌 다만 한 고을의 선사(善士)³⁸일 뿐이겠는가. 후세의 사표(師表)가 될 만하건마는 자취를 먼 구석 땅에 숨기고 이름을 누추한 시골 골목에 감추어서 크게 드러나지 못하였으니, 개탄할 만하다.

선생이 일찍이 《포은집(圃隱集)》을 보고서 스스로 그 바닷가 모퉁이 구석진 고을에 태어나 백 년 뒤에 초목과 함께 사라질 것을 탄식하고, 포은이 불

는 지명이다. 주희가 만년에 이곳에 거주하며 창주정사(滄洲精舍)를 세웠는데, 이종(理宗)이 주자를 숭사(崇祀)하기 위하여 고정서원(考亭書院)이라 사명(賜名)하였으므로 뒤에 주희를 지칭하는 말이 되었다.

35 가생(賈生)의 <치안책(治安策)> : 가생은 한 문제(漢文帝) 때의 문신 가의(賈誼)를 가리킨다. 그가 일찍이 한 문제(漢文帝)에게 시국 구제책으로 <치안책>을 올렸는데, 명문(名文)이라는 칭송을 받았다. 《史記 卷84 屈原賈生列傳》 《漢書 卷48 賈誼傳》 《史略 卷2 西漢》

36 일사로서……숨어 : 반약(潘岳)의 서정부(西征賦)에 “산림 속에 깊이 숨은 선비여, 멀리 가서 돌아오지 않음을 깨달았네.[梧山潛之逸士, 卓長往而不返.]”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御製歷代賦彙 外集 卷9》

37 은거하여 의를 행하면서 : 한유(韓愈)가 동소남(董召南)이라는 당나라 때 은사(隱士)를 위해 <동생행(董生行)>이라는 노래를 지은 것이 있다. 그 가사에 “수주 속현에 안풍이 있으니, 당나라 정원 연간에 이 고을 사람 동소남이 그곳에 은거하여 의를 행했다.[壽州屬縣有安豐, 唐貞元年時, 縣人董生召南, 隱居行義於其中.]”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小學 善行》

38 한 고을의 선사(善士) : 《맹자》 <만장 하(萬章下)>에 “한 고을의 선사여야 이에 한 고을의 선사를 벗할 수 있다.[一鄉之善士 斯友一鄉之善士]”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후지명(不朽之名)을 세운 것에 감동하였다. 나는 이에 선생이 가장 슬피한 것은 이름을 전하지 못하는 데에 있음을 알았다. 그러므로 자장(子長)과 퇴지(退之)의 말을 서술하여 대략이나마 선생의 지행(志行)과 문자(文字)의 대강을 쓰고서 김아에게 돌려주고, 또 한 마디 말을 다시 김아에게 전하기를 “샘물에 근원이 있으면 반드시 도달하고 옥에 온기가 있으면 반드시 빛나는 법이니, 선생의 이름은 이 문집이 간행되기만 하면 반드시 드러날 것이다. 그대는 어찌 판각할 것을 도모하여 선생의 이름을 드러내려 하지 않는가. 그대는 힘쓸지어다.”라고 하였다.

신묘년(1831, 순조31) 단월(端月 음력1월) 하한(下澣)에 면성 읍재(邑宰) 한용간(韓用幹)³⁹은 삼가 발문을 쓴다.

39 한용간(韓用幹) : 1783(정조7)~1829(순조29). 본관은 청주(淸州), 자는 위경(衛卿), 호는 진재(眞齋)·수목청화관(水木淸華觀)이다. 1828년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은 정언(正言)을 지냈다. 조선 후기의 선비화가로서 신위(申緯)와 두터운 교분을 가졌고, 유작으로 「계산만춘도(溪山滿春圖)」가 알려져 있다.

《남포선생집》 옛날 발문 南圃先生集舊跋

호남(湖南)의 징사(徵士) 남포 선생(南圃先生) 김공(金公)이 죽은 지 이미 28년이 되었다. 그 문인인 간의(諫議) 나만성(羅晩成)⁴⁰이 경저(京邸)로 나를 찾아와 그의 유문(遺文) 3권을 주고, 또 그의 평생 행의(行義)에 관한 일의 전말을 서술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선사(先師)께서는 자품(資品)이 굳세고 우뚝하였으며 기상이 맑고 시원하였습니다. 젓니를 갈 무렵 7, 8세에 언어와 행동이 보통의 아이와 달랐고, 나이 12, 3세 때에는 《대학》, 《중용》을 전수받았는데, 날로 개발됨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아버지 송호공(松湖公)⁴¹에게 여쭙기를 ‘선비가 책임지는 것이 매우 크니, 명리(名利)의 사이에서 급급히 다투느라 맡은 책임을 깎아 작게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고인(古人)이 말하기를 「차라리 성인을 배우다가 그 경지에 이르지 못할지언정 한 가지 선(善)으로 이름을 이루지는 않을 것이다.’⁴²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본받을 만합니다.’ 하고는, 마침내 도(圖)와 설(說)을 지어 좌우에 걸어두고서 스스로를 경계하고 살폈습니다. 나이 14, 5세가 되자 그를 본 장로(長老)들은 모두 칭찬하고 감탄하면서 성덕군자(成德君子)라고 지목하지 않는 이가 없었으며, 조정의 신하로서 사명(使命)을 받고 고을의 경내를 방문한 사람도 그를 찾아와 만나 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집안이 대대로 불행하여 폐질(肺疾)을 앓아 죽은 이가 10여 명이나 되었는데, 송호공 또한 그 병에 걸렸습니다. 선생은 울면서 밤낮으로 모시고 옷을 벗지도 않은 채 시탕(視湯)하였습니다. 송호공이 돌아가셨을 때 너무도

40 나만성(羅晩成) : 1646(인조24)~?. 자는 대로(大老), 본관은 나주(羅州)이다. 1678년(숙종4)에 증광시(增廣試) 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뒤,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을 지냈다. 《國朝文科榜目 肅宗 4年 戊午 增廣試》

41 송호공(松湖公) : 김만영(金萬英)의 아버지인 김태흠(金泰洽)을 가리킨다.

42 고인(古人)이……것이다 : 명도(明道) 정호(程顥)가 말한 내용이다. 《王文成全書 卷6 與陳惟濬》

난처하여 통상적인 이치로는 말할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⁴³ 선생이 이에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였는데, 선생은 독자(獨子)로 형제가 없는 데다 나이가 겨우 18세였습니다. 평생 이를 매우 애통해하며 항상 말하기를 ‘나는 타고난 명운(命運)이 기박(奇薄)하여 상을 당해 내 마음을 다하지 못하였으니, 천지간의 한 죄인이다. 농사나 지으면서 세상을 마치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고는, 인하여 남평(南平)⁴⁴의 선묘(先墓) 아래에 우거(寓居)하면서 그 당(堂)을 ‘명농(明農)’이라 편액(扁額)하고 ‘남포병일(南圃病逸)’이라 자호(自號)하였습니다.

성현의 서책을 깊이 연구하여 마음으로 깨닫는 부분이 있으면 곧 책에다 쓰고, 때로 눈을 감고 묵묵히 앉아서 존양(存養)·신독(慎獨)⁴⁵의 공부를 하였습니다. 향리(鄉里)의 소년 중에 와서 배우는 자가 있으면 각기 그 재주에 따라 자상하게 가르쳐 주었는데, 일찍이 배우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사람이 심신(心身)을 수습하여 외물(外物)에 뜻이 유혹되고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면 자연히 지기(志氣)가 청명(淸明)해져서 성현이 즐기던 것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니, 배우는 자가 힘쓸 것이 어찌 사장(詞章)을 기억하고 외는 데에 있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선생은 퇴도 선생(退陶先生)⁴⁶의 학문을 존경하고 신봉하여 몸가짐은 한결같이 거경(居敬)을 위주로 하였습니다. 일

43 송호공(松湖公)이……있었습니다 : 상세하지는 않으나, 이 당시 일가친지 십여 명이 채질(瘵疾)에 걸려 죽고 부친 또한 이 병에 걸린 상황에 김만영이 집안의 독자인 탓에, 가족들이 전염을 우려하여 시병(侍病)과 치상(治喪)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후 저자를 공격하는 이들이 이 일을 비난의 빌미로 삼았는데, 이 일련의 상황을 가리키는 말인 듯하다.

44 남평(南平) : 현재 전라남도(全羅南道) 나주에 해당하는 옛 고을의 지명이다.

45 존양(存養)·신독(慎獨) : 존양은 존심양성(存心養性)의 준말로, 본래의 마음을 보존하고 바른 성품을 기르는 것이다. 《맹자》〈간심 상(盡心上)〉에 “마음을 보존하고 성품을 기르는 것이 하늘을 섬기는 것이다.[存其心, 養其性, 所以事天也.]”라고 한 데서 나온 말이다. 신독은 홀로 있을 때에도 도리에 어그러짐이 없도록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언행을 삼가는 것이다. 《대학장구》전(傳) 6장에 “악을 미워하기는 악취를 미워하는 것과 같이 하며, 선을 좋아하는 것은 미인을 좋아하는 것과 같이 하여야 하니, 이것을 자겸(自謙)이라 이른다. 그러므로 군자는 반드시 홀로 있을 때를 삼가는 것이다.[如惡惡臭, 如好好色, 此之謂自謙, 故君子必慎其獨也.]”라고 하였고, 《중용장구》제(제)장에 “숨어 있는 것보다 더 잘 드러나는 것이 없으며, 미세한 것보다 더 잘 나타나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군자는 홀로 있을 때를 삼가는 것이다.[莫見乎隱, 莫顯乎微, 故君子慎其獨也.]”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46 퇴도 선생(退陶先生) : 이황(李滉, 1501~1570)을 가리킨다.

찍이 말하기를 ‘공자(孔子)와 안자(顏子)가 주고받은 것은 바로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이에 그 외면을 제어함으로써 내면을 기르는데 있었으니, 어찌 외면이 방종(放縱)하고 제멋대로이면서 내면이 고요하고 전일(專一)한 자가 있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이 당시 안방준(安邦俊)⁴⁷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편벽된 학문과 잘못된 견해로 소매를 건어붙이고 일세를 호령하였습니다. 절의(節義)와 도학(道學)을 나누어 다른 두 갈래라고 하면서 <우산문답(牛山問答)> 수천 마디 말을 지어 온 힘을 다해 선현(先賢)을 기롱하고 배척하였는데, 그 문하에서 유학(遊學)하는 자들은 모두 그를 신봉하였습니다. 선생은 그 설이 횡행할까 우려하여 마침내 <질의서(質疑書)>를 지어 그것이 옳지 않음을 밝히니, 안방준이 마음속에 앙심을 품었고, 그 무리들은 떠들썩하게 끊임없이 공격(攻斥)하였습니다.

공이 비록 대문을 닫고서 세상과 인연을 끊고⁴⁸ 일찍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구한 적이 없었으나 아름다운 명성이 날로 드러나 조정에서 초빙하는 것발이 여러 번 이르렀는데, 선생은 모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기해년(1659, 효종10) 봄에 효묘(孝廟)께서 하교하여 구언(求言)할 때에 선생은 한 통의 소본(疏本)을 올리려고 하였는데, 그 내용은 성의정심(誠意正心)을 근본으로 하고 당세의 급무(急務)에까지 이를 미루어 나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점괘(占卦)가 길하지 못하므로 그만두었습니다. 이때부터 제수(除授)하는 명이 여러 번 내려졌으나, 끝내 응하지 않았습니다.

47 안방준(安邦俊) : 1573(선조6)~1654(효종5). 자는 사언(士彦), 호는 은봉(隱峯)·우산(牛山), 시호는 문강(文康)이다. 전라도 보성(寶城) 출신으로 성훈(成渾)의 문인이며, 임진왜란 때 보성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성리학에 전념하여 호남에서 명성을 떨쳤으며, 효종 초에 유일(遺逸)을 등용할 때 천거되었다. 저서로는 《은봉전서(隱峯全書)》가 있다. 《韓國文集叢刊解題3 隱峯全書》 참고로, 1652년(효종3) 김만영(金萬英)은 안방준이 지은 <우산답문(牛山答問)>에 대해 <상우산질의서(上牛山質疑書)>를 지어 반론을 제기한 바 있다. 명현(名賢)과 진유(眞儒)의 구분, 길재(吉再)에 대한 평가 등에서 이론을 보인다.

48 대문을……끊고 : 원문의 ‘두문각소(杜門卻掃)’는 대문을 닫아 걸고서 정원의 길도 쓸지 않는다는 말로, 세상과 인연을 끊고서 오직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밀(李謐)이 “대문을 닫고서 정원의 길도 쓸지 않았으며, 산업은 돌보지 않은 채 독서만 일삼았다.[杜門却掃, 棄產營書.]”라고 한 데서 유래하였다. 《魏書 卷90 逸士列傳 李謐》

공에게 배우러 오는 향중(鄉中)의 자제들이 매우 많았는데, 세 채의 서재를 열어 그곳에 거처하게 하면서 백록동서원(白鹿洞書院)⁴⁹의 유의(遺意)를 본받아 과조(科條)를 엄격히 세웠습니다. 문하에 출입하는 자들 중에는 또한 이론가(異論家)의 자제들도 많았는데, 혹자가 물리치며 돌려보내기를 청하면 곧 ‘경전(經傳)은 성현의 공언(公言)으로 내가 요행히 먼저 그 찌꺼기를 얻은 것이다. 성심(誠心)을 가지고 와서 배운다면 어찌 차마 거절하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당시에 유림(儒林)의 종장(宗匠)으로 불리던 자가 가까운 경내에 와 있으면서 만나 보고자 하였는데, 병으로 사양하고 끝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의 문생(門生)과 자제(子弟)들이 매우 미워하여 유언비어(流言蜚語)를 날조하여 비방하고 억지로 죄안(罪案)을 만들어 선생이 몸을 보존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선생이 한숨 쉬며 말하기를 ‘이 무리들이 나에게 대해 본래부터 유감을 품고 있었거니와 사람을 무함하고 헐뜯기를 이와 같이 하니, 내 마땅히 근신(謹慎)하여 피해야겠다.’라고 하고는, 마침내 가솔(家率)들을 이끌고 나주(羅州)의 고향으로 와서 살면서 두문불출하며 자취를 감추니 더욱 당세(當世)에 뜻이 없었습니다. 주중(州中)에서 와서 배우려는 자가 끊이지 않고 이어졌는데, 또한 사양하여 돌려보내지 않고 한결같이 남평(南平)에 있을 때처럼 과정을 세워 가르쳤습니다.

선생의 흉襟(胸襟)은 넓고 특 트여 일찍이 괴상한 행실이 있지 않았는데, 시세(時勢)를 좇는 무리들이 더할 나위 없이 심하게 스스로 방해하고 배척하며 모함하였으나 선생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학문을 좋아하는 독실함은 항상 한결같았으며, 생도(生徒)를 교육함에 부지런히 하고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자리 한구석에 가야금 한 장(張)을 놓아두고 때로 현을 튕기며 곡을 연주하니, 유연히 삼대(三代) 이전의 의취(意趣)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 처하더라도 그의 풍표(風標)가 준수하고 의론(議論)이 뛰

49 백록동서원(白鹿洞書院) : 중국 여산(廬山)의 오로봉(五老峯) 아래 산골짜기에 있는 서원이다. 주희가 남강군 태수(南康軍太守)로 있었을 때, 과거에 그 자리에 있다가 없어진 서원을 재건하여 그곳에서 제자들을 가르쳤다. 여기에서 주희는 유교의 근본 덕목인 오륜(五倫), 배움의 차례, 수신(修身)의 요체, 처사(處事)의 요점, 그리고 대인 관계의 기본자세로 구성된 교칙을 세워 제자들을 엄격히 가르쳤다고 한다. 《宋史 卷429 道學列傳 朱熹》《朱子大全 卷86 祝文》

어나 비록 거칠고 무식한 보통 사람이라도 매번 선생을 대할 때면 일찍이 옷
 것을 여미고 공경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글에 대해서
 는 막히는 바가 없었으니, 비록 복잡하고 난해한 부분이라도 사람들이 혹시
 와서 질정(質正)하면 얼음이 녹듯 환하게 풀리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당
 세의 급무에 대해서도 모두 관심을 두고 이해하였습니다. 일찍이 《경세통전
 (經世通典)》 한 부를 지어 사(士)·농(農)·공(工)·상(商)·병(兵)·
 승(僧)을 타당하게 조치하는 것에 대해 논하였으니, 또한 일찍이 세상을 잊
 어 본 적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개 그 평생 동안 수렴한 것이 이처럼 분
 명한데도 세도가 날로 쇠하여 덕을 알아줄 이가 적었던 데다, 또 공을 좋아
 하지 않는 자들에게 헐뜯기다 보니, 시비(是非)와 사정(邪正)에 대한 구분이
 뒤섞여버렸습니다. 군자가 칭술(稱述)하여 드러내어 밝히지 않는다면 어
 쟁 후세에 밝게 보여주며 그 후손을 보살피주겠습니까. 이에 감히 재배(再
 拜)하고서 집사(執事)에게 청하는 것이니, 다만 공께서 애처롭게 여겨 한 말
 씌 해 주신다면 지하(地下)에서 반드시 혼연(欣然)히 웃으면서 ‘세상에 과
 연 나를 알아주는 이가 있도다.’ 하실 것입니다.”

현일(玄逸)이 같은 시대에 살면서 청탁(淸濁)⁵⁰이 서로 달라 비록 미처 공
 을 알지는 못했으나 그 행장(行狀)에 근거하고 그 글을 읽어보니 또한 그
 마음을 세우고 행실을 모범적으로 한 고원(高遠)함과 학문을 좋아하고 선
 (善)을 즐기는 성심(誠心)과 바른 의론을 부지하고 후진을 인도한 공을
 충분히 볼 수 있었다. 이에 막 그 사실을 발취하여 그 일을 그대로 기록하려
 고 하였으나, 마침 이렇게 화를 만나 삭직(削職)되어 먼 지방에 유배되는 바
 람에, 감히 다시 붓을 잡아 글을 짓는 일에 뜻을 두지 못하였다. 그런데 근
 래에 사면해 주시는 성은을 입어 위리안치(圍籬安置)에서 풀려나 남쪽으로
 옮겨졌을 때⁵¹ 공의 외손(外孫) 나군 경성(羅君景聖)이 한두 번 찾아와 나

50 청탁(淸濁) : 조선 중기 이후에는 당파가 남인(南人)과 서인(西人)으로 나뉘어졌는데, 그 후
 숙종조(肅宗朝)에 들어오면서 남인은 청남(淸南)과 탁남(濁南), 서인은 소론(少論)과 노론
 (老論)으로 다시 갈라지게 되었다. 여기에서의 ‘청탁’은 바로 청남과 탁남을 가리키는데, 이현
 일(李玄逸)은 청남에 속했었다.

51 마침……때 : 이현일은 72세 때이던 1698년(숙종24)에 이 발문을 썼다. 이보다 앞서 68세 때이
 던 1694년(숙종20) 4월에 갑술환국(甲戌換局)이 일어나자, 그 즉시 사헌부의 계정으로 인해

간의(羅諫議)가 전날에 했던 청을 다시 반복하였다. 내 생각에는 간의의 행장이 자세하고 명백하니, 굳이 다시 사족⁵²을 붙일 필요가 없다고 여겨진다. 또 나는 유배 생활을 하는 동안 질병으로 기력이 손상되어 다시 이 일에 바칠 만한 심력(心力)이 남아 있지 않다. 다만 두 군(君)의 정성스런 요청에 답하지 않을 수 없겠기에 행장의 뒤에 써서 보낸다.

정축년(1697, 숙종23) 8월 무오에 재령(載寧) 이현일(李玄逸)은 쓰다.

관직이 삭탈되고 함경도의 홍원(洪原)으로 유배되었다가, 5월에 서울로 되잡혀 와서 신문을 받고 난 뒤 종성(鍾城)으로 이배(移配)·위리안치(圍籬安置)되었다. 이는 1689년(숙종15)에 구언(求言)에 응한 상소에서 당시 폐비(廢妃)되어 사가(私家)에 내쳐져 있는 인현왕후(仁顯王后)를 별궁(別宮)에 거처하게 하여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의 소문(疏文)에 있는 몇 구절이 인현왕후를 모해(謀害)하고자 한 것이라고 꼬투리 잡혀 마침내 ‘명의죄인(名義罪人)’으로 낙인이 찍혔기 때문이었다. 이현일은 이후 71세 때이던 1697년(숙종23) 5월에 호남의 광양(光陽)으로 이배되었다가, 72세 때이던 1698년(숙종24) 3월에 섬진강(蟾津江) 같은리(葛隱里)에 우거(寓居)한 바 있다. 《韓國文集叢刊解題 127, 128輯 葛庵集》

52 사족 : 원문의 ‘불두지분(佛頭之糞)’은 본래는 참새가 부처 머리에 똥을 싸는 모습을 보고 최상공(崔相公)과 선사가 나는 문답에서 유래한 말이다. 이후 구양수(歐陽脩)가 지은 《오대사(五代史)》에 어떤 사람이 서문을 지어 앞머리에 붙이려 하자, 왕안석(王安石)이 이를 인용해 “부처의 머리 위에 어찌 똥을 칠한단 말인가.[釋迦佛頭上, 不堪着糞.]”라고 한 데서 유래하여, 이후로는 훌륭한 글의 첫머리에 변변치 못한 서문(序文) 등을 쓰는 것을 비유하는 겸사로 쓰이게 되었다. 《景德傳燈錄 如會禪師條》《古今事文類聚 別集 卷5 文章部》

남포집

제 1 권

오언절구(五言絶句)

남포집 제1권

오언절구(五言絕句)

주정⁵³

主靜

고요함을 주로 하여야 바야흐로 텅 비고 전일해지니⁵⁴
 텅 빈 곳에서 만사의 처음이 생겨나는지라
 단 하루 마음을 보존한 그 효험은
 십 년 동안 책을 읽는 것과 같네.

主靜方虛一
 虛生萬事初
 存心一日效
 似讀十年書

53 주정(主靜) : 허망한 생각을 버리고 그 마음을 안정시킴을 주장하는 것이다. 송(宋) 나라 주돈이(周敦頤)의 수양법으로, 그가 지은 <태극도설(太極圖說)>에 ‘성인은 중·정·인·의로 정하되 정을 주로하여 사람의 준칙을 세웠다[聖人定之以中正仁義, 而主靜, 立人極焉]’라고 하였다.

54 텅 비고 전일해지니 : 참고로, 순자(荀子)가 “마음을 텅 비워 전일하게 하여 고요해지는 것을 청명이라 이르나니, 마음은 형체의 군주이고 신명의 주인인지라, 명령을 내기만 하고 받는 데는 없는 것이다.[虛一而靜, 謂之清明. 心者, 形之君也, 而神之主也, 出令而無所受令.]”라고 하였다. 《心經附註 卷3 鈞是人也章》

감회가 일어

有感

하늘이 명하여 내가 사람이 되었으니	天命我爲人
사람이라면 본성 속에 하늘의 이치 갖추는 법이라	人具性中理
그 이치 본래부터 나에게 밝게 보존되어 있으니	理本明在我
내 어찌 스스로 포기 하리오	我胡自暴棄

두 번째

其二

홀로 천지 밖에 우뚝 서서	立乾坤外
아득히 세상 일 나몰라라	茫然世不知
머리 위에 뜬 둥그런 달만이	團團頭上月
천고에 혼자 앓다 기울었다하네	千古自盈虧

아버이 곁을 떠나며 감회를 읊다

離親寓懷

흰 구름 ⁵⁵ 은 단계 북쪽에 떠 있고	白雲丹桂北
----------------------------------	-------

55 흰 구름 : 부모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할 때 쓰이는 말이다. 당나라 때의 문인 적인걸(狄仁傑)이 태항산(太行山)을 넘어가던 중에 흰 구름이 외로이 떠가는 남쪽 하늘을 바라보면서 “저 구름 아래에 아버지가 계신다.[吾親所居, 在此雲下.]”라고 하고는, 한참 동안 서 있다가 구름이 다른 곳으로 옮겨 간 뒤에야 다시 길을 떠났다는 고사가 있다. 《舊唐書 卷88 狄仁傑列傳》

서산의 해⁵⁶는 금성⁵⁷ 남쪽을 비추네
시퍼런 강가의 외론 새 같은지라
하루종일 노심초사하는 마음이라

西日錦城南
獨鳥蒼江上
憂勤夙夜心

밤중에 앉아 읊조리다

夜坐口號

밝은 달빛 아래 산은 아무런 말 없는데
살랑 부는 바람에 대나무 소리 들려오네
깊은 밤중에 홀로 앉아있자니
누가 이내 심정 알아주리오

月白山無語
風微竹有聲
夜深成獨坐
誰識我心情

산을 바라보며

看山

만고에 푸르른 산꼭대기를
뜬구름 몇 번이나 다녀갔는가
높다란 산은 끝내 변치도 않고
아무런 말없이 우뚝 그저 서 있누나

萬古青山上
浮雲幾去來
孱顏終不變
無語立崔嵬

56 서산의 해 : 부모를 의미한다. 이밀(李密)의 <진정표(陳情表)>에 “다만 조모 유씨는 해가 서산에 이른 듯이 기석이 거의 끊어질 지경이니, 목숨이 위태롭고 알아 아침에 저녁 일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但以劉日迫西山，氣息奄奄，人命危淺，朝不慮夕.]”라고 한 데서 유래하였다. 《古文眞寶後集 卷1 陳情表》

57 금성(錦城) : 나주(羅州)의 옛 지명이다.

눈 감고 짓다

瞑作

이곳은 어디이며	此地是何地
나는 또한 누구인가	我亦如何人
아스라이 한바탕 꿈속이니	茫茫一夢裏
가짜도 아니요 진짜도 아닐세	非假亦非眞

용호주인⁵⁸에게 수답하여 보내다

酬寄龍湖主人

온통 구름 둘러진 깊은 산 속이요	百匝雲山裏
맑은 시내 흐르는 작은 골짜기 가라	清溪小洞濱
꽃이며 대나무 사이에 은거하는 생활	幽居間花竹
되레 진나라 피해 들어간 사람 같구려 ⁵⁹	却似避秦人

58 용호주인(龍湖主人) : 용호에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듯하나, 누구인지는 자세하지 않다. 용호(龍湖)는 원래 한강(漢江) 아래 용산강(龍山江)인데, 지금의 용산(龍山)을 말한다.

59 진나라……사람 : 도잠(陶潛)의 <도화원기(桃花源記)>에 의하면, 동진(東晉) 태원(太元) 연간에 무릉(武陵)의 한 어부가 일찍이 복사꽃이 떠나려오는 물길을 따라 배를 타고 거슬러 올라갔다가 문득 복사꽃이 만발한仙境(仙境)을 만나 깊숙이 들어갔는데, 진(秦)나라 때 난리를 피해 들어와 대대로 살고 있던 사람들을 만났다. 그곳 사람들로부터 극진한 대접을 받고 수일 후에 그곳을 떠나 배를 얻어 타고 되돌아왔는데, 그 후로는 다시 그 도화림(桃花林)을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한다. 《陶淵明集 卷6 桃花源記》

동명 정군평⁶⁰의 <제승축> 시에 화운하다⁶¹

和東溟鄭君平題僧軸韻

물속에 하늘이 비치니	水底暎天心
천심이 또한 수심일세	天心亦水心
마음이 두 가지 근본이 있다고 여겨	莫看心二本
선림에서 벽을 마주하고 앉았들랑 ⁶² 마오	面壁坐禪林

윤생[선기]이 술을 들고 찾아와 준 것에 감사하며

謝尹生 先夔 携酒見過

맑은 강가에 한 해 저무는데	歲暮清江上
이내 인생 천지간에 고달프구나	乾坤病此生
옛 벗이 술을 들고 찾아와 주니	故人携酒過
송별하는 이 심정을 어찌 가늘꼬	相送若爲情

60 동명(東溟) 정군평(鄭君平) : 정두경(鄭斗卿, 1597~1673)으로, 동명은 그의 호이고, 군평은 그의 자이다. 본관은 온양(溫陽)이다. 정회(鄭晦)의 아들이며, 이항복(李恒福)의 문인이다. 14세 때 별시 초선(初選)에 합격하여 문명을 떨쳤으며, 1626년(인조4) 문장으로 유명한 중국 사신의 접대에 포의의 신분으로 참여하였다. 1629년 별시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부수찬과 정언 등을 지냈으나, 이후로는 벼슬에 나아가지 않았다. 이조 판서와 대제학에 추증되었다. 저서로는 《동명집》 26권이 있다.

61 <제승축> 시에 화운하다 : 《동명집(東溟集)》 권2 <제승축(題僧軸)>에 “도령 이에 문을 닫고 누워 있는데, 응진 이에 석장 타고 날아서 왔네. 하루 종일 뜨락 운동 고요만 한데, 마주하여 이끼 위에 앉아 보내네.[閉門陶令臥, 飛錫應真來, 竟日庭除靜, 相携坐碧苔.]”라고 하였고, 《동명집(東溟集)》 권3 <제승축(題僧軸)>에 “내게 시편 부탁하러 자주자주 오가느라, 수고하는 산승 모습 보니 정말 우습고야. 홀로 낙락장송 아래 고이 앉아 있으면서, 서강의 물 잔으로 떠다 마실만 못하리라.[爲索詩篇數往來, 山僧笑爾亦勞哉, 不如獨坐長松下, 吸盡西江水一杯.]”라고 하였다.

62 선림에서……앉았들랑 : 불가(佛家)에서 좌선의 수행을 통해 깨우치는 것을 말한다. 보리달마(菩提達摩)가 남조 양(南朝梁)나라 때 인도에서 중국에 온 뒤에, 숭산(嵩山) 소림사(少林寺)에 머물면서 9년 동안이나 아무 말 없이 면벽(面壁)하며 좌선을 하였으므로, 사람들이 벽관바라문(壁觀婆羅門)이라고 했다고 한다. 《景德傳燈錄 卷3》

이재를 허물고서 제생을 작별해 보내며⁶³

毀二齋後謝送諸生

내 마음 물처럼 깨끗하건마는
하늘의 뜻은 끝내 어떠한가
좋이 마음에 새긴 뜻 가지고서
돌아가 다시 찾아오지 말게나

我心明若水
天意竟如何
好將方寸志
歸去莫重過

제생과 작별하며 준 시

贈別諸生

대장부의 가슴은
천지일월처럼 드넓고 밝은지라
이 때문에 옛 사람들은
아녀자처럼 이별 앞에 눈물짓지 않았다고

大丈夫心事
乾坤與日月
是以古之人
不作兒女別

63 이재(二齋)를……보내며 : 김만영이 남평(南平)에 살며 문도들을 가르쳤을 때에, 당시 선생을 미워했던 그곳의 지주(地主)가 향인들에게 '상동(喪童)'에 관한 이야기를 지어내 관장(官長)에게 고발하게 하여 선생을 해치려고 하였다. 이에 김만영은 저들의 음해는 집을 허물고 자취를 감춰야 그칠 것이라고 하며 문도(門徒)들을 모두 떠나가게 하였다. 김만영은 문도들에게 학문을 게을리 하지 말아서 꼭 성취할 것을 당부하였는데, 이 때 지어진 시인 듯하다. 이후 김만영은 집안 식구들을 이끌고 고향인 나주로 돌아갔다. 참고로, 이 시의 제목에서는 '이재(二齋)'라고 하였으나, <행장>과 <가장>에서 향중(鄉中)의 사우(士友)들이 강습(講習)할 삼재(三齋)를 만드니, 선생이 '삼학(三學)', '몽양(蒙養)', '열락(悅樂)'이라고 명명하였다고 한 것으로 보아, 실제로는 삼재(三齋)였던 듯하다. 《南圃集 附錄 卷1 行狀, 家狀》

행자 운을 써 시를 지어 오질⁶⁴에게 보여준다

用行字韻示吳侄

근궁함에 처해 보아야 바야흐로 형통할 수 있나니	處困方能亨
모름지기 학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네	須期學業成
냉이 캐어 먹는 생활 ⁶⁵ 그대는 고달파 하지 마소	啖薺君莫苦
죽을 쫓개 아껴먹던 일 ⁶⁶ 옛날에도 있었다오	畫粥古猶行

도원량⁶⁷의 <지주> 시⁶⁸에 화답하다

和陶元亮止酒詩

가득 부은 술은 그 목숨을 잃게 하나니	崇酒滅其性
-----------------------	-------

64 오질(吳侄) :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자세하지 않다.

65 냉이……생활 : 배고픔을 참아가며 수학(修學)하는 것을 의미한다. 송(宋) 나라 채원정(蔡元定)이 서산(西山)에서 공부할 적에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하여 냉이를 캐어 먹었다고 한다. 그 열전(列傳)에 “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배고픔을 참고 제를 캐어 먹으며 글을 읽다가, 주희의 명성을 듣고는 그를 찾아가서 배우고자 하였는데, 주희가 그의 학문 실력을 시험해 보고는 크게 놀라면서 ‘이 사람은 나의 오래된 벗이라고 할 것이니, 제자의 반열에 두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였다.[登西山絕頂，忍饑啖薺讀書，聞朱熹名，往師之。熹扣其學，大驚曰，此吾老友，不當在弟子列。]”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宋史 卷434 蔡元定列傳》

66 죽을……일 : 원문의 ‘획죽(畫粥)’은 죽이 식으면 칼로 선을 그어 나누어 먹는 것으로, 이역시 배고픔을 참아가며 수학(修學)하는 것을 의미한다. 《오조명신언행록(五朝名臣言行錄)》 권7 <참정범문정공(參政范文定公)>에 “범중엄은 어려서 유 아무개와 함께 장백산에 있는 승사(僧舍)에 올라가 수학하면서 오직 좁쌀 두 되를 삶아 죽 한 그릇을 쑤어놓고는 하룻밤이 지나 마침내 죽이 굳으면 칼로 네 덩이를 만들어 아침저녁으로 두 덩이를 먹었으며, 부추 수십 줄기를 끊어다가……약간의 소금을 넣어 익혀서 먹었다. 이와 같이 하기를 3년이나 하였다.[公少與劉某上長白僧舍脩學，惟煮粟米二升，作粥一器，經宿遂凝，以刀畫爲四塊，早晚取二塊，斷薑數十莖，……入少鹽，煖而啗之。如此者三年。]”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67 도원량(陶元亮) : 동진(東晉)의 처사(處士) 도잠(陶潛)으로, 원량은 그의 자이다.

68 <지주(止酒) 시 : 술을 매우 좋아했던 도잠은 <지주>라는 제목으로 술을 끊어야겠다는 내용의 시를 지었다. 그 시를 대략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평생 술을 끊지 못했으니, 술 없으면 즐거움이 없기 때문일세. 저녁에 들어가도 잠 못 이루고, 아침 해 솟아도 일어날 생각 없네.……이제야 금주가 좋다는 걸 알고서, 오늘 아침 진짜로 끊어 버렸어라. 이대로 계속 술 끊는다면, 장차 부상에도 올라가리라.[平生不止酒，止酒情無喜。暮止不能寢，晨止不能起。……始覺止爲善，今朝眞止矣。從此一止去，將止扶桑矣。]”라고 하였다. 《陶淵明集 卷3 止酒》

칼로 배를 도려내는 것과 무엇이 다르랴	何殊刃剩腹
이 한 마디 말을 공경히 받들어서	敬將此一語
이내 마음 깊이 새기겠노라	刻我靈臺曲

고청사⁶⁹가 매백 장인에게 준 시에 차운하여 이문백⁷⁰에게 보여주다
次韻高晴沙贈梅栢丈人詩 示文伯

매선과 주로는	梅仙與酒老
마주함에 둘 다 반가운 눈빛이라네	相對眼俱青
오래된 잣나무가 지금도 남아있어	古栢今猶在
옛 뜰 가득 시원한 그늘이 드리우네	清陰滿舊庭

일가 형제들과 종갓집 터에 있는 배나무 아래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與同宗兄弟共飲宗基梨樹下

우물가의 두 그루 배나무	井上雙梨樹
가지마다 흰 눈이 쌓인 듯	枝枝白雪堆
예닐곱 명 우리 형제들	六七八兄弟
즐거이 꽃 아래에서 술잔을 기울이네	開心花下杯

69 고청사(高晴沙) : 고용후(高用厚, 1577~?)로, 청사는 그의 호이다. 본관은 장흥(長興), 자는 선행(善行)이다. 의병장 고경명(高敬命)의 아들이다. 병조 좌랑과 정랑을 거쳐 1616년(광해군 8)에 남원 부사가 되었고, 1624년(인조2)에 고성 군수를 역임하였다. 1631년(인조9) 동지사로 명나라에 다녀왔으며, 판결사(判決事)를 마지막으로 관직에서 은퇴하였다. 저서로는 《청사집(晴沙集)》과 《정기록(正氣錄)》 등이 있다.

70 이문백(李文伯) : 이목(李穡, 1572~1646)으로, 문백은 그의 자이다. 본관은 전주(全州), 호는 송교(松郊)이다. 성혼(成渾)과 김장생(金長生)의 문하에 나아가 학문을 배웠으며 대사간, 형조 참관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송교유고(松郊遺稿)》가 있다.

어떤 중의 시축에 제하다 2수

題僧軸 二首

바닷가의 산은 창끝 같고	海上山如戟
가파른 봉우리는 날듯한 형세이네	危峯勢若飛
바위 사이엔 내 옛날 자취 남아있는데	巖間我舊跡
중은 흰 구름 밟으며 돌아가네	僧踏白雲歸

두 번째

其二

봄눈에 추위가 여전히 매서워	春雪寒猶重
뜰의 매화나무 대부분 병들었네	庭梅多病枝
산승이 비록 시구를 칭하더라도	山僧雖乞句
어느 곳에서 새로운 시를 읊을꼬	何處詠新詩

흑변의 도화옹에 쓰다⁷¹【선생 나이 14세 때 이 시를 읊었다】

題黑邊桃花翁【先生年十四詠此詩】

산 비 머금은 대나무는 흑빛이요	竹含山雨黑
지는 석양 휘감은 구름은 붉네	雲帶夕陽紅
그 가운데 한바탕 바람이 통하니	中開風一陣
귀신의 공을 빌려다 가져 왔는가	借取鬼神功

71 흑변(黑邊)의 도화옹에 쓰다 : 이 시는 확실하지는 않으나, 아마도 흑빛의 오죽(烏竹) 가에 도화나무가 있는 풍경을 읊은 시인 듯하다. 2구는 붉게 핀 복사꽃을 중의적으로 표현한 것인 듯하다.

김[중원]에게 남겨주어 후일을 기약하며

留別金【仲源】爲後期

취하여 이내 신세 잊어버리고
고담으로 분전⁷²을 짝하였네
이듬해에 봄비가 개이면
강가에서 우리 다시 만나기를

醉後忘身世
高談媿典墳
明年春雨霽
佳柬在江濱

일기에 쓰다

題日記

세상만사 사절한 지
어언 삼사 개월 되었네
날마다 조그마한 책자 지니고 다니며
한가로운 생활 속 이야기들 기록하네

謝絕人間事
邇來三四月
日持小冊子
記作閒中說

순상 심공[택]이 사람을 시켜 문안을 하기에

巡相沈公【澤】使人問安

누추한 오막살이⁷³에 어찌 귀한 이 있다고
상공께서 사람을 보내 안부를 물으시다니요

蓬華有何貴
相公來問之

72 분전(墳典) : 삼분오전(三墳五典)의 준말이다. 본래 삼황(三皇)이 남긴 책을 ‘삼분’이라 하고, 오제(五帝)가 남긴 책을 ‘오전’이라 하는데, 이를 통틀어 옛 전적을 의미하는 말로 쓰인다.

73 누추한 오막살이 : 원문의 ‘봉필(蓬華)’은 ‘봉문필호(蓬門華戶)’의 준말로, 썩대나 싸리로 문을 만들어 놓은 초라한 집을 의미한다. 참고로, 두보(杜甫)의 <북정(北征)>시에 “돌아 보니 부끄럽게도 나만 은총 입어, 누추한 오막살이로 돌아가도록 허락 받았네[顧慙恩私被, 詔許歸蓬華.]”라고 하였다. 《唐詩品彙 卷24 杜甫》

오직 남아있는 건 쇠잔한 국화만이
성긴 울 곁에 시들시들하답니다

唯餘殘菊在
悵悴傍踈離

한가로이 읊다

閒吟

이 세상은 어떠한 세상이며
지금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구름 끼인 산 천만 봉우리가
눈 한가득 온통 봄이로다

此世如何世
今吾何等人
雲山千萬岵
滿目一般春

이른 봄에

早春

한 해 가도록 참으로 터득한 것 없으니
봄이 옴에 더욱 근심만 생겨나누나
되레 부끄러워라 계단 밑의 풀도
살려는 뜻으로 싹을 이미 틔웠구나⁷⁴

歲去無眞得
春來更有愁
還慙階下草
生意茁已抽

74 되레……틔웠구나 : 한 해를 지나보내고 새로운 해의 봄을 맞이하면서 아무 소득이 없는 자신을 싹이라도 틔운 풀보다 못하다고 자책하는 말이다. 송유(宋儒) 주염계(周濂溪)가 창 앞의 풀을 뽑지 않고 그냥 두자, 정명도(程明道)가 그 까닭을 물으니, “저 풀이 살려는 것이 나의 마음과 같기 때문이다.[與自家意思一般.]”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宋史 卷427 周敦頤列傳》《朱子大全 卷85 六先生畫像贊》 참고로, 원문의 ‘생의(生意)’는 생기(生氣), 생명력을 뜻한다.

몽헌이라 자호하며

自號夢軒

꿈속에는 좋은 일이 그리도 많은데
인간 세상엔 고달픈 일만 가득하네
차라리 높은 베개에 기대어
쓰러지듯 대죽 난간에 눕는 것이 낫겠네

夢中多好事
人世足辛酸
不若倚高枕
頹然臥竹欄

감회가 일어

有事

하늘은 어찌 나를 쓸데없이 낳아서
이내 한 몸 거처할 곳도 없게 하는가
어느 해에나 산수 속에서
손수 초가집 한 칸 엮고 살아볼거나

天豈虛生我
地無吾可居
何年雲水地
手結一茅廬

잠에서 깨어 일상을 적다

睡罷書事

인간 세상만사 사절하고서
물 위 정자에서 한가히 잠이 들었네
강천에 뜬 봄날 해는 중천인데
우는 학소리에 꿈에서 막 깨었네

謝絕人間事
閒眠水上亭
江天春日午
鳴鶴夢初醒

천지음 3수【감회가 일어 짓다】

天地吟 三首【有感而作】

천지는 어찌 그리도 궁한가
이 인생 이제 다 끝났도다
시름겹게 세상 밖 바라보니
구름 사이로 산빛은 푸르기도 하누나

天地一何窮
此生今已矣
愀然望世外
山色雲間翠

두 번째

其二

한 마디 말없이 홀로 앉았으니
마주 보이는 푸른 산 높기도 하여라
고금의 일들 곰곰이 생각해보니
천지도 작디작은 추호일레

獨坐一無語
青山相對高
細思今古事
天地亦秋毫

세 번째

其三

내가 천지 속으로 온 것
망망 바다 나는 갈매기 한 마리일레라
고개 들어 바라보니 끝도 없는 세계요
만만년 세월 지내 온 태허라네

我來天地裏
蒼海一輕鷗
舉首無窮界
太虛萬萬秋

남산 바위의 노래

南山石謠

우뚝 솟은 저 남산의 바위여
 높디높고도 고결하도다
 어이하여 조물주는
 네게 말할 입을 주지 않으셨는가

節彼南山石
 峨峨且高潔
 如何造物者
 使爾無唇舌

한가로운 흥취가 일어

閒興

대나무 너머엔 차 끓이는 연기로 푸르고
 매화나무 가엔 잘 익은 술맛 향기로워라
 손님이 와서 하는 일이 무어냐 물으면
 애오라지 한 책상을 가리킬 뿐이라네

竹外茶烟碧
 梅邊酒味香
 客來問所事
 聊指一書床

밭고랑의 양귀비화

田間鷲粟

푸른 소매로 붉은 얼굴 가리었는데
 비 온 뒤라 은은한 향기 풍겨오누나
 꽃망을 허릴없이 해를 향하고 있지만⁷⁵
 가여워라 여전히 텃밭에 있구나

綠袖掩紅顏
 微香生雨後
 芳心空向日
 可惜依園畝

75 해를……있지만 : 원문의 '向日'은 보통은 해바라기 꽃이 해를 향해있듯, 신하가 임금을 향모(向慕)하는 것을 비유한다.

묵매⁷⁶에 쓰다

題墨梅

노룡이 조화를 훔쳐다가
벼루 웅덩이에 신묘한 기술 부렸나
전날 밤 먹비 지나더니
옥빛 매화 얼굴을 폭 물들였네

老龍竊造化
神術硯泓間
前宵行墨雨
染盡玉梅顏

비 온 뒤에 깨달음이 있어

雨後有得

찬비가 앞 들녘 지나더니
남산 씻기어 푸르기도 하여라.
원래부터 멋진 기상이었건만
비 내리기 전보다 훨씬 낫네 그려

凍雨前郊過
南山洗面青
從來好氣像
殊勝雨前形

시월 어느 날 새벽에 일어나 감회가 일어

十月曉起有感

어제 서릿발 매섭게도 날리더니
바람 한 점 없는데 잎이 절로 흩날리네
뜰에는 쇠잔한 국화만이 남아
시들시들 아침 해를 향해있네

昨日霜華重
無風葉自飛
庭餘殘菊在
憔悴向朝暉

76 묵매(墨梅) : 먹으로 그린 매화 그림을 가리킨다.

유쾌하여 3수

快意 三首

장대한 남아의 일은	落落男兒事
여덟 자 되는 용천검 ⁷⁷ 에 있건만	龍泉八尺長
큰 고래를 베어 볼 수도 없으니	長鯨不可斬
부끄러이 내 방 안에 그저 간직하였네 ⁷⁸	斬我室中賊

두 번째

其二

만리 펼쳐진 하늘은 끝이 없는데	萬里天無極
한평생을 초가삼간에서 지냈어라	三椽屋一生
원래부터 위아래로 떨어져 있건만	從來上下隔
바람과 달은 이리도 똑같이 맑구나	風月一般清

세 번째

其三

세상 밖 연하 피어오르는 땅에	世外烟霞地
산림 속 몇 이랑 밭에 살아가네	園林數畝田

77 용천검(龍泉劍) : 춘추 시대 간장(干將)과 막야(莫邪) 부부가 제작했다는 전설적인 보검(寶劍)이다. 뒤에 오(吳)나라 때 북두성과 견우성 사이에 늘 보랏빛 기운이 감돌기에 장화(張華)가 예장(豫章)의 점성가(占星家) 너환(雷煥)에게 물었더니, 보검의 빛이라 하였다. 이에 풍성(豐城)의 감옥 터에서 춘추 시대에 만들어진 전설적인 보검인 용천검을 얻었다 한다. 《晉書 36 卷 張華傳》

78 斬 : 저본에는 ‘斬’으로 되어 있으나, 문맥을 살펴보면 ‘慙’으로 수정하여 번역하였다.

맑은 바람은 천고의 뜻을 실어 가고
밝은 달빛은 이내 가슴을 환히 비추네

清風千古志
明月一襟邊

장성 가는 도중에

長城道上

시냇가의 두 마리 백학
아침 이슬에 옷이 젖었구나
부러워라 너희는 한가히 아무런 일 없어
물결에서 한참을 신선처럼 즐기고 있구나

溪邊雙白鶴
朝露濕衣裳
羨爾閒無事
臨流仙睡長

전원의 집으로 돌아오다

歸田園居

전원으로 저물녘 급히 돌아오니
처마 끝에 저녁연기 피어오르네
지친 몸 이끌고 허름한 집으로 들어서니
소나무에 걸린 달이 평상 가로 들어오네

原陸昏歸愼
簷端起暮烟
倦投踈屋裏
松月入牀邊

대수음

大樹吟

크디큰 나무 천 자 높이 서서
겨우 몇 치 남기고 하늘에 닿을 듯하네
풍상 꺾어 모조리 바싹 말라버렸지만

大樹高千尺
去天盈幾寸
風霜盡苦枯

그대로 봄빛에 여린 잎 돌길 기다리려네

留待春光嫩

비 온 뒤에

雨後

느닷없는 소나기가 불벌더위 씻어주니
자그마한 마을엔 저녁연기 피어오르네
누가 자욱한 안개를 씻어서
비 갠 맑은 하늘 시원하게 보여줄꼬

急雨洗炎熱
小村生夕烟
誰能洗亂霧
快看霽清天

우연히 벽에 쓰다

偶書壁上

인간 세상에서 벗어나
교외의 초야에 한가히 지내네
마음은 천리 가는 학과 같아
높이 나는 대붕처럼 하늘을 날아오르네

脫落人間世
優遊郊野田
心如千里鶴
高舉大鵬天

감회가 일어

有懷

십 년 동안 항상 취해 지냈더니
이내 생애 꿈결처럼 지나가 버렸네
오늘 아침에야 비로소 처음 술 깨고 보니
가을 해가 맑은 물결 비추고 있구나

十載渾成醉
生涯夢裏過
今朝方始覺
秋日照澄波

눈 내리는 밤에

雪夜

평평 내리는 함박눈이 창틈으로 들어와
 살며시 내 옷 깃 속에 떨어졌네
 마치 천상의 뜻을 가지고 와서
 주인공에게 전하기라도 하는 듯하네

密雪從窓隙
 潛投衣領中
 似將天上意
 傳與主人公

들녘의 학

野鶴

튼튼한 것이⁷⁹ 꺾이거나 지치지도 않고
 양쪽 나래 눈처럼 새하얗게 빛나네
 구름 위 대붕을 따라 쫓을 만하거니
 여섯 달을 함께 남쪽으로 날아오네⁸⁰

六翮非摧病
 雙翎雪素輝
 雲鵬從可逐
 月六共南飛

<영월> 시에 화운하다

和詠月韻

달이 어찌 유심한 것이리오
 무심히 그저 내려다 볼 뿐이네
 네모진 연못에 가을 물이 고요하니

月豈有心者
 無心祇自臨
 方塘秋水靜

79 튼튼한 것이 : 원문의 ‘六翮’인데, 공중에 높이 나는 새는 여섯 개의 튼튼한 근육으로 이루어진 깃속이 있다고 한 데서 온 말이다.

80 구름……날아오네 : 《장자(莊子)》 <소요유(逍遙遊)>에 “봉새가 남쪽 바다로 날아갈 때는 물을 3천 리나 박차고, 회오리바람을 타고 9만 리나 날아올라 여섯 달을 가져야 된다.[鵬之徙於南冥也, 水擊三千里, 搏扶搖而上者九萬里, 去以六月息者也.]”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생각나는 대로 읊다

漫吟

마을 앞길은 온통 눈으로 막혔고
 집 뒤 처마엔 짙은 구름이 자욱하네
 한가로워 시 한 수 지었는데
 거침 뽀족하게 붓이 얼어버렸네

雪塞村前路
 雲深屋後簷
 閒來成一律
 凍筆却生尖

술이 없음을 한하며

恨無酒

눈 허연 곳에 엘 듯이 바람 부는데
 쓸쓸한 오두막집 다 쓰러져가네
 도생도 시 지어 술을 읊었나니⁸²
 이 텅 빈 술잔을 어이할거나

地白風如割
 蕭然弊草廬
 陶生賦述酒
 奈此一樽虛

81 더욱……깨닫노라 : 주희의 <관서유감(觀書有感)>에 “반이랑 네모진 연못에 한 거울이 열리어, 하늘빛과 구름 그림자가 함께 배회하누나.[半畝方塘一鑑開, 天光雲影共徘徊.]”라고 하였는데, 이 시는 마음의 실체에 대해 비유하여 읊은 것이다. 《朱子大全 卷1》 참고로, 이를 본받아 우리나라의 선비들도 집에 네모진 연못을 만들어 두고 마음의 실체를 살피는 일이 많았다고 한다.

82 도생(陶生)도……읊었나니 : 도생은 도연명(陶淵明)을 가리킨다. 술을 무척이나 좋아했던 도연명은 <음주(飲酒)>라는 제목으로 시(詩) 20수를 쓴 바 있다. 《陶淵明 集 卷3》

술이 없는 아쉬움을 달래며

寬無酒

술이 어찌 근심 잊게 하는 것이라	酒豈忘憂物
도리어 정신을 해칠까 걱정이라네	還憂伐性靈
세상 근심거리 참으로 풀 수 있다면	世憂誠可解
굴원은 반드시 깨어나지 않았으리라 ⁸³	屈子必無醒

한겨울에 큰 눈이 내려 사방이 꽉 막힌 채 열흘을 보내고 있자니, 추위가 두려워 움츠리고 있으면서 머리도 문 밖으로 내지를 못하였다. 동자를 시켜 이웃 마을에 술을 구해 오게 하였는데, 얻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다. 이에 장난삼아 시 두 수를 지어 한편으로는 한스러워 하고, 한편으로는 이내 아쉬움을 달래었으니, 또한 무료한 생활 속에 한 번 웃을 거리로 삼을 만하다.

[窮冬大雪, 閉塞經旬, 畏寒悚悚, 首不出門. 使僮子乞酒隣村, 不得而還, 戲題二絕, 一恨一寬, 亦可爲無聊中一笑具也.]

벽에 쓰다

書壁

외물은 모두 외물이요	外物皆外物
천금은 그저 천금일 뿐	千金我千金
모름지기 최고의 보물 있음을 알아야 하니	須知至寶在
하나하나 내 마음에 맹서해야 하리라	一一誓吾心

83 굴원(屈原)은……것이라 : 굴원이 소인의 참소에 의해 쫓겨난 후 근심 걱정으로 나날을 보내면서 <이소(離騷, 근심을 만났음을 뜻함)>를 지었고, 또 그가 지은 <어부사(漁父辭)>에는 “못사람이 다 취했는데, 나 혼자만 깨어 있다.[衆人皆醉, 我獨醒.]” 하였다.

윤유월 칠일에 장난삼아 읊다

閏六月初七日戲吟

세법에 윤달이 없었을 적에
은빛 다리 이 날 놓였었지⁸⁴
천손이 오늘 밤 원망할 이는
아마도 반드시 용성이리라⁸⁵

歲法無餘閏
銀橋此日橫
天孫今夜怨
想必在容成

밤에 앉아서

夜坐

한밤중은 칠혹처럼 어두컴컴한데
천지에는 장기 낀 구름 뒤섞여있네
초가지붕 아래에 등잔불 환히 밝히고
홀로 앉아 천군⁸⁶을 마주하고 있네

黑夜闇如漆
乾坤雜瘴雲
明燈茅屋下
獨坐對天君

84 세법에……놓였었지 : 윤달을 두기 이전에는 칠월 칠석(七月七夕)이면 견우와 직녀가 은하수를 건너 만났던 것을 가리킨다.

85 천손(天孫)이……용성(容成)이리라 : ‘천손’은 직녀성(織女星)의 별칭으로, 곧 직녀를 가리킨다. ‘용성’은 황제(黃帝) 시대의 대신(大臣)으로 역법(曆法)을 발명한 사람이다. 이때에는 역법은 있었지만, 윤달을 두는 방법은 없었던 때이다. 그러므로 칠월 칠석만을 기다릴 직녀가 윤달이 생기는 바람에, 한 달을 더 기다려야 견우를 만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애초에 윤달을 만들지 않은 용성을 원망할 것이라는 말이다.

86 천군(天君) : 사람의 마음을 가리킨다. 《순자(荀子)》〈천론(天論)〉에 “마음이 중앙의 빈자리에 있으면서 다섯 가지 감각 기관을 다스리니, 이를 천군이라고 한다.[心居中虛以治五官, 夫是之謂天君.]”라고 하였다. 참고로, 범준(范浚)의 〈심잠(心箴)〉에 “군자가 성심을 보존하여 잘 생각하고 경을 유지하면, 천군이 태연해져서 온몸이 그 명령을 따르리라.[君子存誠, 克念克敬, 天君泰然, 百體從令.]”라고 하였다.

고객⁸⁷

賈客

바다 모퉁이는 비바람 부는 날이 많고
 높은 산은 햇볕 쬐지 못하기 십상이네
 외로운 한 척 배 어디에서 오는 객인가
 한 조각 배로 푸른 파도 속으로 드네

海曲多風雨
 山高易蔽陽
 孤舟何處客
 片帆入滄浪

새벽에 일어나

曉起

바람과 이슬이 길쭉한 대나무 씻기니
 학 우는 소리에⁸⁸ 맑은 꿈에서 깨었네
 여전히 소나무 아래에는
 희미한 달빛이 푸른 이끼를 비추고 있구나

風露灑脩竹
 鶴驚淸夢回
 依然松樹下
 殘月入蒼苔

87 고객(賈客) : 배를 타고 먼 곳으로 다니며 무역하는 장사꾼이다. 참고로, 이들의 생활상을 노래한 내용으로 '고객사(賈客詞)'가 있으며, 악부 청상곡사(淸商曲辭) 중 하나이다.

88 학 우는 소리에 : 학은 사물의 변화에 민감하여 가을이 되면 거처를 옮기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진(晉)나라 주처(周處)의 《풍토기(風土記)》에 “학은 성질이 조심스러워 팔월에 이슬이 내려 풀잎 끝에 흐르며 방울방울 소리를 내면 즉시 소리 높이 울어 서로 경계하며 머물던 곳을 옮기니, 이는 사물의 변화에 해를 당할까 염려해서이다.[此鳥性警, 至八月白露降, 流於草上, 滴滴有聲, 因即高鳴相警, 移徙所宿處, 慮有變害也.]”라고 하였다. 참고로, 송나라 혜송(惠崇)의 <숙제상인선재(宿齋上人禪齋)>에 “학은 금찰의 이슬에 놀라고, 용은 옥병의 샘에 숨었도다.[鶴驚金剎露, 龍蟄玉瓶泉.]”라고 하였다.

홀로 나는 기러기에게 주다

贈孤鴈

만리 드넓은 가을 하늘 너머로
 홀로 날아 어느 곳으로 돌아가는가
 하늘은 높고 창해는 드넓건만
 한 점 너는 어찌 그리도 작은가

萬里秋空外
 孤飛何處歸
 天高滄海闊
 一點爾何微

그 기러기가 나에게 답하다

鴈答余

위수의 사람 일찍이 떠나가니⁸⁹
 물새는 옛 맹약⁹⁰이 부끄러워라
 홀로 동해 위로 날아가
 노련생을 찾으려 한다네⁹¹

渭水人曾去
 江禽恥舊盟
 孤飛東海上
 欲訪魯連生

89 위수(渭水)의……떠나가니 : 강태공(姜太公)이 위수에서 낚시를 하다가 주(周)나라 문왕(文王)을 따라 낚싯대를 거두고 벼슬길로 떠나간 것을 말한다. 《史記 卷32 齊太公世家》

90 물새는 옛 맹약 : 《열자(列子)》 <황제(黃帝)에 “바닷가에 사는 사람의 아들이 갈매기와 더불어 잘 노닐었다. 매일 아침 바닷가에 가서 갈매기와 함께 노닐면 백 마리도 넘게 갈매기가 날아왔다. 그의 아버지가, ‘네가 매일 갈매기와 노닌다고 들었으니, 잡아 오너라. 내가 데리고 놀려고 한다.’ 라고 하였다. 아들이 이튿날 바닷가에 갔더니 갈매기는 춤만 출 뿐, 내려오지 않았다. [海上之人有子獸鳥者, 每旦之海上, 從鷗鳥游, 鷗鳥之至者百住而不下. 其父曰, 吾聞鷗鳥皆從汝游, 汝取來, 吾玩之. 明日之海上, 鷗鳥舞而不下也.]”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이를 두고 ‘구로망기(鷗鷺忘機)’라는 고사가 생겼는데, 거짓됨이 없으면 이물도 가까이한다는 뜻으로, 담백한 마음으로 세상사에 관심을 끊고 은거하는 것을 뜻하는 말로 사용된다.

91 홀로……한다네 : 노련생(魯連生)은 제(齊)나라의 고사(高士) 노중련(魯仲連)을 가리킨다. 노중련은 부당하게 황제를 자처하는 진(秦)나라의 신하가 되느니 차라리 “동해를 밟고 죽겠다. [蹈東海而死]”라고 하였다. 《史記 卷83 魯仲連列傳》

저물녘의 구름

暮雲

해 저물녘 드넓은 남쪽 하늘에
 외로운 구름 느릿느릿 홀로 돌아가네
 앞길이 먼 것은 걱정도 하지 않고
 오늘 밤엔 바위 사립에 묵으리라

日暮南天闊
 孤雲倦獨歸
 不憂前路遠
 今夜宿巖扉

선달 그믐날 밤에

除夕

가는 해를 지키는 것⁹² 끝내 어려우니
 내일 아침이면 또 새로운 봄이네
 돌이켜 생각해보건대 백년 뒤에는
 마침내 어떠한 사람이 되어 있을꼬

守歲終難守
 明朝又一春
 還思百年後
 竟作如何人

느즈막하게 일어나서

晏起

곤히 자고 일어나매 해가 이미 중천이니
 형체를 마른 나무처럼 할 것을 생각해야 하네⁹³

困眠日已高
 宜念形如橋

92 가는……것 : 음력 선달 그믐날 저녁에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고 돌아오는 새해를 맞이하는 것을 말한다. <풍토기(風土記)>에 “선달 그믐날 저녁에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는 것을 수세라 한다.[至除夕, 達旦不眠, 謂之守歲.]”라고 하였다. 《說郛 卷60上》

93 형체를……생각해야하네 : 남곽자기(南郭子綦)라는 사람이 안석에 기대앉아서 하늘을 우러러 숨을 길게 내쉬자, 그 멍한 모양이 마치 짝을 잃은 것 같았으므로, 안성자유(顔成子游)라는 사람이 그를 모시고 있다가 문기를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형체는 진실로 마른 나무와 같

저 멀리 창밖에서 새 우는 소리 들려오니
하늘가에서 부르는 듯 멀게도 느껴지누나

遙聞窗外鳥
遠若天邊號

산을 노래하다

詠山

벽옥처럼 푸르게 삼천 길을 서서
천지의 동쪽을 지탱하고 있누나
무엇하러 굳이 하늘이 무너질까 근심하여⁹⁴
만고토록 높은 허공에 우뚝 솟아 있는가

碧玉三千丈
扶撐天地東
何須憂杞國
萬古矗層空

용촌에 유숙하며 감회가 일어

留宿龍村有懷

말똥말똥 잠을 이루지 못하는데
곱디고운 가을밤은 길기도 하네
산꼭대기엔 다정히 달이 떠올라
흐르는 달빛 서쪽 행랑을 비추네

脉脉不成寐
盈盈秋夜長
多情山上月
流照入西廊

이 할 수 있고, 마음은 진실로 식은 재와 같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안석에 기대앉은 분은 전에 안석에 기대앉은 그분이 아닙니다.그려.[何居乎? 形固可使如槁, 而心固可使如死灰乎? 今之隱几者, 非昔之隱几者也.]”라고 하므로, 남곽자기가 대답하기를 “언어, 자네는 또한 착하지 아니한가. 자네가 그렇게 물음이어, 지금 나는 내 자신의 존재를 잊고 있었는데, 자네도 그것을 알았단가? 隱, 不亦善乎, 而問之也! 今者吾喪我, 汝知之乎?”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莊子 齊物論》

94 하늘이……근심하여 : 옛날 기(杞)나라의 어떤 사람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면[天地崩墮] 자기 몸을 붙일 곳이 없게 된다 하여 침식을 폐하고 걱정을 했다는 기국우천(杞國憂天)의 고사가 있다. 《列子 天瑞》

경물에 감흥하여 뜻을 말하다

感物言志

비 개이자 푸른 하늘 드넓고
흰 구름은 먼 산에 피어오르네
외딴 마을에 날이 저물려하니
숲 끝에는 새가 돌아올 줄 아는도다⁹⁵

雨霽碧天闊
白雲生遠山
孤村日欲暮
林末鳥知還

스스로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비가 개이매 하늘이 드넓은 것은 도체의 광대함을 아는 것이요, 구름이 먼 산에 피어오르는 것은 생의가 무궁함을 아는 것이며, 외딴 마을에 날이 저물려 하는 것은 이 삶이 쉬이 늙음을 아는 것이요, 숲 끝에 새가 돌아오는 것은 이 마음이 돌아가 머물 곳을 깨닫는 것이다. 이 시는 대개 시선이 닿은 경물을 인하여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마음으로 깨달아 시구를 이룬 것인데, 깊이 생각해보면 또한 이와 같은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 시는 성정에서 발로된 것이요, 성정은 천리에 근본 하는 것이니, 오묘하고 오묘하다고 이를 만하다.

[自解曰雨霽天闊則知道體之廣大，雲生遠山則知生意之無窮，孤村日暮則知此生之易老，林末鳥還則覺此心之歸宿。此詩蓋仍寓目之物，自不覺心會句成，而深思之，又有味如此。此詩之發於性情而性情之本於天理者也，可謂妙乎妙矣。]

95 새가……아는도다 : 참고로, 도잠(陶潛)의 <귀거래사(歸去來辭)>에 “구름은 무심히 산봉우리에서 나오고, 새는 날기에 지쳐 돌아올 줄을 아는도다.[雲無心以出岫 鳥倦飛而知還]”라고 하였다. 《陶淵明集 卷5》

가을날의 회포를 읊은 절구 두 수를 지어 당질에게 보여주다[이상⁹⁶]

秋懷二絕 示堂侄【履相】

온 산에 가을비 내리고 난 뒤라
어느 풀인들 시들어 떨어지지 않으리오
믿는 것은 여전히 소나무와 잣나무이니
새로운 기색 열리면 옛것은 쇠퇴한다오

萬山秋雨後
何草不離披
所恃猶松栢
開新舊業衰

두 번째

其二

국화는 저물녘에 차가운 향기를 풍기니
은사의 집에 많이 심겨져 있네⁹⁷
근래의 꽃들 폼평해보자면
모란꽃과 우열을 나란히 한다오

菊有寒香晚
多栽隱士家
年來花卉品
同列牡丹花

책을 보며

看書

가을 하늘 푸르고도 맑게 개었고
태허에서 이는 바람 살랑 불어오네

碧淨秋天霽
微風生太虛

96 김이상(金履相) : 1639(인조17)~?. 누구인지 자세하지 않으나, 《을묘증광사마방목(乙卯增廣司馬榜目)》에 의하면 본관은 해남(海南), 자는 사형(士亨)이며, 부친은 김한영(金漢英)이다. 1675년(숙종1년) 을묘(乙卯) 증광시(增廣試)에 생원 3등 22위로 급제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97 은사의……있네 : 유독 국화를 좋아하였던 두잠을 두고 한 말이다. 그는 국화를 심고 자주 노래하였다고 한다. 참고로, <음주(飲酒)에 “동쪽 울 밑에서 국화를 따다가 조용히 남산을 바라본다.[採菊東籬下, 悠然見南山.]”라고 하였다. 《陶淵明集 卷3》

말쑥한 쑥대 지붕 밑에서
아무 일 없이 누워 책을 보네

蕭然蓬葦下
無事臥看書

《역도설》⁹⁸을 보고

觀易圖說

역 밖에 따로 천지가 없나니
희문이 그 그림자와 형체를 그렸네⁹⁹
모름지기 천지 속에서
획의 이름을 점검해야 하리라

易外無天地
義文畫影形
須從天地裏
點檢畫中名

스스로 서문을 다음과 같이 지었다. “대개 대역의 도는 천지의 사이에 유행하여, 한 포기의 풀과 한 그루의 나무와 한 마리의 날짐승과 들짐승까지, 멀게는 예로부터 지금까지와 가까이로는 눈을 한 번 깜짝이고 숨을 한 번 내쉬는 동안까지, 어떤 물이든 어느 때이든 역이 아님이 없으니, 역의 전체가 천지에 깃들여 있는 것이다. 저 복희씨의 획과 문왕의 단사는 다만 그 역의 그림자와 형체만을 그려 낸 것일 뿐이다. 상지의 선비라면 획과 단사를 기다리지 않고도 진실로 하늘에 있는 역을 묵묵히 알 수 있고, 중지 이하의 선비라도 또한 그 단사를 통해 획을 알며 그 획을 상고하여 하늘의 이치를 알 수 있을 것이다.

[自序, 盖大易之道, 流行於天地之間, 一草一木一禽一獸, 遠之古今, 近而瞬息, 無一物一時之非易, 則易之全體寓於天地, 而彼羲之畫文之辭,

98 《역도설(易圖說)》: 남송(南宋) 오인걸(吳仁杰)이 지은 것으로, 《주역》의 괘(卦)와 효(爻)의 변화를 점치는 법들에 대하여 그림으로 설명한 책이다.

99 희문(義文)이……그렸네: ‘희문’은 복희씨(伏羲氏)와 문왕(文王)의 합칭이다. 복희씨가 맨 처음 팔괘(八卦)를 낳고서 육십사괘(六十四卦)를 만들었으며, 뒤에 주(周) 나라 문왕이 유리(姜里)에 갇혀 있으면서 복희씨의 《주역》에 때마다 괘사(卦辭)인 단사(彖辭)를 붙인 일을 가리킨다.

特畫出其影形而已. 上智之士, 不待畫與辭而固可默識在天之易矣, 中智以下之士, 亦可因其辭而知畫, 考其畫而知天矣.]

고요히 앉아

靜坐

고요히 앉아 남산을 마주하고 있자니	靜坐對南山
산도 고요하고 나도 고요하누나	山靜我亦靜
잠자코 둘 다 아무런 말 없으니	默然兩無言
그 속에서 무엇을 깨달으리오	其中何所省

샛별이 창틈을 통해 내 품으로 들어오기에 감회가 일어

明星從窓隙入懷有感

밤에 창틈 앞에 누워있으니	夜臥當窓隙
샛별이 내 품에 들어와 비추이네	明星映入懷
어찌 우러러 부끄럽지 않을 수 있으리오	何能仰不愧
일어나 앉아 쇠잔한 몸뚱이를 어루만지네	起坐撫殘骸

봄을 보내며

送春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다정도 하여	今古人多意
술 마시며 함께 가는 봄을 애석해하네	啣盃共惜春
누가 알리오 천지 안에는	誰知天地裏
봄의 은혜가 아닌 날이 없다는 것을	無日不春仁

비 온 뒤 경치가 기이하기에

雨後奇形

조물주는 그림을 잘도 그려	造物工於畫
강천이 푸른 병풍과 같다네	江天似翠屏
열은 구름 서너 점 사이로	纖雲三四陣
두어 산봉우리 푸르게도 그려 놓았네그러	寫出數峯青

봄을 보내며 감회가 일어

送春有懷

금리 ¹⁰⁰ 에 봄이 저물려고 하니	錦里春將晚
향기로운 물가엔 꽃이 참으로 쇠잔도 하네	芳洲花信衰
왕손을 그리워하는 이 내 한 ¹⁰¹ 을	王孫青草恨
흰 갈매기에게 알려 알게 하리라	報與白鷗知

책을 읽으며

讀書

바다에 들어가 명월주 ¹⁰² 를 찾고	入海探明月
---------------------------------	-------

100 금리(錦里) : 금성(錦城)으로, 나주를 가리킨다.

101 왕손(王孫)을 그리워하는 이 내 한 : 푸른 풀이 돌아나는 봄이 지나가는데도 그리운 사람을 여전히 만나지 못하고 있는 심정을 의미한다. 한(漢) 나라 회남왕(淮南王) 유안(劉安)의 <초은사(招隱士)>에 이르기를, “왕손은 유람하러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건만 봄풀만 돌아나 무성하구나.[王孫遊兮不歸, 春草生兮萋萋.]”라고 하였는데, 이후로 ‘춘초(春草)’, ‘청초(靑草)’ 등은 떠난 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상징하게 되었다. 《楚辭 卷12》

102 명월주(明月珠) : 진귀한 보석이다. 옛날에 수후(隋侯)가 출혈을 하다가 큰 뱀이 상처를 입어 중간이 끊어진 것을 보고 사람을 시켜서 약을 발라 싸매 주게 하니, 뱀이 마침내 기어왔다. 몇

산을 찾아 야광벽¹⁰³을 캐러 하였네
돌아오니 한 서실 위에는
깊은 밤 휘황한 달이 영구히 떠 있네

尋山採夜光
歸來一室上
長夜永輝煌

저물녘 풍경

暮景

저기 먼 산봉우리엔 운기가 피어오르고
길게 불어오는 바람은 만조를 당겨오네
돛배는 안개 낀 포구의 나무를 지나고
스님은 석양 비치는 다리를 건너네

遠岵生雲氣
長風引晚潮
帆過烟浦樹
僧度夕陽橋

강가에서 생각나는 대로 읊다

江上漫吟

내가 강산의 주인이건만
강산은 나더러 손님이라 하네
청풍과 명월이 둘 다 맑은 가운데
아름다운 손님과 어진 주인이라고

我是江山主
江山我謂賓
風月雙清裏
佳賓賢主人

해가 지난 뒤에 그 뱀이 구슬을 입에 물고 와서 은혜에 보답하였는데, 그 구슬은 직경이 한 치 남짓이었으며, 밤에도 빛이 나서 달이 비치는 듯하였다고 한다. 《搜神記》《淮南子 覽冥訓》수후주(隋侯珠)라고도 한다.

103 야광벽(夜光璧) : 밤에도 빛이 나는 진귀한 보석이다. 야광주(夜光珠)라고도 한다.

함정에 빠진 호랑이를 비웃으며

【제나라 사람처럼 마음속으로 깨닫는 자가 있다면 이 두 수의 시는 나의 찌꺼기임을 충분히 알 것이다.¹⁰⁴】

嘲陷中虎【齊人中若有神會者，二詩足以知余糟粕。】

세상 사람들이 어찌 참으로 너를 원수로 여기라	世豈真讎汝
너의 아롱진 무늬가 재앙의 빌미 되는 탓이 클 테지	班文禍崇深
차라리 소나 개의 생가죽을 입고	寧被羊犬鞞
추우 ¹⁰⁵ 의 마음을 품는 것이 나으리라 ¹⁰⁶	抱得雛虞心

새장에 갇힌 학을 비웃으며

嘲籠中鶴

인간 세상 아래로 굽어 살피고	俯視人間世
구름 너머 하늘까지 배회하였네	徘徊雲外天
그물에 걸림을 오히려 면치 못하였으니	網羅猶未免
아! 학아 너는 속세의 인연이 있는 게로구나	嗟爾有塵緣

104 제(齊) 나라……것이다 : 제(齊)나라 환공(桓公)이 대청 위에서 글을 읽고 있을 때, 마침 장인(匠人)이 그 아래에서 수레바퀴를 깎고 있다가 환공에게 “감히 묻겠습니다. 공께서 읽으시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敢問，公之所讀者何言耶?]”라고 하였다. 환공이 성인(聖人)의 말씀이라고 하자, 그가 또 성인이 살아 있느냐고 물으므로, 환공이 이미 돌아가셨다고 하였다. 그러자 그가 “그렇다면 대왕께서 읽으시는 것은 옛사람의 찌꺼기일 뿐입니다.[然則君之所讀者，古人之糟粕已夫.]”라고 하고는, 이어서 “수레바퀴를 깎을 때 느리게 하면 험형해서 꼭 끼이지 않고, 빨리 깎으면 뽕뽕해서 들어가지 않는데, 느리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게 하는 것은 손에 익숙해져서 마음에 호응하는 것이라, 입으로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그래서 신의 자식에게도 그것을 가르칠 수가 없고 신의 자식도 그것을 신에게서 배울 수가 없습니다.[斷輪徐則甘而不固，疾則苦而不入。不徐不疾，得之於手而應於心，口不能言。……臣不能以喻臣之子，臣之子亦不能受之於臣.]”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莊子 天道》

105 추우(騶虞) : 모양이 백호(白虎)와 비슷한데 검정 무늬가 있으며 꼬리가 몸보다 긴 짐승으로, 생물을 잡아먹지 않고 생물을 먹지 않는다 하여 기린과 함께 인수(仁獸)로 알려져 있다.

106 雛 : 저본에는 ‘雛’로 되어 있으나, 문맥에 근거하여 ‘騶’로 수정하였다.

산속에서 즉흥으로 읊다

山中卽事

텅 빈 뜰에 새는 구슬피 울고
 대나무 게을러 바람도 일지 않구나
 약초 캐느라 저물녘에야 돌아가니
 푸른 소나무들 속에서 쉬며 자며 하네

庭空鳥悲號
 竹懶風不起
 採藥日暮歸
 憩眠青松裏

백봉산에서

【백봉산은 바로 선생의 선영이 있는 산¹⁰⁷ 이름이다¹⁰⁸】

白鳳山【白鳳山，卽先生松楸山名。】

청산을 백봉이라 이름하고 보니
 흰 봉황이 인간 세상에 내려왔네
 인간 세상의 나는 이제 늙었으니
 너와 함께 한가로울 수 있으리라

靑山名白鳳
 白鳳下人間
 人間吾老矣
 可與爾同閒

일상을 적다

書事

조잘조잘 물새가 지저귀니
 맑은 소리 저물녘 하늘에 울려 퍼지네
 텅 빈 강에는 바람도 일지 않고
 사람 기댄 배만이 홀로 돌아오네

格格水禽語
 清音響暮天
 空江風不起
 人倚獨歸船

107 선영이 있는 산 : 원문은 ‘松楸’이다. 이는 소나무와 가래나무로, 옛날 선산(先山)에 이들 나무를 많이 심었기 때문에 선영(先塋)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게 되었다.

108 백봉산(白鳳山)은……이름이다 : 미상(未詳)이다.

홀로 술잔을 기울이며

獨酌

세도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인심이여 아 끝나고 말았도다
 한가로이 산마을 술을 가지고
 웃으며 동림에서 취하리라

世道至如此
 人心嗟已矣
 閒將山郭酒
 笑向東林醉

맑은 새벽에 두견새 소리를 듣고서

清曉聞鶉

새벽달은 뜰 앞 나무에 걸리었는데
 두견새는 몇 번째 가지에서 우는고
 조용히 사는 사람 한 조각 꿈이
 깨려 하나 아직은 깨지 않은 때라네

曉月庭前樹
 鶉聲第幾枝
 幽人一片夢
 欲覺未醒時

꿈에서 깬 뒤에 나중에 <몽중상별> 시¹⁰⁹에 차운하여 짓다

夢覺後 追次夢中相別詩

옥처럼 고운 님 이별한 그곳에서
 혼백이 둘로 나뉘어 날아갔지요
 깨어보니 처마 끝엔 빗방울만 똑똑
 처량히도 앞 사립문을 울리고 있네요

玉人相別處
 精爽兩分飛
 覺來簷雨滴
 淒冷響前扉

109 <몽중상별(夢中相別)> : 어떤 시인지 자세하지 않다.

남포집

제 2 권

오언율시 五言律詩

오언배율 五言排律

남포집 제2권

오언율시 (五言律詩)

홀로 앉아

獨坐

산 구름은 빗속 저편에 걷히고
저녁놀은 빈 뜰에 내리쬐누나
가을은 붉은 단풍 숲에 들었고
안개는 푸른 대숲 언덕을 돌렀네
벌레 우는 소리 날 저물자 더욱 급하고
난초는 저물녘에 향기가 짙게 풍기네
계절이 바뀌는 것 보고 있자니
헛되이 세월만 보낸 이내 몸뚱이가 부끄러워라

山雲雨外捲
夕照在空庭
秋入楓林紫
烟回竹塢青
虫聲暮更促
蘭氣晚多馨
眼看天時變
虛度愧吾形

그냥 짓다

漫成

천지는 벌린 입과 같고
멧부리는 치아와 같다네
운하는 양치질을 위한 준비물이요
풍우는 수다 떨기에 충분하다네
만고는 원기를 삼켰고

天地如開口
山巒似齒牙
雲霞備漱滌
風雨足喧譁
萬古吞元氣

삼광¹¹⁰은 보거¹¹¹에 도네
형체를 입술과 뺨 속에 부쳤으니
이내 생애 드넓기도 하구나

三光轉輔車
寄形唇頰裏
寥廓此生涯

산에 살면서 객을 사절하다

山居謝客

산중으로 들어오자 좋은 일 많고
속세 떠나오니 초연한 마음이어라
꿈에서 깬 푸른 밤엔 학이 울고
마음 한가로운 대낮엔 두견새 우네
넝쿨 끌어다 침상 만들고
대죽 쪼개어 샘물 끌어오네
다만 두려운 것은 속세의 객이
구름 뚫고 잠자는 신선 찾아오는 것뿐이네

入山多勝事
離世意超然
夢罷青宵鶴
心閒白晝鶉
牽蘿成臥榻
剗竹引鳴泉
却恐塵間客
穿雲訪睡仙

밤에 앉아 있자니 감회가 일어

夜坐有感

꿈에서 깨니 창문 밖은 조용하고
텅 빈 뜰엔 학이 아직 잠들지 않았네
싸늘한 밤이라 벌레 소리 작아지고
드넓은 하늘엔 기러기 소리 낭랑하여라
듣고 보는 이 없는 데서도 경계하고 삼가며¹¹²

夢覺窓櫺靜
庭空鶴未眠
夜寒虫語拙
天闊鴈聲圓
戒慎無聞見

110 삼광(三光) : 해, 달, 별을 말한다.

111 보거(輔車) : 광대뼈와 잇몸을 말한다.

112 듣고……삼가며 : 《중용장구(中庸章句)》 제1장에 “군자는 그 보지 않는 바에도 경계하고 삼가야 하고, 그 듣지 않는 바에도 두려워한다.[君子戒慎乎其所不睹, 恐懼乎其所不聞.]”라

단정히 생각하며 현묘한 도에 드네
 문득 아침과 낮 동안의 일이 부끄러우니
 재계하고 전현에게 부끄러움을 고하네

端思入妙玄
 却慚朝晝事
 齊告愧前賢

윤후【종지】¹¹³가 부쳐 온 시에 차운하여 시를 지어 보내다

次尹侯【宗之】寄詩韻以呈

봄날 교외에 가랑비 개이니
 솔개 날고 물고기 뛰놀아¹¹⁴ 아름다운 흥취 일어나네
 버들 언덕엔 저물녘 바람 불어오고
 오동나무 계단엔 달이 막 떠오르누나
 뜰에선 생기 있는 풀을 바라보고¹¹⁵
 책상엔 정신 수양할 책 놓여있네
 아름다운 시편을 공경히 읽어보니
 다정스레 쓸쓸히 지내는 안부를 물었네

春郊微雨霽
 佳興在鳶魚
 柳岸風來夕
 梧階月上初
 庭看生意草
 床有養神書
 敬服瓊什什
 殷勤問索居

고 하였다.

- 113 윤종지(尹宗之) : 1597(선조30)~?. 본관은 해평(海平). 자는 임종(林宗). 호는 백봉(白鐘)이다. 1618년(광해10) 사마시에 합격하였으나, 대과(大科)에는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호란 때 난리를 만나 영남으로 피신하여 유리(流離) 생활을 하다가, 1649년(효종 즉위년)에 다시 음직(蔭職)에 발탁되어 곡산현감(谷山縣監), 대구부사(大邱府使)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백봉유고(白鐘遺稿)》가 있다.
- 114 솔개……뛰놀아 : 원문의 ‘연어(鳶魚)’는 ‘연비어약(鳶飛魚躍)’의 준말로, 도(道)가 하늘 끝에서 깊은 못 속까지 환하게 드러남을 형용한 말이다. 《시경(詩經)》〈대아(大雅) 한록(旱麓)〉에 “솔개는 날아서 하늘에 이르고, 물고기는 연못에서 뛰는다.[鳶飛戾天, 魚躍於淵.]”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참고로, 이를 인용하여 《중용장구(中庸章句)》 제12장에 “《시경》〈대아(大雅) 한록(旱麓)〉에 이르기를, ‘솔개는 날아서 하늘에 이르고 물고기는 연못에서 뛰는다.’ 하였으니, 상하에 이치가 밝게 드러남을 말한 것이다.[詩云, 鳶飛戾天, 魚躍于淵, 言其上下察也.]”라고 하였다.
- 115 생기(生氣) : 원문은 ‘生意’인데, 이는 생기, 생명력 등을 뜻하는 말이다. 주돈이가 살던 곳의 창 앞에 풀이 무성히 자라도 베지 않기에 어떤 사람이 그 까닭을 물었더니, “이 풀의 생의가 나의 뜻과 같기 때문이다.[與自家意思一般.]”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近思錄 卷14》

당질[이상]에게 주다

贈堂侄【履相】

너는 나이 열두 살 무렵이 되자	汝年成一紀
고금의 책을 곧잘 이해하였지	能解古今書
학업은 모름지기 아는 것이 넓어야 하고	學業須知博
심성은 힘써서 처음을 회복하여야 하네	心源務復初
몸을 다스림은 매우 독실하고자 하여야 할 것이요	治身要至篤
뜻을 세움은 삼가서 허술하게 하지 말거라	立志慎毋疎
나에게 있는 것이 참된 실체가 아닐진대	在我非眞實
무슨 수로 아름다운 명성을 얻으리오	何由得令譽

상인 삼근에게 주다

贈上人三勤

병서이다. 지리산의 승려 삼근이라는 자가 와서 시축을 보여주고는 나에게 속초¹¹⁶하여 줄 것을 청하였다. 원운은 바로 백헌(白軒) 상공¹¹⁷이 지은 것인데, 백강(白江)과 잠곡(潛谷)¹¹⁸ 등 여러 재상 및 당시의 이름난 이들이 모

116 속초(續貂) : ‘구미속초(狗尾續貂)’의 준말로, 졸렬한 시(詩)로 뛰어난 시를 이어 짓는다는 뜻의 겸사(謙辭)이다. 이는 고대에 임금을 가까이서 보필하는 높은 관리들은 담비의 꼬리로 관의 장식을 썼는데, 진(晉)나라 때 조왕(趙王) 사마륜(司馬倫)이 조정의 정사를 전담하면서 봉작(封爵)을 너무 많이 내린 나머지 담비 꼬리가 부족하여 개 꼬리로 보충하였던 데서 유래하였다. 《晉書 卷59 趙王倫列傳》

117 백헌(白軒) 상공 : 이경석(李景奭, 1595~1671)으로, 백헌은 그의 호이다.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상보(尙輔)이다. 김장생(金長生)의 문인으로, 양관(兩館) 대제학 등을 거쳐 인조 말년에 영의정을 역임하였고, 1659년(현종 즉위년)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로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다. 저서로는 《백헌집(白軒集)》이 있다.

118 백강(白江)과 잠곡(潛谷) : 이경여(李敬輿, 1585~1657)와 김육(金瑬, 1580~1658)으로, 백강은 이경여의 호이고, 잠곡은 김육의 호이다. 이경여는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직부(直夫),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세종(世宗)의 7대손으로, 1609년(광해군1)에 문과에 급제하였고, 전라도와 경상도 관찰사, 형조 판서, 우의정, 영의정을 역임하였다. 김육은 본관은 청풍(淸風), 자

두 이에 화답하였다. 나는 평소에 영동¹¹⁹의 산수로 아주 들어가는 것을 꿈에 그렸으나, 병들어 아직까지 유람도 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삼근이 여러 공의 시에 화답할 것을 청함을 인하여 붓을 끌어다 시구를 완성하여 그 영동의 산수에 대해 적노니, 나의 시의 뜻을 보는 자는 혹 나를 불러서 전원으로 돌아가려는 흥취가 있을 것이다.

[并序. 智異山僧三勤者, 來示詩軸, 請余續貂. 原韻乃白軒相公作, 白江潛谷諸相暨一時名流皆和之. 余平生夢想長入嶺東山水而病未得遊者, 仍三勤而請和諸公詩, 援筆成句, 以書其東嶺之山水. 覽余詩意, 或有招我歸來之興否耶.]

대관령 너머 신선 세상을	嶺外神仙界
평생을 병들어 유람하지 못하였네	平生病未探
승려를 만남에 그곳 뛰어난 경치를 말하니	逢僧說勝地
시골 초막에 누워있는 내 신세 부끄러워라	愧我臥郊菴
구름과 노을의 말에 귀를 씻고	洗耳雲霞語
산과 물의 이야기에 마음을 깨우치리라	醒心山水談
어느 해에나 대지팡이 한 자루 짚고	何年一竹杖
바다 동남쪽 땅 마음껏 구경할거나	遊盡海東南

는 백후(伯厚)이다. 1605년(선조38) 진사시에 급제하였고, 1624년(인조2)에 문과에 급제하였다. 이후 대사헌,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구황벽은방(救荒辟瘟方)》이 있다.

119 영동(嶺東) : 강원도 대관령 동쪽 지역을 말한다.

한창려의 선대체¹²⁰로 쓴 시¹²¹의 운을 사용하여 감회를 적다

用韓昌黎扇對體書懷

지난해 봄 지독한 가뭄이 들었을 제	去年春苦旱
백성들 얼굴빛은 청황으로 물들었지 ¹²²	民色采青黃
올해에는 보리에 싹이 나지 않으니	今歲麥無苗
이 백성들 쌀겨로 죽 끓여 먹는다네	斯民饘有糠
사람 마음 어찌 그리도 서글프단가	人心何憾憾
하늘의 뜻은 끝내 아득하기만 하여라	天意竟茫茫
장저와 걸익은 비록 세상을 잊었으나 ¹²³	沮溺雖忘世
가생은 눈물이 절로 주르륵 흘렀다네 ¹²⁴	賈生涕自滂

120 선대체(扇對體) : 선대격(扇對格)을 말한다. 구체시(舊體詩)의 대우(對偶) 격식(格式) 가운데 하나로, 한 구를 격(隔)하여 대우하는 것인데, 1구와 3구가 대우가 되고, 2구와 4구가 대우가 되는 것이다. 격구대격(隔句對格)이라고도 한다.

121 한창려(韓昌黎)의……시 : <송이원의원장분사동도(送李員外院長分司東都)>라는 시를 가리키는 듯하다. 그 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해 가을 이슬 내릴 때, 나그네로 동쪽 길 나섰는데, 올해 봄 풍광 일렁일 제, 말을 달려 서울을 이별하네. 술 마시며 서로 돌아볼 땐 기뻐 건만, 전승하고 홀로 돌아오는 마음 쓸쓸하네. 두 곳 천 리만큼 멀어지진 않았으니, 부는 바람에 두어 마디 부쳐볼거나.[去年秋露下, 羈旅逐東征, 今歲春光動, 驅馳別上京, 飲中相顧色, 送後獨歸情, 兩地無千里, 因風數寄聲.]” 《御定全唐詩 卷344 韓愈》

122 백성들……물들었지 : 지독한 흉년이 든 탓에, 백성들의 안색이 좋지 못한 것을 표현한 말인 듯하다.

123 장저(長沮)와……잊었으나 : 은둔하여 직접 농사 지으며 세상일에 관심을 두지 않던 은자들이다. 이들은 공자가 난세(亂世)에 은거하지 않고 세상을 구제하기 위해 돌아다니는 것을 비판하였다. 《論語 微子》

124 가생(家生)은……흘렀다네 : 한(漢)나라의 가의(賈誼)를 가리킨다. 한나라 문제(文帝) 때 나라가 선우족(單于族)에게 모욕을 당하고 제후왕(諸侯王)이 반역을 꾀하는 등 시국이 위태롭고 혼란하자, 가의가 시국을 바로잡는 치안책(治安策)을 써서 문제에게 올렸다. 그 내용에 “신이 삼가 사세를 살펴보건대, 통곡할 만한 것이 한 가지요, 눈물을 흘릴 만한 것이 두 가지요, 장탄식할 만한 것이 여섯 가지입니다.[臣竊惟事勢, 可爲痛哭者一, 可爲流涕者二, 可爲長太息者六.]”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漢書 卷48 賈誼傳》《古文辭類纂 奏議類 陳政事疏》 여기에서는 김만영이 시국을 걱정하는 마음을 가의에 빗낸 듯하다.

강사의 문한에 종사하는 여러 어른에게 부치다

寄江舍翰墨諸老

긴긴 여름 날 산의 정자에서는	山亭長夏午
베개 높이 베고서 샘물 소리 들겠지요	高枕聽鳴泉
격절한 건 신문의 딱따기 소리이고 ¹²⁵	激切晨門石
화평한 건 태산 영계기의 거문고 소릴테지요 ¹²⁶	和平岱啓絃
운거를 돌려 하늘에 노닐었고 ¹²⁷	回雲天上弄
시냇물 흐른 탓에 세간에 전해졌답니다 ¹²⁸	流水世間傳
강가의 어른들에게 한 마디 부치노니	寄語江邊老
동천 ¹²⁹ 속 신선놀음 어떠하신지요	何如洞裏仙

-
- 125 신문(晨門)의 딱따기 소리이고 : 신문은 새벽에 문(門) 여는 것을 맡은 사람으로, 노(魯)나라의 은사(隱士)이다. 《논어》〈미자(微子)〉 문자기는 야경(夜警)을 돌며 딱따기를 친다고 한다.
- 126 태산(泰山)……소릴테지요 : 원문의 ‘岱’는 태산이다. 영계기(榮啟期)는 주(周)나라의 은자이다. 세 가지 즐거움을 노래한 것을 이른다. 공자가 태산을 유람하다가 성(郕) 땅의 들관을 걸어가는데 영계기를 보았는데, 그는 사슴 갓옷에 노끈 띠를 매고 거문고를 타며 노래하고 있었다. 공자가 “선생은 뭐가 그리 즐거우시오?” 하고 묻자, 영계기가 “천지 만물 중에 오직 사람이 귀한데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이것이 첫 번째 즐거움이요, 남자는 귀하고 여자는 천한데 내가 남자로 태어났으니 이것이 두 번째 즐거움이요, 세상에 태어나 해와 달을 보지 못하고 포대기에 싸인 채로 요절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나이가 90세이니 이것이 세 번째 즐거움이지요.”라고 답하였다. 공자가 이 말을 듣고 “훌륭하다. 스스로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다.”라고 찬탄하였다. 《列子 天瑞》
- 127 운거(雲車)를……노닐었고 : 운거는 전설상에 신선이 탄다는 수레로, 오운거(五雲車)라고도 한다. 당나라 두보(杜甫)의 시 〈송공소보사병귀유강동겸정어백(送孔巢父謝病歸游江東兼呈李白)〉에, “봉래의 작녀가 운거를 돌려서, 허무를 가리켜 귀로를 인도하네.蓬萊織女回雲車, 指點虛無引歸路.”라고 하였다. 참고로, 허무는 텅 비고 아득한 선경을 뜻한다.
- 128 물줄기……전해졌답니다 : 도잠(陶潛)의 〈도화원기(桃花源記)〉에 의하면, 동진(東晉) 태원(太元) 연간에 무릉(武陵)의 한 어부가 일찍이 복사꽃이 떠나려오는 물줄기를 따라 배를 타고 거슬러 올라갔다거 문득 복사꽃이 만발한 선경(仙境)을 만나 깊숙이 들어갔는데, 진(秦)나라 때 난리를 피해 들어와 대대로 살고 있던 사람들을 만났다. 그곳 사람들로부터 극진한 대접을 받고 수일 후에 그곳을 떠나 배를 얻어 타고 되돌아왔는데, 그 후로는 다시 그 도화림(桃花源)을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한다. 《陶淵明集 卷6 桃花源記》
- 129 동천(洞天) : 신선이 산다는 선경(仙境)을 뜻한다. 도교(道教)에서는 이러한 선경이 36개가 있다고 하여 36동천(洞天)이라고 한다. 《述異記 卷下》

나자정[반]의 만휴당 시운으로 시를 지어 수답하다

酬羅子整【攲】晚休堂韻

늘그막에 인간사 내려놓고 쉬니	晚休人世事
날 저물면 베개 높이 베고 눕는다오	高臥暝棲時
바다 빛은 평평한 난간까지 이어지고	海色連平檻
조수 소리는 짧은 울타리로 들어오네	潮聲入短籬
물가 바람은 갈매기의 꿈을 재촉하고	渚風鷗夢促
백사장 달빛은 학의 잠을 더디게 하네	沙月鶴眠遲
그 속에 참된 즐거움 많나니	箇裏多眞樂
못 가에서 슬퍼할 필요 있으리오 ¹³⁰	何須澤畔悲

금릉의 조 사군¹³¹【성이다】에게 부쳐 보내다

寄贈金陵使君趙【惺】

읍이 금릉이라 불리나니	邑有金陵號
깎아지른 듯한 바위가 석두성 ¹³² 과 비슷하누나	巉巖似石頭
동남쪽으로 큰 바다를 임하고 있는데	東南臨大海
멀리서 바라보매 높은 누대 솟아있도다	觀望起高樓

130 못……있으리오 : 전국 시대 초(楚)나라 사람 굴원처럼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굴원은 초나라 회왕(懷王)의 신임이 두터웠었는데, 나중에 참소를 당하여 강남(江南)으로 귀양을 가게 되자 <어부사(漁父辭)> 등을 지어 자기의 뜻을 보이고 멱라수(汨羅水)에 빠져 죽었다. 굴원의 <어부사(漁父辭)>에 “굴원이 쫓겨나 강가에서 노닐고 못가를 거닐면서 시를 읊조릴 제 안색이 초췌하고 형용에 생기가 없었다.[屈原既放, 游於江潭, 行吟澤畔, 顏色憔悴, 形容枯槁.]”라고 하였다. 《史記 卷84 屈原列傳》《古文眞寶 後集 卷1 漁父辭》

131 금릉(金陵)의 조 사군(使君) : 누구인지 자세하지 않다.

132 석두산(石頭山) : 강소성(江蘇省) 강녕현(江寧縣) 서쪽에 있는 산이다. 참고로, 그 험고함에 대해서는 제갈량(諸葛亮)이 오(吳)나라 도읍 건강(建康)에 와서 산천의 형세를 살펴본 뒤에 “석두산은 범이 웅크린 듯하다.[石頭虎踞.]”라고 하였다. 《古今事文類聚 續集 卷1 吳都形勢》

해와 달은 삼산¹³³과 가깝고
하늘과 땅은 만리에 떠있네
객지의 시름 그대는 한스러워 마소
호탕한 흥취 여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일세

日月三山近
乾坤萬里浮
羈愁君莫恨
豪興此中求

봄날 종제 영중¹³⁴에게 부치다

春日寄從弟英仲

서쪽 교외에 저물녘 비 개이니
오두막 더욱 청명하누나
시흥이 바람 따라 일어나니
고향 생각 달 보매 많아진다오
도화에 금리를 생각하고
봄물에 구파가 그리워라
어느 날에나 사암 가에서
손수 몇이랑 움막을 일굴거나

西郊晚雨霽
小屋更清和
詩興因風起
鄉愁見月多
桃花思錦里
春水憶龜波
何日沙巖畔
手開數畝窩

회포를 적어 종제 영중에게 보이다

書懷示從弟英仲

근래에 책 속의 뜻을 터득하고서야
마침내 세상살이 어려움을 알았네
신맛에 입은 삼척이나 길어지고¹³⁵

近得書中趣
方知世味艱
酸喙長三尺

133 삼산(三山) : 삼신산(三神山)으로, 동해에 있다고 하는 봉래산(蓬萊山), 방장산(方丈山), 영주산(瀛洲山)을 가리킨다.

134 종제 영중 : 누구인지 자세하지 않다.

135 황정견(黃庭堅)의 <제석각화상산옹(題石恪畫嘗醕翁)>에 “석은은 신맛 참느라 입이 삼척이나

시 읊는 어깨는 두 산처럼 솟았다지 ¹³⁶	吟肩聳二山
널리 배우면 마음이 매우 넓어질 테고	博學心多廣
열심히 밭 갈면 음식을 아끼지 않아도 되리라	勤耕食不慳
임천 ¹³⁷ 의 한없는 뜻은	林泉無限意
모두 골짜기 속 난초 ¹³⁸ 에 부치노라	都付谷中蘭

청화¹³⁹에 부슬비가 내리기에 배를 남강에 띄워놓고

清和微雨 泛舟藍江

세속 밖 맑은 강물 가에	世外清江上
어른과 동자 예닐곱 사람이 있네 ¹⁴⁰	冠童六七人
술잔에 이어지는 강물은 맑고	水連盃上淨
수면 위에 비치는 산은 새로워라	山人鏡中新
언덕에는 난초와 지초가 향기롭고	岸草蘭兼芷
모래섬엔 행채와 마름이 꽃을 피웠네	洲花苜與蘋
천공이 마치 뜻이라도 있는 양	天公如有意

길어지고, 석파는 맛을 보고는 얼굴이 잔뜩 구겨졌네.[石媪忍酸喙三尺, 石罅嘗味面百摺.]
라고 하였다.

136 시……솟았다지 : 고민하며 깊이 시상(詩想)에 잠긴 것을 의미한다. 송(宋)나라 소식(蘇軾)의 <증사진하충수재(贈寫真何充秀才)> 시에 “또 보지 못했는가 눈 속에서 나귀를 탄 맹호연이, 눈썹을 찌푸리고 시를 읊느라 어깨가 산처럼 솟은 것을.[又不見雪中騎馱孟浩然, 皺眉吟詩肩聳山?]>”이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蘇東坡詩集 卷12 贈寫真何充秀才》

137 임천(林泉) : 산림천석(山林泉石)의 준말로, 은자가 사는 곳을 가리킨다.

138 난초 : 곽원의 <이소경(離騷經)>에 “그윽한 난초 묶고서 서성이노라.[結幽蘭兮延佇]>”라고 하였고, “가을 난초를 꿰어서 허리에 차도다.[紉秋蘭以爲佩]>”라고 한 데서 전하여, 이후로 난초는 은자를 비유하는 말로 쓰인다.

139 청화(淸和) : 청명하고 따뜻한 날씨로, 음력 4월의 이칭이다.

140 어른과……있네 : 《논어》<선진(先進)>에 자신의 뜻을 말하라는 공자의 말에, 증점(曾點)이 “늦은 봄날 봄옷이 이루어지거든 어른 대역섯 사람, 동자 예닐곱 사람과 함께 기수에서 목욕하고 무우에서 바람 쐬고 시 읊으면서 돌아오겠습니다.[莫春者, 春服既成, 冠者五六人, 童子六七人, 浴乎沂, 風乎舞雩, 詠而歸.]”라고 하였다.

조보¹⁴¹의 기사를 듣고

聞朝報紀事

우하처럼 세도는 높아졌고¹⁴²
 조정에는 어진 이들 많도다
 의관은 예법을 회복하였고
 봉당은 일심으로 변화였네
 준수하는 방법으로 부세를 거두고¹⁴³
 호적 편입에 따른 군사제도를 시행한다네
 기근을 어찌 염려하리오
 우졸들도 농사짓고 누에 칠 수 있다네

世道升虞夏
 羣賢足廟堂
 衣冠回禮制
 用黨變肝腸
 賦用均輸法
 兵行編戶方
 歲飢何用慮
 愚拙合農桑

꿈에 대성전¹⁴⁴에 들어 술잔을 올리고 인하여 이 읍시를 지었는데
 꿈에서 깨어 기록하다

夢入大成殿奠爵 仍作此律 覺而記之

경치 뛰어난 곳에 성묘 있나니

聖廟在形勝

141 조보(朝報) : 승정원(承政院)에서 처리한 사항을 매일 아침에 기록하여 반포하는 관보(官報)이다. 기별(奇別), 난보(爛報), 조지(朝紙)라고도 한다.

142 우하(虞夏)처럼 세도(世道)는 높아졌고 : 세도가 몰락하지 않고 태평성세처럼 높아짐을 비유하는 말이다. 우하는 유우씨(有虞氏)의 나라와 하(夏)나라의 합칭으로, 순(舜)임금과 우(禹)임금의 치세(治世)를 의미한다.

143 준수하는……거두고 : 원근 각지에서 물자를 수송하는 노역과 비용을 고르게 하는 방법을 가리킨다.

144 대성전(大成殿) : 공자(孔子)를 위시하여 유학 발전에 공을 세운 중국과 우리나라 선현들의 위패를 모신 사당이다.

당단은 대죽 울타리와 가깝네
 시서를 현송하던 날이요¹⁴⁵
 문무를 헌장하던 때라¹⁴⁶
 예악은 그때 당시의 일이고
 뇌준은 만고의 의식이라네
 훈호¹⁴⁷가 마치 위에 계시는 듯하니
 엄숙하게 섬들에서 절을 하였네

堂壇近竹籬
 詩書絃誦日
 文武憲章時
 禮樂當年事
 樽罍萬古儀
 薰蒿如在上
 肅穆拜軒墀

-
- 145 시서(詩書)……날이요 : 옛날에 시(詩)를 전수하고 배울 때 현악(弦樂)에 맞추어 노래하는 것을 현가(弦歌)라 하고, 음악 없이 낭독하는 것을 송(誦)이라 하였으므로, 뒤에는 수업하고 송독(誦讀)하는 일을 가리키게 되었다. 《예기(禮記)》〈문왕세자(文王世子)〉에 “봄에는 암송하고, 여름에는 거문고를 탄다.[春誦夏弦.]”라고 하였다.
- 146 문무(文武)……때라 : 헌장은 그 법을 드러내 밝히며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중용장구》 제 30장에 “공자가 멀리로는 요순을 조종(祖宗)으로 받들어 계승하고, 가까이로는 문왕과 무왕의 법도를 드러내 밝혔다.[仲尼祖述堯舜，憲章文武.]”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 147 훈호(薰蒿) : 귀신의 기(氣)를 형용한 것이다. 《예기》〈제의(祭義)〉에 “생물들은 반드시 죽고 죽으면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나니 이를 귀라고 이른다. 뼈와 살은 땅속에서 썩어 흙이 되고 이것이 야토가 되면 그 기는 발하여 위로 올라가서 소명, 훈호, 처장이 된다.[衆生必死，死必歸土，此之謂鬼。骨肉斃于下，陰爲野土，其氣發揚于上，爲昭明焄蒿悽愴.]”라고 하였는데, 그 주에 “귀신이 밝게 드러나는 것이 소명, 그 기가 위로 올라가는 것이 훈호, 사람의 정신을 두렵게 하는 것이 처장이다.”라고 하였다.

여름날 너무도 덥기에 장남 삼아 쓰다

夏日甚炎戲題

땅이 동남쪽 바다와 가깝고
 산은 장기 낀 연무 속에 자리하였네
 더구나 지금은 불볕 더위가 한창이라
 폭폭 찌는 바람이 항상 일어난다네
 땅은 축축도 하여 뭉치기 어렵고
 하늘은 허구한 날 비 내려 끝도 없어라
 평상 밑엔 벌레와 뱀이 꿈틀대고 있으니
 구름에 누운 늙은이가 몹시도 부럽다오

地近東南海
 山開瘴霧中
 況當炎暑日
 恒起爛蒸風
 土有瘡難合
 天多漏不窮
 虫蛇床下結
 深羨臥雲翁

두 번째

其二

예전에 나는 어디에서 왔기에
 지금 이곳 사람이 되어 있단가
 장기 낀 비린 바다 너머요
 향기로운 이슬 내린 옥루 가라네
 오래도록 속세의 불에 들들 볶이고 있으니
 관스레 학을 타기가 부끄러워라
 몇 년이면 이 꿈에서 깨어
 선경에서 남은 봄 보낼거나

昔我來自自
 今爲此地人
 瘴氛腥海外
 香露玉樓濱
 久煮塵間火
 空慚鶴上身
 幾年斯夢覺
 仙圃有餘春

구강에서의 멋진 유람

龜江勝遊

짧은 서문을 함께 붙임. 을사년(1665, 현종6) 초여름 기망(既望 16일)에 내가 구강 침벽정에서 이틀 밤을 묵었다.¹⁴⁸ 다음날 강가의 수석 사이를 산보 하었는데, 이때 강가의 나무는 여린 잎으로 푸릇푸릇하였고, 언덕에 자라난 풀은 향기로웠으며, 쾌청한 날씨에 따스한 바람이 살랑 불며, 거울처럼 맑은 강물에 어여쁜 물고기가 헤엄치고 있었다. 위로 바라보고 아래로 살펴봄에 물과 내가 서로를 잊은 듯한 즐거움과 세속을 버리고 진세를 초월한 듯한 생각이 일었다. 얼마 뒤, 몇몇 객이 술병과 거문고를 들고 왔다. 강가의 높은 누대에 죽 늘어앉아서 술이 몇 순배 돌고 거문고 몇 곡조 연주하고 나니, 날이 이미 저물었다. 여러 객은 내 마음이 그 즐거움을 즐긴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혹은 고래고래 노래하며 호기를 부리기도 하고, 혹은 술을 다투며 시끄럽게 떠들기도 하였다. 나는 턱을 괴고 바위에 기댄 채 푸른 강을 고개 돌려 바라보니 저녁 바람이 갑자기 불어오는데, 강물결이 온통 은빛 비늘이었다. 강가 모래톱으로 걸어 나가 마침내 시를 지어 그 일을 기록한다.

[並小序. 乙巳孟夏既望, 余信宿于龜江枕碧亭. 翊日散步于江磯水石之間, 是時江樹嫩綠, 岸草芬芳, 天氣清爽, 微風藹和, 澄潭若鏡, 錦鱗游泳. 仰觀俯察, 有物我相忘之樂, 遺世出塵之思矣. 俄有數客携壺與琴而至. 列坐江上高臺, 酒數行琴數曲而日已晡矣. 諸客不知余心之樂其樂, 或放歌叙氣, 或爭酒喧譁. 余支頤倚石, 回望蒼江, 夕風乍動, 萬匣¹⁴⁹銀鱗. 步出汀洲, 仍成韻語而志其事云.]

148 이틀 밤을 묵었다 : 원문은 ‘신숙(信宿)’인데, 이틀 밤을 유숙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경(詩經)》〈주송(周頌) 유객(有客)〉에 “손님이 하룻밤을 유숙하며 손님이 이틀 밤을 유숙하니 끈을 주어 그 말을 동여매리라.[有客宿宿, 有客信信, 言授之繫, 以繫其馬.]”라고 하였는데, 주희(朱熹)는 이를 두고, 《시경집전(詩經集傳)》에서 “하룻밤을 유숙함을 숙이라 하고, 이틀 밤을 유숙함을 신이라 한다.[一宿曰宿, 再宿曰信.]”라고 하였다.

149 匣 : 저본에는 ‘匣’으로 되어 있으나, 문맥에 근거하여 ‘匣’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강가 바위에 앉아 기대어	坐倚潭邊石
향기로운 화초 속에서 술을 마시네	開樽芳草間
강산은 세상 물정 버리고	江山遺世態
천지는 나의 한가로움 길러주나	天地養吾閒
안개 낀 물가에서 은빛 붕어 바라보고	烟渚看銀鯉
물가 모래톱에서 옥란을 캐었네	沙汀採玉蘭
거문고 서너 곡조 울리니	琴鳴三四曲
바람 일어 물결이 번져나가네	風起水紋斑

여름 구름이 매우 기이하였는데 누군가가 전한 시가 신운¹⁵⁰이
있으므로 마침내 흉내 내어¹⁵¹ 짓다

【평한다. “구름이 변하여 산이 되고 산이 변하여 눈이 되며, 눈이 변하여 아름다운
구슬이 되고 아름다운 구슬이 변하여 저물녘 바람이 되는 것이 또한 기이하다.”】
夏雲奇甚 有人傳有神韻 遂效嘖而成 【評曰雲變爲山, 山變爲雪, 雪變爲瓊
璧, 瓊璧變爲晚風, 亦奇也.】

인간 세상은 무더운 여름 한창인데	人間大夏中
하늘 위엔 구름이 봉우리가 되었네 ¹⁵²	天上雪成峯
만 개 구슬 푸른 골짜기를 감추고 ¹⁵³	萬壁藏靑壑
천 개 구슬 푸른 소나무를 숨겼네	千瓊沒翠松

150 신운(神韻): 예술 작품 속에 표현된 작가의 정신과 운치를 말한다.

151 흉내 내어: 원문은 ‘效嘖’인데, 자신의 재주는 헤아리지 않고 억지로 남을 흉내 내려고 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로, 여기에서는 자기가 지은 시에 대한 겸사로 쓰였다. 춘추 시대 월(越)나라
의 미인 서시(西施)가 심장병을 앓으면서 눈썹을 찡그리자[效嘖], 찡그린 모습도 매우 아름답
게 보였으므로, 이웃의 추녀가 그의 찡그린 모습을 흉내 냈더니, 마을 사람들이 모두 그녀를
피해 버리고 보지 않았다는 고사에서 온 말이다. 《莊子 天運》

152 雪: 저본에는 ‘雪’로 되어 있으나, 문맥에 근거하여 ‘雲’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153 壁: 저본에는 ‘壁’으로 되어 있으나, 문맥에 근거하여 ‘璧’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암벽 가엔 절이 물론 있을 것인데
먼 곳에 어찌 종소리 들리리오
잠깐 동안 환상에서 돌아왔더니
너른 허공 저물녘 바람이 씻어 놓았네

巖邊應有寺
地遠豈聞鍾
俄頃歸虛幻
長空掃晚風

흐뭇하여

自怡

지인은 고요함을 사랑하여
절로 세상 사람들과 멀어졌네
본성 길러 정신은 항상 맑고
말이 없어도 배움에 의심하지 않아라
바람 불어와 상쾌한 기운을 돕고
산이 고요도 하여 진리를 깨닫누나
텅 빈 뜰에는 먼지가 일지 않으니
산보하려 계단을 천천히 내려가네

至人愛幽靜
自與世人違
養性神常淨
無言學不疑
風來助爽氣
山靜覺真機
庭空塵不起
散步下階遲

소요음

逍遙吟

세상 밖 작은 푸른 산 있으니
산 속엔 아무런 일도 없으라
술과 대 자라는 세 오솔길 속에 있자니
천지간의 이 한 몸 외롭기도 하여라
해지면 바위에서 잠자기 좋고
향기로운 풀 곁에선 술 마시기 좋다네

世外靑山小
山中事亦無
松篁三徑裏
天地一身孤
落日宜眠石
芳草可佩壺

화락하기가 태고 적과 같으니
누가 이 우부를 알리오¹⁵⁴

熙熙似太古
誰識此夫夫

피꼬리 우는 소리를 듣고 장난삼아 영물체를 모방하여 짓다
聽鸞聲戲 效詠物體

높은 나무에서 새가 우니
새벽녘 창가에 비가 막 개인 때라오
하늘에 들면 구름도 멈추려 하고¹⁵⁵
골짜기로 오면 구슬이 떨어지는 듯하다네
왕자도 생황 소리를 멈추고 듣고¹⁵⁶
추생이 음률을 거두니 화락하누나¹⁵⁷
그제야 알겠노니 조물자는
이렇게도 신묘하고 공교롭단 걸

有鳥鳴喬木
曉窓初霽時
入天雲欲駐
來壑玉疑墮
王子休笙聽
鄒生斂律嘻
方知造物者
神巧至如斯

154 누가……알리오 : 문맥이 통하지 않아 ‘夫’를 ‘愚’로 바꾸어 번역하였다.

155 하늘에……멈추려하고 : 그 소리가 매우 아름다웠음을 의미한다. 옛날 진(秦)나라에 노래를 아주 잘했던 진청(秦靑)이란 사람이 제자 설담(薛譚)을 전승하는 자리에서 손수 박자를 치며 슬피 노래하니, 구슬픈 노랫소리가 숲을 진동하여 그 애절한 메아리가 멀리 가는 구름을 멈추게 했다고 한데서 온 말이다. 《列子 湯問》

156 왕자(王子)도……듣고 : 왕자는 왕자교(王子喬)를 가리킨다. 생황(笙簧)을 잘 불어서 봉황새가 우는 소리를 냈으며, 나중에는 신선이 되어 날아갔다고 한다. 《列仙傳 王子喬》

157 추생(鄒生)이……화락하누나 : 추생은 음률(音律)에 조예가 깊었던 제(齊)나라 사람 추연(鄒衍)을 가리킨다. 《예문유취(藝文類聚)》 권9에 인용된 <별록(別錄)>에 “추연이 연(燕)나라에 있을 적에 어떤 골짜기가 토질은 좋지만 추워서 오곡이 자라지 않았다. 추연이 그곳에 머물면서 울관을 불자, 따뜻한 기운이 돌아와 곡식이 자라났다.”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列子 湯問》 이를 ‘추연취율(鄒衍吹律)’ 이라고도 한다.

마음을 달래며

自遣

세상일 다시 무엇을 한스러워하리오	世事復何恨
백 년 세월 하루아침과 같다네	百年如一朝
하물며 이내 천성 세상과 투합하는 것 적어	况吾性寡合
만년엔 진실로 취향이 남달랐다네	末路誠殊調
그윽한 생각은 학과 함께 잠을 자고	幽思鶴同睡
피부리는 마음 ¹⁵⁸ 은 안개와 함께 사라졌네	機心烟共消
이곳에선 궁하여도 또한 즐거우니	此間窮亦樂
깊은 누향엔 단포의 즐거움 ¹⁵⁹ 있다네	深巷有簞瓢

종형 최운로¹⁶⁰에 대한 만사

挽崔從兄雲路

이종사촌 간의 형과 아우는	兩姨兄及弟
----------------	-------

158 피부리는 마음 : 원문은 ‘機心’이다. 《열자(列子)》 <황제(黃帝)에 “바닷가에 사는 어떤 사람이 갈매기와 친해서, 매일 아침에 바닷가로 가서 갈매기들과 놀았는데, 늘 갈매기 수백 마리가 모여들었다. 하루는 그 아버지가 ‘갈매기들이 모두 나와 논다고 하는데, 네가 잡아 오면 나도 가지고 놀고 싶다.’ 하였다. 그래서 이튿날 갈매기를 잡아 올 생각을 품고 바닷가에 나가니, 갈매기들이 너울너울 하늘을 날며 내려앉지를 않았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전에는 갈매기를 어떻게 하겠다는 기심이 조금도 없었기 때문에 갈매기들도 무심하게 가까이 한 것이요, 뒤에는 갈매기를 잡겠다는 기심이 있기 때문에 갈매기가 이를 알고 피한 것임을 의미한다. 《장자(莊子)》 <천지(天地)에 “기계(機械)가 있는 자는 반드시 피부리는 일이 있게 되고, 피부리는 일이 있는 자는 반드시 피부리는 마음이 있게 된다.[有機械者, 必有機事; 有機事者, 必有機心.]”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159 깊은……즐거움 : 청빈한 생활을 의미한다. 공자가 안회(顏回)에 대해 “어질도다, 안회(顏回)여! 한 대그릇의 밥과 한 표주박의 물을 먹으며 누추한 골목에서 생활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근심하며 견디지 못하는데, 안회는 그 즐거움을 고치지 않으니, 어질도다, 안회여[賢哉回也 一簞食一瓢飲在陋巷 人不堪其憂 回也不改其樂 賢哉回也]”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論語 雍也》

160 최운로(崔雲路) : 누구인지 미상(未詳)이다.

서로 무척 걱정하는 마음 ¹⁶¹ 돈독하다네	相篤孔懷情
자혜로운 심성을 하늘로부터 품부 받아서	慈惠由天稟
온화한 성품을 저절로 이루었네	淳和任自成
앞으로 장수 ¹⁶² 를 누리리라 기대하였으니	將期享大耄
어찌 중성 ¹⁶³ 을 닫을 줄을 생각이나 했으리오	豈意掩重城
남은 경사로 지란과 옥수를 남겼으니 ¹⁶⁴	餘慶留蘭玉
가업 잘 이어서 훗날 영예롭게 되겠지 ¹⁶⁵	克家擬後榮

- 161 무척 걱정하는 마음 : 공회(孔懷)는 형제간에 서로를 걱정하는 마음을 가리킨다. 《시경》〈소아(小雅) 상채(常棣)〉에 “사람이 죽어 초상을 치르는 두려움에 형제간에 무척 걱정하며, 언덕과 습지에 쌓인 시신을 형제가 찾아 나서네.[死喪之威, 兄弟孔懷. 原隰哀矣, 兄弟求矣.]”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 162 장수 : 원문은 ‘大耄’인데, 해가 기울듯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노년기로, 흔히 80세를 이른다. 《주역》〈이괘(離卦) 구삼(九三)〉에 “서산에 해가 기우는 형상이니, 질장구 치고 노래 부르지 않는다면 이는 노년을 한탄함이니, 흉하다도다.[日昃之離, 不鼓缶而歌, 則大耋之嗟, 凶.]”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 163 중성(重城) : 무덤을 가리키는 말인 듯하다.
- 164 남은……남겼으니 : 원문의 ‘餘慶’은 선(善)을 쌓은 음덕으로 훌륭한 자손이 많은 것임을 뜻하는 말이다. 《주역(周易)》〈곤괘(坤卦) 문언(文言)〉에 “적절한 집안에는 반드시 남은 경사가 있다.[積善之家 必有餘慶]”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원문의 ‘난옥(蘭玉)’은 ‘지란옥수(芝蘭玉樹)’의 준말로, 훌륭한 자손을 뜻한다. 진(晉)나라 때 큰 문벌을 이루었던 사안(謝安)이 자질(子姪)들에게 “자제들이 또한 인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어찌하여 사람들은 자기 자체가 출중하기를 바라는가?〔子弟亦何豫人事, 而正欲使其佳?〕”하고 묻자, 조가 사현(謝玄)이 “비유하자면 마치 지란(芝蘭)과 옥수(玉樹)가 자기 집 뜰에 자라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譬如芝蘭玉樹, 欲使其生於庭階耳.]”라고 한 데서 유래한 말이다. 《晉書 卷79 謝安列傳》
- 165 가업……되겠지 : 크가자(克家子)라고도 하는데, 조상의 사업과 집안일을 잘 계승할 수 있는 훌륭한 자제를 지칭하는바, 《주역》〈몽괘(蒙卦) 구이(九二)〉에 “구이는 몽매함을 포용해주면 길하고 부인의 말을 받아들이면 길할 것이니, 자식이 집안일을 잘하도다.[九二, 包蒙吉, 納婦吉, 子克家.]”라고 한 데에서 나온 말이다.

서 상사¹⁶⁶에 대한 만사【진명】

挽徐上舍【晉明】

충절과 효성은 늦게서야 위로 알려졌지만	節孝晚升聞
문장의 명성은 일찌감치 사람들에게 전파되었네	文聲早播人
사부는 사마상여의 달함을 기약하였고 ¹⁶⁷	賦期司馬達
재주는 염백우처럼 일찍 죽어 펼치지 못하였네 ¹⁶⁸	才屈伯牛貧
대대로 집안끼리 통하는 의리 두터웠으니	世厚通家義
일찍이 학문 장려하는 인자함 받았었네	嘗蒙獎學仁
두 빼어난 아들 손 맞잡고 위로하며	相携二秀玉
두 선친과 애통해하며 영결하였네	痛訣兩先親

어떤 이에 대한 만사

挽人

대대로 교분 나는 정 어찌 한하리오	世好情何限
할아버지 아들 손자를 서로 알고 지냈네	相知祖子孫
급작스레 이렇게 이별을 하게 되었으니	遽然成此別
어찌 혼이 녹지 않을 수 있으리오	安得不消魂
쌍계의 물은 적막히도 흐르고	寂寞雙溪水
하룻밤 새 마을은 황량하기도 하여라	荒涼一夜村

166 서 상사(徐上舍) : 누구인지 자세하지 않다. 원문의 ‘上舍’는 유생(儒生)의 칭호이다.

167 사부(辭賦)는……기약하였고 : 사마상여(司馬相如)처럼 글을 잘 지었음을 의미한다. 사마상여는 한(漢)나라 때 문장가로, 사부(辭賦)에 특히 뛰어났다. <자허부(子虛賦)>, <대인부(大人賦)> 등의 작품이 유명하다.

168 재주는……못하였네 : 서 상사(徐上舍)가 재주를 지니고 있었으나 일찍 죽었음을 애통해하는 말이다. 공자의 제자 염백우(冉伯牛)가 젊어서 나병(癩病)에 걸리자, 공자가 그의 손을 잡고는 “이런 병에 걸릴 리가 없는데, 운명인가 보다. 이런 사람이 이런 병에 걸리다니.[亡之，命矣夫。斯人也而有斯疾也。]”라고 탄식하였다. 《論語 雍也》

훗날에 혹시 그대 집을 지나가게 된다면
어찌 차마 사립문¹⁶⁹에 기대어 있으리오

他時倘相過
焉忍倚荆門

나운봉¹⁷⁰에 대한 만사[염]

挽羅雲峯【裨】

지극한 효성으로 선대의 덕을 이으니
한 쌍의 난초 한 줄기에 나란히 피었네
이제야 천리마 같은 재주 펴는구나 했더니
끝내 백 리 다스리는 현감¹⁷¹에 그치고 말았도다
비석에 세 고을 다스린 치적을 새기노니
나이는 겨우 육십¹⁷²이 되었구려
우리나라에는 야사가 없으니
훌륭한 관리에 대해 누가 전을 지어주리오

至孝種先德
雙蘭共薜開
方伸千里驥
終屈百里雷
石刻三州績
年纔五紀回
東方無野史
良吏傳誰裁

169 사립문 : 원문의 ‘荊門’은 두 개의 기둥에 한 개의 가로목을 걸쳐 만든 허술한 문으로 누추한 집의 문을 이른다.

170 나운봉(羅雲峯) : 운봉현(雲峯縣)을 다스렸으므로 이렇게 불린 것이다. 자세하지는 않으나, 《남포집(南圃集)》 권14 <남교일기(南郊日記)>에 따르면, 자상(子尙)으로 남포의 외족(外族)인 경주 부윤(慶州府尹) 나위소(羅緯素)의 아들이다. 은진현(恩津縣), 태인현(泰仁縣), 운봉현 등을 맡아 다스려 공적이 많았다고 한다.

171 백……현감(縣監) : 원문은 ‘百里雷’인데, 일반적으로 사방 100리 정도 되는 고을이 현(縣)이며, 친동이 치면 그 소리가 백리(百里)가량 진동하므로, 현감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게 되었다. ‘뇌봉(雷封)’이라고도 한다.

172 육십 : 원문은 ‘五紀’인데, 1기(紀)가 12년이므로 5기는 60년이 된다.

오언배율 (五言排律)

효종대왕에 대한 만사

孝宗大王輓辭

바닷가 조선이 중국과 가까우니	海宇近中土
건곤이 성인을 내었네	乾坤生聖人
새로운 큰 명 ¹⁷³ 을 받아	維新受大命
작은 나라 백성들의 사목이 되었다오	司牧小邦民
주 무왕은 문왕의 통서를 받들고	周武承文緒
상 고종은 태갑의 어짐을 이었네	商宗繼祖仁
순임금의 조정엔 어질고 뛰어난 이들 서 있고	虞庭賢俊立
기자의 땅에는 교화가 새롭기도 하여라	箕甸教化新
땅속의 원통한 넋을 풀어주고	地下伸冤魄
하늘가로 내쫓긴 신하를 돌아오게 하였네	天涯返逐臣
한나라의 수역 ¹⁷⁴ 을 기약했다면	韓邦期壽域
요동 변방 먼지를 씻어내었으리라	遼塞指清塵
대도는 옛날로 돌아가기를 기대하고	大道望回古
사문은 거의 참됨을 회복하게 되었다오	斯文庶復眞
창생들은 복운이 두텁지 않고	蒼生祿不厚

173 새로운 큰 명 : 《시경》〈대아(大雅) 문왕(文王)〉에 “주나라는 비록 오래된 나라지만, 그 명이 새롭도다.[周雖舊邦, 其命維新.]”라고 하였다. 이는 주나라가 비록 오래전에 생긴 나라지만, 문왕에 이르러서야 천하를 덕으로 감화시켜서 비로소 천명(天命)을 받게 되었음을 말한 것이다.

174 수역(壽域) : 사람마다 천명대로 장수를 누리는 태평성대를 말한다. 《한서(漢書)》권22 〈예악지(禮樂志)〉에 “예전의 예법을 계승하고 왕의 제도를 밝혀 온 세상의 백성들을 몰아서 인수의 지경으로 올려놓는다면[躋之仁壽之域], 풍속이 어찌 성왕(成王)과 강왕(康王) 시대만 못하며, 수명이 어찌 고종(高宗) 시대만 못하겠는가.”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황도 ¹⁷⁵ 는 날로 침몰하게 되었네	黃道日沉淪
바다의 아침 해는 부상의 새벽에 떠오르고	海旭扶暎曉
상수의 안개는 가시나무 가에 피어오르네	湘烟楚樹濱
곤궁한 백성들은 부모를 여윈 듯 슬퍼하고 ¹⁷⁶	窮民哀考妣
남기신 은택에 신린 ¹⁷⁷ 은 애통하여라	遺澤痛臣隣
황량하고 외진 이곳 비록 소원한 지역이나	荒僻雖踈遠
해바라기의 마음은 여전히 봄을 향한다네	葵心尙向春
교외 들판으로 묵은 풀을 헤치고 가서	郊原披宿草
통곡하며 용순 ¹⁷⁸ 에 절을 하노라	慟哭邦 ¹⁷⁹ 龍輻

가해년 10월 29일은 바로 대행 대왕(大行大王)¹⁸⁰께서 현궁에 내려진¹⁸¹ 날이다. 교외로 나가 엿드려서 용순을 바라보고는 곡하며 배례를 행하였다. 삼가지은 시를 기록하여 대강이나마 부모를 잃은 듯한 마음을 기술한다.¹⁸²

[己亥十月二十九日, 乃大行大王下玄宮日也. 出伏郊外, 瞻望龍輻, 哭行拜

-
- 175 황도(黃道) : 황도(黃道)는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회전한다고 생각했던 둥근 궤도이다.
- 176 곤궁한……슬퍼하고 : 백성들이 마치 부모상을 당한 것처럼 임금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을 말한다. 《서경》 <우서(虞書) 순전(舜典)>에 “임금이 세상을 떠나자 백성이 마치 부모의 상을 당한 것처럼 삼년복을 입었다.[帝乃殂落, 百姓如喪考妣三載.]”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 177 신린(臣隣) : 신하를 의미한다. 신린(臣隣)은 《서경(書經)》 <우서 익직(益稷)>에 “신하가 이웃이며 이웃이 신하이다.[臣哉鄰哉, 鄰哉臣哉.]”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 178 용순(龍輻) : 임금의 상어를 의미한다. 《예기(禮記)》 <단궁 상(檀弓上)>에 “천자의 빈은 용순(龍輻) 사면에 나무로 둘러쌓아 초빈(草殯)을 하여 꺾의 모양과 같이하고, 도끼모양의 관의(棺衣)를 꺾 위에 덮으며, 지붕을 바르는 것이 천자의 예이다.[天子之殯也, 斂塗龍輻以椁, 加斧于椁上, 畢塗屋, 天子之禮也.]”라고 보이는데, 《집설》에 “용순은 빈을 할 적에 순거(輻車)를 사용하여 관을 싣는데, 끝체에 용을 그렸기 때문이다.[龍輻, 殯時用輻車載柩, 而畫輻爲龍也.]”라고 하였다.
- 179 邦 : 저본에는 ‘邦’으로 되어 있으나, 문맥에 근거하여 ‘拜’로 바꾸어 번역하였다.
- 180 대행 대왕(大行大王) : 임금이 승하한 뒤에 아직 시호를 정하지 않았을 때의 칭호로,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선왕(先王)을 높여 이르던 말이다.
- 181 현궁(玄宮)에 내려진 : 임금이나 왕비의 관인 재궁(梓宮)을 묘혈(墓穴)인 현궁에 내려 묻는 것을 말한다. 현궁은 재궁(梓宮)이 들어가는 광중(壙中)이다. 인산(因山) 때 내재궁(內梓宮)을 외재궁(外梓宮)에 모신 다음 모든 의식이 끝나면 현궁을 닫는 봉표(封標)를 한다. 《國朝喪禮補編 券2 遷奠儀》
- 182 대강이나마……기술한다 : 원문은 ‘粗■如喪之懷云’이다. 문맥에 근거하여 ‘述’이라는 글자가 결락(缺落)된 것으로 보아 보충하여 번역하였다.

禮. 謹錄成韻語, 粗■如喪之懷云.]

나 동지¹⁸³에 대한 만사【위소】

挽羅同知【緯素】

지극한 효성으로 여경 ¹⁸⁴ 을 여니	至孝開餘慶
명공이 음덕으로 백 년 만에 나왔도다	明公蔭百年
젊은 시절 ¹⁸⁵ 부모를 거둬 여의고	深憂冠闕立
계방과 연방에 모두 이름을 올렸다네 ¹⁸⁶	通籍桂兼蓮
태상사에서 교외 제사를 흠향하고 ¹⁸⁷	太寺欽郊時
교문에서 도 강론하는 연석을 접하였다오 ¹⁸⁸	橋門接道筵

183 나동지(羅同知) : 나위소(羅緯素, 1583~1666)이다. 나주(羅州)에서 출생하여 1623년(인조1)에 문과(文科)에 급제하였다. 형조 좌랑을 지낸 후 정묘호란 때에 옥과 현감(玉果縣監)으로서 체찰사(體察使) 이원익(李元翼)을 도와 군량 조달에 힘썼다. 1650년(효종1) 9월부터 1652년 4월까지 경주 목사(慶州牧使)를 지낸 뒤에 사임하고 나주로 돌아와 산수를 즐기며 살다가 80세가 되어 노인직(老人職)으로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에 임명되었다.

184 여경(餘慶) : 조상의 은택(恩澤)으로 자손이 번창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역》 <곤괘(坤卦) 문언(文言)에 “선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남은 경사가 있다.[積善之家, 必有餘慶.]”라고 하였다.

185 젊은 시절 : 원문의 ‘冠闕立’은 약관(弱冠)의 나이인 스무 살부터 이립(而立)의 나이인 서른 살 무렵까지로, 젊은 시절을 의미한다.

186 계방(桂坊)과……올렸다네 : 나위소가 34세 때이던 광해군 8년(1616)에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여 성균관(成均館)에 들어갔고, 5년 후 삼남(三南) 지역에서 선비를 시취(試取)할 때 장원으로 합격하여 전시(殿試)에 직부(直赴)되어 급제한 것을 말한다. 계방은 대과(大科)에 급제한 사람을 적은 방목이고, 연방(蓮坊)은 소과(小科)인 생원과와 진사과에 입격한 사람의 이름을 적은 방목(榜目)이다. 곧 여기에서는 나위소가 소과와 대과에 모두 급제하였음을 의미한다.

187 태상시(太常寺)……흠향하고 : 태상시는 봉상시(奉常寺)이다. 이는 나위소가 인조 12년(1634)에 태상시 첨정(太常寺僉正)에 제수된 것을 가리킨다.

188 교문(橋門)……접하였다오 : 교문은 성균관을 가리키는 말로, 주위에 물이 흐르고 다리를 통해 네 개의 문으로 들어가므로 이른 말이다. 이는 나위소가 1630년(인조8)에 직강(直講)을 거쳐 사예(司藝)에 제수되고, 1644년(인조22)에 다시 사예(司藝)에 제수된 것 등을 가리켜 한 말이다.

성상의 노고 육부에서 나누어 맡았고 ¹⁸⁹	聖勞分六府
은수는 지하에 계신 부모에게까지 미쳤도다 ¹⁹⁰	恩數逮三泉
이품관으로 영예롭게 금의환향하였고 ¹⁹¹	貳秩榮還錦
여든 넘게 장수하여 천수를 누렸네 ¹⁹²	期髦考順天
문은 돌아가는 새를 등지고서 열렸고	門開歸鳥背
처마는 피어오르는 구름 가에 기대었네	軒倚出雲邊
낙사 ¹⁹³ 에는 관개 ¹⁹⁴ 가 모여들고	洛社傾冠蓋
평천 ¹⁹⁵ 에서 복전 ¹⁹⁶ 을 누렸도다	平泉享福田

- 189 성상의……맡았고 : 이는 나위소가 형조 좌랑(刑曹佐郎), 공조 좌랑(工曹佐郎), 예조 정랑(禮曹正郎) 등을 두루 역임한 것을 의미한다. 육부(六府)는 이조(吏曹)·호조(戶曹)·예조(禮曹)·병조(兵曹)·형조(刑曹)·공조(工曹)를 가리킨다.
- 190 은수(恩數)는……미쳤도다 : 나위소의 돌아가신 부모까지 추증(追贈)해주었다는 말인 듯하다. 원문의 ‘三泉’은 무덤 속을 가리킨다. 《사기(史記)》 권6 <진시황본기(秦始皇本紀)에 진시황의 무덤을 만드는 것에 대해 말하면서 “삼천까지 뚫고 들어가 구리를 녹여 붓고 그 속에 관을 넣었다.[穿三泉, 下銅而致棺.]”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 191 이품관(二品官)으로……금의환향하였고 : 나위소가 종2품 벼슬인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에 제수된 일을 가리킨다.
- 192 여든……누렸네 : 나위소는 85세에 별세하였다.
- 193 낙사(洛社) : 낙양(洛陽)에서 결성한 원로들의 모임으로 두 가지가 있었다. 첫째는 당나라 때에 백거이(白居易)가 주도하여 호고(胡杲), 길민(吉旼), 정거(鄭據), 유정(劉貞), 노진(盧眞), 장훈(張渾), 적겸모(狄兼謨), 노정(盧貞) 등과 함께 모임을 결성하였는데, 후대에 이를 ‘낙중구로회(洛中九老會)’라 하였다. 둘째는 북송 때에 낙양 유수(洛陽留守) 문언박(文彦博)이 부필(富弼), 석여언(席汝言), 왕상공(王尚恭), 조병(趙丙), 유계(劉几), 풍행기(馮行己), 초건중(楚建中), 왕신언(王愼言), 왕공신(王拱辰), 장문(張問), 장도(張燾), 사마광(司馬光) 등과 함께 결성한 모임으로 ‘낙양기영회(洛陽耆英會)’라고 칭하였다. 여기에서는 김만영의 집에 고관이나 사대부들이 모이는 것을 의미한다.
- 194 관개(冠蓋) : 관원의 관복과 수레를 가리키는데, 일반적으로 관원의 행차나 관모(冠帽)와 수레를 갖춘 사대부(士大夫)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 195 평천(平泉) : 평천장(平泉莊)으로, 당나라 이덕유(李德裕)의 별장 이름이다. 하남(河南) 낙양 현 남쪽에 있는데, 둘레가 40리이고 기이한 초목과 돌이 많아 그 경치가 선경(仙境)과도 같았다고 한다. 《舊唐書 卷174 李德裕列傳》 여기에서는 나위소가 70세에 관직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와 금호(錦湖) 가에 수운정(岵雲亭)이라는 정자를 짓고 그곳에서 즐거움을 만끽하고 지낸 일을 빗댄 것인 듯하다. 이곳은 평천장과 마찬가지로 경치가 매우 뛰어났다고 한다.
- 196 복전(福田) : 봄에 씨 뿌리고 가을에 수확할 수 있는 것처럼, 공양(供養)하고 보시(布施)하며 선근(善根)을 심으면 그 보답으로 복을 받는다는 뜻의 불교 용어이다.

북신은 갑적을 무너뜨리고 ¹⁹⁷	北辰虧甲籍
남극성은 정전에서 빛을 거두었네 ¹⁹⁸	南曜斂丁躔
발자국 소리는 마름 돌은 물가에 남았고	屐齒留蘋渚
지팡이 소리는 향초 자란 발두둑 너머에서 들려오네	筇音隔蕙阡
석성 ¹⁹⁹ 의 보석 ²⁰⁰ 을 감춰두고	石城藏寶鳥
난옥 ²⁰¹ 같은 어진 자제들 경사를 잇는도다	蘭玉慶諸賢
요행으로 외람되이 어머니의 가족으로서	幸辱孀家屬
인하여 온전한 지우를 입었었네	仍蒙眷遇全
평생 한 줌의 눈물을	平生一掬淚
저물녘 안개 자욱한 강에 흘뿌리리라	灑向暮江烟

-
- 197 북신(北辰)은……무너뜨리고 : 북신은 천지(天地)·오제(五帝)·군신(群神)을 호령한다는 황천상제(皇天上帝)가 위치하는 자리이다. 갑적(甲籍)은 명적(命籍)과 같은 말로, 상천이 사람의 생사요수(生死夭壽) 등을 기록해 두었다는 명부를 가리킨다. 곧, 여기에서는 나위소가 수명이 다하여 죽었음을 표현한 것이다.
- 198 남극성(南極星)은……거두었네 : 위와 마찬가지로, 나위소가 죽은 것을 나타내는 말이다. 남극성은 장수를 주관하는 별로, 노인성(老人星)이라고도 한다.
- 199 석성(石城) : 전설 속의 산 이름이다. 《장자(莊子)》〈설검(說劍)〉에 “천자의 검은 연계와 석성을 칼날 끝으로 삼고, 제나라와 대산(岱山)을 칼날로 삼고, 진나라와 위나라를 칼등으로 삼고, 주나라와 송나라를 칼자루의 테로 삼고, 한나라와 위나라를 칼자루로 삼는다.[天子之劍, 以燕谿石城爲鋒, 齊岱爲鏑 晉魏爲脊, 周宋爲鐔 韓魏爲夾.]”라고 하였다.
- 200 보석(寶鳥) : 나라나 집안의 동량이 될 만한 재물을 말한다. 《시경》〈노송(魯頌) 闕宮〉에 “조래산의 소나무와 신보산의 잣나무를, 자르고 쪼개고 채고 맞추어서, 커다란 재목 만드니 웅장한 궁궐이 완성되네.[徂來之松, 新甫之柏, 是斷是度, 是尋是尺, 松栝有鳥, 路寢孔碩.]”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 201 난옥(蘭玉) : 지란옥수(芝蘭玉樹)의 준말로, 남의 집안의 우수한 자제들을 예찬하는 말이다. 진(晉)나라 사현(謝玄)이 숙부인 사안(謝安)에게 “비유하자면 지란옥수가 집안 섬돌에 피어나 향기를 내뿜는 것과 같게 하겠다.[譬如芝蘭玉樹, 欲使其生於庭階耳.]”라고 한 데서 유래한 말이다. 《晉書 卷79 謝安傳》

이성암²⁰²에 대한 만사【수인】

挽李惺庵【壽仁】

호남에는 정학이 없었는데	湖南無正學
천년 만에 존옹 ²⁰³ 이 계셨네	千載有存翁
끊어진 실마리를 누가 이었는가	絕緒誰能繼
선생이 크게 공이 있었네	先生大有功
초년에는 계적 ²⁰⁴ 에 올랐고	初年登桂籍
중년에는 진충 ²⁰⁵ 을 깨달았지	中歲悟眞衷
역은 선천학 ²⁰⁶ 을 궁구하였고	易究先天學
마음은 미발의 중 ²⁰⁷ 을 보존하였네	心存未發中
현묘한 도를 탐구함은 격물치지 ²⁰⁸ 로부터 하였고	鉤玄從格致
오묘한 이치에 나아감은 절차탁마로부터 하였네	造妙自磨礪

202 이성암 : 이수인(李壽仁, 1601~1661)으로, 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유안(幼安), 호는 성암(惺菴)이다. 1633년(인조11)에 문과에 급제하여 사간원 정언, 성균관 직강, 사헌부 지평 등을 역임하였다.

203 존옹(存翁) : 누구인지 자세하지 않다.

204 계적(桂籍) : 과거에 급제한 사람들의 명단을 적어 놓는 책을 말한다. 진 무제(晉武帝) 때에 극선(郤詵)이 현량대책(賢良對策)에서 천하제일로 뽑혔는데, 무제가 소감을 묻자, “계수나무 무 숲의 나뭇가지 하나를 잡아 꺾은 격이고, 곤륜산의 옥돌 한 조각을 손에 쥔 격이다.[桂林之一枝, 崑山之片玉.]”라고 한 데서 유래하여 과거 시험에 급제하는 것을 ‘계수나무를 꺾었다[折桂]’고 표현하고, 과거에 급제한 사람의 명부를 계적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晉書 卷52 郤詵列傳》

205 진충(眞衷) : 참된 도리를 가리킨다. ‘衷’은 하늘이 내려준 도리를 의미한다. 《서경》〈상서(商書) 탕고(湯誥)〉에 “상제께서 충을 백성에게 내리셨다.[惟皇上帝, 降衷于下民.]”라고 하였다.

206 선천학(先天學) : 소옹의 역학(易學)을 가리킨다. 그는 《주역》을 설명하면서 복희(伏羲)의 역(易)을 선천(先天), 문왕(文王)의 역(易)을 후천(後天)이라 하였으며, <복희선천괘위도(伏羲先天卦位圖)>를 만들었다.

207 미발(未發)의 중(中) : 희로애락(喜怒哀樂)의 감정이 발하지 않았을 때의 편벽되거나 치우침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중용장구(中庸章句)》 제1장에 “희로애락이 발하기 이전을 중이라고 한다.[喜怒哀樂之未發, 謂之中.]”라고 하였다.

208 격물치지(格物致知) : 사물에 나아가 이치를 궁구하여 앎을 지극하게 한다는 의미이다. 《대학장구(大學章句)》의 팔조목(八條目)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다.

나라에 몸을 바칠 뜻이 없었던 것이 아니요
 몸을 성실히 함은 공부하는 순서가 있었네
 운음²⁰⁹ 내려오면 자주 골짜기로 달려갔고
 뜻을 돈독히 하여 끝내 곤궁함을 편안히 여겼네
 사도의 운이 장차 어두워지려나
 철인이 이제 갑자기 끝나버렸도다
 그 마음 항상 깨어있더니²¹⁰
 훌쩍 하늘로 떠나버렸네
 공손하게 연전에 절을 올리니
 정성스레 몽매함 깨우쳐 주었네
 산재에서 다시 토론하자 약속하였는데
 구름은 걷히고 태허에는 바람이 이네
 홀로 먼지 쌓인 책 속에서
 길 잃어 소경과 귀머거리처럼 서있누나
 짙막한 애사를 짓고 나니
 다시 눈동자에 눈물 맺힘을 깨닫누나

許國非無意
 誠身序有工
 恩綸頻赴谷
 篤志竟安窮
 斯道運將晦
 哲人今遽終
 惺惺心上事
 忽忽化中空
 愴下年前拜
 殷勤爲發蒙
 山齋重討約
 雲斂太虛風
 獨向塵編裏
 迷塗立瞽聾
 哀詞成短闕
 更覺涕凝瞳

209 운음(綸音) : 《예기(禮記)》 <치의(緇衣)>에 “임금의 말은 명주실과 같고 나오면 밧줄과 같다.[王言如絲，其出如綸.]”라고 한 데서 유래하여, 임금의 운음, 조칙(詔勅), 조서(詔書) 등을 가리킨다.

210 그 마음 항상 깨어있더니 : 원문의 ‘惺惺’은 원래는 선불교에서 참선을 통해 마음이 최고조로 각성되어 있는 상태를 이른다. 적적성성(寂寂惺惺)이라 하여 마음이 고요한 가운데 또렷이 깨어있어야 한다고 본 것인데, 송나라 때 사양좌(謝良佐)가 이를 차용하여 경(敬)을 해석하면서 ‘항상 마음을 깨어있게 하는 것[常惺惺然.]’이라고 하였다.

남포집

제3권

오언고시 五言古詩

남포집 제3권

오언고시 (五言古詩)

감흥【선생이 열네 살에 지은 것이다】

感興【先生年十四作】

어떤 사람이 빈 골짜기에 있는데 ²¹¹	有人在空谷
가슴에 만 곡의 시름을 삼켰도다	賀吞愁萬斛
근심하는 것은 어찌 하여야 하는가	所憂如之何
종신토록 해야지 하룻저녁이 아닐세 ²¹²	終身非一夕
우러러 태극의 처음을 생각하니	仰思太極初
두 기 ²¹³ 가 나뉘어 열리었도다	二氣相分闢
양기는 위로 올라가 맑고	陽氣上而清
음질은 아래로 내려가 탁하도다	陰質下而濁
참된 정수 이로부터 합해지고	眞精自此合
온갖 변화 이로부터 쪼개지네	萬化由是折
사람이 태어남과 만물이 생겨남은	人生與品物

211 어떤……있는데 : 빈 골짜기에 있다는 것은 《시경(詩經)》〈소아(小雅) 백구(白駒)〉에 “희디흰 백구가 저 빈 골짜기에 있네.[皎皎白駒，在彼空谷]”라고 한 데서 온 말로, 귀인이 산속에 깊이 은둔함을 형용하는 말로 쓰인다.

212 근심하는……아닐세 : 《맹자》〈이루 하(離婁下)〉에 “군자는 종신토록 하는 근심은 있어도 하루아침의 걱정은 없는 것이다. 근심하는 바로 말하면 있으니, 순임금도 사람이며 나도 사람인데 순임금은 천하에 모범이 되어서 후세에 전할 만하시거늘 나는 아직도 향인이 됨을 면치 못하였으니, 이는 근심할 만한 것이다. 근심하면 어찌하여야 하는가. 순임금과 같이 할 뿐이다.[君子有終身之憂，無一朝之患也。乃若所憂則有之，舜人也，我亦人也，舜爲法於天下，可傳於後世，我由未免爲鄉人也，是則可憂也。憂之如何？如舜而已矣。]”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213 두 기 : 음(陰)과 양(陽)을 가리킨다.

바로 그 지극한 것을 얻어서이네	乃得其所極
사람이 가장 귀하게 여겨지는 것은	人爲最貴者
허령하여 진실로 헤아릴 수 없어서이네 ²¹⁴	虛靈誠不測
귀히 여길 것은 무슨 일에 있는가	所貴在甚事
다만 도와 덕뿐이랴오	只是道與德
사도는 본래 하늘에 있는데	斯道本在天
육합 ²¹⁵ 에 널리 퍼져 가득하랴오	彌漫於六合
천지보다 먼저 생겨서	生於天地先
만고토록 휴여라도 쉬이 없다네	萬古無或息
복희와 신농이 처음 얻었고	羲農初得之
당요와 우순이 정히 빛냈네	唐虞正光赫
삼대 ²¹⁶ 는 연원이 오래되었으니	三代久淵源
성인들이 서로들 전하여 얻었다오	聖聖相傳得
깊고도 원대한 노나라 문선 ²¹⁷ 은	穆穆魯文宣
급급하게 목탁을 울렸네 ²¹⁸	汲汲鳴木鐸

214 허령(虛靈)하여……없어서이네 : 마음을 가리켜 한 말로, 사람에게는 이러한 마음이 있어서 가장 귀하게 여겨진다고 한 것이다. 허령은 우리 마음이 텅 빈 가운데 신령스럽다는 말로, 《대학장구(大學章句)》경1장(經一章)의 “재명명덕(在明明德)”에 대한 주희(朱熹)의 주석에 “명덕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늘로부터 얻은 것으로, 허령하고 어둡지 않아 온갖 이치를 갖추고 만사에 응하는 것이다.[明德者, 人之所得乎天而虛靈不昧, 以具衆理而應萬事者也.]”라고 하였다. 또, 《소학(小學)》<가언(嘉言)>에 “마음은 강자 안에 있어야 한다.[心要在腔子裏.]”라고 한 데 대하여, 주희는 “마음이란 물건은 지극히 허령하여 신묘하고 헤아릴 수 없어 항상 한 몸의 주인이 된다.[心之爲物, 至虛至靈, 神妙不測, 常爲一身之主.]”라고 하였다. 또, 《주자대전(朱子大全)》권4 <재거감흥(齋居感興)> 20수(首) 중 세 번째 시에 “사람의 마음은 오묘하여 헤아릴 수 없으니, 출입함에 기의 기미를 타네.[人心妙不測, 出入乘氣機.]”라고 하였다.

215 육합(六合) : 천지(天地)와 사방(四方)으로, 온 세상을 의미한다.

216 삼대(三代) : 하(夏)·은(殷)·주(周)를 말한다.

217 노(魯) 나라 문선(文宣) : 공자(孔子)를 말한다. 당(唐) 나라 현종(玄宗)이 736년 공자를 문선왕(文宣王)에 추증(追贈)하였다.

218 급급(汲汲)하게……울렸네 : 공자가 세상에 도(道)를 행하기 위하여 마냥 바쁘게 천하를 두루 돌아다녔던 것을 말한다. 《법언(法言)》<학행(學行)>에, “요·순·우·탕·문·무는 급급하였고, 중니는 황황했다.[堯舜禹湯文武汲汲 仲尼遑遑]”라고 하였고, 반고(班固)의 <답빈희(答賓戲)>에 “공자의 앉은 자리는 다스릴 겨를이 없었다.[孔席不暖.]”라고 하였다. 《文選

이구 ²¹⁹ 엔 해와 달이 밝고	尼丘日月明
수사 ²²⁰ 엔 하늘과 땅이 확 트였어라	洙泗乾坤廓
춘추는 기록이 이미 끊겼고	春秋筆已絕
육경은 공연히 역력하여라	六經空歷歷
기수에는 호연한 기운 발하고 ²²¹	沂水浩氣發
누추한 골목 ²²² 에는 봄빛이 푸르도다	陋巷春光碧
하나로 꿰뚫는 이치 증씨에게 전하니 ²²³	一貫傳曾氏
성인의 자손이 마침내 잇게 되었도다 ²²⁴	聖孫乃得續
우뚝하신 호연자 ²²⁵ 가	巖巖浩然子

卷45》 목탁을 울렸다는 것은 《논어》〈팔일(八佾)〉에 “의(儀) 고을의 봉인(封人)이 공자를 뵈고 나서 말하기를 ‘천하가 무도한 지 오래되었으니, 하늘이 장차 부자를 목탁으로 삼으시리라.[天下之無道也久矣 天將以夫子爲木鐸]’ 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 219 이구(尼丘) : 중국 산둥성(山東省) 곡부현(曲阜縣)에 있는 산으로, 공자의 아버지 숙량홍(叔梁紇)이 어머니 안씨(顏氏)와 함께 이구산(尼丘山)에 기도하여 공자를 얻었으므로 이름을 구(丘)라 하고, 자를 중니(仲尼)라고 하였다. 《史記 孔子世家》
- 220 수사(洙泗) : 중국 산둥성(山東省) 곡부(曲阜)를 지나는 두 개의 강물 이름 곧 수수(洙水)와 사수(泗水)로, 이곳이 공자의 고향에 가깝고 또 그 강물 사이의 지역에서 제자들을 가르쳤다.
- 221 기수(沂水)에는……발하고 : 호연한 기운이란 인욕(人慾)이 없고 천지의 만물과 함께 유행하여 천리(天理)가 충만한 기상을 말한다. 각자 자신의 뜻을 말해 보라는 공자의 명에 따라, 제자 증점(曾點)이 “모춘에 봄옷이 이루어지거든 관을 쓴 어른 대어섯 사람과 동자 예닐곱 사람과 함께 기수에 목욕하고 무우에서 바람을 쐬고 시를 읊으면서 돌아오겠습니다.[莫春者, 春服既成, 冠者五六人, 童子六七人, 浴乎沂, 風乎舞雩, 詠而歸.]”라고 하였다. 《論語 先進》
- 222 누추한 골목 : 공자의 제자인 안연(顏淵)이 거처했던 곳으로, 보통 안빈낙도(安貧樂道)의 자세를 의미하는 말이다. 《논어》〈옹야(雍也)〉에 “어질다, 안회여! 한 그릇 밥과 한 표주박 물을 마시며 누추한 골목에 사는 것을 사람들은 근심하며 견뎌내지 못하는데, 안회는 그 즐거움을 바꾸지 않으니, 어질도다, 안회여! [賢哉回也! 一簞食, 一瓢飲, 在陋巷, 人不堪其憂, 回也, 不改其樂, 賢哉回也!]”라고 하였다. 안회는 안연이다.
- 223 하나로……전하니 : 하나로 꿰뚫는 이치라는 것은 《논어》〈이인(里仁)〉에 공자(孔子)가 제자 증삼(曾參)을 불러서 “우리의 도는 하나의 이치로 모든 일을 꿰뚫고 있다.[吾道一以貫之.]”라고 하자, 증삼이 “네, 그렇습니다.[唯.]”라고 대답하였고, 다른 문인들이 공자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묻자, 증삼이 말하기를 “부자의 도는 바로 충서이다.[夫子之道, 忠恕而已矣.]”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증삼은 여기에서 말한 증씨(曾氏), 곧 증자(曾子)이다.
- 224 성인의……되었도다 : 공자가 증자에게 전한 도통이 공자의 손자인 자사(子思)에게 전해진 것을 의미한다.
- 225 호연자(浩然子) : 맹자를 가리킨다. 《맹자》〈공손추 상(公孫丑上)〉에 맹자가 “나는 나의 호

양목을 막을 것을 말하였네 ²²⁶	能言拒楊墨
우리 도의 운이 마침내 곤궁해져서	吾道運乃窮
미치광이 진나라가 불을 질러 막았네	狂秦烟火塞
한나라 당나라에서도 오랫동안 침몰되어	漢唐久淪沒
푸른 이끼가 죽백 ²²⁷ 에 생겼도다	莓苔生竹帛
하늘의 조화는 멀어도 쇠하지 않으니	天造遠不衰
송나라의 덕 어찌 그리 드높던가	宋德何巍巍
사문의 운이 다시금 창성하여	斯文運再昌
일맥으로 엽락 ²²⁸ 에게 전해졌네	一脉傳濂洛
하남 ²²⁹ 에는 도의 기운 새롭고	河南道氣新
관민 ²³⁰ 에는 광풍이 빛났도다	關閩光風奕
하늘이 회암옹 ²³¹ 을 내어	天生晦庵翁
이전 성인의 자취를 잇게 하였네	得接前聖跡
도의 근원이 다시 이로부터 밝아져서	道源復此明

연지기를 잘 기른다.[我善養吾浩然之氣.]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 226 양목(楊墨)을……말하였네 : 《맹자》〈등문공 하(滕文公下)〉에 맹자가 “능히 양목을 막을 것을 말하는 자는 성인의 무리이다.[能言距楊墨者，聖人之徒也.]”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또, 맹자가 이단(異端)의 학문이 횡행하는 것을 우려하여 “내가 이 때문에 두려워하여 선성의 도를 보위하여 양목을 막으며 바르지 않은 말을 추방하여 부정학 학설이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吾爲此懼，閑先聖之道，距楊墨，放淫辭，邪說者不得作.]”라고 하였다. 참고로, 한유(韓愈)의 <여맹간상서서(與孟簡尙書書)〉에 “양자운(揚子雲)이 이르기를 ‘옛날에 양목적이 정도를 막으므로 맹자가 말로 밝혀 물리쳐서 환하게 내놓았다.’ 하였다.[揚子雲曰，古者楊墨塞路，孟子辭而闢之廓如也.]”라고 한 내용이 보인다. 《古文眞寶後集》 양목은 양주(楊朱)와 목적(墨翟)으로, 유가에서는 이들을 이단(異端)으로 보아 물리치기를 힘썼다. 양주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인 자애설(自愛說)을 주장하였고, 목적은 극단적인 박애주의인 겸애설(兼愛說)을 주장하였다.
- 227 죽백(竹帛) : 고대에 종이 가 없을 때 죽간(竹簡)과 명주에 글을 썼던 데서 온 말로 사서(史書)나 서책을 뜻한다.
- 228 엽락(濂洛) : 엽계(濂溪)의 주돈이(周敦頤), 낙양(洛陽)의 정호(程顥)·정이(程頤) 형제를 합하여 이르는 말이다.
- 229 하남(河南) : 중국 낙양(洛陽)의 별칭으로, 그곳에서 이학(理學)을 천명(闡明)했던 송(宋)나라 때의 대학자 정호(程顥)와 정이(程頤) 형제를 가리킨다.
- 230 관민(關閩) : 관중(關中)의 장재(張載), 민중(閩中)의 주희(朱熹)를 합하여 이르는 말이다.
- 231 회암옹(晦庵翁) : 주희(朱熹)를 가리킨다.

찬란하게 별과 해처럼 환해졌도다
 줄 끊어진 요금이 이어지고
 먼지 쌓인 보감이 씻겨졌네²³²
 정통이 힘입어 실추되지 않아
 추나라 노나라와 공적을 견주었네
 선생이 한 번 떠나가신 뒤로
 세상인심 뒤집힘이 많았네
 천년의 세월 동안 쓸쓸도 하여
 욕망의 물결이 거세게 파도쳤다오
 영원히 밤인 채로 다시는 날이 밝지 않아
 어두침침하고도 길이 적막하였네
 간혹 흥기하는 자가 있었으나
 좌선하며 육구연을 배우는 이가 많았네²³³
 머리는 있으나 그 꼬리를 잃었으니
 누가 본말을 밝힐 수 있었으리오
 또다시 박잡한 무리가 있어
 뿌리를 버리고 가지와 잎만을 취하였네
 초려에서 남몰래 시름에 겨웠으나

炳炳星日白
 瑤琴絕絃續
 寶匣塵埃滌
 嫡統賴不墜
 並駕鄒魯績
 先生一去後
 世情多翻覆
 寥寥千載間
 慾浪波怒激
 永夜不復曙
 沉沉長寂寂
 間或有作者
 坐禪多學陸
 有頭失其尾
 誰能明本末
 又有駁雜徒
 舍根取枝葉
 草廬暗生愁

232 줄……씻겨졌네 : 사도가 다시 밝아짐을 의미한다. 증극(曾極)이 도주(道州)에 유배되었을 때, 당시 간신(奸臣) 한탁우(韓侂胄)에 의해 위학(僞學)이라는 배척을 받고 역시 도주에 유배 중이던 채원정(蔡元定)에게 부친 시이다. “거문고만 공연히 보감에 들어 있을 뿐, 줄이 끊어져 소리는 들을 수가 없네그려.[瑤琴空寶匣, 絃斷不堪聽.]”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詩人玉屑 卷19》

233 좌선(坐禪)……많았네 : 육구연(陸九淵, 1139~1192)은 자는 자정(子靜), 호는 존재(存齋) 또는 상산(象山)이다. 주희와 함께 당대에 명망이 높았는데, 학문적 견해는 서로 대립적이었다. 육구연은 ‘심즉리(心卽理)’의 주관적 유심론(主觀的唯心論)을 주창하여 주자(朱子)의 ‘성즉리(性卽理)’와 천리인욕설(天理人欲說)에 대항하였는데, 이때부터 유학은 주(朱)와 육(陸)의 두 학파로 갈라졌다. 뒤에 육학은 왕양명(王陽明)에게 계승되어 양명학(陽明學)으로 발전하였다. 이때 주희의 학문을 따르는 학자들이 내세운 논리 중 가장 중요한 명분은 육왕의 학문적 방향이 선종(禪宗)을 닮았다는 것이었다. 이는 좌선을 통해 모든 사념을 잊으려는 공부 가 오히려 잡념을 불러일으켜 한순간도 쉬지 않고 잡념과 싸워야만 하게 된다고 여겼기 때문이었다.

그런데도 잘못을 면치 못하였네	猶且不免失
분분하게 두서가 많아	紛紛頭緒多
마침내 돌아가 머물 곳이 없게 되었네	無地竟歸宿
하물며 이곳은 만리 밖이요	況此萬里外
바다 모퉁이 한 외딴 지역임에라	海隅一孤域
허둥지둥 이룩을 쫓느라	遑遑逐利祿
천작 ²³⁴ 을 닦을 겨를 없었네	無暇修天爵
예의가 이미 꽉 막혔으니	禮義已充塞
온 세상이 모두 황폐한 집 ²³⁵ 이었다오	舉世皆荒屋
포옹 ²³⁶ 은 닭 속의 봉황처럼 출중하였고	圃翁鳳出鷄
점필재 ²³⁷ 는 그 자취를 좇았다네	佔畢追其蹟
예닐곱의 어진 이들 성대히 일어났으니	蔚蔚六七賢
도수 ²³⁸ 가 그 적통을 이었다오	陶叟承迺適
슬프도다! 한나라는 금고하였고 ²³⁹	嗟矣漢禁錮
참혹하도다 송나라는 위학이라 하였네 ²⁴⁰	慘矣宋僞學

234 천작(天爵) : 천연적인 작위(爵位)로, 고상한 도덕과 수양을 가리키는 말이다. 《맹자》 <고자상(告子上)>에 “인의충신과 선을 좋아하여 게을리하지 않는 것은 천작이다.[仁義忠信樂善不倦, 此天爵也.]”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235 황폐한 집 : 주희가 말하기를, “대개 몸은 하나의 집과 같고 마음은 한 집의 주인과 같은 것이다. 이 집의 주인이 있는 뒤에야 문호를 청소하고 사무를 정돈할 수 있으니, 만약 주인이 없다면 이 집은 하나의 황폐한 집에 불과할 뿐이다.[蓋身如一屋子, 心如一家主. 有他家主然後, 能灑掃門戶, 整頓事務. 若是無主, 則此屋, 不過一荒屋爾.]”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心經附註 卷3》

236 포옹(圃翁) : 정몽주(鄭夢周, 1337~1392)로, 그의 호가 포옹(圃隱)이므로 이른 말이다.

237 점필재(佔畢齋) : 김종직(金宗直, 1431~1492)으로, 점필재는 그의 호이다.

238 도수(陶叟) : 이황(李滉, 1501~1570)으로, 도수는 그의 호이다.

239 한나라는 금고(禁錮)하였고 : 조선의 유학(儒學)에 대한 박해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후한 환제(桓帝) 때 정권을 전횡하던 환관(宦官)들이 자기들을 비판한 진번(陳蕃), 이옹(李膺) 등의 우국지사(憂國之士)들을 도리어 조정을 반대하는 당인(黨人)으로 몰아 옥에 가두거나 죽이고 종신금고(終身禁錮)에 처했던 이른바 당고(黨錮)의 화(禍)를 두고 한 말이다. 《後漢書 卷67 黨錮列傳》

240 송나라는……하였네 : 위와 마찬가지로, 조선의 유학에 대한 박해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송나라 영종(寧宗) 때 한탁주(韓侂胄)가 정권을 잡자, 그 추종자인 호굉(胡紘)이 한탁주의 사주를 받아 주희·조여우(趙汝愚)를 축출하려고 하였다. 이에 조여우를 탄핵하고 또 조

봉새 날아오르자 돌풍이 꺾어버린 것 아니라²⁴¹
 난초 싹이 트자 서리가 먼저 내렸다고
 남은 향기 끊어진 지 이미 오래고
 큰 장마 당하여 때마침 어려웠네
 지금까지도 학철²⁴²에서 허우적거리니
 길이 갈리어 남북이 따로 없게 되었네
 갈팡질팡 길을 잃은 사람들이여
 문을 나서서는 다시 들어가기를 잊었도다²⁴³
 그러므로 나와 같은 소자는
 밤낮으로 늘 시름에 잠긴다네
 근심해봤자 끝내 얻을 것 없으니
 지의만 한갓 움츠러들 뿐이라오²⁴⁴
 사도는 진실로 어떤 물건인가
 한 번 제대로 보기라도 해보았으면
 내가 옛 성인의 글을 살펴보니
 도는 본래 콩과 조와 같은지라
 일상생활하는 사이에 행해지는 것이요
 내 마음 깊숙이 간직된 것이라 하네

鵬騰颺毋挫
 蘭茁霜先落
 餘香絕已久
 大霖當時澁
 沉湫及今日
 路歧無南北
 俛俛失道人
 出戶復忘人
 所以余小子
 日夜長戚戚
 戚戚竟無得
 志意徒局束
 斯道信何物
 願一見其的
 吾觀古聖書
 道本如菽粟
 行於日用間
 藏諸吾心曲

여우가 주희를 끌어들이어 위학(僞學)을 한다고 비방하였던 일련의 일을 가리킨다. 곧, 한탁주가 정권을 잡고 자기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제거하기 위하여 도학(道學)을 위학이라 칭한 것을 이르는 말이다.

241 봉새……꺾어버린 것 아니라 : 원문은 ‘鵬騰颺毋挫’이다. 내용상 앞뒤의 문맥이 통하지 않아 ‘毋’를 빼고 번역하였다.

242 학철(涸轍) : 수레바퀴 자국에 아주 조금 낀 물을 말한다. 《장자(莊子)》 <외물(外物)>에 의하면, 붕어 한 마리가 수레바퀴 자국에 고인 물에 허우적거리면서 길 가는 장주(莊周)에게, 한 말이나 한 되쯤 되는 물을 가져다가 자기를 살려 줄 수 있겠느냐고 하므로, 장주가 장차 오월(吳越) 지방으로 가서 서강(西江)의 물을 끌어다 대 주겠다고 하자, 그 붕어가 화를 내며 “나는 지금 당장 한 말이나 한 되쯤의 물만 얻으면 살 수 있는데, 당신이 이렇게 엉뚱한 말을 하니, 일찌감치 나를 건어물 가게에서 찾는 것이 낫겠다.[吾得斗升之水然活耳, 君乃言此, 曾不如早索我於枯魚之肆.]”라고 했다는 데서 온 말로, 전하여 곤경에 처한 것을 비유한다.

243 문을……잊었도다 : 유학을 버린 이후 바른 학문으로 되돌아올 줄 몰랐다는 의미이다.

244 徒 : 저본에는 ‘徙’로 되어 있으나, 문맥에 근거하여 ‘徙’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구하면 반드시 얻는 법이니	求之必得之
무슨 까닭으로 항상 울적하리오	何用常鬱抑
구하기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求之奈何
놓아버린 뜻을 잘 수렴하는 것일 테지	放志收斂克
얻기를 또한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得之亦如何
먼저 마음의 검은 때를 씻어야 한다네	先清心上黑
선행을 힘써서 참으로 쌓는다면	爲善力眞積
자연스레 그 악은 없어지게 된다오	自然消其惡
옛날에 선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古有作善人
두 그릇에 흰콩과 붉은 콩을 놓았다오	兩器豆白赤
처음엔 대부분 붉은 것이 그릇을 채우더니	初多赤滿器
오랫동안 보니 대부분 흰 것이 쌓였다오 ²⁴⁵	久見多積白
뜻을 세우는 것은 옹당 이와 같이 하여야	立志當如此
외부의 적을 물리칠 수 있다오	可以防外賊
요임금도 사람이요 나도 사람이니	堯人我亦人
하기만 하면 모두 이와 같이 된다네 ²⁴⁶	服爲皆是若
주일무적 ²⁴⁷ 이라는 글자는	主一無適字

245 옛날에……쌓였다오 : 스스로를 경계하며 선을 행함을 의미하는 말이다.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영조(英祖) 즉위년 10월 24일 기사에 “조변(趙抃) 같은 경우는 또 항상 붉은 콩과 검은 콩을 놓고 한 번이라도 샷된 생각이 들면 바로 검은 콩을 놓고 한 번이라도 착한 생각이 들면 바로 붉은 콩을 놓았는데, 처음에는 검은 콩이 많았으나 나중에 가서는 붉은 콩이 많아지는 경지에 이르렀다 합니다.”라고 한 내용이 보인다. 이를 가리키는 듯하나, 자세한 것은 아니다.

246 요임금도……된다네 : 《맹자》 <고자 상(告子上)>에, “자가가 원하는 사람처럼 그대로만 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다.[亦爲之而已矣.]”라고 전제한 뒤에, “요 임금의 옷을 입고, 요 임금의 말을 외우고, 요 임금이 행한 대로 행하면, 바로 요 임금이 되는 것이다.[服堯之服, 誦堯之言, 行堯之行, 是堯而已矣.]”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247 주일무적(主一無適) : 정이(程頤)가 ‘경(敬)’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시한 하나의 명제이다. 주일(主一)은 하나를 위주로 한다는 뜻으로 마음을 전일(專一)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무적(無適)은 옮겨 감이 없다는 뜻으로 마음속에 잡념이 없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정수언(二程粹言)》 권상(卷上)에 “주일(主一)을 경이라 하고, 무적을 일이라 한다.[主一之謂敬 無適之謂一.]”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주희는 《주자어류(朱子語類)》 권120에 “정자가 말한 주일무적의 주일은 단지 전일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程子所謂主一無適, 主一只是專一.]”라고 하였

잡은 것은 요약되나 그 배움은 넓다네
 처음을 탐색하고 또 끝을 돌아켜야
 지극히 치밀하기가 자물쇠와 같아진다오
 머리가 없으면 무엇을 이겠는가
 발이 있으니 바야흐로 넘어지지 않으리라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치우쳐서는 안 되니
 밖을 방정하게 하고 안을 곧게 하여야 한다네
 허물이 있으면 서둘러 고치는 것이 귀하고
 돌을 쪼아야 옥을 볼 수 있다오
 오직 광자만이 성인이 될 수 있으니
 닭이 울면 모름지기 깨달을 수 있으리라
 나의 말이 진실로 망령되지 않으니
 절차탁마하는 것은 그대들의 몫일세
 아! 우리 당의 소자들아
 힘쓰고 힘쓰며 또 노력할지이다

操約其施博
 原始又返終
 至密猶鎖鑰
 無頭何所戴
 有足方不蹶
 二者一不偏
 外方而內直
 有過貴速改
 琢石可見玉
 惟狂可作聖
 鷄鳴須得覺
 吾言信不妄
 在爾能切琢
 嗟吾黨小子
 勉勉復勸勸

밤에 앉아

夜坐

새벽녘 창가에선 닭 우는 두어 소리 들려오니
 떨어지는 달에 남은 꿈 마저 꾸어보네
 깨려고 하자 마음이 먼저 일어나니
 둥근 구슬을 돌리다가 다시 만지작하네²⁴⁸

曉窓鷄數聲
 落月臨殘夢
 欲覺心先起
 圓珠轉復弄

고, 또 《논어》〈학이(學而)〉의 ‘경사이신(敬事而信)’에 대한 주희(朱熹)의 주석에 “경은 주일 무적을 의미한다.[敬者, 主一無適之謂.]”라고 하였다.

248 마음아……만지작하네 : 심상(心想)이 분전(奔轉)하여 멈추지 않는 것이 소반 위의 둥근 구슬과 같음을 비유한 말이다. 《석문귀경의(釋門歸敬儀)》에 “教稱野鹿, 又等圓珠.”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쓸쓸한 작은 평상 머리엔
이슬 맞은 풀벌레 우는 소리 울리누나

寂寂小床頭
露草虫響動

자다 깨서

睡起

자다 깨어 아무런 생각 없이
홀로 텅 빈 방 안에 앉아있네
사체는 존재하지 않는 듯하고
일심은 허공에 매달린 듯하여라
조용히 참된 경계에 도달하여
주인옹²⁴⁹을 불러일으키네

睡覺百慮滅
獨坐虛室中
四體若無物
一心如懸空
默到眞境界
喚起主人翁

두 번째

其二

아파 졸다가 잠깐 눈 좀 붙인다는 것이
눈 떠보니 해가 저물어가고 있네
저물녘 들관에는 서늘한 기운 일고
산골 구름은 청적색이 섞였어라
한가히 앉아 성긴 창에 기대있자니
새는 울어대는데 인적은 하나 없네

病睡乍交睫
開眸日向夕
微涼生晚郊
岵雲間青赤
閒坐倚疎櫺
鳥鳴人寂寂

249 주인옹(主人翁) : 몸의 주인인 마음을 의인화한 것이다. 당(唐)나라 때 서암(瑞巖)이란 승려가 매일 스스로 자문자답(自問自答)하기를, “주인옹아! 깨어 있느냐?[主人翁, 惺惺否?]” “깨어 있노라.[惺惺.]”라고 하면서 마음을 다스렸다고 한다. 《心經 卷1》

산새에게 말하다

語山鳥

나는 본래 말수도 적고
 나는 본래 좋아하는 것도 없단다
 줄렬함은 산속 중과 비슷하고
 담박함은 시골 늙은이와 같지
 세상 사람들 나를 어리석다 하며
 진흙을 팽개치듯 하였었다
 산새야 너는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노니는 것이나
 천지는 넓고도 크나니
 나와 함께 끝까지 한가히 지내리라

我本小言語
 我本無耆好
 踈拙似山僧
 淡泊如野老
 世皆謂我愚
 棄之如泥土
 山鳥爾何故
 與我從之遊
 天地廣而大
 與爾終悠悠

산새가 답하다

山鳥答

세상 사람들 탄환을 좋아하여
 교묘하게 석영²⁵⁰을 많이도 쏘아대네
 세상 사람들 그물 치기를 좋아하여
 평지에 덫과 함정을 놓는다네

世人好彈丸
 巧發多射影
 世人好張羅
 平地生機穽

250 석영(射影) : 물여우(鰈)라는 곤충의 별칭인데, 여기에서는 새를 쏘아 맞추는 것을 비유하였다. 이 곤충은 물가에 선 사람의 그림자가 물속에 비치면 그 그림자를 기운이나 모래를 머금어서 쏘면 사람이 죽기가 생기고 병에 걸린다고 한다. 《시경》〈소아(小雅) 하인사(何人斯)〉에 “귀신이 되고 물여우가 된다면 볼 수가 없거니와, 버젓이 면목이 있어 사람을 봄이 다함이 없다.[爲鬼爲鰈則不可得, 有覩面目, 視人罔極.]”라고 하였는데, 주희(朱熹)의 주에 “입에 모래를 머금고 수중의 사람 그림자에 뿔으면 그 사람에게 바로 병이 생긴다.[能含沙以射水中人影, 其人輒病.]”라고 하였다.

봉새는 하늘로 오르는 날개를 거두고
용은 구름 타는 비늘을 감추었다오
나는 미리 낚새를 알아차리고서²⁵¹
날아 산 너머 사람을 따르는 것이라오

鵬斂升天翼
龍沉駕雲鱗
所以余色擧
飛從山外人

유쾌하여

快意

천지 가운데에 대 자로 누우니
천지 가운데의 사나이로다
너른 거처는 끝없이 광활하고
해와 달은 밝디밝도다
그런 까닭에 이내 마음속은
밝은 구슬이 물처럼 담박하여라
육합²⁵²도 또한 멀리 있지 않고
삼광²⁵³은 오직 하나의 이치여라
털끝도 적은 것이 아니요
만물도 나와 한 몸이라네
고귀함 미천함과 살고 죽는 것은
태허의 뜬구름이나 마찬가지로

大臥天地中
天地中男子
廣居闊無邊
日月昭昭矣
所以方寸中
明珠淡若水
六合亦不遠
三光唯一理
毫末不爲少
萬物不爲彼
貴賤與生死
浮雲太虛爾

251 낚새를 알아차리고서 : 원문의 ‘色擧’는 ‘색사거의(色斯擧矣)’의 준말로, 기색을 보고서 조심하는 것을 의미한다. 《논어》〈향당(鄉黨)〉의 “새가 사람의 기색이 좋지 않은 것을 보면 날아올라 빙빙 돌며 살펴보고 나서 내려앉는다.[色斯擧矣, 翔而後集.]”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252 육합(六合) : 천지와 사방, 곧 우주 전체를 말한다.

253 삼광(三光) : 해와 달과 별을 말한다.

밤에 앉아 그냥 짓다

夜坐漫成

하늘에서 맑은 이슬 내려
 방울방울 뜰 가 풀에 떨어지네
 여린 잎은 은은한 향기 풍기니
 봄기운이 막 일찍도 돌아왔누나
 그 속 나의 한 조각 마음은
 살그머니 맑은 밤에 좋다오
 지극히 오묘함 그 사이에 존재하니
 말하고자 하나 말해 줄 수가 없네
 하나하나 천군을 살피고
 뿔뿔이 하늘을 우러르네
 아득하여 갑자기 할 말을 잊었으니
 간절하고 지극하며 넓고도 넓도다

清露自天降
 點滴庭邊草
 微香生嫩葉
 春意初回早
 中有一片心
 暗向清夜好
 至妙存其間
 欲言不能道
 點點對天君
 率率仰蒼昊
 悠然忽忘言
 肫肫而浩浩

그냥 짓다

漫賦

세상 밖에 있는 전원이야
 열흘 동안 사람 구경 못하였네
 병이 많아 항상 약초를 심고
 한가로워 누차 봄 경치 구경하였네
 새는 처마 속 틈을 살피고
 이끼는 바위 위 티끌을 덮었네
 학은 바람에 놀라 대죽을 울리고
 숲은 비로 어둑해져 안개가 자욱하네

田園在世外
 十日未見人
 多病恒蒔藥
 投閒賞春
 鳥窺簷裏隙
 苔蝕石上塵
 鶴驚風鳴竹
 林暝雨和烟

고요한 생활 속 아무런 일 없으니
스스로 옛날 천민²⁵⁴이라 말하네

靜中無所事
自道古天民

천명음

天命吟

천명으로 내가 사람이 되었고
천명으로 나는 길이 막혔도다
사람이 된 것이 우연이 아니니
길 막힌 것을 어찌 근심하리오
하늘 바라봄에 하늘은 끝이 없고
땅을 바라봄에 땅도 넓디넓도다
내 몸 비록 너무도 작으나
명이 있어 하늘과 통하였네
백 년 세월 한순간이니
사계절은 얼마나 빨리 지나가랴
몹 사물은 쉬이 지배하고
귀와 눈은 흔히 끌려 다니기 마련이네
집이 황폐한 채 다스려지지 않았으면
주인은 응당 확충하여야 하는 것이지²⁵⁵
인간 세상 온갖 가지 일은

天命我爲人
天命我塗窮
爲人不偶然
塗窮何忡忡
望天天不極
望地地亦洪
吾身雖至微
有命天相通
百年一瞬息
四序何怱怱
羣物易爲宰
耳目多被蒙
屋子荒不理
主人宜擴充
人間百萬事

254 천민(天民) : 천리(天理)를 다하는 백성(百姓)을 뜻하는 말로 도(道)를 체득한 사람을 말한다. 《맹자》〈진심 상(盡心上)〉 “나는 하늘이 낸 백성 중에서 먼저 깨달은 자이니, 내가 장차 이 도로 이 백성들을 깨우쳐야 할 것이다.[予天民之先覺者也, 予將以斯道覺斯民也.]”라고 한 데서 나온 말이다.

255 집이……것이 지 : 주희가 말하기를, “대개 몸은 하나의 집과 같고 마음은 한 집의 주인과 같은 것이다. 이 집의 주인이 있는 뒤에야 문호를 청소하고 사무를 정돈할 수 있으니, 만약 주인이 없다면 이 집은 하나의 황폐한 집에 불과할 뿐이다.[蓋身如一屋子, 心如一家主. 有此家主然後, 能灑掃門戶, 整頓事務. 若是無主, 則此屋, 不過一荒屋爾.]”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心經附註 卷3》

꿈에서 깨면 다시 헛것이 된다오
나는 천명음을 읊어
호탕하게 창공에 노니리라

夢覺還成空
我吟天命吟
浩蕩遊蒼穹

감회가 있어

有感

하늘은 이미 커서 끝이 없고
땅은 또한 넓고도 두텁도다
이미 크고 또 넓고도 두터우니
온갖 만물이 다 존재하도다
밝은 것은 해와 달이요
탁한 것은 산과 언덕이라네
크면 고래나 봉새이고
작으면 한낱 먼지나 티끌일레
원래 안과 밖이 없으니
본디 어찌 선후가 있으리오
굽어보나 우러러보나 감탄 절로 나오니
아아 세상이 바로 벗이로다

天既大無窮
地亦廣而厚
既大且廣厚
萬物無不有
明者爲日月
濁者爲山阜
大而爲鯨鵬
細而一塵垢
從來無內外
本豈有先後
俯仰成感歎
嗟爾世上友

월하음

月下吟

어둑한 구름의 열은 그늘로 달빛을 부서지고
푸른 산은 흰 달을 이고 있네
세상에 눈을 가진 자라면

暝雲破微陰
靑山戴素月
人間有目者

누군들 둥글고 깨끗한 달을 우러르지 않으리오
 한 줄기 한 줄기 맑은 빛을 흩어주니
 만방이 백주 대낮처럼 환하도다
 끝없는 티끌세상이
 보옥 동굴로 변하였네
 나를 선정 속에 두었더니
 삼라만상이 죽 늘어서도다

孰不仰圓潔
 一一散清光
 萬方如白日
 無限塵埃界
 化作瓊瑤窟
 置我玉境中
 森然萬象列

봄날 비 내린 뒤 객을 마주 대하고서 감회가 있어 기록하다

春日雨後 對客有懷紀事

단비가 봄날 하늘에서 내리니
 초목이 색다른 향기를 풍기네
 새는 새로운 봄을 맞이하는 듯 울고
 산은 비 갠 뒤의 산빛을 더하누나
 연못의 물고기는 서로 축하하기라도 하는 듯이
 뛰어오르며 팔딱팔딱 헤엄을 치네
 열매 맺자 꽃은 막 시들려 하고
 버들은 늙어서 가지가 더욱 길어졌네
 숲은 푸른 먹색 잎으로 단장을 하고
 산봉우리는 푸른 칼끝을 뽑은 듯하여라
 그 속에 한 채 초가집이 있으니
 대 들창에 막 빛이 들어오네
 차 끓이는 연기 바위 사이로 피어오르니
 이 한 길은 먼 등성으로 비껴있네
 학은 날아 한 조각 놀을 끌어당기고
 객은 와서 긴 대나무를 당기누나

甘雨下春空
 草木生異香
 鳥有迎新響
 山添霽後光
 池魚似相賀
 躡躍游揚揚
 顆結花方謝
 柳老絲更長
 林粧青黛葉
 峯抽翠劒芒
 中開一茅窩
 竹牖初向陽
 茗煙巖際起
 一路橫遠岡
 鶴飛曳孤霞
 客到挽脩篁

주인은 청정함을 좋아하여
 세상일은 온통 잊어버렸네
 객을 마주하고 둘 다 아무런 말 없으니
 산과 물도 그저 하푸르고 푸르러라

主人好清淨
 世事都相忘
 對客兩無言
 山水空蒼蒼

동일음

冬日吟

십일월이 반이나 지나가는데
 하늘엔 한 점 눈 소식 없어
 벌레와 뱀은 땅속으로 몸 숨기지 않고²⁵⁶
 파리와 모기는 끊임없이 날아다니네
 복사꽃 오얏꽃은 봉오리를 펼치려 하고
 온화한 비 내려 땅은 항상 젖어 있다오
 하늘의 위엄이 일시에 노하여
 차가운 북풍이 매섭게 불어왔네
 꽃은 백만 조각으로 흩날리고
 낙엽은 천 개 바위굴로 흔들려 떨어지네
 까만 까마귀는 굶주려 죽으려 하고
 붉은 여우는 추위에 떨어 죽으려 하네
 산천 천 리나 되는 땅 가운데에
 소나무와 잣나무만이 홀로 고결하도다
 아 팔도의 백성들이여
 이제부터 집안에 편안히 있겠구나

十一月將半
 天無一點雪
 虫蛇不藏蟄
 蠅蚋飛不絕
 桃李欲開萼
 和雨地恒泄
 天威一時怒
 北風吹勃勃
 飛花百萬片
 搖落千巖窟
 黑鴉飢欲死
 赤狐凍欲滅
 山川千里地
 松柏獨也潔
 嗟爾八路民
 自此安所穴

256 땅속으로……않고 : 날씨가 아직 추워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원문의 '장침(藏蟄)'은 경칩(驚蟄)의 반대말로 날씨가 다시 쌀쌀해져 벌레나 곤충들이 다시 땅속으로 들어가 움츠린다는 의미이다.

자연음

自然吟

내가 옛 어진 스승에게 들으니
 자연 밖에는 하늘이 없다 하였네
 지도도 또한 자연이고
 자연은 둥근 하늘을 마주한다네
 자연의 천지 속에는
 온갖 물품이 모두 자연이네
 사람도 또한 자연을 품부 받았으니
 자연은 나의 단전일레라
 또렷이 깨어있는 자연옹이요
 자연은 응당 일원이니라
 만일 자연의 뜻을 이해한다면
 내 마음의 자연이 온전하리라
 어찌하여 자연에 어두워
 자연을 스스로 버린단가

吾聞古賢師
 自然外無天
 地道亦自然
 自然對天圓
 自然天地中
 品物皆自然
 人亦稟自然
 自然吾丹田
 惺惺自然翁
 自然應一元
 若會自然意
 吾心自然全
 如何昧自然
 自然自棄焉

여름날 독서하다 시커먼 파리에게 시달려서 짓다

夏日讀書 爲阜蠅所困有作

나는 여름 해가 긴 것을 사랑하니
 육십 각에 일각을 더하였다오
 살랑 바람이 책상으로 시원히 불어오면
 서책을 마주하고는 글을 외운다네
 지극한 뜻이 막 이해되려 하고
 만 가지 실마리가 막 밝혀지려는 찰나인데

我愛夏日長
 六十增一刻
 微風爽几案
 唔啻對簡策
 至意方欲會
 萬緒初向析

앵앵대는 것은 어떤 놈이기에
 때를 지어 내 곁으로 오는 것인가
 눈자위에 모여 들어 눈물을 탐하고
 입술로 향하여 남은 찌꺼기를 얻으며
 호흡 따라 입속으로 들어오고
 땀을 좇아 이마로 몰려드네
 입을 꼭 닫아 글을 읽을 수가 없어
 두 손을 힘들게 휘두르며 내쫓아 보지만
 한갓 근력만을 허비하는 것일 뿐
 모조리 휘저어 내쫓을 수 없대오
 어떤 때는 서책에 모여들어
 전 성인의 자취를 잘못되게도 하니
 물 수자에 두 획을 더하여 얼음 빙 자가 되게 하기도 하고
 날 일자에 한 획을 점찍어 눈 목자가 되게 하기도 한다네
 문자 사이에 어지럽게 하여
 불분명하게 그 정확한 것을 놓치게 하니
 이러한 뒤에는 계속 글을 읽을 수가 없어
 책을 덮고 책상을 거둔다오
 물러나 성긴 창가에 기대 누워
 다만 생각이 시름겨움을 깨닫노니
 하늘은 어찌 이런 물을 내어
 나를 온통 고생스럽게 한단 말인가
 그러므로 옛날 사람들은
 백옥을 더럽히는 것을 탄식하였으니²⁵⁷

營營有何物
 簇簇來其側
 集眶探其液
 向唇得餘瀝
 仍吸入喉吻
 趁汗趨庭額
 口噤不能讀
 兩手煩搥斥
 徒能費筋力
 不能盡揮逐
 有時集方策
 使訛前聖蹟
 添雙水作冰
 點一日成目
 紛紜文字間
 模糊失其的
 然後莫能支
 襲冊撤床席
 退臥倚踈檣
 只覺思憾憾
 天何生此物
 使我一至厄
 所以古之人
 歎其瑕白玉

257 백옥을……탄식하였으니 : 《시경(詩經)》〈청승(青蠅)〉에 “윙윙거리는 파리여, 울타리에 앉았다. 개제한 군자는 참소하는 말을 믿지 말지어다.[營營青蠅, 止于樊. 豈弟君子, 無信讒言.]”라고 한 데서 온 말인데, 그 전(傳)에 의하면 “파리는 더러워서 백색과 흑색을 변란시킨다.[青蠅污穢, 能變白黑.]”라고 하였고, 정현(鄭玄)의 주(註)에는 “파리라는 벌레는 흰 것을 더럽혀 검게도 만들고, 검은 것을 더럽혀 희게도 만든다.[蠅之爲蟲, 汚白使黑, 汚黑使白.]”라고 하였다. 당나라 때 시인 진자양(陳子昂)의 〈연호초진금소(宴胡楚眞禁所)〉 시에 의하면

어느 날에나 매서운 서리가 내려
남은 놈 없이 모조리 죽일꼬

何日嚴霜降
殺盡無餘族

김중원이 부쳐온 것에 차운하다

次金仲源見寄

몇 겹의 푸른 산속
중간에 하나의 봉우리 서려 있다네
봉우리 앞에는 고죽이 많으니
해 저무는 때에는 푸른 떨기가 펼쳐져 있다네
주인 늙은이는 창문 닫고서 앉아 있고
밝은 달은 텅 빈 가을 집을 비추네
어찌하면 대죽 문을 열어
삼가 옥호 같은 모습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밤새 오래도록 홀로 서 있자니
이슬이 뚝뚝 우물 가 오동나무에 떨어지네

數疊青山裏
中蟠一成峯
峯前多枯竹
歲晚長綠叢
主翁閉窓坐
月明秋堂空
安能開竹戶
敬納玉壺容
夜久獨自立
露滴井上桐

“파리가 한 점의 티를 만들어, 흰 구슬이 끝내 억울하게 되었네.[青蠅一相點, 白璧遂成冤.]”
라고 하였다.

남포집

제 4 권

칠언절구 七言絶句

남포집 제4권

칠언절구 七言絕句

벽 위에 제하다

題壁上

먼지 한 점 없는 방 안 마치 빈 것처럼 맑으니	一室無塵湛若虛
책상머리에 몇 질의 고금(古今) 서적이 놓여 있네	床頭數帙古今書
대장부(大丈夫)의 심사를 알고자 한다면	欲知大丈夫心事
비 갠 뒤 가을 하늘의 막 떠오른 달을 보아야 하리	霽後秋天月上初

뜻을 부치다

【어릴 적에 지은 것이다. 선생은 당시 나이가 13세였다.】

寓意【兒時作，先生時年十三.】

어젯밤 강호에 친 벼락소리에 놀라니	昨夜江湖霹靂驚
거센 비바람 일시에 몰아쳤네	狂風驟雨一時行
잠깐 사이에 해가 나와 구름 한 점 없이 다 사라지니	俄然日出纖雲盡
천지 산천이 차례로 밝아지네	天地山川次第明

가을 국화

秋菊

인간 세상의 좋은 계절로는 가을이 제일이고	人間勝節最三秋
천하의 이름난 향기로는 국화가 가장 낮네	天下名香菊是優
방 하나 뗏집에 두 가지 즐거움을 겸하였으니	一室茅茨兼二樂
이 늙은이의 신세 더는 근심이 없다네	此翁身世更無憂

가을 하늘이 막 개어 제철 맞은 국화가 향기를 내뿜었다. 먼지 한 점 없는 방 안에 우두커니 홀로 앉으니, 이 몸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 떨어져 있는 줄 알지 못할 지경이었다.

[秋天初霽, 時菊揚芳, 一室無塵, 塊然獨坐, 不知此身落在紛埃中.]

늦은 오후

日晡

눈 감고 아침 내내 푹푹이 앉아 있으니	瞑目終朝坐兀然
고요한 가운데 선천(先天) ²⁵⁸ 이 있음을 비로소 알겠네	方知靜裏有先天
해가 창 밖에 높이 떠 발을 걷고 바라보니	日高窓外開簾看
구름 가의 푸른 산 아득히 늘어서 있네	雲際青山列百千

258 선천(先天) : 우주의 본체와 만물의 본원을 가리키는 말이다. 북송의 소옹(邵雍)이 진단(陳搏)의 학문을 터득하여 《주역》을 설명하면서 복희(伏羲)의 역(易)을 선천, 문왕(文王)의 역을 후천(後天)이라 하였으며, <복희선천괘위도(伏羲先天卦位圖)>를 만들었다.

동지

冬至

한밤중에 하늘이 구중천(九重天)을 여니	夜半天心啓九闈
한 차례 우레 소리 일어나 수많은 집을 진동시키네	一聲雷起動千門
누가 알겠는가 90일의 봄날 소식은	誰知九十春消息
비로소 오늘 밤부터 오묘한 곳이 존재하기 시작함 ²⁵⁹	始向今宵妙處存

한가한 가운데 감회가 있어

閒中有感

지인(至人) ²⁶⁰ 의 마음이란 홍균(洪鈞) ²⁶¹ 과 같으니	至人心術似洪鈞
하나의 기운이 유행(流行)함은 만물이 같다네	一氣流行萬物勻
만약 털끝만큼이라도 치우친 곳이 있다면	若有纖毫偏倚處
자색 복숭아와 푸른 대나무 봄날을 함께하지 못하였을 것이네 ²⁶²	紫桃蒼竹不同春

259 누가……시작함을 : 11월 동지(冬至)가 되면 양기(陽氣)가 처음으로 생겨나므로, 사실상 봄은 이 날 밤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말한 것이다. 《주역(周易)》〈복괘(復卦)〉 공영달(孔穎達)의 소(疏)에, “동지에 양 하나가 생기니, 이는 곧 양은 움직여서 용사하고 음은 고요함으로 돌아가는 것이다.[冬至一陽生 是陽動用而陰復於靜也]”라 하였다.

260 지인(至人) : 도덕적 수양이 지극한 경지에 이른 사람을 가리킨다. 《순자(荀子)》〈천론(天論)〉에, “천인의 분별에 밝으면 지인이라 할 수 있다.[明於天人之分 則可謂至人矣]”라 하였다.

261 홍균(洪鈞) : 원기(元氣)를 조화시켜 만물을 생성하는 대자연의 작용을 말한다.

262 자색……것이네 : 우주의 기운에 조금이라도 치우친 곳이 있었다면 꽃과 나무들이 만개하여 화창한 봄날을 누리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말이다.

은거하는 집의 세 가지 빼어난 것

幽居三勝

가지 늘어진 푸른 소나무 ²⁶³ 천 길 높이 솟아 있으니	落落蒼髯千丈高
저물녘 하늘의 비바람에도 굳은 자태 빼어나네	暮天風雨鐵姿豪
저녁 까마귀야 가지를 쪼지 말라	昏鴉莫向枝間啄
학의 눈처럼 흰 털 더럽힐까 두렵노라	恐汚仙禽白雪毛
【세한자(歲寒子) ²⁶⁴ 】.	【歲寒子】

오래된 마을 남쪽 머리에 자란 옥 만 떨기	古巷南頭玉萬叢
저녁 바람 불어와 두드리니 푸른 빛 영롱하네	晚風吹戛碧玲瓏
옥 가지는 못 새들이 깃들이는 것 허락하지 않으니	瓊枝不許凡禽宿
낭간(琅玕) ²⁶⁵ 이 이 안에 맺혀 있기 때문이라네	爲有琅玕結此中
【소쇄군(蕭灑君) ²⁶⁶ 】.	【蕭灑君】

빙옥 같은 정신 지닌 선달 뒤의 자태 ²⁶⁷	冰玉精神臆後姿
-------------------------------------	---------

263 푸른 소나무 : 원문은 ‘창염(蒼髯)’이다. 푸른 솔잎이 마치 노인의 수염 같다고 하여 붙여진 소나무의 별칭이다. 소식(蘇軾)의 시 <불일산영장로방장(佛日山榮長老方丈)>에, “산중에는 단지 푸른 수염 늙은이 있어, 쓸쓸한 몇 리 길에서 사람을 맞이하고 보낸다.[山中只有蒼髯數里蕭蕭管送迎]”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264 세한자(歲寒子) : 소나무를 가리킨다. 《논어》 <자한(子罕)>에, “날씨가 추운 뒤에야 송백이 뒤늦게 시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歲寒然後 知松柏之後凋也]”라 한 데에 근거하여 김만영이 붙인 별칭이다.

265 낭간(琅玕) : 옥과 비슷한 아름다운 돌인데, 흔히 대나무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된다. 봉황은 대나무 열매를 먹고 산다고 한다. 《시경(詩經)》 <대아(大雅)·권아(卷阿)>의 전(箋)에, “봉황은 오동나무가 아니면 깃들이지 않고, 대나무 열매가 아니면 먹지 않는다.[鳳凰之性 非梧桐不棲 非竹實不食]”라 하였다.

266 소쇄군(蕭灑君) : 시의 내용으로 볼 때 김만영이 대나무에 대해 붙인 별칭인 듯하다.

267 빙옥……자태 : 한 겨울에 피는 매화의 모습을 읊은 것이다. ‘빙옥’은 얼음과 옥처럼 맑고 깨끗한 지조를 비유한 말로, 흔히 매화를 표현할 때 사용한다. 소식(蘇軾)의 시 <영매서강월(詠梅西江月)>에, “빠가 옥 같으니 어찌 장무를 근심하라. 빙옥 같은 자태 절로 선풍이 있다.[玉骨那愁瘴霧 冰姿自有仙風]”라 하였다.

금은(金銀)의 향기로운 약속 세한(歲寒)을 기약하네²⁶⁸ 金銀香契歲寒期
 매화와 국화 두 군(君)의 정절 누가 품평 하리오 二君貞節誰題品
 한가한 사람에게 맡겨져 혼자서만 알고 있네 付與閒人獨自知
 [눈 내린 가지와 서리 내린 꽃²⁶⁹] [雪枝·霜葩]

안성초(安性初)의 ‘천(天)’자와 ‘원(圓)’자 운(韻)을 쓰다²⁷⁰
 用安性初天圓韻

천군(天君)²⁷¹이 높이 앉아 단전(丹田)²⁷²을 세우니 天君高拱立丹田
 해와 달 그 속의 하늘에서 분명하게 빛나네 日月分明箇裏天
 비 개고 구름 걷혀 하늘 맑아지니 雨霽雲收天宇淨
 상자 속 구리거울²⁷³ 참으로 둥글구나 匣中銅鏡正團圓

268 금은(金銀)의……기약하네 : 추운 날씨 속에서 피는 국화를 두고 이렇게 읊은 것이다. ‘금은(金銀)’은 국화의 색을 표현한 것으로, 국화의 한 종류인 ‘금은황(金銀黃)’을 의미하는 듯하다. 권별(權鬣)의 《해동잡록(海東雜錄)》에, “금은황이라는 것은 열은 황색으로 다소 일찍 피며 서울 사람들이 많이 심는다.[曰金銀黃 淺黃色 開稍早 都下人爭植之]”라는 기록이 보인다.

269 눈……꽃 : 시의 내용으로 볼 때 각각 매화와 국화를 가리키는 말인 듯하다.

270 안성초(安性初)가……쓰다 : 안성초(安性初)는 안일대(安一大)를 가리킨다. 성초(性初)는 그의 자. 김만영의 <남교일기(南郊日記)>에 1661년(현종2) 5월 14일 안일대가 ‘천’자와 ‘원’자를 사용하여 지은 시에 차운하여 절구 한 수를 지었다는 기록이 보인다.

271 천군(天君) : 마음을 가리킨다. 《순자》 <천론편(天論篇)>에, “마음이 가운데 빈자리에 있으면서 오관을 다스리니, 이를 천군이라 한다.[心中虛 以治五官 夫是之謂天君]”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272 단전(丹田) : 본래 도가(道家)의 용어로, 배꼽 아래 한 치 다섯 푼 되는 곳을 말한다.

273 구리거울 : 맥락 상 마음을 비유한 말로 보인다.

벗에게 주다

贈友

산 속 늙은이 오래도록 계옹(溪翁)²⁷⁴과 만나지 못하였으니 山翁久與溪翁別
 깊은 숲 속에 구름이 몇 번이나 피어났다 사라졌다 深林幾度雲生滅
 골짜기 난초와 물가 대나무 위의 저물녘 가을 하늘 谷蘭渚竹暮天秋
 양쪽에 뜬 밝은 달 어찌 그리 맑고 깨끗한가 兩邊霽月何清潔

이생(李生)【문석(文碩)】과 이별하며 주다²⁷⁵

贈別李生【文碩】

지각에 어긋남이 없게 하는 것은 정심(正心)²⁷⁶에 달려 있으니 知覺無差在正心
 정심의 요법(要法)으로는 경(敬)이 가장 중요하다네 正心要法敬爲箴
 훗날 혹시라도 참된 소식을 얻는다면 他年倘得眞消息
 천리 밖에서도 마음 알아주는 이는 우리 두 사람뿐일 것이네 千里知心只兩襟

두 번째

其二

274 계옹(溪翁) : 김만영과 교유하던 인물로 보이나, 자세한 사항은 미상이다.

275 이생(李生)……주다 : ‘이생(李生)’은 이문석(李文碩)을 가리킨다. 자는 사원(士元)이다. 김만영의 문인이다. 김만영의 <남교일기(南郊日記)>를 보면, 1661년(현종2) 5월 7일 길을 떠나는 이문석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시 세 수를 함께 부쳐주었다고 되어 있다. 그 가운데 이 시는 이문석이 작별을 고하면서 마음에 새길 만한 말을 해 주기를 청하였으므로 지어준 것이라 하였다.

276 정심(正心) : 마음을 바르게 함을 말한다. 《대학장구(大學章句)》 1장에, “그 몸을 다스리고자 하는 이는 먼저 그 마음을 바르게 하고, 그 마음을 바르게 하고자 하는 이는 먼저 그 뜻을 성실하게 한다.[欲脩其身者 先正其心 欲正其心者 先誠其意]”라 하였다.

남쪽 교외 적막한데 덧집 한 채 덩그러니	南郊寂寞一茅廬
담박한 생애에 몇 질의 책뿐이네	淡泊生涯數帙書
이로부터 왕손(王孫)과 서로 이별한 뒤에는	從此王孫相別後
허름하고 누추한 거처에 찾아와 주는 이 없으리	無人來叩弊荒居

이생은 세종대왕(世宗大王)의 5세손이므로 ‘왕손’이라 한 것이다.

[李生卽世宗大王五世孫, 故云王孫.]

당조카에게 주다.

【이상(履相)²⁷⁷이다. 이상은 당시 나이 12세였다.】

贈堂侄【履相, 履相時年十二.】

화산(華山)에 옥 같은 부용(芙蓉) 처음 피니 ²⁷⁸	太華初發玉芙蓉
빼어난 빛깔 열두 봉우리에 가로 나뉘어 있네	秀色橫分十二峯
너의 아름다운 향기 끝내 변치 않음을 알겠으니	知爾天香終不變
세한(歲寒)의 소나무처럼 되도록 그대 힘쓰기를 ²⁷⁹	勉渠期作歲寒松

277 이상(履相) : 김만영의 당조카 김이상(金履相, 1639~?)을 가리킨다. 자는 사형(士亨)이다. 1675년(숙종 원년) 사마시에 합격하였다.

278 화산(華山)에……피니 : ‘화산(華山)’은 중국 섬서성(陝西省) 화양현(華陽縣) 남쪽에 있는 산으로, 중국의 오악(五嶽) 가운데 하나다. 화산의 정상에 있는 옥정(玉井)이라는 연못에는 천엽(千葉)의 연꽃이 핀다고 한다. 한유(韓愈)의 <고의(古意)>에, “태화봉 산꼭대기 옥정에 있는 연은, 꽃 크기가 열 장이고 뿌리는 배와 같네.[太華峯頭玉井蓮 開花十丈藕如船]”라 하였다. 《韓昌黎集 卷3》

279 세한(歲寒)의……힘쓰기를 : 날씨가 추워져도 시들지 않는 소나무와 같이 굳은 지조를 지니라는 뜻이다. 《논어》〈자한(子罕)〉에, “날씨가 추운 뒤에야 송백이 되듯게 시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歲寒然後 知松柏之後凋也]”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회문시

回文詩

인간 세상의 이날 산재(山齋) 고요하니	人間此日山齋靜
고요하고 묵묵하게 마음을 보존하여 ²⁸⁰ 하나의 기운 화평해지네	靜默存心一氣和
이 몸 밖의 세상에는 세속 물사가 없으니	身外世情無物事
저물녘 창밖엔 맑게 갠 산봉우리가 멀리 솟아있네	晚窓晴岵遠峨峨

두 번째

其二

피꼬리 우는 때 봄 나무 질푸르고	黃鳥啼時春樹綠
흰 구름 돌아가는 곳 저물녘 산 푸르네	白雲歸處暮山靑
서늘한 당에 부슬비 내리고 저물녘엔 가벼운 바람 불어오니	涼堂小雨微風晚
시원하고도 맑은 그늘 대나무 아래 정자에 드리웠네	灑灑清陰竹下亭

자술

自述

인간 세상 돌아봄에 풍진(風塵)이 가득하니	人間回首足風塵
-------------------------	---------

280 마음을 보존하여 : 원문은 '존심(存心)'이다. 《맹자(孟子)》〈진심 상(盡心上)〉에, “마음을 다하는 자는 그 성(性)을 아니, 그 성을 알면 하늘을 알게 된다. 그 마음을 보존하여 그 성을 기르는 하늘을 섬기는 것이다.[盡其心者 知其性也 知其性 則知天矣 存其心 養其性 所以事天也]”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영수(潁水)에서 귀 씻은 이 누구이며 그대로 지나친 이 누구인가²⁸¹ 洗耳何人過濱
 세도(世道)와 만약 끝내 맞지 않는다면 世道若將終不合
 서산(西山)에서 백이(伯夷)의 객이 되어 살아갈 것이네²⁸² 西山期守伯夷賓

두 번째

【당시 영평(永平)²⁸³에서 금강(錦江)²⁸⁴가로 거처를 옮겼다.】

其二【時自永平移居錦濱】

담소하는 사이에 증적을 감추고 거두니 藏踪斂跡笑談間
 본성을 기르고 정신을 수양하여 절로 한가롭네 養性頤神自在閒
 근심과 즐거움 더는 세상에 대한 생각이 없으니 憂樂更無關世慮
 백년토록 즐거운 얼굴²⁸⁵로 지낼 수 있을 것이네 百年歸宿好容顏

281 영수(潁水)에서……누구인가 : 요(堯) 임금 때 허유(許由)와 소부(巢父)라는 고사(高士)가 기산(箕山)에 은거하고 있었다. 허유는 요 임금이 천하를 물려주려 하자 이를 거절하고 더러운 말을 들었다고 하면서 영수(潁水)에서 귀를 씻었으며, 소부는 영수 가로 소를 끌고 와서 물을 먹이려고 하다가 허유가 귀를 씻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더러운 물을 먹일 수 없다고 하면서 소를 끌고 상류로 올라가서 먹었다 한다. 《高士傳 許由》

282 서산(西山)에서……것이네 : 자신이 끝내 세도(世道)와 어울리지 못한다면 백이(伯夷)처럼 세상에 나가지 않고 지조를 지키며 끈궁하게 살아갈 것임을 말한 것이다. 은(殷)나라 고죽군(孤竹君)의 아들인 백이와 숙제(叔弟)는 주(周)나라 무왕(武王)이 은나라를 정벌하려 하자 무왕의 말고삐를 잡고서 만류했으나 듣지 않았다. 이에 주나라 곡식을 먹을 수 없다 하여 서산(西山)에 들어가 고사리를 캐 먹으며 숨어 살다가 굶어 죽었다는 고사가 전한다. 《史記 卷61 伯夷列傳》

283 영평(永平) : 전라도 나주(羅州) 남평현(南平縣)의 다른 이름이다. 본래 백제의 미동부리현(未冬夫里縣)이었는데, 신라가 현웅(玄雄)이라 고쳐서 무주(武州)의 영현(領縣)으로 하였고, 고려가 남평현으로 고쳐서 나주에 소속시켰다. 《新增東國輿地勝覽 卷36 全羅道 南平縣》

284 금강(錦江) : 오늘날의 영산강을 말한다. 나주(羅州)의 옛 이름이 금성(錦城)이므로 영산강을 금천(錦川) 또는 금강(錦江)이라고도 부른다.

285 즐거운 얼굴 : 원문은 ‘호용안(好容顏)’이다. 도연명(陶淵明)의 시 〈의고(擬古) 9수〉 중 제5수에, “동방에 선비 하나, 옷차림 늘 허름하네. 한 달에 이흠 번 밥을 만나고, 십 년 동안 갖 하나 썼다네. 고달픈 이에 비할 바 없지만, 언제나 즐거운 얼굴이라네.[東方有一士 被服常不完 三旬九遇食 十年著一冠 辛苦無此比 常有好容顏]”라 한 데서 유래한 표현이다.

성상의 은혜에 감격하다

感天恩

대나무가 사립문 뒤덮고 오래된 마을 적막하니	竹掩荆門古巷幽
연하(烟霞)는 푸른 산머리를 가득 덮었네	烟霞深鎖碧山頭
하룻저녁에 임금의 조서 이를 줄 어찌 알았겠는가 ²⁸⁶	那知一夕天書至
큰 은혜에 감격하여 눈물이 절로 흐르네	感激洪恩涕自流

두 번째

其二

성상의 은혜를 사양하는 것 다른 이유 있어서가 아니니	辭謝天恩非有因
밝고 신명한 임금을 도울 재주가 없음을 스스로 알기 때문이라네	自知無術輔明神
다른 사람들은 내 마음을 알지 못하고서	傍人不識余心在
한가하게 지내는 소실인(少室人) ²⁸⁷ 이라 할 것이네	將稽謝投閒少室人

가을날 재실(齋室)에서

秋日齋居

하늘의 모습 둥글고 맑으며 날씨도 청신(清新)하니	天顏圓淨氣清新
전날 밤 내린 가을 비 티끌 한 점 남김없이 모두 씻어내었네	雨前宵洗點塵

286 하룻저녁에……알았겠는가 : 김만영을 관직에 제수한다는 내용의 교지가 내려온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에 어떤 관직을 내린 것인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287 소실인(少室人) : ‘소실(少室)’은 하남성(河南省) 숭산(嵩山) 서쪽에 위치한 산 이름이다. 당나라 이발(李渤)이 이 산에 은거하면서 좌습유(左拾遺)의 벼슬에 제수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는데, 이를 두고 사람들은 그가 더 높은 값을 쳐주기를 바란 것이라고 여겼다. 《舊唐書 卷171 李渤傳》

만 리까지 뻗치는 상서로운 빛 엄하고도 바르니
초당에서 종일토록 마주하며 정신을 집중하네²⁸⁸

萬里祥光嚴且正
草堂終日對凝神

가을밤

秋夜

하늘 가득한 가을 기운 이슬이 하늘에 맺혔으니
은하수 가득하고 바람도 일지 않네
푸른 강을 돌아봄에 강물 맑으니
온 산이 밝은 달 아래 함께 서 있네

一天秋氣露凝空
星漢森然不起風
回首碧江江水淨
萬山同立月明中

족회(族會)에서 감회를 적다

族會敘懷

9월 가을의 맑은 흥 강가 사립문을 움직이니
국화 아래의 꽃 술잔 저물녘에 더욱 향기롭네
상을 나란히 하고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형제의 즐거움²⁸⁹
만취하여 덕석²⁹⁰ 거꾸로 입는 것도 상관치 않네

九秋清興動江扉
菊下芳樽晚更翻
細話連床荆棣樂
不辭成醉倒牛衣

288 정신을 집중하네 : 원문은 ‘응신(凝神)’이다. 원래는 도가(道家)의 용어로,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한 곳에 응집시키는 것을 말한다. 《장자》〈달생(達生)〉에, “마음을 쓰기를 분산하지 않아야 비로소 정신이 집중된다.[用志不分 乃凝於神]”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289 형제의 즐거움 : 원문은 ‘형제락(荆棣樂)’이다. ‘형(荆)’은 ‘자형화(紫荊花)’, ‘제(棣)’는 ‘상제화(常棣花)’를 가리키는데, 흔히 형제를 비유하는 말로 사용된다. 남조(南朝) 양(梁)나라 경조(京兆) 사람인 전진(田眞) 삼형제가 각기 재산을 나누어 가지고 마지막으로 뜰에 심은 자형수를 갈라서 나누어 가지려 하니 자형수가 곧 시들었다. 삼형제가 이에 뉘우치고 다시 재산을 합하니, 자형수가 다시 무성하게 자랐다는 고사가 전한다. 《續齊諧記 紫荊樹》또 《시경(詩經)》〈소아(小雅)·상제(常棣)〉에, “아가위 꽃송이 활짝 피어 울긋불긋, 지금 어떤 사람들도 형제만 한 이는 없지[常棣之華 鄂不韡韡 凡今之人 莫如兄弟]”라 하였다.

290 덕석 : 원문은 ‘우의(牛衣)’다. 소가 춥지 않도록 덮어 주는 멍석으로, 남루한 의복을 비유하

2월 2일 북창(北窓)을 봉했던 종이를 처음 뜯으니 시원하게 확
 퍼지는 느낌이 있었다. 이에 이 일을 써서 기록하다.

二月初二日，始開北窓封紙，敞然有伸蠖之意，仍書此以志之。

북창 겹겹이 가리고서 겨울을 지냈는데	北窓重揜過三冬
오늘 봄날을 만나 예전에 봉했던 종이를 뜯네	今日逢春闢舊封
경사스러운 비와 온화한 바람 이제부터 시작되니	慶雨和風從此始
사해(四海)가 칩복(蟄伏)해 있던 용 ²⁹¹ 재촉해 일으키네	四溟催起蟄中龍

제비를 읊다

詠鷺

새하얀 배에 검은 등 꼬리는 두 갈래이니	白心烏背且雙尾
3월 온화한 바람에 물을 차며 나네	三月和風蹴水飛
추위 가고 더위 옴에 기운의 변화를 타니	寒往暑來乘氣化
굴신(屈伸)하는 곳을 따라 천기(天機) ²⁹² 를 알겠네	屈伸從處諳天機

는 말로도 사용된다.

291 칩복(蟄伏)해 있던 용 : 원문은 ‘칩중용(蟄中龍)’이다. 은사(隱士)를 비유하는 말로 흔히 사용된다. 《주역》〈계사전 하(繫辭傳下)〉에, “자벌레가 몸을 굽혀 움츠리는 것은 장차 몸을 펴기 위함이고, 용과 뱀이 숨는 것은 자신의 몸을 보전하기 위함이다.[尺蠖之屈 以求信也 龍蛇之蟄 以存身也]”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292 천기(天機) : 만물 속에 내재(內在)한 하늘의 기틀, 즉 자연의 이법(理法)을 뜻한다.

눈 내린 뒤 밤에 앉아【신축년(1661, 38세)】

雪後夜坐【辛丑】

많은 눈과 사나운 바람 쓸어낸 듯이 개었으니	大雪凜風霽若掃
한 덩이 밝은 달 텅 빈 하늘에 떠올랐네	一輪明月輾空虛
천지 고요하고 맑으며 구름은 자취 없으니	乾坤靜淨雲無跡
만 점의 별들 상제 계신 곳을 향하고 있네	萬點星辰拱帝居

취중에 스스로를 슬퍼하며

醉中自悼

만년의 신세 유령(劉伶) ²⁹³ 에 의탁하니	晚年身世托劉伶
술잔 사이에 성명(姓名)을 숨겼네	盃酒中間隱姓名
단전(丹田)의 진정 즐거운 곳으로 말하자면	若道丹田眞樂地
어지러운 구름 모두 사라지고 달 밝게 떠오른 곳이라네	亂雲消盡月生明

술 깬 뒤 자조(自嘲)하며

醒後自嘲

정밀한 쇠를 무수히 제련하여 용천(龍泉) ²⁹⁴ 을 주조하니	精金百鍊鑄龍泉
--	---------

293 유령(劉伶) : 225~?. 진(晉)나라 죽림칠현(竹林七賢) 가운데 한 사람이다. 항상 술병을 가지고 다니며 종자(從者)에게 삼을 메고 따라오게 하면서, 자기가 죽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묻으라고 하였다는 고사가 전한다. 《晉書 卷49 劉伶傳》

294 용천(龍泉) : 보검의 이름이다. 진(晉)나라 때 복두성과 건우성 사이에 늘 보랏빛 기운이 감돌기에 장화(張華)가 예장(豫章)의 점성가(占星家) 뇌환(雷煥)에게 물었더니 보검의 빛이라 하였다. 이에 풍성(豐城) 감옥터의 땅 속에서 춘추 시대의 보검인 용천과 태아(太阿)를 얻었다는 고사가 전한다. 《晉書 卷36 張華傳》

틈 사이로 새어드는 달빛 그림자가 하늘까지 비치네	隙月斜明影射天
술잔 가득한 맑은 죽엽(竹葉) ²⁹⁵ 을 쪼개어	斫破滿樽淸竹葉
하단전(下丹田)이 황폐해져 버리는 것을 면하게 하리 ²⁹⁶	免教荒却下丹田

큰 거북이 당 아래로 와서 엎드려 있기에 느낀 바 있어 짓다

大龜來伏堂下，感而作。

그대는 네 가지 영물(靈物) ²⁹⁷ 가운데 하나이니	君是四靈中一物
성왕(聖王)께서 살아계실 적에 내가 상서로운 징조가 되었지 ²⁹⁸	聖王生世爾爲祥
무슨 일로 서생의 방에 와서 절하는가	如何來拜書生室
우리 임금께 바쳐 빛나는 덕 기리고 싶네	欲獻吾君頌耿光

295 맑은 죽엽(竹葉) : 원문은 ‘청죽엽(淸竹葉)’이다. ‘죽엽(竹葉)’은 술 이름으로 죽엽청(竹葉淸) 또는 죽엽청(竹葉淸)이라고도 하는데, 전하여 미주(美酒)를 가리킨다. 《주보(酒譜)》에 의하면, 창오(蒼梧) 지방에서 술을 빚을 때 청결을 위해 죽엽을 섞어 빚었다고 한 데서 온 말이다.

296 술잔……하리 : ‘하단전(下丹田)’은 도가(道家)에서 말하는 세 곳의 단전 중 하나로, 배꼽 아래 한 치쯤 되는 곳을 일컫는다. 김만영이 술에서 갠 뒤, 앞으로는 술을 절제하여 단전(丹田)을 상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한 것이다. 이수광(李睟光)의 《지봉유설(芝峯類說)》 권18 <외도부(外道部)·수양(修養)>에, “상고하건대, 《도경(道經)》에서 말하는 단전(丹田)은 하단전(下丹田)을 가리켜 말한 것이 많다. 당나라 유희백(劉虛白)은 술을 좋아하였는데 시를 지어 말하기를, ‘취향(醉鄉)에는 호세(戶稅)가 없음을 알겠으니, 하단전이 황폐해지는 대로 내버려두네.’라 한 것이 이것이다.[按道經所謂丹田 多指下丹田而言 唐劉虛白嗜酒 有詩曰 知道醉鄉無戶稅 任他荒却下丹田是已]”라 한 대목이 보인다.

297 네 가지 영물(靈物) : 기린, 봉황, 거북, 용을 말한다. 《예기》 <예운(禮運)>에 기린, 봉황, 거북, 용 네 동물을 사령(四靈), 즉 네 가지 신령스러운 동물이라 일컫고 군자가 덕치(德治)를 이루면 이 사령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298 성왕(聖王)께서……되었지 : 효종(孝宗)이 봉림대군(鳳林大君) 시절 삼양(瀋陽)에 있을 때 관상을 보는 사람이 왕을 보고서는 은밀히 말하기를, “참으로 임금 노릇할 사람이다.”라 하였다. 연경(燕京)에 들어가서 하루는 피곤하여 누워 있는데 갑자기 오색(五色) 운기가 침실에 가득 서리면서 벽 사이로 거북 한 마리가 머리를 내어 놓고 있었는데 몸체가 매우 컸다. 왕은 꿈인가 의심하여 자세히 보니 꿈이 아니었다. 《孝宗實錄 附錄 孝宗宣文章武神聖顯仁大王行狀》 ‘내가 상서로운 징조가 되었다’는 것은 이 일을 가리키는 듯하다.

산을 읊다

詠山

세상 밖의 청산(靑山) 몹시도 푸르니	物外靑山分外靑
흰 구름 천리에 뜬 광경 시야에 펼쳐져 있네	白雲千里望中平
그대는 비밀스러운 천기(天機) 함부로 누설하지 말라	君毋浪泄天機秘
기이하고 교묘한 솜씨로 당시에 옥을 쪼아 만든 것이네	奇巧當年琢玉成

거울을 보고 그림자에게 주다

看鏡贈影

또 한 차례 병을 앓아 신음하고 나니	病滯沉吟又一茲
생각건대 그대의 얼굴 전에 비해 쇠하였을 것이네	想君顏面較前衰
오늘 아침 거울 속에 얼굴 ²⁹⁹ 을 비추어 보니	今朝鏡裏開丰宇
흰 머리털과 푸른 수염 옛날보다 더해졌네	白髮蒼髯勝昔時

밤에 앉아 우연히 읊다

夜坐偶吟

희미한 달 서쪽에 떨어지고 못 별들 빛나니	微月墜西爛衆星
찬 반딧불 반짝이며 뜨락을 노니네	寒燐熠熠度階庭
누가 천 곡(斛)의 물길을 돌리고 은하수를 밝혀	誰回千斛明河水
만 리의 푸른 하늘 얼굴을 모두 씻어 내었나	洗盡天顏萬里靑

299 얼굴 : 원문은 '봉우(丰宇)'다. '봉(丰)'은 용모나 외모, 풍채 등을 뜻하는 말이다.

초장군【곧 대황(大黃)300 이다.】

草將軍【即大黃也】

씩씩한 8척의 초장군	桓桓八尺草將軍
크고 매서운 신공(神功)이 맹분(孟賁) ³⁰¹ 과 같네	廓烈神功似孟賁
어찌 관내(關內)의 도적을 깨끗이 소탕하여	何不擊清關內賊
천군(天君) ³⁰² 의 대(臺) 위에 탁월한 공훈을 세우지 않는가	天君臺上樹奇勳

옥전자(玉錢子)³⁰³

玉錢子

팔랑팔랑 한 쌍의 부채 고운 날개 향기로우니	雙扇翩翩粉翅香
숲과 나무 지나 누구를 위해 분주한가	透林穿樹爲誰忙
섬돌 위의 도인(道人) 요염(妖艷)한 기색 없으니	道人階上無妖艷
장안(長安)의 도리(桃李) 편 담장을 찾아가네	去訪長安桃李墻

300 대황(大黃) : 1.5m가량 자라는 마디풀과에 속하는 약초. 우리나라 북부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데, 성질이 차서 그 뿌리를 대소변이 불통하는 증상을 치료하는 데 쓴다.

301 맹분(孟賁) : 제(齊)나라 사람으로 살아 있는 소의 뿔을 손으로 뽑고 물에서는 교룡(蛟龍)도 피하지 않으며 물에서는 호랑이와 코뿔소도 피하지 않았다고 한다.

302 천군(天君) : 마음을 가리킨다. 《순자》〈천론편(天論篇)〉에, “마음이 가운데 빈자리에 있으면서 오관을 다스리니, 이를 천군이라 한다.[心居中虛 以治五官 夫是之謂天君]”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303 옥전자(玉錢子) : 채승(綵勝)의 일종으로 추정된다. 채승은 오색 종이나 비단을 잘라 자그마한 깃발이나 제비, 나비, 금전(金錢) 등의 형상을 만든 뒤에 그것을 머리에 꽂는 꾸미개로, 당나라 때 입춘(立春)이 되면 임금이 삼성(三省)의 관원들에게 채승을 차등 있게 하사한 데서 유래한 것이라 한다.

초승달을 읊다

詠新月

누가 백옥(白玉)을 가져다 둥근 명경(明鏡)을 만들었나	誰將白玉圓明鏡
반은 푸른 하늘에 들어가 있고 남은 반쪽만 드러났네	半入青天露半邊
이제부터 곧 보름밤이 될 것이니	從此直之三五夜
충만한 광경 산천에 가득할 것이네	十分光景遍山川

향기로은 국화가 만개하여

香菊盛開

가을의 물색(物色) 원림(園林)을 이룰 만하니	三秋物色可園林
섬돌 가득한 맑은 향기 국화 기운이 깊네	滿砌清芬菊意深
비록 전날 밤 급작스런 서리와 이슬 맞았으나	縱被前宵霜露急
가득한 만절(晩節)의 향기 ³⁰⁴ 꽃술에 남아 있네	十分香節在花心

304 만절(晩節)의 향기 : 원문은 ‘향절(香節)’이다. 늦가을에 피는 국화의 향기를 말한다. 송(宋) 나라의 재상 한기(韓琦)가 북문(北門)을 지킬 때 중앙절에 막료들을 모아 놓고 연회를 벌이면서 지은 시 <구월수각(九月水閣)>에, “늙은 채마꾼의 담담한 가을 모습 부끄럽지 않으니, 장차 국화의 만절향을 볼지어다.[不羞老圃秋容淡 且看寒花晩節香]”라 한 데서 유래한 말이다. 《古今事文類聚 後集 卷29 晩節自況》

강가의 옛 농막으로 돌아가고자 하여 은거하며 지내는 곧은 벗에게 남겨 주고 이별하다

將歸江上舊庄, 留別隱逸貞友.

주인옹의 외로운 흥 맑고 그윽한 곳에 있으니	主翁孤興在清幽
금수(錦水) 가에 초옥(草屋)을 새로 열었네	草屋新開錦水頭
세밑의 꽃다운 마음 그대가 절로 보존하고 있으니	歲晚芳心君自保
향기롭고 고운 자태 밝은 가을 달빛 속에 고이 간직하게 ³⁰⁵	好藏香艷月明秋

낙화를 불쌍히 여겨

憐落花

휘날리는 꽃잎 한 점 긴 가지에서 떨어지니	飛花一點落長枝
무한한 동풍(東風) 따라 이리저리 날리네	無限東風任所之
그 사이에 은은한 향기 있어 바람 불어도 가시지 않으니	中有暗香吹不盡
은거하는 이 창 밖에서 날마다 서로 따르네	幽人窗外日相隨

305 향기롭고……간직하게 : 이 시구는 송나라 학자 양시(楊時)의 시 <관매증호강후(觀梅贈胡康侯)>에, “성긴 꽃송이로 가벼이 눈과 다투지 말고, 맑고 고운 자태 밝은 달빛 속에 고이 간직하라.[莫把疏英輕鬪雪 好藏清艷月明中]”라 한 구절을 참고한 것이다.

비 내린 뒤³⁰⁶

雨後

단비 내린 뒤 새로 날 개어 보리가 이미 익었으니
 정원 가득 향풀 있어 기운이 맑고 그윽하네
 만물의 생기 충만한 모습³⁰⁷을 고요히 바라보니
 다시 내 마음에서 하나의 이(理)를 구하네

甘雨新晴麥已秋
 滿園芳草氣清幽
 看萬物生生意
 還向吾心一理求

들학

野鶴

검은 치마에 흰 옷 입은 한 명의 선동
 난초 자란 물가에 우뚝 서 비 갠 뒤의 바람을 맞고 있네
 이윽고 흰 구름을 향해 멀리 날아가니
 푸른 하늘 끝없고 바다도 무궁하네

玄裳素衣一仙童
 特立蘭汀霽後風
 俄向白雲飛去遠
 碧天無際海無窮

306 비 내린 뒤 : 김만영의 <남교일기(南郊日記)>에 의하면, 이 시는 1661년 4월 27일에 지은 것으로 되어 있다.

307 생기 충만한 모습 : 원문은 '생생의(生生意)'다. '생생'은 만물이 끊임없이 생겨나는 모양으로, 《주역》 <계사전 상(繫辭傳上)>에, "끊임없이 낳는 것을 '역'이라 이른다.[生生之謂易]"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특명(特命)으로 군직(軍職)을 회복시켜 주었다는 소식을 듣고
감격하여 짓다[기해년(1659, 36세) 12월]

聞特命復軍職, 感而有作.【己亥十二月】

성대(聖代)의 유민(遺民)은 늙은 농부가 적당하니	聖代遺民合老農
10년 동안 밭 갈고 썸 파며 ³⁰⁸ 시골 농부와 짝하였네	十年耕鑿伴村傭
하늘의 해 다시 비추어질 줄 누가 알았겠는가	誰知天日重回照
전원(田園)에서 병든 몸 일으켜 임금의 복 ³⁰⁹ 을 기원하네	病起田園祝華封

눈이 개어[기해년(1659, 36세) 12월]

雪晴【己亥十二月】

눈 개고 구름 사라져 날씨 맑으니	雪霽雲消天氣明
태양이 빛을 드리워 광채를 흩뿌리네	太陽垂曜散光晶
산천 또렷하여 거울을 펼친 듯하니	山川歷歷如開鏡
만상(萬象)이 맑고 텅 비어 온갖 감정 고요해지네	萬象澄虛百感平

농사지을 시기에 소를 잃어 말을 팔아 소를 사들이고서 장난삼
아 절구 한 수를 짓다

臨農失牛, 賣馬買牛, 戲成一絕.

308 밭……파며 : 태평 시절을 만나 한가로이 살아감을 말한 것이다. 요 임금 때 어느 노인이 지었
다는 <격양가(擊壤歌)>에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쉬며 썸을 파서 물을 마시고 밭을
갈아 밥 먹으니, 임금의 힘이 내게 무슨 상관이랴.[日出而作 日入而息 鑿井而飲 耕田而食
帝力於我何有哉]”라 하였다.

309 임금의 복 : 원문은 ‘화봉(華封)’이다. 임금에게 장수와 부귀, 다산(多産) 등을 누리라고 송
축하는 것을 말한다. 화(華) 땅의 봉인(封人)이 요(堯)임금에게 수(壽), 부(富), 다남자(多男
子)라는 세 가지의 축원을 하였다는 고사가 전한다.《莊子 天地》

젊은 시절의 간담(肝膽) 몹시도 어리석고 광망하니	少年肝膽太愚狂
마구간의 발 빠른 명마 ³¹⁰ 처럼 사방에 뜻을 두었네	櫪上風驪志四方
오늘 너를 팔고 다시 송아지를 샀으니	今日賣渠還買犢
이제부터 곧장 농장에서 늙어가고자 하네	從茲便欲老農庄

새벽 생각

曉思

원기(元氣) 흘러넘치고 이슬이 하늘을 적시니	元氣淋漓露濕天
흰 구름 날다가 무거워서 바위 가에 기대 있네	白雲飛重倚巖邊
세상 사람들 아직 연정에 끌린 꿈 ³¹¹ 에 매여 있으니	世人尙緣牽情夢
오직 새벽닭만이 번갈아 울면서 새벽을 전하네	惟有晨鷄迭唱傳

두 번째

其二

이슬 기운 쌀쌀하고 천지는 텅 비었으니	露氣淒淒天地空
산천 드넓어 은은한 바람 일으키네	山川虛曠起微風
누가 내 마음의 곡절을 알아줄까	何人識得吾心曲
아득한 대해(大海) 동쪽에 홀로 서 있네	獨立茫茫大海東

310 발 빠른 명마 : 원문은 ‘풍표(風驪)’로, 곧 ‘추풍표(追風驪)’의 준말이다. ‘추풍(追風)’은 ‘바람을 뒤쫓는다’는 뜻으로 명마를 의미하며, 옛날 준마(駿馬)의 이름이기도 하다. 두보의 시 <도보귀행(徒步歸行)>에, “처자가 산중에서 하늘 보고 통곡하고 있으니, 공의 마구간에 있는 추풍표가 필요하이다.[妻子山中哭向天 須公櫪上追風驪]”라 한 대목이 보인다.

311 연정에 끌린 꿈 :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꾸는 속된 꿈을 말한다. 당나라 온정균(溫庭筠)의 <효선요(曉仙謠)>에, “안개가 어지러운 속세의 수많은 집을 뒤덮으니 세상 사람들 아직도 연정에 이끌린 꿈꾸고 있네.[霧蓋狂塵億兆家 世人猶作牽情夢]”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차를 마시며

飲茶

잣나무 잎 차로 달여 김이 놀을 이루니 한 잔 가득한 짙은 색 단사(丹砂)와 같네 단심(丹心)은 본래 절로 붉고 윤기 흐르니 ³¹² 다시 단사로 물들여 온갖 사악함 이겨내네	栝葉煎茶氣作霞 一盃濃色似丹砂 丹心本自丹如渥 更染丹砂勝百邪
--	--

솔잎을 복용하며³¹³

服松葉

늠름한 곧은 마음과 눈 속에서의 모습 늦게 시드는 곧은 절개 세한(歲寒)에 돋보이네 ³¹⁴ 천년의 곧은 기운 내가 복용할 수 있으니 만고의 풍상(風霜)도 절로 등한히 여기네	凜凜貞心雪裏顏 後凋勁節歲寒間 千年直氣吾能服 萬古風霜自等閒
--	--

전가(田家)의 새해 음악

田家歲樂

크고 작은 쇠징과 길고 짧은 북	大小金鉦長短鼓
-------------------	---------

312 붉고 윤기 흐르니 : 원문은 ‘단여약(丹如渥)’이다. 붉고 윤기가 흐르는 모습을 뜻하는 말로, 《시경(詩經)》〈진풍(秦風)·종남(終南)〉에, “얼굴이 붉고도 윤기 흐르시니, 인군다우시도다.[顏如渥丹 其君也哉]”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313 솔잎을 복용하며 : 김만영의 <남교일기(南郊日記)〉에 의하면, 이 시는 1661년 5월 13일에 지은 것으로 되어 있다.

314 늦게……돋보이네 : 소나무는 추운 겨울에도 시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논어》〈자한(子罕)〉에, “한 해가 다하여 날씨가 추워진 뒤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늦게 시드는 것을 안다.[歲寒然後 知松柏之後凋也]”라 하였다.

높고 낮으며 맑고 탁한 소리 뒤섞여 한 데 어우러지네	高低清濁雜成聲
전부(田夫)에게는 본래 밭에서 누리는 즐거움 있으니	田夫自有田間樂
주(周)나라의 나례(儺禮) ³¹⁵ 를 본받아 새해 첫날을 즐기네	祖述周儺戲歲正

겨울날 한가로워

冬日閒意

삼동(三冬)의 눈바람에 문 굳게 닫으니	三冬風雪閉門深
흥에 겨워 세상 밖을 찾아오는 자 누구인가	乘興何人世外尋
어젯밤 생겨난 하나의 양(陽)을 비로소 만났으니 ³¹⁶	始會一陽生昨夜
작은 화분의 매화 꽃술에서 봄마음 새어 나오네	小盆梅萼漏春心

춘일음

春日吟

뜨락 깨끗이 쓸어 저녁 바람 맞이하니	淨帚階庭引晚風
발 드리운 빈 뜨락에 낙화가 붉구나	簾垂空庭落花紅
한가로이 지팡이 짚고서 이리저리 거니니	閒扶一杖逍遙立
산새들 해그림자 속으로 날아 돌아가네	山鳥飛歸日影中

315 나례(儺禮) : 주(周)나라 때부터 시작된 풍습으로, 음력 선달 그믐날 대궐 안이나 민가에서 마귀와 잡신(雜神)을 쫓아내기 위해 치렀던 의식이다.

316 어젯밤……만났으니 : 음기(陰氣)가 극에 달한 순음(純陰)의 10월을 지나 11월 동지(冬至)가 되면 양(陽)의 기운이 처음으로 생겨나는데, 이때부터 겨울이 가고 봄기운이 생기기 시작하여 만물이 생기(生氣)를 회복하게 된다고 한다. 《주역(周易)》〈복괘(復卦)〉 공영달(孔穎達)의 소(疏)에, “동지에 양 하나가 생기니, 이는 곧 양은 움직여서 용사하고 음은 고요함으로 돌아가는 것이다.[冬至一陽生 是陽動用而陰復於靜也]”라 하였다.

선영(先瑩) 아래 마을에 묵으며 느낀 바 있어

【신묘년(1651, 28세) 정월 개장(改葬)하는 일로 김애반(金崖盤)이 사는 계곡에 머물렀다.】

宿先瑩下村有感【辛卯正月，以改窆事，留金崖盤之谷。】

옛 무덤의 소나무와 가래나무 ³¹⁷ 삼백 년 되었으니	舊壠松楸三百年
저물녘 구름과 시든 풀 찬 안개에 잠겼네	暮雲衰草鎖寒烟
구릉과 산은 응당 선인(先人)의 얼굴 기억할 것이니	邱山應記先人面
눈 닿는 곳마다 마음 처연하기 그지없네	觸目無非意愴然

두 번째

其二

마을 사람이 김 거사(金居士)를 맞이하여 부르니	村人迎謂金居士
고로(故老)는 아직도 박 정승(朴政丞) ³¹⁸ 을 알고 있네	故老猶知朴政丞
그늘진 벼랑에 해 저물어 산 아래서 묵으니	日暮陰崖山下宿
묵은 구름은 응당 내 심정을 알 것이네	宿雲應識我心情

박사암(朴思庵) 상공(相公)은 선생의 5대조 상사공(上舍公)의 생질이다.³¹⁹ 일찍이 이곳에서 참배한 적이 있어 고로 가운데 아직도 아는 자가 있었다. 그러므로 말한 것이다.

休相公思庵，乃先生五代祖上舍公之宅相也。嘗參謁於此，故老猶有及見之者故言】

317 소나무와 가래나무 : 예로부터 선산(先山)에 이러한 나무를 많이 심었으므로, 곧 선영(先瑩)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318 박 정승(朴政丞) : 원문은 ‘박 정승(朴政承)’인데, 문맥을 살펴 ‘승(承)’을 ‘丞(丞)’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박 정승’은 곧 박순(朴淳, 1523~1589)을 가리킨다. 본관은 충주(忠州), 자는 화숙(和叔), 호는 사암(思菴)이다. 1553년 과거에 급제하여 홍문관 응교, 이조 참의, 대사헌, 예조 판서, 우의정, 좌의정 등을 역임하였다. 문장에 뛰어나고 당시(唐詩)에 능하였다.

319 박사암(朴思庵)……생질이다 : 김만영의 5대조는 성균관 생원 김효정(金孝禎)인데, 실제 기록을 보면 박순은 김효정이 아닌 4대조 김후(金候)의 생질로 되어 있다. 주석을 단 사람의 착오인 듯하다.

세 번째

其三

고향의 묵은 풀 삼천 일이나 되었건만	故山宿草三千日
자식의 애통한 마음은 하루 온 종일 가득하네	人子哀情十二時
아득하고 넓은 천지와 같은 무한한 그리움	天遠地長無限思
금계(金溪)의 물과 달 또한 응당 알 것이네	金溪水月也應知

여름밤에 달을 감상하는데 홀연 뜬구름에 가려지다

夏夜翫月，忽爲浮雲所蔽。

밝은 달 높고 높으며 못 별들 운행하는데	明月高高星斗躔
뜬구름이 다만 반공(半空) 앞에 자리하였네	浮雲只在半空前
그러나 단지 사람의 눈을 가릴 수 있을 뿐	但能掩得人間目
맑은 빛 내는 구만 리 하늘을 가리기는 어려우리	難遮清光九萬天

감회가 있어

有懷

마음이 백일(白日)과 같이 중천에 걸려 있으니
 동서남북으로 치우침 없이 두루 비추네
 눈 앞 가득한 산천 모두 즐거움이니
 온 천지 드넓어 끝이 없네

心如白日揭中天
 南北東西照不偏
 滿目山川俱是樂
 一般天地蕩無邊

두 번째

其二

모래와 진흙으로 흐릿한 곳에는 샘도 따라서 흐리고
 하늘의 기운 밝은 때에는 달 또한 밝네
 시험 삼아 이곳에서 투철하게 터득하니
 태산(泰山)과 교악(喬嶽)도 터럭처럼 가볍다네

沙泥濁處泉隨濁
 天氣明時月亦明
 試向此中看得徹
 泰山喬嶽分毫輕

기해년(1659, 36세)에 대기근이 들어 구걸하는 백성들이 길에
 가득하니, 느낀 바 있어 짓다

己亥大饑，丐民盈路，感而有作。

찢어진 전대와 헤진 옷으로 마을 문에 서 있으니
 얼굴 온통 시커멓고 입에선 말이 없네
 만 권의 책을 읽은들 무슨 소용 있으리오
 이 백성들을 배부르고 따뜻하게 해 줄 수 없는걸

破橐鶉衣立巷門
 滿顏黎黑口無言
 讀書萬卷知何用
 未使斯民躋飽溫

아침노을

朝霞

축(蜀)나라 비단 ³²⁰ 처음 물들여 가지 끝에 걸어 두니	蜀羅初染掛梢頭
진홍빛이 하늘에 올라 기운이 떠오르려 하네	絳色騰空氣欲浮
잠시 뒤 상쾌한 바람 있어 만 조각으로 불어오니	俄有爽風吹萬片
비단 무늬 푸른 가을 하늘에 흩날리네	錦章飛散碧天秋

비를 빌다【경술년(1670, 47세)】

祈雨【庚戌】

양 절벽 봉우리 사이로 흐르는 한 줄기 긴 강	一帶長江兩岸峯
깊은 곳에 용 감춰 두고 있지 않을 줄 어찌 알겠는가	安知深處不藏龍
쓸모없는 선비가 바라는 것 달리 없으니	腐儒所祝無他願
원컨대 단비를 뿌려 우리 농토 적셔주기를	願灑甘霖澤我農

비에 감사하다【경술년(1670, 47세)】

謝雨【庚戌】

금강의 물 구불구불 금봉(錦峯)을 휘감으니	錦水盤旋繞錦峯
그 속에 감춰진 패궐(貝闕) ³²¹ 엔 신룡(神龍)이 살고 있네	中藏貝闕宅神龍

320 축(蜀)나라 비단 : 사천(四川)에서 생산되는 채색의 비단을 말한다. 염색한 숙사(熟絲)로 짜서 만드는데, 색채가 화려하고 재질이 질기다. 여기서는 아침노을의 빛깔을 비유하는 말로 사용되었다.

321 패궐(貝闕) : 하수(河水)의 신 하백(河伯)이 사는 물속 궁궐을 말한다. 초나라 굴원(屈原)이 지은 《초사(楚辭)》〈구가(九歌) 하백(河伯)〉에, “고기비늘로 인 지붕에 용무늬 그린 마루이며, 자개로 지은 대문에 붉은 단청 집이라네.[魚鱗屋兮龍堂 紫貝闕兮朱宮]”라 하였다.

작은 정성에 묵묵히 부합하여 풍운이 감응하니
단비 기름지게 내려 큰 농토를 적셔주네

微誠默符風雲感
甘澍流膏潤大農

강이 흐르다

江行

강산 그림 같아 그림 속에서 노니니
물외(物外)가 맑고 한가로워 나 스스로 자취를 거두었네
술 취해 흰 갈매기에 의지하여 물가의 달 바라보니
한 줄기 젖대 소리 물은 서쪽으로 흐르네

江山如畫畫中遊
物外清閒我自收
醉倚白鷗洲上月
一聲橫篴水西流

작은 창에 쓰다

書小窓

시서(詩書)에 담긴 못 성현의 마음 공경히 마주하니
향로 피우고서 맑은 낮에 고요히 앉아 있네
종이창에 비친 산의 해 거울처럼 밝으니
창문 깊은 곳까지 들어와 나의 마음 비춰 주네

敬對詩書千聖心
薰爐清晝坐沉潛
紙窓山日明如鏡
照我靈臺戶牖深

꿈속에서 짓다

【신해년(1671, 48세) 봄 남쪽 지역에 장역(瘴疫)322이 돌아 사망자가 줄을 이었다. 우리 집안 또한 이러한 질환에 걸려 늙은 처를 데리고 촌閭(村閭)로 나가 지냈으니, 스스로 풀과 나무를 베는 수고로움을 면치 못하였으며 친지 및 이

322 장역(瘴疫) : 무덥고 습기 많은 지역에서 병독(病毒)으로 인해 발생하는 유행성 열병을 말한다.

웃 마을과 왕래하지 않은 지 몇 개월이었다. 3월 10일 밤 꿈에서 문득 절구 한 수를 읊었으므로 깨어난 뒤에 이를 기록하였다. 나는 반평생 병에 시달려 세상 일을 마음에 두지 않은 것이 50년이나 되었으며 또 늙었으니, 기구(起句)의 뜻은 자연히 감회가 일어서 그런 것이다. ‘문장’ 두 글자는 어떤 본에는 ‘공명(功名)’으로 되어 있다. 병서.】

夢作【辛亥春，瘴疫遍于南中，死亡者相繼。余家亦罹此患，挈老妻出寓村閭，未免躬自樵蘇之勞，親屬隣里不肯相過數月。暮春初十日夜夢，忽吟一絕，覺罷記之。余半生病癘，世事之不入心者五十年且老矣，起句之意，自然相感耶？文章二字，或作功名。并序。】

문장으로 세상을 뒤덮는 것은	文章盖世徒爲累
부귀가 하늘을 찌르는 것 또한 절로 수고롭네	富貴薰天亦自勞
어찌 같으랴, 흰 구름과 밝은 달 속에서	何似白雲明月裏
백 년 토록 일 없이 강가 언덕에 누워 있는 것과	百年無事臥江皋

두 번째

【기유년(1669, 46세) 11월 18일 꿈에 내가 대나무 울타리 아래를 따라 돌아왔는데 그대로 몸을 솟구쳐 높이 날았으니, 상쾌하여 마치 하늘에 오른 듯하였다. 이에 이 절구를 읊어 잠에서 깬 뒤 기록하였다.】

其二【己酉十一月十八日夢，余從竹籬下歸來，仍聳身高飛，快似登天然。乃詠此絕，覺後記之。】

강촌에 해 떨어져 참으로 어슴푸레하니	江村日落正依微
대나무 아래로 돌아오자 이슬이 옷을 적시네	竹下歸來露滴衣
높이 나는 거러기 한번 울고 산에는 달 뜨니	高鴈一聲山月出
시원스레 날아 해동(海東)의 경계를 건너네	廓然飛度海東圻

미인을 그리워하는 노래【이 또한 꿈속에서 지은 것이다】

戀美人詞【此亦夢作】

가을밤 길고 길어 새벽빛이 더디니	秋夜長長曉色遲
가벼운 추위 옥처럼 고운 피부에 닿을 것이네	薄寒應惹玉膚肥
누가 바다 위로 막 나온 해를 가져다	誰將海上初生旭
깊은 궁궐을 열흘 동안의 햇살 ³²³ 로 비추어 줄까	照作深宮十日曦

꿈을 기록하다【병서】

紀夢【並序】

한나절 한가로이 이야기 나누다가 하룻밤을 지새니	半日閒談一夜經
덧없이 사는 신세 10년 동안의 마음 나누었네	浮生身世十年情
알지 못하겠구나 천 년이 지난 뒤에	不知千載歸來後
다시 어떤 사람이 이 삶을 위로할 줄	更有何人慰此生

세상을 떠난 나의 종형(從兄) 호정(浩亭) 한영씨(漢英氏)는 타고난 자질이 호매(豪邁)하고 문장이 굉달(宏達)하여 나이 겨우 18세에 대책(大策)으로 세상을 울렸으니, 만약 하늘이 몇 년의 수명을 더 빌려 주셨다면 그 성취를 헤아릴 수 있었을 것이다.³²⁴ 그러나 불행히도 약관의 나이에 사망하여 말로는 전할 수 없는 것³²⁵과 함께 멀리 떠나갔으니, 나는 언제나 애통한 마음

323 열흘 동안의 햇살 : 원문은 ‘십일희(十日曦)’다. 군자(君子)다운 이가 임금을 오랜 기간 동안 훌륭히 보필하는 것을 말한다. 《맹자》〈고자 상(告子上)〉에, “이 세상에 쉽게 성장하는 식물이 있다 하더라도 하루 동안 햇볕을 쬐이게 하고 열흘 동안 춥게 한다면 제대로 자라날 수가 없을 것이다.[雖有天下易生之物也 一日曝之 十日寒之 未有能生者也]”라 한 대목을 변용하여 표현한 것이다.

324 헤아릴……것이다 : 원문은 ‘향량(向量)’인데, 문맥을 살펴 ‘향(向)’을 ‘가(可)’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325 말로는……것 : 인간의 말이나 글로는 전할 수 없는 죽은 사람의 생각·정신·기에·경험 따위를 가리킨다. 《장자(莊子)》〈천도(天道)〉에, “수레바퀴를 만들 때 너무 깎으면 헐거워서 튼튼하지 못하고 덜 깎으면 딱딱해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더 깎지도 덜 깎지도 않는 일은 손으

을 지나깨나 떨치지 못하였다. 기축년(1649, 26세) 12월 13일 밤 꿈에 종형과 함께 선영 아래 있는 벽송당(碧松堂)으로 갔는데, 밤이 되어 촛불을 밝히고 경사(經史)를 담론하였다. 다음날 아침 나만 홀로 집으로 돌아오고 종형은 그대로 그곳에 머물렀기에 내가 이 시를 지어 증별하였다. 잠에서 깨어 이 일을 기록하니 눈물이 줄줄 흘러 내렸다. 나의 심사는 아마도神明(神明)께서 아실 것이다.

[余亡從兄浩亭漢英氏，天姿豪邁，文章宏達，年纔十八，以大策鳴世，若天假數年，其成就可³²⁶量，不幸弱冠而沒，與其不可傳者逝矣，余每痛悼，寤寐不置。歲己丑十二月十三日夜夢，與從兄同往先塋下碧松堂，入夜明燭，談論經史。明朝，余獨歸家，而從兄尙留，余作此詩以贈之。覺而記之，泫然垂泣。余之心緒，殆將神明知之矣。]

새벽에 읊다

曉吟

새벽닭 높이 울어 상서로운 노을 건히니	晨鷄高唱瑞霞融
만 곡(斛)의 은하수에 막 떠오른 해 ³²⁷ 가 붉네	萬斛銀潢浴日紅
지하는 점차 어두워지고 천하는 밝아지니	地下漸昏天下白
팔방의 만물 봄바람을 함께 하	八方民物共春風

로 터득하여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지 입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법도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제가 제 자식에게 깨우쳐 줄 수도 없고 자식 역시 제게서 물려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 칠십에도 늙도록 수레바퀴를 꺾고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도 그 전해 줄 수 없는 것과 함께 죽어 버렸습니다. 따라서 전하께서 읽고 계신 것은 옛사람들의 찌꺼기일 뿐입니다.[斷輪徐則甘而不固 疾則苦而不入 不徐不疾 得之於手而應於心 口不能言 有數存焉於其間 臣不能以喻臣之子 臣之子亦不能受之臣 是以行年七十而老斲輪 古之人與其不可傳也 死矣 然則君之所讀者 古人之糟魄已夫]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326 可 : 원문은 '向'. 문맥을 살펴 바로잡음.

327 막 떠오른 해 : 원문은 '육일(浴日)'이다.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것 또는 그 해를 가리키는 말이다. 《회남자(淮南子)》〈천문훈(天文訓)〉에, “해는 양곡에서 떠올라 함지에서 목욕하고 부상에서 솟는다.[日出於暘谷 浴於咸池 拂于扶桑]”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구고음(九臯吟)

九臯吟

〔병서. 내가 사는 곳에는 사방에 언덕이 있어 돈대로 들어갈 적마다 마주하였다. 북쪽 기슭에 있는 서북쪽에서부터 동쪽까지의 네 언덕을 ‘건(乾 ☰)’, ‘감(坎 ☵)’, ‘간(艮 ☶)’, ‘진(震 ☳)’이라 하고, 남쪽 기슭에 있는 동남쪽에서부터 서쪽까지의 네 언덕을 ‘손(巽 ☴)’, ‘이(離 ☲)’, ‘곤(坤 ☷)’, ‘태(兌 ☱)’라 하였다. 집은 간고(艮臯)의 남쪽에 있고 손고(巽臯)와 이고(離臯)의 사이를 마주하였으며 진고(震臯), 태고(兌臯), 간고, 감고(坎臯) 및 건고(乾臯)가 사방에 마주해 있었다. 앞에는 샘이 모두 네 곳 있는데, 당 앞에 있는 것은 ‘소양(少陽)’이라 하고, 감고 앞에 있는 것은 ‘태양(太陽)’이라 하며, 손고 앞에 있는 것은 ‘소음(少陰)’이라 하고, 이고 앞에 있는 것은 ‘태음(太陰)’이라 하였다. 북쪽 기슭에 있는 네 언덕을 합하여 ‘양의(陽儀)’라 하고, 남쪽 기슭에 있는 네 언덕을 합하여 ‘음의(陰儀)’라 하였다. 집 뒤에는 둥근 언덕이 있어 이를 ‘태원고(太圓臯)’라 하였으니, 즉 태극(太極)으로, 팔괘의 돈대와 합쳐 ‘구고’라 하였다. 태원고 앞에 서서 사방을 멀리 바라보면 무등산(無等山)으로부터 개천산(開天山), 월출산(月出山)을 거쳐 금성(錦城)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산봉우리들이 총 64개였으므로 모두 64괘(卦)로 이름을 붙였다. 무등산은 천근(天根)의 복괘(復卦)가 되고, 월출산은 월굴(月窟)의 구괘(姤卦)가 되며,³²⁸ 금성은 추

328 무등산은……되며 : ‘천근(天根)’은 ‘하늘의 뿌리’라는 뜻으로 양(陽)이 시작하는 복괘(復卦)를 가리키고, 월굴(月窟)은 ‘달의 굴’이라는 뜻으로 음(陰)이 시작하는 구괘(姤卦)를 가리킨다. 송(宋)나라 소옹(邵雍)의 <관물음(觀物吟)>에, “이목(耳目)이 총명한 남자 몸으로 태어났으니, 천지조화의 부여가 빈약하지 않구나. 월굴을 탐구해야만 물을 알 수 있거니와, 천근에 못 올랐다면 어찌 사람을 알리요. 건이 손을 만난 때에 월굴을 살펴보고, 지가 뇌를 만난 곳에서 천근을 볼 수 있으니, 천근과 월굴이 한가로이 왕래하는 가운데 삼십육궁이 온통 봄이로구나.[耳目聰明男子身 洪鈞賦與不爲貧 須探月窟方知物 未躡天根豈識人 乾遇巽時爲月窟 地逢雷處見天根 天根月窟間往來 三十六宮都是春]”라 하였는데, 건(☰)이 손(☴)을 만난 것이 바로 구괘(☶)로 월굴이고, 곤(☷)이 진(☳)을 만난 것이 바로 복괘(☱)로 천근이다.

분(秋分)의 돈괘(遯卦)가 되고, 개천산은 춘분(春分)의 임괘(臨卦)가 되니,³²⁹ 나의 집은 그 가운데에 위치해 있었다.

나는 생각건대, 천지의 이치는 모두 자연의 조화로서 나 또한 무극(無極), 이기(二氣), 오행(五行)과 같은 자연의 조화를 받아 세상에 태어났다. 지금 우연히 머무를 땅을 차지하여 이렇게 자연 산수와 감응하게 되었으니, 지모와 계교, 안배(按排)와 견합(牽合)을 기다리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대역(大易)의 위수(位數)에 부합한 것이다. 나는 아침저녁으로 그 사이를 배회하면서 흔연히 기쁜 마음이 들었으며, 다른 사람이 미처 알지 못하는 묘한 이치를 깨닫고 지극히 고요한 가운데서 자적(自適)할 수 있기까지 하였다. 이에 마침내 언덕마다 절구 한 수씩을 읊어 한가한 중에 읊조릴 거리로 삼았다.]

【并序. 余所居四方有臯, 凡入墩相對. 北岸四臯自西北而至東曰乾·坎·艮·震, 南岸四臯自東南而至西曰巽·離·坤·兌. 家在艮臯之南, 面巽·離之間, 震·兌·艮·坎暨乾臯在四畔相對. 前有泉凡四穴, 在堂前者名曰少陽, 在坎臯前者曰太陽, 巽臯前者曰少陰, 離臯前者曰太陰. 合北岸四臯曰陽儀, 南岸四臯曰陰儀. 家後有圓臯曰太圓臯, 卽太極, 并八卦之墩爲九臯. 立圓臯之前, 四顧遠望, 自無等歷開天·月出至錦城【皆山名】, 大小峯巒凡六十四, 皆名之以六十四卦. 無等爲天根之復, 月出爲月窟之姤, 錦城爲秋分之遯, 開天爲春分之臨, 余家居于其中. 余惟天地之理, 皆自然之化, 而余亦稟無極·二五自然之化, 受生于兩間. 今偶占棲宿之地, 有此自然山水之應, 不待智謀巧計安排牽合, 而自然相符於大易之位數. 余朝暮倘徉於其間, 欣然於吾心, 至有人不及知之妙, 而自適夫至靜之中者. 遂逐臯賦律歌一絕, 以爲閑中吟詠之具云.】

하나의 언덕 둥글고 맑으며 기운 충만하니
진원(眞元)을 머금어 묘한 이치 무궁하네

一邱圓淨氣冲融
含得眞元妙不窮

329 금성은……되니 : 송나라 호방평(胡方平)의 《역학계몽통석(易學啓蒙通釋)》에 있는 <복희육십사괘절기도(伏羲六十四卦節氣圖)>를 보면, 복희육십사괘방원도(伏羲六十四卦方圓圖)라는 하나의 권(圈)에 24절기를 나누어 배치하여 복괘(復卦)를 동지(冬至)에, 임괘(臨卦)를 춘분(春分)에, 구괘(姤卦)를 하지에, 돈괘(遯卦)를 추분(秋分)에 위치시켰다.

삼십육궁에 봄기운 충만하니³³⁰
 주인翁의 심사와 은연중에 상통하네
 【위는 태원고(太圓臯)다.】

三十六宮春意足
 主翁心事暗相通
 【右太圓臯】

작은 언덕 서북쪽을 ‘건구(乾邱)’라 부르니
 자리 사이의 서쪽 하늘 엄숙한 가을 기운이네
 만물 고요히 관찰함에 모두 수렴하여 견고히 지키니³³¹
 자신의 달아난 닭과 개를 다시 거둘 줄 아네³³²
 【위는 건고(乾臯)다.】

小邱西北號乾邱
 位間金天肅氣秋
 萬物靜觀皆斂固
 自家鷄犬放知收
 【右乾臯】

정중(正中)의 양기(陽氣)가 건원(乾元)³³³을 얻었으니
 만 가지 조화의 근본 이 속에 보존되어 있네
 작은 돈대를 명명한 데에는 뜻이 있음을 알겠으니

正中陽氣得乾元
 萬化根柢此裏存
 名命小墩知有意

330 삼십육궁에……충만하니 : 송(宋)나라 소옹의 <관물음(觀物吟)>에, “천근과 월궁이 한가히 왕래하는 중에, 삼십육궁이 모두 봄이로구나.[天根月窟間往來 三十六宮都是春]”라 한 데서 취해 온 구절이다. ‘삼십육궁’은 64괘(卦)와 같은 것으로서 64괘 모두가 하나의 봄기운의 연속이라는 뜻이다. 성호(星湖) 이익(李滲)은 삼십육궁과 관련하여, ‘64괘 중에 변역(變易)하는 괘가 8이니, 건괘(乾卦) · 곤괘(坤卦) · 감괘(坎卦) · 이괘(離卦) · 이괘(頤卦) · 대과괘(大過卦) · 중부괘(中孚卦) · 소과괘(小過卦)이고, 교역(交易)하는 괘가 56이니, 둔괘(屯卦) · 몽괘(蒙卦) 이하가 그것이다. 변역은 8괘가 각각 한 궁이 되고, 교역은 2괘가 합하여 한 궁이 된다.’라고 하였으니, 이 해설이 가장 타당하다 하겠다.”라 하였다. 《星湖僿說 卷20 經史門 三十六宮》

331 수렴하여 견고히 지키니 : ‘수렴’은 마음을 고도로 집중함을 말한다. 《심경주부(心經附註)》 <경이직내장(敬以直內章)>에서 윤돈(尹焯)이 “경이란 마음을 수렴하여 한 물건도 용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敬者 其心收斂 不容一物之調]”라 한 대목이 보인다.

332 자신의……아네 : 자신의 잃어버린 마음(放心)을 찾을 줄 안다는 뜻이다. 《맹자》 <고자 상(告子上)>에, “인(仁)은 사람의 마음이고, 의(義)는 사람의 길이다. 그 길을 버리고서 따르지 않으며, 그 마음을 놓치고서 찾을 줄을 모르니, 애달프다. 닭이나 개가 달아나면 사람들이 찾을 줄을 알면서도 마음이 달아나면 찾을 줄을 모른다. 학문의 길은 다른 것이 아니다. 달아난 그 마음을 찾는 것일 뿐이다.[仁 人心也 義 人路也 舍其路而弗由 放其心而不知求 哀哉 人有雞犬放則知求之 有放心而不知求 學問之道無他 求其放心而已矣]”라 한 데서 유래한 말이다.

333 건원(乾元) : 천덕(天德)의 큰 시초를 말한다. 《주역》 <건괘(乾卦) 단(彖)>에, “위대하도다 건원이여, 만물이 여기에서 나오나니, 이에 하늘의 일을 총괄하도다.[大哉乾元 萬物資始 乃統天]”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앞 샘의 활수(活水)에 신령한 근원이 있어서라네³³⁴ 前泉活水有靈源
 [위는 감고(坎臯)다.] [右坎臯]

은거하는 곳 동북쪽 간괘(艮卦)가 언덕을 이루니 幽居東北艮成邱
 그 아래에 원천(源泉)이 있어 쉬지 않고 흐르네³³⁵ 下有源泉不舍流
 산택은 하나의 기운으로 통하고 있음을 참으로 알겠으니 山澤固知通一氣
 빛 머금고 절로 아름다운 것 옥을 감춰두고 있기 때문이네³³⁶ 含輝自媚玉藏收
 [위는 간고(艮臯)다.] [右艮臯]

하나의 양(陽) 처음 움직여 천문(天門)을 여니³³⁷ 一陽初動闢天門
 무성한 봄빛 해가 점차 따뜻해지네 藹藹春光日向暄
 홀옷과 복건(幅巾)에 쌓인 먼지 비로소 털어내니 單袂幅巾塵始拂
 꽃 끼고 버들 따르며 맑은 근원을 찾아가네³³⁸ 傍花隨柳趁清源
 [위는 진고(震臯)339다.] [右震臯]

334 앞……있어서라네 : ‘활수(活水)’는 근원이 있어 항상 흐르는 물을 말한다. 이 구절은 주희(朱熹)의 시 <관서유감(觀書有感)>에, “조그맣고 모난 연못에 한 거울이 열리어, 하늘빛 구름 그림자가 함께 배회하네. 묻거니 어이하어 그처럼 맑은가. 근원에서 활수가 솟아 나오기 때문이라네.[半畝方塘一鑑開 天光雲影共徘徊 問渠那得清如許 爲有源頭活水來]”라 한 데서 취해 온 것이다.

335 그……흐르네 : 《논어》 <자한(子罕)>에, “공자가 시냇가에서 말하기를 ‘가는 것이 이와 같구나. 밤이고 낮이고 멈추는 법이 없도다.’”라고 하였다.[子在川上曰 逝者如斯夫 不舍晝夜]”라 한 부분과 주희(朱熹)의 시 <관서유감(觀書有感)>에, “조그맣고 모난 연못에 한 거울이 열리어, 하늘빛 구름 그림자가 함께 배회하네. 묻거니 어이하어 그처럼 맑은가. 근원에서 활수가 솟아 나오기 때문이라네.[半畝方塘一鑑開 天光雲影共徘徊 問渠那得清如許 爲有源頭活水來]”라 한 부분에서 취해 온 구절이다.

336 빛을……때문이라네 : 이 구절은 주희(朱熹)의 <재거감흥(齋居感興)> 제3수에, “진주가 들어 있기에 못 물은 절로 아름답고, 옥이 묻혀있기에 산은 빛을 머금었네.[珠藏澤自媚 玉蘊山含輝]”라 한 데서 취해 온 것이다. 《朱子大全 卷1》

337 하나의……여니 : 진괘(震卦)는 두 개의 음(陰) 아래 하나의 양(陽)이 생겨난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팔괘 중에서 진괘는 방위로는 동쪽, 계절로는 봄을 상징한다.

338 꽃……찾아가네 : 이 구절은 송(宋)나라 정호(程顥)의 시 <우성(偶成)>에, “구름 맑고 바람 가벼운 한낮 가까운 때에, 꽃 끼고 버들 따라 앞 시내를 건너네.[雲淡風輕近午天 傍花隨柳過前川]”라 한 데서 취해 온 것이다. 《二程文集 卷1》

339 진고(震臯) : 진괘(震卦)는 동방(東方)이고 봄에 해당하는 괘다. 《주역》 <설괘전(說卦傳)>에, “만물이 진에서 나오니, 진은 동방이다.[萬物出乎震 震 東方也]”라 하였다.

산이 건지(建地)를 도는 것 개천(開天)에서부터 시작 되니 山回建地自開天
 나의 집 동남쪽에 손괘(巽卦)가 높은 봉우리 이루었네 我屋東南巽作巔
 무엇보다도 좋은 것은 늦봄에 시우(時雨) 내린 뒤 最是晚春時雨後
 좋은 바람이 안개 걷어내 푸른 옥 드러내는 것이라네 好風開霧露蒼璇
 【위는 손고(巽臯)다.】 【右巽臯】

달이 명산 위에 떠올라 일봉(日封)을 마주하니 月出名山對日封
 작은 언덕의 아름다운 기운이 두 봉우리에 접해 있네 小邱佳氣接雙峯
 문명(文明)³⁴⁰은 본래 남쪽 땅을 담당하니³⁴¹ 文明自是司南紀
 때때로 구름과 노을을 일으켜 우리 농토를 적셔주네 時起雲霞澤我農
 【위는 이고(離臯)다.】 【右離臯】

태음(太陰)의 샘물가가 곤구(坤邱)이니 太陰泉畔是坤邱
 못은 윤기 나고 산에는 안개 끼 바른 기운 떠오르네 澤潤山蒸正氣浮
 남쪽으로 종이창 열고서 고요히 마주하니 南關紙窓相對靜
 헛된 생각 절로 사라지고 한가한 시름만 맺히네 自無虛想結閒愁
 【위는 곤고(坤臯)다.】 【右坤臯】

만상(萬象)이 근본으로 돌아가 태괘(兌卦)가 문을 이루니 萬象歸根兌作門
 원기(元氣)를 닫고 감추어 추위와 더위가 적당하네 閉藏元氣節寒暄

340 문명(文明) : 이괘(離卦)는 문명(文明)함을 뜻한다. 《주역》〈이괘(離卦) 육이(六二)〉의 전(傳)에, “황은 중앙의 색이고, 문체가 아름다우니, 문명(文明)하고 중정(中正)함은 아름다움이 성한 것이다. 그러므로 황리(黃離)라 한 것이다. 문명중정(文明中正)한 덕으로 위로 문명중순(文明中順)한 군주와 함께 하니 그 밝음이 이와 같고, 붉은 바가 이와 같다면 대선(大善)의 길함이다.[黃 中之色 文之美也 文明中正 美之盛也 故云黃離 以文明中正之德 上同於文明中順之君 其明如是 所麗如是 大善之吉也]”라 하였다.

341 남쪽 땅을 담당하니 : ‘남쪽 땅’의 원문은 ‘남기(南紀)’다. 《시경》〈소아(小雅)·사월(四月)〉에, “도도한 강한이, 남국의 강기(綱紀)가 되도다.[滔滔江漢 南國之紀]”라 한 데서 유래한 말로, 전하여 남방(南方)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쓰인다. 팔괘 중에서 이괘는 방위로는 남쪽, 계절로는 여름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가을날 될 적마다 높이 올라 바라보니
큰 조화가 유행함에 흔적도 보이지 않네
【위는 태고(兌臯)342다.】

每當秋日登高望
大化流行不見痕
【右兌臯】

342 태고(兌臯) : 태괘(兌卦)는 서방(西方)이고 가을에 해당하는 괘다. 《주역》〈설괘전(說卦傳)〉에, “태는 정추(正秋)이니 만물이 기뻐하는 바이다.[兌 正秋也 萬物之所說也]”라 하였다.

금리초사(錦里草舍) 23영

錦里草舍二十三詠

옥을 쪼아 만든 듯한 앞산 두 봉우리 기이하니
큰 강가에 우뚝하게 비껴 나왔네
누가 낭간(琅玕)³⁴³의 보석 심어 놓았나
창문 앞 눈 내린 뒤의 자태를 오래도록 마주하네
【위는 앞산의 푸른 대나무다.】

琢玉前山兩點奇
截然橫出大江湄
何人種得琅玕寶
長對軒窓雪後姿
【右前山翠竹】

푸른 산 한 기슭 강 머리에 자리해 있으니
만 그루의 푸른 소나무 푸른 물가와 가깝네
가장 사랑스러운 것은 맑은 밤의 바람과 물 소리
상쾌하게 세상의 근심을 모두 씻어주는 것이라네
【위는 뒷산 기슭의 푸른 소나무다.】

靑山一麓枕江頭
萬樹蒼松近碧洲
最愛清宵風水韻
爽然消盡世間愁
【右後麓蒼松】

조수가 물러난 강 가운데 백사장 드러나니
한 마리 잠자는 해오라기 갈대 옆에 서 있네
잠잘 때에도 깨어 있을 때와 같은 마음 있으리라 생각하니
호수에서 저녁노을 좇아 나는 꿈을 꾸겠지
【위는 모래톱의 잠자는 백로다.】

潮退江心露白沙
一鸞眠鷺傍蒹葭
眠時想有醒時意
夢入湖天趁落霞
【右沙汀宿鷺】

떠 두른 듯한 푸른 안개 강촌에 일어나니
붉은 여뀌 자란 물가에 한 줄기 흔적
모랫가의 흰 갈매기 잠기운 가득하니
작은 바람에 물결 이는 곳 별천지라네
【위는 안개 낀 물가의 잠자는 갈매기다.】

靑烟如帶起江村
紅蓼汀洲一抹痕
沙際白鷗眠意足
小風波處別乾坤
【右烟渚眠鷗】

343 낭간(琅玕): 옥과 비슷한 아름다운 돌인데, 흔히 대나무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된다.

개펄에 어둑어둑 해 저물 때
 바다 위 하늘 끝이 없어 새 돌아가는 것 더디네
 강교(江郊)의 목동 돌아가는 뜻을 재촉하니
 소 등 위의 노랫소리 물 너머에서 기이하게 들려오네
 【위는 사초(莎草) 자란 들판의 목동 노랫소리다.】

浦溼陰陰日落時
 海天無際鳥歸遲
 江郊牧豎催還意
 牛背歌聲隙水奇
 【右莎坪牧謳】

그물 걷어 돌아감에 물고기 배에 가득하니
 늙은이의 참된 즐거움 고요함 속의 하늘이라네
 배 옮겨 물가의 대나무에 늦게 다다르니
 한 곡조 길게 노래하며 바위 아래서 잠드네
 【위는 죽포(竹浦)의 어부가다.】
 앞의 조수(潮水) 막 떨어지자 다음 조수 일어나니
 백 길의 험한 여울 큰 물결 놀라워라
 본래 어부는 목숨을 가벼이 여기니
 조각배 출렁이며 이리저리 기우네
 【위는 여울을 거슬러 오르는 작은 배다.】

捲網歸來魚滿船
 老翁眞樂靜中天
 移船晚擊汀邊竹
 一曲長歌巖底眠
 【右竹浦漁歌】
 前潮纔落後潮生
 百丈危灘大浪驚
 自是漁人輕性命
 扁舟出沒任舳傾
 【右溯灘輕棹】

눈에 가득한 긴 강 물결 참으로 고요하니
 저물녘 바람 불고 지나가자 옥비늘 같은 물결 일어나네
 큰 배 어딘가에서 저물녘에 돌아오니
 천 척(尺)의 높은 돛 달아 한 가닥 실처럼 가볍네.
 【위는 바람 끌고 돌아오는 배다.】

極目長江波正平
 晚風吹過玉鱗生
 巨航何處歸來晚
 千尺高帆一縷輕
 【右引風歸帆】

우뚝한 모습으로 산과 바다에 웅장하게 서려 있으니
 사계절의 아름다운 기운 높은 하늘과 접해 있네
 꼭대기엔 언제나 구름과 무지개 머무르니
 단비를 맺어 해동(海東)을 적셔 주기 위해서라네
 【위는 서악(瑞岳)에 낀 짙은 구름이다.】

突兀雄蟠嶺海中
 四時佳氣接層穹
 頂頭常有雲霓住
 爲結甘霖潤海東
 【右瑞岳濃雲】

강가에 높이 솟은 옥비녀 하나 江上亭亭玉一簪
 아득히 단정하고 빼어난 모습으로 하늘 가운데에 꽂혀있네 迥然端秀插天心
 저녁노을 조각조각 비단처럼 붉으니 殘霞片片丹如綺
 안개 반쯤 가린 나환(螺鬢)³⁴⁴ 같은 봉우리를 숨겨두었네 藏得螺鬢霧半岑
 【위는 백산(白山)의 저녁노을이다.】 【右白山殘霞】

여울을 관찰하는 데 방법이 있다는 성류(聖流)의 말씀³⁴⁵ 觀瀾有術聖流言
 만 이랑으로 나뉜 파도라도 근원은 하나일 뿐이라네 萬頃分波只一源
 작은 배 가볍게 띄워 짧은 노 저으니 輕理小舟浮短棹
 참된 물갈래 찾아 맑은 물가로 거슬러 오르기³⁴⁶ 위험이라네 爲尋眞派泝清瀆
 【위는 배를 띄워 물결을 관찰한 일이다.】 【右理艇觀瀾】

그윽한 회포 적적하여 홀로 배회하니 幽懷寂寂獨盤桓
 바위 벼랑에 이르러 골짜기의 난초를 캐네 行趁巖崖採谷蘭
 지팡이 짚고 작은 길 걷다 머리 돌려 서니 柱杖小蹊回首立
 푸른 산 말 없이 구름 위로 솟아 있네 碧山無語出雲端
 【위는 지팡이 짚고 걷다 산을 본 일이다.】 【右拄杖看山】

어촌과 산성에서 천민(天民)³⁴⁷으로 늙어가니 水村山郭老天民
 적막한 물가에서 고기 잡으며 살아가네 漁釣生涯寂寞濱
 밤나무 심어 정원 만듬에 가을에 열매 맺히니 種栗成園秋有實

344 나환(螺鬢) : 소라 껍질과 쪽진 머리라는 뜻으로, 산들이 둥글둥글 겹쳐 있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345 여울을……말씀 : 《맹자》〈진심 상(盡心上)〉에, “물을 관찰할 때는 방법이 있으니, 반드시 그 여울을 보아야 한다.〔觀水有術 必觀其瀾〕”라 하였다. 학문을 함에 있어 도(道)의 근본을 향해 점진적으로 나아가야 함을 비유하는 말로 흔히 사용된다.

346 거슬러 오르기 : 원문은 ‘기(泝)인데, 문맥을 살펴 ‘소(泝)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347 천민(天民) : 하늘의 뜻을 알고 이에 걸맞게 행하는 백성이라는 뜻이다. 《맹자》〈진심 상(盡心上)〉에 “천민은 자기가 도에 통달하여 천하에 펼칠 수 있게 된 뒤에야 행하는 사람이다.〔有天民者 達可行於天下而後行之者也〕”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선생은 이제부터 완전히 가난하지는 않을 것이네³⁴⁸ 先生從此不全貧
 【위는 밤나무 숲에서 열매를 거둔 일이다.】 【右栗林收實】

골짜기 가득한 푸른 소나무 만 줄기 벽을 이루었으니 滿谷蒼松壁萬莖
 집을 휘감은 짙은 푸르름 처마 기둥을 적시네 繞軒凝翠滴簷楹
 작은 바람도 일지 않고 국화는 늙었으니 微風不動黃花老
 정화(精華)를 캐어다 섭생(攝生)을 할 것이네 採得精華爲攝生
 【위는 소나무 언덕에서 꽃을 캔 일이다.】 【右松塢採花】

달빛 두른 이른 새벽에 홀로 호미 메니 帶月侵晨獨荷鋤
 천맥(泉脈)을 찾아 산 도랑을 지나기 위해서라네 爲尋泉脉過山渠
 골짜기에 영험한 근원이 있음을 알겠으니 谷中知有靈源在
 수확하는 일³⁴⁹은 모름지기 물을 대는 처음을 점쳐야 하네 西事須占灌溉初
 【위는 도랑을 터서 곡식에 물을 댄 일이다.】 【右疏渠灌稼】

비가 가벼운 먼지 적셔 봄기운 길어지니 雨浥輕塵春意長
 울창한 숲에 무슨 풀인들 향기롭지 않으랴 萬林何草不芬芳
 질퍽한 땅 관 것은 뜰 앞의 국화 심기 위함이니 穿泥爲種庭前菊
 너의 곧은 마음과 만절(晩節)의 향기³⁵⁰ 알겠네 知爾貞心晩節香
 【위는 비를 맞으며 국화를 심은 일이다.】 【右帶雨種菊】

만사(萬事)를 조화옹(造化翁)의 권능에 맡겨 두니 萬事從他造化權

348 밤나무……것이네 : 이 시구는 두보(杜甫)의 〈남린(南鄰)〉 시의 “까만 각진 쓰신 우리 금리 선생, 정원에서 밤만 주워도 완전히 가난하지만은 않겠구려.[錦里先生烏角巾 園收芋栗不全貧]”라는 구절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杜少陵詩集 卷9》

349 수확하는 일 : 원문은 ‘서사(西事)’다. 가을의 추수를 말한다. 《서경》〈요전(堯典)〉에, “지는 해를 공경히 전송하여 추수(秋收)를 고루 다스리게 한다.[寅饗納日 平秩西成]”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350 만절(晩節)의 향기 : 늦가을에 피는 국화의 향기를 표현한 말이다. 송(宋)나라 한기(韓琦)의 시에, “옛 동산 가을빛이 묽어서 부끄럽소마는, 늦가을 향기로운 국화꽃을 한번 보소.[雖慚老圃秋容淡 且看寒花晩節香]”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安陽集 卷14 九日水閣》

이 마음 거울 속 하늘을 전적으로 주재하네	此心專主鏡中天
발을 걷어 맑은 강의 달빛 곧바로 맞이하니	開簾直納清江月
아름다운 거문고 ³⁵¹ 로 두세 곡조를 한가로이 연주하네	閒弄瑤徽三兩絃
【위는 발을 걷고 거문고를 탄 일이다.】	【右開簾撫琴】

밝고 깨끗한 종이창 향로 연기에 가리니	紙窓明淨揜鑪薰
우두커니 말을 잊은 채 해질녘까지 앉아 있네	塊坐忘言到日曛
고요함 속은 진정 즐거운 곳이 되기에 충분하니	靜裏十分眞樂地
숙연한 마음으로 책을 펼쳐 천군(天君)을 섬기네 ³⁵²	肅然開卷事天君
【위는 문을 닫고 책을 본 일이다.】	【右閉戶看書】

강 길 소나무 아래 사립문으로 비껴 이어지니	江路斜連松下扉
객이 찾아와 그런대로 안부를 물어보네	客來聊爲問寒饑
기쁜 마음으로 질항아리에 든 술 따르니	欣然爲酌瓦樽酒
객과 주인 말 없이 시비를 잊네	賓主無言忘是非
【위는 사립문을 열어 객을 맞이한 일이다.】	【右啓扉延賓】

강 하늘에서 경물 완상하는 데 이 마음을 부리니 ³⁵³	玩物江天役此心
헛된 생각 흥금에 이르는 일이 없지 않네	不無虛想到芻衿
돌아와 눈을 감고서 우두커니 앉으니	歸來瞑目塊然坐
밝은 거울 흠 없고 고요한 물 깊네	明鏡無痕止水深

351 아름다운 거문고 : 원문은 ‘요휘(瑤徽)’다. 옥으로 만든 기러기발을 뜻하는데, 아름다운 거문고를 가리키는 말로도 흔히 사용된다.

352 숙연한……섬기네 : 송나라 진덕수(眞德秀)의 <심경찬(心經贊)>에, “맑은 창가 비궤 위에 맑은 대담 향 피우고, 책을 펴고 숙연한 마음으로 나의 천군 섬기노라.[明窓几几 淸畫鑪薰 開卷肅然 事我天君]”라 한 데서 취해 온 구절이다.

353 강……부리니 : 자연 경물을 즐기는 데 마음을 쏟아 종종 헛된 생각을 하기도 했다는 의미다. ‘쓸데없는 물건을 가지고 노는데 몰두하여 소중한 자기의 본심을 잃어버린다’는 뜻의 ‘완물상지(玩物喪志)’를 염두에 두고 쓴 대목이다. ‘완물상지’는 <서경(書經)> <여오(旅獒)>에,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하찮게 여기면 덕을 잃고, 좋아하는 사물에 빠지면 뜻을 잃는다.[玩人喪德 玩物喪志]”라 한 데서 유래한 말이다.

【위는 눈을 감고 마음을 보존한 일이다.】

【右瞑目存心】

날 갠 뒤에 떠내려가는 얼음 강기슭을 덮어 흐르니
젖은 구름 흰 갈매기 노니는 물가에서 처음 흩어지네
긴 강에 점점이 높이 나는 기러기
강여울에 어지러이 내려와 떠나가는 배를 뒤따르네
【위는 물가에 기러기가 내려앉은 일이다.】

霽後流澌沒岸流
濕雲初散白鷗洲
長江點點高飛鴈
亂落江灘趁去舟
【右滄洲落鴈】

작은 정자에 날씨 막 개어 달 밝게 뜨니
창가를 거닐자 온갖 생각 잠잠해지네
두루미 울음소리 먼 포구에서 들려오니
이 몸 마치 변화한 듯 깃옷이 가볍네
【위는 먼 물가에서 우는 학이다.】

小亭新霽月生明
徙倚軒窓百慮平
野鶴一聲來遠澗
此身如化羽衣輕
【右遠澗叫鶴】

물 빠지고 여울 잔잔한 양 기슭의 모래톱
강에 가로놓은 긴 그물로 물고기와 새우 잡아 올리네
한껏 구경하느라 나도 모르게 늦게야 돌아오니
붉은 여뀌 자란 물가에 해가 이미 기울었네
【위는 여뀌 자란 언덕에서 고기잡이를 구경한 일이다.】

水落灘平兩岸沙
橫江長網遮魚蝦
貪看不覺歸來晚
紅蓼汀邊日已斜
【右蓼岸觀漁】

구암서실(龜巖書室) 8영

龜巖書室八詠

어느 해에 신부(神斧)로 견고하고 단단한 바위를 쪼개어³⁵⁴ 何年神斧斲堅頑
 만고에 변치 않는 거북³⁵⁵의 얼굴을 새겨 놓았나 刻出玄夫萬古顏
 복희씨(伏羲氏)와 문왕(文王)의 3획과 9획은 다시 없으니³⁵⁶ 無復羲文三九畫
 구름 토해낸 맑은 새벽 사립문을 감싸네 吐雲清曉護松關
 【위는 구암의 새벽 구름이다.】 【右龜巖曉雲】

금빛 자라 천 척(尺)이나 높아 경파(鯨波)를 압도하니 金鰲千尺壓鯨波
 고운 노을 멀리서 끌어와 푸른 산에 칠하네 遠引纖霞抹碧螺
 바다 너머 봉래산 이를 통해 접할 수 있으니 海外蓬壺從可接
 십주(十洲)³⁵⁷에 언제나 신령한 뗏목³⁵⁸을 띄울까 十洲何日泛靈槎

- 354 어느……쪼개어 : 주희(朱熹)의 <우레 소리를 듣고 감회가 일어(聞迅雷有感)> 시에, “누가 신부(神斧) 가져다가 모진 음기(陰氣) 깨쳐서, 땅 터지고 산 열리어 귀신이 숲 잃게 하리.誰將神斧破頑陰 地裂山開鬼失林”라 한 데서 취해 온 구절이다.
- 355 거북 : 원문은 ‘현부(玄夫)로, 거북을 가리킨다. 송나라 원왕(元王) 2년에 청강(淸江)에서 신비한 거북으로 하(河)에 사신을 보냈는데, 천양(泉陽)에 이르자 어부 예제(豫且)가 그물로 잡았다. 그러자 원왕의 꿈에 거북이 나타나 “제가 환난 중에 있기에 와서 아뢰입니다.” 하였다. 왕이 위평(衛平)을 불러 “내 꿈에 장부(丈夫)가 목을 뺐는데, 머리는 길고 검은 옷을 입었다. 이것이 무슨 물건이나?”라고 묻자, 위평이 대답하기를 “그 이름이 거북입니다.”라 한 고사에서 유래하였다. 《史記 卷128 龜策列傳》
- 356 복희씨(伏羲氏)와……없으니 : 복희씨(伏羲氏) 때에 등에 1에서부터 10까지의 문양이 그려진 용마(龍馬)가 나왔는데 이것이 하도(河圖)로, 복희씨가 이를 보고 세 획으로 이루어진 팔괘(八卦)를 그렸다고 한다. 또 하(夏)나라 우(禹) 임금 때 등에 1에서 9까지의 점이 박혀 있는 거북이 나왔는데 이것이 곧 낙서(洛書)로, 우 임금이 이를 보고 홍범구주(洪範九疇)를 만들었다고 한다. 《尙書正義 洪範, 顧命》 ‘구암(龜巖)’에 대해 지은 시이므로 거북이 등장하는 이러한 고사를 사용한 듯하다. 다만 이 구절에서 ‘문왕(文王)’을 언급한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 357 십주(十洲) : 도교에서 말하는 바닷속仙境(仙境)으로, 조주(祖洲)·영주(瀛洲)·현주(玄洲)·염주(炎洲)·장주(長洲)·원주(元洲)·유주(流洲)·생주(生洲)·봉린주(鳳麟洲)·취굴주(聚窟洲)를 가리킨다. 《海內十洲記》
- 358 신령한 뗏목 : 원문은 ‘영사(靈槎)’다. 선계(仙界)로 향하는 뗏목을 뜻한다. 한(漢)나라 무제(武帝)가 장건(張騫)으로 하여금 대하(大夏)에 사신으로 가서 황하(黃河)의 근원을 찾게 하였는데, 장건이 뗏목을 타고 거슬러 올라가다가 전우(牽牛)와 직녀(織女)를 만났다는 고사가

【위는 오령(鰲嶺)에 낀 저녁노을이다.】

【右鰲嶺晚霞】

어렵풋한 산색(山色) 강촌에 들어오니
물가의 대나무와 난초 마을 문에 접해 있네
몇 가닥 어부의 피리 소리 들려오는 곳 어디인가
깊은 밤 달빛 타고 그윽한 집에 이르네

有無山色入江村
渚竹汀蘭接巷門
何處數聲漁子篴
夜深乘月到幽軒

【위는 죽포(竹浦) 어부의 피리소리다.】

【右竹浦漁篴】

숲속 창에서 자다 일어나 집 밖으로 나오니
온갖 경관 소리 없고 달만 시내 위에 떠 있네
산 너머의 작은 종소리 귓전에 울려 지나니
묵묵한 깊은 감회 선천(先天)³⁵⁹에 이르네

林窓睡覺出軒前
萬境無聲月在川
山外小鍾鳴歷耳
默然深感到先天

【위는 송암(松庵)의 범종이다.】

【右松庵梵鍾】

비 내린 뒤의 산속 집 특별히 한가하니
사방 둘러싼 구름머리 푸른빛으로 쪽을 단장하였네
만 줄기의 푸른 옥 처마 주위에 늘어서 있으니
봄이 선생의 궤안(几案) 사이에 있다네

雨後山軒特地閒
四圍雲髻碧粧鬢
萬莖蒼玉排簷宇
春在先生几案間

【위는 북쪽 기슭의 비 갠 뒤의 소나무다.】

【右北麓晴松】

비가 씻어낸 서늘한 가을 하늘에 달 한 덩이 뜨니
푸른 하늘 공활하고 날이 갠 뒤의 빛 새롭네
분명하게 산인(山人)의 집 곧바로 비추니
뜰 넓어 일찍이 한 점의 먼지도 없네

雨洗涼秋月一輪
碧天空闊露光新
分明直照山人室
庭豁曾無一點塵

【위는 동쪽 정자의 비 갠 뒤의 달이다.】

【右東亭霽月】

전한다. 《荊楚歲時記》

359 선천(先天) : 우주의 본체와 만물의 본원을 가리키는 말이다. 북송의 소옹(邵雍)이 진단(陳搏)의 학문을 터득하여 《주역》을 설명하면서 복희(伏羲)의 역(易)을 선천, 문왕(文王)의 역을 후천(後天)이라 하였으며, <복희선천괘위도(伏羲先天卦位圖)>를 만들었다.

순(舜) 임금과 문왕(文王)의 밝음과 상서로움 다시 일어나기 어려우니
 舜文明瑞再難翔
 봉황을 노래하는 맑은 소리 초(楚)나라 광인(狂人)³⁶⁰에게서 나오네
 歌鳳清聲發楚狂
 천 년의 덕스러운 빛 떠나가는 그림자를 미혹시키니
 千載德輝迷去影
 푸른 산 예전처럼 아침 해에 빛나네
 碧山依舊暎朝陽
 【위는 봉악(鳳岳)의 아침 해다.】
 【右鳳岳朝暎】

물러가는 조수(潮水)를 급히 올라오며 저녁 바람 생겨나니
 歸潮上急晚風生
 난포(蘭浦)에 구름 걷혀 졸던 해오라기 놀라네
 蘭浦雲收宿鷺驚
 한 곡조 뱃노래 부르는 이 어느 곳의 객인가
 一曲棹歌何處客
 반돛 높이 올리고서 텅 비고 밝은 데로 거슬러 올라가네
 半帆高舉溯空明
 【위는 저탄(猪灘)의 저물녘 배다.】
 【右猪灘暮帆】

구담승경(龜潭勝景) 10영

龜潭勝景十詠

산세가 물가의 둔대를 평탄히 이루니
 山勢平成水上臺
 시원스레 세속의 풍진 위로 높이 솟았네
 廓然高出世風埃
 창으로 커다란 천지 곧바로 받아들이니
 軒窓直納乾坤大
 대장부의 마음 절로 열릴 만 하네
 大丈夫心自可開
 【위는 호연정(浩然亭)이다.】
 【右浩然亭】

360 초(楚)나라 광인(狂人) : 춘추 시대 초(楚)나라의 은자(隱者)인 육통(陸通)을 가리킨다. 자(字)가 접여(接輿)이므로, 초광접여(楚狂接輿)라고도 한다. 거짓으로 미친 척하고 벼슬하지 않아 당시 사람들이 '초나라 미치광이[楚狂]'라 불렀다. 《논어》〈미자(微子)〉에, 접여가 공자의 문을 지나가며 “봉이여 봉이여, 어찌 이리 덕이 쇠하였나.[鳳兮鳳兮 何德之衰也]”라고 풍자하는 노래를 불렀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작은 정자 높이 자리하고 큰 강 잔잔하니	小亭高壓大江平
강에 뜬 달과 바위에 부는 바람 세상 일 다투지 않네	水月巖風世不爭
우스워라 영천(潁川)에서 번거로이 귀 씻은 일 ³⁶¹	堪笑潁川煩洗耳
한가로이 누워 마음 씻는 것만 못하다네	不如閒臥洗心情
【위는 침벽정(枕碧亭)이다.】	【右枕碧亭】

간 하늘의 기상 강가에 가득하니	晴天氣象藹江濱
해 따뜻하고 바람 온화하여 만물에 봄기운이네	日暖風和萬物春
만약 행단(杏壇) ³⁶² 에 단비 내린 뒤를 본다면	若見杏壇時雨後
한 곡조 옥 비파 가락에 읊으며 돌아가는 사람 있을 것이네 ³⁶³	一聲瑤瑟詠歸人
【위는 영고정(詠高亭)이다.】	【右詠高亭】

정자 아래 맑은 물결 거울과 같이 밝고	亭下澄瀾似鏡明
물가의 모래와 돌 온통 얼음처럼 맑네	水邊沙石盡冰清
초취한 강가의 객이 될 필요는 없으니 ³⁶⁴	不須憔悴江潭客
함부로 먼지 쌓인 갓끈 씻어 맑은 물을 더럽힌다네 ³⁶⁵	慢濯塵纓汚淨泓

- 361 영천(潁川)에서……일 : 요(堯)임금 때의 은사(隱士)인 허유(許由)가 일찍이 가산(箕山) 아래 영천(潁川)에 은거하였는데, 요임금이 제위를 맡기려 하자 이를 거절하면서 귀를 씻었다는 고사가 전한다.
- 362 행단(杏壇) : 공자가 학문을 강론하던 곳이다. 《장자(莊子)》〈어부(漁父)〉에, “공자가 치유의 숲에 노닐고 행단의 위에 앉아 실 적에 제자들은 글을 읽고 공자는 노래하며 거문고를 탔다.[孔子遊於緇帷之林 休坐乎杏壇之上 弟子讀書 孔子絃歌鼓琴]”라 하였다.
- 363 한……것이네 : ‘노래 읊으며 돌아간다’는 것은 한가로이 자연을 노니는 것을 말한다. 《논어》〈선진(先進)〉에, 공자가 증점(曾點)에게 장래 포부를 물어보자 그가 타고 있던 비파를 내려놓으며 말하기를 “늦은 봄에 봄옷이 만들어지면 관을 쓴 벗 대여섯 명과 아이들 예닐곱 명을 데리고 기수(沂水)에서 목욕하고 무우(舞雩)에서 바람을 쐬 뒤 시를 읊으면서 돌아오겠습니다.”[暮春者 春服既成 冠者五六人 童子六七人 浴乎沂 風乎舞雩 詠而歸]”라 하였다는 고사가 전한다.
- 364 초취한……없으니 : 초나라 굴원(屈原)을 가리키는 말이다. 굴원의 〈어부사(漁父辭)〉에, “굴원이 쫓겨나 강담에서 노닐고 못가를 거닐면서 시를 읊조리며 안색이 초취하고 행색이 생기가 없었다.[屈原既放 游於江潭 行吟澤畔 顏色憔悴 形容枯槁]”라 하였다.
- 365 함부로……더럽힌다네 : ‘갓끈을 씻는다’는 것은 진속(塵俗)을 초탈하여 자신의 고결한 신념을 지키는 것을 뜻하는 행위이다. 굴원의 〈어부사(漁父辭)〉에, “창랑의 물이 맑으면 나의 갓끈을 씻고, 창랑의 물이 흐리면 나의 발을 씻으리라[滄浪之水清兮 可以濯我纓 滄浪之水濁兮 可以濯我足]”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위는 탁청정(濯淸亭)이다.】

【右濯淸亭】

바위로 이루어진 평평한 돈대에서 푸른 못을 굽어보니	石作平臺俯碧潭
은빛 상자에서 꺼낸 새로운 거울처럼 밝네	瑩如新鑑啓銀函
허명(虛明)하여 본래부터 티 없이 맑으니	虛明本自澄無累
하늘의 빛 비추어 구름 그림자 적실 수 있네	能照天光雲影涵

【위는 광영대(光影臺)다.】

【右光影臺】

어느 해에 조화옹이 쇠를 정밀하게 단련하였는가	何年造化鍊金精
벽돌 두른 못 속에 만고(萬古)의 정 품고 있네	盤磚潭心萬古情
맑고 탁함과 얇고 깊음 때에 따라 숨었다 드러나니	淸濁淺深隨隱見
옥은 천질(天質)과 같아 더욱 굳세고 굳네	玉如天質更堅貞

【위는 은현암(隱見巖)이다.】

【右隱見巖】

여섯 마리 자라 그 당시 삼신산(三神山)을 잃었으니 ³⁶⁶	六鰲當日失三山
한 점 서쪽으로 흘러 이곳에 떨어졌네	一點西流落此間
봉우리 가득한 옥 나무 겹겹이 푸른빛 짙으니	滿峯瓊樹濃層翠
이슬이 바윗가의 향초 자란 물굽이에 떨어지네	露滴巖邊芳草灣

【위는 적취봉(滴翠峯)이다.】

【右滴翠峯】

학 기르는 고고한 사람 이미 선골(仙骨)을 이루었으니	養鶴高人骨已仙
서호(西湖)의 풍물(風物) 달이 천년 동안 비추네 ³⁶⁷	西湖風物月千年

366 여섯……잃었으니 : ‘삼신산(三神山)’은 봉래(蓬萊)·방호(方壺)·영주(瀛洲) 세 신산(神山)을 가리킨다. 《열자(列子)》〈담문(湯問)〉에 의하면, 발해(渤海)의 동쪽에는 대여(岱輿), 원교(員嶠), 방호(方壺), 영주(瀛洲), 봉래(蓬萊)라는 다섯 신산(神山)이 있는데, 이 산들이 조수(潮水)에 밀려 표류(漂流)하여 정착하지 못하므로, 천제(天帝)가 이 산들이 서극(西極)으로 흘러가 버릴까 염려하여 큰 자라 열다섯 마리로 하여금 이 산들을 머리에 이고 있게 하였다. 이에 비로소 정착하게 되었는데, 뒤에 용백국(龍伯國)의 거인(巨人)이 단번에 자라 여섯 마리를 낚아감으로 인하여 대여, 원교 두 산은 서극으로 표류해 버리고, 방호, 영주, 봉래 세 산만 남았다고 한다.

367 학……비추네 : ‘서호(西湖)’는 중국 절강성(浙江省) 항주(杭州)의 서쪽 고산(孤山) 옆에 있

이곳을 서호라 명명한 것 어찌 뜻이 없겠는가 此中名命寧無意
 매화 핀 정자 저녁 안개에 잠겨 있음을 길이 아쉬워하네 長恨梅亭鎖暮烟
 【위는 서호다.】 【右西湖】

평평한 들관 일대의 작은 시냇가 平郊一帶小溪頭
 정자 앞에 이르자마자 곧장 합류하네 纔到亭前便合流
 가장 사랑스러운 것은 깊은 밤 밝은 달 아래 最愛夜深明月下
 여울물 굽이굽이 옥경(玉磬)³⁶⁸ 소리 내는 것이라네 灘聲曲曲玉鳴球
 【위는 동계(東溪)다.】 【右東溪】

맑은 강 남쪽 두둑 작은 물가의 모래 清江南畔小汀沙
 붉은 여뀌와 푸른 잔디 그 사이엔 들꽃 피었네 紅蓼青莎間野花
 언덕 위 몇 집에서 연기 가늘게 피어나니 岸上幾家烟細起
 한 가닥 고르게 펼쳐 푸른 노을을 두르네 平鋪一抹帶靑霞
 【위는 남주(南洲)다.】 【右南洲】

는 호수다. 송(宋)나라 때의 처사 임포(林逋)가 이곳에 은거하여 20년 동안 성시(城市)에 발
 을 들여놓지 않은 채 처자 없이 매화를 심고 학을 기르며 사니, 당시 사람들이 그를 매처학자
 (梅妻鶴子)라 일컬었다. 《宋史 卷457 林逋列傳》

368 옥경(玉磬) : 원문은 ‘명구(鳴球)’로, 곧 옥경을 가리킨다. 《서경》〈익직(益稷)〉에, “명구를
 치고 거문고와 비파를 타며 노래를 읊으니, 조고가 오시어 우빈의 자리에서 제후들과 덕으로
 사양한다.[憂擊鳴球 搏拊琴瑟 以詠 祖考來格 虞實在位 群后德讓]”라 한 데서 유래하였
 다.

구호정사(鳩湖精舍) 8경에 제하다.

【중제 해영(海英)이 낭주(朗州) 구림(鳩林)에 우거하였다고 한다.】

題鳩湖精舍八景【從弟海英，寓居朗州鳩林云。】

맑은 호수 천 이랑에 달이 삼경(三更)이니	澄湖千頃月三更
거울 같은 수면의 잔잔한 바람 고요하여 놀라지 않네	鏡面微風靜不驚
구만 리 가을 하늘 맑아 물속에 그림자 비치니	九萬秋天晴倒影
하룻밤에 너무도 맑은 기운을 가득히 얻었네.	一宵贏得分外清
【위는 서호(西湖)의 가을달이다.】	【右西湖秋月】

해가 용 머리에 떨어져 석양이 비끼니	日墮龍頭返照斜
강 하늘에 바람 일어나 고운 노을을 끄네	江天風起曳纖霞
갑자기 만 장(丈)의 붉은 구름 일어나	俄然萬丈紅雲舉
바닷가로 들어가는 태양을 떠받쳐 보내네	扶送羲輪納海涯
【위는 용산(龍山)의 낙조다.】	【右龍山落照】

비가 서호(西湖)를 씻어내 옥거울 같은 하늘 드러나니	雨洗西湖玉鏡天
강촌에 해 저물어 가늘게 연기 피어나네	江村日暮細生烟
멀리서 알겠네 어부가 낚시질 마치고서	遙知漁父垂絲罷
기쁜 마음으로 순채와 농어 ³⁶⁹ 삶고 초(楚) 땅 대나무로 불 때는 것 ³⁷⁰	欣煮蓴鱸楚竹然
【위는 강촌의 저물녘 연기다.】	【右江村暮烟】

369 순채와 농어 : 진(晉)나라 문인 장한(張翰)이 일찍이 낙양(洛陽)에 들어가 동조 연(東曹掾)으로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가을바람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는 자기 고향인 강동(江東) 오중(吳中)의 순채국과 농어회(蓴鱸)를 생각하면서 “인생은 자기 뜻에 맞게 사는 것이 귀중하거늘, 어찌 수천 리 타관에서 벼슬하여 명작(名爵)을 구할 수 있겠는가.” 하고, 마침내 수레를 명하여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고사가 전한다. 《晉書 卷92 張翰列傳》

370 초(楚)……것을 : 당나라 유종원(柳宗元)의 <어옹(魚翁) 사에, “어옹이 밤에 서암 곁에 묵더니, 새벽에 맑은 상수를 길고 초 땅 대나무로 불을 때누나[魚翁夜傍西巖宿 曉汲清湘燃楚竹]”라 하였다.

초가에 사는 사람 한가하여 세상에 대한 생각 끊었으니 草屋人間斷世思
 창의 발엔 바람 고요하고 해 저무는 것 더디네 窓簾風靜日西遲
 밭 갈기에 알맞은 봄비³⁷¹ 앞 들 너머에 내리니 一犁春雨前郊外
 수많은 풀과 꽃 각기 기이한 모습 뵈내네 萬草千花各逞奇
 【위는 앞 들의 봄 흥취다.】 【右前郊春興】

돌벼랑 서쪽 두둑의 작은 헌(軒) 동쪽 石崖西畔小軒東
 연기와 노을 가득히 차지하여 그대 곤궁하지 않네 飽占烟霞子不窮
 한밤중에 들려오는 두견새 울음소리 夜半一聲啼杜宇
 묵묵히 깊이 살펴 나의 몸을 성찰하네 默然深省吾躬
 【위는 동원(東園)에서 들려오는 두견새 소리다.】 【右東園聽鶉】

작은 정원의 향기로운 풀 시절이 청명하니 小園芳草節清明
 갠 뒤의 고운 바람 재주 좋은 피꼬리에 불어오네 霽後纖風送巧鬢
 지저귀며 교목으로 옮길 뜻을 처음으로 품으니³⁷² 聲裏始遷喬木意
 그윽한 생각 지닌 사람을 놀래키는 것 견디지 못해서라네不堪幽思令人驚
 【위는 남쪽 길에서 들려오는 피꼬리 소리다.】 【右南陌聞鶯】

열은 구름 한 덩이 바람 끌고 돌아가 纖雲一帶引風回
 높이 솟아 있는 나환(螺鬢)³⁷³ 같은 산을 멀리 칠하였네 遠抹螺鬢立蒼嵬
 그 가운데 한 쌍 천고(千古)의 학 있어 中有一雙千古鶴
 대붕(大鵬) 나는 하늘³⁷⁴ 너머에서 홀로 배회하네 大鵬天外獨徘徊

371 발……봄비 : 원문은 ‘일리춘우(一犁春雨)’인데, 문맥을 살펴 ‘리(梨)’를 ‘리(犁)’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372 지저귀며……품으니 : ‘교목(喬木)으로 옮길 뜻’이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옮겨가려는 생각을 말한다. 《시경》〈소아(小雅)·벌목(伐木)〉에, “쟁쟁 울리며 나무를 베거늘, 피팔피팔 피꼬리는 울도다. 그윽한 골짜기에서 나와, 높은 나무로 올라가도다.[伐木丁丁 鳥鳴嚶嚶 出自幽谷 遷于喬木]”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373 나환(螺鬢) : 소라 껍질과 쪽진 머리라는 뜻으로, 산들이 둥글둥글 겹쳐 있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374 대붕(大鵬) 나는 하늘 : 봉새가 날아다니는 넓은 하늘을 의미한다. 《장자》〈소요유(逍遙

【위는 학령(鶴嶺)의 돌아가는 구름이다.】

【右鶴嶺歸雲】

반벽(半壁)의 하늘 남쪽에 푸른 바다 드넓으니
구름 돌아가는 봉우리 아래 작은 책상 놓여 있네
바위 벼랑에 해 저물어 바람 가늘게 일어나니
은거하는 이 불려 일으켜 마름 바지 만들도록 하네³⁷⁵
【위는 구봉(龜峯)의 저녁 바람이다.】

半壁天南碧海長
入雲峯下小書床
巖崖日晩風微起
吹惹幽人製芰裳
【右龜峯晩風】

遊)에, “북쪽 바다에 물고기가 있으니, 그 이름은 곤이다. 곤의 크기는 몇 천 리인지 모른다. 변화하여 새가 되니, 그 이름은 봉이다. 봉의 등쪽은 몇 천 리인지 모른다.……봉새가 남쪽 바다로 옮겨 갈 때에는 물결을 치는 것이 삼천 리요, 회오리바람을 타고 구만 리를 올라가 여섯 달을 가서야 산다.[北冥有魚 其名爲鯢 鯢之大 不知其幾千里也 化而爲鳥 其名爲鵬 鵬之背 不知其幾千里也……鵬之徙於南冥也 水擊三千里 搏扶搖而上者九萬里 去以六月息者也]”라 하였다.

375 마름……하네 : ‘마름 바지’는 은거하는 이의 옷을 가리킨다. 《초사(楚辭)》〈이소(離騷)〉에, “마름과 연잎으로 저고리 만들어 입고, 부용을 엮어 바지 만들어 입는다.[製芰荷以爲衣兮 集芙蓉以爲裳]”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명옥헌(鳴玉軒)에 제하다

【헌의 주인은 상사(上舍) 오이정(吳以井)³⁷⁶이다.】

題鳴玉軒【軒主卽吳上舍以井】

바위 부딪히는 샘의 현(絃) 옥 구르듯 울리니
 현을 울리며 흘러 앞 기둥을 휘감네
 이 사이에서 한가로움 속의 정취 어떻게 얻었는가
 활수(活水)의 근원 맑기 그지없네³⁷⁷
 【위는 샘이다.】

觸石泉絃戛玉鳴
 鳴絃泱泱繞前楹
 這間那得閒中趣
 活水原頭淡淡清
 【右泉】

원운(原韻)을 붙임

附原韻

섬돌 따라 졸졸 흐르는 작은 시내 소리
 몇집 쓸쓸하고 대나무가 기둥 이루었네
 푸른 나무 그늘진 뜰엔 이끼 늙었으니
 네모난 못 위아래 더없이 맑다네

循除泱泱小溪鳴
 茅屋蕭然竹作楹
 綠樹蔭庭苔蘚老
 方塘上下十分清

376 오이정(吳以井) : 1619~1655. 본관은 나주(羅州), 자는 명중(明仲), 호는 장계(藏溪)다. 1639년 사마양과(司馬兩科)에 합격하고 1651년 정시(庭試)에 응하였으나, 자급(資級)이 없다는 이유로 낙방하자 고향으로 돌아가 학문에 전념하였다. 저서로 《장계유고(藏溪遺稿)》가 있다.

377 이 사이에서……그지없네 : ‘활수(活水)’는 근원이 있어 항상 흐르는 물을 말한다. 이 대목은 주희(朱熹)의 시 <관서유감(觀書有感)>에, “조그맣고 모난 연못에 한 거울이 열리어, 하늘빛 구름 그림자가 함께 배회하네. 묻거니 어이하여 것처럼 맑은가. 근원에서 활수가 솟아 나오기 때문이라네.[半畝方塘一鑑開 天光雲影共徘徊 問渠那得清如許 爲有源頭活水來]”라 한 부분을 끌어온 것이다.

두 번째

其二

바람 잔잔히 불어오는 네모난 못에 거울 같은 수면 펼쳐지니	風細方塘鏡面開
아침에 산 그림자 고요하게 솟아 있네	朝來山影靜崑崑
한결같은 생동의 뜻 어떠한가	一般生意知何許
이슬이 바위 가를 적셔 푸른 이끼 자라네	露潤巖邊長碧苔
[위는 아침이다.]	【右朝】

원운을 붙임

附原韻

골짜기 가득한 구름 노을 늦게야 열리니	滿壑雲霞晚始開
어지러운 산 집을 마주하여 푸르고도 높네	亂山當戶碧崔嵬
은거하는 이 식사 마치고 한가하여 아무 일 없으니	幽人食罷閒無事
시냇가로 걸어가 푸른 이끼 위에 앉아보네	步到溪邊坐綠苔

세 번째

其三

산창(山窓) 저녁에 열자 좋은 바람 불어오니
 바위 수척한 곳엔 솔과 대나무요 들엔 늙은 이끼라네
 만물 생동하여³⁷⁸ 모두 자득하였으니
 물은 흐름 급해지자 부서지며 옥을 이루네³⁷⁹
 【위는 낮이다.】

山窓晚闢好風來
 巖瘦松筠石老苔
 萬物流形皆自得
 水因流急碎成瑰
 【右晝】

원운을 붙임

附原韻

산 속 사립문 날 저물어 찾아오는 이 적으니
 오래된 오솔길 그윽하고 깊어 푸른 이끼 자랐네
 작은 폭포 졸졸 바위 아래로 떨어지니
 날리는 물방울 옥구슬처럼 흩어지는 모습 고요히 바라보네

山扉日晚少人來
 古徑幽深長綠苔
 小瀑淙淙巖下落
 靜看飛沫散瓊瑰

378 만물 생동하여 : 원문은 ‘만물유형(萬物流形)’이다. 만물이 각기 자기의 모습을 갖추고 활동한다는 뜻이다. 《주역》〈간괘(乾卦) 단사(象辭)〉에 “구름이 행하고 비가 내리자 만물이 각기 자기 모습을 갖추고 활동하기 시작한다.[雲行雨施 品物流形]”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379 물은……이루네 : 급한 물살로 인해 튀는 물방울의 모습을 옥에 비유한 것이다.

네 번째

其四

구름 흩어진 푸른 숲에 석양빛 비치니
 날아 돌아가는 산새 저마다 의지할 곳 아네
 은거하는 이 시내 아래를 따라 홀로 거니니
 골짜기 가득한 바람과 노을 초의(草衣)를 적시네
 [위는 저녁이다.]

雲罷靑林暎落暉
 飛歸山鳥各知依
 幽人獨步循溪下
 滿壑風霞沾草衣
 【右暮】

원운을 붙임

附原韻

아득한 들판에 석양빛 맑으니
 강촌의 시골 가게 모두 어슴푸레하네
 즐거이 바라보다 어느덧 황혼에 이르니
 뜨락 나무에 그늘 생겨 이슬이 옷을 적시네

漠漠平郊淡夕暉
 江村野店共依依
 耽看直到黃昏後
 庭樹生陰露滴衣

다섯 번째

其五

안개와 놀 뼈에 스며들고 밤은 맑고도 차니	烟霞襲骨夜清冷
달빛 아래 거니는 시냇가 오솔길 풀 푸르네	步月溪邊徑草青
이 속이 자연히 참된 경계가 되니	箇裏自然眞境界
안배(安排)하는 것이 마음 불러 깨우는데 무슨 소용이라 ³⁸⁰	安排何用喚心惺
[위는 밤이다.]	【右夜】

원운을 붙임

附原韻

찬 시내에 달 비치고 물은 차가우니	寒溪月照水冷冷
두견새 우는 소리에 산 더욱 푸르네	杜宇一聲山更青
한가히 옥 거문고 연주하며 말없이 앉았으니	閒弄玉琴無語坐
이 마음 텅 비고 고요하여 절로 맑게 깨어 있네 ³⁸¹	此心虛靜自惺惺

380 안배(安排)하는……소용이라 : ‘안배(安排)’는 인위적인 힘으로 적당하게 배치 또는 배분하는 것이다. 《주자어류(朱子語類)》 권64 <중용(中庸) 3 제25장>에, “성(誠)은 자연히 성취하는 도리지, 사람이 작위(作爲)하고 안배하는 것이 아니다.[誠者 是箇自然成就底道理 不是人去做作安排底物事]”라 한 대목이 보인다. 또 ‘마음을 불러 깨운다’라는 구절에 대해서는, 《심경부주(心經附註)》 <경이직내장(敬以直內章)>에, 사양좌(謝良佐)가 “경은 항상 성성하는 법이다.[敬是常惺惺法]”라고 한 데 대해, 주희(朱熹)가 “서암의 중은 매일 항상 스스로 ‘주인옹은 성성한가?’ 라고 묻고는 ‘성성하다.’라고 스스로 대답하곤 했다.[瑞巖僧 每日間常自問主人翁惺惺否 自答曰惺惺]”라 한 대목이 보인다. ‘성성’은 마음이 항상 맑게 깨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381 맑게 깨어 있네 : 원문은 ‘성성(惺惺)’이다.

여섯 번째

其六

도(道)를 체행하여 마음을 비운 그대를 홀로 흠모하고³⁸² 體道空心子獨欽
 꽃 중의 은자(隱者) 나와 흥금을 같이 하네³⁸³ 花中隱逸我同襟
 활짝 핀 꽃의 홍진(紅塵)의 거리 향하지 말라 繁華莫向紅塵陌
 복사꽃 오얏꽃 핀 시냇가에 한 줄기 길이 뚜렷하네³⁸⁴ 桃李溪邊一路深
 [위는 국화와 대나무를 심은 것이다.] [右種菊竹]

원운을 붙임

附原韻

국화 아우의 향기는 내가 흠모하는 것이요 菊弟馨香我所欽
 차군(此君)³⁸⁵의 풍미는 더욱 흥금을 같이 하는 것이네 此君風味更同襟
 지금 풍상(風霜)의 약속³⁸⁶을 함께 맺으니 如今共作風霜契
 세모(歲暮)에 의(義)에 깊이 의탁하기를 서로 기약하네 歲暮相期託義深

382 도(道)를……흠모하고 : 대나무에 대해 읊은 구절이다. 대나무는 속이 텅 비어 있으므로 ‘도(道)를 체행하여 마음을 비웠다’고 표현하였다.

383 꽃……하네 : 국화에 대해 읊은 구절이다. ‘꽃 중의 은자(隱者)’는 국화를 은자에 비유한 것으로, 주돈이(周敦頤)의 <애련설(愛蓮說)>에, “내 생각에 국화는 꽃 중의 은자이고, 모란은 꽃 중의 부귀한 자이며, 연꽃은 꽃 중의 군자이다.[予謂菊花之隱逸者也 牡丹花之富貴者也 蓮花之君子者也]”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384 활짝……뚜렷하네 : ‘길이 뚜렷하다’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서 길이 깊이 패었다는 뜻이다. 다른 사람들은 복사꽃과 오얏꽃 같이 화려한 꽃을 좋아하지만 자신은 국화와 대나무를 즐길 것이라는 의미인 듯하다.

385 차군(此君) : 대나무의 별칭이다. 동진(東晉)의 왕휘지(王徽之)가 남의 빈집에 기거하는 동안에도 대나무를 빨리 심으라고 다그치자 사람들이 그 이유를 물으니, “어찌 하루라도 차군이 없이 지낼 수 있겠는가.[何可一日無此君邪?]”라고 대답한 데서 유래하였다. 《晉書 卷80 王徽之列傳》

386 풍상(風霜)의 약속 : 국화·대나무와 함께 바람과 서리에도 지조를 변치말자는 약속을 맺은 것이다. 국화는 늦가을이나 겨울에 피며, 대나무는 추운 겨울에도 시들지 않으므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일곱 번째

其七

푸른 줄기 반묘(半畝) 연못에 곧게 뻗어 있으니
 새잎이 새로이 자라나는 모습 날마다 바라보네
 상쾌한 바람 불어오는 곳에 꽃이 처음 피어나니
 단 이슬 떨어질 제 기이한 향 토해내네
 【위는 군자당(君子塘)이다.】

翠幹亭亭半畝塘
 日看新葉展新長
 光風來處花初綻
 甘露零時吐異香
 【右君子塘】

원운을 붙임

附原韻

작은 여울 졸졸 흘러 연못으로 가늘게 들어오니
 연꽃 싹 물 위로 솟아 점점 자라나네
 밝은 달 뜨고 상쾌한 바람 부는 저녁 언제인가
 홀로 한가한 뜰에 서서 아득한 향기 맡네

小澗潺潺細入塘
 蓮芽透水漸看長
 何時霽月光風夕
 獨立閒庭聞遠香

여덟 번째

其八

푸른 봉우리 맑게 갠 가을 하늘에 높이 솟아 있으니
 아래에는 찬 시내 있어 밤낮으로 흐르네
 합쳐지고 응결되던 초년의 진실된 일은
 말하고자 해도 혀끝으로는 말할 수 없네
 [위는 포석봉(匏石峯)이다.]

碧峯高擧霽天秋
 下有寒川日夜流
 融結初年眞實事
 欲談無語舌尖頭
 【右匏石峯】

원운을 붙임

附原韻

웅장하게 서린 채 우뚝 솟아 울창하고 가득하니³⁸⁷
 기세가 상서로운 돌에 아득히 나뉘어 흐르네
 더욱 사랑스러운 것은 밤 깊고 산비 그칠 제
 매화 즐기³⁸⁸ 가장 높은 봉우리에 곧게 올라 있는 것이라네

雄蟠特峙鬱磅礪
 氣勢遠分瑞石流
 更愛夜深山雨歇
 冰幹直上最高頭

387 가득하니 : 원문은 ‘방전(磅礪)’인데, ‘방박(磅礪)’의 잘못으로 보인다. ‘방박’은 기세가 성대한 모습이다.

388 매화 즐기 : 원문은 ‘빙간(氷幹)’이다. 매화는 희고 아름다운 자태로 인해 ‘빙설(氷雪)’에 흔히 비유된다. 《장자》〈소요유(逍遙遊)〉에, “막고야산에 신인이 사는데, 살결이 빙설과 같다.[藐姑射之山 有神人居焉 肌膚若氷雪]”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아홉 번째

其九

가랑비 부슬부슬 맑고도 짙으니
 작은 시내 급히 흘러 옥이 서로 부딪히네³⁸⁹
 가장 사랑스러운 것은 날 갠 뒤 석양 너머에
 선명한 만 개의 푸른 봉우리 드러나는 것이라네
 【위는 석양에 내리는 가랑비이다.】

零雨絲絲淡若濃
 小溪流急玉相舂
 最憐霽後斜陽外
 露出分明綠萬峯
 【右夕陽踈雨】

원운을 붙임

附原韻

가랑비 하늘 가득 내려 가늘게 자욱하니
 석양 비치자 자색 빛으로 부서지네
 잠깐 사이에 일어났다 사라져 일정한 곳 없으니
 강교(江郊)를 뒤덮었다가 다시 먼 봉우리에 내리네

踈雨漫空細濛濃
 斜陽輝映紫光舂
 須與起滅無方所
 來揜江郊更遠峯

389 작은……부딪히네 : 급한 물살로 인해 튀는 물방울의 모습을 옥에 비유한 것이다.

열 번째

其十

천 굽이 높고 낮아 옥을 깎은 듯 뾰족하니	千曲高低尖削玉
비 내린 뒤의 구름 막 흩어져 겹겹의 산 아득하네	霽雲初罷遠嶙峋
조화옹(造化翁)의 무한한 마음 누가 알겠는가	誰知造化心無限
잠깐 사이에 안개와 노을 만 가지 모습으로 새로워지네	頃刻烟霞萬態新
【위는 용구산(龍龜山)390의 비 갠 뒤 풍경이다.】	【右龍龜霽景】

원운을 붙임

附原韻

천 점의 산봉우리 ³⁹¹ 아득히 흩어져 있으니	千點螺鬟散縹緲
맑게 갠 하늘에 푸른 산 빼어나게 솟았네	晴空秀出碧嶙峋
구름 노을 아침저녁으로 기이한 모습 다양하니	雲霞朝暮多奇態
푸른 빛 비 내린 뒤에 새로워짐이 더욱 사랑스럽네	更愛青光雨後新

390 용구산(龍龜山) :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과 월산면에 걸쳐 있는 산이다. 산세가 병풍을 두른 것처럼 생겼다고 하여 병풍산이라고도 부른다.

391 산봉우리 : 원문은 '나환(螺鬟)'이다. 소라 껍질과 쪽진 머리라는 뜻으로, 산들이 둥글둥글 겹쳐 있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열한 번째

其十一

한 조각 남은 구름 들 너머에 모여 있으니
가없는 저녁 하늘에 학이 날아 돌아오네
맑은 시내 깨끗하여 밝은 모래 희게 빛나니
백 번 누인 맑은 빛 십 리까지 환하네
【위는 긴 물가의 아득한 정경이다.】

一抹殘雲野外堆
暮天無際鶴飛回
晴川歷歷明沙白
百練澄光十里開
【右長洲遠望】

원운을 붙임

附原韻

십 리까지 비치는 맑은 모래 흰 눈처럼 쌓여 있으니
맑은 시내 한 줄기 시야에 들어오네
누가 푸른 산의 골짜기를 깎아다
은거하는 이에게 실어 주어 눈을 환히 트이도록 하였나

十里明沙白雪堆
晴川一帶望中回
誰能剗却青山谷
輸與幽人眼豁開

열두 번째

其十二

맑고 맑은 찬 못 거울처럼 맑으니
 금색 물결의 맑은 그림자 푸른 빛 층층이 생겨나네
 이 속에서 끝없는 뜻 옮겨 얻었으니
 태을(太乙)³⁹²이 중천에 뜬 깊은 밤이네
 [위는 물과 달의 기이한 경관이다.]

湛湛寒淵一鑑明
 金波清影碧層生
 這間輸得無邊意
 太乙中天夜午更
 【右水月奇景】

원운을 붙임

附原韻

찬 시내에 일렁이는 달 텅 비고 밝은 모습 즐기니
 대나무집 영롱하고 찬 그림자 생겨나네
 상쾌한 기운 피부에 스며들어 맑은 정신에 잠들지 못하니
 초연한 모습으로 깊은 밤까지 단정히 앉아 있네

寒溪漾月弄虛明
 竹屋玲瓏冷影生
 爽氣襲肌清不寐
 翛然端坐到深更

392 태을(太乙) : ‘태일(太一)’이라고도 한다. 원래는 북극성 주위에 있는 별 이름인데, 북극성과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흔히 북극성을 이르는 말로 쓰인다.

남 교리(南校理)에게 답례로 주다

【당시 남구만(南九萬)³⁹³ 공이 암행어사(暗行御史)로서 찾아왔기 때문이라고 한다.】

謝贈南校理【時南公九萬以暗行御史來訪故云.】

한낮에 쭉대 우거진 집 단아걸고서 바깥사람 끊으니	晝掩蓬蒿斷外人
뜰 가득한 푸른 풀에 절로 봄기운 생겨나네	滿庭青草自生春
누가 알았으리오 총마(驄馬) ³⁹⁴ 가 하늘의 손님 따라	誰知驄馬從天客
찾아와 은거하는 백성의 안부를 다정하게 물어줄 줄	爲訪慇懃問逸民

윤 사군(尹使君)³⁹⁵【종지(宗之)】가 부쳐온 시에 차운하다

酬尹使君【宗之】寄詩韻

언덕가의 서리 맞은 대나무 골짜기에 자란 난초	岸邊霜竹谷中蘭
집 두른 푸른 소나무 세한(歲寒)에 늙었구나 ³⁹⁶	繞屋青松老歲寒

393 남구만(南九萬) : 1629~1711. 본관은 의령(宜寧), 자는 운로(雲路), 호는 약천(藥泉)이다. 1656년 과거에 급제하여 교리, 대사성, 함경도 관찰사, 형조 판서 등을 거치고 삼정승을 역임하였다. 남구만은 1659년 4월 호남 암행어사(湖南暗行御史)로서 호남 지역을 순행하였다. 《孝宗實錄 10年 4月 18日》《韓國文集叢刊解題 4 藥泉集》

394 총마(驄馬) : 대간(臺諫)의 관직에 있는 자가 타는 말을 가리킨다. 후한(後漢) 때 환전(桓典)이 시어사(侍御史)에 제수되어 당시 권세를 휘두르던 환관(宦官)들을 조금도 꺼리지 않았는데, 항상 총마를 타고 다녔으므로 경사(京師)에서는 그를 두려워하며 말하기를 “길을 가다가도 멈추어 총마를 탄 어사를 피하라.[行行且止 避驄馬御史]”라고 한 고사가 있다. 《後漢書 卷37 桓典列傳》

395 윤 사군(尹使君) : 윤종지(尹宗之, 1597~?)를 가리킨다. 본관은 해평(海平), 자는 임종(林宗), 호는 백봉(白籬), 자호(自號)는 송월정(松月亭)·소수주인(小睡主人)이다. 1618년 사마시에 합격하였으나 대과(大科)에는 급제하지 못하였다. 호란 때 난리를 만나 영남으로 피신, 유리(流離)생활을 하다가 효종 즉위년에 다시 음직(蔭職)에 발탁되어 남평 현감(南平縣監), 곡산 군수(谷山郡守), 대구 부사(大邱府使) 등을 역임하였다.

396 푸른……늙었구나 : 소나무는 추운 겨울에도 시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논어》〈자한(子罕)〉에, “날씨가 추운 뒤에야 송백이 뒤늦게 시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歲寒然後知松柏之後凋也]”라 한 대서 유래하였다.

세 달 동안 문 닫고 지내느라 찾아오는 이³⁹⁷ 없었는데 三月閉門無剝啄
 소부(召父)³⁹⁸가 보내준 평안하다는 소식 기쁜 마음으로 듣네 喜聞召父報平安

성석전(成石田)³⁹⁹【로(輅)】의 〈수후(睡後)〉 시에 차운하다

次成石田【輅】睡後韻

본성을 기르고 정신을 수양하여 도기(道氣)가 짙으니	養性頤神道氣濃
텅 빈 작은 집에서 배개에 기대 한가로이 잠드네	閒眠倚枕小堂空
이곳에서 잠자는 맛 어느 누가 알리오	此間睡味人誰識
뜨락 나무에 새 울고 저녁 바람 불어오네	庭樹鳥啼來晚風

영평(永平)의 제생(諸生)에게 부쳐 주다

【김진화(金振華)⁴⁰⁰ 등이다.】

寄贈永平諸生【卽金振華等】

힘써 공부하기를 마치 쇠를 단련하듯 해야 하니 刻苦工夫如鍊金

397 찾아오는 이 : 원문은 ‘박탁(剝啄)’이다. 손님이 찾아와 문을 두드리는 소리다. 당나라의 한 유(韓愈)의 〈박탁행(剝啄行)〉에, “광광 대문을 두드리니, 손님이 문에 이르렀네.[剝剝啄啄有客至門]”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398 소부(召父) : 윤종지(尹宗之)를 소부에 비긴 것이다. 소부는 한(漢)나라 때 사람 소신신(召信臣)을 말하는데, 남양 태수(南陽太守)로 있을 때 선정을 베풀어서 백성으로부터 ‘소부(召父)’라 불렸다. 《漢書 召信臣傳》

399 성석전(成石田) : 성로(成輅, 1550~1615)를 가리킨다. 본관은 창녕(昌寧), 자는 중임(重任), 호는 석전(石田)·삼일당(三一堂)이다. 1570년 진사시에 합격한 뒤 성균관에서 공부하였다. 뒤에 사옹원(司饗院)과 제릉(齊陵)의 참봉에 제수되었으나 모두 부임하지 않았다. 스승 정철(鄭澈)의 잦은 유배를 본 그는 벼슬을 싫어하였고, 또 동문인 권필(權鵬)의 죽음을 보고서 더욱 세상과는 인연을 끊었으며, 지은 시고(詩藁)마저 모두 태워버렸다고 한다.

400 김진화(金振華) : 1641~1730. 본관은 수안(遂安), 자는 자수(子粹)다.

공이를 갈아 바늘을 만들 수 있을 줄 누가 알겠는가 ⁴⁰¹	誰知磨杵可成鍼
때때로 서쪽 향해 맑은 강 위에 뜬 달 바라보니	有時西望晴江月
이는 바로 서로 그리워하는 한 조각 마음이라네	便是相思一片心

송석정(松石亭) 양군(梁君)⁴⁰²의 시에 차운하다

次松石亭梁君韻

전날 밤 내린 가랑비에 봄물 불어나니	微雨前宵春水生
계곡의 난초와 물가의 지초 모두 새로운 마음이네	谷蘭汀芷摠新情
복건(幅巾)에 홀옷 입고 못가를 지나니	幅巾單袂潭邊過
맑은 수원(水源)으로 찾아가 밝은 달에 이르렀네	行趁清源到月明

두 번째

其二

비 내린 뒤의 맑은 강 푸른 물결 참으로 잔잔하니	雨後澄江綠正漪
온 하늘의 풍광과 경물 그림 속의 시로다	一天風物畫中詩
이곳의 무한한 참된 소식은	此間無限眞消息
버드나무 자란 물가에 달 뜰 때라네	楊柳汀邊月上時

401 공이를……알겠는가 : 다시 뜻을 가다듬고 공부에 매진하는 것을 말한다. 이백(李白)이 소싯 적에 독서하다가 그만두고 여산(廬山)을 내려올 적에 길에서 노파가 공이를 갈고 있으므로 그 이유를 물어보니 바늘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하였는데, 이백이 이 대답을 듣고는 반성하며 다시 돌아가 열심히 공부했다는 마저성침(磨杵成針)의 고사가 전한다. 《蜀中廣記 卷12》

402 송석정(松石亭) 양군(梁君) : 양우전(梁禹甸, 1595~1672)을 가리킨다. 본관은 제주(濟州), 자는 전지(甸之), 호는 오봉(鰲峰)이다. 전라도 화순 출신. 1623년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였으나, 병자호란 이후 과거 공부를 그만두고 송석정(松石亭)에 은거하며 학문에 정진하였다.

강가 정자에서 주인의 시에 차운하여 남겨 주고 이별하다

江亭次主人韻留別

솔개 날고 물고기 뛰어 오르는 ⁴⁰³ 큰 강의 물가	鳶飛魚躍大江湄
조화옹(造化翁)의 참다운 기틀 쉽게 엿볼 수 없네	造化眞機未易窺
3일 동안 깊이 읊조리느라 한 마디 말도 없었으니	三日沉吟無一語
이별할 때에 훗날 기약하는 것 잊어버렸네	別時忘却後來期

강가의 제로(諸老)에게 장난삼아 주다

戲贈江上諸老

말하노니 강가 모래의 갈매기야	爲言江上一沙鷗
옥 구르는 맑은 소리 푸른 물가에 울리는구나	戛玉清音響碧洲
알려주노니 난초 핀 물가의 두 마리 흰 학아	幸報蘭汀雙白鶴
이별 곡조에 바다와 산의 가을 아쉬워하지 말라	別調毋惜海山秋

김중원(金仲源)⁴⁰⁴에게 주다

贈金仲源

젊은 시절의 신교(神交) 마치 정밀한 쇠를 단련하듯 하니⁴⁰⁵ 小年神契鍊精金

403 솔개……오르는 : 천지간에 약동하는 만물의 실상을 비유한 말이다. 《중용장구(中庸章句)》 제12장에, “《시》에 이르기를 ‘솔개는 날아서 하늘에 이르고, 물고기는 못에서 뛰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천지의 도가 높은 하늘이나 낮은 못이나 모두 똑같이 행해지고 있음을 말한 것이다.[詩云鳶飛戾天 魚躍于淵 言其上下察也]”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404 김중원(金仲源) : 김오(金悟, 1617~?)를 가리킨다. 본관은 광산(光山), 자는 중원(仲源), 호는 칠매당(七梅堂)이다. 김집(金集)과 송준길(宋浚吉)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405 젊은……하니 : 젊은 시절에 돈독한 우정을 쌓았음을 말한다. 《주역》〈계사전 상(繫辭傳上)〉에, “두 사람이 마음을 함께하면 그 예리함이 쇠를 자를 만하고 마음을 함께한 말은 그

호남 바닷가에서 이별한 뒤 이미 너무 늙어버렸네	湖海相離老已深
이우당(二友堂) 앞에 자란 매화 위의 달	二友堂前梅上月
지금까지 벗의 마음을 나누어 비추네	至今分照故人心

옥수암(玉岫庵). 박연파(朴煙波)⁴⁰⁶의 시에 차운하여 높이 우리
르는 마음을 부치다.

【연파의 이름은 개(漑)로, 곧 사암(思庵)⁴⁰⁷의 형이다. 경술년(1670, 47세)】
玉岫庵. 次朴煙波韻, 以寓景仰之懷.【煙波名漑, 卽思庵之兄. 庚戌.】

강 따라 이어진 돌길 푸른 산 속으로 들어가니	緣江石逕入翠微
우뚝우뚝 층층이 선 바위 날아갈 듯 괴이하네	立立層巖恠欲飛
학이 서호(西湖) ⁴⁰⁸ 를 떠나 신선의 그림자 끊겼으니	鶴去西湖仙影斷
흰 구름만 흰 갈매기의 옷을 부질없이 적시네	白雲空濕白鷗衣

향기가 난초와 같다.【二人同心 其利斷金 同心之言 其臭如蘭】라 하였다.

- 406 박연파(朴煙波) : 박개(朴漑, 1511~1586)를 가리킨다. 본관은 충주(忠州), 자는 대균(大均), 호는 인파처사(煙波處士)다. 향시에 합격하고 명종 때 선공감주부·참봉·고산현감(高山縣監) 등을 지냈다. 선조 때 암행어사가 되었고, 김제 군수를 지냈다.
- 407 사암(思庵) : 박순(朴淳, 1523~1589)을 가리킨다. 사암(思庵)은 그의 호. 본관은 충주(忠州), 자는 화숙(和叔)이다. 1553년 과거에 급제하여 홍문관 응교, 이조참의, 대사헌, 예조판서, 우의정, 좌의정 등을 역임하였다. 문장에 뛰어나고 당시(唐詩)에 능하였다.
- 408 서호(西湖) : 송(宋)나라 때의 처사 임포(林逋)가 서호(西湖)의 고산(孤山)에 은거하였는데, 20년 동안 성시(城市)에 발을 들여놓지 않은 채 처자 없이 매화를 심고 학을 기르며 살았으니 당시 사람들이 매처학자(梅妻鶴子)라고 칭하였다. 《宋史 卷457 林逋列傳》

원운(原韻)을 붙임⁴⁰⁹

附原韻

작은 집 높이 매달려 자미성(紫微星) ⁴¹⁰ 과 가까우니	小屋高懸近紫微
달 옆의 스님 그림자 강 건너 날아왔네	月邊僧影渡江飛
서호(西湖)의 거사(居士) 찾아와 묵으니	西湖居士來相宿
동악(東岳)의 흰 구름 풀옷을 적시네	東岳白雲沾草衣

과거에 응시하기 위해 서울로 가는 종제【해영(海英)⁴¹¹】를 전송하며

送從弟【海英】應舉之京

남자의 행장은 예의 있고 마땅해야 하니	男子行裝禮與宜
한 터럭의 재주와 지혜는 기이한 것이 아니라네	一毫才智未爲奇
근래 들건대 서울에 유자(儒者)들 많다고 하니	近聞京洛多儒者
경서(經書) 가지고서 의문 나는 점 물어야 하리	須抱遺經問所疑

두 번째

其二

비 내려 좋은 가을 씻어낸 8월의 하늘	雨洗良秋八月天
맑은 구름 다 흠어지고 물은 마치 안개 깔린 듯	淡雲消盡水如烟

409 원운(原韻)을 붙임 : 김만영은 이 원운을 박개(朴漑)의 시라 하였으나, 실제로는 이후백(李後白, 1520~1578)의 문집 《청련집(靑蓮集)》에 <무제(無題)>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이후백의 시는 여기에 실린 원운과 비교해볼 때 3구의 '거(居)'가 '처(處)'로, '숙(宿)'이 '방(訪)'으로 되어 있을 뿐, 나머지 부분은 모두 동일하다.

410 자미성(紫微星) : 북두성(北斗星)의 북쪽에 있는 성좌(星座)로, 천제(天帝)가 거처하는 곳이라 전한다.

411 해영(海英) : 김해영(金海英)을 가리킨다. 자세한 사항은 미상이다.

아름다운 이 사람 필마 타고 화양(華陽)⁴¹²의 길에 오르니 佳君匹馬華陽路
 걸음이 삼청(三清)⁴¹³의 북쪽 변경 가에 가까워지네 行近三清紫塞邊

순정 상인(淳淨上人)의 시축에 제하다

題淳淨上人軸

눈처럼 흰 납의(衲衣) 산수 사이를 막 지나니 ⁴¹⁴	雪衲新歷山水間
시 주머니 함께 차고서 흰 구름처럼 돌아가네	詩囊兼帶白雲還
죽헌(竹軒)의 맑은 음률 속세의 생각 깨우치니	竹軒淸律開塵慮
이로부터 교외의 삶 꿈 또한 한가하리	從此郊居夢也閒

412 화양(華陽) : 양(梁)나라 도홍경(陶弘景)이 벼슬에 뜻을 두지 않고 숨어 살던 곳이다. 도홍경은 갈홍(葛洪)의 《신선전(神仙傳)》을 읽고 양생(養生)에 뜻을 두어 구곡산(句曲山)에 들어가 호를 화양진일(華陽真逸)이라 하였다.

413 삼청(三清) : 도교에서 말하는 천상 세계로, 삼동(三洞)의 교주(教主)가 사는 최고의 선경(仙境)인 옥청경(玉淸境), 상청경(上淸境), 태청경(太淸境)을 가리킨다. 여기서는 임금이 있는 도성을 천상 세계에 비유한 것이다.

414 지나니 : 원문은 ‘마(磨)’인데, 문맥을 살펴 ‘력(歷)’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산인(山人) 희현(熙絢)이 구고(九臯)의 양정재(養正齋)⁴¹⁵로 나를
찾아와 몹시 간절하게 시를 구하기에 부질없이 제하여 주다⁴¹⁶

山人熙絢訪余于九臯養正齋，求詩甚勤，慢題以贈。

스님이 백운산(白雲山) ⁴¹⁷ 위에서 돌아오니	僧自白雲山上歸
흰 구름도 석장(錫杖) 따라 교외 사립문에 이르렀네	白雲隨錫到郊扉
교외 사립문에 또한 무심한 늙은이 살고 있으니	郊扉亦有無心老
마음이 흰 구름과 함께 세상 시비(是非)를 잊었네	心與白雲忘是非

두 번째

其二

바닷가의 푸른 산 백운이라 불리니	海上靑山號白雲
백운산의 형승 내 일찍부터 들었노라	白雲形勝我曾聞
멀리서도 알겠네 눈처럼 흰 납의(衲衣) 입은 이 돌아가 읊조리는 곳은	遙知雪衲歸吟地
바위 모서리 구름과 이어지고 작은 길 나뉘어 있음을	石角連雲細路分

415 구고(九臯)의 양정재(養正齋) : 김만영은 태극(太極)과 팔괘(八卦)의 이름을 따 자신의 집 주변에 있는 아홉 언덕을 ‘구고(九臯)’라 명명하고, 그곳에 ‘양정재(養正齋)’라는 이름의 서실(書室)을 지었다. 이에 대해서는 《남포집(南圃集)》 권4 <구고음(九臯吟)>과 권10 <구고서재제생명적록서(九臯書齋諸生名籍錄序)> 참조.

416 산인(山人)……주다 : 허목(許穆, 1595~1682)의 문집 《기언(記言)》에 <증백운사승(贈白雲寺僧)>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는데, 내용이 이 시의 첫 번째 수(首)와 거의 유사하다. 해당 시는 다음과 같다. “스님이 백운산(白雲山) 위에서 돌아오니, 흰 구름도 석장 따라 교외 사립문에 이르렀네. 교외 사립문에 또한 무심한 늙은이 살고 있으니, 몸이 흰 구름과 함께 세상 시비를 잊었네. [僧自白雲山上歸 白雲隨錫來郊扉 郊扉亦有無心老 身與白雲無是非]”

417 백운산(白雲山) : 전라남도 광양시 다압면(多鴨面)·옥룡면(玉龍面)·진상면의 경계에 있는 산이다.

정처직(鄭處直)【지(稽)】의 정사(精舍)에 부쳐 제하다

寄題鄭處直【稽】精舍

세 칸의 정사에 핀 몇 그루의 매화	三間精舍數株梅
빈 뜰 깨끗이 쓸어내 먼지도 일지 않네	淨帚空庭不起埃
문노니 주인이 일삼는 바는 무엇인가	爲問主人何所事
책상 위에 서책 올려 두고 좋은 회포 펼치는 것이라네	一床書史好懷開

두 번째

其二

전날 밤 온 뜨락의 매화 다 떨어지니	前宵落盡一庭梅
버들 취하고 꽃 어지러워 풍진을 점하였네	柳醉花迷占風埃
객 이르러도 굳이 한가한 말 나눌 필요 없으니	客到不須閒說話
가을 향해 핀 섬돌 국화를 바라볼 뿐이네	只看階菊向秋開

배생(裴生)【명석(命錫)】에게 주다

示裴生【命錫】

소반 위의 거친 밥 지극한 맛임을 알고	蔬糲盤中知至味
성현의 경전 위에 고량진미(膏粱珍味) 있도다	聖賢經上有珍膏
마음 밖에서 다른 도를 구하지 말라	莫須心外求他道
더없이 진귀한 명주는 높은 데 있지 않으니	無價明珠不在高

김생(金生)에게 부쳐 국화를 부탁하다

寄金生倩菊

가을 이미 저물어 날씨 쌀쌀하니	三秋已暮氣淒涼
들밖엔 들리는 소리 없고 은자의 향기뿐이네	野外無聞隱者香
동쪽 울타리에서 풍로(風露) 젖은 잎 따다 ⁴¹⁸	採得東籬風露葉
부쳐주어 병든 시상(柴桑) ⁴¹⁹ 위로해 주기를	寄來須慰病柴桑

용호 주인(龍湖主人)에게 부치다

寄龍湖主人

호숫가의 원정(園亭) 절기는 늦봄이니	湖上園亭節晚春
계곡의 꽃과 숲 속의 새 은거하는 이 부르네	澗花林鳥管幽人
멀리서 알겠네 홀로 술 따라 은근히 취한 뒤에	遙知獨酌微醺後
한가히 거문고와 술잔에 의지하는 흥 적지 않음을	閒倚琴樽興不貧

418 동쪽……따다 : 국화를 따는 것을 말한다. 도연명(陶淵明)의 시 <음주(飲酒)>에, “동쪽 울타리 아래에서 국화를 따다가, 유연히 남쪽 산을 바라보누나.[采菊東籬下 悠然見南山]”라 하였다. 《陶淵明集 卷3 飲酒》

419 시상(柴桑) : 도연명(陶淵明)을 가리킨다. 시상은 도연명이 만년에 돌아가서 은거한 고향의 이름이다.

신여퇴(愼汝賚)⁴²⁰【이름은 성필(聖弼)이고 호는 경암(敬庵)이다.】에게
화답하다

酬愼汝賚【聖弼號敬庵】

교외의 삶 적막한데 병이 뒤따르니	郊居寥落病相追
눈과 달의 자태를 지닌 정든 이와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네	久隔情人雪月姿
얼마나 다행인가 한 수 시를 가지고	何幸一聯詩上語
외로움 ⁴²¹ 떨치고서 누워 시 읊을 때가	却醒孤索臥吟時

두 번째

其二

황폐한 집에 찾아오는 수레 없어 적막함만 뒤따르니	荒居輪鞅寂隨追
쓰러져 가는 누추한 집에 병들어 누운 신세로다	蕞戶頽然臥病姿
옛 벗과 약속하였으나 만나기는 쉽지 않으니	有約故人逢未易
아름다운 국화 달 밝을 때가 가장 사랑스럽네	最憐佳菊月明時

원운(原韻)을 붙임

附原韻

형의 높은 의리는 아득하여 따르기 어려우니	惟兄高義邈難追
-------------------------	---------

420 신여퇴(愼汝賚) : 신성필(愼聖弼)을 가리킨다. 여퇴(汝賚)는 그의 자. 호는 경암(敬庵)이다. 감사를 지낸 신희남(愼喜男)의 5세손으로, 아버지는 성균관 생원 신광익(愼光翊), 형은 참봉 신성운(愼聖尹)이다.

421 외로움: 원문은 '고삭(孤索)'이다. 벗들과 떨어져 외로이 산다는 뜻의 '이군삭거(離群索居)'에서 유래한 말이다. 《예기》〈단궁 상(檀弓上)〉에, 자하(子夏)가 “내가 벗을 떠나 쓸쓸히 홀로 산 지가 오래이다.[吾離群而索居 亦已久矣]”라 하였다.

가을 물과 같은 정신 옥가루 같은 자태로다	秋水精神玉屑姿
병들어 폐인이 된 뒤로 문 닫고 지낸 지 오래이니	病廢由來門掩久
덕음(德音)을 직접 받들 날 언제일까	德音親奉在何時

광곡자(廣谷子)의 시에 차운하다

【광곡은 종제 해영(海英)이다. 경술년(1670, 47세)】

次廣谷子韻【廣谷，卽從弟海英也。庚戌】

쓸쓸한 뗏집 외딴 봉우리에 의지해 있으니	蕭然茅屋倚孤峯
언제나 장강(長江)과 상담(湘潭)에서 누운 용 ⁴²² 일으킬까	何日江湘起臥龍
어젯밤엔 벽력치고 비 내렸는데	霹靂一聲前夜雨
봉호(蓬戶) 애써 밀치고서 긴 대나무 지팡이 짚었네	強排蓬戶曳長筇

422 장강(長江)과……용 : ‘누운 용’의 원문은 ‘와룡(臥龍)’으로, 은거하고 있는 뛰어난 인재를 비유하는 말로 흔히 사용된다. 삼국 시대 촉한(蜀漢)의 승상 제갈량(諸葛亮)이 유비(劉備)의 삼고초려(三顧草廬)로 출사하기 전 남양(南陽) 용중(隆中)의 초가에서 은거하며 ‘와룡선생’으로 불린 데서 유래한 말이다. 그러나 ‘장강(長江)’ 및 ‘상담(湘潭)’과 관련된 용 고사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장강과 관련해서는 《한서(漢書)》〈무제기(武帝紀)〉에 한 무제(漢武帝)가 심양(潯陽)의 장강에 배를 띄우고서 교룡(蛟龍)을 쏘아 잡았다는 고사가 전한다. 또 상담은 초(楚)나라 굴원(屈原)이 무고를 당하여 쫓겨나 있던 곳이므로 유배되어 있는 이를 ‘상담의 와룡’에 비유하기도 한다. 예컨대, 남구만(南九萬)의 《약천집(藥泉集)》〈진이사소(陳二事疏) [시월십구일(十月十九日)]〉에, “내치고 올려 줌에 일정한 기준이 없고 화와 복에 일정한 문이 없어서 천한 사람들이 높고 귀한 지위를 가리켜 마치 여관방의 품팔이꾼처럼 여기고, 먼 지방 사람들이 변방으로 귀양 오는 자를 마치 깊은 못에 누워 있는 용처럼 여긴다.黜陟靡常 禍福無門 賤人指高位 有如逆旅之傭夫 避荒視流竄 皆若湘潭之臥龍”라 한 대목이 보인다.

이공(李公)【단상(端相)⁴²³】의 시에 차운하여 명(明)나라 사람
임인(林寅)⁴²⁴ 등에게 주다

次李公【端相】韻，贈大明人林寅等。

한(漢)나라의 의관 쓴 이 어느 곳에서 왔는가	大漢衣冠何處來
변방의 구름과 연(燕)나라의 풀 길을 누가 열었는가	塞雲燕草路誰開
목릉(穆陵) ⁴²⁵ 에 전날 밤 뜬 3경(更)의 달	穆陵前夜三更月
석로(石老) ⁴²⁶ 의 곁은 혼 눈물 삼키면서 맴도네	石老貞魂飲泣迴

423 단상(端相) : 이단상(李端相, 1628~1669)을 가리킨다. 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유능(幼能), 호는 정관재(靜觀齋)다. 1648년 과거에 급제하여 교리, 병조 정랑, 인천 부사 등을 역임하였다. 1664년 집사가 되어 입지관학(立志勸學)에 관한 다섯 조목을 상소하고 스스로 관직을 떠났다. 그의 문하에서 아들인 이희조(李喜朝)와 김창협(金昌協)·김창흠(金昌翕)·임영(林泳) 등의 학자가 배출되었다.

424 임인(林寅) : 임인관(林寅觀)으로 추정된다. 중국 복건성(福建省) 열서도(烈嶼島) 출신인 임인관, 진득 등 95명이 일본에 무역하러 갔다가 제주도 대정현(大靜縣)에 표류해 왔는데, “명(明)나라가 망한 갑신년(1764, 영조40) 이후로 바다에 나온 지 10년이 지났다. 이제 연해(沿海)가 평온하다 하므로 부모처자를 찾아 돌아가고자 한다.” 하였다. 그런데 조정에서 이들을 압송해 청(淸)나라 예부(禮部)로 보냄으로써 이들을 모두 처참하게 죽게 만들었다. 《顯宗實錄 8年 6月 21日, 10月 3日》

425 목릉(穆陵) : 선조(宣祖)와 그 비인 의인왕후(懿仁王后) 박씨(朴氏), 그리고 계비(繼妃)인 인목왕후(仁穆王后) 김씨(金氏)의 능이다.

426 석로(石老) : 김상헌(金尙憲, 1570~1652)을 가리키는 듯하다.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숙도(叔度), 호는 청음(淸陰)·석실산인(石室山人)이다. 병자호란(丙子胡亂)이 일어나자 예조 판서로서 주화론(主和論)을 배척하고 끝까지 주전론(主戰論)을 펴다가 인조(仁祖)가 항복하자 안동으로 은퇴하였다. 1639년 청나라가 명나라를 공격하기 위해 요구한 출병에 반대하는 소를 올렸다가 청나라에 압송되어 6년 후 풀려 귀국하였다. 1645년 특별히 좌의정에 제수되고, 기로사(耆老社)에 들어갔다.

윤 사군【종지⁴²⁷】이 천관산(天冠山)⁴²⁸을 노닐고서 엮은 시록
(詩錄) 뒤에 제하다

題尹使君【宗之】遊天冠山詩錄後

하늘 너머의 대붕(大鵬)⁴²⁹과 여섯 자라의 머리⁴³⁰ 大鵬天外六鰲頭
 당시 진 시황(秦始皇)은 배를 띄우지 못하였네⁴³¹ 當日秦皇未泛舟
 누가 알았으리오 남창(南昌)의 신선처럼 늙은 사군⁴³² 誰識南昌仙老伯
 죽여(竹輿)에 서둘러 올라 영주(瀛洲)⁴³³에 이를 줄을 竹輿催駕到瀛洲

427 종지 : 당시 남평 현감(南平縣監)으로 있던 윤종지(尹宗之, 1597~?)를 가리킨다. 본관은 해평(海平), 자는 임종(林宗), 호는 백봉(白篷), 자호(自號)는 송월정(松月亭) · 소수주인(小睡主人)이다. 1618년 사마시에 합격하였으나 대과(大科)에는 급제하지 못하였다. 호란 때 난리를 만나 영남으로 피신, 유리(流離)생활을 하다가 효종 즉위년에 다시 음직(蔭職)에 발탁되어 남평 현감, 곡산 군수(谷山郡守), 대구 부사(大邱府使) 등을 역임하였다.

428 천관산(天冠山) : 전라남도 장흥군 관산읍과 대덕읍의 경계에 위치한 산이다. 꼭대기의 바위 모습이 천자의 면류관(冕旒冠)과 같다 하여 천관산이라 불린다.

429 하늘 너머의 대붕(大鵬) : 높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봉새를 말한다. 《장자》〈소요유(逍遙遊)〉에, “북쪽 바다에 물고기가 있으니, 그 이름은 곤이다. 곤의 크기는 몇 천 리인지 모른다. 변화하여 새가 되니, 그 이름은 봉이다. 봉의 등짝은 몇 천 리인지 모른다. 기운차게 펼쳐 날아 오르면 그 날개가 마치 하늘에 드리운 구름과 같다. 이 새는 바다가 움직이면 남쪽 끝의 검푸른 바다로 날아가려고 한다. 남쪽 바다란 하늘의 못, 천지다.〔北冥有魚 其名爲鯤 鯨之大不知其幾千里也 化而爲鳥 其名爲鵬 鵬之背 不知其幾千里也 怒而飛 其翼若垂天之雲 是鳥也 海運則將徙於南冥 南冥者 天池也〕”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430 여섯 자라의 머리 : ‘여섯 자라’는 바닷속에서 삼신산(三神山)을 머리에 이고 있다는 전설상의 동물이다. 거인국인 용백국(龍伯國)의 어떤 사람이 한 번의 낚시로 이 자라 여섯 마리를 한꺼번에 낚았다고 한다. 《列子 湯問》

431 당시……못하였네 : 진 시황(秦始皇)이 바다를 건너서 해 돋는 곳을 보고자 하여 석교(石橋)를 놓으려 하였는데, 해신(海神)이 나타나서 다리 기둥을 세워 주었다. 진 시황이 이를 고맙게 여겨 만나 보려고 하니, 해신이 말하기를 “내 모습이 추하니, 내 모습을 그리지 않기로 약속한다면 만나겠다.”라 하였다. 이에 진 시황이 들어가 해신과 만났는데, 진 시황의 좌우 사람들이 몰래 해신의 발을 그렸다. 그러자 해신이 성을 내면서 빨리 나가라고 하였다. 진 시황이 말을 타고 곧장 나왔는데, 말 뒷다리가 석교에서 미처 떨어지기도 전에 석교가 무너졌다는 고사가 있다. 《藝文類聚 卷79》

432 남창(南昌)의……사군 : 윤종지(尹宗之)를 가리킨다. 한(漢)나라 때 매복(梅福)이 일찍이 남창위(南昌尉)로 있다가 왕망(王莽)이 정권을 잡자 벼슬을 버리고 구강(九江)에 가서 신선의 도를 얻었다고 한다. 《漢書 卷67 梅福傳》

433 영주(瀛洲) : 신선이 산다는 삼신산(三神山)의 하나인데, 여기서는 천관산을 가리킨다.

허 상국(許相國)⁴³⁴【적(積)]이 편지를 보낸다

許相國【積】送書

3월의 사립문 낮에도 열지 않으니	三月柴門晝不開
뜰에는 푸른 풀 돌아나고 오솔길에는 이끼 자랐네	庭生翠草徑生苔
인편이 상국께서 보낸 편지를 전해주니	人傳相國送書至
대나무 너머 석양에 산새 돌아가네	竹外斜陽山鳥迴

안렴 어사(按廉御史) 민공(閔公)⁴³⁵【정중(鼎重)]이 방문하였기에
절구 한 수를 쓰다

按廉御史閔公【鼎重】來訪，仍紀一絕。

뜰의 난초 막 자라나고 버들 누렇게 열리니	庭蘭初秀柳開黃
마을엔 사람 없고 험한 산길만 길게 나 있네	門巷無人鳥徑長
깊이 사례하네 사군(使君)이 역마를 돌려서	深謝使君回駟騎
궁벽한 시골에 병들어 있는 원헌(原憲) ⁴³⁶ 찾아와 준 것을	訪來原憲病窮鄉

434 허 상국(許相國) : 허적(許積, 1610~1680)을 가리킨다. 본관은 양천(陽川), 자는 여차(汝車), 호는 목재(默齋)·휴옹(休翁)이다. 1637년 과거에 급제하여 경상도 관찰사, 호조 판서, 형조 판서 등을 거쳐 삼정승을 역임하였다. 1680년 서자 허견(許堅)의 모역사건에 휘말려 사사(賜死)되었다. 숙종(肅宗) 때 관작이 추복되었다.

435 민공(閔公) : 민정중(閔鼎重, 1628~1692)을 가리킨다. 본관은 여흥(驪興), 자는 대수(大受), 호는 노봉(老峯)이다. 1649년 과거에 급제하여 사헌부 집의, 동래 부사, 병조 참의, 공조 판서, 한성 부윤 등을 역임하고 좌의정에 올랐다. 1689년 기사환국으로 남인이 집권하자 노론의 중진들과 함께 관직을 삭탈당하고 벽동(碧潼)에 유배되어 그곳에서 사망하였다.

436 궁벽한……원헌(原憲) : 공자(孔子)의 제자 원헌(原憲)이 노(魯)나라에서 몹시 곤궁하게 지낼 적에 자공(子貢)이 사마(駟馬)가 끄는 수레를 타고 원헌을 방문하여 말하기를 “아, 선생은 어찌하여 이렇게 병이 들었습니까?” 하자, 원헌이 대답하기를 “나는 듣건대, 재물이 없는 것을 가난이라 하고, 배워서 그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것을 병이라 한다 하니, 지금 나는 가난한 것이니, 병든 것이 아니라오.”라고 하였다. 《莊子 讓王》 곤궁하게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원헌에 빗댄 것이다.

퇴계 선생(退溪先生)⁴³⁷의 <도산서(陶山序)>⁴³⁸를 읽고서 나도
모르게 상쾌한 느낌이 들어 절구 한 수를 짓다

讀退溪先生陶山序，不覺爽然，因成一絕。

흰 돌과 맑은 시내 광풍제월(光風霽月)⁴³⁹의 사이에서 白石清溪光霽間
하늘이 부자로 하여금 참된 한가로움을 기르도록 하였네 天教夫子養眞間
백 년 전에 남긴 향기 여향(餘香)이 있으니 百年遺馥餘芬在
책 속의 정신 마치 얼굴을 빚는 듯하네 卷裏精神若對顏

성석전(成石田)⁴⁴⁰【로(輅)】의 <전가잡흥(田家雜興)>에 화운하다
和成石田【輅】田家雜興

비 내린 뒤 잔잔한 바람 낮잠을 깨우니 雨後微風起午眠
작은 상엔 쓸쓸하게 고시(古詩) 몇 편 남아 있네 小床寥落古詩篇
성근 울타리엔 해 길고 정원의 닭 울어대니 踈籬日永園鷄叫

437 퇴계 선생(退溪先生) : 이황(李滉, 1501~1570)을 가리킨다. 퇴계(退溪)는 그의 호. 본관은 진보(眞寶), 자는 경호(景浩)다. 1534년 과거에 급제하여 홍문관 수찬, 단양 군수(丹陽郡守), 풍기 군수(豊基郡守), 성균관 대사성 등을 역임하였다. 이후 벼슬에서 물러나 도산서당(陶山書堂)을 짓고서 학문에 전념하였으며, 많은 제자들을 훈도하였다.

438 도산서(陶山序) : 이황(李滉)이 지은 <도산십이곡발(陶山十二曲跋)>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그가 지은 연시조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에 대한 발문으로, 《퇴계집(退溪集)》 권 43에 수록되어 있다.

439 광풍제월(光風霽月) : 비가 온 뒤에 맑은 바람이 불고 달이 뜬 깨끗한 풍광을 뜻한다. 고결한 인품을 형용하는 말로도 사용된다. 황정건(黃庭堅)이 <염계시서(滌溪詩序)>에서 주돈이의 높은 인품과 탁 트인 흉금을 “흉금이 깨끗하기가 마치 맑은 바람에 갠 달과 같다.[胸中灑落如光風霽月]”라는 말로 묘사한 데서 유래하였다.

440 성석전(成石田) : 성로(成輅, 1550~1615)를 가리킨다. 본관은 창녕(昌寧), 자는 중임(重任), 호는 석전(石田)·삼일당(三一堂)이다. 1570년 진사시에 합격한 뒤 성균관에서 공부하였다. 뒤에 사용원(司饗院)과 계릉(齊陵)의 참봉에 제수되었으나 모두 부임하지 않았다. 스승 정철(鄭澈)의 잦은 유배를 본 그는 벼슬을 싫어하였고, 또 동문인 권필(權鵬)의 죽음을 보고서 더욱 세상과는 인연을 끊었으며, 지은 시고(詩藁)마저 모두 태워버렸다고 한다.

고생(高生)【부금(溥金)】의 시에 답하다

答高生【溥金】韻

일찍부터 난실(蘭室)에 올라 넉넉한 인품에 감화되었으니⁴⁴¹ 早升蘭室襲餘風
 명공(明公)께서 여몽(呂蒙) 알아주심에 깊이 감사하네⁴⁴² 深荷明公識呂蒙
 어느덧 10년 지나 지금 다시 옛날처럼 이별하니 俯仰十年今古別
 눈 갠 모래밭에서 이별의 한 끝이 없네 雪晴沙上恨難終

다시 고생(高生)에게 답하다

又答高生

충효(忠孝)를 집안에 전해오는 것 대대로의 가풍(家風)이니 忠孝傳家乃世風
 하늘이 낸 참된 성품 어릴 적부터 갖추었네 出天真性自顯蒙
 하얗게 썬 머리로 호남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나무하는 늙은이 白頭湖海漁樵老
 초심 마지막까지 지키지 못하였음이 부끄럽구나 堪愧初心舛厥終

441 일찍부터……감화되었으니 : ‘난실(蘭室)’은 곧 지란지실(芝蘭之室)로, 상대의 훌륭한 인품을 말한다. 《공자가어(孔子家語)》에 “선한 사람과 함께 지내면 마치 지란(芝蘭)의 방에 들어간 것과 같아 그 향기는 못 맡더라도 오래 지나면 동화된다.[與善人居 如入芝蘭之室 久而不聞其香 卽與之化矣]”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즉, 고부금(高溥金)과 오래도록 교류하면서 그의 인품에 감화되었다는 뜻이다.

442 명공(明公)께서……감사하네 : 삼국 시대 오(吳)나라 손권(孫權)이 그의 장수 여몽(呂蒙)이 무술에는 능하나 학문을 너무 소홀히 하는 것을 나무라자, 여몽은 이때부터 학문을 열심히 닦았다. 후에 노숙(魯肅)이 찾아가 전과 달라진 그의 늙은 식견에 놀라워하자, 여몽은 “선비가 사흘을 헤어져 있으면 눈을 비비고 서로 쳐다볼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하였다. 이 고사를 ‘괄목상대(刮目相對)’라 한다. 《三國志 卷9 吳書 呂蒙傳 注》

스님에게 주다

贈僧

참된 가경(佳境)을 찾는 일 병 때문에 할 수 없으니 고개 돌려 선산(仙山)이 몇 층이나 되는지 묻노라 청학동(靑鶴洞) ⁴⁴³ 하늘과 운수(雲水) ⁴⁴⁴ 의 땅 이 마음 돌아가는 스님에게 부질없이 부쳐주네	尋眞佳境病難能 回首仙山問幾層 靑鶴洞天雲水地 此心空付一歸僧
---	--

종형 문백(文伯)에게 부치다⁴⁴⁵

寄宗兄文伯

두견은 촉나라 눈물 머금고서 진나라 나무로 돌아가고 ⁴⁴⁶ 기러기는 연나라 구름 두르고서 초나라 하늘로 들어가네 농서(隴西)에는 다만 말할 줄 아는 새가 있지만 ⁴⁴⁷ 강남(江南)에 화려한 기운 먼저 오는 것이 유독 사랑스럽네 ⁴⁴⁸	鶻含蜀淚歸秦樹 鴈帶燕雲入楚天 隴西惟有能言鳥 獨愛江南暖氣先
--	--

443 청학동(靑鶴洞) : 지리산 속에 있다고 전해지는仙境(仙境)이다.

444 운수(雲水) : 깊고 아름다운 산천을 말한다. 한편으로는 중이나 도사가 사방을 떠돌아다니는 것이 마치 떠다니는 구름이나 흐르는 물과 같다고 하여, 이들을 비유하는 말로도 쓰인다.

445 종형 문백(文伯)에게 부치다 : ‘문백(文伯)’은 김한탁(金漢卓)을 말한다. 자세한 사항은 미상이다. 만년에 고월정(孤月亭)을 세워 당대의 제현(諸賢)들과 어울려 시주(詩酒)를 즐겼다는 이야기가 《남포집(南圃集)》 권6 〈억구유행기종형문백(憶舊遊行寄宗兄文伯)〉에 보인다.

446 두견은……돌아가고 : 전국 시대 촉(蜀)나라 망제(望帝) 두우(杜宇)가 재상 별령(別令)에게 제위를 선양하고 서산(西山)에 들어가 은거하다 죽었는데, 그의 넋이 두견(杜鵑)으로 화하여 봄철이면 언제나 밤낮으로 애절하게 피를 토하며 운다는 전설이 있다. 《華陽國志 卷3 蜀志》

447 농서(隴西)에는……있지만 : ‘말할 줄 아는 새’는 앵무새를 말한다. 《금경(禽經)》에, “앵무새는 농서 지방에서 나오는데, 말을 할 줄 아는 새이다.【鸚鵡出隴西 能言鳥也】”라 하였다.

448 강남(江南)에……사랑스럽네 : 이 구절은 봄기운과 함께 날아온 제비에 대해 읊은 것이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 종형 김한탁에게 따뜻한 봄이 찾아왔음을 말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정생(鄭生)의 시에 답하다

答鄭生韻

송죽(松竹)의 언덕 머리 옛 거리의 남쪽	松竹原頭古巷南
초려(草廬) 새로 짓고서 서까래 세 개 ⁴⁴⁹ 를 얹었네	草廬新築架椽三
부탁하노니 그대는 뜻이 있거든 다시 와서 완상하시게	煩君有意重來玩
대 아래 맑은 강 옥처럼 윤기 난다네	臺下澄江玉潤涵

여러 족형에게 주다

贈諸族兄

세상 밖 호산(湖山)에서 대나무 사립문 닫아거니	世外湖山掩竹扉
상 위의동이 술에 국화가 향을 머금었네	一床尊酒菊含醅
비록 가랑비가 두건과 띠를 적신다고 해도	縱然微雨沾巾帶
산음에서 눈이 옷에 가득 차는 것보다는 그래도 낫다네 ⁴⁵⁰	猶勝山陰雪滿衣

449 서까래 세 개 : 원문은 ‘삼연(三椽)’이다. 세 개의 서까래로, 작은 집을 가리킨다. 원래는 삼조 연하(三條椽下)라 하여 선승(禪僧)들의 좌선하는 자리를 가리키며, 아울러 매우 청빈한 생활을 뜻하기도 한다. 선승들이 좌선하는 자리의 면적이 천장의 서까래 세 개의 폭과 대체로 일치한다고 하여 붙여진 것이다.

450 산음(山陰)에서……낫다네 : 진(晉)나라의 왕휘지(王徽之)가 산음(山陰)에 살았는데, 한밤중에 눈이 내리자 섬중계(剡中溪)에 사는 친구 대규(戴逵)가 갑자기 생각나 배를 타고 대규가 사는 집 문 앞까지 갔다가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되돌아왔다. 어떤 사람이 그 까닭을 묻자, “나는 흥이 나서 갔다가 흥이 다해 돌아온 것이다.”라고 대답하였다는 고사가 전한다. 《晉書 卷80 王羲之列傳 王徽之》 친척들과 함께 국화와 술을 즐기는 것이 벗들과 어울리는 것보다도 오히려 좋음을 말한 것이다.

정생(鄭生)【지(稽)】에게 주다

與鄭生【稽】

남자가 이룬 것 없이 머리 이미 하얗게 섰으니	男子無成頭已白
반평생 다섯 수레의 책 ⁴⁵¹ 헛되이 읽었구나	半生空讀五車書
누가 알겠는가 안회(顏回)가 가난하지만 즐거워	誰知回也貧而樂
누항(陋巷)의 단사포음(簞食瓢飲)에도 마음만은 흰하듯 트여 있음 ⁴⁵²	陋巷簞瓢意廓如

종형에게 드리다

呈宗兄

늦더위 새로운 거처의 날 개어 맑은 하늘	老炎新處霽清霄
어젯밤 하늘의 관문 북두 자루를 올렸네	昨夜天關響斗杓
내일 옥 같은 은하수에 약속 있음을 알겠으나	明日玉河知有約
새벽 까치가 신령한 다리 만드는 일 없음이 한스럽네 ⁴⁵³	恨無晨鵲駕靈橋

451 다섯 수레의 책 : 많은 양의 서적을 뜻한다. 《장자》〈천하(天下)〉에, “혜시의 학술은 다방면에 걸쳐 있으며, 읽은 책이 다섯 수레나 된다.[惠施多方 其書五車]”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452 안회(顏回)가……있음을 : 안회(顏回)의 안빈낙도(安貧樂道)하는 태도를 말한 것이다. 《논어(論語)》〈학이(學而)〉에, “자공(子貢)이 말하였다. ‘가난하면서도 아침함(아침)이 없으며, 부(富)하면서도 교만함이 없는 것이 어떻습니까?’ 공자(孔子)께서 답하셨다. ‘괜찮으나, 가난하면서도 즐거워하며, 부하면서도 예(禮)를 좋아하는 자만은 못하다.’ [子貢曰 貧而無諂 富而無驕 何如 子曰 可也 未若貧而樂 富而好禮者也]”라 하였고, 《논어》〈옹야(雍也)〉에, “어질다, 안회(顏回)여! 한 그릇 밥과 한 표주박 물을 마시며 누항에 사는 것을 사람들은 근심하며 견디지 못하는데, 안회는 그 즐거움을 바꾸지 않으니, 어질도다, 안회여! [賢哉回也 一簞食 一瓢飲 在陋巷 人不堪其憂 回也 不改其樂 賢哉回也]”라 하였다.

453 새벽……한스럽네 : 음력 칠월 칠석에 견우와 직녀 두 별을 서로 만나게 하기 위해 까막까치가 모여 은하수에 다리를 만든다는 전설이 있다.

금릉(金陵) 조후(趙侯)【성(惺)】에게 화답하다

酬金陵趙侯【惺】

강가의 시인 뛰어난 재능을 품었으니	江潭騷客抱脩能
바다에 임하여 지은 천 편의 시 흡사 만 층의 옥 같네	臨海千篇玉萬層
여사(餘事)로 풍요(風謠) 읊고 한가하여 개 짖으니	餘事風謠閒吠犬
근래 듣건대 관사(官舍)에서 승려처럼 고요히 지낸다 하네	近聞官舍靜如僧

두 번째

其二

장저(長沮)와 길닉(桀溺) ⁴⁵⁴ 원래 세상을 구제할 수 있는 재능이 아니니	沮溺元非濟世能
구름 봉우리에 푸른 기운 층층이 쌓인 모습 사랑스레 바라보네	愛看雲岵碧層層
태평한 시대에 밭 갈고 샘 파는 것 ⁴⁵⁵ 나의 분수임을 알겠으니	太平耕鑿知吾分
문 밖엔 물외(物外)의 스님 때때로 돌아오네	門外時回物外僧

454 장저(長沮)와 길닉(桀溺) : 춘추 시대 초나라의 은사(隱士)다. 이들은 세상을 등지고 농사를 지으며 생활하였는데, 천하를 주유하는 공자(孔子)를 비웃었던 고사가 《논어》〈미자(微子)〉편에 보인다.

455 태평한……것 : 태평 시절을 만나 한가로이 살아감을 말한 것이다. 요 임금 때 어느 노인이 지었다는 〈격양가(擊壤歌)〉에,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쉬며 샘을 파서 물을 마시고 밭을 갈아 밥 먹으니, 임금의 힘이 내게 무슨 상관이랴.[日出而作 日入而息 鑿井而飲 耕田而食 帝力於我何有哉]”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금리(錦里)에 사는 여러 형에게 장난삼아 제하여 부치다

戲題寄錦里諸兄

금강(錦江)의 은색 붕어 옥이 비늘에 생겨나니	錦江銀鯉玉生鱗
병혈(丙穴) ⁴⁵⁶ 이 어찌 진귀한 명성 홀로 차지할 수 있으리오	丙穴安得獨擅珍
서쪽 바위에서 고기 잡는 이 ⁴⁵⁷ 에게 말을 전하노니	寄語西巖漁釣子
바라건대 냉이 먹고 고사리 캐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를	幸分啖薺採薇人

혜 상인(惠上人)에게 주다

【병서. 혜사(惠師)의 스승인 성사(性師)가 목우자(牧牛子) 458를 위하여 누대 하나를 세우고 ‘강학(降鶴)’이라 편액하였다. 지금 혜사가 멀리서 찾아와 나에게 기문을 청하였는데 나는 사양하면서 지어주지 않았다. 그러자 혜사가 다시 절구 한 수를 얻어 이 걸음에 대한 증거로 삼기를 청하였다. 이때는 가을 맑고 기운 깨끗하여 산을 마주한 사람이 산수의 흥취를 금할 수 없어 붓 가는 대로 써서 주고, 이어 오언절구를 강학루에 부쳐 제하였다. 기유년(1669, 46세) 가을 백봉산옹(白鳳山翁).】

贈惠上人【并序. 惠師之師性師, 爲牧牛子起一樓, 扁降鶴. 今惠師遠來請記文于余, 余辭不就, 師又請得一絕以證此行. 是時也, 秋晴氣淨, 對山人不禁山水之興, 信筆書贈, 仍以五言絕寄題降鶴樓云. 己酉秋, 白鳳山翁.】

456 병혈(丙穴) : 좋은 고기가 나는 동혈(洞穴)로 중국 한중(漢中) 면양현(沔陽縣) 북쪽에 있다. 동혈의 입구가 병향(丙向)인 까닭으로 병혈이라 하며, 항상 3월에 이곳에서 물고기를 잡았다. 좌사(左思)의 <촉도부(蜀都賦)>에 “좋은 물고기는 병혈에서 나오고 좋은 나무는 부곡에서 나온다.[嘉魚出丙穴 良木攢褒谷]”라 하였다.

457 서쪽……이 : 당나라 유종원(柳宗元)의 시 <어옹(漁翁)>에, “어옹이 밤에 서쪽 바위 옆에 묵더니, 새벽에 맑은 상수를 걷고 초 땅 대나무를 불 때누나.[漁翁夜傍西巖宿 曉汲清湘燃楚竹]”라 한 대목에서 취해 온 표현이다.

458 목우자(牧牛子) : 고려 후기의 선승인 지눌(知訥, 1158~1210)을 가리킨다. 목우자는 그의 호. 고려 후기에 조계종을 중흥하여 ‘조계종의 개조(開祖)’라 불린다. 정혜결사(定慧結社)를 조직해 불교의 개혁을 추진했으며, 돈오점수(頓悟漸修)와 정혜쌍수(定慧雙修)를 주장하여 선교일치(禪教一致)를 추구하였다.

도인(道人)은 원래 산에 들어간 사람이니
구름 속에 산이 많아 전혀 가난하지 않네
무슨 일로 산에서 나와 나를 찾아왔는가
나의 마음 물과 같아 거울처럼 티끌 없네

道人元自入山人
雲裏羣山摠不貧
何事出山來見我
我心如水鏡無塵

김 상사(金上舍)【종량(宗亮)】에게 화답하다

酬金上舍【宗亮】

말은 풍설(風雪)을 머금었고 글자는 뱀이 날아오르는 듯하니⁴⁵⁹
물과 대나무 가의 은거하는 이에게 멀리 부쳐 주었네
산새 어지럽게 울어 마치 나의 마음 이해하는 듯하니
무리지어 날다 놀라서 주인집으로 향하네

辭含風雪字騰蛇
遠寄幽人水竹涯
山鳥亂啼如解意
羣飛驚向主翁家

김중원(金仲源)⁴⁶⁰【오(梧)】 형께 사례하다

謝金仲源【梧】兄

구강(龜江) 시원하게 탁 트여 마치 섬중(剡中)과 같으니
4월 날씨 맑고 화창하여⁴⁶¹ 눈바람보다 낫다네
시원하게 노 젓는 산음(山陰)의 늙은이
흥 다하였으니 어찌 굳이 대옹(戴翁)을 만날 것 있겠는가⁴⁶²

龜江爽塏似剡中
四月清和勝雪風
灑然一棹山陰老
興盡何須見戴翁

459 말은……듯하니 : 김종량(金宗亮)이 보낸 시의 내용과 글씨가 모두 훌륭함을 말한 것이다.

460 김중원(金仲源) : 김오(金梧, 1617~?)를 가리킨다. 본관은 광산(光山), 자는 중원(仲源), 호는 칠매당(七梅堂)이다. 김집(金集)과 송준길(宋浚吉)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461 맑고 화창하여 : 원문은 ‘청화(淸和)’다. 진(晉)나라 사영운(謝靈運)의 <유적석진법해(遊赤石進帆海)>에, “초여름 4월이라 맑고 화창하니, 향기로운 풀들이 끝없이 돋았네.[首夏猶淸和 芳草亦未歇]”라 한 데서 유래하여, 4월의 이칭으로도 쓰인다.

462 구강(龜江)……있겠는가 : 진(晉)나라의 왕휘지(王徽之)가 산음(山陰)에 살았는데, 한밤중에 눈이 내리자 섬중계(剡中溪)에 사는 친구 대규(戴逵)가 갑자기 생각나 배를 타고 대규가

산승에게 주다

【산인 희현(熙絢)이 구고(九臯) 서재(書齋)인 양정재(養正齋)에서 나와 중유한 지 오래였다. 연전에 백운산(白雲山)463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를 찾아와 몹시 간절하게 시를 구하였으니, 허전하고 쓸쓸한 마음이 들었다. 이어 속세 밖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서 부질없이 제하여 주었다.】

贈山僧【山人熙絢，從余于九臯書齋之養正齋久。年前入白雲，又來訪余求詩甚勤，廓然索然，仍居物外之思，漫題以贈之也。】

인간 세상 일마다 치아에 시린 기운 생기니	人間隨事齒生酸
반 이랑의 전원 또한 편안치 않네	半畝田園亦不安
부러워라 그대 백운산에 높이 누운 뜻이여	羨爾白雲高臥志
나는 이제부터 황관(黃冠) ⁴⁶⁴ 을 만들고자 하네	我從今欲製黃冠

김장이(金丈而) 신(愼)의 시에 차운하여 오군(吳君)의 소헌(小軒)에 제하다

次金丈而愼韻，題吳君小軒。

수운(水雲) 사이에 작은 집 새로 짓고서	新營小屋水雲間
만고(萬古)에 변함 없는 높은 산의 얼굴 고요히 대하네	靜對高山萬古顏
이제부터 선조의 유업(遺業) 계승하는 일 ⁴⁶⁵ 그대에게서 짐칠 수 있으니	

시는 집 문 앞까지 갔다가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되돌아왔다. 어떤 사람이 그 까닭을 묻자, “나는 흥이 나서 갔다가 흥이 다해 돌아온 것이다.”라고 대답하였다는 고사가 전한다. 《晉書 卷80 王羲之列傳 王徽之》

463 백운산(白雲山) : 전라남도 광양시 다압면(多鴨面) · 옥룡면(玉龍面) · 진상면의 경계에 있는 산이다.

464 황관(黃冠) : 누런색의 관으로 도사(道士)들이 썼다.

465 선조의……일 : 원문의 ‘궁구(尙構)’는 ‘궁당궁구(尙堂尙構)’의 준말이다. 기꺼이 집터를 닦고 집을 짓는다는 뜻으로, 선조의 사업을 잘 계승함을 비유하는 말이다. 《서경(書經)》〈주서

백 년 세월 나와 그대 함께 한가로우리

從此肯構君可占
百年吾與爾同閒

남 은대(南銀臺)⁴⁶⁶【구만(九萬)]에게 주다

贈南銀臺【九萬】

구천(九天)의 상서로운 봉황 인간 세상에 내려오니
하계(下界)의 참된 반열로 이날 돌아가네
병든 학 10년 동안 호남 바닷가에서 머무른 뜻
슬픈 마음으로 고개 돌려 구름 사이 바라보네

九天祥鳳下人寰
下界眞班此日還
病鶴十年湖海志
悵然回首望雲間

학도(學徒)에게 주다

贈學徒

거친 풀 자란 밭 사이의 늙은 농부 한 명
형체와 정신 적막하여 마른 소나무 같네
부끄러운 것은 그대들 찾아와 따르며 배우는데
잘못된 방도로 인도하여 예용(禮容)을 잃는 것이라네

荒草田間一老農
形神寂寞似枯松
慚却君輩來從學
導率乖方失禮容

(周書) 대고(大誥)에, “아버지가 집을 지으려 작정하여 이미 그 규모를 정했는데도 그 아들은 당(堂)의 터도 만들려고 하지 않으니 하물며 가까이 건물을 만들려고 하겠는가.[若考作室既底法 厥子乃弗肯堂 矧肯構]”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466 남 은대(南銀臺) : 남구만(南九萬, 1629~1711)을 가리킨다. 본관은 의령(宜寧), 자는 운로(雲路), 호는 약천(藥泉)이다. 1656년 과거에 급제하여 대사성, 함경도 관찰사, 형조 판서 등을 거치고 삼정승을 역임하였다. 1664년(현종5) 승지에 임명된 기록이 보인다.

당질【이상(履相)⁴⁶⁷】에게 부치다

寄堂侄【履相】

문 앞의 작은 개울 서쪽 향해 흐르니	門前細澗向西流
밤낮으로 졸졸 흘러 금강 물가에 이르네	日夜潺湲到錦洲
물가의 푸른 산 나의 옛 집이니	洲上靑山吾故宅
도리어 이별의 정회를 모래톱 기러기에게 부치네	却將離思寄沙鷗

두 번째

其二

봄맞이하는 만물 양기(陽氣) 향해 열리는데	迎春百物向陽開
시로 인해 곤궁해진 사람 ⁴⁶⁸ 만은 재와 같이 병들었네	惟有詩窮病若灰
몇 송이 찬 매화 세속의 모습 없으니	數朶寒梅無世態
은은한 향기 작은 창에 자주 찾아오네.	暗香頻訪小窓來

467 이상(履相) : 김만영의 당조카 김이상(金履相, 1639~?)을 가리킨다. 자는 사형(士亨)이다. 1675년(숙종 원년) 사마시에 합격하였다.

468 시로……사람 : 원문은 ‘시궁(詩窮)’이다. 시를 좋아하는 사람은 궁하게 산다는 뜻이다. 구양수(歐陽脩)가 매성유(梅聖俞)에게, “세상 사람들은 시가 사람을 궁하게 만든다고 말하지만 시가 사람을 궁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이 궁하면 시를 잘 짓게 된다.”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古文眞寶後集 王平甫文集後序》

복초당(復初堂)⁴⁶⁹에 부치다

寄復初堂

남쪽 나라 아름다운 이 맨 처음에 뜻을 두니	南國佳人志一初
곧은 난초와 길게 자란 대나무 마음이 처음과 같네	貞蘭脩竹意如初
동방의 고사(高士) 능히 추억할 수 있으니	東方高士能相憶
매화 아래의 꽃다운 맹약 조용히 그 처음을 생각하네	梅下芳盟暗記初

두 번째

其二

산 앞의 고요한 집이 나의 처음인데	山前淨舍是吾初
몇 해 동안 길을 헤매어 점차 처음을 잃었네	幾歲迷塗漸失初
이로부터 고향에서 다시 주인이 되었으니	從此故鄉還作主
병주(并州)의 갈림길 ⁴⁷⁰ 처음이 아님을 알겠네.	並州歧路認非初

469 복초당(復初堂) : ‘복초(復初)’는 처음의 선한 본성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소학집주(小學集註)》〈소학제사(小學題辭)〉에, “이치를 궁구하고 몸을 닦는 것은 학문의 큰 것이다. 밝은 본성이 환히 빛나서 안과 밖이 있지 않으니, 덕이 높고 업적이 넓어아 그 처음을 회복할 수 있다.[窮理修身 斯學之大 明命赫然 罔有內外 德崇業廣 乃復其初]”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470 병주(并州)의 갈림길 : 오랫동안 생활하여 정이 든 타향을 뜻한다. 당(唐)나라 시인 가도(賈島)가 병주(并州)에 오래 살다가 떠난 후 그곳을 고향처럼 그리워한 데서 유래하였는데, 그의 시 〈도상건(渡桑乾)〉에, “병주의 나그네살이 십 년이 지나도록, 밤낮으로 고향 함양에 돌아가고싶어라. 무단히 다시금 상건수 물을 건너니, 돌아보매 병주가 바로 고향처럼 느껴지더라.[客舍并州已十霜 歸心日夜憶咸陽 無端更渡桑乾水 却望并州是故鄉]”라 하였다.

세 번째

其三

상자 속의 밝은 구슬 맨 처음처럼 맑으니	櫝裏明珠湛一初
거듭 갈아도 처음에 내려 받은 마음 ⁴⁷¹ 은 변하지 않네	重磨不變降衷初
내 집으로 가는 길을 분명히 알고서 취하니	分明識取吾家路
구름 모두 걷힌 하늘 한가운데 달이 막 떠오르네	雲盡天心月上初

여러 형을 모시고 이틀 밤을 묵으며 뜻을 말하다

陪諸兄信宿言志

도방(土房) 따뜻하고 대나무 창 밝으니	土房溫暖竹窓明
형제의 마음 속 대화 밤 내내 정답네	兄弟心談一夜情
문 밖에 한 해 다하였는 줄도 알지 못하니	門外不知窮歲律
하늘 가득한 눈바람 강성(江城)에 내리네	滿天風雪下江城

광곡주인(廣谷主人)⁴⁷²이 동자 두세 명으로 하여금 배를 저어 나를 맞이하게 하니, 내가 배 안에서 입으로 시 한 수를 읊다

廣谷主人令童子數三，棹艇邀余，余於舟中，口占一律。

흰 적삼 푸른 지팡이에 세종관 쓰고	白衫靑杖細駿冠
조각배 노 저으며 금강 여울을 내려오네	一棹扁舟下錦灘

471 내려 받은 마음 : 원문은 ‘강충(降衷)’이다. 상제가 내려준 따뜻한 마음을 말한다. 《서경》〈탕고(湯誥)〉에, “홍룡하신 상제가 하민들에게 충(衷)을 내려주셨다.[惟皇上帝 降衷于下民]”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472 광곡주인(廣谷主人) : 김만영의 종제 김해영(金海英)을 가리킨다.

여울가 작은 정자의 옥 같은 사람	灘上小亭人似玉
나를 맞이하여 서로 짝하고서 물가 난초 캐러 하네	爲邀相伴採汀蘭

금강(金剛) 시에 차운하다

次金剛韻

신선의 산 높이가 사만 팔천 장(丈)이니	仙山四萬八千丈
우뚝 솟은 은색 빛깔 모습과 형세가 같네	立立銀光面勢同
어느 날에나 가장 높은 봉우리 위에 서서	何日最高巔上立
손으로 밝은 아침 해 떠받치고 붉은 구름에 기대볼까	手扶明旭倚雲紅

도민(道民)⁴⁷³의 옛 집 벽 위에 제하다

題道民舊居壁上

가을 다한 남쪽 교외 처사(處士)의 집	秋盡南郊處士家
작은 정원 남은 대나무에 푸른 노을 둘러 있네	小園殘竹抹青霞
서리 견뎌낸 것은 오직 뜰 앞의 잣나무뿐이니	凌霜獨有庭前栢
여전히 푸른 잎 떨치고서 가을 국화 마주하네	猶拂蒼髯對晚花

473 도민(道民) : 김만영이 과거에 우거하던 고을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전라도(全羅道)·남평현(南平縣)〉에, “도민부곡(道民部曲). 현에서 서남쪽으로 16리 떨어져 있다.”라 되어 있다.

구암서실(龜巖書室)에 부쳐 제하다

寄題龜巖書室

강가의 푸른 산 몹시도 기이하니	江上靑山分外奇
책상의 서책 읽느라 세상 인정과 멀어졌네	一床書史世情虧
향기로운 창에서 《주역(周易)》 읽느라 주묵(朱墨) 모두 갈았으니 ⁴⁷⁴	薰窓點易研朱盡
이슬이 처마 소나무 몇 가지나 적셨는가	露滴簷松第幾枝

두 번째

其二

몇 겹으로 쌓인 구름 산 작은 재(齋)를 감싸고 있으니	數疊雲山擁小齋
안개와 노을 아침저녁으로 소나무 섬돌에 잠겨 있네	烟霞朝暮鎖松階
제생(諸生)은 날마다 시서(詩書)의 비결 강론하니	諸生日講詩書訣
진귀한 편지와 서적 책상 가득 쌓여 있네	寶珍編滿案排

제생(諸生)의 운을 쓰다

用諸生韻

산 아래에서 가시 사립 닫아걸고 겨울을 지내니	山下荊扉閉過冬
뜨락 대나무와 정원 소나무에 눈이 쌓였네	雪封庭竹與園松

474 주역(周易)……갈았으니 : 비점(批點)과 관주(貫珠)를 치는 데 필요한 주묵(朱墨)을 다 쓸 정도로 《주역》을 열심히 읽었다는 뜻이다. 당나라 고변(高駢)의 〈보허사(步虛詞)〉에, “동구 문은 깊게 잠겼고 푸른 창은 차가운데, 이슬로 주사 같아 《주역》에 점을 찍네.[洞門深鎖碧窓寒 滴露研朱點周易]”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정겨운 모습으로 밤마다 떠오르는 맑은 하늘의 달
창 동쪽 제일봉 위로 굴러 나왔네

慇懃夜夜清空月
輾出窓東第一峯

제생(諸生)에게 부쳐 쓰다

寄筆諸生

백면서생(白面書生) 죽산(竹山)⁴⁷⁵에 은거하였으니
푸른 초목 두른 죽산에서 양 사립문 닫았네
오늘 아침 먼지 떨어내고 누런 터럭 뽑고서
수석(水石) 사이로 서생들 찾아가네

白面書生隱竹山
竹山環翠閉雙關
今朝拂拭抽黃髮
往訪書生水石間

삼학재(三學齋)에 제하다

題三學齋

푸른 산 서쪽 기슭 들관 동쪽 머리에
날개 단 높은 재(齋) 별세계를 차지하였네
이 안에 속세 바깥의 일 전하지 말라
지금부터 글 읽는 소리⁴⁷⁶ 천년 넘도록 이어질 것이네

靑山西麓野東頭
有翼高齋占別區
箇裏莫傳塵外事
自今絃誦剩千秋

475 죽산(竹山) : 전라남도 해남 지역의 옛 지명이다.

476 글 읽는 소리 : 원문은 '현송(絃誦)'이다. 거문고를 타고 시를 외운다는 뜻으로, 부지런히 학문을 닦고 교양을 쌓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예기》〈문왕세자(文王世子)〉에, “봄에는 시를 외우고, 여름에는 거문고를 탄다.[春誦夏弦]”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도화선(桃花扇)에 장난삼아 제하다 【선생의 당시 나이 19세였다.】

戲題桃花扇【先生時年十九】

흰 구름 도화동(桃花洞)에서 처음 나오니	白雲初出桃花洞
골짜기 안의 복사꽃 흰 구름을 물들였네	洞裏桃花染白雲
구름이 초강(楚江) 상수(湘水) 여인의 대나무 위를 지나니	雲過楚江湘女竹
대나무 사이엔 아직도 순 임금의 훈훈한 바람 둘러져 있네 ⁴⁷⁶	竹間猶帶舜風薰

성암(惺菴)⁴⁷⁷

【내가 성암에 대한 만시(挽詩)를 지었는데,⁴⁷⁸ 지나치게 칭찬하고 인정하였다고 의아해 하는 자가 있었으므로 여기에서 언급하였다.】

惺菴【余作惺庵挽詩，人有疑其過稱許，故於此言之.】

성암의 학문은 내가 잘 아는 바이니	惺菴學問我能知
칭찬한 말 애초에 사사로이 아첨한 것 아니었다네	稱美元非阿所私
세상길 어지러워 지혜로운 눈 가진 이 없으니	世路紛紛無智眼
옥돌 속의 좋은 옥을 여러 사람이 의심하네	璞中良玉衆相疑

476 구름이……있네 : 순(舜) 임금이 죽자 아내인 아황(娥皇)과 여영(女英)이 초나라의 상수(湘水)에 몸을 던져 죽었는데, 그 눈물이 대나무에 얼룩져서 반죽(斑竹)이 되었다는 고사가 전한다. 또 ‘순(舜) 임금의 훈훈한 바람’은 순 임금이 지었다고 전하는 <남풍가(南風歌)>에, “훈훈한 남풍 부니, 우리 백성의 울분 풀어 주기를. 때에 맞춰 남풍 부니, 우리 백성의 재산 늘어나기를.[南風之薰兮 可以解吾民之慍兮 南風之時兮 可以阜吾民之財兮]”이라 한 데서 유래한 말이다. 《禮記 樂記》

477 성암(惺菴) : 이수인(李壽仁, 1601~1661)을 가리킨다. 성암(惺菴)은 그의 호. 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유안(幼安)이다. 전라남도 강진 출신. 1633년 과거에 급제하여 전적, 병조 좌랑, 정언을 역임하였다. 1642년 재차 전적에 제수되었으나 사온한 뒤 바로 전리(田里)로 내려갔으며, 이후로도 여러 차례 벼슬에 제수되었으나 모두 나가지 않았다.

478 내가……지었는데 : <남포집> 권2와 권4에 <만이성암(挽李惺庵)【수인(壽仁)】>이라는 제목의 만시가 실려 있다.

종이 창에 제하다

題紙窓

한 폭의 종이창 밝고도 깨끗하니
 바람 따라 절로 닫히고 또 절로 열리네
 다시 해 그림자로 인하여 와서 비추니
 밝고도 깨끗하여 한 점의 티끌도 전혀 없네

一幅紙窓明且潔
 因風自閉又自開
 更因日影來相照
 光淨絕無徧點埃

학을 그린 벽 위에 제하다

題畫鶴壁上

뗏집 쓸쓸한 모습으로 큰 강에 의지해 있으니
 흰 구름과 푸른 산 숲속 창을 감싸고 있네
 주인옹의 한가로운 정취 사람들은 아는가
 송죽(松竹)의 꼭대기에 학 한 쌍 머물러 있네

草屋蕭然倚大江
 白雲青嶂擁林窓
 主翁閒趣人知否
 松竹源頭鶴一雙

종제가 약속하고서 이르지 않아

從弟有約不至

술동이의 봄술 그대 기다리며 열었건만
 술동이 다 비우도록 그대는 오지 않네
 한가로이 옥 거문고 타며 깊은 밤에 앉았으니
 달 옆의 외로운 기러기에 마음 가누기 어려워라

一樽春酒待君開
 酒盡樽空君不來
 閒撫玉琴深夜坐
 月邊孤鴈意難裁

제생(諸生)과 함께 주자(朱子)의 <동지음(冬至吟)>⁴⁷⁹에 화운하다
與諸生和朱子冬至吟

한밤중의 우르릉거리는 소리 우레 치는 곳 어디인가	隱隱中宵何處雷
칩복(蟄伏)해 있던 용 ⁴⁸⁰ 의 문을 비로소 밀어 젖히네	蟄龍門戶始推開
내년 90일의 봄소식	明年九十春消息
은연중에 무(無)의 가운데서 변화해 오네 ⁴⁸¹	暗向無中點化來

제생(諸生)의 <독서(讀書)> 시의 운을 쓰다
用諸生讀書韻

다섯 이랑 전원의 뗏집 한 채	五畝田園一茅廬
아침에 나와 거친 땅 같고 밤에는 책을 보네	理荒朝出夜看書
그 속에 절로 무궁한 뜻 있으니	箇中自有無窮意
농사 추수할 때면 처음을 회복할 것 ⁴⁸² 을 생각하네	農有秋時意復初

479 주자(朱子)의 동지음(冬至吟) : 주희(朱熹)의 시 <답원계중논계몽(答袁機仲論啓蒙)>을 가리킨다. 원운은 다음과 같다. “갑자기 한밤중의 한 소리 우레에, 모든 문호(門戶)가 차례로 열리네. 만약 무(無) 속에 유(有)가 있는 상(象)을 알면, 자네가 복희씨를 만나고 온 것을 인정하겠노라.[忽然半夜一聲雷 萬戶千門次第開 若識無中含有象 許君親見伏羲來.]”

480 칩복(蟄伏)해 있던 용 : 원문은 ‘칩룡(蟄龍)’이다. 은사(隱士)를 비유하는 말로 흔히 사용된다. 《주역》 <계사전 하(繫辭傳下)>에, “자벌레가 몸을 굽혀 움츠리는 것은 장자 몸을 펴기 위함이고, 용과 뱀이 숨는 것은 자신의 몸을 보전하기 위함이다.[尺蠖之屈 以求信也 龍蛇之蟄 以存身也]”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481 내년……하네 : 음기(陰氣)가 극에 달한 순음(純陰)의 10월을 지나 11월 동지(冬至)가 되면 양(陽)의 기운이 처음으로 생겨나는데, 이때부터 겨울이 가고 봄기운이 생기기 시작하여 만물이 생기(生氣)를 회복하게 된다고 한다. 《주역(周易)》 <복괘(復卦)> 공영달(孔穎達)의 소(疏)에, “동지에 양 하나가 생기니, 이는 곧 양은 움직여서 용사하고 음은 고요함으로 돌아가는 것이다.[冬至一陽生 是陽動用而陰復於靜也]”라 하였다.

482 처음을 회복할 것 : 원문은 ‘복초(復初)’다. 처음의 선한 본성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소학집주(小學集註)》 <소학제사(小學題辭)>에, “이치를 궁구하고 몸을 닦는 것은 학문의 큰 것이다. 밝은 본성이 환히 빛나서 안과 밖이 있지 않으니, 덕이 높고 업적이 넓어야 그 처음을 회복할 수 있다.[窮理修身 斯學之大 明命赫然 罔有內外 德崇業廣 乃復其初]”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맑은 가을날 지강(砥江)에 배를 띄우다

淸秋泛舟砥江

수면이 깨끗하고 밝아 텅 빈 듯 맑으니	水面澄明湛若空
바위산 기이하고 오래되어 그림 속 정경이네	巖巒奇古畫圖中
초의(草衣) 입은 서너 사람 서로 마주 대하고 있으니	草衣三四人相對
한가로이 긴 상앗대에 의지하여 저물녘 바람 거슬러 올라가네	閒倚長竿溯晚風

두 번째

其二

맑은 강물 한 줄기 비단처럼 푸르니	淸流一帶翠如羅
흰 돌과 푸른 소나무 그 사이엔 푸른 잔디	白石蒼松間碧莎
작은 배 가볍게 띄워 거울 속을 떠다니니	輕理小艇浮鏡裏
맑게 갠 하늘엔 가을이 펼쳐지고 물에는 물결도 일지 않네	霽天秋豁水無波

눈을 읊다

詠雪

천상의 신공(神工)이 옥산(玉山)을 깎아내니	天上神工斲玉山
잘못하여 옥가루를 인간 세상에 떨어뜨렸네 ⁴⁸³	誤將飛屑落人間
보고서도 맑고 묘한 모습 다 갖추어 말하기 어려우니	看來淸妙難具盡
다만 서창(書窓)의 한결같은 추위만을 깨닫네	但覺書窓一味寒

483 천상의……떨어뜨렸네 :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옥가루에 비유한 것이다. 백거이(白居易)의 시 <춘설(春雪)>에, “크기로는 거위 털이 떨어지는 것 같고, 뽁뽁하기로는 옥가루가 흩날리는 듯 하다.[大似落鵝毛 密如飄玉屑]”라 하였다.

동쪽 언덕에 핀 매화를 보며

看梅東臯

듣건대 동쪽 산에는 이미 매화가 피었다고 하니	聞道東山已放梅
지팡이 한 자루에 한가로운 걸음으로 푸른 이끼를 지나네	一筇閒步穿莓苔
꽃을 찾는 흥취 아는 사람 없으니	無人識得尋芳興
소매 가득 맑은 향 지니고서 홀로 돌아오네	滿袖清香獨自回

한가로이 거닐며

閒行

금강 가에서 버들 묻고 꽃 찾으니	問柳尋花錦水邊
술 한 동이 가지고서 온 종일 긴 시내를 굽어보네	一樽終日俯長川
흔연히 봄바람 속에 취해 누워	欣然醉臥春風裏
솔개와 물고기 생동하는 위아래의 하늘 ⁴⁸⁴ 바라보네	看取鳶魚上下天

어떤 사람이 수박을 부쳐왔기에 장난삼아 제하다

有人寄西瓜戲題

색은 가을하늘 처음 갠 뒤와 같고	色似秋天初霽後
모습은 태극(太極)이 아직 나누어지기 전과 같네	形如太極未分前
붉은 중심 쪼개자 감로(甘露) 미끈히 흘러내리니	碎破丹心甘露滑

484 솔개와……하늘 : 만물이 약동하는 천지간을 말한다. 《중용장구(中庸章句)》 제12장에, “《시》에 이르기를 ‘솔개는 날아서 하늘에 이르고, 물고기는 못에서 뿔다.’ 라고 하였으니, 이는 천지의 도가 높은 하늘이나 낮은 못이나 모두 똑같이 행해지고 있음을 말한 것이다.[詩云 鳶飛戾天 魚躍于淵 言其上下察也]”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사마상여(司馬相如)는 이로부터 샘 찾는 일 게을리 하리⁴⁸⁵ 相如從此懶尋泉

춘첩

【신해년(1671, 48세) 입춘에 우연히 이 절구를 지었다. 이해 5월에 선생께서 별세하셨다.】 春帖【辛亥立春, 偶成此絕. 是年五月, 先生別世.】

하나의 근원인 마음 위에 천지가 고요하니	一源心上乾坤靜
만 권의 서책 속에서 밤낮으로 한가하네	萬卷書中日月閒
백년토록 안개와 노을 가득한 산수 속에서	百歲烟霞山水裏
이 몸 일 없이 사립문에 누워 있네	此身無事臥松關

동지음

冬至吟

눈 감고 말을 삼감 ⁴⁸⁶ 에 기기(氣機) ⁴⁸⁷ 가 정돈되니	瞑目緘三定氣機
종일토록 사립문 닫고서 해 다할 때까지 앉아 있네	閉關終日坐窮暉
그대에게 묻노니 그 속의 참된 심사	問渠箇裏眞心事
오묘함이 천인합일(天人合一)의 경지에 이르렀는가	妙到天人合一幾

485 사마상여(司馬相如)는……하리 : 한(漢)나라 사마상여(司馬相如)는 만년에 늘 갈증을 느끼는 병인 소갈증(消渴症)을 앓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史記 卷117 司馬相如列傳》

486 말을 삼감 : 원문은 ‘함삼(緘三)’이다. 입을 세 겹으로 봉(封)한다는 말로 말을 삼가라는 뜻이다. 《공자가어(孔子家語)》〈관주(觀周)〉에, “공자가 주나라를 보러 가서 마침내 태조 후직의 사당에 들어갔는데, 사당 오른쪽 계단 앞에 금인이 있었다. 그 입을 세 겹으로 봉하고 그 등에 명하기를 ‘옛날에 말을 삼가던 사람이다. 경계할지어다.’”라고 하였다.[孔子觀周 遂入太祖后稷之廟 廟堂右階之前 有金人焉 三緘其口 而銘其背曰 古之慎言人也 戒之哉]”라한 데서 유래한 말이다.

487 기기(氣機) : 음양(陰陽)이 서로 조화를 이룬 기틀, 즉 음양 두 기운이 형평(衡平)을 이룬 상태를 말한 것으로, 《장자(莊子)》〈응제왕(應帝王)〉의 ‘형기기(衡氣機)’라는 말에서 유래하였다.

덕룡산(德龍山)⁴⁸⁸의 구름을 바라보고서 짓다

望德龍山雲而有作

몇 겹의 푸른 산 옥이 쪽 진 듯하니	數疊青山玉作鬟
푸른 구름 한 덩어리 산속에서 나왔네	靑雲一帶出山間
산 기운이 구름 기운 됨을 분명히 알겠으니	明知山氣爲雲氣
산 위의 구름이 마치 구름 위의 산과 같네	山上雲如雲上山

비 온 뒤 새벽에 읊다

雨後曉吟

하염없이 주룩주룩 내리는 처마의 빗소리	漑漑簷雨響淋鈴
베개에 기대어 밤새도록 꿈결에 듣네	欹枕終宵和夢聽
꿈에서 깨니 닭 울고 하늘 또한 맑게 개었는데	夢覺鷄鳴天亦霽
이 마음 매인 곳 없이 다만 또렷이 깨어 있네 ⁴⁸⁹	此心無累但惺惺

한가한 흥

閒興

처사가 강가의 마을에 근거하니	處士幽居江上村
차 달이는 연기 작은 사립문을 깊이 감싸네	茗烟深鎖小柴門

488 덕룡산(德龍山) : 전라남도 강진군 도암면에 있는 산이다.

489 또렷이 깨어 있네 : 원문은 '성성(惺惺)'이다. 마음이 항상 맑게 깨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심경부주(心經附註)》〈경이직내장(敬以直內章)〉에, 사양좌(謝良佐)가 “경은 항상 성성하는 법이다.[敬是常惺惺法]”라고 한 데 대해, 주희(朱熹)가 “서암의 중은 매일 항상 스스로 ‘주 인용은 성성한가?’ 라고 묻고는 ‘성성하다.’ 라고 스스로 대답하곤 했다.[瑞巖僧 每日問 常自問主人翁惺惺否 自答曰惺惺]”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문 앞의 푸른 물엔 바람 물결 잔잔하니
밝은 달 뜬 향기로운 물가에 구름 한 덩이 떠 있네

門前綠水風波靜
明月芳洲一帶雲

아침노을을 읊다

朝霞詠

새벽의 바람과 이슬 천지에 가득하니
아침노을로 변하여 작은 집을 감싸네
동문(洞門) 몇 장(丈)의 땅도 분변하기 어려우니
사람들 말소리만 앞마을에서 들려오네

曉來風露藹乾坤
化作朝霞擁小軒
不辨洞門尋丈地
但聞人語在前村

밤에 앉아

夜坐

은하수 더없이 맑고 가을밤 쌀쌀하니
온갖 소리 고요하고 달은 서쪽 언덕에 떴네
작은 당(堂)의 바람과 이슬에 사람 잠들지 못하는데
어부의 노랫소리 길게 들려오는 곳 어디인가

銀漢澄清秋夜涼
萬聲岑寂月西岡
小堂風露人無寐
何處漁歌韻更長

봄날

春日

숲속에 봄 돌아오고 매화길 열리니
하늘 가득 온화한 기운 품고 있네
작은 재(齋) 한낮에 고요하여 향 사르고 앉으니
인간 세상의 온갖 잡념 재처럼 사라지네

林下春回梅路開
一天和氣在腓胎
小齋晝靜焚香坐
消却人間百念灰

갈대 자란 물가에서 한가로이 낚시하다

蘆磯閒釣

찬 갈대 자라고 꽃잎 떨어진 작은 물가 사이	寒蘆花落小磯間
달빛이 맑은 강에 내려 깎아지른 산 비치네	月照澄江映斷山
백 척의 긴 낚시줄 거울 같은 강물 속에 드리우니	百尺長絲垂鏡裏
잔잔한 바람 솔솔 불어와 물결 일으키네	細風微動水痕斑

매화를 읊다

詠梅

흰 옷 입고서 낙조 아래 서 있는 이 누구인가 ⁴⁹⁰	素服何人立落暉
좋은 구슬 패물로 차고 둥근 옥을 옷으로 삼았네	良珠爲佩璧爲衣
나는 알겠네 옥빛처럼 아름다운 정명도(程明道) ⁴⁹¹ 의	吾知玉色程明道
얼굴 가득한 춘풍(春風) ⁴⁹² 에 덕스런 광채 모여 있음을	滿面春風總德輝

490 흰……누구인가 : ‘흰 옷’은 매화를 비유한 말이다. 수(隋)나라 때 조사웅(趙師雄)이 나부산(羅浮山)에 갔다가 황홀한 경지에서 향기가 감도는 어여쁜 미인을 만나 즐겁게 환담하고 술을 마시며 하룻밤을 보냈는데, 그 다음 날 아침에 보니 큰 매화나무 아래에 술에 취해서 누워 있었다는 고사가 전한다. 《龍城錄 趙師雄醉憩梅花下》

491 옥빛처럼 아름다운 정명도(程明道) : 주희(朱熹)가 정호(程顥)에 대해 지은 <정명도화상찬(程明道畫像贊)>에, “양기가 만물을 기르듯 하고 산처럼 우뚝 섰으며, 옥빛처럼 아름답고 종소리처럼 쟁쟁했다.[揚休山立 玉色金聲]”라 하였다. 또 송나라 문인 장도흠(張道治)의 시 <매화>에 “옥빛은 홀로 천지의 정기를 받았고, 철석 같은 심장은 눈서리에도 놀라지 않네.[玉色獨鍾天地正 鐵心不受雪霜驚]”라 하였고, 심옹(葉顥)의 시 <고포매화(故圃梅花)>에도 “신세는 수운의 고향이요, 차가운 살에 옥빛의 차마로다.[身世水雲鄉 冰肌玉色裳]”라 한 것에서 알 수 있듯, 매화의 색은 옥빛으로 자주 묘사된다.

492 얼굴 가득한 춘풍(春風) : 정호(程顥)의 온화한 기상을 묘사한 말이다. 주희(朱熹)의 《근사록(近思錄)》 권14에, “주공담이 여주에서 명도 선생을 뵈었다. 한 달을 머무르다 돌아가 사림들에게 ‘광정이 춘풍(春風) 속에 한 달을 앉아 있었다네.’라고 하였다.[朱公揆見明道於汝州 逾月而歸 語人曰 光庭在春風中坐了一月]”라 하였다.

뜰에 오래된 매화 한 그루가 있었는데, 단정하고 곧게 자라 장인(丈人)과 군자(君子)의 모습과 매우 닮았다. 봄을 맞아 일찍 피어 온 가지에 밝은 구슬이 가득하여 지초와 난초의 향기가 사람에게 스며드는 듯한 느낌⁴⁹³이 있었으니, 마침내 붓을 잡고서 감탄하며 썼다.

[庭有古梅一樹，端直整束，甚肖丈人君子之象。當春早發，萬枝明珠，有芝蘭襲人之氣，遂援筆感歎而書.]

가을밤 하얗게 누인 밝은 은하수를 올려다보며

秋夜仰見明河練白

상계(上界)의 어떤 이가 흰 명주 누여서	上界何人練素絹
온 길에 고르게 펴 긴 하늘에 걸어두었나	平鋪一道掛長天
만약 황룡포(黃龍袍)를 물들여 만들고자 한다면	若爲染作黃龍袞
우리 임금의 오색실로 마름질하고 기워야 하리 ⁴⁹⁴	裁補吾王五色線

국화를 띄우다⁴⁹⁵

泛菊

흰 술 담긴동이 앞의 흰 옷 입은 사람	白酒樽前人白衣
종일 얼큰하게 취한 채로 산속 사립문에 기대 있네	陶然終日倚山扉

493 지초와……느낌 : 훌륭한 기운에 감화된다는 뜻이다. 《공자가어(孔子家語)》에 “선한 사람과 함께 지내면 마치 지란(芝蘭)의 방에 들어간 것과 같아 그 향기는 못 맡더라도 오래 지나면 동화된다.[與善人居 如入芝蘭之室 久而不聞其香 卽與之化矣]”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494 만약……하리 : ‘오색실’은 곤룡포(袞龍袍)를 기울 때 사용하는 다섯 가지 채색 실이다. 《서경》〈익직(益稷)〉에, 순 임금이 우(禹)에게 이르기를 “내가 다섯 가지 채색으로 다섯 가지 빛깔을 내서 옷을 만들려 하거든 그대는 그것을 밝게 만들라.[以五采 彰施于五色作服 汝明]”라 하였고, 두목(杜牧)의 시 〈군재독작(郡齋獨酌)〉에서는 “평생에 오색실을 가지고, 순 임금의 의상을 기워 보았으면[平生五色線 願補舜衣裳]”이라 하였다.

495 국화를 띄우다 : 과거에는 음력 9월 9일 중양절(重陽節)이면 국화를 술에 띄워 마시곤 하였다.

술잔 가운데에 붉은 꽃술의 국화 어지러이 띄우니
아래로 단전(丹田)을 물들여 색이 어우러지네⁴⁹⁶

盃心亂泛丹心菊
下染丹田色不違

저녁에 동작(銅雀)⁴⁹⁷을 건너며

【기축년(1649, 26세) 국상(國喪)으로 인한 장례498 때 선생이 달려가 곡하고 돌아왔다.】

晚渡銅雀【己丑國慼仍山之時，先生奔哭而歸.】

부슬부슬 내리는 가랑비 나그네 옷깃에 뿌리니
구름 어두운 나룻가에 푸른 물결이 깊네
머리 돌려 청명한 산빛을 바라보니
가을해 돌아가는 이의 마음 비춤이 도리어 가련하네

濛濛微雨灑征襟
雲暗津頭碧浪深
回首清明山色裏
却憐秋日照歸心

아침에 차령(車嶺)⁴⁹⁹을 넘으며

朝踰車嶺

물굽이와 산굽이 몇 겹을 통과하니
하늘에 기댄 나는 듯한 잔도(棧道) 종횡으로 어지럽네
어떻게 오정 역사(五丁力士)⁵⁰⁰의 힘을 빌려

水曲山回透幾重
倚天飛棧亂橫縱
何能得借五丁力

496 술잔……어우러지네 : 붉은 꽃술의 국화를 띄운 술을 마셔 단전(丹田)과 술의 색이 붉게 어우러짐을 말한 것이다.

497 동작(銅雀) : 서울시 동작구 동작동 근처 한강 남안에 있던 나무터이다.

498 국상(國喪)으로 인한 장례 : 원문은 ‘국척양산(國慼仍山)’이다. ‘양산’은 곧 ‘인산(因山)’으로, 상왕, 왕, 왕세자, 왕세손과 그 비(妃)들의 장례를 말한다. 여기서는 1649년 승하한 인조(仁祖)의 장례를 말한다.

499 차령(車嶺) : 충청남도 공주시와 천안시 사이에 있는 고개다.

500 오정 역사(五丁力士) : 촉왕(蜀王)의 5명의 역사(力士)를 말한다. 진 혜왕(秦惠王)이 촉(蜀)을 치려 하였으나 길을 알지 못하므로, 돌소[石牛] 5마리를 만들어 세우고 그 꼬리 밑에다 금덩이를 놓아두고는 돌소가 금똥을 싸다고 소문을 퍼뜨렸다. 이에 촉왕이 오정의 역사를 시켜 검각산(劍閣山)에 길을 내고 이 돌소를 가져갔는데, 진(秦) 나라가 이로 인해 길을 찾아

힘준한 바위와 가파른 봉우리를 깎아내었나

剗却巉巖與削峯

새벽에 양강(楊江)을 출발하며

曉發楊江

가을바람 갑자기 불어 잎이 처음 날리니
먼 나그네 변방으로 돌아감에 들관 길이 희미하네
천리 떨어진 남쪽 고을의 산수(山水) 아름다운 곳
한 덩이 밝은 달 나그네 옷을 비추네

秋風驚起葉初飛
遠客歸邊野路微
千里南州山水地
一輪明月照征衣

저물녘 전원으로 돌아가며

暮歸田園

병이 많아 평생 고요한 변방 지키고 있으니
헛된 명성 끝내 세상 사람들에게 잘못 전해졌네
대궐문에서 임금의 무거운 은혜에 배사(拜謝)하고서
숲속에서 다시 한 이랑 밭을 경작하네

多病平生守靜邊
虛名終誤世人傳
天門拜謝君恩重
林下還耕一頃田

큰 바람

大風

본래 바람은 진군(眞君)⁵⁰¹의 변화시키는 공이니
만물이 불어오는 바람 속에 함께 모여 있네

本是眞君變化功
萬生同囿鼓吹中

축나라를 멸했다고 하였다. 《水經 沔水注》

501 진군(眞君) : '진재(眞宰)' 와 같은 말로, 조물주를 뜻한다.

어찌하여 남쪽의 훈훈한 바람⁵⁰² 일으켜 마음 풀어주지 않고 如何不作南薰解
 당 앞의 남수(楠樹)를 함부로 꺾었는가⁵⁰³ 楠樹堂前慢折衷

북쪽의 소식을 듣고 뜻을 말하다

聞北奇言志

평생 손오(孫吳)의 병법⁵⁰⁴을 배우지 않은 것이 한스러우니 平生恨不學孫吳
 공동산(崆峒山)에서 검을 비껴들고서 크게 한 번 소리쳤으면⁵⁰⁵ 倚劍崆峒快一呼
 때때로 북쪽의 바람 노기(怒氣) 가득 띠었다는 소식 들려오니 時聽北風多怒氣
 남몰래 서릿발 같은 칼날 바라보며 긴 한숨 내쉬네 暗看霜刃發長吁

늦게 일어나

晏起

봄날의 고뇌 게으름이 되고 게으름은 나태함이 되니 春惱成懶懶成慵
 잠에서 깬 숲속 창가에 해가 이미 붉게 물들었네 睡起林窓日已紅
 산새 마치 안타까운 마음 있는 듯 어지럽게 울어대니 山鳥亂啼如有惜

502 남쪽의 훈훈한 바람 : 원문은 ‘남훈(南薰)’이다. 여름에 부는 따스한 바람을 말한다. 순 임금이 지었다고 전하는 <남풍가(南風歌)>에, “훈훈한 남풍 부니, 우리 백성의 울분 풀어 주기를. 때에 맞춰 남풍 부니, 우리 백성의 재산 늘어나기를.[南風之薰兮 可以解吾民之愠兮 南風之時兮 可以阜吾民之財兮]”이라 한 데서 유래한 말이다. 《禮記 樂記》

503 당……꺾었는가 : 두보(杜甫)는 성도(成都)의 완화 초당(浣花草堂)에 있을 때 자신이 좋아하던 남수(楠樹)가 바람에 넘어진 것을 보고 <남수가 비바람에 뽑힌 것을 탄식하다[楠樹爲風雨所拔歎]>라는 시를 지은 바 있다. 《杜少陵詩集 卷10》

504 손오(孫吳)의 병법 : ‘손오(孫吳)’는 춘추 시대 제(齊)나라 손무(孫武)와 전국 시대 위(衛)나라 오기(吳起)의 병정으로서, 병법가(兵法家)의 대표적 인물이다.

505 공동산(崆峒山)에서……소리쳤으면 : 외적(外敵)을 막아 천하를 평안케 하고 싶다는 뜻이다. 두보(杜甫)가 토번(吐蕃)의 침략을 막기 위해 공동산(崆峒山)에 주둔하고 있던 가서한(哥舒翰)에게 보낸 <투증가서개부이십운(投贈哥舒開府二十韻)> 시에, “몸을 막는 장검 한 자루를, 공동산에서 비껴들고 싶다오.[防身一長劍 將欲倚崆峒]”라 하였다. 《補注杜詩 卷17 投贈哥舒開府二十韻》

가지 하나에 꽃잎 떨어져 동쪽 바람 타고 내려오네

一枝花落下東風

한(漢)나라 역사를 보고 감회가 있어

讀漢史有感

한나라 문제(文帝) 말 달리기를 좋아하니

漢文皇帝好馳馬

말 위에서의 위험 스스로 알지 못하였네

上艱難不自知

당시 조정에 사람 몇이나 있었건만

當日巖廊人幾許

결국 원씨(袁氏)에게 미루어 은미한 간언 아뢰도록 하였네⁵⁰⁶

竟推袁氏進微辭

두 번째

其二

한나라 문제(文帝) 태평한 시대 이루고자 하여

漢文皇帝欲太平

오제(五帝)에 대한 신사(神祠) 처음으로 지었네

五帝神祠始經營

인의(仁義)는 본래 왕자(王者)의 일이니

仁義自是王者事

고생해가며 분양(汾陽)에 행차할 필요는 없었네⁵⁰⁷

不須辛苦幸汾陽

506 한나라……하였네 : 한 문제(漢文帝)가 장안(長安) 동쪽 패릉(霸陵) 위에서 수레를 달려 내려가려 하자, 원앙(袁盎)이 말고삐를 잡고 “험한 산길을 고려하지 않고 달리다가 말이 놀라 수레가 넘어지면, 폐하 자신의 몸이야 하찮게 보신다 하더라도 고조(高祖)의 사당과 태후(太后)께 장차 어찌하시겠습니까?”라 하며 만류한 고사가 전한다. 《漢書 卷49 袁盎傳》

507 한나라……없었네 : 한나라 때 망기술(望氣術)에 밝은 신원평(新垣平)이 한 문제(漢文帝)에게 등용되어 벼슬이 상대부(上大夫)에 이르렀는데, 그는 장안(長安)의 동북쪽에 오제(五帝)의 신기(神氣)가 있으니 사당을 세워 상제(上帝)에게 제사 지내야 한다고 건의하여 위양(渭陽)에 오제묘(五帝廟)를 세우도록 하였다. 이듬해에 문제는 친히 오제묘에 행차하여 제사를 올렸다. 《史記 卷10 孝文本紀》《漢書 卷25 郊祀志》 이 시에서의 ‘분양(汾陽)’은 ‘위양(渭陽)’의 잘못된 듯하다.

달밤에 피리 소리를 듣고

月夜聞笛

이슬 기운 맑고 찬 십이루(十二樓) ⁵⁰⁸	露氣清冷十二樓
높은 난간 굽이굽이 달 밝은 가을이네	危欄曲曲月明秋
한 줄기 옥피리 소리 바람 따라 들려오니	一聲玉簫隨風便
왕자교(王子喬) ⁵⁰⁹ 가 난새 타고 넓은 거리 지나네	王子乘鸞過九衢

굶주린 백성이 길에 가득하니 느낀 바 있어 짓다

饑民盈路，感而有作。

천하의 창생(蒼生) 나의 형제이니	天下蒼生我弟兄
추위와 따뜻함, 굶주림과 배부름 또한 마음을 같이 하네	寒溫飢飽亦同情
만 권의 책을 읽은들 끝내 무슨 소용이리오	讀書萬卷終何用
안상문(安上門)의 유민 모습 그림으로 그리지 못하는걸 ⁵¹⁰	安上流民畫未成

508 십이루(十二樓) : 전설에 신선이 거쳐한다는 12층의 누대다.

509 왕자교(王子喬) : 주 영왕(周靈王)의 태자 진(晉)이다. 생황을 불어 봉황의 울음소리를 잘 내었는데 신선 부구공(浮丘公)을 만나嵩山(嵩山)으로 들어가 도술을 배운 지 30여 년 후 백학(白鶴)을 타고 구지산(緱氏山) 마루에 올라가 며칠을 있다가 떠나 버렸다고 한다. 《列仙傳 王子喬》

510 안상문(安上門)의…… 못하는걸 : 굶주림에 고통 받는 백성들을 위한 구제책을 임금에게 올리지 못함을 말한 것이다. 송(宋)나라 신종(神宗) 때 정협(鄭俠)이 안상문(安上門)의 감문관(監門官)으로 있으면서 가뭄과 조세에 시달리는 유민(流民)들이 고생으로 파리한 모습을 보고 그림을 그려서 황제에게 아뢰었는데, 신종이 이를 보고 조칙을 내려 자책하고는 왕안석(王安石)의 청묘법(靑苗法)을 폐지하자, 하늘이 그제야 큰 비를 내렸다고 한다. 그 그림은 <유민도(流民圖)>라고 한다. 《宋史 卷321 鄭俠列傳》

산사(山寺)에 묵다

宿山寺

우두커니 단정하게 앉아 밤이 더욱 깊어지니	兀然端坐夜更深
달이 부들방석을 비취 냉기가 스며드네	月照蒲團冷氣侵
네모난 못으로 걸어 나옴에 바람도 일어나지 않으니	步出方塘風不起
쓸쓸하게 말없이 하늘을 대하네	蕭然無語對天心

경인년(1650, 27세) 정월

庚寅正月

안회(顔回)는 30세에 이미 인(仁)을 이루었으니	顔回三十已成仁
고요하고 조용하게 성신(聖神)에 계합(契合)하였네 ⁵¹¹	靜默從容契聖神
나는 올해로 27세인데	而我今年二十七
끝내 무슨 일로 사람 부류에 끼 수 있겠는가	竟將何事齒諸人

비 갠 뒤에 감회가 있어

霽後有感

바람이 먼지 일으켜 온 세상이 흐릿해지니	風拂驚塵宇宙迷
컴컴한 가운데 범 포효하고 원숭이 울음소리 뒤섞이네	暝暝虎嘯雜猿啼
잠깐 가랑비 내리다가 하늘 맑게 개니	須臾霎雨天開霽

511 안회(顔回)는……계합하였네 : ‘성신(聖神)’은 옛적의 성인(聖人)을 가리키는 말로, 공자(孔子)를 의미한다. 안회(顔回)는 공자(孔子)의 제자 가운데 가장 뛰어난 학덕(學德)을 지니고 있었으나 32세의 나이로 요절하였다. 《논어》〈용야(雍也)〉에 공자가 “안회는 그 마음이 석 달 동안 인을 어기지 않았고, 나머지 사람은 하루나 한 달에 한 번 인에 이를 따름이다.[回也其心三月不違仁 其餘則日月至焉而已矣]”라 하며 그의 인(仁)을 인정한 대목이 보인다.

이전처럼 앞 시내에 달빛 내려오네

依舊前溪月色低

공당(公堂)의 제비

公堂鷺

내가 깃 달린 무지한 동물임을 아니

知爾無知一羽虫

몸 의탁하는 것은 풀숲 속이 참으로 알맞았을 것이네

寄身端合草林中

어찌하여 이 붉은 누각 위에 와서

如何來此朱樓上

함부로 진흙을 물어다 그림 속의 용을 더럽히는가

慢使啣泥污畫龍

한가로이 지내며

閒居

종이창 밝고 깨끗하며 작은 헌(軒) 그윽하니

紙窓明淨小軒幽

온 방 맑고 텅 비어 만사를 그만두었네

一室清虛萬事休

고요하게 말없이 흙인형⁵¹²처럼 앉아서

靜默不言泥倣【恐作塑】坐

산중의 해가 상머리를 비추는 것을 다만 바라보네

只看山日照床頭

512 흙인형 : 원문은 '니소(泥倣)'인데, '니소(泥塑)'의 잘못된 듯하다. 사랑좌(謝良佐)가 정호(程顥)의 인품을 평하면서, "명도 선생은 온종일 단정히 앉아있을 때에는 흙인형과 같았으나, 사람을 대하면 완전히 한 덩어리의 화기였다.[明道先生 終日端坐 如泥塑人 及至接人 則渾是一團和氣]"라 한 데서 유래한 표현이다. 《近思錄 卷14 觀聖賢》

부질없이 제하다

謾題

천지는 마음이 없지만 마음이 있고
 인생은 마음이 있지만 도리어 마음이 없네⁵¹³
 마음 있음과 없음의 경계를 알고자 한다면
 모름지기 내 몸의 마음 하나를 살펴야 하리

天地無心而有心
 人生有心還無心
 欲知有心無心際
 須察吾身一箇心

밤에 일어나 떨어지는 꽃을 완상하며

夜起翫花下

날리는 꽃 점점이 그윽한 향 은은하니
 이슬 빈 계단에 떨어져 초의(草衣)를 적시네
 인적 없고 밤 깊으며 바람도 일어나지 않으니
 뜨락 가득한 밝은 달 아래 지팡이 짚고 돌아오네

飛花點點暗香微
 露下空階濕草衣
 人靜夜深風不起
 滿庭明月一筇歸

구월 저녁

九月日夕

늦가을에 앞산에서 저녁 기러기 우니
 석양 비껴들어 금성(錦城)⁵¹⁴의 숲 붉어졌네
 긴 하늘 사방으로 뻗어 어둑거나 막힌 곳 없으니
 산들바람만이 푸른 하늘을 지나네

秋晚前山叫暮鴻
 夕陽斜入錦林紅
 長天四達無幽碍
 惟有微風過碧空

513 천지는……없네 : 천지는 원래 마음이 없는 존재이지만 마치 마음이 있는 듯 보이며, 사람 사는 세상은 원래 인정이 있어야 하지만 도리어 무정하게 느껴진다는 말이다.

514 금성(錦城) : 나주(羅州)의 옛 이름이다.

섬들 앞의 늦은 국화

階前晚菊

국화에 찬 향기 있어 서리 아래 피었으니 ⁵¹⁵	菊有寒香霜下開
저물녘에 봄뜻을 홀로 심고 가꾸었네	晚天春意獨栽培
때 늦어 홀로 서기 어려움을 한탄하지 말라	莫恨後時難自立
정원 가득한 소나무와 대나무 모두 시기하는 마음 없으니	滿園松竹共無猜

즐거움을 기록하다

誌樂

들에서 벼와 가장 수확하니 굶주림 면하기 충분하고	野穫稻粱足免饑
정원에서 토란과 밤 거두니 맛난 음식 대신할 수 있네 ⁵¹⁶	園收芋栗代甘肥
책상 위에는 또한 《심경(心經)》 ⁵¹⁷ 있으니	床頭亦有西山訣
본성을 기르고 정신을 수양하여 사비(四非)를 바로 잡네 ⁵¹⁸	養性頤神攻四非

515 국화에……피었으니 : 국화는 서리 내리는 추위 속에서 피는 꽃이다. 도연명(陶淵明)의 시 〈화곽주부(和郭主簿)〉에, “향기로운 국화는 숲 사이에 활짝 피고, 푸른 소나무는 바위 위에 줄지었네. 소나무는 곧은 절조 가슴에 품고, 국화는 서리 아래 걸물이 되었도다.[芳菊開林耀 青松冠巖列 懷此貞秀姿 卓爲霜下傑]”라 하였다. 《陶淵明集 卷2》

516 정원에서……있네 : 이 구절은 두보(杜甫)의 시 〈남린(南鄰)〉에 “까만 각진 쓰신 우리 금리 선생, 정원에서 토란과 밤 거두어 아주 가난하지는 않네.[錦里先生烏角巾 園收芋栗不全貧]”라고 한 대목을 참고한 것이다. 《杜少陵詩集 卷9》

517 심경(心經) : 원문은 ‘서산결(西山訣)’이다. 서산(西山)은 송(宋)나라 진덕수(眞德秀)의 호로, ‘서산결’이란 곧 그가 엮은 《심경(心經)》을 말한다.

518 사비(四非)를 바로 잡네 : 예(禮)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시청언동(視聽言動)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논어(論語)》 〈안연(顏淵)〉에, 안연(顏淵)이 공자에게 인(仁)을 묻자 공자가 이르기를, “사욕을 이기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 인이다.[克己復禮爲仁]”라고 하므로, 안연이 다시 그 조목(條目)을 묻자, 공자가 이르기를, “예가 아니거든 보지를 말고, 예가 아니거든 듣지를 말고, 예가 아니거든 말하지 말고, 예가 아니거든 행동하지 말아야 한다.[非禮勿視 非禮勿聽 非禮勿言 非禮勿動]”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論語 顏淵》

달빛 아래서 읊다

月下吟

꽃 그림자 처음 움직여 달빛 아래 그늘지니	花影初移月下陰
맑은 서리 가벼이 내려와 옷깃을 적시네	淡霜微降濕衣襟
도연명(陶淵明)이 술에 취한 뒤에	靜想淵明醉酒後
갈건(葛巾)을 비껴 두르고 긴 거문고 매만지던 일 ⁵¹⁹ 고요히 생각하네	葛巾橫帶撫長琴

조는 새

眠鳥

뾰족한 부리 돌려 감춘 새 작은 가지에 의지하니	反觜藏尖倚小枝
산들바람 불어오자 깃털 나부끼네	微風吹起羽毛披
묵묵히 너의 마음 속 일 알겠으니	默然會爾心中事
꿈에서 잠자리 쫓아 대나무 울타리를 휘돌겠지	夢趁蜻蜓繞竹籬

한가로이 지내며 성찰하다【4수】

閒居省察【四首】

가슴 속에 하나의 조정을 따로 세우니	胸中別立一朝廷
주객(主客)과 군신(君臣) 간에 분의(分義)가 분명하네	主客君臣分義明
만물이 조정에 함께 서서 다 같이 명을 들으니	萬品同朝咸聽命
은 당(堂)에 일이 없고 다만 허령(虛靈)할 뿐이네	一堂無事但虛靈

519 도연명(陶淵明)이……일 : 진(晉)나라의 은사(隱士) 도연명(陶淵明)은 거문고를 연주할 줄 모르면서도 집안에 줄 없는 거문고 하나를 두었다. 그리고는 술을 마시고 흥취가 일어날 때면 이를 어루만지며 “거문고의 정취만 알면 그뿐이지, 굳이 줄을 튕겨 소리를 낼 것이 있리라.[但識琴中趣 何勞絃上聲]”라 하였다고 한다. 《晉書 卷94 陶潛列傳》

【위는 마음이 만사를 거느림이다.】

【右心統萬事】

아침 내내 괴롭게 다뤘으나 전공(戰功)이 없으니 終朝苦戰戰無功
어지러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 마치 쭉대머리와 같네 起滅紛紜似亂蓬
승패와 흥망 아직 판가를 나지 않았으니 勝敗興亡猶未判
잡아 지키는⁵²⁰ 방략(方略)은 원수(元帥)에게 달려 있네 操存方略在元戎
【위는 이욕(理欲)이 서로 다툼이다.】 【右理欲交戰】

기린각(麒麟閣)⁵²¹ 위에 공신(功臣) 그려져 있으니 麒麟閣上畫功臣
지수(志帥)⁵²²의 훈공과 명성 첫 번째라네 志帥勳名第一人
이로부터 태평한 시대 비로소 점칠 수 있으니 自此昇平方可占
시를 짓고 서로 이어 화담함애⁵²³ 옛 나라 새로워지네 作詩賡詠舊邦新
【위는 뜻이 기(氣)를 거느림이다.】 【右志以御氣】

많은 관원 조회에 모였다가 일이 다 끝나 조정이 텅 비니 萬官朝虛庭空
대(臺) 위의 깊은 궁에 상서로운 해 붉네 臺上深宮瑞日紅
저 속에서 참된 의미를 알고자 한다면 那裏欲知眞箇意
천 길 깊이의 옥연(玉淵) 바람도 없이 맑은 것을 보아야 하리 玉淵千仞淡無風
【위는 일이 지나고 사물이 떠남이다.】 【右事過物去】

520 잡아 지키는 : 원문은 ‘조존(操存)’이다. 마음을 잡아 굳게 지키는 것을 말한다. 《맹자》〈고자 상(告子上)〉에, “공자가 이르기를 ‘잡고 있으면 보존되고, 놓아 버리면 없어지며, 나가고 들어오는 것이 일정한 때가 없고, 어디를 향할지 종잡을 수 없는 것은 오직 사람의 마음을 두고 말할 것이다.’ 하였다.[孔子曰 操則存 舍則亡 出入無時 莫知其鄉 惟心之謂與]”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521 기린각(麒麟閣) : 한(漢)나라 선제(宣帝) 때 광광(霍光) 등 11명의 공신(功臣) 초상화를 봉안한 전각 이름이다. 후대에는 모든 공신각을 일컫는 말로 쓰였다. 《漢書 卷54 蘇武傳》

522 지수(志帥) : 《맹자》〈공손추 상(公孫丑上)〉에, “지(志)는 기(氣)의 장수이다.[夫志 氣之帥也]”라 한 데서 유래한 말로, 뜻[志]을 장수로 의인화하여 표현한 것이다.

523 시를……화담함애 : 원문은 ‘작시갱영(作詩賡詠)’이다. 임금과 신하가 서로를 권면하며 노래를 수창하는 것으로, 순(舜) 임금과 고요(皋陶)가 노래를 주고받으며 공경히 직무를 수행할 것을 권면한 데서 유래한 말이다. 그러한 노래를 ‘갱제가(賡載歌)’라 한다. 《書經 益稷》

오랜 장마

久霖

오랜 장맛비 한 달을 넘겨 땅이 손상될까 두려우니	陰霖踰月地怕瘵
아득한 하늘의 뜻 내가 어찌 알겠는가	天意茫茫我豈知
종일토록 대나무 창에 말없이 앉아 있으니	終日竹窓無語坐
한 편의 <홍범(洪範)> 틱 괴고서 읽네 ⁵²⁴	一篇洪範對支頤

두 번째

其二

질은 구름과 오랜 비 사나운 바람 일으키니 ⁵²⁵	頑雲陰雨動癡風
하늘빛 보지 못한 지 한 달이 다 되어가네	不見天光月已窮
반공(半空)의 구름비 너머를 아득히 생각하니	遙想半天雲雨外
분명한 밝은 해가 하늘 가운데 자리하고 있겠지	分明白日正當中

우연히 읊다

偶吟

뭇별들 북두성(北斗星)으로 함께 돌아가고 ⁵²⁶	衆宿共歸三四斗
천 송이의 꽃 끝내 두세 열매를 맺었네	千花終結兩三顆

524 한 편의……읽네 : ‘홍범(洪範)’은 《서경》의 편명으로, 기자(箕子)가 주 무왕(周武王)의 물음에 대하여 천지와 인간의 큰 법칙(洪範)을 말한 것이다. 우(禹) 임금이 홍수를 다스릴 적에 얻은 신성한 거북이의 등에 천하를 다스리는 아홉 개의 큰 법이 새겨져 있었는데, 이것이 홍범의 기원이 되었다고 한다. 오랫동안 장맛비가 계속되고 있었으므로 우 임금이 홍수를 다스릴 때 얻은 <홍범>을 읽는다고 말한 것이다.

525 일으키니 : 원문은 ‘훈(動)’인데, 문맥을 살펴 ‘동(動)’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526 뭇별들……돌아가고 : 뭇별들이 북두성을 중심으로 돈다는 뜻이다. 《논어》〈위정(爲政)〉의 “정사를 덕으로 하는 것은 비유하자면 북두성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별들이 그를 향하는 것과 같다.[爲政以德 譬如北辰居其所 而衆星共之]”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만약 모래와 자갈에서 금옥(金玉)을 찾는다면
밝은 거울을 먼저 충분히 닦아야 할 것이네

若從沙礫尋金玉
明鏡先須十分磨

밤에 앉아

夜坐

선방(禪房)의 창가에서 한밤중에 꿈에서 막 깨니
은하수 서쪽으로 흘러 물소리 나는 듯하네
그저 작은 난간에 기댔에 산 적막하네
뜨락 가득 밝은 달 비추고 바위샘 소리 울리네

禪窓午夜夢初醒
星漢西流欲水聲
徒倚小軒山寂寂
滿庭明月石泉鳴

감회를 쓰다

書懷

대장부의 마음 물과 거울처럼 맑으니
오관(五官)⁵²⁷에 얽매임 없어 기운이 언제나 평온하네
가슴 속 참된 소식을 논한다면
비 갠 뒤의 가을 하늘 달이 참으로 밝은 것이라네

大丈夫心水鏡清
五官無累氣常平
若論智裏真消息
霽後秋天月正明

책을 보다

看書

옛 사람이 학문을 논한 것 저마다 달랐으니

古人論學在西東

527 오관(五官) : 다섯 가지의 감각 기관, 즉 눈·귀·코·입·마음을 말한다.

초목과 곤충처럼 모습이 같지 않네	草木昆虫貌不同
만약 같지 않은 데에서 지극한 합일을 구한다면	若向不同求至合
만 개의 머리 천 개의 얼굴도 일원(一元) 가운데 있음을 보아야 하리.	萬頭千面一元中

두 번째

其二

나는 인간 세상의 일 모두 헛됨을 아니	吾知人事皆虛
잠깐 사이에 뜬 구름 제멋대로 몽쳤다 흩어지네	頃刻浮雲任卷舒
종일토록 대나무 창에 다른 물건 두지 않고서	終日竹窓無箇物
우두커니 앉아 상 위의 책을 한가로이 읽네	兀然閒對一床書

《참동계(參同契)》⁵²⁸를 읽었으나 그 오묘한 이치를 궁구하지 못하였다. 국화를 심다가 감회를 일으키다.

【나는 평소 병이 많아 약물과 수련하는 방법에 대해 깊이 살피지 않음이 없었다. 일찍이 위백양(魏伯陽)이 지은 《참동계》의 비법을 들었으나 궁벽한 곳에서 구할 수가 없었다. 무신년(1668, 45세) 연간에 남운로(南雲路) 529 영공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일을 언급하였는데, 남공이 빌려 주기를 허락하였다. 기유년(1669, 46세) 봄 천리 먼 곳에 전해주었기에 한 해 남짓 읽어 보았으나 그 오묘한 이치를 궁구하지 못하였다. 지금 국화를 심다가 문득 생각이 미쳐 그 뜻을 부친다.】

閱參同契，莫究其妙，仍種菊起感。【余平生多病，凡藥餌修鍊之方，無不窮考。嘗聞魏伯陽參同契之術，而僻地無可求。戊申年間，邂逅南雲路令公話及之，

528 참동계(參同契) : 한(漢)나라 위백양(魏伯陽)이 지은 책으로, 《주역(周易)》 효사(爻辭)에 맞추어 연단(鍊丹)하는 방법을 논하였다.

529 남운로(南雲路) : 남구만(南九萬, 1629~1711)을 가리킨다. 운로(雲路)는 그의 자. 본관은 의령(宜寧), 호는 약천(藥泉)이다. 1656년 과거에 급제하여 교리, 대사성, 함경도 관찰사, 형조판서 등을 거치고 삼정승을 역임하였다. 《韓國文集叢刊解題 4 藥泉集》

南許以栢⁵³⁰情. 己酉春, 千里遠傳, 披閱歲餘, 莫究其妙. 今仍種菊而忽念及焉, 以寓其意也云.】

구전(九轉)의 금단(金丹)⁵³¹ 만드는 방법 전해지지 않으니 九轉金丹術未傳
 술 안의 용호(龍虎) 끝내 달이기 어렵네⁵³² 鼎中龍虎竟難煎
 꽃잎 먹으면서 차라리 도 팽택(陶彭澤)을 배우겠으니 啜英寧學陶彭澤
 동쪽 울타리에 술 취해 누우니 이 또한 신선이네⁵³³ 醉臥東籬亦是仙

병이 나아 우연히 쓰다

病已偶書

마음 위에 하늘 위의 일을 넉넉하게 보존하니 心上剩存天上事
 미간에 세상의 근심 걸어두지 않네 眉間不掛世間愁
 한 구역의 뗏집 푸른 강가에 있으니 一區茅屋清江上
 마치 겹성과 십이루(十二樓)⁵³⁴에 누운 듯 似臥重城十二樓

530 栢 : 오자로 추정되나, 어떤 글자의 오자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531 구전(九轉)의 금단(金丹) : 도가(道家)에서 제조하는 장생불사약(長生不死藥)으로, 아홉 번의 단계를 거쳐야 완성된다고 한다.

532 술……어렵네 : 연단술을 익히기 어렵다는 말이다. ‘술’은 도가(道家)에서 단약(丹藥)을 제련할 때에 사용하는 것이며, ‘용호(龍虎)’는 도가에서 정기(精氣)를 이르는 말이다. 《주자어류(朱子語類)》 권125 <참동계(參同契)>에, “갑과 리, 수와 화, 용과 호, 납과 수운은 따위는 다만 그 이름을 바꿔 부르는 것일 뿐이요, 그 실체는 다만 정과 기 두 가지일 뿐이다. 정은 수와 갑, 용과 수운이고, 기는 화와 리, 호와 납이다.[坎離水火龍虎鉛汞之屬 只是互換其名 其實只是精氣二者而已 精 水也 坎也 龍也 汞也 氣 火也 離也 虎也 鉛也]”라 하였다.

533 꽃잎……신선이네 : 도 팽택(陶彭澤)은 팽택 현령(彭澤縣令)을 지냈던 도연명(陶淵明)으로, 그는 국화를 매우 좋아하였다. 그의 <잡시(雜詩)>에, “동쪽 울타리 아래에서 국화를 따고, 유유히 남산을 바라보노라.[採菊東籬下 悠然見南山]”라 하였다.

534 겹성과 십이루(十二樓) : 천제(天帝)가 사는 곳을 말한다. 이백(李白)의 시 <경난리후천은유아랑역구유서회증강하위태수양재(經亂離後天恩流夜夜憶舊遊書懷贈江夏韋太守幸宰)>에, “천상에는 백옥경(白玉京)이 있어, 십이루(十二樓)에 오성(五城) 있다네.[天上白玉京 十二樓五城]”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시황(始皇)

始皇

시황은 당시에 백성들 어리석게 만들고자 하여 ⁵³⁵	始皇當日欲愚民
천하의 병기를 가지고 12개의 금인(金人)을 만들었네 ⁵³⁶	天下兵成十二人
누가 알았겠는가 품을 팔아 밭 갈던 자가	誰識傭耕農畝者
호미 메고서 봉기하여 마침내 진나라 멸망시킬 줄 ⁵³⁷	荷鋤蜂起竟亡秦

낙화

落花

꽃잎 무심하게 바람 따라 날리니	飛花無意信遊風
서쪽 교외 막 지나고서 다시 동쪽을 향하네	纔過西郊又向東
나비 은연중에 한 가닥 향기를 따르니	蝴蝶暗隨香一縷
위로 높은 가지에 올랐다가 가지 떨기로 내려오네	上穿高枝下枝叢

밤을 읊다

詠栗

뾰뾰한 밤 가지 세 봉우리를 감싸니	森森戈戟擁三峯
---------------------	---------

535 시황은……하여 : 진 시황이 천하를 통일한 뒤에 이사(李斯)의 건의를 받아들여 분서갱유(焚書坑儒)와 같은 우민정책(愚民政策)을 시행한 것을 말한다. 《사기》〈진시황본기(秦始皇本紀)〉에, “이에 선왕의 도를 폐하고 백가의 말을 불태워 백성을 바보로 만들었다.[於是廢先王之道 焚百家之言 以愚黔首]”라 한 대목이 보인다.

536 천하의……만들었네 : 진 시황이 천하를 통일한 뒤에 육국(六國)의 병기(兵器)를 걷어 함양(咸陽)에 모아서 녹인 다음, 이것으로 모두 12개의 금인(金人)을 만들어 궁궐 뜰에 세웠다는 고사가 전한다. 《史記 卷6 秦始皇本紀》

537 누가……줄 : 진(秦)나라 말기에 농민인 진승(陳勝)과 오광(吳廣)이 반란을 일으켜 결국 진나라가 망하게 된 일을 가리킨다. 《史記 卷48 陳涉世家》

자모성(子母城) ⁵³⁸ 안에 그 봉분을 파묻었네	子母城中窆厥封
끊임없이 생성하는 ⁵³⁹ 무한한 뜻 머금고서	含得生生無限意
눈바람 참고 견디며 한겨울을 지낸다네	忍穿風雪過隆冬

도민촌(道民村)⁵⁴⁰

道民村

문공(文公) ⁵⁴¹ 의 고크 안의 백공(白公) ⁵⁴² 의 다스림	文公鄉裏白公治
천년된 아름다운 명성 야로(野老)들이 알고 있네	千載休聲野老知
아직도 오래된 회화나무 서너 그루 있으니 ⁵⁴³	猶有古槐三四樹
가지 그늘 예전처럼 그림자 어지럽네	絲陰依舊影參差

538 자모성(子母城) : 내성(內城)과 외성(外城)이 있는 이중성(二重城)을 말한다. 밤을 감싸고 있는 껍질을 성에 비유한 것이다.

539 끊임없이 생성하는 : 원문은 ‘생생(生生)’이다. ‘생생’은 만물이 끊임없이 생겨나는 모양으로, 《주역》〈계사전 상(繫辭傳上)〉에, “끊임없이 낳는 것을 ‘역’이라 이른다.[生生之謂易]”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540 도민촌(道民村) : 김만영이 살던 고크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전라도(全羅道)·남평현(南平縣)〉에, “도민부곡(道民部曲). 현에서 서남쪽으로 16리 떨어져 있다.”라 되어 있다.

541 문공(文公) : 남평(南平)을 관향으로 하는 고려 때 문신 문극겸(文克謙, 1122~1189)을 가리키는 듯하다. 본관은 남평, 자는 덕병(德柄)이다. 의종(毅宗) 때 문과에 급제하여 좌정언(左正言), 황주 관관, 전중내급사(殿中內給事) 등을 맡았다. 1170년 정중부(鄭仲夫)의 난 때 죽임을 당할 뻔하였으나 좌정언 때 직언한 일로 화를 면하였고, 1171년에는 우승선 어사중승(右承宣御史中丞)이 되어 많은 문신들을 화에서 구하였다. 이후 용호군대장군(龍虎軍大將軍), 태자소사(太子少師), 중서시랑평장사(中書侍郎平章事), 권판상서이부사(權判尚書吏部事) 등을 역임하였다.

542 백공(白公) : 남평 현감(南平縣監)을 지낸 백인걸(白仁傑, 1497~1579)을 가리키는 듯하다. 본관은 수원(水原), 자는 사위(士偉), 호는 휴암(休菴)이다. 1537년 과거에 급제하여 예문관 검열과 예조 좌랑을 지냈고, 남평 현감이 되어 학당을 세우고 학장(學長)을 두어 자제들의 교육에 힘썼다. 이후 대사간, 대사헌, 병조 참관, 공조 참관 등을 역임하였다.

543 아직도……있으니 : 주(周)나라 때 궁정의 바깥에 세 그루의 회화나무가 있었는데, 삼공이 천자를 조회할 적에 이 회화나무를 바라보고 서 있었으므로, 후대에는 이를 인해 정승이 있는 곳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게 되었다. 《周禮 秋官》 과거 도민촌에서 배출된 고관(高官)들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음을 말한 것이다.

가을밤 잠 못 이루고 홀로 앉아

秋夜獨坐無眠

긴 밤 잠 못 이루어 상천(上天)을 대하니	永夜無眠對上穹
작은 헌(軒) 마치 별 빛나는 하늘과 닿을 듯 높네	小軒高若接星空
인간 세상의 무수한 사람들을 굽어보니	俯窺人世千億
귀한 이 천한 이 할 것 없이 모두 한낱 꿈속에 빠져 있네	貴賤同沉一夢中

입으로 읊조려 어리석은 아이들을 비웃고 꾸짖다

口號嘲責頑兒輩

산 고요하고 숲 깊으며 해가 또 더디니	山靜林深日又遲
상 위에서 서책 읽다가 해질 때에 이르렀네	一床書史到曛時
화정 처사(和靖處士)의 한가한 가운데의 일	和靖處士閒中事
똥지게 지는 것과 바둑을 두는 것은 배우지 않았네 ⁵⁴⁴	不學擔糞與着碁

두 번째

其二

남쪽 물가의 봄빛 이 때가 가장 좋으니	南洲春色最此時
무한한 꽃의 빛 각기 가지에 달려 있네	無限花光各在枝

544 화정 처사(和靖處士)의……않았네 : 화정 처사(和靖處士)는 임포(林逋, 967~1028)로 자는 군복(君復)이며, 사후에 화정 선생(和靖先生)이란 시호를 받았다. 서호(西湖) 고산(孤山)에 은거하면서 20년 동안 세상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다. 매화를 심고 학을 기르며 홀로 살았으므로 당시 사람들이 그를 두고 “매화를 아내로 삼고 학을 자식으로 삼았다.[梅妻鶴子]”라 일컬었다. 또 그는 “나는 세간의 일은 다 할 줄 아는데 똥지게를 지는 것과 바둑을 두는 것만 할 줄 모른다.”라 하였다. 《事文類聚 卷42 碁》

앞 시내를 지나며 높은 흥 충만해지니 行過前川高興足
종일토록 박으로 만든 바둑을 두고 있을 필요는 없다네 不須終日對瓢碁

집안에 쌀이 떨어져 장난삼아 절구 한 수를 짓다

舉家絕粒, 戲成一絕.

온 집안에서 곡기를 끊어 신선술을 배우고자 하니 渾室休糧欲學仙
그대로 사흘이 지나자 솥에 연기가 일지 않네 直過三日鼎無烟
지금부터 유안(劉安)의 집을 볼 수 있으리니 從今可見劉安宅
개 짖고 닭 우는 소리 구름 산봉우리 옆에서 들릴 것이네⁵⁴⁵ 犬吠鷄鳴雲岵邊

구름 봉우리

雲峯

하늘은 큰 바다의 끝없이 넓음을 싫어하니 天嫌洋海闊無邊
큰 악어와 긴 고래 앞뒤로 이어져 있네 巨鱔長鯨接後先
천만 겹 곤륜산(崑崙山)⁵⁴⁶을 옮겨 놓으니 移却崑崙千萬疊
깎은 듯이 높이 솟아 대라천(大羅天)⁵⁴⁷을 건너네 截然高插濟羅天

545 지금부터……것이네 : 한(漢)나라 회남왕(淮南王) 유안(劉安)이 단약(丹藥)을 단련하여 이를 먹고 대낮에 승천하였는데, 개와 닭이 그가 먹다 남은 선약을 훔아 먹고 그들도 모두 승천하여 구름 위에서 개가 짖고 닭이 우는 소리가 들렸다는 고사가 전한다. 《神仙傳 劉安》

546 곤륜산(崑崙山) : 중국의 서쪽에 있다는 상상 속의 산으로, 서왕모(西王母)가 그곳에 살며 산 위에는 예천(醴泉)과 요지(瑤池)가 있다고 한다.

547 대라천(大羅天) : 도교에서 말하는 천계(天界)의 하나로, 최고 신인 원시천존(元始天尊)이 있는 곳이다.

피꼬리

鷲

천지의 중색(中色) ⁵⁴⁸ 으로 금 소리를 얻으니	乾坤中色得金聲
주조(朱鳥)가 남쪽에 있을 때 곧 변화하여 생겨난 것이라네 ⁵⁴⁹	朱鳥南時便化生
울음에 만 가지 무한한 뜻을 실어 보내니	啼送萬端無限意
녹음(綠陰) 짙은 나무 높은 곳에 있을 때가 가장 정겹네	綠陰高處最多情

두 번째

其二

황금을 허리에 두르고서 천은(天恩)에 감격하니	黃金橫帶感天恩
입으로 차근차근 수만 마디 말을 하네	口舌循循數萬言
옛날 삼동(三冬)을 숲속에서 보낼 적의 뜻	曾昔三冬林下志
바로 오늘부터 따사롭게 말을 하네	直從今日語溫溫

제비

鷲

갈 때는 무슨 마음이고 올 때는 또 무슨 마음인가	去以何心來亦何
이를 통해 모든 행동 다른 곳에 머무르지 않음을 알겠네	從知動靜不留他
북풍(北風)과 비와 눈을 그대 능히 멀리하였으니	北風雨雪君能遠

548 중색(中色) : 황색을 뜻한다. 방위로 보면 황색이 중앙의 자리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549 주조(朱鳥)가……것이라네 : ‘주조(朱鳥)’는 이십팔수(二十八宿) 중 남방(南方)에 자리한 정(井)·귀(鬼)·유(柳)·성(星)·장(張)·익(翼)·진(軫) 등 일곱 개 별자리의 총칭으로, 춘분(春分) 날 황혼(黃昏)이 된 뒤에 일곱 별자리가 다 오위(午位)에 있게 된다고 한다. 봄이 되어 피꼬리가 나온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구름

雲

회오리바람 ⁵⁵⁰ 흰 옷 같은 구름을 일으키니	羊角扶搖起白衣
구중천의 안색 남김없이 가리네	九天顏色蔽無幾
여름 해 ⁵⁵¹ 를 가리지 않고 겨울 해를 가리니	不遮畏日遮冬日
만물이 어디에서 덕스러운 빛을 볼 수 있을까	品物何由見德輝

550 회오리바람 : 원문은 ‘양각부요(羊角扶搖)’로, 회오리바람을 말한다. 《장자》〈소요유(逍遙遊)〉에, “그 이름이 봉새인데, 등은 태산 같고 날개는 하늘에 드리운 구름 같다. 회오리바람을 타고 구만 리를 올라 구름을 뚫고 간다.[其名爲鵬 背若泰山 翼若垂天之雲 搏扶搖羊角而上者九萬里 絕雲氣]”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551 여름 해 : 원문은 ‘외일(畏日)’이다. 사람을 두렵게 하는 여름날의 태양이라는 뜻이다. 춘추 시대 노국(潞國)의 대부(大夫) 풍서(酆舒)가 진(晉)나라 가계(賈季)에게 “진의 대부 조돈(趙盾)과 조쇠(趙衰) 중에 누가 더 어진가?”라고 묻자, 가계가 “조쇠는 겨울날의 햇빛이요, 조돈은 여름날의 햇빛이다.”라고 대답하였는데, 그 주(註)에 “겨울 햇빛은 사랑할 만하고, 여름 햇빛은 사람을 두렵게 한다.”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春秋左氏傳 文公7年》

양류음

楊柳吟

몇 그루의 버드나무 문 앞에 심으니	數株楊柳種門前
푸른 잎 비 온 뒤에 새로 돌아나네	綠葉新生雨後天
가는 줄기에 긴 실처럼 드리운 가지 화창한 햇살에 자라니	細幹長絲條暢日
주인翁은 이 시편(詩篇)을 꼭 기억해야 하리	主翁須記此詩篇

두 번째

其二

시골의 거처 맑은 물가 옆에 새로 정하니	野居新卜傍清漪
버드나무 줄 맞춰 심어 짧은 울타리를 둘렀네	種柳成行繞短籬
어느 날에나 드리운 실가지가 푸른 장막을 이루어	何日垂絲成翠幕
좋은 바람 숨겨 두고서 누런 피꼬리와 이야기 나눌까	好風藏得語黃鸝

오랜 비에 술을 보내 준 사람에게 사례하다

久雨謝人送酒

늙은이 병이 많아 쓸쓸한 마을에 누웠으니	老夫多病臥荒村
비바람 하늘에 가득하여 홀로 문을 닫고 있네	風雨漫空獨閉門
다행히 다정한 벗 있어 좋은 술 보내주니	賴有情人送美酒
시름으로 병든 몸 억지로 부지하며 남쪽 난간에 기대네	強扶愁疾倚南軒

새벽

曉

금빛 닭 울어 밝은 새벽 여니	金鷄喔喔啓明辰
사해의 봄빛 하룻밤 지나자 환해졌네	四海春光一夜晨
동해에 막 해가 나온 모습을 상상해 보니	想見東溟初出口
천 길 자줏빛 물결에서 붉은 태양 목욕하겠지	紫波千丈浴紅輪

고을 사람이 군정(軍丁)을 징발하려고 어린 종을 끌고 가니 허탈하게 웃으며 시 한 수를 짓다

縣人括軍丁挽僮僕而去，笑成一律。

몇 칸의 네모난 집 들밭에 의지해 있으니	數間方宅寄郊田
뜬세상의 속세 소리 귓가에 이르네	浮世塵聲到耳邊
어느 곳이 푸른 산 운수(雲水)의 땅인가	何處碧山雲水地
한 구역 연월(烟月) 속에서 남은 세월 보내고 싶네	一區烟月送餘年

집 뒤의 장송

家後長松

천리 밖의 호산(湖山)에 잡초들이 자라니	千里湖山亂草生
야트막한 언덕에 우뚝 서서 널리 바라보네	斷立殘隴一望平
어찌하면 만 길 높이의 오랜 세월 ⁵⁵² 곧은 나무를 가져다가	安將萬仞千千直
창천(蒼天)의 밝은 해를 함께 일 수 있을까	共戴蒼天白日明

552 오랜 세월 : 원문은 '천간(千千)'인데, 문맥을 살펴 '간(干)'을 '천(千)'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감회가 있어

有懷

큰 봉새 날개 펼치고 중천(中天)에 서 있으니 ⁵⁵³	大鵬舒翼立中天
단비 흠뻑려 사방을 적셔 주네	揮灑甘霖澤四邊
남명(南溟)과 북해(北海) ⁵⁵⁴ 모두 가리지 않으니	南溟北海俱無擇
약목(若木)과 부상(扶桑) ⁵⁵⁵ 에 어찌 선후를 두겠는가	若木扶桑詎後先

자리 옆에 제하다

題座隅

어지러운 휘예(毀譽)에 내가 어찌 눈살 찌푸리리오	紛紛毀譽我何嘖
골짜기 속에 안개와 노을 있으니 또한 가난하지 않네	谷裏烟霞且不貧
종이 위의 옛 사람 고요히 마주하니	紙上故人相對靜
이 마음 얽매임 없어 기운이 항상 펴져 있네	此心無累氣常伸

553 큰……있으니 : 큰 봉새가 높은 하늘을 날아다님을 말한다. 《장자》〈소요유(逍遙遊)〉에, “북쪽 바다에 물고기가 있으니, 그 이름은 곤이다. 곤의 크기는 몇 천리인지 모른다. 변화하여 새가 되니, 그 이름은 봉이다. 봉의 등짝은 몇 천리인지 모른다. 기운차게 펼쳐 날아오르면 그 날개가 마치 하늘에 드리운 구름과 같다. 이 새는 바다가 움직이면 남쪽 끝의 검푸른 바다로 날아가려고 한다. 남쪽 바다란 하늘의 못, 천지다.[北冥有魚 其名爲鯤 鯤之大 不知其幾千里也 化而爲鳥 其名爲鵬 鵬之背 不知其幾千里也 怒而飛 其翼若垂天之雲 是鳥也 海運則將徙於南冥 南冥者 天池也]”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554 남명(南溟)과 북해(北海) : 남쪽 바다와 북쪽 바다를 말한다. 《장자》〈소요유(逍遙遊)〉에 따르면 봉새는 북쪽 바다에서 남쪽 바다로 옮겨 가는데, 날개를 치면 물결이 3천 리나 인다고 하였다.

555 약목(若木)과 부상(扶桑) : ‘약목(若木)’은 서쪽 곤륜산(崑崙山) 끝 해가 지는 곳에 있다고 하는 나무이고, ‘부상(扶桑)’은 동쪽 해가 뜨는 곳에 있다고 하는 나무이다.

남평(南平) 수령 송시결(宋時杰)⁵⁵⁶이 영장(營將)과 함께
구담(龜潭)을 노닐다

南平倅宋時杰，與營將遊龜潭。

산의 모습 옥처럼 깨끗하여 고인(高人)과 같으니	山顏玉潔似高人
온통 맑은 못 거울 같아 먼지도 끼지 않네	一面澄潭鏡不塵
듣자니 이곳에 속세 사람 왔다고 하니	聞道此間來俗子
분명 강가의 새 울던 부리 돌리겠지	想應江鳥反啼唇

밤에 비 내리고 아침에 개어

夜雨朝晴

어젯밤 뗏집에 이불 하나 펴 놓으니	昨夜茅茨布一衾
하늘 가득한 비바람 꿈속의 심사라네	滿天風雨夢中心
아침에 잠 깨어 가늘게 눈 떠보니	朝來試覺微開眼
예전처럼 밝은 창에 해가 바로 떠 있네	依舊明窓日正臨

어둑어둑할 무렵에 짓다

暝作

하늘은 얼마나 높으며 땅은 얼마나 낮은가	天何高也地何卑
나는 어떠한 사람이며 사물은 어떠한 때인가	我何人也物何時
어리석은 나 어두운 곳에 앉아 있으니	冥冥我坐冥冥裏

556 송시결(宋時杰) : 본관은 은진(恩津), 자는 수보(秀甫)다. 송시열(宋時烈)의 아우다. 음직으로 선공감 감역(繕工監監役)을 지내고 이후 순창 군수, 장악원 주부, 한성부 서윤, 고양 군수, 서산 군수 등을 역임하였다. 1665년 남평 현감(南平縣監)으로 부임하였다.

빛속의 해당화에 대해 장난삼아 제하여 아이들에게 보여준다
戲題雨中海棠，示兒輩.

선녀가 오색구름 궁궐에서 막 쫓겨나니	仙娥初罷五雲宮
향기로운 꿈에서 한(漢)나라의 사신과 만나 문득 놀라네 ⁵⁵⁷	香夢翻驚漢使通
푸른 소매 붉게 분한 뺨을 반쯤 가리니	翠袖半遮丹粉頰
한 줄기 남은 눈물 연지를 붉게 두르네	一行殘淚帶臙紅

청야음

清夜吟

밤기운 ⁵⁵⁸ 천지 중에 흥건하니	夜氣淋漓天地中
이슬방울 맺혀 하늘에서 내려오네	結成珠露下層空
흔 맑아 연정에 끌린 꿈 ⁵⁵⁹ 꾸지 않으니	魂清不作牽情夢
창망(蒼茫)한 큰 바다 동쪽에 높이 누워 있네	高臥蒼茫大海東

557 선녀가……놀라네 : ‘선녀’는 직녀(織女)를 가리키며 ‘한(漢)나라 사신’은 장견(張騫)을 가리킨다. 한(漢)나라 무제(武帝)가 장건으로 하여금 대하(大夏)에 사신으로 가서 황하(黃河)의 근원을 찾게 하였는데, 장건이 뗏목을 타고 거슬러 올라가다가 견우(牽牛)와 직녀를 만났다는 고사가 전한다. 《荊楚歲時記》

558 밤기운 : 원문은 ‘야기(夜氣)’다. 한밤에 사물의 생장(生長)을 돕는 맑은 기운으로, 인의(仁義)의 마음이 자라도록 돕는다고 한다. 《孟子 告子上》

559 연정에 끌린 꿈 :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꾸는 속된 꿈을 말한다. 당나라 온정균(溫庭筠)의 〈효선요(曉仙謠)〉에, “안개가 어지러운 속세의 수많은 집을 뒤덮으니 세상 사람들 아직도 연정에 이끌린 꿈꾸고 있네[霧蓋狂塵億兆家 世人猶作牽情夢]”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3월 그믐날 술 사러 간 사람이 이르지 않아

三月晦日，沽酒不至。

술 사러간 사람 어찌 이리도 더디게 돌아오는가	沽酒人歸何太遲
꽃핀 마을에 가랑비 내리고 석양이 옮겨 가네	花村微雨夕陽移
나는 사마상여 처럼 주갈(酒渴)이 있는 것이 아니니	吾非酒渴如司馬
이때에 봄빛을 전송하기 위해서라네 ⁵⁶⁰	爲送春光在此時

맑은 가을밤에 앉아

秋晴夜坐

서리 내린 풍림(風林) 이미 9월 가을이니	霜落風林已九秋
갠 하늘 맑고 상쾌하며 달이 낚싯바늘 모양을 이루었네 ⁵⁶¹	霽天清爽月成鉤
비로소 천지의 진면목을 알겠으니	始識乾坤真面目
티끌 하나도 가림 없이 두 눈동자에 비치네	一塵無碍映雙眸

560 나는……위해서라네 : ‘주갈(酒渴)’은 술을 마시고 싶어 일어나는 갈증을 말한다. 한(漢)나라 사마상여(司馬相如)는 만년에 늘 갈증을 느끼는 병인 소갈증(消渴症)을 앓았다고 한다. 《史記 卷117 司馬相如列傳》이 구절은, 자신이 술을 재촉하는 이유는 사마상여처럼 주갈을 앓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좋은 봄빛을 전송하기 위해서임을 말한 것이다.

561 달이……이루었네 : 초승달 혹은 그믐달의 모습을 읊은 것이다. 이러한 표현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고사가 보인다. 당나라 이백(李白)이 한 재상을 알현하면서 ‘해상조오객(海上釣鰲客)’이라 자칭하자, 재상이 묻기를 “선생이 창해에 입하여 큰 자라를 낚으려면 무엇을 낚 시와 줄로 삼겠는가?(先生臨滄海 釣巨鰲 以何物爲鉤絲)” 하니, 이백이 말하기를 “무지개를 낚싯줄로 삼고, 맑은 달을 낚시로 삼겠소.[以虹霓爲絲 明月爲鉤]”라 하였다. 《侯鯖錄 卷6》

꿈에서 짓다

夢作

유리보전(琉璃寶殿)과 수정궁(水精宮)	琉璃寶殿水精宮
상서로운 해와 구름 은은히 비치는 속에 있네	瑞日祥雲隱暎中
옥기린에 서둘러 명에 매어 옥황상제께 조회하니	催駕玉麟朝玉帝
구중천의 향기로운 이슬 꽃떨기에 떨어지네	九天香露滴花叢

잠깨어 꿈속 시에 화운하다

覺和夢中韻

오색구름 깊은 곳 자미궁(紫微宮)이니	五雲深處紫微宮
상제(上帝)의 자리 환하게 보전(寶殿) 가운데에 있네	法坐昭然寶殿中
인간 세상의 미천한 신하 맑은 꿈에서 깨어나니	下土微臣清夢覺
이 마음 상서로운 꽃떨기에 오래도록 매여 있네	此心長繞瑞花叢

겨울날이 매우 따뜻하므로 감회가 있어

冬日甚溫有懷

땅이 서북쪽은 높고 동남쪽은 낮으니	地高西北東南下
사계절의 날씨 판연히 다르구나	四序溫涼判不同
역법(曆法)은 단지 중국에서 쓰기에 마땅하니	曆法只宜中國用
상강(霜降)과 경칩(驚蟄) 그 중에 딱 맞네 ⁵⁶²	降霜驚蟄適其中

562 역법(曆法)은……맞네 : 중국의 역법(曆法)은 우리나라의 계절에 그대로 적용하기에 곤란한 점이 많으나, 경칩(驚蟄)과 상강(霜降)만은 실제 날씨와 부합함을 말한 것이다.

중구일의 외로운 심사

九日孤懷

천지에 태어난 이래로 올 가을까지 이르니
다시 어떤 사람이 나처럼 근심에 젖어 있을까
머리 위를 우러러 바라봄에 하늘 끝이 없으니
묵묵히 웃음 머금고서 높은 누대에 기대네

自生天地到今秋
更有何人似我愁
頭上仰看天不極
默然含笑倚危樓

두 번째

其二

그윽한 심사 적지 않아 가을을 견디기 어려우니
들국화의 남은 꽃잎 고독한 시름과 함께 하네
머리 돌려 푸른 산 바라봄에 끝없이 좋으니
온 하늘의 맑고 상쾌함 서쪽 누대에 있네

幽懷多小不堪秋
野菊殘花傍獨愁
回首碧山無限好
一天清爽在西樓

신묘년(1651, 28세) 정월 초하루

辛卯元日

일 년 삼백육십 일
오고 감에 사랑스럽지 않은 때가 없네
사람은 이때에 느끼는 바가 많으니
일 년의 삼백 일 이 속에서 옮겨 간다오⁵⁶³

一年三百六旬日
來往無非可愛時
人向此時多所感
一年三百此中移

563 일……간다오 : 한 해가 이날 정월 초하루를 시작으로 흘러간다는 뜻이다. '삼백 일' 이라고 한 것은 끝수를 생략하여 표현한 것이다.

잠 깨 뒤

覺後

꿈속에서의 몸 터럭 하나처럼 가벼우니	夢中身似一毛輕
구만 리 긴 하늘을 자유롭게 다니네	九萬長天自在行
잠깨고 보니 세속에 있는 8척의 몸	覺來八尺塵間骨
저녁 해 밝은 서창(西窓)에 홀로 눕네	獨臥西窓殘日明

4월⁵⁶⁴에 배를 띄우다 【병소서(并小序)】

清和泛舟【并小序】

4월의 맑고 화창한 초파일	四月清和初八日
작은 배 ⁵⁶⁵ 금강 물결에 가볍게 띄우네	蘭舟輕泛錦江流
전생에 신선의 짝이었음을 알겠으니	前身認是神仙侶
기쁜 마음으로 호산(湖山)에서의 속세 밖 유람을 즐기네	喜作湖山物外遊

두 번째

其二

작은 배에 노 하나로 창주(滄洲) ⁵⁶⁶ 를 내려가니	扁舟一棹下滄洲
--	---------

564 4월 : 원문은 ‘청화(淸和)’다. 진(晉)나라 사영운(謝靈運)의 <유적석진범해(遊赤石進帆海)>에, “초여름 4월이라 맑고 화창하니, 향기로운 풀들이 끝없이 돋았네.[首夏猶淸和 芳草亦未歇]”라 한 데서 유래하여, 4월의 이칭으로 쓰인다.

565 작은 배 : 원문은 ‘난주(蘭舟)’다. ‘목란주(木蘭舟)’의 준말로, 곁이 곱고 향기 좋은 목련나무로 만든 작은 배를 말한다. 흔히 조각배의 미칭으로 쓰인다.

566 창주(滄洲) : 산수가 아름다운 은사(隱士)의 거처를 뜻하는 말이다. 위(魏)나라 완적(阮籍)의 <위정충권진왕전(爲鄭中勸晉王牋)>에, “창주에 가서 지백에게 인사하고 기산에 올라 허유에게 읊을 한다.[臨滄洲而謝支伯 登箕山以揖許由]”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물결 위에 둥둥 떠 마음대로 노니네
머리 돌려 천지가 늙어감을 탄식하니
오늘의 이 삶 하루살이와 같구나

泛泛中流漫浪遊
歎息回頭天地老
此生今日等蜉蝣

세 번째

其三

강산이 합쳐지고 응결되어 절로 하늘이 열렸으니
만고의 흥망 속에 너는 무성한 모습이니
이전 시대의 어떤 사람이 나처럼 한가로웠던가
한 척 배 타고 밝은 달 곁을 길게 떠다니네

江山融結自開天
萬古興亡爾菀然
前世何人閒似我
一舟長泛月明邊

경술년(1670, 47세) 4월 초파일 낮의 조수가 잔잔하기에 내가 형제 몇 사람과 함께 작은 배를 띄워 우로포(尤老浦)에서 출발하여 강 위를 떠다니며 가는데로 내맡겨 두었다. 세심정(洗心亭) 아래에 잠시 정박하였다가 장춘정(藏春亭) 567을 거쳐 석관정(石串亭) 568에 이르러 배에서 내려 언덕에 올랐다. 동행한 몇 사람들은 바람이 두려워 모두 강굽이에 몸을 숨겼는데, 나는 홀로 바윗길을 오르내리며 조는 갈매기에게 장난을 치기도 하고 맑은 여울을 손으로 튕기기도 하였으며 향기로운 풀 자란 물가를 거닐어 아름다운 화초를 꺾고 돌 모서리에 서서 하늘너머를 바라보기도 하였다. 자득한 마음을 시로 읊어 뜻과 생각이 무한하였으니 실로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는 바가 아니요, 참으로 태허(太虛)와 오묘하게 계합하는 점이 있었다. 날 저물자 돌아와 이에 멋대로 읊고서 나의 신세를 돌아보니 또한感慨한 마음이 뒤따랐다.

[庚戌四月初八日, 午潮方平, 余與昆季數人, 泛小舟發尤老浦, 中江容與, 任其所之. 小泊于洗心亭下, 由藏春亭至石串亭, 舍舟登岸. 同行數子畏風皆伏河曲中, 余獨上下巖徑, 或戲押眠鷗, 或手激清湍, 步芳洲而折瓊草, 立石角而望天表. 吟哦自得, 無限意思, 實非傍人所及知, 而眞妙契於太虛者存焉. 日晚歸來, 仍成浪吟, 回身世, 亦有感慨隨之.]

567 장춘정(藏春亭): 전라남도 나주시 다시면(多侍面) 죽산리(竹山里) 화동마을에 있는 정자다.

568 석관정(石串亭): 전라남도 나주시 다시면(多侍面) 동당리(東堂里) 동백마을에 있는 정자다.

앞 들의 농부가 종일 밭 갈고 김매고서 소를 풀어놓다

前郊農夫, 盡日耕耨解牛.

한나절 부지런히 열 이랑의 밭을 가니	半日勤耕十畝田
쟁기 풀어 풀 깊은 두렁에 놓아 주네	解犁旋放草深阡
농가(農家)의 공적 저 소가 으뜸이니	農家功業渠爲首
들판 샘물 옆에서 한가로이 잠잔다고 야단치지 말라	不伐閒眠傍野泉

밭 개구리가 노니는 모습을 보고 짓다

見田蛙游弄有作

구슬 궁과 조개 대궐 ⁵⁶⁹ 은 용왕(龍王)의 전각이요	珠宮貝闕龍王殿
푸른 물과 이끼는 올챙이의 집이라네	綠水青苔蛙子廬
일삼는 바 없는 참된 한가로움을 말한다면	若道眞閒無所事
용궁이 하나의 개구리 집만 못할 것이네	龍宮不如一蛙居

큰 새가 밭에서 배회하는 모습을 보고 짓다

見大鳥逡巡於田間有作

눈처럼 흰 옷에 검은 치마를 입었으니	素衣如雪襲玄裳
모습이 청전(靑田) ⁵⁷⁰ 의 학과 같아 부리가 길구나	貌似靑田鶴鬚長

569 구슬……대궐 : 원문은 ‘주궁패궐(珠宮貝闕)’이다. 하백(河伯)이 사는 용궁을 가리키는 말이다. 《초사(楚辭)》〈구가(九歌) 하백(河伯)〉에, “물고기 비늘 집은 용의 저택이요, 붉은 조개 대궐은 붉은 궁이로다.[魚鱗屋兮龍堂 紫貝闕兮朱宮]”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570 청전(靑田) : 학이 살았다는 고장의 이름으로, 중국 영가군(永嘉郡)에 있다. 《태평어람(太平御覽)》 권916 〈영가군기(永嘉郡記)〉에, “목계(沐溪)의 들 청전에 백학(白鶴) 한 쌍이 살았는데 매년 새끼를 쳐서 키워 떠나보내고 어미 한 쌍만 그대로 남아서 살았다. 정갈하고 흰빛이

여섯 개 깃축⁵⁷¹의 하늘 너머까지 나는 날개 없는 것이 아난데 六翻不無天外翼
 풀 자란 들판에서 무슨 일로 오래도록 방황하는가 草郊何事久彷徨

꿈을 기록하다.

【병소서(并小序). 무신년(1668, 45세) 여름 나는 백봉산(白鳳山)572의 절에
 우거하였는데, 이는 곧 내 선영(先塋)의 재소(齋所)이다. 근심 없이 고요히 거
 처하여 날마다 좋은 뜻을 품었으니, 지난날 가졌던 세상사에 대한 생각이 아무
 것도 없는 듯이 빠져나갔다. 그러다 문득 5월 11일 새벽꿈에서 절구 한 수를
 읊었는데 깨고 난 뒤에도 기억할 수 있었으니, 말뜻이 맑고 기이하여 몹시도 신기하
 였다. 다만 기구(起句)를 이해하기 어려워 다음날 멋대로 기록하였다.】

紀夢【并小序. 戊申夏, 余寓居白鳳山之佛舍, 卽我先隴之齋所也. 靜居無慮,
 日有好意, 向念世間事, 脫若無物. 忽於五月十一日曉夢, 自吟一絕, 覺能識
 得, 辭意清異, 殊亦奇也. 但起句難曉, 翊日慢紀之.】

인간 세상의 아침저녁 봄가을과 같으니	人間朝夕似春秋
여름 배옷과 겨울 갖옷 없을 수 없네 ⁵⁷³	夏葛冬裘不可無
만 봉우리 푸른 산의 운수(雲水) 속에	萬岫青山雲水裏
둥글고 맑은 명주(明珠) 하나 고이 간직하게	好藏圓淨一明珠

두 번째

【기유년(1669, 46세) 11월 4일 꿈에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변(邊)’, ‘천(天)’,

사랑스러웠다.”라 하였다.

571 여섯 개 깃축 : 원문은 ‘육핵(六翻)’으로 되어있으니, 튼튼한 날개를 가리킨다. 공중에 높이 나는 새는 여섯 개의 강한 깃털을 지니고 있다 한다.

572 백봉산(白鳳山) : 전라남도 나주시 왕곡면(旺谷面) 송죽리(松竹里)에 있는 산이다.

573 여름……없네 : 이 구절의 의미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한유(韓愈)의 〈원도(原道)〉에, “여름에 배옷을 입고 겨울에 갖옷을 입으며 목마르면 마시고 배고프면 먹는 것이 그 일은 비록 다르지만 지혜가 되는 것은 하나이다.[夏葛而冬裘 渴飲而飢食 其事雖殊 其所以爲智一也]”라 한 부분이 보인다.

‘면(眠)’ 세 운을 주기에 내가 차운하였는데, 껌 뒤에도 기억할 수 있었다.】

其二【己酉十一月初四日，夢有人贈我邊天眠三韻，余次其韻，覺能記之.】

어떤 객이 적막한 변방으로 나를 찾아오니	有客來尋寂寞邊
흰 구름에 푸른 산 솟은 큰 강 위의 하늘이네	白雲青嶂大江天
속세의 어지러운 일 전하지 말라	莫傳塵世煩擾事
노쇠하고 병들어 근년 이래로 곤히 잠자고 있으니	衰病年來困睡眠

뜻을 말하다

言志

한밤중의 학 ⁵⁷⁴ 을 기르고자 하여	擬將養得中宵鶴
서호(西湖)에 천 그루 매화 심는 법을 배우네 ⁵⁷⁵	學種西湖千樹梅
본래 마음에 여러 새를 원한 것이 아니었으니	素心非欲羣禽鳥
다시 천지를 향해 고개 절로 돌리네	更向乾坤首自回

마음대로 읊다

【활발하고 자유로운 기상을 가진 사람은 마땅히 위아래 사방으로 막힘없이 두루 흐르기를 선인(仙人) 여암(呂巖)의 시⁵⁷⁶와 같이 하는 것이 옳다. 그의

574 한밤중의 학 : 학은 한밤중을 이는 새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회남자(淮南子)》〈설산훈(說山訓)〉에, “닭은 아침이 올 것을 알고, 학은 한밤중을 안다.[雞知將旦 鶴知夜半]”라 하였으며, 《포박자(抱樸子)》〈지리(至理)〉에 “학은 한밤중을 알고, 제비는 무일과 기일을 안다.[鶴知夜半 燕知戊己]”라 하였다.

575 서호(西湖)에……배우네 : ‘서호(西湖)’는 중국 절강성(浙江省) 항주(杭州)의 서쪽 고산(孤山) 옆에 있는 호수다. 송(宋)나라 때의 처사 임포(林逋)가 이곳에 은거하여 20년 동안 성시(城市)에 발을 들여놓지 않은 채 처자 없이 매화를 심고 학을 기르며 사니, 당시 사람들이 그를 매처학자(梅妻鶴子)라 일컬었다. 《宋史 卷457 林逋列傳》

576 선인(仙人) 여암(呂巖)의 시 : ‘여암(呂巖)’은 당나라 말기의 도사로, 자는 동빈(洞賓), 호는 순양자(純陽子)이다. 종리권(鍾離權)을 따라 신선이 되었다고 전해지며, 도교 팔선(八仙) 중

시에 화답하여 나의 마음을 보이니, 이 시를 보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으로 나의 뜻을 해석하는 것도 괜찮다.】

浪吟【人之自在活潑通脫氣像，當於上下四方，周流無滯，若呂仙之詩則可矣。和之以見意，看者以意迺志，可也.】

북해(北海)와 창오(蒼梧)를 아침저녁 사이에 노닐고	北海蒼梧朝暮遊
동정호(洞庭湖)와 악양루(岳陽樓)에도 머무네 ⁵⁷⁷	洞庭湖與岳陽樓
인간 세상의 형승 두루 다 둘러보고 난 뒤에	人間形勝周觀盡
홀쩍 날아 십주(十洲) ⁵⁷⁸ 에 이르네	然後飄然到十洲

의 한 사람으로 칭해진다. 여기서 말하는 ‘여암의 시’는 <동빈유악양(洞賓遊岳陽)>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 시에 “아침에는 북월에서 저녁에는 창오에서 노니니, 소매 속엔 청사검 하나 뿐 거리낌이 없는 마음. 악양에 세 번 들어가도 아는 사람 없으니, 낭랑하게 시 읊으며 동정호를 건너간다.[朝遊北越暮蒼梧 袖裏青蛇膽氣麤 三入岳陽人不識 朗吟飛過洞庭湖]”라 하였다.

577 북해(北海)와……머무네 : ‘창오(蒼梧)’는 호남성(湖南省) 영원현(寧遠縣) 경계에 있는 산 이름으로, 구의(九疑)라고도 한다. 순 임금의 남쪽으로 순행(巡行)하다가 이곳에서 죽어 장사 지냈다는 곳이다. 《史記 卷1 五帝本紀》이 구절은 여암의 시 <동빈유악양(洞賓遊岳陽)>의 내용을 엮두에 두고 지은 것이다.

578 십주(十洲) : 도가(道家)에서 말하는, 신선들이 산다고 하는 바다 가운데 10개의 산을 말한다. 일반적으로仙境(仙境)을 가리킨다. 《해내십주기(海內十洲記)》에, “한 무제(漢武帝)가 이미 서왕모가 말한 팔만(八萬)의 큰 바다 가운데에 조주(祖洲)·영주(瀛洲)·현주(玄洲)·염주(炎洲)·장주(長洲)·원주(元洲)·유주(流洲)·생주(生洲)·봉린주(鳳麟洲)·취굴주(聚窟洲) 등이 있다고 한 말을 들었는데, 이 10개의 주는 인적이 아주 드문 곳이다.”라 하였다.

대수음

大樹吟

큰 나무 하늘 향해 백만 길이나 높이 솟아 있으니	大樹參天百萬尋
굽은 가지와 긴 줄기 절로 그늘을 이루었네	曲枝長幹自成陰
보고서 다만 뿌리가 원래부터 작음을 안타까워하니	看來只恨根元少
천추토록 서 있기에 깊지 않을까 두렵네	樹立千秋恐未深

긴 무지개

長虹

진 시황(秦始皇)이 옛날에 큰 바다에 행차하였는데	秦皇昔日駕滄溟
끝내 신공(神功)으로도 이루지 못하였음이 한스럽네 ⁵⁷⁹	畢竟神功恨未成
위로 진재(眞宰)에게 하소연하여 하늘 또한 감동하니	上訴眞宰天亦感
긴 다리 곧장 봉래(蓬萊)와 영주(瀛洲)까지 이르네	長橋直向到蓬瀛

579 진 시황(秦始皇)이……한스럽네 : 진 시황(秦始皇)이 바다를 건너서 해 돋는 곳을 보고자 하여 석교(石橋)를 놓으려 하였는데, 해신(海神)이 나타나서 다리 기둥을 세워 주었다. 진 시황이 이를 고맙게 여겨 만나 보려고 하니, 해신이 말하기를 “내 모습이 추하니, 내 모습을 그리지 않기로 약속한다면 만나겠다.”라 하였다. 이에 진 시황이 들어가 해신과 만났는데, 진 시황의 좌우 사람들이 몰래 해신의 발을 그렸다. 그러자 해신이 성을 내면서 빨리 나가라고 하였다. 진 시황이 말을 타고 곧장 나왔는데, 말 뒷다리가 석교에서 미처 떨어지기도 전에 석교가 무너졌다는 고사가 있다. 《藝文類聚 卷79》

한가로운 뜻

閒意

작은 창 남쪽으로 열자 해가 참으로 밝으니
 한가로이 책장에 기대자 온갖 감정 고요해지네
 눈과 귀로 아무 것도 보고 듣지 않으니
 때때로 산새만 처마를 향해 우네

小窓南闢日正明
 閒倚書籠百感平
 耳目見聞無一物
 有時山鳥向簷鳴

두 번째

其二

세상 사람 사이에서 한 구역 차지하며 밭 갈고 쟈 파니⁵⁸⁰
 담소와 근심 기쁨 자유로이 오고 가네
 누가 알겠는가 이 속에 참된 뜻이 있어
 때때로 말없이 푸른 산을 대하는 줄을

一區耕鑿世人間
 語笑憂歡任往還
 誰識此中真意在
 有時無語對青山

종형

【한장(漢章)】에게 부쳐 은빛 붕어를 보내주지 않음을 조롱하다

寄宗兄【漢章】嘲不送銀鯽

문노니 요즈음 집안 여러 사람들의 안부 어떠한가

此時僉履問何如

580 밭……파니 : 태평 시절을 만나 한가로이 살아감을 말한 것이다. 요 임금 때 어느 노인이 지었다는 <격양가(擊壤歌)>에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쉬며 쟈를 파서 물을 마시고 밭을 갈아 밥 먹으니, 임금의 힘이 내게 무슨 상관이랴.[日出而作 日入而息 鑿井而飲 耕田而食 帝力於我何有哉]”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한번 이별한 뒤로 편지 한 장도 없었네	一別由來斷絕書
예전부터 고향 강에서 나는 정 몹시 두터웠으니	從昔故江情大厚
작은 두 마리 물고기로 소식 전해주는 일 ⁵⁸¹ 아까지 마사기를	不慳傳信小雙魚

아이들이 지은 시의 운을 쓰다

用兒輩韻

외떨어진 봉황 바람 따라 들 너머에서 지내니	孤鳳隨風野外棲
흰 구름 맑은 이슬에 산 계곡 꿈을 꾸네	白雲清露夢山溪
어느 해에나 빼어난 날개로 하늘과 나란히 날아	何年逸翮連天舉
곤륜산(崑崙山)에 우뚝 서 산 위에서 울까	屹立崑山山上啼

두 번째

其二

인간 세상의 알아줌과 알아주지 않음에 관계하지 않으니	人世非關知不知
일 없는 이 늙은이 느긋하게 노니는 것 좋아하네	此翁無事好棲遲
한가함 속의 지극한 즐거움과 참된 소식은	閒中至樂真消息
무엇보다도 하늘 가운데 달뜨는 때라네	最是天心月上時

581 작은……일 : 원문의 ‘쌍어(雙魚)’는 두 마리 물고기라는 말로, 서신(書信)을 의미한다. 진(晉)나라 육기(陸機)의 <음마장성굴행(飲馬長城窟行)>에, “멀리서 온 손님 잉어 두 마리 전해 주네. 아이 불러 요리하게 했더니, 그 가운데 한 자 비단 글 있네.[客從遠方來 遺我雙鯉魚 呼兒烹鯉魚 中有尺素書]”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세 번째

其三

반평생 교외 들판에서 한가로이 읊조리니
 시흥(詩興)이 저물녘 산바람에 남아 있네
 오늘 아침 끝없는 흥 한층 더해지니
 비 내린 뒤의 푸른 봉우리 하늘처럼 푸르네

半世閒吟郊野中
 詩情餘在晚山風
 今朝一倍無邊興
 雨後青峯碧似空

네 번째

其四

10년 동안 일 없이 사립문 닫고 지냈으니
 세상에 시비 있음을 어찌 알겠는가
 때때로 낚싯대 잡고서 흰 새를 따르니
 밤 깊어지자 밝은 달빛 헛되이 두르고서 돌아오네

十年無事閉荊扉
 世上那知有是非
 時把釣竿隨白鳥
 夜深空帶月明歸

백로

白鷺

서리 깃과 눈 깃촉 가진 너 무엇이 외로운가
 안개 낀 달 물가에서 홀로 울부짖네
 이제부터 세 섬⁵⁸²의 학과 나란히 떠올라
 바다 위 하늘 끝까지 날아 영주(瀛洲)에 이를 것이네

霜翎雪翮爾何孤
 煙月汀洲獨自呼
 從此連翔三島鶴
 海天飛盡到瀛壺

582 세 섬 : 원문은 '삼도(三島)' 다. 신선이 산다고 하는 봉래(蓬萊)·방장(方丈)·영주(瀛洲)의 세 섬을 말한다.

오랜 비 뒤에 무등산(無等山)⁵⁸³을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며

久雨喜見無等山

우리 집 동쪽 머리의 서석산(瑞石山)⁵⁸⁴

我屋東頭瑞石山

20일 동안 비구름 속에 싸여있었네

兩旬封裹雨雲間

오늘 아침 다행히 하늘이 활짝 개니

今朝幸值天開霽

층층 봉우리를 드러내 푸른빛이 산면(山面)에 가득하네

露出層峯碧滿顏

비 내린 뒤의 푸른 산

雨後靑山

바다 위 하늘 막 개어 젖은 구름 짙으니

海天初霽濕雲濃

창 남쪽 몇 개의 푸른 봉우리를 모두 감췄네

鎖盡窓南幾碧峯

한낮의 미풍(微風)이 맑게 쓸어내니

日午微風清灑掃

어지러운 산에 무수히 푸른 소나무 드러나네

亂山無數露靑松

이성암(李愷庵)⁵⁸⁵【수인(壽仁)]에 대한 만사

挽李愷庵【壽仁】

정도(正道)가 전해지지 않은 지 이미 백 년이 지났는데 正道無傳已百年

583 무등산(無等山) : 광주시 북구와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및 담양군 남면에 걸쳐 있는 산이다.

584 서석산(瑞石山) : 무등산의 별칭이다.

585 이성암(李愷庵) : 이수인(李壽仁, 1601~1661)을 가리킨다. 성암(愷菴)은 그의 호. 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유안(幼安)이다. 전라남도 강진 출신. 1633년 과거에 급제하여 전직, 병조 좌랑, 정언을 역임하였다. 1642년 재차 전직에 제수되었으나 사은한 뒤 바로 전리(田里)로 내려갔으며, 이후로도 여러 차례 벼슬에 제수되었으나 모두 나가지 않았다.

선생의 심학(心學)이 선천(先天)을 일으켰네 ⁵⁸⁶	先生心學起先天
연하동(烟霞洞)에서 편안하고 고요히 지낸 것이 가련하니	可憐安靜烟霞洞
이로부터 누가 옛 책을 보겠는가	從此何人閱古編

호가정(浩歌亭) 어른⁵⁸⁷에 대한 만사

挽浩歌亭丈人

한 굽이 긴 강 마을 하나를 감싸니	一曲長江抱一村
일 없이 맑은 존안 비었던 것이 몇 해였던가	幾年無事對清尊
호가정 위에 뜬 3경(更)의 달엔	浩歌亭上三更月
공의 한 조각 혼이 남아 있네	留得夫公一片魂

이웃 노인(에 대한 만사

挽隣老

송죽(松竹)을 사이에 두고 동서로 마주한 것 몇 해였던가 幾年松竹限東西
 뽕과 삼 기르는 법 이야기하고 지팡이 짚으며 함께 거닐었지 論說桑麻共策藜

586 선생의……일으켰네 : ‘선천(先天)’은 우주의 본체와 만물의 본원을 가리키는 말인데, 복희씨(伏羲氏)가 만든 역(易), 즉 선천역(先天易)을 뜻하는 말로도 사용된다. 이수인이 《주역(周易)》에 특히 조예가 깊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박세채(朴世采)는 <홍문관전한성암이 공행장(弘文館典翰愼菴李公行狀)에서 그에 대해, “《역경(易經)》에 가장 심력(心力)을 기울여 《제몽전의(啓蒙傳疑)》 따위에 대해서도 반드시 고증(考證)을 하여 막히는 데 없이 이해하였다.[最用力於易經 以及啓蒙傳疑之屬 亦必考證而融會焉]”라 하였으며, 이단상(李端相)은 <이전한【수인】만(李典翰【壽仁】挽)에서, “주인은 학창의(鶴窓衣)를 입고 깨끗하게 앉아서 《주역》을 연구하였네. 자취가 세상과 더불어 이미 소원해졌고 마음은 경계와 더불어 모두 잠잠해졌네.[主人披鶴窓 清坐點義易 跡與世已疏 心隨境俱寂]”라 하였다.

587 호가정(浩歌亭) 어른 : ‘호가정(浩歌亭)’은 광주시 광산구 동곡면 본덕리에 있는 정자로, 유사(柳泗, 1502~1571)가 지은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어른’은 유사의 후손일 것으로 추정된다.

어찌 견디리오 내년 봄 시우(時雨) 내린 뒤에
홀로 남쪽 이랑 지나며 밭 가는 일 묻는 것을

何忍明春時雨後
獨過南畝問鋤犁

어떤 이에 대한 만사

挽人

십 리에 걸친 긴 강과 몇 겹의 산
저녁 안개와 가랑비 속에 석양이 저무네
들 집엔 주인 없고 송죽은 늙었으니
한가로운 바둑돌만이 바둑판 위에 차네

十里長江數疊山
暮烟疎雨夕陽殘
野堂無主松篁老
惟有閒碁一局寒

두 번째

其二

일찍이 수년 전 물가의 정자에서
한잔 술 서로 권하며 정다운 이야기 나누었지
거친 시로 외람되어 평생의 교분 입었으니
이날 절로 흐르는 눈물 금할 수 있으랴

曾數年前水上亭
一盃相屬話丁寧
荒詩猥被平生託
此日能禁涕自零

세 번째

其三

여름에는 무더위 겨울에는 눈 무릅쓰고서
오고 가며 교외의 늙은이 방문한 것이 몇 해였던가
교외의 늙은이 이미 늙고 그대는 일찍 세상 떠났으니

夏冒炎熱冬冒雪
幾年來往問郊翁
郊翁已老君歸早

홀로 서서 큰 바다 동쪽 향해 길게 울부짖네

獨立長呼大海東

정생(鄭生)【온(楹)】에 대한 만사

挽鄭生【楹】

옛날 내가 장년(壯年)일 적 그대 아직 어린아이였는데
나의 머리 아직 검거늘 그대 먼저 꺾였구나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 이와 같은 일이 있으니
눈물 또한 흐르지 않고 마음도 애통하지 않네

昔我壯年君尙孩
我頭猶黑君先摧
人生斯世有如斯
淚亦不下心不衰

두 번째

其二

그대 예전에 다른 사람이 일찍 부친 여윈 일을 애통해 하면서 君昔爲人痛早孤
그대 부친의 얼굴 잠깐이라도 보고 싶어 하였지 親顏願欲見斯須
지금 저 세상으로 돌아감이 비록 모친과 너무 빨리 이별한 것이기는 하나
今歸縱別慈闈速
지하에서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의 가르침 받들겠지⁵⁸⁸ 地下應歡鯉對趨

588 아버지의 가르침 받들겠지 : 원문의 '이대(鯉對)' 는 이정(鯉庭)과 같은 뜻으로, 아들이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는 것을 말한다. 《논어》〈계씨(季氏)〉에, “공자가 일찍이 혼자 서 있는데 이(鯉)가 종종걸음으로 뜰을 지나가자, 공자가 ‘너는 시(詩)를 배웠느냐?’ 하니, 이가 대(對)하여 아뢰기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였다.[嘗獨立 鯉趨而過庭 曰學詩乎 對曰未也 不學詩 無以言]”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나운봉(羅雲峯)⁵⁸⁹【염(衲)】에 대한 만사

挽羅雲峯【衲】

백발의 두 부모 아직 높은 당에 계시고 ⁵⁹⁰	雙親鶴髮尙高堂
형제 ⁵⁹¹ 간의 즐거움 끝이 없었네	共蒂荊枝樂未央
어찌 차마 먼저 저 세상으로 돌아가 지극한 애통함을 남긴단 말인가	何忍先歸遺至痛
하늘은 말이 없고 그리움만 아득하네	老天無語思茫茫

589 나운봉(羅雲峯) : 나염(羅衲, 1611~?)을 가리킨다. 본관은 나주(羅州), 자는 자상(子尙)이다. 나위소(羅緯素)의 아들이다. 1642년 생원시에 합격하였다. 은진 현감(恩津縣監), 공조 정랑(工曹正郞), 태인 현감(泰仁縣監), 금구 현령(金溝縣令), 의금부 도사 등을 역임하였다.

590 백발의……계시고 : 원문의 ‘학발(鶴髮)’은 두루미의 깃털처럼 희다는 뜻으로 머리가 하얗게 된 노인을 가리키는 말이다. 또 원문의 ‘고당(高堂)’은 부모 혹은 부모가 있는 곳을 가리키는 말인데, 여기서는 부모가 모두 생존해 있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591 형제 : 원문의 ‘공제(共蒂)’는 한 줄기에 나란히 핀 한 쌍의 연꽃으로, 형제를 비유할 때 쓰이는 말이다. 또 원문의 ‘형지(荊枝)’는 자형수(紫荊樹)의 가지로, 역시 형제를 뜻하는 말이다. 자형수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고사가 전한다. 남조(南朝) 양(梁)나라 경조(京兆) 사람인 전진(田眞) 삼형제가 각기 재산을 나누어 가진 뒤 마지막으로 뜰에 심은 자형수를 갈라서 나누어 가지려 하었는데, 자형수가 곧 시들고 말았다. 이에 삼형제가 뉘우치고 다시 재산을 합하니, 자형수가 다시 무성하게 자랐다고 한다. 《續齊諧記 紫荊樹》

남포집

제 5 권

칠언율시 七言律詩

남포집 제5권

칠언율시(七言律詩)

인지음(仁智吟)⁵⁹³

仁智吟

인(仁)과 지(智)는 본성 안에 모두 온전히 갖추어져 있으니	仁智俱全性分中
그 속에 동(動)과 정(靜) 머금어 오묘하기 그지없네	中涵動靜妙無窮
정(靜)한 곳을 따라 하늘의 뜻 알아야 하고	須從靜處知天意
막 동(動)한 때를 따라 공부를 해야 한다네	纔向動時宜做工
우뚝 솟은 높은 산 천 길이나 곧고	卓立崑峨千丈直
두루 흐르는 힘찬 물 만 개의 물결이 지나네	周流活潑萬波通
이 밖의 외물은 모두 헛될 뿐이니	自餘外物皆虛耳
산수는 어찌 일찍이 지극한 공을 도왔던가	山水何曾贊至功

비래각(飛來閣) 주인에게 드리다

【주인은 승지 임련(林堧)⁵⁹⁴이다. 선생이 어렸을 때 지은 시로, 당시 나이 14세였다.】

呈飛來閣主人【主人卽林承旨堧. 先生兒時作, 時年十四.】

영공(令公)께서 병이 많아 벼슬을 그만두시고	令公多病投簪笏
--------------------------	---------

593 인지음(仁智吟) : 《논어(論語)》〈옹야(雍也)〉에, “지자(智者)는 물을 좋아하고 인자(仁者)는 산을 좋아하며, 지자는 움직이고 인자는 고요하며, 지자는 즐기고 인자는 장수한다.[知者樂水 仁者樂山 知者動 仁者靜 知者樂 仁者壽]”라 한 대목에 근거하여 지은 작품이다.

594 임련(林堧) : 1589~1648. 본관은 나주(羅州), 자는 동아(東野), 호는 한호(閑好)다. 호조 정랑, 사헌부 장령 등을 지냈으며, 1643년 동부승지에, 1648년 우승지에 임명되었다.

금강(錦江) ⁵⁹⁵ 서쪽에 약 달이는 부엌 ⁵⁹⁶ 새로 열었네	藥竈新開錦水西
백년토록 변함없는 창해(滄海)에 기러기 멀리 날아가고	滄海百年鴻遠舉
천 길 뻗은 벽오동(碧梧桐)엔 봉황이 높이 깃들었네 ⁵⁹⁷	碧梧千仞鳳高棲
문 앞의 푸른 물은 마음을 통과하여 깨끗하고	門前綠水通心淨
난간 밖 푸른 산은 기운과 함께 가지런하네	檻外青山與氣齊
무엇보다도 주인옹께서 참된 즐거움 누리시는 곳은	最是主翁眞樂處
달 밝은 냇시터에서 한 가닥 냇숫줄 드리운다네	月明磯畔一絲低

종형의 영사재(永思齋)에 부쳐 제하다

【종형은 한장(漢章)⁵⁹⁸이다.】

寄題宗兄永思齋【宗兄卽漢章】

푸른 비단 같은 강 옆에 솟은 백봉산	翠錦江邊白鳳山
수백 년 동안 선영(先塋) ⁵⁹⁹ 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곳이네	松楸傳數百年間
무덤은 선공(先公)의 자취 두루 받들고 있고	邱原遍戴先公跡
시내 굽이는 선대(先代)의 얼굴 응당 알겠지	澗曲應知舊代顏

595 금강(錦江) : 오늘날의 영산강을 말한다. 나주(羅州)의 옛 이름이 금성(錦城)이므로 영산강을 금천(錦川) 또는 금강(錦江)이라고도 부른다.

596 약……부엌 : 원문은 ‘약조(藥竈)’다. 벼슬에서 물러나 한가한 곳에서 요양하고 있는 입런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두보(杜甫)의 시 <기팽주고삼십오사군적곽주잠이십칠장사참삼십운(寄彭州高三十五使君適虢州岑二十七長史參三十韻)>에, “대숲의 집에는 약 달이는 부엌이요, 꽃 핀 섬에는 책 읽는 책상이다.[竹齋燒藥竈 花嶼讀書床]”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597 천……깃들었네 : 봉황은 오동나무에 등지를 튼다고 전해진다. 《시경》 <대아(大雅)·권아(卷阿)>에 “봉황이 우니 저 높은 언덕이요, 오동이 자라나니 아침 해 뜨는 등산이라.[鳳凰鳴矣 于彼高岡 梧桐生矣 于彼朝陽]”라 하였고, 두보(杜甫)의 <추흥팔수(秋興八首)>에, “향도의 남은 싸라기는 앵무가 쪼던 싸라기요, 벽오동의 늙은 가지는 봉황이 깃든 가지로다.[香稻啄餘鸚鵡粒 碧梧棲老鳳凰枝]”라 하였다.

598 한장(漢章) : 김한장(金漢章)을 가리킨다. 김만영과는 10촌 관계다. 자세한 사항은 미상이다.

599 선영(先塋) : 원문은 ‘松楸’다. 예부터 선산(先山)에 이들 나무를 많이 심었기 때문에 선영(先塋)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집 지은 것은 모두 효성스러운 마음⁶⁰⁰을 따른 것이요 結屋摠仍追孝思
 경전 깊이 공부하는 것 어찌 높은 지위를 바라서이겠는가 窮經豈爲慕榮班
 정성을 미루어 멀리 동종(同宗)의 친척을 먼려하니 推誠遠勸同宗係
 과정(科程)을 엄격히 세워 시일을 허투루 보내지 말라 嚴立程科莫過閑

정백자(程伯子)의 <타괴음(打乖吟)>⁶⁰¹의 운(韻)을 쓰고 이어서
 그 체(體)를 본받다

用程伯子打乖吟韻，仍效其體。

타괴(打乖)는 몸을 숨기고자 하는 것이 아니니 打乖非是欲潛身
 농사일은 도리어 가까이 세속에 섞이는 것이라네 耕稼還甘渾俗塵
 몇 이랑의 전원에 스스로 만족할 줄 알고 數畝田園知自足
 한 소쿠리의 거친 밥 있어 완전히 가난한 것은 아니네⁶⁰² 一簞蔬食不全貧

600 효성스러운 마음 : 원문은 ‘효사(孝思)’다.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려는 마음을 뜻한다. 《시경》 <대아(大雅) 하무(下武)>의 “길이 효사를 바침이여, 그래서 그 효사가 법도가 되었다. [永言孝思 孝思維則]”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601 정백자(程伯子)의 <타괴음(打乖吟)> : 정호(程顥)의 <화요부타괴음(和堯夫打乖吟)>을 말한다. ‘타괴(打乖)’는 세상과 어그러지는 일을 한다는 뜻이다. 송(宋)나라 소옹(邵雍)이 <안락와중호타괴음(安樂窩中好打乖吟)>이라는 시를 지어 세상과 어긋나는 삶을 살면서 유희자적하는 뜻을 말하였는데, 이에 대해 정호가 <화요부타괴음>을 지어 소옹의 타괴는 화광동진(和光同塵)하여 안빈낙도(安貧樂道)의 삶을 사는 것임을 말하였다. 정호의 시는 다음과 같다. “타괴(打乖)는 몸을 편안히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니, 도(道)가 커서 세속과 함께 섞일 수 있다네. 누항(陋巷)에서의 일생은 안씨(顏氏)의 즐거움이고, 천고토록 맑은 풍모는 백이(伯夷)의 가난함인데, 객들은 절묘한 붓글씨 찾아 시권 들고 찾아오고, 하늘은 호방한 시 위해 봄날을 넉넉히 빌려주네. 한껏 담소 나누며 세속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니, 덕언(德言)은 오히려 시골 사람 두렵게 할 만하네. [打乖非是要安身 道大方能混世塵 陋巷一生顏氏樂 清風千古伯夷貧 客求墨妙多攜卷 天爲詩豪剩借春 儘把笑談親俗子 德言猶足畏鄉人]”

602 한……아니네 : 시골에서의 소박한 삶을 즐긴다는 의미다. 《논어》 <옹야(雍也)>에, “어질다, 안회(顔回)에 한 그릇 밥과 한 표주박 물을 마시며 누항에 사는 것을 사람들은 근심하며 견디 내지 못하는데, 안회는 그 즐거움을 바꾸지 않으니, 어질도다, 안회여[賢哉回也 一簞食 一瓢飲 在陋巷 人不堪其憂 回也 不改其樂 賢哉回也]”라 한 대목과, 두보(杜甫)의 시 <남림(南鄰)>에 “까만 각건 쓰신 우리 금리 선생, 정원에서 밤만 주워도 완전히 가난하지만은 않겠구려. [錦里先生烏角巾 園收芋栗不全貧]”라 한 대목을 참고한 구절이다.

그림 속에 완연한 안락와(安樂窩)의 즐거움 ⁶⁰³ 이요	圖中宛爾窩中樂
시 위엔 예전과 변함없는 자리 위의 봄바람 ⁶⁰⁴ 이네	詩上依然座上春
천년의 빼어난 인물은 만나기 어려우니	千載英豪難可接
흰 머리로 늙어가는 시골 사람 몫시도 부끄러워라	白頭深愧晚鄉人

사군(使君) 정지호(鄭之虎)⁶⁰⁵가 부쳐온 시에 화답하다

酬鄭使君【之虎】見寄

이별한 뒤로 산 위의 달이 몇 번이나 기울고 찼던가	別來山月幾虧盈
바람이 쌀쌀하니 올해도 이미 다 갔구나	風雨淒然歲已行
시골 노인의 한가로운 마음엔 세상에 대한 뜻 없고	野老閑懷非世意
천민(天民) ⁶⁰⁶ 의 생계는 깊이 밭가는 데 달려있네	天民生計在深耕
정원 가득한 긴 대나무엔 그윽한 삶의 정취 있고	滿園修竹幽居趣
섬돌 두른 찬 매화는 눈 온 뒤에도 꽃꽂하네	擁砌寒梅雪後貞
나를 아끼고 좋아하여 손 잡아주는 이 누구인가 ⁶⁰⁷	惠好何人携手者
홀로 삼경(三更)이 되도록 단정히 앉아 있네	獨能端坐到三更

603 안락와(安樂窩)의 즐거움 : 원문은 ‘안중락(窩中樂)’이다. 송(宋)나라 소옹(邵雍)은 여러 차례 관직에 제수되었으나 모두 마다하고, 낙양의 소문산(蘇門山)에 들어가 안락와(安樂窩)를 짓고서 학문에 몰두하였다. 《宋史 卷427 道學列傳 邵雍》

604 자리……봄바람 : 원문의 ‘좌상춘(座上春)’이다. 곧 ‘좌상춘풍(座上春風)’으로, 봄바람처럼 온화한 스승의 품모를 의미한다. 송(宋)나라 때 주광정(朱光庭)이 정호(程顥)를 찾아뵙고 돌아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봄바람 속에서 한 달을 앉아 있었다.[某在春風中坐了一箇月]”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伊洛淵源錄 卷4》 정호의 시에 차운하였기 때문에 이 전고(典故)를 사용한 것이다.

605 정지호(鄭之虎) : 1605~1678. 본관은 동래(東萊), 자는 자피(子皮), 호는 무은(霧隱)이다. 1637년 과거에 급제하여 정인, 도승지, 대사간 등을 역임하였다.

606 천민(天民) : 하늘의 뜻을 알고 이에 걸맞게 행하는 백성이라는 뜻이다. 《맹자》〈진심 상(盡心上)〉에 “천민은 자기가 도에 통달하여 천하에 펼칠 수 있게 된 뒤에야 행하는 사람이다.[有天民者 達可行於天下而後行之者也]”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607 나를……누구인가 : 좋은 벗과 함께 은거하는 공간을 즐기고픈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시경》〈패풍(邶風) 북문(北門)〉에 “사랑하여 나를 좋아하는 이와 손잡고서 함께 가리라.[惠而好我 携手同行]”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승지 남구만(南九萬)⁶⁰⁸과 이별하며 주다

贈別南承旨【九萬】

성곽 밖 푸른 산 깊고도 깊으니	郭外青山深復深
한 구역의 절 ⁶⁰⁹ 운림(雲林)에 의지해 있네	一區蕭寺倚雲林
다행히 천상의 삼청객(三清客) ⁶¹⁰ 을 만나	幸逢天上三清客
인간 세상 십 년 동안의 마음을 다 쏟아내었네	輸盡人間十載心
절 안의 향 연기 양 소매에 남아있고	梵宇香烟留兩袂
선방(禪房) 창가의 가물대는 촛불은 두 옷깃을 비추네	禪窓殘燭照雙襟
내일 아침 필마(匹馬)로 이별한 뒤에는	明朝匹馬相分後
훗날 어느 해에 만나 다시 오늘의 만남을 이어갈까	後會何年再繼今

상사(上舍) 나위(羅禕)⁶¹¹의 강가 우소(寓所)에 답하다

酬羅上舍【禕】江上寓所

비가 가을 강 씻어내 강월(江月) 밝으니	雨洗秋江江月明
십 리 뻗은 맑은 물결 깊고도 고요하네	澄波十里湛然平

608 남구만(南九萬) : 1629~1711. 본관은 의령(宜寧), 자는 운로(雲路), 호는 약천(藥泉)이다. 1656년 과거에 급제하여 교리, 대사성, 함경도 관찰사, 형조 판서 등을 거치고 삼정승을 역임하였다. 1664년 5월 동부승지에 임명된 이래 우부승지, 좌부승지, 우승지 등을 지냈다.

609 절 : 원문은 ‘소사(蕭寺)’다. 불교를 독실하게 믿던 남조(南朝) 양(梁)나라 무제(武帝)가 사찰을 지은 다음 자신의 성(姓)인 ‘소(蕭)’를 쓰게 한 것에서 유래하여, 흔히 사찰을 뜻하는 말로 사용된다.

610 천상의 삼청객(三清客) : ‘삼청(三清)’은 도교에서 말하는 천상 세계로, 삼동(三洞)의 교주(教主)가 사는 최고의仙境(仙境)인 옥청경(玉清境), 상청경(上清境), 태청경(太清境)을 말한다. ‘천상의 삼청객(三清客)’이란 곧 신선을 뜻하는데, 당시 남구만이 대궐에서 임금을 모시는 승지였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온 신선에 빗대 표현한 것이다.

611 나위(羅禕) : 자세한 사항은 미상이나, 김만영의 모친이 나주 나씨(羅州羅氏)인 점으로 볼 때 김만영의 척족(戚族)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그가 김만영에게 지어준 제문(祭文)을 보면 자신을 ‘금성적인나위(錦城戚人羅禕)’라 밝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南圃集 附錄 卷2 祭文》

산옹(山翁)의 조용한 경계 마음을 깨울 수 있고 ⁶¹²	山翁靜界能惺意
어부의 창랑(滄浪) 갯근을 씻을 만하네 ⁶¹³	漁父滄浪可濯纓
누가 옥섬돌 향해 귀한 거문고 ⁶¹⁴ 올리는가	誰向玉階鳴寶軫
금계(金契) ⁶¹⁵ 다투어 쥐다가 큰 술잔 넘어뜨리네	爭携金契倒深觥
천성에 근본한 그대의 효성에 감동하니	感君誠孝根天性
서리와 이슬 ⁶¹⁶ 내릴 때면 지극한 정 모인다네	霜露仍時總至情

나위의 시에 세상을 떠난 부모를 그리워하는 뜻이 있었다. 그러므로 말구(末句)에서
[羅詩有離親思慕之意, 故末句及之.]

동종(同宗) 형제와 배 띄워 노닐며

與同宗兄弟泛舟

안개와 노을 즐거이 차지하고서 물외(物外)를 노니니 好占烟霞物外遊

- 612 마음을……있고 : 원문은 ‘성의(惺意)’다. 마음을 맑게 깨우는 것을 뜻한다. 《심경부주(心經附註)》〈경이직내장(敬以直內章)〉에, 사양좌(謝良佐)가 “경은 항상 성성하는 법이다.[敬是常惺惺法]”라고 한 데 대해, 주희(朱熹)가 “서암의 중은 매일 항상 스스로 ‘주인옹은 성성한가?’라고 묻고는 ‘성성하다.’라고 스스로 대답하곤 했다.[瑞巖僧 每日間 常自問主人翁惺惺否 自答曰惺惺]”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 613 어부의……만하네 : ‘갯근을 씻는다’는 것은 진속(塵俗)을 초탈하여 자신의 고결한 신념을 지키는 것을 뜻하는 행위다. 굴원의 〈어부사(漁父辭)〉에, “창랑의 물이 맑으면 나의 갯근을 씻고, 창랑의 물이 흐리면 나의 발을 씻으리라.[滄浪之水清兮 可以濯我纓 滄浪之水濁兮 可以濯我足]”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 614 귀한 거문고 : 원문은 ‘보진(寶軫)’이다. ‘진(軫)’은 거문고 줄을 받치는 기러기발로, 거문고를 뜻하는 말로도 쓰인다.
- 615 금계(金契) : 맹서를 새긴 계권(契券)을 말한다. 당나라 권덕어(權德輿)의 〈제강반구거(題江畔舊居)〉에, “평생에 걸쳐 맺은 깊고 두터운 교분, 여기에 이르러 두 줄기 눈물 흐르네.[平生 斷金契 到此淚成雙]”라 한 대목이 보인다.
- 616 서리와 이슬 : 원문은 ‘상로(霜露)’다. 돌아가신 부모를 그리는 마음을 뜻한다. 《예기(禮記)》〈제의(祭義)〉에 “가을에 서리와 이슬이 내리거든 군자가 그것을 맑아 보고 반드시 슬픈 마음이 생기나니, 이는 날이 추워져서 그런 것이 아니다. 또 봄에 비와 이슬이 내려 땅이 축축해지거든 군자가 그것을 맑아 보고 반드시 섬뜩하게 두려운 마음이 생겨 마치 죽은 부모를 곧 만날 것 같은 생각이 들게 된다.[霜露既降 君子履之 必有悽愴之心 非其寒之謂也 春雨既濡 君子履之 必有怵惕之心 如將見之]”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달빛 일렁이는 구름 같은 물결 위에 가벼운 배 띄웠네	月波雲浪泛輕舟
술 단지는 만고(萬古)에 푸른 산빛을 머금었고	樽含萬古靑山色
술잔은 천년토록 푸른 물결 들이마셨네	杯吸千秋碧水流
사방 좌중에는 즐거운 마음의 형제들이요	四座歡情兄及弟
온 강에는 맑은 흥취 일으키는 해오라기와 갈매기라네	一江清興鷺將鷗
한가로이 짧은 노에 의지하여 느지막이 돌아오니	閑憑短棹歸來晚
아이들 소리에 마음이 다시 그윽해지네	孺子聲中意更幽

박사암(朴思菴) 상공(相公)⁶¹⁷의 시⁶¹⁸에 차운하다

和朴思菴相公韻

백 년 전 사람 떠난 자리에 푸른 산이 있으니	百年人去有靑山
산 아래엔 아직도 계곡 속 난초가 남아 있네	山下猶餘谷裏蘭
지난 일 아득하여 구름 끝없이 멀고	往事蒼茫雲漠漠
나그네 마음 흔들려 물결 일렁이네	羈懷搖蕩水漫漫
가벼운 배 불어오는 바람에 의지해 떠다니고	輕舟信放遊風泛
잔에 담긴 술 차가운 밤기운을 그린대로 막네	樽酒聊防夜氣寒
술 취한 채 푸른 강 위에 뜬 달을 이고서	醉戴靑江江上月
시 읊으며 돌아와 ⁶¹⁹ 흰 갈매기 노니는 여울 한가히 거슬러 오르네	吟歸淸澗溯白鷗灘

617 박사암(朴思菴) 상공(相公) : 박순(朴淳, 1523~1589)을 가리킨다. 본관은 충주(忠州). 자는 화숙(和叔), 호는 사암(思菴). 1553년 과거에 급제하여 홍문관 응교, 이조 참의, 대사헌, 예조 판서, 우의정, 좌의정 등을 역임하였다. 문장에 뛰어나고 당시(唐詩)에 능하였다.

618 박사암(朴思菴) 상공(相公)의 시 : 《사암집(思菴集) 권3에 수록되어 있는 박순(朴淳)의 시 〈자용산귀한강주중구호(自龍山歸漢江舟中口號)〉를 가리킨다. 해당 시는 다음과 같다. “거문고와 책 끼고 낭패당해 뒤집어 둔 채 용산을 내려가니, 한 개 노로 훌쩍 떠나 목란선(木蘭船)에 의지하네. 노을은 석양을 둘러 조각조각 붉고, 비는 가을 물결에 더해져 넘실넘실 푸르네. 강리(江蘿)의 잎 생기 잃어 시인이 원망하고, 물여뀌 꽃 시들어 잠자는 해오라기도 추워하네. 백발 머리에 또 한강의 객이 되어, 서리 이슬 잔뜩 맞고 거센 여울 거슬러 올라가네.[琴書顛倒下龍山 一棹飄然倚木蘭 霞帶夕暉紅片片 雨增秋浪碧漫漫 江蘿葉悴騷人怨 水蓼花殘宿鷺寒 頭白又爲江漢客 滿衣霜露泝危灘]”

619 시……돌아와 : 원문은 ‘영귀(咏歸)’다. 한가로이 자연을 노니는 모습을 말한다. 《논어》〈선

신여퇴(愼汝賚)⁶²⁰【성필(聖弼)]의 시에 차운하다

次愼汝賚【聖弼】韻

경(敬)을 위주로 하는 공부는 참됨을 쌓는 데 달려 있으며	主敬工夫在積眞
인(仁)을 돕는 충고 ⁶²¹ 는 벗 사이에 귀하게 여기는 것이네	輔仁忠告貴朋親
고요함 속에도 도리어 사물 머금고 있음을 알아야 하고	須知靜裏還含物
행할 때에도 신명(神明)이 있음을 알아야 하네	却認行時亦有神
성현(聖賢)이 마음으로 전한 것 오직 경(敬) 한 글자인데	賢聖心傳唯一字
미련하고 어리석어 본성을 잃은 이 몇 천 명이네	頑愚汨喪幾千人
길 잃고 헤맨 ⁶²² 반평생 끝내 얻은 것 없으니	悵悵半世終無得
무엇을 가지고 우리 그대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면려할까	爲何吾君勉日新

두 번째

其二

사귀는 마음을 아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마음은 참됨을 귀하게 여기니

交貴知心貴眞

진(先進)에, 공자가 증점(曾點)에게 장래 포부를 물어보자 “기수(沂水)에서 목욕하고 무우(舞雩)에서 바람을 쐬 뒤 시를 읊으면서 돌아오겠습니다.[浴乎沂 風乎舞雩 詠而歸]”라 대답한 데서 유래하였다.

620 신여퇴(愼汝賚) : 신성필(愼聖弼)을 가리킨다. 여퇴(汝賚)는 그의 자. 호는 경암(敬庵)이다. 감사를 지낸 신희남(愼喜男)의 5세손으로, 아버지는 성균관 생원 신광익(愼光翊), 형은 참봉 신성윤(愼聖尹)이다.

621 인(仁)을 돕는 충고 : 《논어》〈안연(顔淵)〉의 “군자는 학문을 연구하며 벗을 모으고, 벗들끼리 서로 도와 인덕을 높인다.[君子 以文會友 以友輔仁]”라는 증자(曾子)의 말과 “벗들끼리는 충심으로 말해 주어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야 한다.[忠告而善道之]”라는 공자의 말에서 유래한 표현이다.

622 길 잃고 헤맨 : 원문은 ‘창창(悵悵)이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모습을 형용한 말이다. 《예기(禮記)》〈중니연거(仲尼燕居)〉에, “예법이 없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마치 소경이 혼자서 길을 가는 것과 같으니, 창창하여라 과연 어디로 가겠는가.[治國而無禮 譬猶瞽者之無相 悵悵乎其何之]”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외면으로 친한 것은 결국 마음으로 친한 것만 못하다네	形親終不似心親
십 리 떨어진 교외에 살기에 비록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郊居十里雖違面
고요함 속에서 두 사람 각기 정신으로 만난다네	靜裏雙襟各會神
들판의 대나무 천 그루 높이가 누운 뜻이요	野竹千竿高臥志
차가운 매화 한 가지 병으로 신음하는 사람일세	寒梅一枝病吟人
언제나 묵묵히 향로를 마주하고 앉아	何時默對薰爐坐
천군(天君) ⁶²³ 을 함께 섬기며 오래된 것을 새로이 물들일까	共事天君舊染新

앞의 운을 다시 써서 자술(自述)하다

復用前韻自述

함양(涵養) ⁶²⁴ 하는 가운데 참됨(眞)을 오묘히 지키니	涵養中間妙守眞
하나의 마음 참된 곳에 기운이 아울러 가까워지네	一心眞處氣兼親
둥글고 밝은 독 속의 구슬 티 한 점 없고	圓明櫝裏珠無玷
한 이랑 네모난 못 속의 거울엔 정신이 있네	方畝塘中鏡有神
이날 가을 하늘 바라보며 수렴하는 마음 ⁶²⁵	此日秋天收斂意
지난해 봄물결 노래 부르며 돌아오는 사람 ⁶²⁶	去年春水詠歸人

623 천군(天君) : 마음을 가리킨다. 《순자》〈천론편(天論篇)〉에, “마음이 가운데 빈자리에 있으면서 오관을 다스리니, 이를 천군이라 한다.[心居中虛 以治五官 夫是之謂天君]”라 하였다.

624 함양(涵養) : 경(敬)으로써 마음을 기르는 것을 말한다. 《근사록(近思錄)》〈위학(爲學)〉에, “함양은 모름지기 경(敬)을 써야 하고, 진학(進學)은 앎을 지극히 함에 달려 있다.[涵養須用敬 進學則在致知]”라고 하였다.

625 수렴하는 마음 : ‘수렴’은 마음을 고도로 집중함을 말한다. 《심경주부(心經附註)》〈경이직 내장(敬以直內章)〉에서 윤돈(尹焯)이 “경이란 마음을 수렴하여 한 물건도 용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敬者 其心收斂 不容一物之謂]”라 한 대목이 보인다.

626 지난해……사람 : ‘노래 부르며 돌아온다.’는 것은 한가로운 자연을 노니는 것을 말한다. 《논어》〈선진(先進)〉에, 공자가 증점(曾點)에게 장래 포부를 물어보자 “늦은 봄에 봄옷이 만들어지면 관을 쓴 벗 대여섯 명과 아이들 예닐곱 명을 데리고 기수(沂水)에서 목욕하고 무우(舞雩)에서 바람을 쐬 뒤 시를 읊으면서 돌아오겠습니다.”[暮春者 春服既成 冠者五六人 童子六七人 浴乎沂 風乎舞雩 詠而歸]”라 한 데서 온 구절이다.

밝은 창에서 《심경(心經)》⁶²⁷을 읽으니
 깊은 병 잊어버려 몸이 마치 새로워지는 듯하네

明窓點檢西山訣
 忘覺沉疴體若新

고청사(高晴沙)⁶²⁸의 문집에 있는 청음(淸陰) 김 상공(金相公)⁶²⁹
 의 시⁶³⁰를 읽고 감회가 있어 그 시에 차운하다
 高晴沙集中, 讀淸陰金相公詩有感, 步其韻

만 리의 창해(蒼海) 마치 텅 빈 듯 푸르니

萬里蒼溟碧似空

- 627 심경(心經) : 원문은 ‘서산결(西山訣)’이다. 서산(西山)은 송(宋)나라 진덕수(眞德秀)의 호로, ‘서산결’이란 곧 그가 엮은 《심경(心經)》을 말한다.
- 628 고청사(高晴沙) : 고용후(高用厚, 1577~?)를 가리킨다. 청사(淸沙)는 그의 호. 본관은 장흥(長興), 자는 선행(善行)이다. 의병장 고경명(高敬命)의 아들이다. 병조 좌랑과 병조 정랑을 거쳐 1616년 남원 부사가 되었고 1624년 고성 군수에 임명되었다. 1631년 동지사로 명나라에 다녀왔으며, 판결사(判決事)를 마지막으로 관직에서 은퇴하였다. 저서에 《청사집》과 《정기록(正氣錄)》 등이 있다.
- 629 청음(淸陰) 김 상공(金相公) : 김상헌(金尙憲, 1570~1652)을 가리킨다. 청음(淸陰)은 그의 호.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숙도(叔度), 다른 호는 석실산인(石室山人)이다. 병자호란(丙子胡亂)이 일어나자 예조 관서로서 주화론(主和論)을 배척하고 끝까지 주전론(主戰論)을 펴다가 인조(仁祖)가 항복하자 안동으로 은퇴하였다. 1639년 청나라가 명나라를 공격하기 위해 요구한 출병에 반대하는 소를 올렸다가 청나라에 압송되어 6년 후 풀려 귀국하였다. 1645년 특별히 좌의정에 제수되고, 기로사(耆老社)에 들어갔다.
- 630 고청사(高晴沙)의……시 : 고용후의 《청사집》 권1에는 김상헌의 시에 차운한 <봉래가. 청음의 시에 차운하여 장결 설재계 드리다.[蓬萊閣次淸陰韻呈張駉雪齋[可大]]>가 실려 있다. 이 시는 다음과 같다. “영롱한 붉은 누각 높은 하늘에 솟았으니, 큰 파도 끝이 없어 시야 아득하네. 고향의 서신 석 달 동안 끊겼다고 탄식하지 말라, 풍도에도 다행히 배 한 척 통과하네. 연경의 공로(貢路) 아득히 먼 밖에 있고, 자라 등의 선산(仙山) 아스라한 가운데에 있네. 문노니 상전(桑田)이 몇 번이나 바뀌었는지 아는가, 하늘의 모습과 바다의 빛깔은 고금에 똑같다네.[玲瓏朱閣壓層空 巨浸無涯目力窮 鄉信莫歎三月絕 風濤猶幸一帆通 燕京貢路蒼茫外 龜背仙山縹緲中 借問桑田知幾改 天容海色古今同]”
 한편, 이 시에 대한 원운(原韻)은 김상헌의 《청음집(淸陰集)》 권9에 <봉래가에 올라[登蓬萊閣]>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이 시는 다음과 같다. “등주 고을 누관들은 허공 높이 솟아 있어, 푸른 바다 짓누르며 만 리 멀리 바라보네. 석교 이미 진 시황 시절부터 끊어졌고, 성사는 또 한나라의 신하만을 가게 했네. 하늘과 땅 큰 파도의 속에 떠서 일렁이고, 해와 달은 쌓인 기운 가운데서 나눠 뜨네. 반평생의 먼 유랑에 이제 머리 희었거니, 한평생의 기이함이 이와 같긴 어려우리.[登州樓觀跨虛空 勢壓滄溟萬里窮 橋石已從秦帝斷 星樞惟許漢臣通 乾坤盪漾洪波裡 日月分開積氣中 半世遠遊今白髮 百年奇絕此難同]”

물과 하늘 서로 일렁여 아득히 끝을 알기 어렵네	水天相盪杳難窮
신하로서 복속하는 ⁶³¹ 지극한 충성이 아니었다면	倘非侯服忠誠至
어찌 풍도(風濤)의 길을 통과할 수 있었겠는가	安得風濤道路通
성제(聖帝)의 은혜로운 파도 푸른 바다 위에 넘실대고	聖帝恩波青海上
목릉(穆陵) ⁶³² 의 시든 풀 저물녘 산속에 남아 있네	穆陵衰草暮山中
숲 속 창가에서 묵묵히 조천록(朝天錄) ⁶³³ 을 읽으니	林窓默對朝京集
당시에는 문물이 서로 같았음 ⁶³⁴ 을 슬픈 마음으로 떠올리네	悵憶當年一軌同

인조대왕(仁祖大王)의 인산일(因山日)⁶³⁵에 사암사(沙巖寺)로 나와 우거하며 감회를 쓰다

仁祖大王因山日，出寓沙巖寺書懷。

푸른 강 한 줄기 청산으로 들어가니	綠江一逕入青山
산 아래의 절 몹시도 한가롭네	山下禪居特地閑
가을은 고개 옆 남은 잎 속에서 깊어가고	秋老嶺邊殘葉裏
달은 바위 가 저물녘 구름 사이에서 생겨나네	月生巖際暮雲間
삼천 리 밖 남쪽 고을 멀리 떨어져 있으니	三千里外南州遠
구만 리 하늘 끝으로 홀로 돌아가네	九萬天涯獨自還

631 신하로서 복속하는 : 원문은 ‘후복(侯服)’이다. 황제국에 대해 신하로서 복속하는 것을 말한다. 《시경(詩經)》〈대아(大雅)·문왕(文王)〉에, “주에 복종하니, 천명이 일정하지 않다.”[侯服于周 天命靡常]다 한 데서 유래하였다.

632 목릉(穆陵) : 선조(宣祖)와 그 비인 의인왕후(懿仁王后) 박씨(朴氏), 그리고 계비(繼妃)인 인목왕후(仁穆王后) 김씨(金氏)의 능이다.

633 조천록(朝天錄) : 원문은 ‘조경집(朝京集)’이다. 원운(原韻)이 《청사집》 권1 〈조천록(朝天錄)〉에 실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634 문물이……같았음 : 원문은 ‘일궤동(一軌同)’이다. 수레바퀴의 폭이 같다는 뜻으로, 문물과 풍속이 서로 같음을 의미한다. 《중용(中庸)》 제28장에, “지금은 천하가 수레는 바퀴의 폭을 같이 하며, 글은 문자를 같이 하며, 행동은 차례를 같이 한다.[今天下 車同軌 書同文 行同倫]”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명나라가 청나라에 의해 멸망당하기 전에는 중화와 조선의 문물이 서로 같았음을 말한 것이다.

635 인산일(因山日) : ‘인산’이란 왕과 왕비 등의 장례식으로 곧 국장(國葬)을 뜻한다.

창오산(蒼梧山)⁶³⁶의 산색 저무는 모습 아득히 생각하노니 遙憶蒼梧山色晚
 초나라 안개와 상강(湘江)의 비⁶³⁷ 모두 근심스런 얼굴이겠지
 楚烟湘雨摠愁顏

기축년(1649, 26세) 8월 대궐 아래에 달려가 곡하고서 병으로 인해 지레 돌아
 왔다. 그러므로 5구와 6구에서 언급하였다.

[己丑八月, 奔哭闕下, 以病徑歸. 故五六及之.]

현학정(玄鶴亭)⁶³⁸ 시에 차운하다

次玄鶴亭韻

남자라면 모름지기 세속에서 벗어나고자 해야 하니	男子須要出世塵
잠시 찾아온 형승(形勝) 사람을 일깨워 주네	暫來形勝喚醒人
비가 가을 물결에 더해져 막 거울을 펼친 듯하고	雨添秋浪初開鏡
하늘은 바위 소나무를 위해 봄날을 넉넉히 빌려 주네	天爲巖松剩借春
늙은 학의 그림자 구름 속 따라 사라지고	老鶴影從雲裏沒
가벼이 나는 갈매기의 빛깔 맑게 갠 주변 향해 새로워지네	輕鷗色向霽邊新
돌아와 계곡과 산 마주하며 말을 전하노니	歸來寄語溪山面
이로부터 마음 속 회포 그대와 가까워지네	從此襟期與爾親

636 창오산(蒼梧山) : 중국 호남성(湖南省)에 있는 산으로, 구의산(九疑山)이라고도 한다. 순(舜) 임금의 남쪽 지방을 순행(巡行)하다가 이곳에서 죽어 장사지냈다고 한다. 《史記 卷1 五帝本紀》 임금의 무덤을 가리키는 말로 흔히 사용된다.

637 초(楚)나라……비 : 모두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상징한다. 순(舜) 임금이 창오산(蒼梧山)에서 별세하자 두 비(妃)인 아황(娥皇)과 여영(女英)이 초(楚) 땅의 상강(湘江)에 막혀 건너가지 못하고 강가에서 슬피 울다가 물에 빠져 죽었다는 고사가 전한다. 《博物志 卷8》

638 현학정(玄鶴亭) : 전라남도 화순군 춘양면 용두리에 있는 정자다.

종제(從弟)의 세심정(洗心亭)에 제하다

題從弟洗心亭

젊은 시절의 간담 늙어서 쇠해지니	少年肝膽晚成衰
금수(錦水) ⁶³⁹ 가에 초가집 한가히 열었네	草屋閑開錦水湄
산의 형세 단정하고 높아 바른 선비 같고	山勢端尊如正士
들의 모습 평탄하고 넓어 바둑판같네	野形平闊似圍碁
머리 들어 멀리 바라보느라 두건 자주 젖히고 ⁶⁴⁰	頭仍望遠巾頻岸
귀로 조수(潮水) 소리 듣기 위해 베개에 몇 번이나 기대네	耳爲聽潮枕屢欹
반평생 마음 위에 쌓인 것들 모두 씻어내니	洗盡半生心上累
달 밝은 한밤중에 턱 괴고서 눕네	月明中夜臥支頤

수운정(岫雲亭)에 제하다

【정자는 고을 남쪽 영강(榮江)⁶⁴¹ 가에 있으니, 곧 경주 부윤(慶州府尹)을 지낸 나위소(羅緯素)⁶⁴²가 기거하던 곳이다.】

題岫雲亭【亭在州南榮江上，卽羅慶州緯素棲息之所.】

날아갈 듯한 높은 누각 바다 산 동쪽에 솟아 있으니	翼然高閣海山東
멀리 봉래와 영주 ⁶⁴³ 압도할 듯 기세가 웅장하네	迥壓蓬瀛氣勢雄

639 금수(錦水) : 곧 금강(錦江)으로, 오늘날의 영산강을 말한다. 나주(羅州)의 옛 이름이 금성(錦城)이므로 영산강을 금천(錦川) 또는 금강이라고도 부른다.

640 두건……젖히고 : 원문은 ‘건빈안(巾頻岸)’이다. 두건을 뒤로 젖혀 써서 이마가 흰히 드러나게 하는 것을 ‘안건(岸巾)’이라 하는데, 이는 소탈한 태도나 격식을 차리지 않는 옷차림을 형용하는 말로도 쓰인다.

641 영강(榮江) : 전라남도 담양에 위치한 영산강(榮山江)을 가리킨다.

642 나위소(羅緯素) : 1583~1666. 본관은 나주(羅州), 자는 계빈(季彬)이다. 1623년(인조)에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형조 좌랑, 옥과 현감(玉果縣監) 등을 역임하였다. 1650년(효종1) 9월부터 1652년 4월까지 경주 부윤(慶州府尹)을 지낸 뒤에 사임하고 나주로 돌아와 은거하다가 80세가 되어 노인직(老人職)으로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에 임명되었다.

643 봉래와 영주 : 신선이 산다고 하는 산으로, 방丈(方丈)과 함께 삼신산(三神山)이라 불린다.

학이 서호에 나니 ⁶⁴⁴ 천고에 변함없는 달 뜨고	鶴舉西湖千古月
봉새가 남쪽 먼 땅에 높이 나니 ⁶⁴⁵ 구중천(九重天)의 바람 불어 오네	鵬搏南極九天風
정자에 오르니 마음과 정신 상쾌해짐을 문득 깨닫고	登臨抖覺心魂爽
굽어보니 우주의 광활함에 다시금 놀라네	俯瞰還驚宇宙空
지난 일을 가지고서 감개 일으킬 필요 없으니	攬舊不須興感慨
이 몸 마치 이 세상에 잠시 부쳐 시는 듯하네	此身如寄此囊中

오래 병중에 윤 사군(尹使君)⁶⁴⁶【종지(宗之)】께 드리다

久病呈尹使君【宗之】

온 하늘에 가을비 내려 강가의 성 씻어주니	一天秋雨洗江城
일 마친 공당(公堂)엔 세속의 번잡함 가볍네	事罷公堂世累輕
아전 흩어진 송정(訟庭)엔 거문고 소리 깨끗하고	吏散訟庭琴韻澈
바람 높은 빈 방엔 학 울음소리 맑네	風高虛室鶴音清

동해(東海) 가운데에 있다고 한다.

644 학이……나니 : ‘서호(西湖)’는 중국 절강성(浙江省) 항주(杭州)의 서쪽 고산(孤山) 옆에 있는 호수다. 송(宋)나라 때의 처사 임포(林逋)가 이곳에 은거하여 20년 동안 성시(城市)에 발을 들여놓지 않은 채 처자 없이 매화를 심고 학을 기르며 사니, 당시 사람들이 그를 매처학자(梅妻鶴子)라 일컫었다. 《宋史 卷457 林逋列傳》

645 봉새가……나니 : 봉새가 남쪽 하늘을 날아다님을 말한 것이다. 《장자》〈소요유(逍遙遊)〉에, “북쪽 바다에 물고기가 있으니, 그 이름은 곤이다. 곤의 크기는 몇 천 리인지 모른다. 변화하여 새가 되니, 그 이름은 봉이다. 봉의 등짝은 몇 천 리인지 모른다. 기운차게 펼쳐 날아오르면 그 날개가 마치 하늘에 드리운 구름과 같다. 이 새는 바다가 움직이면 남쪽 끝의 검푸른 바다로 날아가려고 한다. 남쪽 바다란 하늘의 못, 천지다.[北冥有魚 其名爲鯤 鯤之大不知其幾千里也 化而爲鳥 其名爲鵬 鵬之背 不知其幾千里也 怒而飛 其翼若垂天之雲 是鳥也 海運則將徙於南冥 南冥者 天池也]”라 하였다.

646 윤 사군(尹使君) : 윤종지(尹宗之, 1597~?)로 자는 임종(林宗), 호는 백봉(白蓬), 본관은 해평(海平)이다. 1618년(광해10) 사마시에 합격하였으나 대과에는 합격하지 못하였다. 병자호란 때 영남으로 피신하여 유리(流離) 생활을 하다가 효종 즉위년에 다시 음직(蔭職)에 발탁되어 곡산 현감(谷山縣監), 대구 부사(大邱府使) 등을 역임하였다.

호산(湖山)은 남창(南昌)의 흥취⁶⁴⁷ 넉넉히 차지하고 湖山剩占南昌興
 누각은 북해(北海)의 술잔⁶⁴⁸ 한가히 열어주네 樓閣閑開北海觥
 다만 한스러운 것은 원헌(原憲) 오랫동안 가난하고 병들어⁶⁴⁹ 却恨愿生貧病久
 훌륭한 선인 모시고 새로 갠 하늘 감상하지 못하는 것이네 未陪仙伯賞新晴

김생(金生)의 운을 쓰다

用金生韻

산 아래 긴 강 성곽을 둘러 흐르니 山下長江繞郭流
 가벼운 배 잔잔히 떠 자유로이 노니네 輕舟穩泛任天遊
 바위의 단풍 서리 내리기 전에 붉게 물들고 巖楓染紫霜前日
 들판의 국화 비 내린 뒤 가을날에 노랗게 단장하네 野菊粧黃雨後秋
 진귀한 거울은 은갑(銀匣)을 새로 열어 닦은 듯하고 寶鏡新開銀匣鍊
 은도(銀刀)는 옥비늘을 처음 떨치고서 띄운 듯하네⁶⁵⁰ 錦刀初拂玉鱗浮
 그 속에 절로 참됨(眞)을 찾는 흥취 있으니 箇中自有尋眞興
 풍광(風光)이 방탕한 마음 거두는 것은 아니라네 不是風光蕩意收

647 남창(南昌)의 흥취 : 은거하는 이의 흥취를 말한다. 한(漢)나라 때 남창위(南昌尉)를 지낸 매복(梅福)이 왕망(王莽)의 전정(專政)을 증오하여 처자(妻子)를 버리고 떠나 신선이 되었다는 고사에서 유래하였다. 《漢書 卷67 梅福傳》

648 북해(北海)의 술잔 : 빈객과 함께 즐기는 술자리를 말한다. 후한(後漢) 때 북해상(北海相)을 지낸 공융(孔融)이 빈객과 함께하기를 좋아하여, “자리에 빈객이 항상 가득하고 술독에 술이 비지 않는다면 나는 근심할 것이 없다.[座上客常滿 樽中酒不空 吾無憂矣]”라고 한 고사가 전한다. 《後漢書 卷100 孔融列傳》

649 원헌(原憲)……병들어 : 공자(孔子)의 제자 원헌(原憲)이 노(魯)나라에서 몹시 곤궁하게 지낼 적에 자공(子貢)이 사마(駟馬)가 끄는 수레를 타고 원헌을 방문하여 말하기를 “아, 선생은 어찌하여 이렇게 병이 들었습니까?” 하자, 원헌이 대답하기를 “나는 듣건대, 재물이 없는 것을 가난이라 하고, 배워서 그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것을 병이라 한다 하니, 지금 나는 가난한 것이지, 병든 것이 아니라오.”라고 하였다. 《莊子 讓王》 곤궁하게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원헌에 빗댄 것이다.

650 진귀한……듯하네 : 수면의 모습을 각각 거울과 은도(銀刀)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영암(靈巖) 홍(洪) 수령⁶⁵¹【중운(鍾韻)]에게 부치다

寄靈巖倅洪【鍾韻】

산수로 이름난 고을에 그대 인연 있는데	山水名鄉子有緣
전원(田園)과 구학(丘壑)에 나 홀로 지내네	田園邱壑我塊然
멋짐 처마 쓸쓸하여 문에 거적 드리웠는데 ⁶⁵²	茅簷寂歷門垂席
화각(畫閣) 영롱하여 비단으로 자리 만들었네 ⁶⁵³	畫閣玲瓏錦作筵
단필(丹筆)로 송사(訟事) 처리하는 것 후한(後漢)의 성길(盛吉)보다	
나은데 ⁶⁵⁴	丹筆訟冤凌後漢
주사(朱砂)로 《주역(周易)》에 점 찍으며 선천(先天)을 헤아리네 ⁶⁵⁵	朱砂點易筭先天

-
- 651 영암(靈巖) 홍(洪) 수령 : 홍중운(洪鍾韻, 1613~1658)을 가리킨다. 본관은 풍산(豊山), 자는 화백(和伯)이다. 1639년 과거에 급제하여 정언, 장령 등을 역임하였다. 1655년(효종6) 영암 군수(靈巖郡守)에 임명되었다.
- 652 문에 거적 드리웠는데 : 원문은 ‘문수석(門垂席)’이다. 문에 거적을 매달아 놓는다는 뜻으로, 청빈한 집이나 은자(隱者)의 거처를 뜻한다. 《사기(史記)》 권56 〈진승상세가(陳丞相世家)〉에, “집이 성곽을 등진 누추한 골목에 있었고 다 떨어진 거적으로 문을 달았는데도, 문 밖에는長者(長者)의 수레바퀴 자국이 많이 나 있었다.[家乃負郭窮巷 以弊席爲門 然門外多有長者車轍]”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 653 화각(畫閣)……만들었네 : ‘화각(畫閣)’은 채색을 한 화려한 누각을 말한다. 영암 군수인 홍중운의 생활공간을 빈한하게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공간과 대조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 654 단필(丹筆)로……나은데 : ‘단필(丹筆)’은 법관(法官)이 죄상을 기록할 때 쓰는 붉은 색의 붓이다. 후한(後漢) 사람 성길(盛吉)은 마음이 어질고 남의 아픔을 긍휼히 여기는 성품을 지녔다. 그가 정위(廷尉)가 되어 동짓날 형옥을 판결할 때 부인이 곁에서 촛불을 밝혀주었는데, 두 사람 모두 밤새 눈물을 흘리며 붓을 쥐고 마주 보고만 있었다는 고사가 전한다. 《古今事文類聚 前集 卷12 丹筆相對》 홍중운이 수령으로서 인자한 다스림을 펼치고 있음을 칭송한 말이다.
- 655 주사(朱砂)로……헤아리네 : 주묵(朱墨)으로 비점(批點)과 관주(貫珠)를 쳐 가며 《주역》을 열심히 읽는다는 말이다. 당나라 고변(高駢)의 〈보허사(步虛詞)〉에, “동구 문은 깊게 잠겼고 푸른 창은 차가운데, 이슬로 주사 같아 《주역》에 점을 찍네.[洞門深鎖碧窓寒 滴露研朱點周易]”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또 ‘선천(先天)’은 복희씨(伏羲氏)가 만든 역(易)을 말한다. 송나라 소옹(邵雍)은 복희씨(伏羲氏)의 《주역》을 선천역(先天易)이라 하고, 문왕(文王)의 《주역》을 후천역(後天易)이라 하였다. 수령으로서 정사를 처리하는 홍중운의 모습과 대비되는 자신의 모습을 읊은 것이다.

자오곡(子午谷)이 정묘교(丁卯橋)보다 낫다고 말하지 말라⁶⁵⁶ 莫言子午勝丁卯
 육지에서 어부와 나무꾼으로 늙어가는 것 또한 신선이라네⁶⁵⁷ 陸老漁樵亦是仙

두 번째

其二

푸른 하늘의 영악(靈岳) 떠나서 인연 없으니 淸空靈岳去無緣
 그대 때때로 올라 마음 확 트이는 것 부러워하네 羨子時登意豁然
 신은 푸른 옥 쪼아 책상과 도마에 늘어놓았고 神琢碧瓊排案俎
 구름은 창해(滄海)와 이어져 성대한 연회를 접하네 雲連滄海接華筵
 기운은 명해와 발해를 삼켜 남쪽으로 날개를 옮기고⁶⁵⁸ 氣吞溟渤南徙翼
 시야는 진(秦)나라⁶⁵⁹까지 뻗쳐 북쪽으로 하늘을 바라보네 目極函秦北望天

656 자오곡(子午谷)이……말라 : ‘자오곡(子午谷)’은 중국 장안(長安) 남쪽 종남산(終南山)에 있는 계곡으로, 은거의 공간을 뜻하는 말로 흔히 사용된다. 당나라 시인 두보(杜甫)의 〈현도 단가기원일인(玄都壇歌寄元逸人)〉에, “오랜 친구 예전에 동몽산(東蒙山) 봉우리에 숨어, 이미 함영(含景)의 글자 새긴 창정룡(蒼精龍) 검을 찼다오. 오랜 친구 지금은 자오곡(子午谷)에 살며, 홀로 응달 언덕 초가집에 있네.[故人昔隱東蒙峰 已佩含景蒼精龍 故人今居子午谷 獨在陰崖結茅屋]”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또 ‘정묘교(丁卯橋)’는 당나라 시인 허혼(許渾)의 별장 정묘장(丁卯莊) 근처에 있는 다리로, 강소성(江蘇省) 단도현(丹徒縣)에 있다. 이들 공간을 아울러 언급한 것으로는, 송나라 섭몽득(葉夢得)의 시에 “은자는 옛날에 자오곡에 살았는데 시객은 홀로 정묘교를 찾았네.[逸人舊住子午谷 詩客獨尋丁卯橋]”라 하였고, 육유(陸游)의 시 〈소축(小築)〉에 “비록 은사가 머무는 자오곡은 아니지만 어찌 시인이 지내는 정묘교에 부끄럽겠는가.[雖非隱士子午谷 寧媿詩人丁卯橋]”라 한 대목이 보인다. 즉 여기에서 ‘자오곡’은 김만영이 은거하고 있는 곳을, ‘정묘교’는 홍종운이 부임해 있는 곳을 가리키는 것으로, 자신의 은거 공간이 반드시 홍종운의 생활공간보다 낫다고 할 수는 없다는 말이다.

657 육지에서……신선이라네 : 어부나 나무꾼으로서 한가로이 살아가는 것 또한 신선 같은 삶일 수 있음을 말한 것이다. 두보(杜甫)의 시 〈옥대관(玉臺觀)〉에, “홍안에 날개 돌아 하늘에 오르는 신선이야 어찌 또 바라리오, 흰머리의 어부나 나무꾼으로 늙어 감이 마땅하리라.[更肯紅顏生羽翼 便應黃髮老漁樵]”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杜少陵詩集 卷13》

658 기운은……옮기고 : ‘명해(溟海)와 발해(渤海)’는 남쪽 바다와 북쪽 바다로, 보통 큰 바다를 뜻한다. 《장자》〈소요유(逍遙遊)〉에, 봉새가 북쪽 바다에서 남쪽 바다로 옮겨 갈 적에 날개를 치면 물결이 3천 리나 인다고 한 대목을 참고한 구절이다.

659 진(秦)나라 : 원문은 ‘극진(函秦)’이다.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형산(衡山)이 즐길 만한 곳이 아니라고 말하지 말라⁶⁶⁰ 休道衡山非可翫
 취한 늙은이의 풍채 또한 신선이라네 醉翁風彩亦神仙

사군(使君) 윤종지(尹宗之)가 천관산(天冠山)⁶⁶¹을 유람한다는
 소식을 듣고 부쳐 올린다

聞尹使君【宗之】遊天冠山寄呈

하늘 남쪽의 동쪽 모퉁이 가장 이름난 지역 天南東角最名區
 땅은 봉래(蓬萊) 영주(瀛洲)⁶⁶²와 만리 길로 접해있네 地接蓬瀛萬里途
 진(秦)나라 불사약 이르지 않는데⁶⁶³ 푸른 바다만 드넓고 秦藥不來滄海闊
 노(魯)나라 뗏목⁶⁶⁴ 자취 없는데 성난 파도만 칠씩칠씩 魯桴無跡怒濤呼
 인간세상의 풍랑 천 층(層)으로 일어나건만 人間波浪千層起

오래 유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렇게 표현한 듯하다. 《한서(漢書)》〈가의전(賈誼傳)〉에, “속
 답에 ‘앞 수레가 뒤집힘에 뒤 수레가 조심한다.’ 하였습시다. 진(秦)나라가 빨리 망하게 된 원
 인은 그 바퀴 자국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를 피하지 않는다면 뒤 수레가 또
 장차 뒤집히고 말 것입니다.[鄙諺曰 前車覆後車戒 秦氏所以亟絕者 其轍跡可見 然而不避
 是後車又將覆也]”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660 형산(衡山)이……말라 : 은거하는 공간이 충분히 즐길 만하다는 뜻이다. 중국 오악(五岳)의
 하나인 ‘형산(衡山)’은 호남성(湖南省)에 위치한 산으로, 남조(南朝) 송(宋)나라 유옹지(劉
 凝之)와 종병(宗炳), 당나라 이필(李泌) 등 역대 여러 인물이 이곳에 은거하였다. 형산이 중국
 남쪽에 위치해 있고, 자신 역시 현재 호남에 은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듯하
 다.

661 천관산(天冠山) : 전라남도 장흥에 위치한 산이다. 꼭대기의 바위 모습이 천자(天子)의 면류
 관(冕旒冠)과 같다 하여 천관산이라 불린다.

662 봉래(蓬萊) 영주(瀛洲) : 신선이 산다고 하는 산으로, 방장(方丈)과 함께 삼신산(三神山)이
 라 불린다. 동해(東海) 가운데에 있다고 한다.

663 진(秦)나라……않는데 : 진 시황(秦始皇)이 동해(東海)의 삼신산(三神山)에 불사약이 있다는
 방사(方士) 서복(徐福)의 말을 듣고 그에게 동남동녀(童男童女) 수천 명과 함께 배를 타고
 가서 불사약을 구해 오게 하였으나, 이들은 결국 돌아오지 않았다는 고사가 전한다. 《史記
 卷6 秦始皇本紀》

664 노(魯)나라 뗏목 : 공자는 노(魯)나라에서 도(道)가 행해지지 않자 노나라를 버리고 다른 나
 라로 가겠다고 탄식하면서, “나의 도가 행해지지 않으니, 뗏목을 타고 바다로 들어갈까 한
 다.[道不行 乘桴浮于海]”라 하였다. 《論語 公冶長》

물외(物外)의 푸른 산 한 점 외롭게 서 있네	物外青山一點孤
초탈한 흥취 즐기는 사군 몹시도 부러우니	深羨使君乘逸興
죽여(竹輿)에 서둘러 올라 방호(方壺) ⁶⁶⁵ 에 이르렀네	竹輿催駕到方壺

구강정사(龜江精舍)의 시에 차운하여 김중원(金仲源)⁶⁶⁶【오(梧)】에
게 보이다

次龜江精舍韻，示金仲源.【梧】

하늘이 열려 이렇게 좋은 강산 있으니	天開有是好江山
이곳을 노래한 걸출한 시인 몇 사람이던가	幾箇詩豪咏此間
성곽 너머의 구름과 노을 아침저녁으로 모습 달리하고	郭外雲霞朝暮態
물가의 바윗돌 예나 지금이나 한가롭네	水邊巖石古今閒
모래톱의 새 날개 나란히 하여 물결 따라 돌고	沙禽并翼隨波轉
두루미 홀로 날아 달빛 두르고서 돌아오네	野鶴孤飛帶月還
21년 만에 왔다가 다시 가니	二十一年來復往
물에 비친 옛 얼굴 유독 애처롭네	獨憐汀水舊容顏

종제(從弟)가 사암산(莎巖山) 아래에 작은 정자를 지으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멋대로 써서 부치다.

聞從弟將構小亭于莎巖山下，謾筆以寄。

들관 넓고 강 굽어 푸른 산 휘감으니	野闊江盤繞碧山
푸른 잔디 자란 바위 가 작은 님시터 사이라네	靑莎巖畔小磯間

665 방호(方壺) : 신선이 살고 있다는 삼신산(三神山)의 하나로, 방장(方丈)이라고도 한다. 여기 서는 천관산을 가리킨다.

666 김중원(金仲源) : 김오(金梧, 1617~?)를 가리킨다. 본관은 광산(光山), 자는 중원(仲源), 호는 칠매당(七梅堂)이다. 김집(金集)과 송준길(宋浚吉)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하늘이 좋은 땅 아끼는 것 어찌 뜻이 없으리오	天慳勝地寧無意
사람들 그윽히 살 곳 부족한데 홀로 얽치없이 차지하였네	人欠幽棲獨厚顏
여울은 원망하는 소리 내보내 멀리서 온 객 꾸짖고 ⁶⁶⁷	灘送怨聲誚遠客
새는 맑은 생각 머금고서 시 짓느라 센 머리 ⁶⁶⁸ 한스러워하네	鳥含清思恨詩班
마름풀 옷과 연잎 옷 입은 자 ⁶⁶⁹ 에게 말 전하노니	寄言芰製荷衣子
반평생 누린 한가함을 그대에게 기꺼이 나누어 주겠는가	肯許分君半世閒

사군(使君) 윤종지(尹宗之)의 운에 화답하다

酬尹使君【宗之】韻

빈 당에서 자다 깨어 훌륭한 정취 가득하니	睡起虛堂飽勝情
가득한 산색에 비가 막 개었네	十分山色雨新晴
안개 빛은 홀로 나는 새를 가늘게 휘감고	烟光細抹孤飛鳥
바람은 곱게 우는 피꼬리를 가볍게 흔드네	風力輕搖嫩舌鬣
형산(荊山)의 옥 ⁶⁷⁰ 품에 들어오니 정신이 풍부해지는 듯하고	荊玉入懷神欲富

667 여울은……꾸짖고 : 여울이 산속의 고요함을 지키기 위해 꺼림직한 물소리를 내어 멀리서 찾아오는 외부인을 쫓아낸다는 의미다.

668 시……머리 : 원문은 ‘시반(詩班)’으로, 곧 ‘시반(詩班)’을 말한다. 시를 짓느라 노심초사하여 머리카락이 희끗희끗해진 것을 말한다. 당(唐)나라 중이 지은 시에 ‘시를 짓다가 머리털이 희끗희끗해졌네[髮爲作詩斑]’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山堂肆考 卷127 詩斑》

669 마름풀……자 : 원문은 ‘기제하의자(芰製荷衣子)’다. 은자(隱者)를 가리킨다. 남조(南朝) 송(宋)나라의 주옹(周顛)이 은거를 그만두고 조정에 나가자 벗 공치규(孔稚圭)가 그를 비난하며 지은 <북산이문(北山移文)>에, “그동안 입고 있던 마름풀 옷을 불살라 버리고 연잎 옷을 찢어 버린 채, 먼지 낀 얼굴을 뺨뺨이 차켜들고서 속된 모습으로 마구 달려 나갔네.[芰製而裂荷衣 抗塵容而走俗狀]”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670 형산(荊山)의 옥 : 형산(荊山)에서 나는 품질 좋은 옥으로, 곧 화씨벽(和氏璧)을 가리키는 말이다. 춘추 시대 초(楚)나라 사람 변화(卞和)가 형산에서 보옥(寶玉)이 들어 있는 박옥(璞玉)을 찾아내어 초나라 여왕(厲王)에게 바쳤으나, 옥이 아니고 돌이라는 옥공(玉工)들의 감정(鑑定) 때문에 죄를 받아 왼쪽 발이 잘렸다. 여왕이 죽은 후 다시 무왕(武王)에게 이것을 바쳤으나 같은 이유로 오른쪽 발이 잘렸다. 뒤에 무왕이 죽고 문왕(文王)이 즉위하자 이를 다시 바쳤는데, 왕이 그것을 옥공에게 다듬게 한 결과 세상에서 다시 얻기 어려운 귀중한 보옥을 얻게 되었다. 《韓非子 卷4 和氏》

보배 구슬 두 손으로 쥐니 집에 밝은 기운 생겨나네 寶珠拱壁室生明
 부끄럽게도 연석(燕石)을 가지고 아름다운 옥에 화답하니⁶⁷¹ 羞將燕石酬瓊玖
 이별의 슬픔 곧장 성처럼 쌓인 것⁶⁷²이 도리어 한스럽네 却恨離愁便築城

금릉(金陵) 조 사군(使君)【성(惺)】에게 화답하다

酬金陵使君趙【惺】

천지 동남쪽 푸른 바다가에 天地東南碧海頭
 위태로운 난간 천 척(尺)의 높이 솟은 누대 하나 危欄千尺一高樓
 훌륭한 시인이 술 취해 적은 시 단청한 벽에 남아 있고 詩豪醉墨丹青壁
 뱃사공의 고기잡이 노래 원근의 모래섬에 들리네 舟子漁歌遠近洲
 해 돌아 나오는 부상(扶桑)⁶⁷³엔 새벽노을 붉고 轉日扶桑紅靄曉
 바다 노니는 봉새의 날개⁶⁷⁴엔 가을 구름 희네 運溟鵬翼白雲秋
 멀리서 알겠네 선위(仙尉)⁶⁷⁵께서는 다 오르고 난 뒤에 遙知仙尉登臨罷

671 부끄럽게도……화답하니 : ‘연석(燕石)’은 연산(燕山)에서 생산되는 영석(嬰石)으로 옥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옥이 아닌 돌이다. 송(宋)나라의 어리석은 자가 이 돌을 얻고는 큰 보물이라 여겨 애지중지하다가 옷음거리가 된 고사가 전한다. 《太平御覽 卷51 地部16》 자신의 보잘것 없는 시로 운중지의 훌륭한 시에 화답하는 것이 부끄럽다는 말이다.

672 이별의……것 : 이별로 인한 근심이 가득한 것을 성벽(城壁) 쌓인 모습에 비유한 것이다. 유신(庾信)의 <수부(愁賦)>에, “허다한 수성은 공략해도 끝내 부서지지 않고, 허다한 수문은 흔들어도 끝내 열리지를 않네.[攻許愁城終不破 蕩許愁門終不開]”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673 해……부상(扶桑) : ‘부상(扶桑)’은 동해에 있다고 전해지는 전설상의 나무로, 그 아래에서 해가 떠오른다 하여 해가 뜨는 동쪽 바다를 가리킨다. 《淮南子 卷3 天文訓》

674 바다……날개 : 북쪽 바다에서 남쪽 바다로 옮겨가는 봉새를 말한 것이다. 《장자》<소요유(逍遙遊)>에, “북쪽 바다에 물고기가 있으니, 그 이름은 곤이다. 곤의 크기는 몇 천 리인지 모른다. 변화하여 새가 되니, 그 이름은 봉이다. 봉의 등쪽은 몇 천 리인지 모른다. 기운차게 펼쳐 날아오르면 그 날개가 마치 하늘에 드리운 구름과 같다. 이 새는 바다가 움직이면 남쪽 끝의 검푸른 바다로 날아가려고 한다. 남쪽 바다란 하늘의 못, 천지가[北冥有魚 其名爲鯤 鯨之大 不知其幾千里也 化而爲鳥 其名爲鵬 鵬之背 不知其幾千里也 怒而飛 其翼若垂天之雲 是鳥也 海運則將徙於南冥 南冥者 天池也]”라 하였다.

675 선위(仙尉) : 한(漢)나라 때 남창위(南昌尉)를 지낸 매복(梅福)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는 왕망(王莽)의 전정(專政)을 증오하여 처자(妻子)를 버리고 떠나 신선이 되었다고 한다. 《漢書 卷67 梅福傳》 수령 조성(趙惺)을 매복에 빗대 표현한 것이다.

흥에 겨워 작은 배 타고서 기수의 물결 따라 노니시겠지⁶⁷⁶ 乘興扁舟任沂流

이 감여(李堪輿)【계현(啓玄)】에게 주다

贈李堪輿【啓玄】

나무 아래의 남아(男兒) ⁶⁷⁷ 바닷가에서 태어나니	木下男兒生海圻
한 마음의 천지 현비(玄扉)를 열어젖히네 ⁶⁷⁸	一心天地啓玄扉
정신은 산수의 맑고 찬 굴에서 노닐고	神遊山水清冷窟
신묘함은 풍운의 변화하는 기틀에 이르네	妙到風雲變化幾
금강(金剛)의 천만 가지 모습을 다 보고	觀盡金剛千萬像
선기옥형(璇璣玉衡)으로 일곱 기틀을 모두 아네 ⁶⁷⁹	智窮璇玉四三機
대장부가 행하는 일은	須知大丈夫行事
명교(名教) ⁶⁸⁰ 가운데로 절로 귀결됨을 알아야 하리	名教中間自在歸

676 기수(沂水)의……노니시겠지 : ‘기수(沂水)’는 노(魯)나라 도성 남쪽에 있는 물 이름으로, 한가로운 자연 공간을 상징한다. 《논어》〈선진(先進)〉에, 공자가 증점(曾點)에게 장래 포부를 물어보자 그가 타고 있던 비파를 내려놓으며 말하기를 “늦은 봄에 봄옷이 만들어지면 관을 쓴 벗 대어섯 명과 아이들 예닐곱 명을 데리고 기수(沂水)에서 목욕하고 무우(舞雩)에서 바람을 쐬 뒤 시를 읊으면서 돌아오겠습니다.”[暮春者 春服既成 冠者五六人 童子六七人 浴乎沂 風乎舞雩 詠而歸]라 하였다는 고사가 전한다.

677 나무 아래의 남아(男兒) : ‘이(李)’ 자를 파자(破字)하여 표현한 것으로, 이씨(李氏) 남자 아이를 뜻한다.

678 현비(玄扉)를 열어젖히네 : 원문은 ‘계현비(啓玄扉)’다. 이계현(李啓玄)의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현비(玄扉)’는 보통 무덤의 문 또는 저승과 통하는 문을 뜻하는데, 여기서는 ‘오묘한 이치를 품고 있는 문’의 의미로 사용된 듯하다.

679 선기옥형(璇璣玉衡)으로……아네 : ‘선기옥형(璿璣玉衡)’은 아름다운 주옥으로 꾸민 하늘의 도수를 측정하는 기구이며, ‘일곱 기틀’은 일월(日月)과 오성(五星)을 가리킨다. 《서경》〈순전(舜典)〉에, “선기와 옥형을 살펴 칠정을 고르게 하였다.[在璿璣玉衡 以齊七政]”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680 명교(名教) : 인륜(人倫)의 명분을 밝히는 가르침으로, 곧 유교(儒教)를 말한다.

김중원(金仲源)⁶⁸¹의 시에 차운하다

次金仲源韻

소나무 드리운 창 적막하여 낮에도 그늘지니	松窓溼寂晝猶陰
만물을 덮어주고 실어주는 천지 낭랑한 시 속에 들어오네	覆載乾坤入朗吟
남은 국화 향기 있어 세밑임을 알고	殘菊有香知歲暮
시든 연꽃 뿌리 없어 가을 깊었음을 깨닫네	敗荷無藕覺秋深
숲가의 늙은 학 천년의 뜻 품었고	林邊老鶴千年志
물외(物外)의 한가로운 갈매기 만리의 마음 지녔네	物外閑鷗萬里心
만약 우리들 가슴 속 일을 말한다면	若道吾儕胷裏事
하늘 가득한 가을 달 우리 두 사람의 흉금 비추는 것이네	一天秋月照雙襟

두 번째

其二

가을바람 ⁶⁸² 높이 일어 모진 음기 쓸어내니	商飈高起掃頑陰
만 개의 구멍으로 가을 소리 저마다 읊어대네	萬竅秋聲各自吟
난초 마른 옥계(玉溪)에 향기 더욱 아득하고	蘭瘦玉溪香更遠
낙엽 덮인 산길엔 계곡이 다시 깊네	葉藏山路谷還深
옛 벗의 편지 속에 담긴 평생의 뜻	故交書裏平生意
친구의 시 속에 실린 한 조각 마음	知舊詩中一片心
세밑에 그윽한 대나무 아래서 서로 기약하니	歲晚相期幽竹下
흰 구름과 흐르는 물 흉금 터놓기 좋다네	白雲流水好開襟

681 김중원(金仲源) : 김오(金悟, 1617~?)를 가리킨다. 본관은 광산(光山), 자는 중원(仲源), 호는 칠매당(七梅堂)이다. 김집(金集)과 송준길(宋浚吉)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682 가을바람 : 원문은 '상표(商飈)'다. 가을에 부는 선선하고 서늘한 바람을 말한다.

김장이(金丈而) 신(愼)의 시에 차운하여 김 거사(金居士)에게 화답하다

次金丈而愼韻, 酬金居士.

버들 묻고 꽃 찾아 수원(水源)으로 가니	問柳尋花趁水源
교외의 집 적막하여 속세의 시끄러움 멀리하네	郊居寂寂謝塵喧
인간 세상에서 누가 시에 곤궁한 늙은이 ⁶⁸³ 를 알겠는가	人間孰識窮詩老
세상 밖에서 언제나 풀로 뒤덮인 문 잠그고 있다네	世外常關蔽華門
두 백씨(白氏) 고심해 시 읊는 것 백중(伯仲)이 나란하고 ⁶⁸⁴	二白苦吟連伯仲
삼홍(三紅)의 공교한 법 ⁶⁸⁵ 으로 아들 손자를 가르치네	三紅巧法教兒孫
생각건대 두 다리 뻗고서 아름다운 구절 지을 것이니 ⁶⁸⁶	想當盤礴成佳句
시 짓느라 산처럼 어깨 움츠릴 때 뜻 가득하겠지 ⁶⁸⁷	肩聳山時意十分

683 시에 곤궁한 늙은이 : 원문은 ‘궁시로(窮詩老)’다. ‘시궁(詩窮)’은 시를 좋아함으로써 곤궁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송(宋)나라 구양수(歐陽脩)가 <매성유시서(梅聖俞詩序)>에 “시가 사람을 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궁해진 뒤에야 시가 공교해지는 것이다.[非詩能窮人 詩窮者而後工也]”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684 두……나란하고 : ‘두 백씨(白氏)’는 당나라 때 활동한 백거이(白居易)와 백행간(白行簡) 형제를 가리키는 듯하다. 백거이의 아우 백행간도 형인 백거이의 문풍(文風)이 있었고 사부(辭賦)에선 더욱 정밀하였다고 한다. 《舊唐書 卷166 白居易列傳》 김 거사의 형제가 모두 시에 능하였기에 이렇게 말한 듯하다.

685 삼홍(三紅)의 공교한 법 : 시에 대한 뛰어난 재주를 말한다. 송(宋)나라 때 응자화(應子和)가 시를 잘하여 일찍이 ‘양안석양홍(兩岸夕陽紅)’, ‘납거단소홍(蠟炬短燒紅)’, ‘풍과낙화홍(風過落花紅)’이라는 세 명구(名句)를 지어 당시 사람들에게 ‘삼홍수재(三紅秀才)’로 일컬어졌던 데서 온 말이다. 《山堂肆考 卷103 三影先生》

686 두……것이니 : ‘두 다리를 뻗는다.’는 것은 재능에 뛰어난 이가 규칙에 구애받지 않고 여유로운 모습을 보임을 말한다. 《장자(莊子)》 <전자방(田子方)>에, “송나라 원군이 그림을 그리게 하였더니, 붓 화공들이 몰려들었는데, 그들은 모두 서로 읊을 하고 서서 붓을 뻗고 먹을 갈고 하는데, 이때 경쟁자가 많아서 반수는 밖에 있었다. 그때 한 화공은 가장 늦게 와서 달려오지도 않고 천천히 들어와 읊을 하고는 서지도 않은 채 방 안으로 들어가 버리므로 원군이 사람을 시켜 그의 행동을 엿보게 했더니, 그는 옷을 벗고 두 다리를 쭉 뻗고 나체로 있었다. 원군이 말하기를 ‘됐다. 이 사람이 참다운 화공이다.’고 했다.[宋元君將畫圖 衆史皆至受揖而立 舐筆和墨 在外者半 有一史後至者 僮僮然不趨 受揖不立 因之舍 公使人視之 則解衣盤礴贏 君曰可矣 是真畫者也]”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687 시……가득하겠지 : 어깨를 움츠리고 시상에 잠겨 있는 모습을 말한 것이다. 소식(蘇軾)의 시 <증사진하수재(贈寫真何秀才)>에 나귀를 타고 파교(灞橋)를 지나가는 맹호연(孟浩然)을

나자정(羅子整)⁶⁸⁸의 만휴당(晩休堂) 시에 차운하다

次羅子整晩休堂韻

옥처럼 솟은 푸른 산 금강(錦江)의 남쪽	玉立青山錦水南
사람에 바람과 달을 겸하여 세 가지를 훌륭하게 이루었네	人兼風月好成三
세상인심 다 이야기하러니 말이 모두 고통스럽고	世情說盡言全苦
한가한 흥 맛보니 맛이 다시 달콤하네	閒興嘗來味更甘
몇 이랑의 좋은 밭 이미 충분함을 알겠고	數畝良田知已飽
술잔의 진한 술에 약간의 취기를 느끼네	■盃醇酒覺微酣
강 건너에 때때로 어옹(漁翁)이 찾아오니	隔江時有漁翁至
마주해 농사 이야기 나누면서 옛 이야기도 섞어 하네	對打農談雜古談

원운(原韻)을 붙임

附原韻

몽호(夢湖)의 북쪽과 곡강(曲江)의 남쪽	夢湖之北曲江南
언덕 너머 쓸쓸하여 집 두세 채 뿐이네	隔岸蕭然家兩三
당에서 만년에 휴식하며 이 몸 장차 늙어갈 것이요	堂以晩休身且老
마을은 작은 골짜기라 물맛 오히려 달콤하네	村爲尺谷水猶甘
기러기 산 너머로 날아가니 가을 소리 벌써 이르렀고	鴈唳山外秋聲早
물고기 갈대 옆에서 노니니 낚시하는 흥 무르익네	魚戲蘆邊釣興酣
지난 일 이제 와서 어찌 차마 말하리오	往事如今那忍說
새로 지은 시나 그런대로 벗과 함께 이야기하네	新詩聊與故人談

음으며 “또 보지 못했는가, 눈 속에 나귀를 탄 맹호연이 눈썹을 찌푸리고 시를 읊으며 풍긋한 어깨가 산처럼 높네.[又不見雪中騎驢孟浩然 皺眉吟詩肩聳山]”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688 나자정(羅子整) : 나반(羅攀)을 가리킨다. 자정(子整)은 그의 자. 과천 현감(果川縣監), 정읍 현감(井邑縣監), 마전 군수(麻田郡守) 등을 역임하였다.

조보(朝報)를 보고 감회가 일어

見朝報有感

성주(聖主)께서 부지런히 힘쓰시어 태평성대 이루시니	聖主孜孜致太平
요(堯)임금 뜰에서 차례로 영웅호걸을 천거하네	堯庭次第進豪英
일찍이 듣건대 북해에서 낚싯대 도로 거둔다 하였는데	曾聞北海還收釣
지금 보니 남양(南陽)에서 또 농사일을 그만두었네 ⁶⁸⁹	今見南陽又輟耕
마을의 노랫소리 늙은이나 어린이나 함께 부르고	里巷歌謠同老少
산림에서 살아가는 생활 공명(功名)의 길과는 다르네	山林經濟異功名
시골 사람들이 바라는 일 더 남은 것이 없으니	野夫所望無餘事
강한(江漢)의 풍파에 영원토록 놀라지 않는 것이네	江漢風波永不驚

서 감사(徐監司)⁶⁹⁰【필원(必遠)】가 관찰사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聞徐監司【必遠】按節

해동(海東)의 남쪽 땅 촉(蜀)이나 형주(荊州)와 같으니	海東南地蜀荊州
하늘이 내린 지역의 이름난 땅 팔도 가운데 으뜸이라네	天府名疆冠八區
진나라 사람들은 천맥법을 가벼이 해 주기를 바라고 ⁶⁹¹	秦俗願輕阡陌法

689 일찍이……그만두었네 : 강태공(姜太公)은 위수(渭水)에서 낚시를 하다가 주나라 문왕(文王)의 초빙을 받아 낚싯대를 거두고 벼슬길에 나갔으며, 남양에 은거하던 제갈량(諸葛亮)은 유비(劉備)의 초빙을 받아 출사하였다. 태평성대인 까닭에 재야의 인재가 모두 조정에 등용되었음을 말한 것이다.

690 서 감사(徐監司) : 서필원(徐必遠, 1614~1671)을 가리킨다. 본관은 부여(扶餘), 자는 재이(載翹), 호는 육곡(六谷)이다. 1648년 과거에 급제하여 홍문관 수찬·사헌부 지평·이조 정랑 등을 역임하고, 1658년 전라 감사에 임명되었다.

691 진나라……바라고 : ‘천맥(阡陌)’은 전담 사이에 있는 남북과 동서의 소로(小路)를 가리킨다. 상양(商鞅)이 진 효공(秦孝公)에게 발탁된 뒤에 이 천맥을 없애는 일종의 경지 정리를 해서 토지 면적을 늘리고 새로운 세법을 적용하여 국가 재정을 증대시켰다.

당(唐)나라 백성들은 양세법(兩稅法)을 기뻐하지 않네⁶⁹² 唐民不喜兩輸謀
 유문(孺文)이 어찌 청하(清河)의 태수를 아끼겠는가⁶⁹³ 孺文何惜清河守
 고자(高子)가 장차 성도의 태수에 제수될 것이네⁶⁹⁴ 高子將除成都侯
 이로부터 호남 고을의 마을길은 從此湖鄉村巷路
 한밤중에 문을 열어 둘 수 있고 개 짖는 소리도 그칠 것이네⁶⁹⁵ 關門中夜吠聲休

692 당(唐)나라……얕네 : ‘양세법(兩稅法)’은 당나라 때 시행된 조세제도로, 각 가호(家戶)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재산을 조사하여 그 정도에 따라 1년에 두 차례 여름과 가을에 세금을 곡물(穀物)이나 전(錢)·직물(織物) 등으로 징수한 세법(稅法)을 말한다. 안사(安史)의 난(亂)으로 인해 조용조(租庸調) 제도가 무너지자 그 대안으로 마련된 것이다. 당시 백성들이 양세법을 좋아하지 않았다는 말과 관련해서는 유종원의 <포사자설(捕蛇者說)>에 다음과 같은 고사가 전한다. 영주(永州) 땅에 특효약으로 쓰이는 독사가 서식하고 있었는데, 조정에서는 그 뱀을 1년에 두 차례씩 잡아 바치도록 하고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세납(稅納)을 면제해 주었다. 장씨(蔣氏)라는 자가 삼대(三代)째 그 일을 하다가 조부와 부친이 모두 뱀에 물려 죽었고 자신도 여러 차례 죽을 뻔하였으나, 가혹한 세납과 부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차마 그 일을 그만두지 못하였다고 한다. 《古文眞寶 後集》

693 유문(孺文)이……아끼겠는가 : ‘유문(孺文)’은 후한(後漢) 순제(順帝) 때 사람인 소장(蘇章)의 자(字)다. 그가 기주 자사(冀州刺史)가 되어 관할 지역을 순시할 적에 청하 태수(清河太守)로 있는 옛 친구의 죄상을 파악하였다. 그는 친구를 불러 술을 마시며 즐겁게 즐긴 뒤에 “오늘 저녁 소유문이 옛 친구와 술을 마시는 것은 사은(私恩)이고, 내일 기주 자사로서 일처리를 하는 것은 공법(公法)이다.”라 하고는 마침내 죄를 바로잡았는데, 이에 온 경내가 엄숙해졌다고 한다. 《後漢書 卷31 蘇章列傳》 서필원에게 이 지역을 공평하고 엄정하게 다스려 줄 것을 청하기 위해 한 말이다.

694 고자(高子)가……것이네 : ‘고자(高子)’는 당나라 고적(高適)을 가리킨다. 그는 안록산(安祿山)의 난 이후 성도(成都)에 촉주 자사(蜀州刺史)로 부임하였는데, 당시 성도에 우거하고 있던 두보(杜甫)와 가까이 지냈다. 두보가 글을 모아둔 상자를 정리하다가 이미 고인이 된 고적이 자신에게 보내주었던 <인일기두이습유(人日寄杜二拾遺)> 시를 발견하고서 눈물을 흘리며 수답시를 지은 고사가 유명하다. 《新唐書 卷143 高適列傳》 자신과 가까이 지내는 서필원이 장차 전라 감사로 부임할 것임을 말한 것이다.

695 이로부터……것이네 : 전라 감사로 내려오는 서필원이 앞으로 선정을 베풀어 고을에 도둑이 없어질 것임을 말한 것이다.

이 상공(李相公)⁶⁹⁶【경여(敬輿)】의 시에 화운하다

和李相公【敬輿】韻

남쪽 고을의 안개와 비 나그네 옷깃 적시니	蠻鄉烟雨濕征裾
가을 다한 장사(長沙) ⁶⁹⁷ 에 해가 처음 떨어지네	秋盡長沙日落初
상수(湘水) ⁶⁹⁸ 에 마음 있어 객의 배 이어지고	湘水有情連客帆
초(楚)나라 구름 ⁶⁹⁹ 일 없어 은거의 삶 꿈꾸네	楚雲無事夢幽居
동산(東山) 적막한데 헛되이 기녀를 감추고 ⁷⁰⁰	東山寂寂空藏妓
남쪽 바다 아득한데 부질없이 글을 올리네 ⁷⁰¹	南海悠悠謾上書

696 이 상공(李相公) : 이경여(李敬輿, 1585~1657)를 가리킨다.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직부(直夫), 호는 백강(白江)·봉암(鳳巖)이다. 1609년 과거에 급제하여 청주 목사·좌승지·전라도 관찰사 등을 역임하고 우의정에 올랐다. 1646년 민회빈 강씨(愍懷嬪姜氏)의 사사(賜死)를 반대하다가 진도(珍島)에 유배되고, 다시 1648년 삼수(三水)에 위리안치되었다. 이듬해 효종이 즉위하자 풀려 나와 1650년에 다시 영중추부사가 되었다. 이어 영의정으로 다시 사은사가 되어 청나라에 다녀온 뒤 청나라의 압력으로 영중추부사로 옮겼다.

697 장사(長沙) : 한(漢)나라 가의(賈誼)가 좌천된 곳이다. 그는 20세에 문제(文帝)의 신임을 받아 태중대부(太中大夫)로 발탁되어 복색(服色), 제도(制度), 관명(官名) 등의 대대적인 개혁을 주장하다가 당시 대신이었던 주발(周勃), 관영(灌嬰) 등으로부터 “낙양에서 온 나이 어린 초학이 오로지 권세를 독점하려 하고 정사를 문란하게 하고 있다.”라는 참소를 입었다. 그리하여 문제의 신임을 잃고 장사왕(長沙王)의 태부(太傅)로 좌천되어 33세의 젊은 나이로 죽었다. 《漢書 卷48 賈誼傳》 당시 이경여가 진도에 유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사용한 듯하다.

698 상수(湘水) : 초(楚)나라 굴원(屈原)이 무고를 당하여 쫓겨나 있던 곳으로, 흔히 유배지를 뜻하는 말로 사용된다. 당시 이경여가 진도에 유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사용한 듯하다.

699 초(楚)나라 구름 : 남쪽 땅의 구름을 뜻한다. 김만영 자신이 머무르고 있는 남쪽 지방의 은거 공간을 표현하기 위해 이러한 말을 사용한 듯하다.

700 동산(東山)……감추고 : ‘동산(東山)’은 중국 회계(會稽)에 있는 산으로, 동진(東晉) 때의 인물 사안(謝安)이 은거하던 곳이다. 그는 동산에 은거하면서 계속되는 조정의 부름에도 응하지 않았는데, 20여 년 동안 한가로이 산수를 노닐면서 항상 가무에 능한 기녀(妓女)를 대동하였다고 한다. 《世說新語 排調》

701 남쪽……올리네 : 한 문제(漢文帝) 때 장사왕 태부(長沙王太傅)로 좌천된 가의(賈誼)가 흉노의 변경 침입 및 제후의 발호로 인한 국가의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치안책(治安策)>을 올린 일을 말한다. 이 글에서 가의는 시사의 문제점으로 통곡할 만한 일 하나, 눈물 흘릴 만한 일 둘, 장탄식할 만한 일 여섯 가지에 대한 대책을 진언하였다. 《漢書 卷48 賈誼傳》

먼 변방에서 굳이 북조(鵬鳥)를 근심할 것 없으니⁷⁰² 天末不須憂鵬鳥
 성조(聖朝)의 어진 교화 돼지와 물고기에게도 믿음을 주네⁷⁰³ 聖朝仁化信豚魚

윤 충의(尹忠義)⁷⁰⁴【장훈(長勳)】의 산실(山室)에 부치다

寄尹忠義【長勳】山室

골짜기 가득한 안개와 노을 푸른 언덕을 감싸니	滿壑烟霞擁翠邱
산속 시내의 옥 구르는 물소리 현(軒)을 휘감아 흐르네	石泉鳴玉繞軒流
두 가지의 아가위꽃 구름이 책상을 함께 하고	雙枝棣萼雲同榻
두 그루 자형화(紫荊花) 달이 한 구역을 비추네 ⁷⁰⁵	兩樹荊花月一區
바위 모서리엔 대나무 숲길이 가늘게 열렸고	石角細開叢竹逕
못 사이엔 작은 난초 자란 모래섬이 조그맣게 쌓여 있네	潭間微築小蘭洲
푸른 산 어느 곳에 그윽한 집 없겠는가마는	靑山何處無幽室
우애 넘치는 깊은 정은 세상에 보기 드문 것이라네	友愛深情世罕覩

702 먼……없으니 : ‘북조(鵬鳥)’는 올빼미와 비슷하게 생긴 새인데, 요조(妖鳥)로 일컬어진다. 한(漢)나라 가의(賈誼)가 장사왕 태부(長沙王太傅)로 좌천되었을 때, 북조가 그의 집으로 날아든 것을 보고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며 <북조부(鵬鳥賦)>를 지었다는 고사가 전한다. 《史記 卷84 賈生列傳》 먼 변방에 유배되어 있지만 죽음을 근심할 일은 없다는 말이다.

703 성조(聖朝)의……주네 : 임금의 어진 교화가 널리 이루어져 돼지나 물고기와 같은 무지한 동물까지도 감동한다는 말이다. 《주역·중부괘(中孚卦)》에, “중부는, 돼지와 물고기에 미치면 길하니, 큰 사내를 건너면 이롭고 곧으면 이롭다.[中孚 豚魚 吉 利涉大川 利貞]”라 하였는데, 그 단사(彖辭)에 “돼지와 물고기에 미치면 길하다는 것은 신뢰가 돼지와 물고기에게까지 미친다는 뜻이다.[豚魚 吉 信及豚魚也]”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704 윤 충의(尹忠義) : 윤장훈(尹長勳)을 가리킨다. 김만영과 교류하던 인물로 보이나, 자세한 사항은 미상이다.

705 두 가지의……비추네 : ‘아가위꽃’과 ‘자형화(紫荊花)’는 모두 형제간의 우애를 상징하는 식물이다. 《시경·상제(常棣)》에, “활짝 핀 아가위꽃, 얼마나 곱고 아름다운가. 이 세상에 누구라 해도, 형제만 한 이가 없나니.[常棣之華 鄂不韡韡 凡今之人 莫如兄弟]”라 하였다. 또 남조(南朝) 양(梁)나라 경조(京兆) 사람인 전진(田眞) 삼형제가 각기 재산을 나누어 가진 뒤 마지막으로 뜰에 심은 자형수를 갈라서 나누어 가지려 하였는데, 자형수가 곧 시들고 말았다. 이에 삼형제가 뉘우치고 다시 재산을 합하니, 자형수가 다시 무성하게 자랐다고 한다. 《續齊諧記 紫荊樹》 윤장훈 형제의 우애가 돈독함을 말한 구절이다.

오씨(吳氏)에게 주다 【재발(再發)이니, 곧 처조카이다.】

贈示吳【再發, 卽聘侄也】

그대 집안에 대대로 이어진 은택 흘러온 근원 아득하니	君家世澤遠流源
충효(忠孝)의 꽃다운 명성 그 손자에게까지 미쳤네	忠孝芳聲貽乃孫
학사의 높은 명성 한원(翰院)을 치달리고	學士高名馳翰院
선생의 의기와 충렬 천지에 빼어나네	先生義烈出乾坤
업후(鄴侯)의 박학함 서적 일천 권이요 ⁷⁰⁶	鄴侯博業書千卷
장씨(張氏)의 문풍은 ‘인(忍)’ 한 글자로다 ⁷⁰⁷	張氏門風忍一言
그대에게 권하노니 노력하여 선조 욕되게 하지 않기를 생각하여 ⁷⁰⁸	勸爾勉旃思忝厥
입신(立身)과 수행(修行) 모두 소홀히 하지 않기를	立身修行兩無昏

김중원(金仲源)⁷⁰⁹【오(吳)】에게 답하다

答金仲源【吳】

일찍이 오랑캐 막기 위해 만리장성 쌓았거늘	嘗築防胡萬里城
천근의 종정(鍾鼎) ⁷¹⁰ 도 터럭 한 올만큼 가볍게 여겼네	千鈞鍾鼎一毫輕

706 업후(鄴侯)의……권이요 : ‘업후(鄴侯)’는 당나라 이필(李泌)의 봉호다. 그의 아버지 이승휴(李承休)가 2만여 권의 서책을 모아서 자손에게 물려주었다고 한다. 《困學紀聞 卷14 考史》 오재발의 집안에 선대로부터 전해 오는 서책이 많다는 뜻이다.

707 장씨(張氏)의……글자로다 : ‘장씨(張氏)’는 당(唐)나라 때 사람 장공예(張公藝)를 가리킨다. 그는 9대(代)의 친족과 한 집에서 함께 살았는데, 고종(高宗)이 그 집을 방문하여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방도를 묻자 참을 ‘인(忍)’ 자를 백 번 써서 바쳤다고 한다. 《舊唐書 卷188 孝友列傳 張公藝》 오재발의 집안이 매우 화목함을 말한 것이다.

708 선조……생각하여 : 원문은 ‘사침궐(思忝厥)’이다. 조상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뜻의 ‘무침(無忝)’에서 온 말이다. 《시경》〈소아(小雅)·소완(小宛)〉에, “내 날마다 매진하거든 너도 달마다 매진하라.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자서 너를 낳아주신 분을 욕되게 하지 말라.[我日斯邁 而月斯征 夙興夜寐 無忝爾所生]”라 하였다.

709 김중원(金仲源) : 김오(金吳, 1617~?)를 가리킨다. 본관은 광산(光山), 자는 중원(仲源), 호는 칠매당(七梅堂)이다. 김집(金集)과 송준길(宋浚吉)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710 종정(鍾鼎) : 종과 솥으로, 국가에 큰 공을 세우면 종정에 새겨 후세에 전하였다.

얼음이 옥각(玉閣)에 생겨 하늘과 이어져 차고	冰生玉閣連空冷
달이 찬 시내에 비쳐 바닥까지 맑네	月入寒溪澈底清
해 지나가자 시린 기운 치아에 스며듦을 비로소 알겠고	歲去方知酸透齒
추위 찾아오자 술잔에 술 따르는 일만 오직 기뻐하네	寒來惟喜酒浮觥
훗날 만약 섬계(剡溪)의 흥취 ⁷¹¹ 를 찾는다면	他時若訪剡中興
호산(湖山)의 눈 내린 뒤의 맑은 날을 함께 기다려야 하리	共待湖山雪後晴

이 사군(李使君)⁷¹²【정(叟)】이 찾아온 데 대해 사례하다

謝李使君【叟】來訪

사군께서 한가한 때를 틈타 물외(物外)를 노니시니	使君投暇物外遊
물외의 전원 양기(陽氣)를 향해 새롭네 ⁷¹³	物外田園向九新
은색 빛 꽃은 여인들 웃음 머금고 두모(杜母) ⁷¹⁴ 맞이하며	銀櫛含嚔延杜母

711 섬계(剡溪)의 흥취 : 벗을 찾아가는 흥을 말한다. 진(晉)나라 때 산음현(山陰縣)에 살던 왕 휘지(王徽之)가 눈 내린 어느 날 밤에 달빛 또한 청명하자, 갑자기 섬계에 사는 친구 대규(戴逵)가 생각나서 그대로 밤에 배를 타고 밤새도록 가서 대규의 문 앞에 이르렀다가 그 집에는 들어가지 않고 다시 배를 되돌렸다. 어떤 이가 그 까닭을 물으니, 왕휘지가 대답하기를 “처음에 흥(興)이 나서 갔다가 흥이 다해서 그냥 돌아가는 것이니, 어찌 꼭 대규를 만날 필요가 있겠는가.”라 한 고사가 전한다. 《晉書 卷80 王羲之列傳 徽之》

712 이 사군(李使君) : 이정(李叟)을 가리킨다. 군자감 관관(軍資監判官), 함흥 관관(咸興判官), 밀양 부사(密陽府使), 고성 군수(高城郡守) 등을 역임하였다. 1656년 남평 현감(南平縣監)으로 부임하였다.

713 양기(陽氣)를 향해 새롭네 : ‘양기(陽氣)’의 원문은 ‘구(九)’다. 《주역》에서는 양효(陽爻)를 ‘구’라 한다. 봄날이 되어 양기가 충만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듯하다.

714 두모(杜母) : 선정을 베푼 지방관을 뜻하는 말이다. 후한(後漢) 사람 두시(杜詩)가 남양 태수(南陽太守)가 되어 선정을 베푼자, 남양 사람들이 “앞에는 아버지 같은 소신신이 있고 뒤에는 어머니 같은 두시가 있다네.[前有召父 後有杜母]”라 칭송한 데서 유래하였다. 《後漢書 卷31 杜詩列傳》

철관(鐵官)은 취기 타고 도후(刀侯) ⁷¹⁵ 계 절하네 ⁷¹⁶	鐵官乘醉拜刀侯
이끼 자란 뜰 신선의 신발에 밟혀 뜯어지고 ⁷¹⁷	苔庭踏裂仙覺鳥
초가집에 지방관의 수레 ⁷¹⁸ 처음으로 머무르네	草屋初停阜蓋輜
사람이 강성(江城)을 떠나 승적(勝跡)에 머무르니	人去江城留勝跡
흰 구름 예전처럼 숲과 언덕을 감싸네	白雲依舊擁林邱

중제【해영(海英)⁷¹⁹】의 산당(山堂)에 부치다 【무술년(1658, 35세)】

寄從弟【海英】山堂【戊戌年】

작은 정자 새로 지어 양기(陽氣) 생기는 동쪽을 향하니	小亭新築向陽東
아득히 호수와 하늘을 눌러 기세가 웅장하네	迥壓湖天氣勢雄

715 도후(刀侯) : 지방관을 뜻하는 말이다. 진(晉)나라 왕준(王濬)이 어느 날 칼 세 자루를 들보에 걸어 놓았는데, 그날 밤 꿈에 칼 한 자루를 그 곁에 더 걸어놓은 꿈을 꾸고는 이를 불길하게 생각하였다. 이의(李毅)가 그 꿈을 해석하기를, “칼 세 자루는 곧 고을 주(姚) 자인데 칼 한 자루를 더하였으니, 이는 곧 익주(益州)가 된다. 그러니 그대가 익주 자사(益州刺史)가 될 길몽이다.”라 하였는데, 뒤에 과연 왕준이 익주 자사가 되었다는 고사에서 유래하였다. 《晉書 卷42 王濬列傳》

716 은색……절하네 : 소식(蘇軾)의 시 <오잠영조동년야옹정(於潛令刁同年野翁亭)>에, “산사람은 취하고 나면 철관을 떨어뜨리고, 골짜기 여인들 옷을 적엔 은빛이 나직하구나.[山人醉後鐵冠落 溪女笑時銀櫛低]”라 하였다. 옛날부터 오잠(於潛) 지방의 여인들은 은으로 만든 한자나 되는 큰 빗을 머리에 꽂았다고 한다. 《蘇東坡詩集 卷9》 이정이 부임해 있는 곳이 남쪽 지역인 전라도 남평이므로, 중국 남부에 해당하는 절강성(浙江省) 오잠의 정경과 풍속을 전고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717 이끼……뜯어지고 : 원문은 ‘부석(覺鳥)’이다. 신선이 신는 신발을 말하는데, 흔히 지방 수령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후한(後漢) 사람 왕교(王喬)가 지방관으로 있으면서 매월 초하루 보름이면 반드시 궁궐에 조회를 하고 나갔는데 뒤따라 온 자기(車騎)도 없었다. 그를 이상히 여긴 황제가 태사(太史)에게 밀령을 내려 지켜보게 하였더니, 그가 올 때쯤에 동남쪽에서 오리 두 마리가 날아오고 있을 뿐이었다. 이에 그물을 던져 잡았더니 속에 오직 신발 한 짝이 있었다는 고사에서 유래하였다. 《後漢書 方術傳》 이정이 자신의 누추한 집을 방문해 준 일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718 지방관의 수레 : 원문의 ‘조개(阜蓋)’는 흑색의 수레 덮개라는 뜻으로, 곧 지방관을 가리킨다. 《후한서·여복지 상(輿服志上)》에, “중 2000석과 2000석은 모두 수레 덮개를 흑색으로 한다.[中二千石 二千石皆阜蓋]”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719 해영(海英) : 김해영(金海英)을 가리킨다. 자세한 사항은 미상이다.

문으로 금강(錦江)의 빛 들이니 천 굽이 물이요 門納錦光千曲水
 창에 신라와 백제 기운 머금으니 여섯 자라⁷²⁰의 바람이로다 窓含羅濟六鰲風
 나루 잃은 초(楚)나라 선박 황룡(黃龍)의 배⁷²¹요 迷津楚舶黃龍舫
 성곽 두른 오(吳)나라 조수 흰 비단이 붉어지네⁷²² 繞郭吳潮白練紅
 작은 정자 세 척(尺)의 땅을 내려가지 않아도 不下小亭三尺地
 사마자장(司馬子長)처럼 형승을 유람한 공효를 거둘 수 있네⁷²³ 子長形勝可收

부질없이 읊다

漫吟

밝고 밝은 아침 해 층층이 쌓인 그늘 흠어주니 明明朝日決層陰
 동창에서 잠 깨어 소옹(邵雍)의 시⁷²⁴ 사랑하네 睡起東窓愛邵吟

720 여섯 자라 : 바다속에서 삼신산(三神山)을 머리에 이고 있다는 전설상의 동물이다. 거인국인 용백국(龍伯國)의 어떤 사람이 한 번의 낚시로 이 자라 여섯 마리를 한꺼번에 낚았다고 한다. 《列子 湯問》

721 황룡(黃龍)의 배 : 우(禹) 임금이 남쪽으로 순수(巡狩)하다가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데 황룡이 배를 지고 뒤집으려 하였다. 배에 탄 사람들이 두려워하거늘 우 임금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기를 “나는 하늘에서 천명을 받아 힘을 다해 만민을 위로하고 있으니, 삶은 이 세상에 기탁하는 것이고 죽음은 저승으로 돌아가는 것이다.”라고 하고 황룡 보기를 도마뱀처럼 하고 안색이 변하지 않으니, 황룡이 머리를 숙이고 꼬리를 내리며 물러났다는 고사가 전한다. 《十八史略 卷1》

722 성곽……붉어지네 : 바다가 석양에 붉게 물들어가는 모습을 표현한 듯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공자가 안연(顔淵)과 함께 노(魯)나라 태산(泰山)에 올라 오(吳)나라의 창문(昌門)을 바라보았는데 안연이 말하기를, “한 필의 하얀 배가 보입니다.[見一匹練]”라 하니, 공자가 이르기를 “그것은 흰말(白馬)이다.”라 한 고사가 전한다. 《太平御覽 卷818》

723 사마자장(司馬子長)처럼……있네 : ‘사마자장(司馬子長)’은 사마천(司馬遷)을 가리킨다. 사마천은 천성이 유람하기를 좋아하여 일찍이 남쪽으로 강수(江水), 회수(淮水)를 유람하고 회계(會稽)로 올라가서 우혈(禹穴)을 보고 구의산(九疑山)을 보았으며, 북쪽으로 문수(汶水)와 사수(泗水)를 건너 제로(齊魯) 지방을 거쳐 양(梁)과 초(楚) 지방까지 두루 유람하였다. 이때 얻은 산천에 대한 지식으로 인해 명문장가가 되었다고 한다. 《史記 卷130 太史公自序》 산당(山堂)의 풍광이 좋아 굳이 사마천처럼 천하를 유람하지 않아도 천지의 기운을 얻을 수 있음을 말한 것이다.

724 소옹(邵雍)의 시 : 원문은 ‘소음(邵吟)’이다. 송나라 소옹(邵雍)은 〈청야음(淸夜吟)〉, 〈수미

삼라만상 다 열려 하늘의 기운 광활하고	萬象畢開天氣豁
온 시내 처음 개어 이슬 꽃 그윽하네	一川初霽露華深
난초는 서리의 무게로 인해 이지러진 잎 많고	蘭仍霜重多虧葉
매화는 양기 생겨남으로 인해 은연중에 봄마음 새어 나오네	梅爲陽生暗漏心
원량(元亮) ⁷²⁵ 에게 어찌 세상에 구하는 뜻이 없었겠는가	元亮豈無求世志
도리어 시와 술을 사랑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옷자락 풀어 헤쳤네	却憐詩酒好披襟

두 번째

其二

푸른 소나무 자란 남쪽 두둑 작은 매화 핀 집	蒼松南畔小梅軒
반평생 부질없는 명성 안고서 홀로 문을 닫고 지내네	半世浮名獨閉門
하늘의 도(道) 예나 지금이나 유수(流水)처럼 흘러가고	天道古今流水謝
사람의 정 아침저녁으로 어지러운 구름처럼 바뀌네 ⁷²⁶	人情朝暮亂雲翻
뜻대로 되지 않은 일 모두 하늘의 명(命)으로 인한 것이니	不如意事皆由命
나를 알아주는 이 없다는 탄식 ⁷²⁷ 말하지 말라	莫我知歎須勿言
근래 들건대 시냇가에 봄이 다해 간다고 하니	近聞溪上春歸盡
일찍부터 활수(活水)의 근원에서 참됨을 찾고자 하네 ⁷²⁸	早擬尋眞活水源

음(首尾吟), <동지음(冬至吟)>, <관물음(觀物吟)> 등 여러 시를 읊었는데, 구체적으로 그의 어떤 시를 가리키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725 원량(元亮) : 진(晉)나라 때의 은사(隱士)인 도연명(陶淵明)의 자다. 팽택 현령(彭澤縣令)이 되었다가 석 달 만에 벼슬을 버리고 은거하여 시와 술을 즐기며 살아간 것으로 유명하다.

726 사람의……바뀌네 : 인정세태(人情世態)의 반복무상함을 비유한 말이다. 두보(杜甫)의 <빈교행(貧交行)>에, “손 뒤집으면 구름 되고 손 앞으면 비가 된다.[翻手作雲覆手雨]”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727 나를……탄식 : 《논어》 <헌문(憲問)>에, 공자가 “나를 알아주는 이가 없구나.[子曰 莫我知也夫]”라 한 데서 유래한 말이다.

728 일찍부터……하네 : ‘활수(活水)’는 근원이 있어 항상 흐르는 물을 말한다. 주희(朱熹)의 시 <관서유감(觀書有感)>에, “조그맣고 모난 연못에 한 거울이 열리어, 하늘빛 구름 그림자가

묵은 등걸의 분매(盆梅)

古查盆梅

나무꾼이 베고 남은 가지의 즙먹고 남은 떨기	樵斤餘擘蠹餘叢
기이함과 공교로움에 조화옹의 솜씨를 이어서 겸하였네	奇巧仍兼造化工
세 척(尺)의 짧은 등걸 품평 밖의 것이요	三尺短查題品外
한 구역의 봉역(封域) 별도의 세상이네	一區封域別寰中
천년 묵은 수척한 학 한가로이 날개 드리우고	千年瘦鶴閒垂翼
만고를 산 팽조(彭祖) ⁷²⁹ 늙어서 몸 구부리네	萬古仙彭老鞠躬
겉모습 오랫동안 초췌하다고 말하지 말라	莫道形容憔悴久
대羹(大羹)에 조미(調味)를 하려면 신공(神功)이 있어야 한다네 ⁷³⁰	大羹將和有神功

도동(道洞) 산재(山齋)에 제하다

題道洞山齋

단정하게 재거(齋居) ⁷³¹ 하여 온 마음 밝으니	齋居端的一心明
만 가지 상(像)이 맑고 텅 비어 온갖 생각 잠잠해지네	萬像澗虛百慮平
구름이 동문(洞門)을 감싸 깊고도 적막하고	雲鎖洞門深寂寂

함께 배회하네. 묻거니 어이하여 이처럼 맑은가. 근원에서 활수가 솟아 나오기 때문이라네.[半畝方塘一鑑開 天光雲影共徘徊 問渠那得清如許 爲有源頭活水來]라 한 대목이 보인다.

729 팽조(彭祖) : 요(堯) 임금 때부터 하(夏)를 거쳐 은(殷) 나라 말기까지 8백년을 살았다는 옛날의 장수한 사람이다. 《神仙傳》

730 대羹(大羹)에……한다네 : ‘대羹(大羹)’은 조미하지 않고 희생의 고기를 통채로 푹 삶은 국물이다. 매실이 조미를 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듯하다. 《예기(禮記)》〈교특생(郊特牲)〉에, “대羹을 조미하지 않는 것은 그 바탕을 귀히 여기기 때문이다.[大羹不和 貴其質也]”라 하였고, 《예기(禮器)》의 ‘대羹불화’에 대한 공영달(孔穎達)의 주석에서는 “대羹은 육즙이고, 불화란 소금이나 매실이 안 들어간다는 것이다.[大羹 肉汁也 不和 無鹽梅也]”라 하였다. 《禮記正義》

731 재거(齋居) : 재계(齋戒)를 위하여 별도로 머무는 것을 말한다.

물은 시내 다리 아래 흘러 가늘고도 세차네	水鳴泉洑細丁丁
천년 동안의 흥망(興亡)에 산은 말이 없고	千年興廢山無語
10대(代)의 선영 대함에 나에게 감회 이네	十世松楸我有情
이로부터 한 이랑 네모난 집을 지으려 하니	從此擬營方宅宅
숲 가득한 연월(烟月) 속에서 남은 여생 보내리라	滿林烟月送餘生

동짓날 감회가 있어

長至日有感

하나의 양(陽) 돌아와 회복하는 것이 천근(天根)이니 ⁷³²	一陽來復是天根
한밤중의 뇌성 하늘의 문을 열어젖히네	半夜雷聲啓九門
삼십육궁(三十六宮)에 봄 차례로 시작되고 ⁷³³	三十六宮春次第
천만의 가호엔 기운이 정(貞)에서 원(元)으로 이어지네 ⁷³⁴	萬千家戶氣貞元

732 하나의……천근(天根)이니 : 《주역(周易)》에서 동지(冬至)에 하나의 양(陽)이 처음 아래에서 생기는 것이 복괘(復卦)인데, 이를 ‘천근(天根)’이라고도 한다. 송(宋)나라 소옹(邵雍)의 <관물음(觀物吟)>에, “이목(耳目)이 총명한 남자 몸으로 태어났으니, 천지조화의 부여가 빈약하지 않구나. 월궁을 탐구해야만 물을 알 수 있거니와, 천근에 못 올랐다면 어찌 사람을 알리오. 건이 손을 만난 때에 월궁을 살펴보고, 지가 뇌를 만난 곳에서 천근을 볼 수 있으니, 천근과 월궁이 한가로이 왕래하는 가운데 삼십육궁이 온통 봄이로구나.[耳目聰明男子身 洪鈞賦與不爲貧 須探月窟方知物 未躡天根豈識人 乾遇巽時爲月窟 地逢雷處見天根 天根月窟間往來 三十六宮都是春]”라 하였다.

733 삼십육궁(三十六宮)……시작되고 : 송(宋)나라 소옹의 <관물음(觀物吟)>에, “천근과 월궁이 한가히 왕래하는 중에, 삼십육궁이 모두 봄이로구나.[天根月窟間往來 三十六宮都是春]”라 한 데서 취해 온 구절이다. ‘삼십육궁’은 64괘(卦)와 같은 것으로서 64괘 모두가 하나의 봄기운의 연속이라는 뜻이다. 성호(星湖) 이익(李瀾)은 삼십육궁과 관련하여, “‘64괘중에 변역(變易)하는 괘가 8이니, 건괘(乾卦)·곤괘(坤卦)·감괘(坎卦)·이괘(離卦)·이괘(頤卦)·대과괘(大過卦)·중부괘(中孚卦)·소과괘(小過卦)이고, 교역(交易)하는 괘가 56이니, 둔괘(屯卦)·몽괘(蒙卦) 이하가 그것이다. 변역은 8괘가 각각 한 궁이 되고, 교역은 2괘가 합하여 한 궁이 된다.’라고 하였으니, 이 해설이 가장 타당하다 하겠다.”라 하였다. 《星湖僿說 卷20 經史門 三十六宮》

734 천만의……이어지네 : 원문의 ‘정원(貞元)’은 《주역》의 원형이정(元亨利貞) 사덕(四德) 가운데 정(貞)과 원(元)을 말한다. 오행(五行)에서 정은 겨울에, 원은 봄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지가 되었으므로 집집마다 봄기운이 생겨나기 시작함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인간 세상에선 매서운 눈바람만 보일 뿐이니
 지하에서 온화한 기운 움직이는 줄 누가 알리오
 이날 서생은 깊이 뜻한 바 있으니
 창 밖에 핀 작은 매화에 은연중에 넋이 생겨나네⁷³⁵

人間但見馳風雪
 地下誰知動暖暄
 此日書生深有意
 小梅窗外暗生魂

거울을 보며

看鏡

내 얼굴 거울에 들어가고 거울 내 눈에 들어오니
 거울 속 사람이 내 눈 속 사람이 되었네
 내 얼굴 거울 속과 눈 속에 있으니
 이 한 몸 홀연히 세 개의 몸이 되었네
 잠시 뒤 거울 거두어 상자 속에 넣어 두니
 거울 속과 눈 속의 자신 모두 먼지 한 점 없네
 세 개의 몸 합쳐져 한 몸으로 존재하게 되니
 하나의 몸 이제부터 모두 봄이라네⁷³⁶

我面入鏡鏡入眼
 鏡中人作眼中人
 我面鏡中及眼中
 一身忽然爲三身
 俄而斂鏡藏匣裏
 鏡中眼中俱無塵
 三身合爲一身存
 一身由來都是春

735 창……생겨나네 : 매화의 고결한 모습을 표현한 말이다. 송나라 소식(蘇軾)의 <송풍정하매화 성개(松風亭下梅花盛開)>에, “나부산 아래 매화 마을에는, 옥설이 빠져 되고 얼음이 낮이 되었네.[羅浮山下梅花村 玉雪爲骨氷爲魂]”라 하였다. 《東坡全集 卷22》

736 모두 봄이라네 : 원문은 ‘도시춘(都是春)’으로, 봄기운이 가득하다는 뜻이다. 송(宋)나라 소옹(邵雍)의 <관물음(觀物吟)>에, “천근과 월굴이 한가로이 왕래하는 가운데 삼십육궁이 온통 봄이로구나.[天根月窟閑往來 三十六宮都是春]”라 한 데서 취해 온 말이다.

기해년(1659, 36세) 봄 응지상소(應旨上疏)를 짓고 짐을 쳤는데
 둔괘(屯卦)와 둔괘(遯卦)의 점괘를 얻었으므로 올리지 않았으
 니, 감회가 있어 짓다⁷³⁷

己亥春, 應旨筮疏, 遇得屯遯不進, 感而作。

시절에 상심하여 슬피 흘리는 눈물 은연중에 소매를 적시니 傷時哀淚暗垂襟
 한 폭의 소장(疏章)에 작은 마음 쏟아 냈네 一幅封章寫寸忱
 시내 건너에 사는 고사(高士)의 비웃음 면하기 어려우나⁷³⁸ 難免隔溪高士笑
 해를 향하는 해바라기의 마음 금할 수 없네⁷³⁹ 不禁傾日野葵心
 가의(賈誼)는 교분이 얇았으나 말은 부질없이 절실하였고⁷⁴⁰ 賈誼交淺言空切
 주자(朱子)는 상소를 불태웠어도 뜻은 또한 깊었다네⁷⁴¹ 晦老疏焚意亦深

737 기해년……짓다 : 1659년 구언(求言)에 응하여 <만언소(萬言疏)>를 지은 후, 상소의 길흉을
 점쳐 둔괘(屯卦)와 둔괘(遯卦)의 점괘를 얻자 상소 올리는 일을 포기하고 지은 시이다. 《韓國
 文集叢刊解題 南圃集》 둔괘는 고난을 만나 형통하지 못한 것을 상징하는 괘이며, 둔괘는
 좋지 못한 세상을 만나 군자가 은둔하는 것을 상징하는 괘이기 때문이다.

738 시내……어려우나 : 세상에 대한 명성을 추구하다가 은거하는 선비의 비웃음을 산다는 말이
 다. 북송(北宋) 사람 장영인(張詠人)의 시 <도중(途中)>에, “인정이 다하여 관직의 영화로움
 무거우니, 내가 동쪽으로 돌아감에 작은 길이 맞이하네. 옛 시내 고사(高士)의 비웃음을 면치
 못하니, 천진(天真)을 모두 잃고 헛된 명성만 얻었네.[人情到底重官榮 見我東歸夾路迎 不
 免舊溪高士笑 天真喪盡得浮名]”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739 해를……없네 : ‘해바라기’는 항상 해를 향해 피므로, 이로 인하여 임금에게 충성을 바치고
 자 하는 정성을 뜻한다. 《삼국지(三國志)》 권19 <위지(魏志) 진사왕조식전(陳思王曹植傳)>
 에, “해바라기 잎은 태양을 향하니, 태양이 비록 그쪽으로 방향을 돌려 비취 주지 않더라도 태
 양을 향하는 것이 해바라기의 정성이다.[若葵藿之傾葉 太陽雖不爲之回光 然向之者誠也]”
 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740 가의(賈誼)는……절실하였고 : 한 문제(漢文帝) 때 참소(讒語)를 입어 장사왕 태부(長沙王
 太傅)로 좌천된 가의(賈誼)가 흉노의 변경 침입 및 제후의 발호로 인한 국가의 위기상황을 타
 개하기 위해 <치안책(治安策)>을 올린 일을 말한다. 이 글에서 가의는 시사의 문제점으로 통
 곡할 만한 일 하나, 눈물 흘릴 만한 일 둘, 장탄식할 만한 일 여섯 가지에 대한 대책을 진언하
 였다. 《漢書 卷48 賈誼傳》

741 주자(朱子)는……깊었다네 : 송 영종(宋寧宗) 때 간신 한탁구(韓侂胄)가 재상 조여우(趙汝
 愚)를 축출하자 군소(群小)들이 날뛰므로 주희(朱熹)가 소장을 올려 극언하려 하였다. 이에
 문인들이 안위를 걱정하여 극구 말렸지만 그 뜻을 꺾을 수가 없자, 채원정(蔡元定)이 짐을 쳐
 서 결정하자고 청하였다. 짐을 친 결과 둔괘(遯卦)가 가인괘(家人卦)로 변하는 불길한 괘가
 나오자 주희는 그 상소를 불태워 버리고 둔옹(遯翁)이라 자호하였다. 《朱子大全 附錄 卷6

온종일 대나무 창가에서 부질없이 북쪽을 바라보니
천지를 돌아봄에 짙은 구름 몽쳐 있네.

盡日竹窓空北望
乾坤回首結層陰

한가한 흥

閒興

그윽한 재(齋) 한낮에 고요하여 한가히 잠들고 일어나니
지팡이 짚고서 작은 여울가를 소요(逍遙)하네
우는 피꼬리 장난스레 건드리고서 먼 나무를 당기
다시 나는 학을 따라 구름 잠긴 봉우리에 오르네
산림에서 홀로 누리는 즐거움 비록 참된 흥취 있으나
새와 짐승과 함께 지내는 것⁷⁴² 어찌 본심이리오
날 저물어 소나무 아랫길로 돌아오니
책상 가득한 서책에 달 밝은 뜨락의 마음이라네

幽齋晝靜閒眠罷
一杖逍遙細澗澗
高戲打啼鸞挽遠樹
更隨飛鶴上雲岑
山林獨樂雖真趣
鳥獸同羣詎本心
日暮歸來松下路
滿牀書史月庭心

늦봄 [3월 3일]

暮春 [三月三日]

한식(寒食)의 풍광 늦봄에 속하니
늦봄 3일은 가장 좋은 날이네
동군(東君)⁷⁴³은 건곤(乾坤)의 문 활짝 열었고

寒食風光屬暮春
暮春三日最佳辰
東君大闢乾坤戶

年譜》

742 새와……것 : 자연 속에 은거하는 것을 말한다. 춘추 시대 초(楚)나라의 은자(隱者)인 장지(長沮)와 결닉(桀溺)이 도(道)를 행하려고 애쓰는 공자를 매우 못마땅하게 여긴 데 대하여, 공자가 이르기를 “사람이 조수와는 함께 무리 지어 살 수 없는 것이니, 내가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고 누구와 함께하리오.[鳥獸不可與同群 吾非斯人之徒與而誰與]”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論語 微子》

743 동군(東君) : 봄을 주관하는 신이다.

만물은 어진 우로(雨露) 혼연히 맞이하네
생동하는 뜻은 뜨락 아래 풀에 먼저 돌아오고
이 마음은 거울 속 먼지를 새로 털어내네
향기 찾을 적에는 굳이 꽃과 버들 구할 필요 없으니
꽃과 버들의 향기 또한 사람에게 있다네

品物欣迎雨露仁
生意先歸庭下草
此心新拂鏡中塵
尋芳不必探花柳
花柳芬芳亦在人

불어난 물을 보며

觀漲

바다의 신 용궁 골짜기를 마구 뒤집으니 海神翻倒洞龍宮
 천 길의 나는 듯한 파도 반공(半空)에 솟구치네 千丈飛波駕半空
 위공(衛公)이 석 자의 물방울 떨어뜨리기를 기다릴 것 없고⁷⁴⁴不待衛公三滴點

숭백(崇伯)이 9년 동안 하천 다스린 일 앉아서 바라보네⁷⁴⁵ 坐看崇伯九川通
 고래와 곤어(鯤魚) 길을 얻어 평평한 육지로 치달리고 鯨鯤得路馳平陸
 난새와 봉황 둥지 기울어져 가시나무 덤불에 의지하네 鸞鳳傾巢寄棘叢
 물에 빠져 떠나려가는 모래와 벌레 안타까워할 것은 없으나 漂墊沙虫非足惜
 원숭이와 학이 큰 파도 속에 잠겨 있는 것이 또한 가련하네⁷⁴⁶ 也憐猿鶴大濤中

두 번째

其二

예전에 들기로 물새는 관수(官樹)⁷⁴⁷에 둥지를 튼다고 하였는데 昔聞水鳥巢官樹

744 위공(衛公)이……없고 : ‘위공(衛公)’은 당나라 위국공(衛國公) 이정(李靖)을 말한다. 이정이 사냥을 나갔다가 밤이 깊어 한 집에 유숙하게 되었다. 그 집의 주인 노파가 “이곳은 용궁이다. 하늘에서 비를 내리라는 명령이 내렸는데 두 아들이 집에 없으니 대신 명을 수행해 달라.”라고 부탁하면서 물병과 말을 주었다. 그리고 “말이 울면 물병의 물 한 방울을 말갈기에 떨어뜨려라. 물 한 방울은 지상에서 수심 석 자가 되는 양이다.[馬鳴 取瓶水一滴滴馬鬣 則平地水深三尺]”라 하였다는 고사가 전한다. 《龍文鞭影箋注》《太平廣記 卷418 龍一》

745 숭백(崇伯)이……바라보네 : ‘숭백(崇伯)’은 우(禹)의 아버지 곤(鯀)을 말한다. 요(堯) 임금이 홍수를 다스릴 인재를 구했을 때, 못 신하들이 곤을 추천하였으므로 요 임금이 마지못해 그에게 일을 맡겼는데, 9년 동안이나 홍수를 다스리지 못한 채 결국은 순(舜)에 의해 우산(羽山)에서 복주(伏誅)되었다. 《史記 卷2 夏本紀 註》

746 물에……가련하네 : 홍수로 인해 여러 동물들이 물에 빠져 있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모래와 벌레’와 ‘원숭이와 학’은 주 목왕(周穆王)이 남정(南征)할 때 장교는 하루아침에 원숭이와 학으로 변하고 병졸들은 모래와 벌레[沙蟲]로 변했다는 전설에서 취해 온 말이다. 《抱朴子 內篇 釋滯》

747 관수(官樹) : 넓은 길가에 심은 나무를 말한다.

지금 기러기 육지로 날아든 것에서 증험되었네	今驗飛鴻陸地翔
한밤중에 독과 단지 소리 구멍 틈에서 울리고	半夜甕甕鳴隙窾
새벽되니 자라들 문과 담장으로 머리 내미네	平朝鷺鷥闖門牆
오초(吳楚)가 동남으로 갈라진 것에 문득 놀라고 ⁷⁴⁸	頓驚吳楚東南坼
봉래산 궁궐에 일월이 장구함을 도리어 의아해 하네 ⁷⁴⁹	却訝蓬萊日月長
이로부터 세 섬 ⁷⁵⁰ 을 따라 가고자 하니	從此欲從三島去
내년에는 기근(饑饉)에 시달리는 일 근심하지 않을 것이네	不愁來歲困飢荒

경인년(1650, 27세) 제야

庚寅除夕

들판도 산도 아닌 옛 거리	非野非山古巷頭
누추한 뗏집 하나 배처럼 조그맣네	一荒茅屋小如舟
어머니 나이 내년이면 60이니	親年六十餘來歲
자식으로서 언제나 근심 가득하네	子道三時有至憂
매번 옛 책을 읽을 때면 효성스런 행적에 민망하고	每讀古書慚孝績
항상 직분을 생각할 때면 어진 도리에 부끄럽네	常思職分愧賢由

748 오초(吳楚)가……놀라고 : ‘오초(吳楚)’는 양자강(揚子江) 동쪽, 즉 강소성(江蘇省) 지방 및 양자강 하류인 호남(湖南)·호북성(湖北省) 지방을 가리킨다. 두보(杜甫)는 그의 시 <등악양루(登岳陽樓)>에서 “옛날에 동정호를 말로만 듣다가 오늘에야 악양루에 올랐네. 오초가 동남으로 갈라졌고, 하늘과 땅은 밤낮으로 떠 있구나.[昔聞洞庭水 今上岳陽樓 吳楚東南坼 乾坤日夜浮]”라 하여, 드넓은 동정호의 경관을 묘사한 바 있다. 김만영은 이 시의 구절을 빌려 홍수에 의해 사방이 물로 가득 찬 모습을 표현하였다.

749 봉래산……하네 : ‘봉래산(蓬萊山)’은 중국의 동쪽 발해(渤海)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삼신산(三神山) 중 하나다. 백거이(白居易)의 <장한가(長恨歌)>에, “소양전(昭陽殿) 안에 은혜와 사랑 끊기고 봉래산 궁궐에는 일월이 길어라.[昭陽殿裏恩愛絕 蓬萊宮中日月長]”라고 한 구절을 차용하였다. 홍수로 인해 천지에 물이 가득 찬 상황인데 봉래산 궁궐의 해와 달이 길다고 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뜻이다.

750 세 섬 : 중국의 동쪽 발해(渤海)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삼신산(三神山)으로, 봉래(蓬萊)·방장(方丈)·영주(瀛洲)를 말한다.

청양(靑陽)⁷⁵¹은 더구나 묵은 해와 새로운 해가 바뀌는 때와 가까우니
 靑陽況逼更新舊
 가장 안타까운 것은 시간이 마치 물처럼 흘러가는 것이네 最愛光陰若逝流

감시음

感時吟

세상 밖 산림의 일 없는 몸	世外山林無事身
안개와 노을 뒤덮인 천지의 한가한 한 사람	烟霞天地一閒人
봄 올 적엔 바람과 꽃 가득히 얻어 부유하고	春來飽得風花富
한 해 저물 적엔 눈과 달 길게 보내와 가난하네	歲暮長輪雪月貧
상쾌한 기운 도리어 삼복날에 생기고	爽氣却生三伏日
맑은 마음 9월 가을 물가에 더욱 시원하네	淸懷益暢九秋濱
만약 고요함 속의 참된 소식을 전한다면	若傳靜裏真消息
비 내린 뒤 긴 강에 온갖 풀 돌아나는 모습이라네	雨後長江百草新

생일날 감회 【선생의 생일은 2월 17일이다.】

生朝感懷【先生初度日，乃二月十七日。】

갑자년(1624, 인조2) 중춘(仲春) 17일	甲子仲春十七日
지금 29년째가 되었네.	今成二十九年迴
땅 속에 계신 부친의 얼굴 오래도록 뵈지 못하였으니 ⁷⁵²	親顏久隔三泉下
자식 된 도리에 만세(萬世)의 슬픔 끝까지 품고 있네	子道終懷萬世哀

751 청양(靑陽) : 봄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아주소(爾雅注疏)》 권5 <석천(釋天)에, “봄은 청양이다.[春爲靑陽]”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752 땅……못하였으니 : 김만영은 1638년 15세 때 부친상을 당하였다.

하늘과 땅에 나의 이 몸 어찌 용납 되리오	覆載何容吾四體
인간 세상에 마른 얼굴을 부끄러이 들고 있네	人間慚舉一枯顛
더구나 원추리 자란 사립문에 저녁노을 다해 가니 ⁷⁵³	萱扉况復殘西照
고개 돌려 천지를 바라봄에 마음이 무너지는 듯	回首乾坤膽欲摧

한가한 가운데 감회를 적다

閒中書懷

몇 칸짜리 뗏집 푸른 숲 옆에 있으니	數間茅屋傍靑林
숲속에서 오래된 거문고 하나 언제나 꺼내 두네	林下常開一古琴
생각은 푸른 하늘로 들어가 다시 다함이 없고	思入碧天還不極
도(道)는 푸른 바다와 같아 광활하여 끝이 없네	道同蒼海闊無滯
동서(東西)로 뜨고 지는 해와 달 창에 가까이 다다르고	東西日月臨窓近
위아래로 펼쳐진 하늘과 땅 방 깊이 들어오네	上下乾坤透戶深
남아(男兒)의 참다운 일을 알고자 한다면	欲識男兒真箇事
생사와 영욕에 마음 두지 않아야 하리	死生榮辱不關心

삼학재(三學齋)에서 제생에게 보이다

三學齋示諸生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우마에 옷을 입힌 것과 다름이 없으니⁷⁵⁴ 人而不學馬牛襟

753 원추리……가니 : 모친이 연로하였음을 말한 것이다. 《시경(詩經)》 〈위풍(衛風) 백혜(伯兮)〉에, “어찌하면 원추리를 얻어서, 저 땅의 북쪽에 심을꼬.[焉得萱草 言樹之背]”라 하였는데, 옛 날에는 모친이 북당(北堂)에 거처하였으므로 원추리는 주로 모친의 비유로 사용된다.

754 우마에……없으니 : 원문은 ‘마우굽(馬牛襟)’이다. 학식이 없거나 예의를 모르는 사람을 조롱하여 이르는 말이다. 한유(韓愈)의 〈부독서성남(符讀書城南)〉에, “사람이 못 배워서 고급을 통하지 못하면, 마소에 사람 옷 입혀 놓은 것과 같다.[人不通古今 馬牛而襟裾]”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이러한 까닭에 지금 새로운 재(齋)를 지은 것이라네	所以新齋創自今
오교(五敎)의 규범은 백록동 서원(白鹿洞書院)을 따랐고 ⁷⁵⁵	五敎規模遵白鹿
육경(六經)의 공업(工業)을 청금(靑衿) ⁷⁵⁶ 에게 바라네	六經工業望靑衿
도(道)는 예악(禮樂) 삼천 자 ⁷⁵⁷ 에 있고	道存禮樂三千字
인(仁)는 내 몸 마음 하나에 달려 있네	仁在吾身一箇心
그대들이 부지런히 힘쓰기를 다시 면려하니	更勸諸君勤用力
성현의 요법(要法)으로는 경(敬)이 가장 중요하다네	聖賢要法敬爲箴

두 번째

其二

재사(齋舍) 새로 만들어져 깨끗하고도 맑으니	齋舍新成淨且淳
제생(諸生)의 강학 모임 밤낮으로 이어지네	諸生講會屬昏晨
회화나무 뜰 ⁷⁵⁸ 에 가지런히 앉아 장보관(章甫冠)을 쓰고 ⁷⁵⁹	槐庭秩秩冠章甫

755 오교(五敎)의……따랐고 : 주희(朱熹)가 지남강군(知南康軍)으로 재직하던 시절 여산(廬山)의 허물어진 백록동 서원(白鹿洞書院)을 중건하고 오교지목(五敎之目), 위학지서(爲學之序), 수신지요(修身之要), 처사지요(處事之要), 접물지요(接物之要) 등 다섯 개 항목의 규약을 서원의 벽에 게시하였다. 그 중 ‘오교지목’은 부자유친(父子有親)·군신유의(君臣有義)·부부유별(夫婦有別)·장유유서(長幼有序)·붕우유신(朋友有信)을 의미한다.

756 청금(靑衿) : 유생(儒生)을 가리키는 말이다. 《시경》〈정풍(鄭風) 자금(子衿)〉에, “푸르고 푸른 그대의 옷깃이여[靑靑子衿]”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757 예악(禮樂) 삼천 자 : 예악(禮樂)의 내용을 담은 삼천 글자의 말을 말한다. 송(宋)나라의 하송(夏竦)의 시 〈응정시(應廷試)〉에, “예악을 자유로이 끌어다 삼천 자를 내리시고, 대궐에서 독대할 제 해가 아직 한창이로세[縱橫禮樂三千字 獨對丹墀日未斜]”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758 회화나무 뜰 : ‘회화나무’는 학인(學人)의 성취에 대한 기원을 의미한다. 북송(北宋) 초기의 명신 왕호(王祐)가 뜰에 세 그루의 회화나무를 심으면서 자손의 성취를 기원하였는데, 뒤에 그의 아들 왕단(王旦)이 명재상이 되었다는 전고에서 유래하였다. 《古文眞寶後集 卷8 三魁堂銘》

759 장보관(章甫冠)을 쓰고 : ‘장보관(章甫冠)’은 은(殷)나라 때 쓰던 관으로, 흔히 유자들이 쓰는 관을 지칭한다. 《예기》〈유행(儒行)〉에, “저는 어려서 노나라에 살 때에는 봉액의 옷을 입었고, 장성하여 송나라에 살 때에는 장보의 관(冠)을 썼습니다.[丘少居魯 衣縫掖之衣 長居宋 冠章甫之冠]”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비자나무 안석에서 차근차근 예(禮)와 인(仁)을 강설하네 ⁷⁶⁰	樞几循循說禮仁
좋은 옥은 모름지기 그 위에 묻은 점을 제거해야 하고	良璧須除瑜上點
보배로운 거문고는 상자 속의 먼지를 거듭 닦아내야 하네	寶琴重拭匣中塵
제생은 깔고 닦은 힘 ⁷⁶¹ 을 신중히 사용하라	諸生慎用磋磨力
진귀한 명주는 단지 사람에게 있을 따름이니	無價明珠只在人

한가히 지내며 장난삼아 제하다

閒居戲題

인간 세상의 일 봄날의 얼음 ⁷⁶² 처럼 얇고	人間世事薄春冰
백 년의 세월 새벽 등잔불처럼 흘러가네	百歲光陰轉曉燈
풍진(風塵)에 대해서는 자질구레하게 말할 필요 없고	不必風塵談屑屑
구름 봉우리 겹겹이 서 있는 모습 즐거이 바라보네	好看雲岵立層層
창밖의 옥 병풍은 푸른 비단 마름질 한 듯하고	玉屏窗外裁青錦
섬돌 앞의 요초(瑤草)는 비취색 비단 짜 놓은 듯하네	瑤草階前織翠綾
이곳은 삼신산(三神山) ⁷⁶³ 과 얼마쯤 떨어져 있는가	此去三山脩幾許
장대한 마음 지니고서 북명(北冥)의 봉새 ⁷⁶⁴ 타고자 하네	壯心將擬駕溟鵬

760 비자나무……강설하네 : 스승이 제자에게 가르침을 내리는 모습을 형용한 것이다. ‘차근차근’의 원문은 ‘순순(循循)’으로, 《논어》〈자한(子罕)〉에 안연(顏淵)이 스승인 공자의 도에 대해서 감탄하며 술회한 뒤에, “선생님께서서는 차근차근 사람을 잘 이끌어 주시면서, 학문으로 나의 지식을 넓혀 주시고 예법으로써 나의 행동을 단속하게 해 주셨다.[夫子循循然善誘人 博我以文 約我以禮]”라 한 데서 유래한 말이다.

761 깔고 닦은 힘 : 원문은 ‘차마력(磋磨力)’이다. ‘차마’는 옥석(玉石)을 다듬기 위해 쪼고 깔고 한다는 뜻으로, 봉우 간에 서로 격려하면서 덕을 닦고 학문을 연마하는 것을 말한다. 《시경(詩經)》〈기옥(淇奥)〉에, “절단해 놓은 듯하고 다시 간 듯하며, 쪼아 놓은 듯하고 다시 간 듯하다.[如切如磋 如琢如磨]”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762 봄날의 얼음 : 원문은 ‘춘빙(春冰)’이다. 위태로운 상황을 비유하는 말이다. 《서경》〈군아(君牙)〉에, “마음에 걱정하고 조심하는 것이 마치 범 꼬리를 밟는 듯하고 봄 얼음을 밟는 듯하다.[心之憂危 若蹈虎尾 涉于春水]”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763 삼신산(三神山) : 중국 전설에 나오는 봉래(蓬萊)·방장(方丈)·영주(瀛州) 세 산을 가리킨다. 중국 동쪽의 발해(渤海) 가운데 있다고 한다.

764 북명(北冥)의 봉새 : 넓은 바다를 날아다니는 봉새를 말한다. 《장자》〈소요유(逍遙遊)〉에,

노을

霞

푸른 노을 한 줄기 산 밑에서 일어나	靑霞一陣起山根
강가에 가까운 언덕 마을을 가득 감싸고 있네	鎖盡江干近岸村
물 건너에선 사람들 말소리만 들려오고	隔水但聞人語響
이어진 오솔길에는 대나무 울타리 보이지 않네	連蹊不見竹籬藩
구름 속에서 짖는 개 유안(劉安)의 집이요 ⁷⁶⁵	雲中吠犬劉安宅
나무 너머에서 우는 피꼬리 원량(元亮) ⁷⁶⁶ 의 정원이라네	樹外啼鸞元亮園
갑자기 늦은 바람 불어와 묵은 안개 걷히니	俄送晚風開宿霧
몇 집의 송죽(松竹)이 사립문을 가리고 있네	數家松竹掩柴門

늦봄에 꽃이 만개하였는데 눈바람이 몹시 매서워 시동으로 하여금 운자를 부르게 하여 장난삼아 제하다

暮春花盛，風雪甚烈，令侍童呼韻戲題。

땅이 요동(遼東)과 이어져 기운이 언제나 음울하니	地連遼左氣恒陰
하늘이 어두운 기운을 빌려 오래도록 비 내리네	天假昏氛日久霖
어지러운 구름과 날리는 꽃잎 먼 시야를 미혹시키고	亂雪飛花迷遠目

“북쪽 바다에 물고기가 있으니, 그 이름은 곤이다. 곤의 크기는 몇 천 리인지 모른다. 변화하여 새가 되니, 그 이름은 봉이다. 봉의 등짝은 몇 천 리인지 모른다. 기운차게 떨쳐 날아오르면 그 날개가 마치 하늘에 드리운 구름과 같다. 이 새는 바다가 움직이면 남쪽 끝의 검푸른 바다로 날아가려고 한다. 남쪽 바다란 하늘의 못, 천지다.[北冥有魚 其名爲鯤 鯤之大 不知其幾千里也 化而爲鳥 其名爲鵬 鵬之背 不知其幾千里也 怒而飛 其翼若垂天之雲 是鳥也 海運則將徙於南冥 南冥者 天池也]”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765 구름……집이요 : 신선이 사는 곳을 뜻한다. 한(漢)나라 회남왕(淮南王) 유안(劉安)이 신선술을 터득하여 단약(丹藥)을 제련한 뒤에 온 가족에게 먹이고는 함께 대낮에 승천(昇天)하였는데, 그 집의 닭과 개도 그릇에 남아 있던 단약을 훔아 먹고 하늘에 올라가서 “개는 천상에서 짖고 닭은 구름 속에서 울었다[犬吠於天上 鷄鳴於雲中]”라는 전설이 전한다. 《論衡 道虛》

766 원량(元亮) : 진(晉)나라 때의 은사(隱士)인 도연명(陶淵明)의 자이다.

찬 얼음과 향기로운 풀 봄 마음을 시기하네	寒冰芳草妬春心
향기가 보배로운 꽃밭침에 다하자 벌의 근심 더해지고	香消寶萼蜂愁轉
바람이 옥 가지 끌어당기자 새의 한탄 깊어지네	風掣瓊枝鳥恨深
이날 저녁 은거하는 이 몇집 아래에서	此夕幽人茅屋下
단정하게 앉아있지 못하고 고심하며 시 읊조리네	不勝端坐苦呻吟

풍토(風土)를 읊다

詠風土

내가 남쪽 고을에서 지낸 지 30년	我在南鄉三十年
풍토와 습속 익숙히 전해 들었네	土風人俗習相傳
민심은 사사로이 벗들과 무리 짓는 것 몹시 좋아하고	民心酷好私朋屬
세도는 스스로 어질다고 자부하는 것 참으로 마땅하네	世道偏宜許自賢
산은 장기(瘴氣) 어린 강과 가까워 독사가 많고	山近瘴江多毒虺
땅은 낮고 습하여 난초와 향초 드무네	地仍低濕鮮蘭荃
일찍이 듣건대 삼도(三島) ⁷⁶⁷ 가 동국과 이어져 있다 하니	曾聞三島連東國
곧장 단약(丹藥) 가지고서 신선술 배우러 떠나고 싶네	便欲携丹去學仙

승지(勝地)를 읊다

詠勝地

일찍이 거창현(居昌縣)의 수령이 되었던 사람	有人曾宰居昌縣
가야산(伽倻山)이 승지라고 자랑하였지 ⁷⁶⁸	爲道伽倻勝地誇

767 삼도(三島) : 중국의 동쪽 발해(渤海)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삼신산(三神山)으로, 봉래(蓬萊) · 방장(方丈) · 영주(瀛洲)를 말한다.

768 일찍이……자랑하였지 : '거창현(居昌縣)의 수령'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가야산(伽倻山)은 신라 때 문인 최치원(崔致遠)과 관계가 깊은 곳이다. 최치

만 점의 홍류(紅流) ⁷⁶⁹ 다리 위의 달이요	萬點紅流橋上月
한 마리의 청학(靑鶴) ⁷⁷⁰ 동(洞) 가운데 꽃이네	一鸞靑鶴洞中花
바위 벵랑 면면에 신선의 글씨 새겨져 있고	巖崖面面神仙字
암석 사이 층층이 은자의 집 있네	石隙層層隱士家
천년의 외딴 구름 ⁷⁷¹ 떠나간 그림자 없으니	千載孤雲無去影
옥 봉우리는 예전처럼 나는 듯한 노을 두르고 있네	玉岑依舊帶飛霞

저물녘의 일을 적다

日暮書事

저녁 해 어둑하여 먼 봉우리 가려지니	西日陰陰沒遠岑
얽은 구름 낮게 끌려 푸른 숲을 지나네	纖雲低曳抹靑林
안개 비긴 들판 주점엔 돌아가는 소 울고	烟橫野店鳴歸犢
어둠 든 산촌엔 작은 다듬이 소리 울리네	暝入山村響小砧
사람은 냇물에서 물 길어 대숲을 지나가고	人汲澗泉穿竹去
새는 처마 모서리 엿보고서 소나무에 숨어 우네	鳥窺簷角隱松吟
여러 움직이는 것들 고요히 바라봄에 모든 생각 고요해지니	靜看衆動皆思靜
다시 내 몸의 마음 하나를 점검해 보네	還點吾身一箇心

원은 당(唐)나라에 유학해서 빈공과(賓貢科)에 합격하고 벼슬을 하다가 신라로 돌아왔는데, 귀국한 뒤 내외의 여러 관직을 지내다가 가야산 해인사(海印寺)에 은거하였다. 이 시의 전체적인 내용 역시 최치원의 일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듯하다.

769 홍류(紅流) : 가야산에 있는 홍류동(紅流洞)을 염두에 둔 표현이다. 신라 때 문인 최치원(崔致遠)이 만년에 이곳에 들어가 생애를 마쳤다고 한다.

770 청학(靑鶴) : 지리산에 있는 청학동(靑鶴洞)을 염두에 둔 표현이다. 지리산 속에 있다는仙境(仙境)인데, 아직까지 아무도 그곳을 찾지는 못했다고 한다. 신라 때 문인 최치원(崔致遠)이 이곳에 들어가 학을 타고 신선이 되어 떠나갔다는 전설이 있다.

771 천년의 외딴 구름 : 최치원(崔致遠)의 자가 '고운(孤雲)'인 점에 착안하여 사용한 중의적인 표현이다.

작은 정자가 강가에 임해 있는데 작은 산이 둘러 있으니, 경치가
기이하고 훌륭하여 붓 가는대로 장난삼아 제하다

小亭臨江，微山橫障，景像奇勝，信筆戲題。

앞 강 한 굽이 앞 산에 숨어 있으니	前江一曲隱前山
산 다한 곳의 강머리 먼 듯 가까운 듯	山盡江頭遠近間
배 그림자 매번 바위틈을 따라 나오고	帆影每從巖隙出
노 젓는 소리 때때로 숲가를 향해 돌아오네	櫓聲時向樹邊還
누가 강물과 산에다 하늘의 공교함을 나누어 주고	誰將流峙分天巧
다시 푸른 숲에 요술 부려 땅에다 무늬를 깔아두었나	更幻青蒼錯地斑
이 속에 도리어 넉넉한 광풍제월(光風霽月) ⁷⁷² 더해지니	此裏却添光霽富
백 년의 인생 소요(逍遙)하기에 충분하여라	百年身世足盤桓

구름을 보며

看雲

한 조각 뜬 구름 실처럼 가늘어	一片浮雲細若絲
푸른 하늘 만리에 천천히 떠나네	青天萬里去遲遲
잠깐 바람 일어나니 마치 교악(喬嶽) ⁷⁷³ 과 같고	須與風起如喬嶽
문득 안개 사라지니 마치 그린 눈썹과 같네	倏忽烟消似畫眉
본래 뭉치고 흩어지는 데에는 정해진 자리가 없으니	自是卷舒無定位
이를 통해 떨어지고 만나는 데에도 적당한 때 있음을 알겠네	從知離合有其時
보다가 나도 모르게 마음과 정신 상쾌해지니	看來不覺心神爽

772 광풍제월(光風霽月) : 비가 온 뒤에 맑은 바람이 불고 달이 뜬 깨끗한 풍광을 뜻한다. 고결한 인품을 형용하는 말로도 사용된다. 황정건(黃庭堅)이 <엄계시서(濂溪詩序)>에서 주돈이의 높은 인품과 탁 트인 흉금을 “흉금이 깨끗하기가 마치 맑은 바람에 갠 달과 같다.[胸中灑落如光風霽月]”라는 말로 묘사한 데서 유래하였다.

773 교악(喬嶽) : 태산(泰山)을 가리키는 말로, 높은 산을 표현할 때 흔히 사용된다.

머리 돌려 숲속 창 바라봄에 달이 이미 기울었네

回首林窓月已虧

다시 죽림사(竹林寺)⁷⁷⁴를 노닐며

重遊竹林寺

20년 만에 지금 이렇게 다시 찾아오니

二十年今此重尋

골짜기 난초와 숲속 새 마치 지음(知音)과 같네

谷蘭林鳥若知音

넷물은 거울면을 펼쳐 돌아가는 길을 맞이하고

川開鏡面迎歸路

산은 우뚝한 모습⁷⁷⁵ 활짝 열어 객의 옷깃을 향하네

山豁孱顏向客襟

대나무엔 낭간(琅玕) 있으니 봉황이 깃드는 곳이요⁷⁷⁶

竹有琅玕棲鳳處

구름은 소나무와 계수나무에 머무르니 난새 묵는 봉우리라네

雲留松桂宿鸞岑

선방(禪房)의 창가에서 3일 동안 분향하고 앉으니

禪窓三日焚香坐

고요하고 묵묵하여 도리어 입정(入定)⁷⁷⁷하는 마음과 같네靜默還如入定心

유거(幽居). 사실체(四實體)⁷⁷⁸를 본뜨다

幽居. 效四實體.

5월의 남쪽 고을 보리가 익었으니

五月南州大麥黃

774 죽림사(竹林寺) :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중봉산에 있는 절이다. 440년 아도화상(阿道和尚)이 종죽암(宗竹庵)이라는 이름으로 창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775 우뚝한 모습 : 원문은 ‘잔안(孱顏)’이다. 큰 산이 우뚝 서 있는 모습을 말한다.

776 대나무엔……곳이요 : ‘낭간(琅玕)’은 옥과 비슷한 아름다운 돌인데, 흔히 대나무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된다. 봉황은 대나무 열매를 먹고 산다고 한다. 《시경(詩經)》〈대아(大雅) 권아(卷阿)〉의 진(箴)에, “봉황은 오동나무가 아니면 깃들이지 않고, 대나무 열매가 아니면 먹지 않는다.[鳳凰之性 非梧桐不棲 非竹實不食]”라 하였다.

777 입정(入定) : 중이 고요히 앉아 마음을 수렴하여 잡념을 일으키지 않고 마음을 한 곳에 고정시키는 것을 말한다.

778 사실체(四實體) : 근체 율시(近體律詩) 중에서 합련(頷聯)과 경련(頸聯)에 모두 경물의 모습을 그려낸 시체(詩體)를 말한다.

물가에 가볍게 배 띄우자 저녁 바람 서늘하네	渚浦輕泛晚風涼
안개 깊은 기는 버들 천 가닥 실처럼 연약하고	烟深細柳千絲弱
비 지난 뒤 새로 돋은 죽순 만 개의 옥처럼 자랐네	雨過新筠萬壁長
냇물 들어온 작은 연못엔 거울 그림자 머무르고	泉入小塘留鑑影
풀 이어진 작은 길엔 봄빛이 넘쳐나네	草連微路剩春光
그윽한 꾀꼬리도 산속의 고요함 좋아하니	幽鶯亦好山林靜
멋집 향해 울며 대나무 평상에 다가오네	啼向茅茨近竹牀

제석(除夕)에 감회를 쓰며 스스로 슬퍼하다

除夕書懷自悼

인간 세상에서 오늘은 마음 아파할 만하니	人間今日可傷神
송구영신(送舊迎新)하는 것이 이 날이라네	送往迎來在此辰
하늘은 하룻밤을 가지고 을(乙)과 병(丙)을 나누고 ⁷⁷⁹	天向一宵分乙丙
땅은 삼경(三更)의 밤을 따라 겨울과 봄을 구분 짓네	地從三夜限冬春
들판의 뽕나무 ⁷⁸⁰ 에 이르는 온화한 양기를 차마 보겠는가	原桑忍見陽和至
촌초(寸草) ⁷⁸¹ 에 계절이 새로워지는 것을 견디기 어렵네	寸草難堪節序新
세 가지 즐거움 ⁷⁸² 에 대해 누가 감회가 없을 수 있겠는가	三樂誰能無所感

779 을(乙)과 병(丙)을 나누고 : 이날이 ‘을(乙)’ 자년에서 ‘병(丙)’ 자년, 즉 을미년(1655, 32세)에서 병신년으로 넘어가는 때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듯하다.

780 들판의 뽕나무 : ‘뽕나무’는 부모가 살던 고향 또는 고향의 부모에 대한 그리움을 뜻한다. 《시경》〈소반(小弁)〉에, “부모가 심은 뽕나무와 가래나무도 공경한다.[維桑與梓 必恭敬止]”라 하였는데, 그에 대한 주희(朱熹)의 주에 “선대에서 심은 것이기 때문이다.”라 하였다.

781 촌초(寸草) : 한 치의 작은 풀로, 부모에 대한 자식의 효심을 이르는 말이다. 당(唐)나라 시인 맹교(孟郊)의 〈유자음(游子吟)〉에, “한 치의 풀과 같은 자식의 마음을 가지고서, 봄날의 햇볕 같은 어머니의 사랑을 보답하기 어려워라.[難將寸草心 報得三春暉]”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782 세 가지 즐거움 : 원문은 ‘삼락(三樂)’이다. 군자(君子)의 세 가지 즐거움을 말한다. 《맹자》〈진심 상(盡心上)〉에, “군자에게 세 가지 즐거움이 있으니, 천하에 왕 노릇하는 것은 여기에 끼지 않는다. 부모가 모두 생존해 계시며 형제가 무고(無故)한 것이 첫 번째 즐거움이요, 위로 는 하늘에 부끄럽지 않으며 아래로는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은 것이 두 번째 즐거움이요, 천하의

선생은 돌아가신 부모에 대해 평생의 그리움⁷⁸³이 있었고 의지할 형제⁷⁸⁴가 없었으며 30세가 넘도록 대를 이을 자손도 없었다. 그러므로 시의 뜻이 이처럼 슬픈 것이다. ‘천향(天向)’은 어떤 본에는 ‘연향(年向)’으로 되어 있고, ‘지종(地從)’은 어떤 본에는 ‘시종(時從)’으로 되어 있다.

[先生桑梓永感, 棣花無依, 年踰三十, 且無血胤, 故詩意如此悲悼. 天向一作年向, 地從一作時從.]

금사탄⁷⁸⁵

金梭歎

조물주 아이 지모와 기교 많으니	造物兒郎智巧多
큰 물레 ⁷⁸⁶ 로 금사 하나를 만들어 내었네	洪勻冶出一金梭
일찍이 은하수 가에서 베 짜던 상제(上帝)의 딸과 작별하고	曾辭帝女河邊織
물가에서 낚시질하는 어부에게 멋대로 향하네 ⁷⁸⁷	慢向漁夫釣上波

영재(英才)를 얻어 교육하는 것이 세 번째 즐거움이다.[君子有三樂 而王天下不與存焉 父母俱存 兄弟無故 一樂也 仰不愧於天 俯不作於人 二樂也 得天下英才而教育之 三樂也]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783 평생의 그리움 : 원문은 ‘영감(永感)’이다. 부모(父母)를 모두 여의어 길이 감모(感慕)한다는 뜻이다. 옛날에 부모 모두 생존 시에는 구경(具慶), 부친만 생존 시에는 엄시(嚴侍), 모친만 생존 시에는 자시(慈侍), 부모 모두 여의었을 때에는 영감이라고 하였다.

784 형제 : 원문은 ‘체화(棣花)’다. 곧 상체화(常棣花)로, 꽃이 서로 뭉쳐 피므로 흔히 형제에 비유한다. 《시경》〈상체(常棣)〉에, “아가위꽃 그 꽃송이 울긋불긋 아름답네. 오늘의 모든 사람 중에 형제보다 좋은 건 없네.[常棣之華 鄂不韡韡 凡今之人 莫如兄弟]”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785 금사탄 : ‘금사(金梭)’는 금으로 만든 베틀의 북으로, 북의 미칭이다.

786 큰 물레 : 원문은 ‘홍균(洪勻)’이다. 도자기를 만들 때 돌리는 큰 물레라는 뜻으로, 대자연이 원기(元氣)를 조화시켜 만물을 생성하는 것을 말한다.

787 일찍이……향하네 : 이 구절은 다음과 같은 고사에 의거하여 쓴 것이다. 한 무제(漢武帝) 때 장건(張騫)이 사명(使命)을 받들고 서역(西域)에 나가던 길에 황하의 근원을 찾아 한없이 거슬러 올라갔는데, 한 성시(城市)에 이르러 보니 한 여인은 방 안에서 베를 짜고 있었고 한 남

만 가닥의 꽃은 촉(蜀) 땅의 붉은 비단 ⁷⁸⁸ 이루고	萬縷花成紅蜀錦
천 가닥 버드나무는 제(齊)나라 푸른 비단 ⁷⁸⁹ 만드네	千絲柳作翠齊羅
동방의 나라 오늘날 북과 바디 텅 비었으니 ⁷⁹⁰	大東今日空杼杵
전부(田婦)가 그를 보고서 몇 번이나 탄식하였나	田婦看渠幾咄嗟

도민고현(道民古縣)⁷⁹¹ 【선생의 우거지이다.】

道民古縣【先生寓居地】

천년된 옛 고을 터가 아직 남아 있으니	古縣千年基尙遺
산천의 아름다운 기운 들쭉날쭉 무성하네	山川佳氣鬱參差
옛날에 문 승상(文承相) ⁷⁹² 을 능히 배출하였고	能胚昔日文承相

자는 소를 끌고 은하(銀河)의 물을 먹이고 있었다. 그들에게 “여기가 어디인가?”라고 묻자, 그 여인이 지기석(支機石) 하나를 장건에게 주면서 “성도(成都)의 엄군평(嚴君平)에게 가서 물어보라.” 하였다. 장건이 돌아와서 엄군평을 찾아가 지기석을 보이자, 엄군평이 말하기를 “이것은 직녀의 지기석이다. 아무 연월일에 객성(客星)이 견우성과 직녀성을 범했는데, 지금 헤아려보니 그때가 바로 이 사람이 은하에 당도한 때였도다.”라 하였다. 《傳物志》

- 788 촉(蜀)……비단 : 사천(四川)에서 생산되는 채색의 비단을 말한다. 염색한 숙사(熟絲)로 짜서 만드는데, 색채가 화려하고 재질이 질기다.
- 789 제(齊)나라 푸른 비단 : 제나라 역시 촉 땅과 마찬가지로 예로부터 좋은 비단이 많이 났다고 한다. 《蜀錦譜》
- 790 동방의……비었으니 : 원문의 ‘대동(大東)’은 동방의 큰 제후국으로, 곧 우리나라를 가리킨다. 우리나라의 형편이 벼를 팔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하다는 말이다. 《시경》〈대동(大東)〉에, “소동과 대동에, 북과 바디 모두 비었네.[小東大東 杼柚其空]”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 791 도민고현(道民古縣) : 과거 전라도 남평현(南平縣)에 속해 있던 고을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전라도(全羅道)·남평현(南平縣)〉에, “도민부곡(道民部曲). 현에서 서남쪽으로 16리 떨어져 있다.”라 되어 있다.
- 792 문 승상(文承相) : 남평(南平)을 관향으로 하는 고려 때 문신 문극겸(文克謙, 1122~1189)을 가리키는 듯하다. 본관은 남평, 자는 덕병(德柄). 의종 때 문과에 급제하여 좌정언(左正言), 황주관판, 전중내급사(殿中內給事) 등을 역임하였다. 1170년 정중부(鄭仲夫)의 난 때 죽임을 당할 뻔하였으나 좌정언 때 직언한 일로 화를 면하였고, 1171년에는 우승선사(右承宣御史中丞)이 되어 많은 문신들을 화에서 구하고, 무신들에게는 고사(故事)의 자문에 응하였다. 용호대장군(龍虎大將軍)·상장군(上將軍)을 겸임, 문무(文武) 겸직의 시조가 되었다. 이후 태자소사(太子少師), 예부관사, 병부관사 등 역임하고 1187년 권판상서(權判尙書吏部事)에 올랐다.

당시 도 국사(道國師)⁷⁹³를 일찍이 기억하네 曾記當時道國師
 하늘이 아껴서 승지(勝地)를 남겨둔 것 몇 해나 되었나 幾歲天慳留勝地
 신이 감춰 두고서 남아를 기다렸음을 참으로 알겠네 固知神秘待男兒
 지금 혹시라도 띠풀 벨 계획⁷⁹⁴을 이루고자 한다면 如今倘遂誅茅計
 안개와 노을이 대나무 울타리 감싼 곳을 길이 차지해야 하리 長占烟霞護竹籬

중원(中原)에 전란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聞中原多亂

사해(四海)에 전란이 일어난 지 20년 四海干戈二十年
 남아의 머리 위로 푸른 하늘 바라보기 부끄럽네 男兒頭上愧蒼天
 한밤중에 기운 토하여 무지개 피어나고 中宵吐氣虹霓發
 밝은 해가 길게 신음하여 구름과 안개 이어지네 白日長吟雲霧連
 주의(周顛)의 정자 가에서 누가 눈물을 닦아줄까⁷⁹⁵ 周凱亭邊誰拭淚

793 도 국사(道國師) : 고려 때의 승려 도선(道詵, 827~898)을 말한다. 호는 연기(煙起). 자는 옥룡자(玉龍子)·옥룡(玉龍). 성은 김씨(金氏). 전라남도 영암 출신이다. 15세에 지리산 서봉인 월류봉(月留峰) 화엄사(華嚴寺)에 들어가 승려가 되었으며, 동리산(桐裡山)의 혜철(惠徹)을 찾아가 무설설무법법(無說說無法法)을 배웠다. 운봉산(雲峰山)의 굴속에서 참선삼매(參禪三昧)한 후, 태백산(太白山) 움막에서 고행하였으며, 전라도 회양현(曦陽縣) 백계산(白鷄山) 옥룡사(玉龍寺)에 머물다 죽었다. 고려 숙종은 대선사(大禪師)를 추증하고 왕사(王師)를 추가하였으며, 인종은 선각국사(先覺國師)로 추봉(追封)하였다. 음양풍수설로 특히 유명하다.

794 띠……계획 : 은거를 위해 시골에 거처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두보의 〈남목위풍우소발탄(柎木爲風雨所拔歎)〉에, “초당 앞 강가에 늙나무 서 있는데, 이곳 노인들이 이백 년 묵었다 하네. 띠 풀 베고 거처를 정한 것은 모두 이 때문인데, 오월에도 가을 매미 소리 듣는 것 같았네.[倚江柎樹草堂前 故老相傳二百年 誅茅卜居總爲此 五月髣髴聞寒蟬]”라고 한 대목이 보인다.

795 주의(周顛)의……닦아줄까 : 원문의 ‘주개(周凱)’는 ‘주의(周顛)’의 잘못이다. 서진(西晉) 말년에 중원이 전란에 휩싸이면서 진 나라 왕실이 남으로 옮겨가 동진(東晉)을 세웠다. 동진의 여러 명사(名士)들이 신정(新亭)에 모여 술을 마시면서 즐기는데, 주의가 탄식하며 “풍경은 다르지 않는데 눈을 들어 바라보니, 산하(山河)가 다르다.” 하였다. 이에 왕도(王導)가 얼굴 빛을 고치고 “함께 나랏일에 힘을 바쳐 신주(神州)를 회복해야 하는데, 어찌하여 초수(楚囚)처럼 맞대고 울기만 하는가?”라 하였다. 《晉書 卷65 王導列傳》

공명(孔明)의 두둑 위에서 다만 밭을 갈 뿐이네⁷⁹⁶ 孔明隴上但耕田
 어찌 알겠는가 위수(渭水) 북쪽에 낚싯줄 드리운 자가 焉知渭北垂絲者
 만고의 경륜(經綸)을 홀로 차지하고 있을 줄⁷⁹⁷ 萬古經綸獨自專

부들부채를 읊다

詠蒲扇

당나라 황제의 대궐 안 바람은 필요치 않으니⁷⁹⁸ 不必唐宗閣裏風
 원규(元規)의 더러운 티끌을 스스로 뒤집어쓰지 않네⁷⁹⁹ 元規自未汚塵蒙
 여름 무더위가 어찌 두려우랴⁸⁰⁰ 趙盾威虐寧知畏

796 공명(孔明)의……뿐이네 : ‘공명(孔明)’은 촉한(蜀漢)의 승상 제갈량(諸葛亮)으로, 그는 출사(出仕)하기 전 남양(南陽)에서 몸소 농사지으며 생활하였다.

797 어찌……줄 : 주 문왕(周文王)이 강태공(姜太公)을 얻은 고사를 말한다. 문왕이 사냥을 나가기 전에 짐을 쳤는데, 그 짐패에 “잡을 것은 용도 아니요 이무기도 아니며, 호랑이도 아니요 말곰도 아니요, 범도 아니요, 비휴도 아니다. 얻을 것은 패왕의 보좌이다.[所獲 非龍非虵 非虎非羆 所獲 霸王之輔]”라 하였다. 사냥을 나간 뒤에 과연 위수(渭水) 가에서 강태공을 만나 후거(後車)에 싣고 돌아와 스승으로 삼았다고 한다.《史記 卷32 齊太公世家》

798 당나라……않으니 : 당나라 황실의 귀한 부채 바람은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다. 당나라 때는 황제가 대전(大殿)에 오를 적에 양쪽에서 봉황 깃털 부채로 보이지 않게 가렸다가 천자가 좌정(坐定)한 뒤에 부채를 다시 거두는 의식이 있었다고 한다.《唐會要 朔望朝參》 또 황제 양쪽에서 156본(本)의 우선(羽扇)을 들고 있었다고 하는데, 두보(杜甫)의 시에 “기란을 새긴 향로에선 향연(香煙)이 위로 올라가고, 공작의 우선(羽扇) 열렸다가 부채 그림자 돌아가네.[麒麟不動爐煙上 孔雀徐開扇影還]”라 읊은 일이 있다.《杜少陵詩集 卷6 至日遣興》

799 원규(元規)의……않네 : ‘원규(元規)’는 동진(東晉) 때의 권신(權臣) 유량(庾亮)의 자다. 유량은 국구(國舅)의 신분으로 세 조정에서 잇달아 벼슬하여 권세가 막중하였으므로 사람들이 대부분 그를 불췌었다. 그러나 왕도(王導)는 이를 불만스럽게 여겨, 유량이 있는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 티끌이 일자 문득 부채를 들어 서풍을 막으면서 “원규의 티끌이 사람을 더럽힌다.[元規塵汚人]”라 하였다.《晉書 卷65 王導列傳》

800 여름 무더위가 어찌 두려우랴 : 사람을 두렵게 하는 여름날의 태양이라는 말이다. 춘추 시대 노(潞)나라의 대부 풍서(豐舒)가 진(晉)나라 가계(賈季)에게 “진(晉)나라의 대부 조순(趙盾)과 조취(趙衰) 중에 누가 더 어진가?”라고 묻자, 가계가 “조취는 겨울날의 태양이요, 조순은 여름날의 태양이다.[趙衰冬日之日也 趙盾夏日之日也]”라고 대답하였는데, 그 주(註)에 “겨울 햇빛은 사랑할 만하고, 여름 햇빛은 사람을 두렵게 한다.[冬日可愛 夏日可畏]”라고 하였다.《春秋左氏傳 文公 7年》

영숙(永叔)의 아름다운 작품 부질없이 공교롭네⁸⁰¹ 永叔佳篇謾見工
 안회(顔回)는 팔베개 하며 살아가니 그대가 쓸모 있으며⁸⁰² 回也曲肱君有用
 광문(廣文)은 자리가 없으니 내가 공을 이룰 것이네⁸⁰³ 廣文無席爾成功
 요(堯) 임금 뜰에서 혹 평생의 뜻 이룬다면 堯庭倘遂平生志
 아침하는 이 가리키고 어진이 부르는 일⁸⁰⁴ 나와 내가 같으리 指佞招賢汝我同

중구일(重九日)에 홀로 술을 마시다 감회가 있어

九日獨酌有感

중구일에 향기로운 술 단지 홀로 여니 九日芳樽獨自開
 몇 뿌리의 쇠잔한 국화 심기는 것을 두려워하는 듯 數根殘菊近怵栽
 고개 돌려 천지 바라보니 남은 인생 늙어가고 回頭天地殘生老
 눈 들어 마루 기둥 바라보니 술거품⁸⁰⁵ 올라오네 舉眼軒楹酒蟻來

801 영숙(永叔)의……공교롭네 : ‘영숙(永叔)’은 송나라의 문인 구양수(歐陽脩, 1007~1072)를 가리킨다. 그가 지은 <증승창부(憎蒼蠅賦)>에, “쓸데없이 하인과 아이들에게 큰 부채를 부쳐 바람을 내기도 하지만 모두 고개를 떨구고 팔이 빠지며 매양 곧장 잠들어 풀썩 쓰러진다 오.[徒使蒼頭玉鬚 巨扇揮颺 咸頭垂而腕脫 每立寐而顛僵]”라 한 대목이 보인다.

802 안회(顔回)는……있으며 : ‘안회(顔回)’는 공자의 제자로 가난하였음에도 도(道)를 즐기며 살아간 인물이다. ‘팔베개 하며 살아가다’는 말은 《논어》<술이(述而)>에, “거친 밥을 먹고 물을 마시며 팔을 굽혀 베개를 삼더라도 낙이 또한 그 속에 들어 있다.[飯疏食飲水 曲肱而枕之 樂亦在其中]”라 한 데서 취해 온 표현이다. 안회와 같이 안분자족하는 삶에 있어 부채가 쓸모 있음을 말한 것이다.

803 광문(廣文)은……것이네 : ‘광문(廣文)’은 당 현종(唐玄宗) 때 광문관 박사(廣文館博士)를 지낸 정건(鄭虔)을 가리킨다. 《新唐書 卷202 鄭虔列傳》 그는 몹시 가난하였으므로, 두보(杜甫)가 일찍이 그에게 <희간정광문(戲簡鄭廣文)>이라는 시를 지어주면서 “채주 명성은 삼십 년을 날렸으며, 빈객은 추위도 앓을 털방석이 없네.[才名三十年 坐客寒無氈]”라 읊은 바 있다. 부들부채가 정건에게 주어진다면 그것이 방석의 역할이라도 할 수 있을 것임을 말한 것이다.

804 아침하는……일 : 요(堯) 임금 뜰에는 ‘지영초(指佞草)’라는 이름의 풀이 자랐는데, 아침하는 사람이 들어오면 반드시 그를 가리켰다고 한다.

805 술거품 : 원문은 ‘주의(酒蟻)’다. 술이 익을 무렵 쌀알만한 녹색 기포가 생기는데 그 모양이 마치 개미가 기어가는 것 같아 이를 ‘술개미’라 하고, 그러한 술을 ‘부의주(浮蟻酒)’ 또는 ‘녹의주(綠蟻酒)’라 한다.

사람들은 취하면 장대한 뜻 많아진다 하는데	人道醉中多壯志
나는 술잔 속에 슬픈 감회 있음을 알겠네	我知盃裏有悲懷
근심 잊고서 도 정절(陶靖節)을 배우고자 하니	忘憂欲學陶靖節
억지로 두건 가져와 익은 술을 거르네 ⁸⁰⁶	強引頭巾向醞醅

섬돌 옆 푸른 잣나무 아래 해당화(海棠花)가 있어 붉고 푸른빛이 서로 비쳤다. 이에 감회가 일어 제하다
階邊翠栢下有海棠，紅綠相暎，仍起感而題。

푸른 잣나무 섬돌 옆에 해당화 심어져 있으니	翠栢階邊樹海棠
선명한 붉고 푸른빛 몹시 빼어나네	分明紅綠出尋常
이슬 같은 볼과 붉은 뺨 바람 앞에 곱고	露腮丹臉風前嫩
눈 견디는 자태 ⁸⁰⁷ 와 푸른 수염 ⁸⁰⁸ 비 온 뒤에 자라나네	雪態蒼髯雨後長
금수(錦水)의 와룡(臥龍) ⁸⁰⁹ 마치 접할 수 있을 듯	錦水臥龍如可接
혜주(惠州)의 선인(仙人) ⁸¹⁰ 마치 서로 바라보는 듯	惠州仙子若相望

806 근심……거르네 : ‘도 정절(陶靖節)’은 진(晉)나라 때 은사(隱士) 도연명(陶淵明)을 가리키는 말이다. 도연명은 술을 매우 좋아하여 매양 술이 익으면 머리에 쓴 갈건(葛巾)을 벗어서 술을 걸러 마시고는 다시 갈건을 머리에 쓰곤 하였다고 한다. 《晉書 卷94 陶潛傳》

807 눈 견디는 자태 : 원문은 ‘설태(雪態)’다. 잣나무는 눈 내리는 겨울에도 시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논어》〈자한(子罕)〉에, “한 해가 다하여 날씨가 추워진 뒤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늦게 시드는 것을 안다.[歲寒然後 知松柏之後凋也]”라 하였다.

808 푸른 수염 : 원문은 ‘창염(蒼髯)’이다. 잣잎을 노인의 수염에 빗대 표현한 것이다. 소식(蘇軾)의 시 〈불일산영장로방장(佛日山榮長老方丈)〉에, “산중에는 단지 푸른 수염 늙은이 있어, 쓸쓸한 몇 리 길에서 사람을 맞이하고 보낸다.[山中只有蒼髯叟 數里蕭蕭管送迎]”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809 금수(錦水)의 와룡(臥龍) : ‘와룡(臥龍)’은 촉한(蜀漢)의 승상 제갈량(諸葛亮)을 가리키는 말이다. 사천성(四川省) 금관성(錦官城)에 제갈량의 사당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인다. 두보(杜甫)의 〈촉상(蜀相)〉에, “승상의 사당을 어느 곳에서 찾을꼬, 금관성 밖에 잣나무가 늘어진 곳이다.[丞相祠堂何處尋 錦官城外栢森森]”라 하여 제갈량 사당에 심어진 잣나무를 읊은 대목이 보인다.

810 혜주(惠州)의 선인(仙人) : ‘혜주(惠州)’는 중국 광둥성(廣東省) 혜양현(惠陽縣) 서쪽에 있는 지명이다. 송나라의 소식(蘇軾)이 이곳으로 유배된 일이 있었으므로, 여기서의 선인은 곧 그

두 공의 기개 지금 천년이나 되었으니 二公氣槩今千載
그대들 대하며 나직이 읊조림에 상심 어린 흥이 이네 對爾沉吟興有傷

《삼략(三略)》⁸¹¹을 읽고

讀三略書

남자다운 마음과 여자 같은 용모⁸¹² 男子心嚮女子容
왕교(王喬)⁸¹³와 같은 자품으로 기(夔)와 용(龍)⁸¹⁴처럼 되기를 허락하였네 王喬身世許夔龍
처음 천하를 평정할 적에는 황석공(黃石公)에게 배웠고⁸¹⁵ 初平天下師黃石
만년에 공명을 이루고서는 적송자(赤松子)를 벗하였네⁸¹⁶ 晚遂功名友赤松

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소식은 일찍이 <우거정혜원지동잡화만산유해당일주토인부지귀야(寓居定惠院之東雜花滿山有海棠一株土人不知貴也)>라는 시를 지어 해당화에 대해 읊은 바 있다.

- 811 삼략(三略) : 한(漢)나라의 장량(張良)이 황석공(黃石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병서(兵書)로, 상략(上略), 중략(中略), 하략(下略)의 세 권으로 되어 있다.
- 812 남자다운……용모 : 사마천(司馬遷)이 장량(張良)을 평한 말에, “나는 그 사람이 체격이 크고 기이하게 생긴 줄 알았는데, 그의 화상(畫像)을 보니, 마치 아름다운 여인(女人)과 같았다.”라 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史記 卷55 留侯世家》
- 813 왕교(王喬) : 왕자교(王子喬)를 가리킨다. 유향(劉向)의 《열선전(列仙傳)》에 의하면, 왕자교는 주(周)나라 영왕(靈王)의 태자 진(晉)으로, 파리 불기를 좋아하였는데 파리를 불면 봉황새 우는 소리가 났다. 이수(伊水)와 낙수(洛水) 사이에서 노닐다가 도사(道士) 부구공(浮丘公)을 만나 숭산(嵩山)에서 신선술을 배웠고, 30여 년 뒤에 흰 학을 타고 구씨산(緱氏山) 꼭대기에 내려와 신선이 되었다고 한다. 장량 역시 공업(功業)을 이룬 뒤에 적송자(赤松子)를 따라 노닐고자 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 814 기(夔)와 용(龍) : 순(舜) 임금의 어진 두 신하를 말한다. 기(夔)는 음악을 담당하였고, 용(龍)은 간언(諫言)을 담당하였다. 한 고조(漢高祖) 유방(劉邦)의 신하가 된 장량을 이들에 빗낸 것이다.
- 815 처음……배웠고 : 장량이 하비(下邳)의 다리에서 황석공(黃石公)이라는 노인을 만났는데, 노인이 다리 밑으로 떨어진 신을 주워달라고 하였다. 장량이 신을 주워 공손히 신겨주자, 노인은 그에게 강태공의 병법서를 주었다. 장량은 이를 익혀 고조를 도와 천하를 통일하였다. 《史記 卷55 留侯世家》
- 816 만년에……벗하였네 : ‘적송자(赤松子)’는 전설상의 신선 이름이다. 장량은 천하가 통일된 뒤 자신의 몸을 보존하기 위하여 고조(高祖)에게 “인간사를 버리고 적송자를 좇아 놀기를 원함

한(漢)과 초(楚)의 흥망 세치 혀에서 판가름 났고⁸¹⁷ 漢楚興亡三寸舌
 진(秦)과 한(韓)의 목은 원한 긴 병기 하나로 보여 주었네⁸¹⁸ 秦韓讎怨一長鋒
 쌀렁한 서재에서 당시의 비결(秘訣)을 다 보고나니 寒齋閱盡當年訣
 나도 모르게 천지의 장대한 기운이 따라 일어나네 不覺乾坤壯氣從

한가로이 거닐며

閒行

난초 언덕과 푸른 이끼 모두 밟고서 踏盡蘭臯與碧苔
 봄빛을 찾아 높은 누대에 오르네 行尋春色上層臺
 오솔길 방초(芳草)와 이어지니 향기가 나막신에서 생겨나고 逕連芳草香生屐
 사람이 푸른 소나무에 의지하니 푸른빛이 잔에 스며드네 人倚青松翠入盃
 십 리의 물결 빛깔 상과 도마에 일렁이고 十里波光搖案俎
 온 산의 꽃기운 술동이를 이끄네 一山花氣惹樽壘
 얼큰히 취해 동풍(東風)을 마주하니 薰然醉對東風面
 천 송이 만 송이의 희고 붉은 꽃들 저마다 활짝 피어 있네 萬白千紅自在開

제석

除夕

삼백육십일 다음의 여섯 번째 날

三百六旬第六日

니다.[願棄人間事 欲從赤松子遊]"라 하였다. 《史記 卷55 留侯世家》

817 한(漢)과……났고 : 장량이 한 고조(漢高祖) 유방(劉邦)의 모신(謀臣)으로 활약하며 한(漢)나라가 초(楚)나라에게 승리를 거두는 데 많은 공을 세웠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818 진(秦)과……주었네 : 장량은 선조가 한(韓)나라 사람이었는데, 진(秦)나라에 의해 한나라가 멸망당하자 그 원수를 갚기 위해 창해역사(滄海力士)로 하여금 첩퇴를 들고 박랑사(博浪沙)에서 진시황을 저격하게 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첩퇴가 빛나가 진 시황이 탄 마차를 맞히지 못하고 다음 수레를 치고 말았다. 《史記 卷55 留侯世家》

경인년(1650, 27세)은 이날 저녁 밖에는 남은 날이 없네	庚寅此夕外無零
하늘의 마음 이미 움직여 매화의 뺨 희어졌고	天心已動梅腮白
상제(上帝)의 뜻 봄 되려 하여 버들의 눈 푸르게 되었네	帝意將春柳眼青
온화한 기운 은자의 방에 먼저 찾아오고	和氣先來幽士室
은혜로운 바람 야인의 정자에 잔잔히 불어오네	惠風徐到野人亭
한가로운 가운데 묵묵히 평생의 일 헤아려 보니	閒中默數平生事
28년 동안 헛되이 술에 취했다 깨었다만 반복하였구나	二十八年空醉醒

병중의 심회

病懷

병중이라 찬바람 두려워 문을 열지 않으니	病惻風寒門不開
옷깃 풀고 머리 헝클어진 채로 들풀 위에 누워 있네	披衣亂髮臥蒿萊
처마 옆에서 우는 새 절로 봄기운 품었고	簷邊啼鳥自春意
고요함 속의 마음 하나 마치 식은 재 ⁸¹⁹ 와 같네	靜裏一心如死灰
본디 한가한 사람은 사귀이 물과 같으니 ⁸²⁰	固是閒人交若水
창밖에 이미 이끼 자라남을 분명히 알겠네 ⁸²¹	明知窗外已生苔
뜨락의 매화 연전(年前)의 우호 저버리지 않았으니	庭梅不負年前好
바람이 이끈 은은한 향기 침상 위로 올라오네	風引微香枕上來

819 식은 재 : 원문은 ‘사회(死灰)’다. 마음이 외물(外物)에 전혀 동요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장자》〈제물론(齊物論)〉에, “형체를 진실로 말라 죽은 나무처럼 할 수 있으며, 마음을 진실로 불 꺼진 재처럼 할 수 있겠는가? [形固可使如槁木 而心固可使如死灰乎]”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820 사귀이 물과 같으니 : 물처럼 담박한 사귀음을 말한다. 《장자》〈산목(山木)〉에, “군자의 사귀은 담담하기가 물과 같고, 소인의 사귀은 달기가 단술과 같다. [君子之交淡若水 小人之交甘若醴]”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821 창밖에……알겠네 : 병중에 벗을 그리워하는 심사를 읊은 것으로 보인다. 두보의 〈추술(秋述)〉에, “가을에 내가 병이 들어 장안의 여관에 머물고 있었는데 비가 많이 내려 물고기가 생겨나고 푸른 이끼가 자리예까지 미쳤다. 평상시에 오가던 객들이, 예전에는 비가 내리는 날도 찾아왔는데 요즘은 비가 내리면 찾아오지 않는다. [秋杜子臥病長安旅次 多雨生魚 青苔及榻 常時車馬之客 舊雨來 今雨不來]”라 한 대목이 보인다. 《杜詩詳注 卷25》

이거

移居

조물주가 어느 해에 작은 언덕을 잉태하여	造物何年孕小邱
천년 동안 남겨 두고서 나의 유람을 기다렸나	却留千載待吾遊
남아는 바위 골짜기에 깃들일 필요 없으며	男兒不必棲巖壑
농사짓는 늙은이 어찌 들관 도랑을 따로 마련한 적이 있었던가	農老何曾別野溝
산은 푸른 비녀 ⁸²² 두르고서 상서로움을 바치고	山帶碧簪呈寶瑞
물은 현주(玄酒) ⁸²³ 머금고서 옥구슬 연주하네	水含玄酒奏瓊球
아침저녁 안개와 노을로 입안을 닦으니	烟霞朝暮漱牙頰
치아와 혀 청량하여 상쾌한 기운 모이네	齒舌清涼爽氣收

어떤 사람의 말에 삼신산(三神山)⁸²⁴이 모두 우리나라에 있다고 하였는데, 내가 사는 땅이 선포(仙圃)⁸²⁵이다. 이에 이 시를 지어 감흥을 일으키다

有人言三神山皆在我國，吾所居地是仙圃，仍題此而起興。

부상(扶桑) ⁸²⁶ 의 푸른 바닷가에 우리 집이 있으니	家住扶桑碧海頭
오색구름 깊은 곳이 바로 청구(靑邱)라오	五雲深處是靑邱

822 푸른 비녀 : 푸른 산봉우리를 말한다.

823 현주(玄酒) : 물을 의미한다. 먼 옛날 아직 단술(醴酒)이 발명되기 전에 술 대신 물을 사용하였는데, 물 색깔이 검은색이므로 물을 '현주(玄酒)'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중국 후한(後漢)의 유학자 정현(鄭玄)은 이에 대해 설명하기를, “현주는 새로 길은 물이다. 비록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여전히 진설하는 것은 옛날을 잊지 않기 위해서이다.[玄酒 新水也 雖今不用 猶設之 不忘古也]”라고 하였다.

824 삼신산(三神山) : 중국 전설에 나오는 봉래(蓬萊)·방장(方丈)·영주(瀛州) 세 산을 가리킨다. 중국 동쪽의 발해(渤海) 가운데 있다고 한다.

825 선포(仙圃) : 신선이 약초를 심어 놓았다는 전설 속의 밭을 말한다.

826 부상(扶桑) : 해가 뜨는 곳에 있다는 전설상의 나무의 이름으로 흔히 동쪽 지역을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우리나라를 뜻하는 말로 사용되었다.

큰 봉새 나는 하늘 너머는 선계와 속세 구분 짓고
 푸른 학 나는 봉우리 앞엔 해와 달 떠오르네
 향기 나는 옥지(玉芝)⁸²⁷ 봄에도 시들지 않고
 이슬 젖은 선초(仙草) 객이 거두어 가지 않네
 섬돌 옆의 흰 사슴⁸²⁸ 한가로이 잠에서 깨어
 삼청동(三清洞)⁸²⁹ 안으로 넘어가 노니네

大鵬天外仙凡限
 青鶴峯前日月浮
 香惹玉芝春不老
 露滋瓊草客無收
 階邊白鹿閒眠起
 跨向三清洞裏遊

봄날 맑은 강의 저물녘 흥취

春日清江晚興

아름다운 경치 상쾌히 유람함에 풀 무성하니
 눈앞 가득 조화옹(造化翁)의 숨씨 아님이 없네
 봄 나무 그림자 푸른 시냇물에 잠겨 있고
 저녁노을은 붉은 석양 두르고서 돌아가네
 물가 부들의 짝 새벽비에 빛나고
 산 살구꽃 오후 바람에 날리네
 강가에서 낚시하는 늙은이 무슨 일이 있으리오
 한 가닥 낚시줄 저물녘 안개 속에 높이 걸어두었네

清遊佳景草芃芃
 滿目無非造化工
 春樹影潛溪水碧
 落霞歸帶夕陽紅
 渚蒲芽白朝前雨
 山杏花飛午後風
 江上釣叟何事有
 一絲高掛暮烟中

827 옥지(玉芝) : 선경(仙境)에 있는 영지(靈芝)다. 장형(張衡)의 <사현부(思玄賦)>에, “서왕모를 은대로 찾아가서, 옥지를 올려 배고픔 다스리게 하네.[聘王母于銀臺兮 羞玉芝以療飢]”라 한 대목이 보인다.

828 흰 사슴 : 선계에서 노니는 동물이다. 《신선전(神仙傳)》 <유근(劉根)>에 선인(仙人) 한중(韓衆)이 흰 사슴이 끄는 수레[白鹿車]를 타고 다녔다는 기록이 있으며, 진(晉)나라 장화(張華)의 《박물지(博物志)》 권8 사보(史補)에 한(漢)나라 무제(武帝)가 선도(仙道)를 좋아하였는데 당시 서왕모가 백록(白鹿)을 탄 사자(使者)를 무제에게 보내 자신이 올 것임을 알렸다는 고사가 전한다.

829 삼청동(三清洞) : 도교에서 말하는 천상 세계로, 삼동(三洞)의 교주(教主)가 사는 최고의 선경(仙境)인 옥청경(玉清境), 상청경(上清境), 태청경(太清境)을 가리킨다.

친족 모임

族會

산 근처 강가에 바위가 돈대를 이루니	山近江頭石作臺
올라가 굽어보자 아름다운 계절에 온갖 꽃이 피어 있네	登臨佳節百花開
강산은 만고토록 조금도 금하지 않고	江山萬古渾無禁
꽃과 버들 봄 내내 웃으며 시기하지 않네	花柳三春笑不猜
사람은 흰 기러기 노니는 물가에서 이르고	人自白鷗洲上至
술은 붉은 살구 열린 동(洞) ⁸³⁰ 에서 오네	酒從紅杏洞中來
더구나 상 나란히 한 이들 모두 형제이니	連床況是皆兄弟
그 속에서의 기쁜 마음 금할 길이 없네	箇裏歡情不自裁

중용

中庸

성인(聖人)이 성인의 손자에게 도(道)를 전하니 ⁸³¹	聖人傳道聖人孫
만 가지 이치 분명하여 하나의 근원으로 모이네	萬理分明總一元
찌꺼기도 남아 있지 않아 해와 달처럼 밝고 ⁸³²	查滓不存昭日月

830 붉은……동 : 원문은 ‘홍행동(紅杏洞)’이다. 살구꽃이 핀 곳은 흔히 술집을 가리킨다. 당나라 두목(杜牧)의 시 <청명(清明)>에, “문노니 술집이 어디에 있는가? 목동이 멀리 살구꽃 핀 마을을 가리키네.[借問酒家何處有 牧童遙指杏花村]”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831 성인(聖人)이……전하니 : 《중용(中庸)》은 공자(孔子)의 손자 자사(子思)가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832 찌꺼기도……밝고 :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불순한 요소들을 깨끗하게 정화한다는 말이다. 《논어(論語)》 <태백(泰伯) 8장>의 주에, “사람의 성정을 함양하며 간사하고 더러운 것을 깨끗이 털어내고 찌꺼기를 말끔히 정화시킨다.[可以養人之性情 而蕩滌其邪穢 消融其查滓]”라 하였고, 《심경부주(心經附註)》 <예악불가사수거신장(禮樂不可斯須去身章)>에, “자질이 아름다운 자는 맑히기를 극진히 하면 찌꺼기가 바로 완전히 변화하여 천지와체가 같아지고, 그다음 사람은 오직 장엄하고 공경하는 자세로 붙잡아 기를 뿐이지만, 그 귀결점은 하나이다.[質美者明得盡 查滓便渾化却 與天地同體 其次惟莊敬持養 及其至則一也]”라는 정호(程顥)의 말이 나온다.

지극한 정성 쉬 없는 것 천지를 본받았네 ⁸³³	至誠無息體乾坤
아홉 길 높이로 만든 산 ⁸³⁴ 참되게 쌓았음 ⁸³⁵ 을 알겠고	爲山九仞知眞積
바다에 이르는 온갖 하천 본원이 있네	達海百川有本源
염락(濂洛)과 신안(新安) ⁸³⁶ 지금 적막하니	濂洛新安今寂寞
솔개 날고 물고기 뛰어 오르는 이치 ⁸³⁷ 누가 말할 수 있으리라	鳶飛魚躍孰能言

대학 大學

성인의 문하인 증삼(曾參)이 그 종지(宗志)를 얻었으니⁸³⁸ 聖門參也得其宗
팔조목(八條目)과 삼강령(三綱領)⁸³⁹에 차례로 통달하였네 八目三綱次第通

- 833 지극한……본받았네 : 《중용 장구》 제26장에, “지극한 정성은 쉬이 없으니, 쉬지 않으면 내면에 오래 간직하게 되고, 내면에 오래 간직하다 보면 밖으로 징험이 드러나게 된다. 밖으로 징험이 드러나면 이 세상에서 길이 지속되고, 길이 지속되면 넓고 두터워지게 되고, 넓고 두터워지면 높고 밝아지게 된다. [至誠無息 不息則久 久則徵 徵則悠遠 悠遠則博厚 博厚則高明]”라 한 데서 온 말이다.
- 834 아홉……산 : 부지런히 쌓아 올린 공을 말한다. 《서경》〈여오(旅獒)〉에, “아홉 길 높이의 산을 쌓는데, 공이 한 삼태기의 흙이 모자라는 데서 무너진다.[爲山九仞 功虧一簣]”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 835 참되게 쌓았음 : 원문은 ‘진적(眞積)’이다. 학문에 대한 노력을 진실하게 쌓아 나가는 것을 말한다. 《순자(荀子)》〈권학(勸學)〉에, “참되게 쌓아 가며 오래도록 노력해야만 학문의 경지에 들어서게 되는데, 학문은 죽음에 이른 뒤에야 그만두는 것이다.[眞積力久則入 學至乎沒而後止也]”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 836 염락(濂洛)과 신안(新安) : ‘염락(濂洛)’의 ‘염’은 곧 염계(濂溪)로 송나라 주돈이(周敦頤)가 거주하던 곳이고, ‘낙’은 곧 낙양(洛陽)으로 정호(程顥)·정이(程頤) 형제가 거주하던 곳이다. 또한 ‘신안(新安)’은 중국 안휘성(安徽省)의 지명으로 주희(朱熹)의 관향이다. 곧 송나라의 성리학자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 837 솔개……이치 : 천지에 드러난 도(道)의 오묘한 작용을 이른다. 《중용장구(中庸章句)》 제12장에, “《시》에 이르기를 ‘솔개는 날아서 하늘에 이르고, 물고기는 못에서 뛰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천지의 도가 높은 하늘이나 낮은 못이나 모두 똑같이 행해지고 있음을 말한 것이다.[詩云鳶飛戾天 魚躍于淵 言其上下察也]”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 838 성인(聖人)의……얻었으니 : 증삼(曾參)은 곧 공자의 제자 증자(曾子)를 가리킨다. 《대학(大學)》은 증자가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 839 팔조목(八條目)과 삼강령(三綱領) : 《대학》의 기본인 세 강령과 여덟 조목을 말한다. ‘삼강

천하 국가 다스림에는 근본이 있고 ⁸⁴⁰	天下國家治有本
소인과 군자는 도(道)가 같지 않네 ⁸⁴¹	小人君子道無同
수신(修身)을 통해 신민(新民)의 공효를 볼 수 있고 ⁸⁴²	修身可見新民效
신독(慎獨) ⁸⁴³ 을 통해 비로소 입덕(入德)의 공을 알겠네 ⁸⁴⁴	慎獨方知入德功
성의관(誠意關) ⁸⁴⁵ 의 주인은 누구인가	誠意關中誰是主
영대(靈臺) 위의 성성옹(惺惺翁)이라네 ⁸⁴⁶	靈臺臺上一惺翁

령(三綱領)은 명명덕(明明德)·신민(新民)·지어지선(止於至善)이고, ‘팔조목(八條目)’은 격물(格物)·치지(致知)·성의(誠意)·정심(正心)·수신(修身)·제가(齊家)·치국(治國)·평천하(平天下)이다.

- 840 천하……있고 : 《대학》의 팔조목을 따르자면, 치국(治國)과 평천하(平天下)를 하기에 앞서 격물(格物)·치지(致知)·성의(誠意)·정심(正心)·수신(修身)·제가(齊家) 등의 단계를 순차적으로 거쳐야 한다.
- 841 소인과……않네 : 군자(君子)와 소인(小人)의 행실이 판이하게 다름을 말한 것이다. 《대학장구》 전(傳) 3장에, “군자는 그 현명함을 현명하게 여기고 그 친함을 친하게 여기며, 소인은 그 즐거움을 즐거워하고 그 이로움을 이로워한다.[君子 賢其賢而親其親 小人 樂其樂而利其利]”라 하였다.
- 842 수신(修身)을……있고 : ‘수신(修身)’은 《대학》의 팔강령 가운데 하나로 ‘몸을 닦는 것’을 말하며, ‘신민(新民)’은 《대학》의 삼강령 가운데 하나로 ‘백성을 새롭게 함’을 말한다.
- 843 신독(慎獨) : 원문은 ‘신독(慎篤)’인데, 문맥을 살펴 ‘독(篤)’을 ‘독(獨)’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 844 신독(慎獨)을……알겠네 : ‘신독(慎獨)’은 홀로 있을 때에도 행동을 삼가는 것을 말한다. 《대학장구》 전 6장에, “이른바 그 뜻을 성실히 한다는 것은 스스로를 속임이 없는 것이다. 악을 미워하기는 악취를 미워하는 것과 같이 하며, 선을 좋아하는기는 미인을 좋아하는 것과 같이 하여야 하니, 이것을 자겸(自謙)이라 이른다. 그러므로 군자는 반드시 홀로 있을 때를 삼가는 것이다.[所謂誠其意者 毋自欺也 如惡惡臭 如好好色 此之謂自謙 故君子必慎其獨也]”라 하였다. 또 《대학장구》 경(經) 1장 서두에, “정자가 이르기를, ‘대학은 공 씨가 남긴 책으로 초학자가 덕에 들어가는 문이다.’ 하였다.[子程子曰 大學 孔氏之遺書 而初學入德之門也]”라 한 대목이 보인다.
- 845 성의관(誠意關) : 뜻을 성실히 하는 공부를 관문에 비유한 말이다. 주희(朱熹)는 《대학장구(大學章句)》의 〈성의(誠意)〉장을 설명하면서 “이 관문을 통과하면 바야흐로 도를 깨달음이 확고해진다.[過此關 方得道理牢固]”라 하였다. 《朱子語類 卷16》 또 “성의는 선악관(善惡關)이니, 뜻을 성실히 하면 선해질 것이고, 뜻을 성실히 하지 못하면 악할 뿐이다. 또 성의는 인귀관(人鬼關)이니, 뜻을 성실히 하면 사람일 것이고, 뜻을 성실히 하지 못하면 귀신일 뿐이다.[誠意是善惡關 誠得來是善 誠不得只是惡 誠意是轉關處 誠意是人鬼關 誠得來是人 誠不得是鬼]”라 하였다. 《朱子語類 卷15》
- 846 영대(靈臺) 위의 성성옹(惺惺翁)이라네 : ‘영대(靈臺)’는 신명스러운 대(臺)란 뜻으로 마음을 가리킨다. ‘성성옹(惺惺翁)’ 역시 마음을 가리킨 것으로 깨끗한 마음은 어둡지 않고 항상 깨어 있다 하여 이러한 말로 의인화한 것이다. 《심경부주(心經附註)》〈경이직내장(敬以直內

논어

論語

천지의 정기(精氣) 받아 소왕(素王)⁸⁴⁷이 나시니 乾坤精氣素王生
 옥으로 금속 악기 소리 거두어 집대성(集大成)하셨네⁸⁴⁸ 玉振金聲集大成
 예악(禮樂)과 위의(威儀) 담장 안에 갖추어지고⁸⁴⁹ 禮樂威儀墻內備
 전장(典章)과 문물(文物)로 방 안이 환하네⁸⁵⁰ 典章文物室中明
 인을 두터이하고 의를 넓힘에 하늘과 사람이 바로 서고 敦仁博義天人立
 부친께 효도하고 임금께 충성함에 나라가 평안해지네 孝父忠君家國平
 하도(河圖)와 낙서(洛書) 비록 보지 못하였으나⁸⁵¹ 河洛圖書雖未見

章))에, 사양좌(謝良佐)가 “경은 항상 성성하는 법이다.[敬是常惺惺法]”라고 한 데 대해, 주희(朱熹)가 “서암의 중은 매일 항상 스스로 ‘주인옹은 성성한가?’ 라고 묻고는 ‘성성하다.’ 라고 스스로 대답하곤 했다.[瑞巖僧 每日間 常自問主人翁惺惺否 自答曰惺惺]”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 847 소왕(素王) : 제왕(帝王)의 덕을 지니고도 제왕의 자리에 오르지 못한 성인(聖人)을 이르는 말로, 공자(孔子)를 가리킨다. 왕충(王充)의 《논형(論衡)》에 “공자는 왕을 하지 않았으니, 소왕의 업은 《춘추》에 있다.[孔子不王 素王之業 在於春秋]”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 848 옥으로……집대성(集大成)하셨네 : 공자가 성인(聖人)의 덕을 크게 이루었음을 말한 것이다. 《맹자》〈만장 하(萬章下)〉에, “공자 같은 분을 두고 집대성했다고 하는 것이니, 집대성이란 금속 악기 소리[金聲]로 시작하여 옥의 악기로 소리를 거두는 것과 같은 것이다.[孔子之謂集大成 集大成也者 金聲而玉振之也]”라 하였다.
- 849 예악(禮樂)과……갖추어지고 : 공자의 학문 수준을 표현한 말이다. 《논어》〈자장(子張)〉에, 자복경백(子服景伯)이 숙손무숙(叔孫武叔)의 말을 빌려 자공(子貢)이 공자보다 낫다는 말을 전하자 자공이 “집에다 비유하자면 나의 담장은 어깨 높이라 나의 살림을 엿볼 수 있지만, 부자의 담장은 몇 길이라 문을 통해 들어가 보지 못하면 종묘의 아름다움과 백관의 성대함을 알 수가 없소. 그런데 그 문으로 들어가 본 이도 사실 드무니 숙손무숙의 말이 또한 당연하지 않은가.[譬之宮牆 賜之牆也及肩 窺見室家之好 夫子之牆數仞 不得其門而入 不見宗廟之美百官之富 得其門者或寡矣 夫子之云 不亦宜乎]”라 하여 공자의 학문을 높은 담장에 비유한 대목이 나온다.
- 850 전장(典章)과……환하네 : 공자의 학문 경지를 표현한 말이다. 《논어》〈선진(先進)〉에, “자로(子路)는 마루에는 올랐으나 아직 방에는 들어오지 못하였다.[由也升堂矣 未入於室也]”라 하여 학문 경지를 집 구조에 비유한 대목이 나온다.
- 851 하도(河圖)와……못하였으나 : 공자가 결국 세상에 도(道)를 실현하지 못하였음을 말한 것이다. ‘하도(河圖)’는 복희씨(伏羲氏) 때에 하수(河水)에서 나온 용마(龍馬)의 등에 1부터 10까지 그려져 있던 그림으로 복희씨가 이것을 보고 《주역》의 팔괘(八卦)를 그렸다 하며, ‘낙서(洛書)’는 하(夏)나라 우왕(禹王) 때에 낙수(洛水)에서 나온 거북의 등에 1부터 9까지 그

가을날 햇볕과 강한(江漢) 같은 덕 지금까지 맑네⁸⁵² 秋陽江漢至今清

맹자

孟子

호연(浩然)한 기운⁸⁵³ 가을 하늘과 닮았으니 浩然之氣秋天像
추(鄒)나라에서 아성(亞聖)의 자태 지닌 분 나왔다네⁸⁵⁴ 孕出鄒邦亞聖姿
양주(楊朱)와 묵적(墨翟)의 학설 힘껏 배척하고⁸⁵⁵ 力排楊朱墨翟徒
문왕과 무왕, 요순의 다스림을 회복하는 데 뜻을 두었네 志復文武唐虞治
제 선왕(齊宣王)과 양 혜왕(梁惠王)은 맹자의 말을 써 주지 않았고⁸⁵⁶

려져 있던 그림으로 우왕이 이것을 보고 《서경》의 홍범구주(洪範九疇)를 만들었다 한다. 때
문에 하도와 낙서는 도를 전하는 상징으로 사용된다.

852 가을날……맑네 : 공자의 덕을 찬미한 것이다. 《맹자》〈등문공 상(滕文公上)〉에 증자(曾子)
가 공자를 찬미하여 “선생의 덕은 강수(江水)와 한수(漢水)로 씻는 것과 같고 가을볕으로
쪼이는 것과 같아서 깨끗하고 깨끗하여 더할 수 없다.[江漢以濯之 秋陽以暴之 皜皜乎不可
尙已]”라 한 내용이 보인다.

853 호연(浩然)한 기운 : 천지(天地) 사이에 성대히 유행(流行)하는 정기(正氣)를 말한다. 맹자
가 자신의 부동심(不動心)을 말하면서 “나는 말을 알며 나는 나의 호연지기를 잘 기른다.[我
知言 我善養吾浩然之氣]”라 하니, 공손추(公孫丑)가 “감히 묻겠습니다. 무엇을 호연지이라
하는 것입니까?[敢問 何謂浩然之氣]”라고 물었다. 이에 맹자가 이르기를 “말로 형용하기 어
렵다. 그 기운 됴이 지극히 크고 지극히 강하니, 곧음으로 길러서 해치지 않으면 천지 사이에
꼭 차게 되느니라.[難言也 其爲氣也 至大至剛 以直養而無害 則塞乎天地之間]”라 한 데
서 나온 말이다. 《孟子 公孫丑上》

854 추(鄒)나라에서……나왔다네 : 맹자는 전국 시대 추(鄒)나라 출신이며, ‘아성(亞聖)’은 ‘다
음가는 성인’이라는 뜻으로 맹자를 가리키는 말로 흔히 사용된다.

855 양주(楊朱)와……배척하고 : ‘양주(楊朱)’와 ‘묵적(墨翟)’은 전국 시대의 학자들로 각각 위
아설(爲我說)과 겸애설(兼愛說)을 주장하였는데, 맹자는 이들의 설을 극력 비판하였다. 《맹
자》〈등문공 하(滕文公下)〉에, “양주는 자신만을 위하니 이는 임금을 무시하는 것이요, 묵
적은 똑같이 사랑하니 이는 아버지를 무시하는 것이다. 아버지를 무시하고 임금을 무시하면 이는
금수이다.……양주와 묵적의 도가 중식되지 않으면 공자의 도가 드러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부정한 학설이 백성을 속여 인의(仁義)를 꼭 막는 것[楊氏爲我 是無君也 墨氏兼愛 是無父
也 無父無君 是禽獸也……楊墨之道不息 孔子之道不著 是邪說誣民充塞仁義也]”라 한
대목이 보인다.

856 제 선왕(齊宣王)과……않았고 : 제 선왕(齊宣王)과 양 혜왕(梁惠王)은 전국 시대의 제후다.
맹자는 이들의 초빙을 받아 왕도 정치를 실현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

齊宣梁惠言無用

안평중(安平仲)과 관이오(管夷吾)가 한 일 하지 않기로 맹세했네⁸⁵⁷

平仲夷吾矢不爲

인욕(人欲)이 이미 다함에 천리(天理)가 바루어지니

人欲已消天理正

지금까지 이어지는 공덕 후세 사람들이 알고 있네

至今功德後人知

비 내린 뒤

雨後

안개비 내리는 쓸쓸한 마을 대나무 사립을 여니

烟雨荒村開竹扉

무성한 늙은 나무 울타리 주위를 감쌌네

陰陰老木護籬圍

새 처마 속에서 지저귀고 이웃 노인 지나가며

鳥呼簷裏隣翁過

닭 정원 옆에서 울고 들판의 객 돌아가네

鷄唱園邊野客歸

바람이 구름 끝으로 들어가니 호연(浩然)한 기운 불어오고

風入雲端吹浩氣

구름이 산봉우리에 거두어지니 희미한 빛 비치네

雲收山角映暉微

한가한 중에 다만 뽕나무와 삼 자라남을 기뻐하니

閒中只喜桑麻長

거리 밖에서 어찌 굳이 시비(是非)를 물으리오

巷外何須問是非

다. 《맹자집주(孟子集註)》〈서설(序說)〉에, “도에 이미 통달한 뒤에 제나라에 가서 선왕을 섬겼으나 선왕이 쓰지 못하였고, 양나라에 갔으나 양 혜왕도 말한 바를 행하지 못하였으니, 오 활하여 현실과 거리가 멀다는 여감을 받은 것이다.[道既通 游事齊宣王 宣王不能用 適梁 梁惠王不果所言 則見以爲迂遠而濶於事情]”라 한 대목이 보인다.

857 안평중(安平仲)과……맹세했네 : ‘안평중(安平仲)’은 춘추 시대 제 경공(齊景公) 때의 재상 안영(晏嬰)이고, ‘관이오(管夷吾)’는 제 환공(齊桓公) 때의 재상 관중(管仲)으로, 모두 제후의 패업(霸業)을 도운 인물들이다. 맹자는 이들과 달리 왕도(王道)를 추구하였음을 말한 것이다.

저물녘 교외를 지나다 우연히 뱀새들이 무리 지어 지저귀는 것을 보고

日暮過郊外，偶見鷓鴣羣噪。

내 말하노니 숲속에 모여 있는 뱀새들아	我語林間衆鷓鴣
아침저녁 내내 웅기중기 무리 지어 날아다니는구나	羣飛簇簇竟嚶朝
울타리 밑에서 단지 물고기 개미와 다툼 줄만 아니	籬根但識爭魚蟻
구름 너머에 봉황과 수리 있는 줄 어찌 알겠는가	雲外何知有鳳鷗
누런 고니 날개 주변에 밝은 해 돌아오고 ⁸⁵⁸	黃鵠翼邊回白日
큰 봉새 머리 위에 높은 하늘 이고 있네 ⁸⁵⁹	大鵬頭上戴層霄
나는 조류 가운데 그대 작은 존재임을 알겠으니	吾知羽族君爲小
푸른 하늘을 향해 함부로 교만하게 굴지 말라	莫向青天浪自驕

벽 위에 쓰다

書壁上

나의 삶 계획이 이미 잘못되었음을 비웃을 만하니	堪笑吾生計已非
십 년 동안 농사지며 사립문에서 늙어가네	十年農圃老柴扉
좋은 누런 콩 거두어 띠풀을 엮어 묶고	奴收黃豆編茅束
여종은 푸른 실 물들여 대나무 옆에서 말리네	婢染青絲傍竹晞

858 누런……돌아오고 : 원문의 ‘황곡(黃鵠)’은 한 번 날아 천 리를 가는 새로, 속세를 벗어나 은거하는 현사(賢士)를 비유하는 말로 흔히 쓰인다. 초(楚)나라 시인 굴원(屈原)의 <복거(卜居)>에 “차라리 황곡과 나란히 높이 날까? 아니면 닭 오리와 먹이를 다투까[寧與黃鵠比翼乎 將與雞鶩爭食乎]”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859 큰……있네 : 봉새가 하늘 높이 날아다니는 것을 말한다. 《장자》 <소요유(逍遙遊)>에, “북쪽 바다에 물고기가 있으니, 그 이름은 곤이다. 곤의 크기는 몇 천 리인지 모른다. 변화하여 새가 되니, 그 이름은 봉이다. 봉의 등짝은 몇 천 리인지 모른다.……봉새가 남쪽 바다로 옮겨 갈 때에는 물결을 치는 것이 삼천 리요, 회오리바람을 타고 구만 리를 올라가 여섯 달을 가셔야 된다.[北冥有魚 其名爲鯢 鯢之大 不知其幾千里也 化而爲鳥 其名爲鵬 鵬之背 不知其幾千里也……鵬之徙於南冥也 水擊三千里 搏扶搖而上者九萬里 去以六月息者也]”라 하였다.

문 밖에선 조세 독촉하는 아전 날마다 두려워하고	門外日懼催租吏
집 안에선 베 짜는 틀로 항상 작업하네	室中時課織布機
작은 상엔 다행히 《심경(心經)》 ⁸⁶⁰ 있으니	小床賴有西山訣
분수를 편안히 여기고 기미를 알아 즐거이 굶주림 견디네	安分知幾樂忍飢

겨울날 본 것을 기록하다

冬日記所見

가볍게 날리는 눈발 바람 앞에서 춤추고	輕輕飛雪舞風前
점점이 뭉친 작은 구름 흩어졌다 다시 이어지네	點點微雲散復連
몇 마리 저녁 기러기 먼 물가에서 울고	幾箇暮鴻嘶遠浦
어느 해엔가 이별하였던 학 긴 하늘을 건너네	何年別鶴度長天
안개는 먼 산봉우리에 의지하여 새로운 상투를 꾸미고	烟依遠岵粧新髻
물은 흐르는 시내에서 울며 오래된 현(絃)을 잇네	水咽流泉續舊絃
모두 한가한 가운데 품평하는 것이니	摠是閒中題品了
참된 뜻 말하고자 하다가 이내 말을 잊었네 ⁸⁶¹	欲言眞意便忘筌

860 심경(心經) : 원문은 '서산결(西山訣)'이다. 서산(西山)은 송(宋)나라 진덕수(眞德秀)의 호로, '서산결'이란 곧 그가 엮은 《심경(心經)》을 말한다.

861 말을 잊었네 : 원문은 '망전(忘筌)'이다.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 또는 방편을 잊어버린다는 뜻이다. 《장자》〈외물(外物)〉에, "동발은 고기를 잡기 위한 것이니 일단 잡으면 필요가 없고, 울가미는 토끼를 잡기 위한 것이니 일단 잡으면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다.[筌者所以在魚 得魚而忘筌 蹄者所以在兔 得兔而忘蹄]"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달 아래에서 감회가 있어

月下有懷

맑은 바람과 맑은 달은 비록 없으나 좋은 때 있으니	光霽雖無有好期
천심(天心)과 수면(水面)의 맑은 의미 아는 이 적으리 ⁸⁶²	天心水面小人知
맑은 기운 높은 누각에서 생겨나니 성근 기둥 곧고	淸生高閣踈楹直
맑은 빛 빈 방에 들어오니 굽은 난간 위태롭네	明透虛室曲檻危
오동나무에 뜬 달이 마음 속 비추는 것이 가장 사랑스럽고	最愛梧桐懷裏照
버드나무 언덕 가에 바람 불어오는 것이 몹시도 정겹네 ⁸⁶³	多情楊柳岸邊吹
그 사이에서 만약 참된 소식을 말한다면	中間若道眞消息
삼백 리에 걸쳐 중추(仲秋)의 옥거울 펼쳐질 때라네 ⁸⁶⁴	三百仲秋玉鏡時

눈을 읊다

吟雪

세밑의 강 하늘에 눈이 펑펑 쏟아지니	歲暮江天雪正雱
천지가 모두 수정 주머니 속에 들어갔네	乾坤盡入水晶囊
눈발 흩날리는 푸른 바다 은색 용이 꿈틀대고	飄零碧海銀龍動

862 천심(天心)과……적으리 : 소옹(邵雍)의 <청야음(淸夜吟)>에, “달이 천심(天心)에 이르고 바람이 수면에 불어올 때 일종의 맑은 의미를 짐작간대 아는 이 적으리.[月到天心處 風來水面時 一般淸意味 料得少人知]”라 한 데서 취해 온 구절이다.

863 오동나무에……정겹네 : 소옹(邵雍)의 <수미음(首尾吟)>에, “오동나무에 뜬 달은 가슴속을 비추고, 버드나무에 부는 바람은 얼굴로 불어온다.[梧桐月向懷中照 楊柳風來面上吹]”라 한 데서 취해 온 구절이다.

864 삼백……때라네 : ‘옥거울’은 수면을 빗댄 표현으로, 한가을의 수면이 넓게 펼쳐져 있음을 말한 것이다. 당나라 이백(李白)의 시 <자야오가(子夜吳歌)>에, “경호 삼백 리에 연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네. 오월에 서시가 연밭을 따면 구경하는 사람들 약아계에 넘치는데, 달뜨기도 전에 배를 돌려서 월왕의 궁궐로 돌아가네.[鏡湖三百里 菡萏發荷花 五月西施採 人看隘若耶 回舟不待月 歸去越王家]”라 하였다.

눈 날려 떨어지는 단산(丹山)⁸⁶⁵ 옥봉(玉鳳)이 높이 나네 飛落丹山玉鳳翔
 만 그루 배꽃 희고 고운 자태 뽐내고 萬樹梨花誇素艷
 천 줄기 대나무 잎 푸른빛을 잃었네 千竿竹葉失青光
 양원(梁園)에서 눈 읊기에는 재주가 비록 부족하나⁸⁶⁶ 梁園賦雪才雖短
 파수(灞水)에서 매화 찾으니 흥이 다시 생겨나네⁸⁶⁷ 灞水尋梅興更長

홍 장령(洪掌令)⁸⁶⁸【중운(鍾韻)】에 대한 만사

挽洪掌令【鍾韻】

젊은 나이에 칼집⁸⁶⁹ 차고 준마에 올라타니 妙年龍匣駕雲螭
 임금을 곁에서 모신 은혜와 영광 봉지(鳳池)에 가까웠네⁸⁷⁰ 鷄舌恩榮近鳳池

865 단산(丹山) : 봉황이 산다는 전설적인 산으로, 단혈(丹穴)이라고도 한다. 《산해경(山海經)》〈남산경(南山經)〉에, “단혈의 산에……새가 사는데, 그 모양은 닭과 같고 오색 무늬가 있으니, 이름을 봉황이라고 한다.[丹穴之山……有鳥焉 其狀如雞 五采而文 名曰鳳皇]”라 하였다.

866 양원(梁園)에서……부족하나 : 서한(西漢)의 양 효왕(梁孝王) 유무(劉武)가 양원(梁園)이란 호사스러운 자신의 원림(園林)에서 세모(歲暮)에 사마상여(司馬相如)·매승(枚乘)·추양(鄒陽) 등과 함께 주연(酒筵)을 베풀고 놀다가 눈이 오자 흥에 겨워 먼저 시를 읊고는 종이를 주면서 사마상여에게 시를 짓게 하였다는 고사가 있다. 진(晉)나라 사혜련(謝惠連)이 이 일을 〈설부(雪賦)〉라는 제목의 부로 읊었다. 《文選 卷13 謝惠連 雪賦》

867 파수(灞水)에서……생겨나네 : 당(唐)나라 시인 맹호연(孟浩然)이 나귀를 타고 매화를 찾아 눈발 휘날리는 파교(灞橋)를 지나다가 그럴 듯한 시상(詩想)을 떠올렸다는 ‘답설삼매(踏雪尋梅)’의 고사를 전거로 한 말이다. 《全唐詩話 卷5 鄭繁》

868 홍 장령(洪掌令) : 홍중운(洪鍾韻, 1613~1658)을 가리킨다. 본관은 풍산(豊山), 자는 화백(和伯)이다. 1639년 과거에 급제하여 고산 현감(高山縣監), 정언 등을 역임하고, 1654년 장령에 임명되었다.

869 칼집 : 원문은 ‘용갑(龍匣)’으로, 보검의 칼집을 말한다. 진(晉)나라 뇌환(雷煥)이 용천(龍泉)과 태어(太阿) 두 보검을 얻어 그중 하나를 장화(張華)에게 주었는데, 후에 장화가 주살(誅殺)당하자 그 칼의 소재를 잃었다. 뇌환이 죽고 그의 아들이 보검을 가지고 연평진(延平津)을 건널 때 갑자기 보검이 허리에서 빠져나가 물속으로 떨어졌다. 사람을 시켜 물속으로 들어가 보검을 건지도록 하였는데, 칼은 보이지 않고 몇 발이나 되는 용 두 마리가 서리어 있었다고 한다. 《晉書 卷36 張華列傳》

870 임금을……가까웠네 : 홍중운이 시종신(侍從臣)의 직임을 맡았음을 말한 것이다. 원문의 ‘계설(鷄舌)’은 향(香)의 일종으로, 한(漢)나라 때 시종신인 상서랑(尚書郎)이 임금에게 일을 아

세 부(府)에 수령으로 간 것은 아버이를 받들어 모시는 날이요⁸⁷¹
 三府分銅甘旨日
 양대(兩臺)에서 단정한 홀(笏) 찬 것은 바른 말을 하는 때였네⁸⁷²
 兩臺端笏正辭時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 바칠 것이라고 사람들이 한창 기대하였는데
 輸忠許國人方企
 효성에 지나쳐 생을 마칠 줄 내 어찌 알았으리오
 感孝終身我豈知
 머리 돌려 40년 속세의 일 바라보니
 回首四旬塵世事
 붉은 섬돌⁸⁷³에 남은 묵은 자취 탄식할 만하네
 可嗟陳迹在丹墀

중형【진영(震英)】에 대한 만사

挽從兄【震英】

우리 형의 심사 내가 알고 있으니
 吾兄心事我知之
 구천(九泉)에서 어느 해에나 눈을 감으려가
 九地何年瞑目時
 늦가을의 저물녘 하늘엔 참죽나무 늙으려 하고⁸⁷⁴
 秋晚暮天椿欲老

되거나 대답할 때는 반드시 이 향을 입에 머금어 구취(口臭)를 제거했다고 한다. 《通典 職官》 또한 ‘봉지(鳳池)’는 당(唐)나라의 중서성(中書省)에 있던 봉황지(鳳凰池)로 흔히 중서성의 별칭으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임금의 주변’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871 세……날이요 : 홍종운이 부모 봉양의 편의를 위해 지방 수령을 세 차례 역임하였음을 말하는 듯하다. 원문의 ‘분동(分銅)’은 ‘동호부(銅虎符)를 나눈다.’는 말이다. 동호부는 한(漢)나라 때 구리로 만든 범 모양의 병부로 반쪽은 조정에 두고 나머지 반쪽은 지방관에게 주어 군사를 출동시키는 데 쓰게 하였는데, 후대에는 지방 수령의 관인(官印)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었다. 또 원문의 ‘감지(甘旨)’는 맛있는 음식으로 부모를 봉양함을 말한다. 《예기(禮記)》 내칙(內則)에, “날이 쌀 무렵에 아침 문안을 드릴 것이요, 감미롭고 맛 좋은 음식을 올려서 효심을 표시할 것이다.[昧爽而朝 慈以旨甘]”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872 양대(兩臺)에서……때였네 : 홍종운이 대간(臺諫)의 직임을 잘 수행하였음을 말한다. ‘양대(兩臺)’는 사헌부와 사간원을 아울러 칭하는 말로, 홍종운은 사간원 정인과 사헌부 장령을 역임하였다.

873 붉은 섬돌 : 원문은 ‘난지(丹墀)’다. 붉은 칠을 한 대궐의 섬돌로, 대궐을 가리키는 말로 흔히 사용된다.

874 참죽나무 늙으려 하고 : ‘참죽나무’는 장수(長壽)를 상징하는 나무로, ‘참죽나무가 늙으려 한다.’는 것은 곧 중형 김진영이 세상을 떠났음을 의미한다. 《장자》〈소요유(逍遙遊)〉

봄 푸른 난실(蘭室)엔 혜초(蕙草) 시든 듯하네 ⁸⁷⁵	春靑蘭室蕙如衰
생전에 일찍이 왕상(王祥)의 한 품었고 ⁸⁷⁶	生前夙抱王祥恨
죽은 뒤엔 끝내 등자(鄧子)의 슬픔 품었네 ⁸⁷⁷	身後終懷鄧子悲
무엇보다도 형제 ⁸⁷⁸ 에 대한 무한한 아픔에	最是鵠原無限痛
묵묵히 말없이 눈물만 흘리네	默然無語淚漣漣

나운봉(羅雲峯)⁸⁷⁹【염(衲)】에 대한 만사

挽羅雲峯【衲】

배운 덕이 기반이 되어 대대로 두터우니	種德爲基世有敦
남은 경사 길이 전하여 여러 자손에게 주네 ⁸⁸⁰	永傳餘慶贈諸孫

에, “조나라 남쪽의 명령은 5백 년을 봄으로 삼고 5백 년을 가을로 삼으며, 상고 시대의 대춘(大椿)은 8천 년을 봄으로 삼고 8천 년을 가을로 삼는다.[楚之南有冥靈者 以五百歲爲春 五百歲爲秋 上古有大椿者 以八千歲爲春 以八千歲爲秋]”라 하였다.

- 875 봄……듯하네 : 난초와 혜초는 모두 향초(香草)로, 흔히 현자(賢者)의 고결한 인품이나 높은 지조를 비유하는 말로 사용된다. 굴원(屈原)의 <이소(離騷)>에, “내 이미 난초를 구원에 심었고, 또 혜초를 백묘에 심었노라.[余既滋蘭之九畹兮 又樹蕙之百畝]”라는 대목이 보인다.
- 876 생전에……품었고 : ‘왕상(王祥)’은 진(晉)나라 때의 효자(孝子)다. 자기에게 모질게 대하는 계모를 지극한 효성으로 봉양했는데, 계모가 한겨울에 잉어회를 먹고 싶어 하자 강가로 내려가 얼음을 깨려 하니 얼음이 저절로 깨지면서 잉어가 튀어 올라왔다는 고사가 전한다. 《晉書 卷33 王祥列傳》 김진영이 생전에 그 모친을 제대로 봉양하지 못한 데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지니고 있었음을 말한 것이다.
- 877 죽은……품었네 : ‘등자(鄧子)’는 진(晉)나라 등유(鄧攸)를 가리킨다. 등유는 건흥(建興) 연간에 하동 태수(河東太守)가 되었는데, 석륵(石勒)의 병란 때에 아들과 조카를 데리고 피난하다가 둘 다 보호할 수 없겠다고 판단하고는 자기 아들은 버려두어 죽게 하고 먼저 죽은 동생의 아들을 대신 살렸다. 그러나 그는 이후로 끝내 후사를 얻지 못해 제사를 받지 못하였다고 한다. 《晉書 卷90 鄧攸列傳》 김진영이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났음을 말한 것이다.
- 878 형제 : 원문은 ‘영원(鵠原)’이다. 들관에 있는 할미새라는 뜻으로, 우에 있는 형제를 뜻할 때 쓰는 말이다. 《시경》 <소아(小雅) 상채(常棣)>에, “들관에 있는 할미새처럼, 급하고 어려운 땀 형제들이 돕는다네. 좋은 벗이 매양 있다 해도, 그저 길게 탄식할 뿐이랴오.[鵠鵠在原 兄弟急難 每有良朋 況也永歎]”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 879 나운봉(羅雲峯) : 나염(羅縑, 1611~?)을 가리킨다. 본관은 나주(羅州), 자는 자상(子尙)이다. 나위소(羅緯素)의 아들이다. 1642년 생원시에 합격하였다. 은진 현감(恩津縣監), 공조 정랑(工曹正郎), 태인 현감(泰仁縣監), 금구 현령(金溝縣令), 의금부 도사 등을 역임하였다.
- 880 배운……주네 : 나염(羅衲)의 선조가 덕을 쌓아 그 후손에게 경사가 있게 되었음을 말한 것이

두 난초 한 줄기에 함께 자라 금우(金友)라 칭해지고 雙蘭共蒂稱金友
 두 개의 옥 잔귀함을 나란히 하여 옥곤(玉昆)의 모습 보이네⁸⁸¹ 二璧連珍見玉昆
 사람들은 준마가 낮은 고을에 침체되어 있는 것 안타까워하였는데

人惜良驥沉下邑

하늘은 신선의 신발⁸⁸² 거두어 운문(雲門)으로 돌아가네 天收仙鳥返雲門
 아우만 홀로 무궁한 아픔을 품고 있으니 季方獨抱無窮痛
 울음으로 부모님 모시느라 은연중에 낮이 끊어진다오 泣奉晨昏暗斷魂

윤 충의(尹忠義)【장훈(長勳)】의 내상(內喪)에 대한 만사

挽尹忠義【長勳】內喪

이천(利川)의 가문 대대로 기자(箕子)의 종통 이었고⁸⁸³ 利川家世係箕宗
 파평(坡平) 관향(貫鄉)의 명문가⁸⁸⁴ 해동에 이름났네 坡貫名門著海封

다. 《주역》〈곤괘(坤卦) 문언(文言)〉에, “선을 쌓은 집안에는 후손에게 반드시 남은 경사가 있게 마련이고, 불선을 쌓은 집안에는 후손에게 반드시 남은 재앙이 돌아오게 마련이다.[積善之家 必有餘慶 積不善之家 必有餘殃]”라 하였다.

881 두 난초……보이네 : ‘금우(金友)’와 ‘옥곤(玉昆)’은 합하여 ‘옥곤금우(玉昆金友)’라는 말로 쓰인다. 양(梁)나라 때 왕전(王銓)·왕석(王錫) 형제가 모두 문명(文名)이 있는 데다 효행 또한 똑같았으므로, 당시 사람들이 “왕전·왕석 형제는 옥곤, 금우라 이를 만하다.[銓錫二王 可謂玉昆金友]”라 한 데서 온 말이다. 《南史 卷23 王彧傳 王銓王錫》 다른 사람의 형제를 칭찬할 때 흔히 사용된다.

882 신선의 신발 : 원문은 ‘선석(仙鳥)’이다. 신선이 신는 신발로, ‘부석(鳧鳥)’이라고도 한다. 흔히 지방 수령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후한(後漢) 사람 왕교(王喬)가 지방관으로 있으면서 매월 초하루 보름이면 반드시 궁궐에 조회를 하고 나갔는데 뒤따라 온 자기(車騎)도 없었다. 그를 이상히 여긴 황제가 태사(太史)에게 밀령을 내려 지켜보게 하였더니, 그가 을 때쯤에 동남쪽에서 오리 두 마리가 날아오고 있을 뿐이었다. 이에 그물을 던져 잡았더니 속에 오직 신발 한 짝이 있었다는 고사에서 유래하였다. 《後漢書 方術傳》 나염이 지방 수령을 여러 차례 역임한 바 있으므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883 이천(利川)의……이었고 : 기자조선(箕子朝鮮)의 마지막 왕인 기준(箕準)이 위만(衛滿)에게 쫓겨 이천(利川)의 서아성(徐阿城)에 정착하였는데, 그 후손이 성을 서씨(徐氏)라 하고 본관을 이천으로 하였다고 한다. 윤장훈(尹長勳)의 부인이 이천 서씨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인다.

884 파평(坡平) 관향(貫鄉)의 명문가 : 윤장훈이 파평 윤씨(坡平尹氏)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

부인의 덕 곧고 맑으니 유래한 바 있음을 알겠고	壺德貞淳知有自
규문의 의범 깊고 참되니 어찌 이유가 없으리오	閨儀淵塞豈無從
신주(神疇)의 오복 가운데 장수를 누렸다 일컬어지고 ⁸⁸⁵	神疇五福稱頤壽
부인의 삼종지도(三從之道) ⁸⁸⁶ 에 있어 예의와 공손함을 귀하게 여겼네	婦道三從貴禮恭
아름다운 징조를 모아 후대에 공업을 남겼으니	總結嘉徵遺後業
옥 가지와 구슬 나무 뜰에 가득하네 ⁸⁸⁷	玉枝瓊樹滿庭穠

이씨(李氏)【화백(和伯)】의 개장(改葬)에 대한 만사

輓李【和伯】改葬

어진 이가 어찌 도움을 받지 못하며 선한 이가 무슨 잘못인가 仁何不祐善何咎	天亦無言白日高
하늘 또한 말이 없고 밝은 해만 높이 떠 있네	
이름난 조상의 의로운 명성 천지를 부지하였는데	名祖義聲扶宇宙
잔약한 자손의 유업(遺業)은 축대 우거진 집에 막혀 있네 孱孫遺業滯蓬蒿	
묵은 풀을 거듭 헤쳐 쌍혈(雙穴)을 열고	重披宿草開雙穴
다시 새로운 무덤을 향해 공뢰(共牢)로 제사 지내네 ⁸⁸⁸	更向新阡祭共牢

이다.

885 신주(神疇)의……일컬어지고 : ‘신주(神疇)’는 천하를 다스리는 아홉 가지 큰 범칙인 홍범 구주(洪範九疇)를 말한다. 맨 처음 하우씨(夏禹氏)가 낙수(洛水)에서 나온 신귀(神龜)에게서 얻은 것인데, 이것이 대대로 전해져 기자(筮子)에 이르러 기자가 무왕(武王)의 물음에 대답한 이후로 세상에 알려졌다고 한다. 구주는 오행(五行)·오사(五事)·팔정(八政)·오기(五紀)·황극(皇極)·삼덕(三德)·계의(稽疑)·서징(庶徵)·오복(五福)·육극(六極)을 말하는데, 그 중 오복은 장수[壽], 부귀(富貴), 강녕(康寧), 덕을 좋아함[攸好德], 천수를 누림[考終命]을 가리킨다. 《書經 洪範》 부인이 장수를 누렸음을 말한 것이다.

886 삼종지도(三從之道) : 여인이 지켜야 할 세 가지 도리로, 어렸을 때에는 아버지를 따르고, 시집가서는 남편을 따르며, 남편을 여읜 뒤에는 아들을 따르는 것을 말한다. 《儀禮 喪服》

887 옥……가득하네 : ‘옥 가지와 구슬 나무’는 ‘옥수경지(玉樹瓊枝)’와 통하는 말로, 곧 고귀한 가문의 자제를 의미한다. 즉 부인이 좋은 덕을 쌓아 집안에 훌륭한 자제들이 많이 배출되었음을 말한 것이다.

888 공뢰(共牢)로 제사 지내네 : 부부가 함께 같은 희생을 먹는 것이다. 이화백(李和伯) 부부에게

한 명의 자식만이 상복을 입고 있으니 惟有一孤蒙總經
울기를 마치고서 피눈물 닦으며 푸른 하늘 향해 부르짖네 泣終拭血徹蒼號

영평(永平) 채후(蔡侯)【충립(忠立)】에 대한 만사⁸⁸⁹

挽永平蔡侯【忠立】

잔약한 고을의 민가 의지해 살 곳을 잃었으니 殘鄉編戶失憑生
두모(杜母)⁸⁹⁰의 어진 수레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네⁸⁹¹ 杜母仁車遽棄城

함께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듯하다. 《예기》〈혼의(昏義)〉에, “신부가 오면 신랑은 신부에게 읍하고 안으로 들어가 같은 적통에 차려서 먹고 같은 술잔을 나누어 마시고 입가심을 한다. 이는 몸을 합하고 존비를 같이함으로써 친하게 하려는 까닭이다.〔婦至 壻揖婦以入 共牢而食 合盞而醕 所以合體同尊卑以親之〕”라 하였다.

889 영평(永平)……만사 : ‘채후(蔡侯)’는 채충립(蔡忠立)을 가리킨다. 사재감 주부(司宰監主簿), 황간 현감(黃澗縣監), 남평 현감(南平縣監) 등을 역임하였다. 이 시와 관련하여 《남포집》〈남고일기(南郊日記)·갑진(甲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인다. “2일 갑자.……고을 아전이, 내일이 수령 채충립(蔡忠立)의 발인이라고 고하고 돌아오기에 찾아가 보았다. 상주가 만사를 청하기에 한 편의 읍시를 지어 주었다. 채후는 성품이 질박하고 너그럽고 검소하였으나 정사에는 재주가 없었다. 때문에 백성들이 비록 그의 사납지 않은 면을 좋아하였으나 용통성이 없음을 단점으로 여겼다. 상을 당하였을 때 고을 사람 윤선갑(尹先甲)과 홍종화(洪鍾華)가 그 상을 맡아 다스렸는데, 베풀고 짧은 바지 이외에는 관아에 보관해 둔 것이 없어 관에 엄(斂)을 할 수 없었다. 이에 고을 사람들이 함께 부의하여 옷과 바지를 사서 엄을 하였다고 한다. 그러므로 내가 만사의 3, 4구에서 ‘정사엔 형벌을 가볍게 하였으니 모두 은혜를 우러르고, 옷은 관을 채울 것도 없으니 비로소 청렴함을 알겠네’라 하였다. 또 7, 8구에서 ‘저 제주(齊州)의 잔 위의 물을 따라, 만가(輓歌)를 세 번 부르며 공이 떠나가는 길 전송하네’라 하였으니, 이는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初二日甲子……邑吏告明日主倅蔡侯忠立旅輓發引而歸 往見之 喪主請挽辭 爲賦一篇律語 蓋蔡侯質朴寬儉 而無才於政事 故民雖愛其不猛而短其無變通 及其喪也 邑人尹先甲洪鍾華 典治其喪 布被短袴之外 僑無所藏 無以斂棺 鄉人共贖 買被與袴而斂之云 故余挽辭三四云政用鞭皮方仰惠 衣無充棺始知清 其七八云酌彼齊州盃上水 緇灑三唱送公行云 蓋記實矣〕”

890 두모(杜母) : 선정을 베푼 지방관을 뜻하는 말로, 곧 채충립을 가리킨다. 후한(後漢) 사람 두시(杜詩)가 남양 태수(南陽太守)가 되어 선정을 베풀자, 남양 사람들이 “앞에는 아버지 같은 소신신이 있고 뒤에는 어머니 같은 두시가 있다네.〔前有召父 後有杜母〕”라 칭송한 데서 유래하였다. 《後漢書 卷31 杜詩列傳》

891 세상을 떠나셨네 : 원문은 ‘기성(棄城)’이다. 수령 채충립의 사망을 높여 표현한 것이다.

정사엔 형벌을 가볍게 하였으니⁸⁹² 모두 은혜를 우리르고⁸⁹³ 政用鞭皮方仰惠
 옷은 관을 채울 것도 없으니 비로소 청렴함을 알겠네 衣無充棺始知清
 호산(湖山)의 역로(驛路) 거리가 천리인데 湖山驛路修千里
 적막한 혼여(魂輿)⁸⁹⁴ 깃발 하나로 표시하네 寂寞魂輿表一旌
 저 제주(齊州)의 잔 위의 물을 따라⁸⁹⁵ 酌彼齊州盃上水
 만가(輓歌)를 세 번 부르며 공의 떠나가는 길 전송하네 緇謳三唱送公行

채후를 관에 얹(斂)할 때 배옷과 짧은 바지 이외에 관아에 보관해 둔 것이 없었
 다고 한다. 때문에 시에서 언급하였다.

[蔡侯斂棺時，布被短袴之外，衙無所藏云。故詩中及之.]

윤양로당(尹養老堂)⁸⁹⁶【보(保)】에 대한 만사

挽尹養老堂【保】

성곽 너머의 구름 산 늦가을에 잠겼으니 郭外雲山鎖暮秋
 시냇물 맑고 깊으며 계곡 난초 그윽하네 澗泉明邃谷蘭幽
 숲속 사립문에선 이날 새 울음소리 구슬프고 林扉此日禽啼咽

892 형벌을 가볍게 하였으니 : 원문의 ‘편피(鞭皮)’는 곧 숙피편(熟皮鞭)을 말한다. 제혁한 가죽
 으로 만든 부드러운 채찍이다. 북제(北齊) 때 최백겸(崔伯謙)이 북지 태수(北地太守)가 되어
 채찍을 숙피편으로 고쳐 만들어 사용하였는데, 이는 차마 피나는 것을 볼 수 없어 그 부끄러
 움만을 보이기 위한 것이었다. 《北齊書 卷46》《北史 卷32》

893 우리르고 : 원문은 관독불가인데, 《남포집》〈남교일기(南郊日記)·갑진(甲辰)〉의 내용에 의
 거하여 보충하여 번역하였다.

894 혼여(魂輿) : 장사(葬事) 때 죽은 이의 옷을 실은 수레를 말한다.

895 저……따라 : 이는 당(唐)나라 이하(李賀)의 시 〈몽천(夢天)〉에 “멀리 제주를 바라보니 아홉
 점의 연기와 같고, 큰 바닷물도 한 잔 물을 쏟아부은 듯하네.[遙望齊州九點煙 一泓海水杯
 中瀉]라 한 데서 취해 온 구절이다. ‘제주(齊州)’는 중주(中州) 즉 중국으로, ‘제주가 아홉
 점의 연기와 같다’는 것은 중국의 구주(九州)도 높은 곳에서 바라보면 아홉 점의 연기처럼 보
 입을 말한 것이다. 채충림이 세상을 떠나 그의 넋이 하늘로 올라간 상태이므로 지상에서 잔을
 올리는 모습을 이와 같이 표현한 것이다.

896 윤양로당(尹養老堂) : 윤보(尹保)를 가리킨다. 본관은 파평(坡平). 자세한 사항은 미상이다.

바위의 노인은 전날 밤의 학의 꿈 거두네	巖老前宵鶴夢收
고요한 상에서 백발의 두 노인 모신 일 생각하고	靜榻憶陪雙白髮
빈 격자창에선 푸른 두 눈동자 ⁸⁹⁷ 접하는 듯하네	空櫺若接兩青眸
난간에 임하여 홀로 끝없는 눈물 뿌리니	臨軒獨灑無窮淚
섬돌 가득한 소나무와 대나무 모두 근심을 띠고 있네	滿砌松篁摠帶愁

외종숙 문장(文丈)[완(玩)]에 대한 만사

挽外從叔文丈【玩】

영해(瀛海)의 신령한 기운이 준걸을 내리니	瀛海靈氛降異靈
후손들이 현성(玄城)으로 건너가 관향(貫鄉)으로 삼았네 ⁸⁹⁸	遺昆派貫渡玄城
천 년의 신이한 세계(世系) 실추함 없이 전하고	千年神係傳無墜
한 시대의 맑고 한가함 홀로 스스로 이루었네	一代清閒獨自成
60년의 삶 인간 세상에서 장수하지 않은 것은 아니요	六十人間非不壽
두 난초의 향기로운 잎 모두 영화롭네 ⁸⁹⁹	二蘭香葉摠爲榮

897 푸른 두 눈동자 : 원문은 ‘양청모(兩靑眸)’다. ‘청모(靑眸)’는 곧 청안(靑眼)으로, 반가워 하는 눈빛을 이른다. 진(晉)나라 죽림칠현(竹林七賢)의 한 사람인 완적(阮籍)이 젊은 사람을 보면 백안(白眼)을 뜨고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 청안을 뜨고 대하였다는 고사에서 유래하였다. 《晉書 卷49 阮籍列傳》 윤보(尹保)가 생전에 김만영 자신과 매우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898 영해(瀛海)의……삼았네 : 문완(文玩)의 집안인 남평 문씨(南平文氏)의 내력에 대해 말한 것이다. 남평 문씨의 시조는 문다성(文多省)으로, 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설화가 전한다. 옛날 남평군(南平郡) 동쪽에 장자지(長者池)라는 못가에 큰 바위가 솟아 있는데 그 위의 석함 속에 피부가 맑고 용모가 아름다운 갓난아이가 들어 있었다. 이를 기이하게 생각한 군주가 아이를 거두어 기르니, 불과 5세에 문사(文思)에 저절로 통달하고 무락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몹시 총명하였으므로 문(文)을 성으로 삼게 하고 이름을 다성(多省)으로 지어주었다. 이후 그는 고려 삼중대광벽상공신(三重大匡壁上功臣)으로 남평백(南平伯)의 작위에 봉해지고 98세까지 살았으며, 그의 후손들은 남평을 본관으로 하게 되었다고 한다. ‘현성(玄城)’은 남평의 신라 때 이름이 ‘현웅(玄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899 두……영화롭네 : 원문의 ‘난(蘭)’은 훌륭한 남의 집 자제를 비유하는 말이다. 진(晉)나라 사안(謝安)이 여러 자제들에게 어떤 자제가 되고 싶은지 묻자, 그의 조카인 사현(謝玄)이 대답하기를 “비유하자면 지란(芝蘭)과 옥수(玉樹)가 뜰 안에 자라는 것처럼 하고 싶습니다.[譬如

혼령이 구천(九泉)에 무슨 유감이 남았으리오
질장구 두드리는 일 이날 이로부터 행하네⁹⁰⁰

精魂九地餘何憾
鼓缶今辰從此行

정 태의(鄭太醫)⁹⁰¹【후계(後啓)】에 대한 만사
挽鄭太醫【後啓】

기백(岐伯)과 진(秦)나라 화(和)⁹⁰²의 심법(心法) 동방에 숨겨져 있으니
岐秦心法秘東方
근세에는 오직 허준(許浚)과 양예수(楊禮壽)⁹⁰³만을 일컫네 近代惟稱許與楊
의발(衣鉢)을 전하여⁹⁰⁴ 오묘한 관건을 연 이 누구인가 傳鉢孰能開妙鍵
의대(衣帶)를 갖추고서 당당히 높은 행랑에 들어갔네⁹⁰⁵ 拖紳公得入崇廊

芝蘭玉樹 欲使其生於階庭耳”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晉書 卷79 謝玄列傳》 문완(文玩)이 남긴 두 아들이 모두 출세하였음을 말한 것이다.

- 900 질장구……행하네 : 생사(生死)의 도리를 알아 편안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한다는 말로, 죽음을 지나치게 슬프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뜻이다. 《주역》〈이괘(離卦) 구삼(九三)〉에, “기운 해가 걸려 있음이니, 질장구를 두드려 노래하지 않으면 죽음을 서급피 하는 것이므로 흉하다.[日昃之離 不鼓缶而歌 則大耋之嗟 凶]”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 901 정 태의(鄭太醫) : 정후계(鄭後啓, ?~1670)를 가리킨다. 효종~현종 연간에 의관(醫官)으로 활동하였다.
- 902 기백(岐伯)과 진(秦)나라 화(和) : 모두 고대의 명의이다. 《한서(漢書)》 30권 〈예문지(藝文志)〉에, “태고 때에는 기백(岐伯)과 유부(俞拊)가 있었고, 중세에는 편자(扁鵲)와 진(秦)나라의 화(和)가 있었다.[太古有岐伯俞拊 中世有扁鵲秦和]”라 하였다.
- 903 허준(許浚)과 양예수(楊禮壽) : 모두 조선의 명의이다. 허준(許浚, 1539~1615)은 본관은 양천(陽川), 자는 청원(淸源), 호는 구암(龜巖)으로, 30여 년 동안 내의원의 어의로 제직하며 《동의보감(東醫寶鑑)》을 비롯한 의서(醫書)를 집필하였다. 또한 양예수(楊禮壽, ?~1597)는 본관은 하음(河陰), 자는 경보(敬甫), 호는 퇴사옹(退思翁)으로, 1565년 어의(御醫)를 지내며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올랐다. 명종이 죽자 의관들이 처벌당할 때 투옥되었다가 곧 복직되었고, 이듬해 태의(太醫)로서 《동의보감》의 편찬에 참여하였다. 또 선조 초에 박세거(朴世舉)·손사명(孫士銘) 등과 함께 《의림촬요(醫林撮要)》를 저술하였다.
- 904 의발(衣鉢)을 전하여 : 원문은 ‘전발(傳鉢)’이다. ‘의발’은 본래 불교(佛敎)에서 스승이 제자에게 전법(傳法)의 표신으로 주는 가사(袈裟)와 발우(鉢盂)를 말하는데, 학문 따위를 전수하는 것을 비유하는 표현으로 흔히 사용된다.
- 905 의대(衣帶)를……들어갔네 : 정후계가 의관이 되어 대궐에 출입하였음을 뜻하는 말로 보인다.

변방에서 10년 동안 임금을 모셨고 ⁹⁰⁶	邊塵十載陪龍御
내의원에서 세 임금 모시며 태양빛 가까이하였네	內局三朝襯日光
서산(西山)에 해 기울었다고 노년을 한탄할 필요 없으니 ⁹⁰⁷	離晨不須嗟大耋
뜨락 가득한 난초 짝에 남은 향기 넉넉하다네 ⁹⁰⁸	滿庭蘭茁剩餘芳

김생(金生)【일장(日章)】에 대한 만사

挽金生【日章】

도산(道山) ⁹⁰⁹ 의 산수 전원이 좋으니	道山山水好田園
소나무와 대나무, 뽕나무와 삼 옛 집에 둘러 있네	松竹桑麻繞古軒
서리 내린 가시나무 가지엔 외기러기 슬퍼하고	霜落荊枝哀隻鴈
가을 저무는 난초 독엔 외로운 원앙 울어대네	秋殘蘭塢泣孤鴛
수레 앞 두 명의 훌륭한 아들 ⁹¹⁰ 울부짖으며 상여 끈 잡고	輦前二玉號攀紼

906 변방에서……모셨고 : 이에 관한 내용은 분명하지 않다. 기록으로 확인되지는 않으나, 효종이 대군(大君)의 신분으로서 청나라에 8년 간 볼모로 잡혀가 있을 때 정후계가 의관으로서 그를 모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듯하다.

907 서산(西山)에……없으니 : 생사(生死)의 도리를 알아 편안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한다는 말로, 죽음을 지나치게 슬프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뜻이다. 《주역》〈이괘(離卦) 구삼(九三)〉에, “기운 해가 걸려 있음이니, 질장구를 두드려 노래하지 않으면 죽음을 서글퍼 하는 것이므로 흉하다.[日昃之離 不鼓缶而歌 則大耋之嗟 凶]”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908 뜨락……넉넉하다네 : 원문의 ‘난(蘭)은 훌륭한 남의 집 자제를 비유하는 말이다. 진(晉)나라 사안(謝安)이 여러 자제들에게 어떤 자제가 되고 싶은지 묻자, 그의 조카인 사현(謝玄)이 대답하기를 “비유하자면 지란(芝蘭)과 옥수(玉樹)가 뜰 안에 자라는 것처럼 하고 싶습니다.[譬如芝蘭玉樹 欲使其生於階庭耳]”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晉書 卷79 謝玄列傳》 정후계는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그 자식들이 훌륭하게 자랐음을 말한 것이다.

909 도산(道山) : 전설 속의 신선(仙山)으로, 옛날에 사람이 죽으면 이곳으로 돌아간다고 여겼다.

910 훌륭한 아들 : 원문은 ‘이옥(二玉)이다. ‘옥(玉)’은 곧 ‘옥수(玉樹)’로, 훌륭한 남의 집 자제를 비유하는 말이다. 진(晉)나라 사안(謝安)이 여러 자제들에게 어떤 자제가 되고 싶은지 묻자, 그의 조카인 사현(謝玄)이 대답하기를 “비유하자면 지란(芝蘭)과 옥수(玉樹)가 뜰 안에 자라는 것처럼 하고 싶습니다.[譬如芝蘭玉樹 欲使其生於階庭耳]”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晉書 卷79 謝玄列傳》

깃발 아래의 빼어난 두 형제⁹¹¹ 곡하며 다북쑥 올리네⁹¹² 旌下雙珠哭奉繫
 인간 세상 60년 살고 나서 죽은 뒤의 일 人世六旬身後事
 홀로 여경(餘慶)⁹¹³을 남겨 여러 자손에게 주네 獨留餘慶贈諸孫

남을 대신하여 지은 이웃 부인에 대한 만사

代人輓隣婦

곧고 조용한 규문의 의범 맹광(孟光)⁹¹⁴을 이었으니 貞靜閨儀後孟光
 거안제미(舉案齊眉)를 32년여 동안 하였네 齊眉三十二年強
 서리가 옥 나무 꺾으니 산이 자줏빛을 슬퍼하고⁹¹⁵ 霜摧玉樹山哀紫
 바람이 경지를 끌어당기니 계곡이 향기 없음을 원망하네⁹¹⁶ 風掣瓊芝谷怨香

- 911 홀륭한 두 형제 : 원문은 ‘쌍주(雙珠)’로, 출중한 두 형제를 말한다. 한(漢)나라 때 공융(孔融)이 위휴보(韋休甫)의 두 아들인 위원장(韋元將)과 위중장(韋仲將) 두 형제를 두고 지은 <여위휴보서(與韋休甫書)>에, “늙은 조개 속에서 진주 두 알이 나올 줄은 생각지도 못하였다.[不意雙珠生于老蚌]”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 912 다북쑥 올리네 :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제수(祭需)를 올려 제사 지내는 것을 말한다. 《시경》 <채번(采芣)>에 “이에 다북쑥 캐기를 연못과 물가에서 하도다. 이것을 쓰기를 공후의 제사에 하도다.[于以采芣 于沼于沚 于以用之 公侯之事]”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 913 여경(餘慶) : 조상이 남긴 은택으로 인해 그 후손이 누리게 되는 복을 말한다. 《주역》 <곤괘(坤卦) 문언(文言)>에, “선을 쌓은 집안에는 후손에게 반드시 남은 경사가 있거 마련이고, 불선을 쌓은 집안에는 후손에게 반드시 남은 재앙이 돌아오게 마련이다.[積善之家 必有餘慶 積不善之家 必有餘殃]”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 914 맹광(孟光) : 후한(後漢)의 은사 양홍(梁鴻)의 처다. 부덕(婦德)이 홀륭하여 남편을 잘 섬겼다고 한다. 밥상을 들고 올 때에도 양홍을 감히 마주 보지 못하고 이마 위까지 들어 올렸다는 ‘거안제미(舉案齊眉)’의 고사가 유명하다. 《後漢書 卷83 梁鴻列傳》
- 915 서리가……슬퍼하고 : 이는 여인이 이른 나이에 사망한 것에 대한 전고인 ‘자옥(紫玉)’의 고사를 염두에 두고 쓴 구절이다. 당나라 이백(李白)의 시 <경난후장피지섬중유중최선성(經亂後將避地剡中留贈崔宣城)>에 “호상(胡床) 위의 자줏빛 옥피리, 도리어 푸른 구름에 앉아서 부네.[胡床紫玉笛 却坐青雲峴]”라 하였고, 두보의 <도죽장인(桃竹杖引)>에, “뿌리 자르고 꺾질 벗기매 자줏빛 옥과 같으니, 강비와 수선이 애석해도 어쩔 수 없어라.[斬根削皮如紫玉 江妃水仙惜不得]”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만사의 대상인 부인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 916 바람이……원망하네 : ‘경지(瓊芝)’는 곧 옥지(玉芝)로, 선경(仙境)에 있는 영지(靈芝)를 뜻한다. 옛 사람들은 이것을 복용하면 장생할 수 있다고 여겼다. 남조(南朝) 양(梁)나라 심약

다섯 줄기의 향기로운 난초에 꽃이 비로소 열리고	五朵芳蘭花始茁
가지 하나의 계수나무 떨기에 잎이 처음 자라나네	一枝叢桂葉初長
이로부터 이날의 끝없는 한 알겠으니	從知此日無窮恨
백발의 늙은이 ⁹¹⁷ 슬피 울고 봉(鳳)이 황(凰)을 잃었네 ⁹¹⁸	鶴髮悲號鳳失凰

윤 충의(尹忠義)【경(倣)】에 대한 만사

挽尹忠義【倣】

충훈의 공적 대대로 세운 집안이 고향 산에 막혔으나	忠勳世業滯鄉山
형제 사이에 우애 가득하여 집안의 명성 높았네	友愛家聲叔仲間
몇 이랑의 전원에서 효제(孝悌)를 가까이하고	數畝田園隣孝悌
반평생 운수(雲水) 속에서 그윽함과 한가로움을 차지하였네	半生雲水占幽閒
수성(壽星)은 하늘 위에서 남은 빛 거두고	壽星天上收餘照
계곡의 달은 숲가에서 해진 문을 가리네	溪月林邊掩弊關
안타까워라 얼음 바위 신선 골짜기 안에	可惜冰巖仙洞裏
가지 하나 남은 자형수(紫荊樹)의 그림자 몹시도 잔약한 것이 ⁹¹⁹	一枝荊樹影偏孱

(沈約)의 <여도홍경서(與陶弘景書)>에, “경지(瓊芝)를 씹어 삼켜 청도(淸都)를 출입한다[咀嚙瓊芝 出入淸都]”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즉, ‘바람이 경지를 끌어당긴다’는 것은 장수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음을 의미한다.

917 백발의 늙은이 : 원문은 ‘학발(鶴髮)’이다. 두루미의 깃털처럼 희다는 뜻으로 머리가 하얗게 된 노인을 가리키는 말이다.

918 봉(鳳)은 황(凰)을 잃었네 : 봉황 가운데 수컷을 ‘봉(鳳)’이라 하고 암컷을 ‘황(凰)’이라 한다. 남편이 부인을 잃었음을 비유한 말이다.

919 가지……것이 : ‘자형수(紫荊樹)’는 박태기나무라고도 하며, 주로 형제간의 우애를 의미한다. 남조(南朝) 양(梁)나라 경조(京兆) 사람인 전진(田眞) 삼형제가 각기 재산을 나누어 가진 뒤 마지막으로 뜰에 심은 자형수를 갈라서 나누어 가지려 하였는데, 자형수가 곧 시들고 말았다. 이에 삼형제가 뉘우치고 다시 재산을 합하니, 자형수가 다시 무성하게 자랐다는 고사에서 유래하였다. 《續齊諧記 紫荊樹》 윤경(尹倣)이 먼저 세상을 떠나 남은 형제 한 명이 외롭게 있음을 표현한 것이다.

남을 대신하여 지은 만사

代人挽

우리 집의 종법(宗法) 효(孝)를 기반으로 하니	吾家宗法孝爲基
여경(餘慶) ⁹²⁰ 이 마땅히 뿌리와 가지를 감싸줄 것이네	餘慶當須蔭本支
우리 형에게 의탁할 후사 없을 줄 어찌 생각했으리오	豈意吾兄無後託
하늘의 도 끝내 기약하기 어려움을 참으로 알겠네	固知天道竟難期
호산(湖山) 적막한 한가로운 사람의 집	湖山寂寞閒人宅
매화와 대나무 처량한 처사(處士)의 울타리	梅竹淒涼處士籬
흰 머리의 노쇠한 아우만이 남아	惟有白頭衰老弟
문에 기대 길이 통곡하며 애사(哀詞)를 쓰네	倚門長慟寫哀詞

920 여경(餘慶) : 조상이 남긴 은택으로 인해 그 후손이 누리게 되는 복을 말한다. 《주역》〈곤괘(坤卦) 문언(文言)〉에, “선을 쌓은 집안에는 후손에게 반드시 남은 경사가 있게 마련이고, 불선을 쌓은 집안에는 후손에게 반드시 남은 재앙이 돌아오게 마련이다.[積善之家 必有餘慶 積不善之家 必有餘殃]”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남포집

제 6 권

칠언고시 七言古詩

남포집 제6권

칠언고시(七言古詩)

《송사(宋史)》의 희풍(熙豐)·원우(元祐) 연간의 기록⁹²¹을 읽고
讀宋史熙豐元祐紀

송나라 쇠락해 가던 즈음에 당론(黨論)이 일어나니 皇宋垂尾黨論起
낙당(洛黨)과 촉당(蜀黨)⁹²²의 여러 현인들 동서로 나뉘었네 洛蜀羣哲分西東
하중(河中)의 선생⁹²³은 옛 성인(聖人)의 뜻을 이은 분이요 河中先生繼往聖
미옹(眉翁)⁹²⁴ 또한 어찌 범범하고 어리석은 무리에 속한 분이리오 眉翁亦豈凡羣蒙
한 마디 말을 서로 겨루어 큰 틈이 벌어지니 片言相角大罅開
이로 인해 종사(宗社)로 하여금 거센 물결과 같아지게 하였네 坐使宗社奔波同
묘당(廟堂)에서 초한(楚漢)의 형세를 나누어 열고 廟堂分啓楚漢勢

921 《송사(宋史)》……기록 : ‘희풍(熙豐)’은 북송(北宋) 신종(神宗)의 연호인 희녕(熙寧, 1068~1077)과 원풍(元豐, 1078~1085)을 말하며, ‘원우(元祐)’는 철종(哲宗)의 연호(1086~1093)다. 신종 때에는 신법(新法)을 제창한 왕안석(王安石)과 이를 반대한 사마광(司馬光)·조변(趙抃)·범진(范鎮)·정호(程顥)·구양수(歐陽脩)·소철(蘇軾) 등이 서로 공격하였는데, 사마광을 위시한 구신(舊臣)은 모두 축출되고 신법을 시행한 신진(新進)이 대거 등용되었다. 신종이 죽자 철종의 초년에는 선인태후(宣仁太后)가 수렴청정(垂簾聽政)하면서 사마광 등의 구신을 새로 불러들였고, 철종이 장성한 뒤에는 왕안석의 일파인 채경(蔡京)·여혜경(呂惠卿)·장돈(章惇)·채확(蔡確) 등이 서로 잇달아 권세를 부려 구신들을 축출하였다. 희풍~원우 연간의 기록은 《송사(宋史)》권14~18에 해당한다.

922 낙당(洛黨)과 촉당(蜀黨) : 북송(北宋) 철종(哲宗) 원우(元祐) 연간에는 조정에 낙당(洛黨)·삭당(朔黨)·촉당(蜀黨)의 세 당이 있어 이를 ‘원우 3당’이라 하였다. 낙당은 낙양 사람인 정어(程頤)를 영수로 한 당이고, 촉당은 촉 지방 사람인 소식(蘇軾)을 영수로 하는 당이며, 삭당은 북쪽 사람인 유지(劉摯)를 영수로 하는 당이다. 이들은 서로 대립하였는데, 그중 낙당과 촉당의 갈등이 특히 심하였다.

923 하중(河中)의 선생 : 정호(程顥)·정어(程頤) 형제를 가리킨다. 이들이 하남성(河南省) 낙양(洛陽)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이들은 송대 성리학(性理學)을 개창한 인물들로 평가된다.

924 미옹(眉翁) : 소식(蘇軾)을 가리킨다. 그가 미산(眉山)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굴신(屈伸)을 반복하고 앞치락뒤치락하며 자웅을 다투네 屈伸翻覆爭雌雄
 물결이 일어났다 사라기를 반복하여 오래도록 잠잠해지지 않으니 流波起滅久不平
 세월이 오래되자 음산한 바람이 많아지네 年深歲舊多陰風
 아침저녁으로 눈을 부릅뜨며 대치하는 형세⁹²⁵가 이루어지고 睚眦朝暮鵲蚌成
 의관을 갖춰 입은 조정 반열에서도 마음으로 전쟁을 벌이네 衣冠班列心兵戎
 호(胡)와 월(越)로 함께 달려가 심복이 되기를 허락하고⁹²⁶ 同趨胡越許心腹
 취향이 같지 않은 형제 음물을 달리하네⁹²⁷ 異趣兄弟殊徵宮
 혜초의 지조와 난초의 자태 조개풀과 도꼬마리⁹²⁸로 변하고 蕙操蘭姿變菘菘
 비굴하게 아첨하는 자⁹²⁹가 어질고 충성스러운 신하가 되네 奴顏婢膝爲賢忠
 쌍정(雙旌)과 칠류(七旒)가 큰 번진(藩鎭)에서 나와⁹³⁰ 雙旌七旒出大藩
 구명(九命)과 삼석(三錫)의 경공(卿公)이 되네⁹³¹ 九命三錫爲卿公

925 대치하는 형세 : 원문은 ‘홀방(鵲蚌)’으로, 대립하는 두 세력이 잔뜩 버티고 맞서 겨루면서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 형세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큰 조개가 입을 벌리고 있을 적에 지나가던 황새가 쪼아 먹으려다가 조개가 입을 닫자 주둥이가 물렸는데, 계속 서로 버티다가 어부에게 모두 잡히고 말았다는 고사에서 유래하였다. 《戰國策 燕策》

926 호(胡)와……허락하고 : 중국 북쪽의 호(胡)와 남쪽의 월(越)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관계가 매우 소원함을 비유하는 말로 흔히 사용된다. 당시 송나라 신하들이 저마다 두 당파에 속하여 대립하였던 상황을 이러한 비유를 통해 표현한 것이다.

927 취향이……달리하네 : ‘음물’의 원문은 ‘치궁(徵宮)’으로, ‘치’와 ‘궁’은 모두 궁(宮)·상(商)·각(角)·치(徵)·우(羽)로 이루어진 오음(五音)에 속하는 음이다. 당시 송나라 신하들이 같은 조정에 있으면서도 당파에 따라 뜻을 달리하였음을 이와 같은 표현으로 비유한 것이다.

928 조개풀과 도꼬마리 : 원문은 ‘녹시(菘菘)’다. 모두 악취가 나는 나쁜 풀로, 흔히 참소를 잘하는 간사한 자를 비유하는 말로 쓰인다. 굴원(屈原)의 <이소(離騷)>에, “남가새, 조개풀, 도꼬마리가 집에 가득한데, 홀로 멀리하고 어울리지 않네.[菘菘盈室兮 判獨離而不服]”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929 비굴하게 아첨하는 자 : 원문은 ‘노안비슬(奴顏婢膝)’이다. 노비와 같이 상대에게 비굴한 얼굴을 하고 무릎을 꿇는다는 말로, 아첨하는 모습을 형용한 것이다.

930 쌍정(雙旌)과……나와 : ‘쌍정(雙旌)’은 지방관이 가지고 가는 한 쌍의 깃발이다. 당나라 때 절도사(節度使)에게 쌍정과 쌍절(雙節)을 지급하여, 정(旌)으로 포상하고 절(節)로 처벌하게 하였던 데서 유래하였다. 《新唐書 卷49 百官志》 ‘칠류(七旒)’는 술(旒)이 일곱이고 술마다 구슬이 7개씩 달린 단류관을 말한다. 나라의 기강이 해이해져 지방관의 세력이 지나치게 비대해진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

931 구명(九命)과……되네 : ‘구명(九命)’은 주(周)나라 아홉 등급의 관직 체계 가운데 가장 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곧 상공(上公)을 가리킨다. 《周禮 大宗伯》 ‘삼석(三錫)’은 임금의 세 번 명을 내린다는 뜻으로, 총사령관으로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주역》 <사괘(師卦)>

묻노니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상황에 이르러 問之何以至若此
 뜻 맞는 이를 만나 천공(天工)⁹³²을 온전히 할 수 있겠는가得遇同志專天工
 주공(周公)과 소공(召公)⁹³³이 혀끝을 놀리고 周公召公掉舌上
 윤길보(尹吉甫)와 중산보(仲山甫)⁹³⁴가 턱 속을 따르네⁹³⁵ 吉甫山甫隨頤中
 나라의 성쇠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기고 邦家興替等閒事
 부귀와 공명으로 그 몸을 영화롭게 하네 富貴功名榮乃躬
 유림(儒林)이 분분하여 따라서 혼탁한 데로 젖어드니 儒林紛紛隨涵濁
 산림(山林)⁹³⁶의 높은 뜻 누가 숭상할 수 있으리오 山林高義誰能崇
 하간(河間)에서 헛되이 늙어간 자리 위의 봄바람이요⁹³⁷ 河間空老座上春
 낙중(洛中)에서 오랫동안 움츠린 심의옹(深衣翁)이라네⁹³⁸ 洛中久曠深衣翁
 함께 천지의 기화(氣化) 속에서 태어나 共生天地氣化中
 하나의 이치에 함께 뿌리를 두고 서로 흘러 통하네 同根一理相通

구이(九二)에 “구이는 군대에서 중도(中道)를 얻어 길하고 허물이 없으니, 왕이 총애하는 명령을 세 번이나 내린다.[九二 在師 中 吉无咎 王三錫命]”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나라의 기강이 헤이해진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

- 932 천공(天工) : 하늘이 백성을 다스리는 일로, 곧 나라의 정치를 말한다.
- 933 주공(周公)과 소공(召公) : 주(周)나라 문왕(文王)의 아들로, 형인 무왕(武王)을 도와 폭군인 주왕(紂王)을 토벌하고 조카인 성왕(成王)을 도와 주나라의 기틀을 다졌다.
- 934 윤길보(尹吉甫)와 중산보(仲山甫) : 주(周)나라 선왕(宣王) 때의 어진 신하들이다.
- 935 턱 속을 따르네 : 원문은 ‘수이중(隨頤中)’이다. ‘이(頤)’는 물건을 씹는 턱을 뜻하는 말로, ‘턱 속을 따르네’는 것은 곧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탐욕을 부리는 것을 의미한다. 《주역》〈이괘(頤卦) 초구(初九)〉에, “자기의 신령스러운 거북을 놔둔 채 나를 보고서 턱을 우물거리니 흉하다.[舍爾靈龜 觀我 朵頤 凶]”라 하였다.
- 936 산림(山林) : 학덕(學德)이 높은 은사(隱士)를 말한다.
- 937 하간(河間)에서……봄바람이요 : 하남(河南) 사람인 정호(程顥)에 대해 말한 것이다. ‘헛되이 늙어갔다’는 것은 그가 왕안석(王安石)과 뜻이 맞지 않아 자청하여 외관말직으로 물러나고 이후 학문에 잠심(潛心)한 일을 가리킨다. ‘자리 위의 봄바람’은 그의 운화한 기상을 묘사한 말이다. 주희(朱熹)의 《근사록(近思錄)》 권14에, “주공담이 여주에서 명도 선생을 뵈었다. 한 달을 머무르다 돌아가 사람들에게 ‘광정이 춘풍(春風) 속에 한 달을 앉아 있었다네.’라고 하였다.[朱公掞見明道於汝州 逾月而歸 語人曰 光庭在春風中坐了一月]”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 938 낙중(洛中)에서……심의옹(深衣翁)이라네 : 낙양 사람인 사마광(司馬光)에 대해 말한 것이다. ‘오랫동안 움츠렸다’는 것은 그가 왕안석(王安石)의 신법(新法)에 반대하여 새로 임명된 추밀부사(樞密副使)의 직책을 사양하고 낙양(洛陽)으로 물러나 독락원(獨樂園)을 짓고서 15년 동안 은거한 일을 가리킨다. 그가 은거할 때 《예기(禮記)》에 의거하여 심의(深衣)를 만들어 착용하였으므로 그를 ‘심의옹(深衣翁)’이라 지칭한 것이다.

백성은 나의 동포이고 만물은 나의 동류이거늘⁹³⁹ 民吾同胞物吾與
 더구나 함께 베풀하면서 임금에게 조회하고 있지 않은가⁹⁴⁰ 况乃聯簪朝四聰
 마음을 공정히 하고 뜻을 함께 하여 요순⁹⁴¹을 보좌하니 公心協志輔華勳
 태평한 삼황오제(三皇五帝)⁹⁴²의 시절 화기(和氣)가 충만하였네
 太平三五和冲融
 고요(皐陶)와 기(夔), 후직(后稷)과 설(契)⁹⁴³이 천직(天職)을 함께
 받들고 皐夔稷契共天職
 팔원(八元)과 팔개(八凱), 태전(太顛)과 굉요(閔夭)⁹⁴⁴가 그 공을 이루
 었네 元凱顛夭成厥功

939 백성은……동류이거늘 : 송(宋)나라 장재(張載)의 <서명(西銘)>에서 유래한 말이다. 그 내용 가운데 “천지의 사이에 가득한 것은 내가 형제로 삼았고 천지의 장수는 내가 성으로 삼았다. 백성은 나의 동포요, 만물은 나의 동류다.[天地之塞 吾其體 天地之師 吾其性 民吾同胞 物吾與也.]”라 한 대목이 보인다.

940 임금에게……않은가 : 원문의 ‘사聰(四聰)’은 임금이 귀를 열어 사방 만백성의 소리를 듣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그와 같이 귀를 기울이는 임금’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서경》<순전(舜典)>에 순(舜) 임금이 즉위하고 나서, “사악에게 자문을 구하며 사방의 문을 활짝 열어 놓아 사방의 눈으로 자신의 눈을 밝게 하고 사방의 귀로 자신의 귀를 통하게 하였다.[詢于四岳 闢四門 明四目 達四聰]”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941 요순(堯舜) : 원문은 ‘화훈(華勳)’으로, ‘화훈(華勳)’이라고도 한다. 순(舜) 임금과 요(堯) 임금을 아울러 일컫는 말이다. 《서경》<요전(堯典)>에 “옛날 제요(帝堯)를 상고해 보니, 방훈(放勳)이라 하였다.”라 하였고 또 <순전(舜典)>에 “옛날 제순(帝舜)을 상고해 보니, 중화(重華)라 하였다.”라 하였다.

942 삼황오제(三皇五帝) : ‘삼황’은 복희(伏羲)·신농(神農)·현원(軒轅)을 가리키며, ‘오제’는 소호(少昊)·전옥(顓頊)·제곡(帝嚳)·요(堯)·순(舜)으로, 태평성대를 이룩한 상고 시대의 제왕을 이른다.

943 고요(皐陶)와……설(契) : 순(舜) 임금 때의 어진 신하들이다. 고요(皐陶)는 법의 집행을 맡은 사(士)였고, 기(夔)는 교육과 음악을 전담한 전악(典樂)이었으며, 후직(后稷)은 농업을 담당하였고, 설(契)은 민정 장관이라 할 사도(司徒)의 직책을 관장하였다.

944 팔원(八元)과……굉요(閔夭) : ‘팔원(八元)’은 고신씨(高辛氏)의 제자(才子) 8명이고, ‘팔개(八凱)’는 고양씨(高陽氏)의 제자 8명을 말하는데, 요(堯) 임금 때 순(舜) 임금이 이들을 천거하여 잘 다스렸다. 팔원은 백분(伯奮)·중감(仲堪)·숙헌(叔獻)·계중(季仲)·백호(伯虎)·중웅(仲熊)·숙표(叔豹)·계리(季狸)이고, 팔개는 창서(蒼舒)·퇴애(隤猷)·도인(陶戩)·대림(大臨)·방강(彭降)·정견(庭堅)·중용(仲容)·숙달(叔達)이다. 《春秋左氏傳 文公18年》 ‘태전(太顛)과 ‘굉요(閔夭)’는 주(周)나라 무왕(武王) 때의 신하로, 무왕을 보필하던 열 사람의 훌륭한 신하인 ‘십란(十亂)’에 속하는 인물들이다. 《書經 泰誓》

하나의 당 위에서 정사를 논의하니⁹⁴⁵ 都俞吁咈一堂上
 팔도의 백성들 풍성함을 회복하였네 八路民物回豐隆
 어찌하여 바른 길을 버려두고서 가지 않는가⁹⁴⁶ 如何正路舍不由
 걷기 어려워하고⁹⁴⁷ 넘어지고 지친 것이 마치 병들고 노쇠한 사람과 같네
 窘步顛疲如病癯
 저 보잘것없는 장돈(章惇)과 채경(蔡京)⁹⁴⁸은 말할 것도 없으니
 唾彼章蔡不足道
 고르게 나누려다 마땅함이 지나친 것은 모두 마찬가지로 平分過宜皆均洪
 시기와 의심, 편벽됨과 괴팍함이 살기(殺氣)로 변하니 猜疑偏復變殺氣
 살기가 재앙을 불러와 어지럽고 괴롭네 殺氣召眚紛恹德
 날씨가 알맞음을 잃어 사계절이 뒤섞이며 寒暖失節四序錯
 비바람이 고르지 않아 천도(天道)가 곤궁하네 風雨不調天道窮
 나라는 백성을 근본으로 삼고 백성은 농사를 근본으로 삼으니
 國本於民民本農
 농사가 이미 결실을 이루지 못하자 나머지 일이 모두 공허해졌네
 農既失實餘皆空

945 정사를 논의하니 : 원문은 ‘도유우불(都俞吁咈)’이다. 군주와 신하가 서로 자유롭게 정사를 논의하고 의견을 교환한다는 뜻이다. ‘도(都)’와 ‘유(俞)’는 찬성의 의미, ‘우(吁)’와 ‘불(咈)’은 반대의 의미를 표하는 감탄사이다. 《서경(書經)》〈익직(益稷)〉에 “우(禹)가 말하기를 ‘아, 훌륭합니다. 황제이시여, 지위에 있음을 삼가소서.’ 하니, 제순(帝舜)이 ‘아, 너의 말이 옳다.’ 하였다.[禹曰 都 帝 慎乃在位 帝曰 俞]”라 하고, 《서경》〈요전(堯典)〉에 “모두가 ‘아, 곤(鯀)을 추천합니다.’ 하니, 제요(帝堯)가 ‘아, 너희 말이 옳지 않다.’ 하였다.[兪曰 於 鯀 帝曰 吁 咈哉]”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946 어찌하여……않는가 : ‘바른 길’은 곧 의(義)를 가리킨다. 이 구절은 《맹자》〈이루 상(離婁上)〉에, “인(仁)은 사람의 편안한 집이고, 의(義)는 사람의 바른 길이다. 편안한 집을 비워두고서 거처하지 않으며, 바른 길을 버려두고서 가지 않으니, 슬프다[仁 人之安宅也 義 人之正路也 曠安宅而弗居 舍正路而不由 哀哉]”라 한 데서 취해 온 것이다.

947 걷기 어려워하고 : 원문은 ‘곤보(窘步)’다. 삼국 시대 위(魏)나라 조비(曹丕)의 시 〈맥상상(陌上桑)〉에, “가시나무를 입고 천맥을 구하여 밭을 조심조심 내딛으며 홀로 어렵게 걷는다.[被荆棘 求阡陌 則足獨窘步]”라 하였다.

948 장돈(章惇)과 채경(蔡京) : 송나라 철종(哲宗) 때의 간신으로, 왕안석(王安石)의 신법(新法)을 복구하고 동문관옥(同文館獄)을 조작하여 유현(儒賢)인 사마광(司馬光)·유지(劉摯)·양도(梁燾)·여대방(呂大防) 등을 축출한 인물들이다. 《宋史 卷200 刑法2》

전쟁과 토목 공사가 또 따라서 일어나니 兵戈土木又從興
 조세와 역(役)이 번다하고 무거워 백성들 근심 가득하네 賦役煩重民忡忡
 나라의 안위는 비록 대신(大臣)에게 달려 있는 것이지만 安危雖有大臣在
 해바라기⁹⁴⁹에게 어찌 하늘을 향해 기우는 마음이 없겠는가 葵藿豈無傾天衷
 시 짓고서 가생(賈生)의 눈물⁹⁵⁰을 남몰래 닦고 詩成暗拭賈生淚
 충직하고 사모하는 마음 다만 장공(張公)의 애통함⁹⁵¹보다 절실하네 忠戀但切張公悃
 그대는 보지 못하였는가, 정강(靖康)의 큰 화⁹⁵²가 당쟁의 틈에서부터
 시작된 것 君不見靖康大禍黨釁啓
 원죄(原罪)를 미루어 보자면 원풍 연간에 있다네 推原罪在於元豐

949 해바라기 : 원문은 ‘규곽(葵藿)’으로, 해바라기를 가리킨다. 해바라기가 해를 향하는 것처럼 임금을 향해 정성을 다하는 신하의 마음을 비유하는 말로 흔히 사용된다. 《삼국지(三國志)》 권19 〈위지(魏志) 진사왕조식전(陳思王曹植傳)〉에 “해바라기 있는 태양을 향하니, 태양이 비록 그쪽으로 방향을 돌려 비취 주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태양을 향하는 것이 해바라기의 정성이다.[若葵藿之傾葉 太陽雖不爲之回光 然向之者誠也]”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950 가생(賈生)의 눈물 : ‘가생(賈生)’은 한(漢)나라의 가의(賈誼)를 가리킨다. 시문(詩文)에 능하여 20여 세의 젊은 나이로 박사가 되고 문제(文帝)를 보좌하여 여러 가지 개혁 정치를 펼쳤으나, 강후(絳侯) 주발(周勃)과 영음후(潁陰侯) 관영(灌嬰) 등의 모함을 받아 조정에서 쫓겨났다. 그 뒤 다시 양 회왕(梁懷王)의 태부(太傅)가 되었는데, 양 회왕이 낙마(落馬)하여 죽자 가의 역시 상심하여 겨우 33세의 나이로 죽었다. 《漢書 卷48 賈誼傳》 ‘가생의 눈물’은 한 문제(漢文帝) 때 한나라가 선우족(單于族)에게 모욕을 당하고 제후왕(諸侯王)이 반역을 꾀하는 등 시국이 위태롭고 혼란하자, 가의가 우국충정으로 시국을 바로잡은 치안책(治安策)을 한 문제에게 올렸는데, 그 첫머리에 “신이 삼가 사세를 살펴보건대, 통곡할 만한 것이 한 가지요, 눈물을 흘릴 만한 것이 두 가지요, 장탄식할 만한 것이 여섯 가지입니다.[臣竊惟事勢 可爲痛哭者一 可爲流涕者二 可爲長太息者六]”라 한 데서 온 말이다. 《漢書 卷48 賈誼傳》 《古文辭類纂 奏議類 陳政事疏》

951 장공(張公)의 애통함 : ‘장공(張公)’은 당나라 장구령(張九齡)을 가리킨다. 장구령은 현종 시기 개원의치를 이룬 인물이지만, 이입보의 이간질로 인해 한직으로 쫓겨났다.

952 정강(靖康)의 큰 화 : ‘정강(靖康)’은 송나라 흠종(欽宗)의 연호다. ‘정강의 큰 화’란 흠종 2년(1127)에 금나라 태종(太宗)에 의해 송나라 수도 변경(汴京)이 함락되고 휘종(徽宗)과 흠종 부자를 비롯하여 많은 황족(皇族)과 정신(廷臣)이 사로잡혀 간 일을 말한다. 이후 휘종의 아들 고종(高宗)이 남경(南京)에서 즉위하였는데 이로부터 남송(南宋)이 시작되었다.

칠석탄(七夕歎)⁹⁵³

七夕歎

맑은 하늘과 무거운 땅에 각각 고하(高下)를 정하니 天清地重奠高下
 황도(黃道)와 적도(赤道)⁹⁵⁴ 두 길 일월을 나누었네 黃赤二道分日月
 궁융(穹隆)한 하늘⁹⁵⁵ 끝없이 광대하여 빛나고 드넓으니 穹隆磅礴赫弘敞
 법상(法像)의 존엄(尊嚴)함을 어찌 함부로 할 수 있으리오 法像尊嚴安可褻
 별자리 선명하고 위수(位數)가 밝으니 星躔的歷位數明
 하루에 삼백 육십 도를 두루 운행하네 一日周行三百六
 어찌하여 인간 세상은 음란하고 공교한 것을 좋아하는가 如何人世喜淫巧
 하늘을 더럽히고 기강을 업신여겨 편벽된 말⁹⁵⁶이 횡행하네 瀆天慢紀行詖說
 돈을 빌려 예를 치렀다는 말은 세시기(歲時記)에서 처음 만들어진 것이요⁹⁵⁷

953 칠석탄(七夕歎) : ‘칠석(七夕)’은 7월 7일 밤을 말한다. 해마다 이날이면 견우성(牽牛星)과 직녀성(織女星)이 오작교(烏鵲橋)에서 서로 한 번씩 만난다는 전설이 있다.

954 황도(黃道)와 적도(赤道) : ‘황도(黃道)’는 지구에서 보이는 하늘에서 해가 한 해 동안 지나는 길이다. ‘적도(赤道)’는 천체를 네모진 지구를 덮고 있는 구체로 상정했을 때 지구 표면의 거리가 남북으로 서로 같아지는 지점의 원주선(圓周線)을 가리킨다. 《서경》〈홍범(洪範)〉의 “해와 달의 운행에는 겨울이 있고 여름이 있다.[日月之行, 則有冬有夏]”라 하였고, 이에 대한 채침(蔡沈)의 주에서 “해는 중도가 있고 달은 아홉 가지 길이 있다. 중도는 곧 황도이다.…… 아홉 길은 흑도 둘, 적도 둘, 백도 둘, 청도 둘에 황도까지 합하여 아홉이다.”라 하였다.

955 궁융(穹隆)한 하늘 : ‘궁융(穹隆)’은 중앙이 높고 주위가 차차 낮아지는 형상으로, 곧 하늘의 모습을 형용하는 말이다.

956 편벽된 말 : 원문은 ‘괴설(詖說)’이다. 《맹자》〈공손추 상(公孫丑上)〉에서 공손추가 “무엇을 지언(知言)이라 합니까?”라 묻자, 맹자가 “편벽된 말에서 그 가려진 바를 알고, 방당한 말에서 빠져 있는 바를 알고, 부정한 말에서 괴리된 바를 알고, 도피하는 말에서 논리가 궁핍을 알 수 있다.[詖辭 知其所蔽 淫辭 知其所陷 邪辭 知其所離 遁辭 知其所窮]”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957 돈을……것이요 : ‘세시기(歲時記)’는 《형초세시기(荊楚歲時記)》를 가리킨다. 《형초세시기》에, “견우가 직녀를 아내로 맞이할 때 천제에게 이만전을 빌려 예를 치렀다. 오래도록 갚지 못하여 쫓겨나 영실 안에 있게 되었다.[牽牛娶織女 借天帝二萬錢下禮 久不還 被驅在營室中]”라 한 내용이 보인다. ‘처음 만들어졌다’는 것의 원문은 ‘작용(作俑)’이다. 고대 중국에서 나무인형인 용(俑)을 만들어 사람을 장사 지낼 때 함께 묻었는데 이것이 후세에 순장(殉葬)하는 계기가 되었으므로, 전하여 좋지 못한 선례(先例)를 처음 만드는 것을 뜻하는 말로 사용된다. 《맹자》〈양혜왕 상(梁惠王上)〉에, “처음 용을 만든 자는 그 후손이 없을 것이 다.[始作俑者 其無後乎]”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오작교(烏鵲橋)에 관한 《회남자(淮南子)》의 이야기 더욱 허탄하네⁹⁵⁸

鵲橋更誕淮南子

문단(文壇)의 몇몇 어린 아이들

詞壇幾箇小兒輩

비흥(比興)⁹⁵⁹을 높이 노래하여 천 년 동안 흘러왔네

比興高唱流千祀

객성(客星)의 허황된 말 한(漢)나라 사신을 그르치고⁹⁶⁰

客星荒辭誤漢使

〈명하편(明河篇)〉의 비루한 작품 주(周)나라 기강을 어지럽혔네⁹⁶¹

明河陋作淫周紀

인간 세상에 7월 7일이 몇 해나 있었나

人間幾歲七月七

하늘 위의 밝은 별 부끄러움을 머금고 있네

天上明星含愧恥

누가 은하수 수만 곡(斛)의 물을 부어

誰注銀河水萬斛

958 오작교(烏鵲橋)에……허탄하네 : 7월 칠석날 밤에 까마귀와 까치가 은하수를 매워 다리를 만 들어서 견우(牽牛)와 직녀(織女)가 1년에 한 번 그 다리를 건너 만나게 해 준다는 전설이 《회남자(淮南子)》에 실려 있다고 각 문헌에 나오는데, 현존 《회남자》에는 이 내용이 빠져서 보이지 않는다.

959 비흥(比興) : ‘비(比)’와 ‘흥(興)’은 모두 시에서의 수사법을 가리키는 말이다. 비는 비유이고, 흥은 자신의 감정을 말하기 앞서 그와 유사한 속성을 가진 어떤 대상을 먼저 읊는 것이다. 여기서는 시(詩)에 대한 범정으로 사용되었다.

960 객성(客星)의……그르치고 : ‘한(漢)나라 사신’은 장건(張騫)을 가리킨다. 한 무제(漢武帝) 때 장건(張騫)이 사명(使命)을 받들고 서역(西域)에 나가던 길에 황하의 근원을 찾아 한없이 거슬러 올라갔는데, 한 성시(城市)에 이르러 보니 한 여인은 방 안에서 베를 짜고 있었고 한 남자는 소를 끌고 은하(銀河)의 물을 먹이고 있었다. 그들에게 “여기가 어디인가?”라고 묻자, 그 여인이 지기석(支機石) 하나를 장건에게 주면서 “성도(成都)의 엄군평(嚴君平)에게 가서 물어보라.” 하였다. 장건이 돌아와서 엄군평을 찾아가 지기석을 보이자, 엄군평이 말하기를 “이것은 직녀의 지기석이다. 아무 연월일에 객성(客星)이 견우성과 직녀성을 범했는데, 지금 헤아려보니 그때가 바로 이 사람이 은하에 당도한 때였다.”라 하였다. 《博物志》

961 명하편(明河篇)의……어지럽혔네 : ‘명하편(明河篇)’은 당나라 송지문(宋之問)이 지은 은하수를 주제로 한 노래이고, ‘주(周)나라’는 축천무후(則天武后)가 당나라를 없애고 세운 나라를 말한다. 당나라 고종(高宗) 때 재상의 권한을 억제하고자 재주 있는 문사(文士)들을 불러서 금중(禁中)의 의논에 참가시키고 조서(詔書)를 초하게 하였는데, 이를 북문학사(北門學士)라 불렀다. 송지문이 축천무후에게 북문학사로 임명해 주기를 청하였으나 무후가 들어주지 않자 〈명하편〉을 지어 자신의 뜻을 보였는데, 이는 축천무후를 은하수에 비유하여 스스로 총애 받지 못함을 서늘궤하는 내용이었다. 그 마지막 부분에 “은하수를 바라만 볼 뿐 가까이하지 못하니, 뗏목 타고 나루터를 한 번 물어보려네. 직녀의 베틀 밑에 고였던 돌 가져다가, 성도의 점치는 이를 찾아가 보리라.[明河可望不可親 願得乘槎一問津 更將織女支機石 還訪成都賣卜人]”라 하였다.

천년의 황당한 설을 말끔히 씻어 줄까	洗盡千載荒唐說
바라건대 도공(陶公)의 크고 붉은 번개를 빌려 ⁹⁶²	願借陶公大赤電
고급의 교묘한 혀 ⁹⁶³ 들을 베어 버렸으면	爲斬今古如簧舌
밝은 빛 밤마다 구천(九天)에 떠오르니	明輝夜夜九天上
부족하거나 빠진 곳 없이 사해(四海)를 환히 비추어 주네	照臨四海無欠缺

행로난(行路難)⁹⁶⁴

行路難

예문(禮門)과 인택(仁宅) ⁹⁶⁵ 오래도록 무성한 풀에 가려 있고	禮門仁宅久榛蕪
바른 길 ⁹⁶⁶ 한 줄기엔 찬 안개 생겨나네	正路一脈煙生寒

962 바라건대……빌려 : ‘도공(陶公)’은 도안공(陶安公)을 가리킨다. 도안공은 육안(六安)이라는 지역의 대장장이였는데, 주작(朱雀)이 가마에 내려앉아 말하기를 “7월 7일에 적룡을 보내 너를 맞이할 것이다.”라 하였다. 과연 그때가 되자 적룡이 내려와 도안공을 태우고 하늘로 올라갔다 한다고 한다. 《列仙傳 卷下 陶安公》

963 교묘한 혀 : 원문은 ‘여황설(如簧舌)’이다. ‘황(簧)’은 관악기의 소리를 내게 하는 떨림관인데, 소인(小人)들이 교묘하게 꾸며내는 참언(讒言)을 비유하는 말로 사용된다. 《시경》〈소아(小雅) 교언(巧言)〉에, “황(簧)과 같은 공교로운 말은 얼굴이 두껍기 때문이다.[巧言如簧 顏之厚矣]”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964 행로난(行路難) : 악부(樂府)의 잡곡 가사(雜曲歌辭) 이름으로, 대부분 세상살이의 어려움과 이별의 정을 담고 있다. 원래는 민간의 가요였는데, 문인들이 이 곡에 비겨 시를 지음으로 인하여 악부에 수록되었다. 그중에 남조(南朝) 송(宋)나라 포조(鮑照)의 〈의행로난(擬行路難)〉 19수와 당나라 이백(李白)의 〈행로난〉 3수가 특히 유명하다.

965 예문(禮門)과 인택(仁宅) : ‘예(禮)’와 ‘인(仁)’을 각각 문과 집에 비유한 것이다. 《맹자》〈만장 하(萬章下)〉에, “무릇 의는 길이고 예는 문이다. 오직 문자만이 이 길을 걸여가고 이 문으로 드나들 수 있다.[夫義 路也 禮 門也 惟君子能由是路 出入是門也]”라 하고, 《맹자》〈이루 상(離婁上)〉에, “인은 사람의 편안한 집이고, 의는 사람의 바른 길이다. 편안한 집을 비워 두고 거처하지 않으며, 바른 길을 버려두고 가지 않으니, 슬프다! [仁人之安宅也 義人之正路也 曠安宅而弗居 舍正路而不由 哀哉]”라 한 데서 유래한 말이다.

966 바른 길 : 곧 ‘의(義)’를 가리킨다. 《맹자》〈이루 상(離婁上)〉에, “인은 사람의 편안한 집이고, 의는 사람의 바른 길이다. 편안한 집을 비워두고서 거처하지 않으며, 바른 길을 버려두고서 가지 않으니, 슬프다! [仁 人之安宅也 義 人之正路也 曠安宅而弗居 舍正路而不由 哀哉]”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서로 다투며 달도(達道)를 촉도(蜀道)로 변화시키는데⁹⁶⁷ 爭將達道變蜀道
구의산(九疑山)과 삼위산(三危山)⁹⁶⁸에 마음이 단정해지네 九疑三危方寸端
양장(羊腸)과 우관(牛坂)⁹⁶⁹이 한 번 손을 뒤집으니 羊腸牛坂一翻手
밝은 해 솨는 평평한 육지에 거센 물결이 생겨나네 白日平陸生風湍
옛날 현황(軒皇)이 배와 수레를 만든 때로부터⁹⁷⁰ 昔自軒皇造舟車
길이 천하에 통하여 평평하고도 넓었네 道通天下平而寬
백성들의 바위를 깎아내고 개척하여 평탄한 길을 만드니 刊開民巖作坦塗
임금의 배가 건너기에 편리하고⁹⁷¹ 거센 물결을 되돌렸네 君舟利涉回奔瀾
순(舜) 임금이 큰 숲에 들어가자 뇌우가 맑게 개고⁹⁷² 重華大麓雷雨霽
우(禹) 임금이 산천을 다스리자 홍수가 안정되었네⁹⁷³ 夏禹山川澤水安
요(堯) 임금의 하늘 이미 저물고 걸(桀)의 해 사라지니⁹⁷⁴ 堯天已暮桀日喪

967 서로……변화시키는데 : ‘달도(達道)’는 천하 사람 모두가 행해야 할 공동된 도리이고, ‘촉도(蜀道)’는 한중(漢中)에서 촉(蜀) 지방으로 통하는 험준한 잔도를 말한다.

968 구의산(九疑山)과 삼위산(三危山) : ‘구의산(九疑山)’는 중국 호남(湖南) 영원(寧遠) 서남쪽에 있는 산으로, 순(舜) 임금을 장사 지낸 곳이다. ‘삼위산(三危山)’는 중국 서쪽 변방에 있는 산으로, 순 임금이 삼묘(三苗)를 귀양보낸 곳이다.

969 양장(羊腸)과 우관(牛坂) : ‘양장(羊腸)’은 태항산(太行山)에 있는 판도(坂道)의 이름으로, 길이 양의 창자처럼 구불구불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우관(牛坂)’에 대해서는 미상이다.

970 옛날……때로부터 : ‘현황(軒皇)’은 황제(黃帝) 현원씨(軒轅氏)를 가리킨다. 현원씨는 처음으로 지역을 분할하고 시장을 설치하였으며 배와 수레를 만들었다고 한다.

971 건너기에 편리하고 : 원문은 ‘이섭(利涉)’이다. 큰 내를 건너는 것이 순탄하고 이롭다는 뜻으로, 세상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것에 대한 비유로도 흔히 사용된다. 《주역》〈수괘(需卦)〉에, “수는 성신(誠信)이 있어 광명하여 형통하고 정하여 길하니, 큰 내를 건넌이 이롭다.[需 有孚 光亨貞吉 利涉大川]”라 하였다.

972 순(舜) 임금이……개고 : 원문의 ‘중화(重華)’는 곧 순(舜) 임금을 가리키는 말로, 〈순전(舜典)〉에 “옛날 제였던 순을 상고하건대, ‘거듭 빛남이 제요에게 합치되었다.[重華協于帝]”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요(堯) 임금이 순(舜)을 시험하기 위하여 큰 숲 속으로 몰아넣은 적이 있었는데[納于大麓], 그때 사나운 바람이 불고 비가 쏟아지며 천둥 벼락이 쳤는데도 방향을 잃지 않았다고 하는 고사가 전한다. 《書經 舜典》

973 우(禹) 임금이……안정되었네 : 우(禹) 임금이 홍수를 다스린 일을 말한다. 요(堯) 임금 때 9년 동안 장마가 계속되자 우에게 홍수를 다스리도록 명하였는데, 우가 자연적인 형세에 따라 치산치수(治山治水)를 하여 홍수를 막고 백성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書經 禹貢》〈孟子 滕文公上〉

974 요(堯) 임금의……사라지니 : ‘요(堯) 임금의 하늘’은 요(堯) 임금의 천하, 곧 태평성대를 뜻한다. 《논어》〈태백(泰伯)〉에, “위대하다. 요의 임금노릇 하십이여. 높고 크도다. 오직 저

성난 산과 탐욕스런 골짜기가 험준함을 다투네 忿山慾壑爭嶮巉
 정전(情田)이 백 보(步)의 고개에서 갑자기 일어나니⁹⁷⁵ 情田突起百步坂
 태항산(太行山)과 무협(巫峽)⁹⁷⁶엔 겹겹의 산⁹⁷⁷ 늘어서 있네 太行巫峽排層巒
 요진(要津)의 거센 물결 환해(宦海)와 만나니⁹⁷⁸ 要津氣浪接宦海
 지수(智水)와 영연(靈淵)⁹⁷⁹이 마르려함을 근심하네 智水靈淵愁欲乾
 용양(龍驤)으로도 천 곡(斛)의 물을 오히려 건너지 어렵건만⁹⁸⁰

하늘이 가장 크거늘 오직 요 임금만이 하늘과 같으셨으니, 그 공덕이 넓고 넓어서 백성들이
 뭐라 형용하지 못하는구나.[大哉堯之爲君也 巍巍乎 唯天爲大 唯堯則之 蕩蕩乎 民無能
 名焉]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또 ‘걸(桀)은 하(夏)나라의 마지막 임금이다. 그는 매우 무도
 하였는데, 그가 일찍이 “내가 천하를 소유한 것은 마치 하늘에 해가 있는 것과 같으니, 저 해
 가 없어져야 내가 비로소 망한다.”라 하였으므로, 당시에 그의 학정(虐政)을 원망하던 백성들
 이 “이 해는 어느 때나 없어질까? 내 너와 함께 없어져 버리자.[時日曷喪 予及女偕亡]라 하
 였다. 《書經 湯誓》

- 975 정전(情田)이……일어나니 : ‘정전(情田)’은 곧 마음을 뜻한다. 《예기》〈예운(禮運)〉에, “인
 정이라는 것은 성인의 발이다. 예를 닦아 경작하고 의를 진실하여 파종하며, 강학하여 김을
 매고 인을 근본하여 모으며, 즐거움을 전파하여 안정시킨다.[人情者聖王之田也 修禮以耕
 之 陳義以種之 講學以耨之 本仁以聚之 播樂以安之]”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백 보(步)
 의 고개’는 곧 청니판(靑泥坂)으로, 감숙성(甘肅省)에 있는 험준한 고개다. 높은 절벽을 끼
 고 비와 구름이 많아 사람들이 진흙 때문에 애를 먹는다고 한다. 이백(李白)의 〈촉도난(蜀
 道難)〉에, “청니판은 어찌 그리도 구불구불한가. 백 보에 아홉 번을 꺾이면서 바위 뿌리 감도
 네.[靑泥何盤盤 百步九折繁巖巒]”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즉 이 구절은 위태로운 지경을 만
 나 마음이 불안정한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 976 태항산(太行山)과 무협(巫峽) : ‘태항산(太行山)’은 중국 하남성(河南省)에 있는 산으로 험
 준하기로 유명하며, ‘무협(巫峽)’은 사천성(四川省) 삼협(三峽)의 하나로 물살이 세기로 유
 명하다. 당나라 백거이(白居易)의 〈태항로(太行路)〉에, “태항산 산길이 험하여 수레를 부순
 다고 하지만 님의 마음에 견주면 이는 평탄한 길이고, 무협의 강물이 거칠어 배를 뒤엎는다고
 하지만 님의 마음에 견주면 이는 잔잔한 물이라오.[太行之路能摧車 若比君心是坦途 巫峽
 之水能覆舟 若比君心是安流]”라 한 대목이 보인다.
- 977 겹겹의 산 : 원문은 ‘층만(層巒)’인데, 문맥을 살펴 ‘만(巒)’을 ‘만(巒)’으로 바로잡아 번역
 하였다.
- 978 요진(要津)의……만나니 : ‘요진(要津)’은 중요한 나루, 곧 요직을 말한다. ‘환해(宦海)’는
 벼슬길의 험난함을 바다의 풍파에 비유한 말이다.
- 979 지수(智水)와 영연(靈淵) : ‘지수(智水)’는 《논어》〈옹야(雍也)〉에 “인자는 산을 좋아하고
 지자는 물을 좋아한다.[仁者樂山 知者樂水]”라 한 데서 유래한 말로, 지혜로운 이가 즐기는
 맑은 물을 뜻한다. ‘영연(靈淵)’은 한(漢)나라 양웅(揚雄)의 《태현(太玄)》〈거(去)〉에, “초일
 이니, 이 영연(靈淵)을 떠나고 저 마른 동산을 버린다.[初一 去此靈淵 舍彼枯園]”라 한 데서
 유래한 말로, 깊은 연못을 뜻한다.
- 980 용양(龍驤)으로도……어렵건만 : ‘용양(龍驤)’은 진(晉)나라 때 용양장군(龍驤將軍) 왕준(王

龍驤千斛尙難濟

뗏목 띄워 바다로 나가는 일 탄식할 만하네⁹⁸¹ 浮海乘桴嗟可歎

은(殷)나라 수레 무교구(舞交衢)에 의지할 수 없으니⁹⁸² 殷輅無賴舞交衢

좋은 말이 귀 늘어뜨리고 두 눈썹을 찌푸리네⁹⁸³ 嚙膝垂耳雙眉攢

길 다하였으니 어느 곳에서 나루를 물을 수 있을까⁹⁸⁴ 塗窮何處可問津

양주의 눈물⁹⁸⁵ 모두 흘러 부질없이 아롱진 흔적을 남기네 泣盡朱淚空斑沬

어찌하면 과아씨(夸娥氏)의 두 역사⁹⁸⁶를 얻어 安得夸娥兩力士

漕)이 오(吳)나라를 정벌하기 위하여 만든 큰 배로, 군량(軍糧) 만 곡을 실을 수 있다 하여 만곡선(萬斛船)이라고도 불린다. 송나라 소식(蘇軾)의 <대풍유금산양일(大風留金山兩日)> 시에, “만곡이나 되는 용양도 지나가지 못하고, 일엽편주 어선은 바람 따라 춤추었지.[龍驤萬斛不敢過 漁舟一葉從掀舞]”라 한 대목이 보인다.

- 981 뗏목……만하네 : 《논어》 <공야장(公冶長)>에서 공자(孔子)가 천하의 어지러움을 탄식하며, “도가 행해지지 않으니 뗏목을 타고 바다로나 나갈까 보다.[道不行 乘桴浮于海]”라 한 대목에서 취한 구절이다.
- 982 은(殷)나라……없으니 : 원문의 ‘노(輅)’는 임금이 타는 수레로, ‘은로(殷輅)’는 곧 은나라의 수레를 가리킨다. 《논어》 <위령공(衛靈公)>에, 안연(顔淵)이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을 묻자 공자가 “하나라의 철을 행하고 은나라의 수레를 타며 주나라의 면류관을 쓴다.[行夏之時 乘殷之輅 服周之冕]”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또 ‘무교구(舞交衢)’는 수레를 모는 다섯 가지 방법인 오어(五御) 중 하나로, 도로를 통과하면서 자유자재로 달려가는 것을 말한다. 훌륭한 수레를 제대로 몰 사람이나 기술이 없음을 말한 것이다.
- 983 좋은……찌푸리네 : 원문의 ‘교슬(嚙膝)’은 좋은 말의 이름이다. ‘귀를 늘어뜨린다’는 것은 가의(賈誼)의 <조굴원부(吊屈原賦)>에, “천리마가 두 귀를 늘어뜨리고 소금 수레를 끌었다.[驥垂兩耳兮服鹽車]”라 한 데서 유래한 말로, 어진 이가 때를 만나지 못하였음을 비유하는 말로 자주 사용된다.
- 984 길……있을까 : ‘길이 다하였다’는 것은 진(晉)나라 죽림칠현의 한 사람인 완적(阮籍)과 관련된 고사에서 유래한 말이다. 완적은 사람됨이 활달하여 일반적인 격식에 구애받지 않았는데, 마음속에 답답한 일이 있으면 때때로 혼자서 수레를 타고 마음 내키는 대로 가다가 길이 막혀 갈 수 없는 곳에 이르러서는 한바탕 크게 통곡하고서 돌아왔다고 한다. 《晉書 卷49 阮籍列傳》 또 ‘나루를 묻는다’는 것은 앞길을 물어본다는 뜻으로, 《논어》 <미자(微子)>에서 공자가 자로(子路)를 시켜 은자인 장저(長沮)와 결낙(桀溺)에게 나루터를 묻게 한 고사에서 유래한 말이다.
- 985 양주(楊朱)의 눈물 : ‘양주(楊朱)’는 전국 시대의 사상가이다. 《순자(荀子)》 <왕제(王霸)>에, “양주가 네거리 길에서 통곡을 하면서 말하기를 ‘반걸음이라도 길을 잘못 가면 깨닫고 난 뒤에는 이미 천 리를 잘못 가 있다.’ 면서 슬프게 곡을 하였다.”라는 대목이 보인다. 기구한 세상의 도에 상심하여 흘리는 눈물을 가리키는 말로 흔히 사용된다.
- 986 과아씨(夸娥氏)의 두 역사 : ‘과아씨(夸娥氏)’는 전설에 나오는 신의 이름이다. 북산(北山)의 우공(愚公)이 앞에 산이 가로막혀 통행이 불편하였으므로 가족들과 함께 산을 옮기려고 매일 흙더미를 덜어 내었는데, 이에 감동한 천제(天帝)가 의 두 아들을 내려 보내 그 산을 등에 업

가파른 바위를 깎아내고 굴곡진 곳을 평평하게 만들며 剗却巉巖平屈蟠
 서산(西山)의 목석으로 정위(精衛)의 힘을 들여⁹⁸⁷ 西山木石費精衛
 염여(灑潏)를 육지로 만들어 위태로운 여울이 없게 하여⁹⁸⁸ 灑潏成陸無危灘
 왕량(王良)처럼 채찍 끼고서 여섯 고삐를 잡고⁹⁸⁹ 王良挾策六轡組
 축수곡(逐水曲)과 축금좌(逐禽左)로 화란(和鑾)을 조화롭게 하며⁹⁹⁰ 水曲禽左調和鑾
 길 가운데로 가면서 단정하게 아름다운 이를 위하여 인도하여 中行端爲美人導
 의로운 길⁹⁹¹을 편하게 걸으며 의관을 밝힐 수 있을까 平步義路明衣冠
 그렇지 않으면 돌아와 수운(水雲) 사이에 누워 不然歸臥水雲間
 동해(東海)에서 한가로이 어부의 낚시대 드리우고서⁹⁹² 東海閒垂漁父竿
 도리어 시와 술로 신선술 배우며 늙어감을 비웃으며 却笑詩酒老調仙
 평생 행로난(行路難)을 괴로이 읊조릴까 苦吟平生行路難

고 다른 곳에 읊기게 하였다는 고사가 전한다. 《列子 湯問》

- 987 서산(西山)의……들여 : ‘정위(精衛)’는 중국 고대 신화에 나오는 새 이름이다. 염제(炎帝) 신농씨(神農氏)의 막내딸이 동해(東海)에 놀러나갔다가 빠져 죽은 뒤에 이 새가 되었는데, 그 원한을 풀기 위해 늘 서산(西山)의 나무와 돌을 물어다가 동해를 메우려 하였다는 고사가 전한다. 《山海經 北山經》
- 988 염여(灑潏)가……하여 : ‘염여(灑潏)’는 곧 ‘염여퇴(灑潏堆)’로, 배를 타고 무사히 건너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험하다는 장강(長江) 구당협(瞿塘峽)의 여울이다.
- 989 왕량(王良)처럼……잡고 : ‘왕량(王良)’은 춘추 시대 때 말을 잘 몰기로 이름난 사람이다. ‘여섯 고삐’는 수레를 끄는 네 마리 말의 고삐다. 《시경》〈소아(小雅) 황황자화(皇皇者華)〉에, “내 말이 얼룩말이니, 여섯 고삐가 실처럼 고르도다.[我馬維騏 六轡如絲]”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 990 축수곡(逐水曲)과……하며 : ‘축수곡(逐水曲)과 축금좌(逐禽左)’는 수레를 모는 다섯 가지 방법인 오어(五御)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축수곡’은 골짜기의 절벽을 따라 수레를 몰되 물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고, ‘축금좌’는 사냥을 할 때 짐승을 쫓으면서 왼쪽에서 활을 쏘아 잡는 것을 말한다. ‘화(和)’와 ‘난(鑾)’은 모두 임금의 수레에 다는 방울이다. 《시경》〈육소(蓼蕭)〉에, “화란 소리 조화로우니 만복이 함께하는 바로다.[和鸞雝雝 萬福攸同]”라 한 대목이 보인다.
- 991 의로운 길 : 곧 의(義)를 가리킨다.
- 992 동해(東海)에서……드리우네 : 이는 강태공(姜太公)의 고사를 참고한 것이다. 주 문왕이 서백(西伯)으로 있을 때, 강태공은 동해가에 거처하며 낚시질로 곤궁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다. 이때 주 문왕이 꿈에서 자신을 제왕이 되도록 도울 재상을 얻으리라는 점괘를 얻고서, 위수(渭水)의 북쪽에서 여상을 만나 함께 수레를 타고 돌아와 태사(太師)로 등용하였다. 《史略 卷1 周武王》

월출을 보며 【때는 경인년(1650, 27세) 9월 보름날 밤이었다.】

觀月出【時庚寅九月十五夜】

경인년 9월 보름날 밤	庚寅九月十五夜
옥우(玉宇) ⁹⁹³ 를 깨끗이 쓸어 잔 구름 다 사라졌네	玉宇淨掃纖雲滅
하늘의 끝 높고 드넓으며 지축(地軸) 고요하니	乾端軒豁地軸靜
흰 이슬이 허공 가로지르며 나무 끝을 나네	白露橫空飛木末
은거하는 이 이날 밤 맑은 정신이 갑절이나 더하니	幽人此夜倍清神
티끌 한 점 일지 않고 섬돌과 당우(堂宇)는 탁 트여 있네	一塵不起階宇豁
도연명(陶淵明)의 시 한 곡조 상쾌하게 읊으며 지나니	陶詩一闕快詠過
옥호(玉壺)의 맑은 얼음 ⁹⁹⁴ 에 가슴 속이 깨끗해지네	玉壺清冰胸裏潔
한가로이 대나무 아래 오솔길을 걸어 나와	悠然步出竹下逕
동쪽 하늘 향해 서서 달 떠오르는 모습 바라보네	立向東天看月出
천 장(丈)의 흰 비단 푸른 하늘을 쏘니	素綃千丈射碧天
떠오른 은색 바퀴 빛이 깊이 들어오네	輾上銀輪光透徹
은하수 그림자 거두고 북두 사라지니	長河斂影北斗沒
만 리의 산천에 옥이 굴을 만드네 ⁹⁹⁵	萬里山川瓊作窟
수면에 생긴 흰 빛 맑기가 거울과 같고	水面生白淡似鏡
우뚝한 산 ⁹⁹⁶ 의 다듬은 옥 빛같이 눈처럼 희네	孱顏鍊玉光疑雪

993 옥우(玉宇) : 천제(天帝)나 신선(神仙)이 사는 곳으로 옥으로 장식한 궁전인데, 하늘을 가리킨다.

994 옥호(玉壺)의 맑은 얼음 : 옥병에 담긴 얼음이라는 뜻이다. 남조(南朝) 송나라 포조(鮑照)의 <백두음(白頭吟)>에 “충직하기로는 붉은색 밧줄이요, 청정하기로는 옥병 속의 얼음이네.[直如朱絲繩 清如玉壺冰]”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또 두보(杜甫)의 <입주행증서산검찰사두시어(入奏行贈西山檢察使竇侍御)>에서는 두 시어사(竇侍御史)의 인품을 일러 “빛나기는 마치 만학(萬壑)에서 나온 한 조각 맑은 얼음을 한나라 영풍관 한로관의 옥병에 담아둔 것 같네.[炯如一段清水出萬壑 置在迎風寒露之玉壺]”라 하였다.

995 옥이 굴을 만드네 : 달빛 아래 경치가 백옥처럼 눈부시게 펼쳐져 있는 것을 말한다. 참고로 송나라 마존(馬存)의 시 <요월정(邀月亭)>에, “하늘의 바람 뜬구름을 깨끗이 쓸어 없애니, 천 바위 만 골짜기 경요의 굴이로다.[天風洒掃浮雲沒 千巖萬壑瓊瑤窟]”라 하였다.

996 우뚝한 산 : 원문은 ‘잔안(孱顏)’이다. 큰 산이 우뚝 서 있는 모습을 말한다.

십 리의 긴 교외에 고운 모래 펼쳐지고	長郊十里鋪瓊沙
천 개의 먼 봉우리 옥가루를 입은 듯	遠岫千巖披玉屑
너울거리는 뜨락의 그림자 대나무 가지 수척하고	婆娑庭影竹枝瘦
곱게 젖은 섬들의 향기 난초의 소식 알리네	艷浥階香蘭聞發
숲 성글어 잠든 새에게 달빛 새어들고	林疎斜暎宿鳥眠
다시 그윽한 창 향해 빛이 방으로 들어오네	更向幽窓光入室
천삼(天三)과 지사(地四) 하나의 경관 속에 있으니 ⁹⁹⁷	天三地四一色中
나의 마음 ⁹⁹⁸ 을 비추는 것도 마찬가지로	照我靈臺同一轍
저 밝음과 이 밝음 본래 두 가지가 아니니	彼明此明本非二
위로도 통하고 아래로도 통하여 ⁹⁹⁹ 분별함이 없네	徹上徹下無分別
삼재(三才)의 한 이치 ¹⁰⁰⁰ 끝없이 아득하니	三才一理浩渺邊
지극히 오묘한 천기(天機) 누구와 함께 말을 할까	至妙天機誰與說
나직이 읊조리며 다시 대나무 창가에 기대니	沉吟還倚竹窓邊
옥계(玉溪)에 구름 생겨나 한 조각 가로놓여 있네	玉溪雲生橫一抹

997 천삼(天三)과……있으니 : 《주역》의 수리(數理)에 의하면, 하늘은 홀수이고 땅은 짝수이다. 주희(朱熹)는 오행(五行) 생성의 이치를 말하면서 “하늘은 일(一)로서 수(水)를 낳고, 땅은 이(二)로서 화(火)를 낳고, 하늘은 삼(三)으로서 목(木)을 낳고, 땅은 사(四)로서 금(金)을 낳고, 하늘은 오(五)로서 토(土)를 낳는다.[天一生水 地二生火 天三生木 地四生金 天五生土]”라 하였다. 《近思錄集解 卷1 太極圖說註》 즉 여기서의 ‘천삼(天三)’은 나무, ‘지사(地四)’는 달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무와 달빛이 모두 하나의 경관 안에 들어와 있는 정경을 말한 것이다.

998 마음 : 원문은 ‘영대(靈臺)’다. 신명스러운 대(臺)란 뜻으로, 마음을 가리킨다.

999 위로도……통하여 : 상하를 모두 통한다는 말이다. 《논어》〈자로(子路)〉에 “거처할 때에 공손히 하며, 일을 집행할 때에 공경하며 사람을 대할 때에 충성되게 하여야 한다. 이것은 비록 이적의 나라에 가더라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居處恭 執事敬 與人忠 雖之夷狄 不可棄也]”라 하였는데, 집주(集註)에 “정자가 말하기를 이것은 위로도 통하고 아래로도 통하는 말씀이니 성인은 애당초 두 말씀이 없는 것이다.[程子曰 此是徹上徹下語 聖人初無二語也]”라 하였다.

1000 삼재(三才)의 한 이치 : ‘삼재(三才)’는 천(天), 지(地), 인(人)을 가리킨다. 즉 하늘과 땅과 인간에 두루 공통으로 적용되는 이치를 말한다.

예전의 유람을 추억하며 중형 문백(文伯)¹⁰⁰¹에게 부치다.

【이름은 한탁(漢倬)이다. 만년에 고월정(孤月亭)을 지어 한 시대의 제현(諸賢)과 함께 시와 술을 즐겼다.】

憶舊遊行, 寄宗兄文伯.【名漢倬. 晚築孤月亭, 與一代諸賢, 詩酒自娛.】

만고에 변함없는 영강(靈江) 푸른 물이 흐르니	萬古靈江水碧流
북쪽으로는 방장(方丈)과 이어지고 남쪽에는 영주(瀛洲)라네 ¹⁰⁰²	北連方丈南瀛洲
강을 따라 옥 부용(芙蓉)을 다듬어 내니	沿江琢出玉芙蓉
거울 위의 푸른 비단 천추에 이름났네	鏡上翠錦名千秋
그 사이에서 몇 명의 영웅을 낳았나	其間產發幾英雄
백 년 인생 한바탕 꿈과 같아 물거품이 되었네	百年一夢成浮漚
아, 내가 태어난 것 다행히도 이 땅이었건만	嗟余降生幸此地
용봉(龍鳳)은 이미 떠나가고 하루살이만 남았네	龍鳳已去餘蜉蝣
마음을 함께 할 이 없어 긴 무지개에게 마음 도로하니	哀懷無與泄長虹
저물녘 하늘 향해 휘파람 불자 정신이 편안해지네	一嘯暮天魂夷猶
백 척(尺)의 난초는 만 경(頃)의 물결에 흔들리는데	蘭撓百尺擊萬頃
형제를 가득 싣고서 긴 물가에 떠 있네	滿載兄弟浮長洲
황금 물결 만 곡(斛)으로 옥 두꺼비 목욕시키고	黃金萬斛浴玉蟾

한 조각의 푸른 옥 같은 하늘은 은빛 갈고리 흘러 보내네¹⁰⁰³ 碧玉一片流銀鉤
<파인(巴人)>을 부른 영(郢) 땅의 객 <백설(白雪)>을 노래하니¹⁰⁰⁴

1001 문백(文伯) : 김만영의 중형 김한탁(金漢倬)을 말한다. 자세한 사항은 미상이다.

1002 북쪽으로는……영주(瀛洲)라네 : ‘방장(方丈)’과 ‘영주(瀛洲)’는 모두 신선이 산다고 하는 중국 전설상의 산으로, 봉래(蓬萊)와 함께 삼신산(三神山)이라 불린다. 중국 동쪽의 발해(渤海) 가운데 있다고 한다.

1003 한 조각의……보내네 : 송나라 마존(馬存)의 <장회요(長淮謠)>에, “황금 물결 만 곡으로 밝은 달 목욕시키고, 푸른 옥 같은 한 조각의 하늘 맑은 가을 머금었네[黃金萬斛浴明月 碧玉一片含清秋]”라 한 데서 취해 온 구절이다. ‘옥 두꺼비’와 ‘은빛 갈고리’는 모두 달을 형용한 말이다.

1004 <파인(巴人)>을……노래하니 : ‘파인(巴人)’과 ‘백설(白雪)’은 모두 초(楚)나라의 가곡 이름이다. ‘파인’은 민간에서 유행하던 대중적인 노래인 반면, ‘백설’은 곡조가 높아서 부르

혜련(惠連)과 강락(康樂)이 푸른 눈길을 보내네¹⁰⁰⁵
 천지는 한 점ियो 하나의 작은 잔이니¹⁰⁰⁶
 밤낮으로 창해(滄海)에 둥근 달이 떠 있네
 우리들 조그맣게 이 세상에 부처 살고 있으니
 꿈속을 헤매는 신세로 소요하며 노니네
 천 년 전의 지난 일 큰 웃음에 부치고서
 한 국자의 좋은 술¹⁰⁰⁷ 그대와 함께 주고받네
 이별한 뒤로 산 위의 달 이미 기울고 다시 찾으니
 강머리에서의 멋진 유람 옛 흔적이 남아 있네
 창랑(滄浪)에서 지내는 형은 화려한 갓끈 씻으려 하고¹⁰⁰⁸
 석실(石室)에서 지내는 동생은 홀로 구름 갓옷을 걸쳤네¹⁰⁰⁹

巴人郢客奏白雪
 惠連康樂輸青眸
 乾坤一點一小盃
 日夜滄海團團浮
 吾人藐然寄寰中
 夢幻身世逍遙遊
 千年往事付大笑
 一杓流霞同子酬
 別來山月已虧盈
 勝遊江頭陳迹留
 滄浪兄擬濯華纓
 石室弟獨披雲裘

기 어려운 곡이었다. 어떤 사람이 초나라의 국도(國都)인 영(郢)에서 노래를 불렀는데, 처음에 <하리(下里)>와 <파인>을 노래하자 그 소리를 알아듣고 화답하는 사람이 수천 명이었고, <양아(陽阿)>와 <해로(薤露)>를 노래하자 화답하는 사람이 수백 명으로 줄었고, <양춘(陽春)>과 <백설>을 부르자 화답하는 사람이 몇 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고사가 전한다. 《文選 卷45 對楚王問》 유람을 하면서 훌륭하고 뛰어난 시문을 읊었음을 말한 것이다.

- 1005 혜련(惠連)과……보내네 : ‘혜련(惠連)과 강락(康樂)’은 남조(南朝) 송(宋)나라 사혜련(謝惠連)과 그 측형 사영운(謝靈運)을 가리킨다. ‘강락’은 사영운의 봉호다. 또 ‘푸른 눈길’의 원문은 ‘청모(靑眸)’로, ‘반가워하는 눈빛’을 뜻하는 청안(靑眼)을 말한다. 진(晉)나라 죽림칠현(竹林七賢)의 한 사람인 완적(阮籍)이 싫은 사람을 보면 백안(白眼)을 뜨고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 청안을 뜨고 대하였다는 고사에서 유래한 말이다. 《晉書 卷49 阮籍列傳》 형제 간에 시문을 읊으며 기뻐한 모습을 이와 같이 표현한 것이다.
- 1006 천지는……잔이니 : 하늘에서 바라보면 매우 작게 보이는 땅과 바다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당(唐)나라 이하(李賀)의 시 <몽천(夢天)>에, “멀리 제주를 바라보니 아홉 점의 연기와 같고, 큰 바닷물도 한 잔 물을 쏟아 부은 듯하네.[遙望齊州九點煙 一泓海水杯中瀉]”라 한 데서 유래한 말이다. 이하의 시에서 ‘제주(齊州)’는 중주(中州) 즉 중국을 가리킨다.
- 1007 좋은 술 : 원문은 ‘유하(流霞)’다. 신선이 마시는 좋은 술을 말한다. 두보의 시 <중무생일(宗武生日)>에, “유하를 조각조각 나누어서, 방울방울 천천히 기울이노라.[流霞分片片 涓滴就徐傾]”라 하였다.
- 1008 창랑(滄浪)에서……하고 : ‘창랑(滄浪)’은 중국의 하천 이름이고, ‘갓끈을 씻는다’는 것은 진속(塵俗)을 초탈하여 자신의 고결한 신념을 지키는 것을 뜻하는 행위다. 굴원의 <어부사(漁父辭)>에, “창랑의 물이 맑으면 나의 갓끈을 씻고, 창랑의 물이 흐리면 나의 발을 씻으리라[滄浪之水清兮 可以濯我纓 滄浪之水濁兮 可以濯我足]”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 1009 석실(石室)에서……걸쳤네 : ‘석실(石室)’은 돌로 지은 집이라는 뜻으로, 옛날에 중요한 문서나 물건을 보관하던 곳이다. 여기서는 많은 책을 보관해 둔 서실(書室)을 뜻하는 말로 사용

좋은 가을의 훌륭한 승경 양측의 달에 속해 있긴만	良秋佳勝屬兩月
예라(禮羅)가 높이 걸려 천구(天球)를 울리네 ¹⁰¹⁰	禮羅高揭鳴天球
바라노니 학생(郝生)의 배속에 있는 만 권의 책을 벌에 쪼고 ¹⁰¹¹	願曬郝生腹萬卷
취옹(醉翁)의 장대같이 큰 붓끝을 휘두르기를 ¹⁰¹²	揮却醉翁長杠頭
이어 두 시어사(竇侍御使)의 상주하러 들어가는 수레를 돌려 ¹⁰¹³	仍回竇使人奏車
완화계(浣花溪)의 그윽한 거처에 찾아오기를 ¹⁰¹⁴	來訪浣花溪居幽
편주(扁舟)에 함께 올라 눈앞 가득 술을 사고 ¹⁰¹⁵	扁舟同載滿眼酤
돛단배 한 척 다시 푸른 강물에 띄우세	一帆更泛清江流

되었다. 김만영 자신이 서실에서 책을 읽으며 한가로이 지내고 있음을 말한 것이다.

- 1010 예라(禮羅)가……울리네 : ‘예라(禮羅)’는 그물로 새나 물고기를 잡듯이 군주가 예(禮)로써 인재(人才)를 맞이하여 등용하는 것을 뜻한다. 당나라 대숙륜(戴叔倫)의 <기선사사화상인(寄禪師寺華上人)>에 “예라에다 벽옥을 더해 와서, 훌륭한 인재를 천거해 구름과 나란히 올린다.[禮羅加璧至 薦鶚與雲連]”라 하였고, 한유(韓愈)의 <송온조처사서(送溫造處士序)>에 “대부 오공(烏公)이 하양(河陽)에 부임한 지 3개월 만에 석생(石生)을 인재라 하여 예의로 그물을 만들어 [禮爲羅] 그물질하여 막하(幕下)로 데려갔고, 몇 달이 못 되어 온생(溫生)을 인재라 하여 석생을 중매로 삼고 예의로 그물을 만들어 또 그물질하여 막하로 데려갔다.”라 하였다. ‘천구(天球)’는 옹주(雍州)에서 생산되는 옥 이름으로, 색이 하늘빛을 띤다. 《서경(書經)》 <고명(顧命)>에, “옥을 오중(五重)으로 진열하고 보물을 진열하니……대옥(大玉)과 이옥(夷玉)과 천구(天球)와 하도(河圖)는 동서(東序)에 있다.[越玉五重 陳寶……大玉 夷玉 天球 河圖 在東序]”라 하였다.
- 1011 학생(郝生)의……쪼고 : ‘학생(郝生)’은 진(晉)나라 사람 학룡(郝隆)을 가리킨다. 학룡이 칠석날 대낮에 밖으로 나가 하늘을 향해 배를 드러낸 채 누워 있기에 어떤 사람이 그 까닭을 물으니, “나는 내 배속에 들어 있는 서책들을 벌에 쪼고 있다.”라 하였다는 고사가 전한다. 《世說新語 排調》
- 1012 취옹(醉翁)의……휘두르기를 : ‘취옹(醉翁)’은 송나라 구양수(歐陽脩)의 호다. ‘장대같이 큰 붓끝을 휘두른다’는 것은 구양수의 시 <여산고(廬山高)>에서 여산(廬山)에 은거한 유헌(劉渙)의 고상한 절조를 찬미한 끝에 “장부의 장절로 그대 같은 이 드물 테니, 아 내가 그 길 말하러 해도 장대 같은 큰 붓을 어떻게 얻으랴.[丈夫壯節似君少 嗟我欲說安得巨筆如長杠]”라 한 데서 유래한 말로, 문장 솜씨가 매우 뛰어난 것을 뜻한다.
- 1013 두 시어사(竇侍御使)의……돌려 : ‘두 시어사(竇侍御使)’는 당나라 때의 시어사(侍御使) 두군(竇群)을 가리킨다. 두보(杜甫)는 상주하러 가는 두군을 위해 <입주행증서산검찰사두시어(入奏行贈西山檢察使竇侍御)>라는 시를 지어 주었다. 《杜少陵詩集 卷10》
- 1014 완화계(浣花溪)의……찾아오기를 : ‘완화계(浣花溪)’는 두보(杜甫)의 초당(草堂)이 있던 촉(蜀) 땅 성도(成都) 금강(錦江) 지류의 시내 이름으로, 김만영 자신의 은거 공간을 비유한 것이다. 김한탁에게 자신의 거처로 와서 함께 노닐자고 권유한 말이다.
- 1015 눈앞……사고 : 두보(杜甫)의 시 <입주행증서산검찰사두시어(入奏行贈西山檢察使竇侍御)>에, “그대 위해 술을 사거든 눈앞 가득 살 것이고, 하인에게겐 쌀밥 주고 말에게 푸른 풀 주리라.[爲君酤酒滿眼酤 與奴白飯馬青莠]”라 한 데서 취해 온 말이다.

듣건대 푸른 바다 서쪽 해안이 동쪽 제(齊) 땅이라 하니 聞道碧海西岸是東齊
 옛날에 노중련(魯仲連)이 바다 언덕을 밟았다고 하더군¹⁰¹⁶ 往聞魯連蹈海邱

두 번째

其二

곤륜산(崑崙山) 북쪽 줄기 다시 동쪽으로 흐르니 崑山北脉又東流
 흘러서 청구(靑邱)의 삼백 고을¹⁰¹⁷을 이루었네 流作靑邱三百州
 삼경(三京)¹⁰¹⁸이 아름다움을 홀로 독차지하지 않으니 三京不獨擅佳麗
 이남(二南)¹⁰¹⁹의 웅장한 도읍 몇 년이나 이름을 떨쳤나 二南雄都鳴幾秋
 금강(錦江)¹⁰²⁰의 형승 영남과 호남에서 제일이니 錦江形勝甲嶺湖
 마치 바퀴처럼 도는 소용돌이가 작은 물거품 가까이 있는 듯 有若靱渦隣微漚
 두세 명의 준걸이 땅의 영기(靈氣)를 받아 태어났으니 數三豪俊稟地靈
 가을에는 귀뚜라미 울고 어두워지면 하루살이 나오는 법이라네¹⁰²¹

秋生蟋蟀陰蜉蝣

1016 옛날에……하더군 : ‘노중련(魯仲連)’은 전국 시대 제(齊)나라의 고사(高士)다. 그가 조(趙)나라에 가 있을 때 진(秦)나라 군대가 조나라의 서울인 한단(邯鄲)을 포위하였다. 이때 위(魏)나라가 장군 신원연(新垣衍)을 보내 진나라 임금을 천자로 섬기면 포위를 풀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노중련이 “진나라가 방자하게 천자를 참칭(僭稱)한다면 나는 동해(東海)를 밟고 빠져 죽겠다.”라 하니, 진나라 장군이 이 말을 듣고 군사를 후퇴시켰다 한다. 《史記 卷18 魯仲連列傳》

1017 청구(靑邱)의 삼백 고을 : 곧 우리나라를 가리킨다.

1018 삼경(三京) : 남경(南京)인 서울, 중경(中京)인 개성(開城), 서경(西京)인 평양(平壤)을 말한다.

1019 이남(二南) : 영남과 호남을 말한다.

1020 금강(錦江) : 오늘날의 영산강을 말한다. 나주(羅州)의 옛 이름이 금성(錦城)이므로 영산강을 금천(錦川) 또는 금강(錦江)이라고도 부른다.

1021 두세……법이라네 : 땅의 영험한 기운에 힘입어 호남에서 훌륭한 인재가 배출될 수 있었다고 말한 것이다. 이는 한(漢)나라 왕포(王褒)의 〈성주특현신송(聖主特賢臣頌)〉에, “세상에 반드시 청스럽고 지혜로운 군주가 있는 뒤에야 현명한 신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법이 포효하면 바람이 거세어지고 용이 일어나면 구름이 일며 귀뚜라미는 가을을 기다려 울고 하루살이는 어두운 때에 나오는 것입니다.[世必有聖知之君而後 有賢明之臣 故虎嘯而風冽 龍興而致雲 蟋蟀踈秋吟 蜉蝣出以陰]”라 한 데서 취해 온 구절이다.

정상(鄭相)이 세운 공업(功業) 동한(東韓)에서 으뜸이니¹⁰²² 鄭相功業冠東韓
 큰 길을 따르되 걸음을 알맞게 하였지¹⁰²³ 式遵大路行猶猶
 군산(君山)의 밝은 달 금남(錦南)과 접해 있고¹⁰²⁴ 君山霽月接錦南
 동악(東岳)의 흰 구름 창주(滄洲)와 이어져 있네¹⁰²⁵ 東岳白雲連滄洲
 송로(松老)의 문장 오묘한 경지에 들어갔고¹⁰²⁶ 松老文章妙入室
 사옹(思翁)의 심학(心學) 심오한 이치를 궁구하였네¹⁰²⁷ 思翁心學窮深鉤
 전현(前賢)은 이미 떠나가고 물은 부질없이 흘러가니¹⁰²⁸ 前賢已往水空逝

1022 정상(鄭相)아…… 으뜸이니 : ‘정상(鄭相)’은 정철(鄭澈, 1536~1593)을 가리킨다. 본관은 연일(延日), 자는 계함(季涵), 호는 송강(松江)이다. 1551년 조부의 묘가 있는 전라도 담양 창평(昌平)으로 이주하여 기대승(奇大升) 등 당대의 석학들에게 배우고 이이(李珣)·성혼(成渾) 등과도 교류하였다. 1561년 과거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맡았으나, 1578년 진도(珍島) 군수 이수(李銖)의 뇌물사건으로 동인(東人)의 공격을 받아 사직하고 고향으로 낙향하였다. 1589년 우의정으로 발탁되어 정여립(鄭汝立)의 모반사건 때 서인의 영수로서 철저하게 동인 세력을 축출하였고, 다음해 좌의정에 올랐다. 1592년 임진왜란 때 왕을 의주(義州)까지 호종하였고, 다음 해 사은사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이후 동인의 공격으로 사직하고 강화의 송정촌(松亭村)에 우거(寓居)하다가 58세로 별세하였다.

1023 걸음을 알맞게 하였지 : 원문의 ‘유유(猶猶)’는 완급을 적절하게 하는 모양이다. 《예기》〈단궁 상(檀弓上)〉에, “너무 빨리하면 촘스럽고 너무 느리게 하면 소인의 행위가 되니, 군자는 완급(緩急)을 알맞게 한다.[騷騷爾則野 鼎鼎爾則小人 君子蓋猶猶爾]”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1024 군산(君山)의……있고 : 중국 호남(湖南) 동정호(洞庭湖) 어귀에 있는 산으로, ‘상산(湘山)’이라고도 한다. ‘금남(錦南)’은 김만영이 살고 있는 금강 남쪽을 가리키는 듯하나, 미상이다.

1025 동악(東岳)의……있네 : ‘동악(東岳)’은 중국의 오악(五岳) 가운데 하나인 태산(泰山)을 가리킨다. ‘창주(滄洲)’는 산수가 아름다운 은사(隱士)의 거처를 뜻하는 말로 흔히 사용된다. 위(魏)나라 완적(阮籍)의 〈위정충권진왕전(爲鄭冲勸晉王牋)〉에, “창주에 가서 지백에게 인사하고 기산에 올라 허유에게 읊을 한다.[臨滄洲而謝支伯 登箕山以揖許由]”라 한 대목이 보인다.

1026 송로(松老)의……들어갔고 : ‘송로(松老)’는 정철(鄭澈)을 가리킨다. 정철의 호가 ‘송강(松江)’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원문의 ‘입실(入室)’은 학문이 상당한 경지에 올랐음을 비유하는 말로, 《논어》〈선진(先進)〉에, “자로(子路)는 마루에는 올랐으나 아직 방에는 들어오지 못했다.[由也 升堂矣 未入於室也]”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1027 사옹(思翁)의……궁구하였네 : ‘사옹(思翁)’은 박순(朴淳, 1523~1589)을 가리킨다. 본관은 충주(忠州), 자는 화숙(和叔), 호는 사암(思菴)이다. 1553년 과거에 급제하여 홍문관 응교, 이조 참의, 대사헌, 예조 판서, 우의정, 좌의정 등을 역임하였다. 성리학에 밝고 《주역》에 조예가 깊었다. 원문의 ‘심구(深鉤)’는 심오한 이치를 발견한다는 말로, 《주역(周易)》〈계사전(繫辭傳)〉에, “숨겨진 것을 찾고 심원한 것을 끌어내어 천하의 길흉을 정하고 천하의 힘써야 할 일을 이루는 것은 시조와 거북보다 더 큰 것이 없다.[探蹟索隱 鉤深致遠 以定天下之吉凶 成天下之亹亹者 莫大乎蓍龜]”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1028 물은 부질없이 흘러가니 : 원문은 ‘수공서(水空逝)’다. 《논어》〈자운(子罕)〉에, “공자가 시

낙엽 진 빈 산에 꽃이 눈을 어지럽히네	葉落空山花亂眸
풍화(風花)와 설월(雪月) 누가 품평하는가 ¹⁰²⁹	風花雪月孰品題
한 점의 한가로운 갈매기 물결 위에 떠 있네	一點閒鷗波上浮
연전의 멋진 유람에 어찌 뜻이 없겠는가	年前勝覽豈無意
들새는 도리어 나의 맑은 노닐을 의아해 하네	野鳥却訝吾清遊
일찍이 연석(燕石)을 가지고 보석 가게에 팔았는데 ¹⁰³⁰	曾將燕石銜寶肆
좋은 옥돌로 와서 수창해 주심을 외람되이 입었네 ¹⁰³¹	猥荷良璞來相酬
난새가 현포(玄圃)에 날자 못 신선 내려오고 ¹⁰³²	鸞翔玄圃衆仙下
봉황이 구산(緱山)을 떠났어도 맑은 소리 남아있네 ¹⁰³³	鳳去緱山清韻留
이어 강가의 옛날 노닐던 곳을 생각하니	仍思江上舊遊處
뉘싯대 하나 드리우고서 양 갓옷을 걸쳤던 때 언제인가 ¹⁰³⁴	一竿何日披羊裘

넷가에서 말하기를 ‘가는 것이 이와 같구나. 밤이고 낮이고 멈추는 법이 없도다.’라고 하였다. [子在川上曰 逝者如斯夫 不舍晝夜]라 한 데서 온 말이다.

- 1029 풍화(風花)와……품평하는가 : ‘풍화(風花)와 설월(雪月)’은 사계절의 경색(景色)을 뜻한다. 소옹(邵雍)의 <수미음(首尾吟)>에, “제왕과 제후들이 가볍게 포품을 행하여 설월과 풍화를 품평하지 않았네.[皇帝伯輕褒貶 雪月風花未品題]”라 한 데서 유래한 말이다. 《伊川擊壤集 卷20》
- 1030 일찍이……팔았는데 : ‘연석(燕石)’은 연산(燕山)에서 나는 옥 비슷한 돌로, 불품없는 물건을 비유하는 말로 흔히 사용된다. 송(宋)나라의 어리석은 사람이 오대(梧臺) 동쪽에서 이 돌을 얻어서 돌아와 간직하고 큰 보배라고 여겼는데, 주(周)나라 사람이 보고 웃으며 말하기를 “이것은 연석이니 기와나 벽돌과 다를 것이 없다.”라 하자 주인이 노하여 더욱 깊이 감추었다는 고사가 전한다. 《太平御覽 卷51》
- 1031 좋은……입었네 : ‘좋은 옥돌’의 원문은 ‘양박(良璞)’이다. 아직 가공하지 않은 좋은 옥돌로, 아직 등용되지 않은 훌륭한 인재를 비유하는 말로 흔히 사용된다. 여기서는 상대인 김한탁을 가리킨다. 즉 빼어난 재주를 지닌 김한탁이 과거에 보잘것없는 자신을 찾아와 함께 유람을 즐겼음을 말한 것이다.
- 1032 난새가……내려오고 : ‘현포(玄圃)’는 곤륜산(崑崙山) 꼭대기에 있는 신선의 거처로, 기이한 꽃과 나무가 있다고 한다.
- 1033 봉황이……남아있네 : ‘구산(緱山)’은 주(周)나라 영왕(靈王)의 태자인 왕자교(王子喬)가 학을 타고 신선이 되어 떠났다는 산으로, 구지산(緱氏山)이라고도 한다. 왕자교는 피리를 매우 잘 불어 피리로 봉황새의 울음소리를 낼 수 있었는데, 뒤에 신선이 되어 떠난 지 30여 년 만에 이 산 정상에 백학(白鶴)을 타고 내려왔다가 며칠 머무른 뒤 사람들과 작별하고 다시 떠났다고 한다. 《列仙傳 王子喬》
- 1034 뉘싯대……언제인가 : 이 구절은 한(漢)나라 엄광(嚴光)의 고사에서 취해 온 것이다. 엄광은 뒷날 한(漢)나라를 중흥시키는 광무제(光武帝)와 어릴 적에 함께 수학한 사이인데, 광무제가 즉위하자 이름과 성을 바꾸고 은거하였다. 광무제는 그를 등용하고자 그의 초상을 그려 찾

물결이 맑은 은하수와 이어지니 흰 비단을 누인 듯하고 波連清漢練素綃
 조수(潮水)가 가람(奇巖)을 때라니 옥 경쇠를 울리는 듯하네¹⁰³⁵ 潮打奇巖鳴玉球
 갈대 섬의 갈매기와 해오라기 꿈이 어찌 깊으랴 蘆洲鷗鷺夢豈圓
 지나가는 나의 모습 우두커니 바라보며 자주 머리를 드네 佇望吾行頻舉頭
 깊은 산의 병든 학 수풀 언덕에 막혔으며 窮山病鶴滯林臯
 두견새¹⁰³⁶ 울음소리에 산이 더욱 그윽해지네 蜀魄一聲山更幽
 그윽한 마음으로 매어 두지 않은 배를 한가로이 수리하고 幽懷閒理不繫舟
 다시 복사꽃 떠 있는 봄날 물결을 찾아가네¹⁰³⁷ 再趁桃花春水流
 형께서는 부디 목란선(木蘭船)¹⁰³⁸을 대고서 기다리시기를 兄須艤待木蘭楫
 무릉(武陵)¹⁰³⁹이 어찌 홀로 신선의 구역이 되겠는가 武陵豈獨爲仙區

게 하였는데, 제(齊)나라에서 상언(上言)하기를 “어떤 남자가 양 갓옷을 입고 못가에서 낚시
 질하고 있다.[有一男子 披羊裘釣澤中]”라 하였다. 이에 광무제는 그가 엄광이라 판단하여
 불러 오도록 하였으나, 엄광은 물러나 일생을 부춘산(富春山)에서 은거하였다. 《後漢書 卷
 113 逸民列傳 嚴光》

1035 옥……듯하네 : 원문은 ‘명옥구(鳴玉球)’다. ‘명구(鳴球)’는 옥으로 만든 경쇠를 쳐서 울린
 다는 뜻으로, 《서경》〈익직(益稷)〉에 “옥경(玉磬)을 쳐서 울리고 금슬을 어루만지며 노래한
 다.[戛擊鳴球 搏拊琴瑟以詠]”라 한 대목이 보인다.

1036 두견새: 원문의 ‘촉백(蜀魄)’은 ‘촉혼(蜀魂)’이라고도 하는데, 곧 두견새를 가리킨다. 전국
 시대 촉(蜀)나라 망제(望帝) 두우(杜宇)가 재상 벌령(鰲令)에게 대규모 운하 공사를 맡기고
 그의 아내와 간음하였다가, 뒤에 이 때문에 왕위를 뺏기고 달아나 두견새가 되었다. 이에 촉나
 라 사람들이 망제를 측은히 여겨 ‘촉백(蜀魄)’ 또는 ‘망제혼(望帝魂)’이라 하였고, 그 울음
 소리가 ‘불여귀거(不如歸去)’라 하는 것 같다고 하여 ‘불여귀’라고도 하였다. 《太平御覽》

1037 다시……찾아가네 : 도연명(陶淵明)의 〈도화원기(桃花源記)〉에, 진(晉)나라 무릉(武陵)의 어
 부가 복사꽃이 흘러 내려오는 물길을 따라 거슬러 올라갔다가 진(秦)나라의 난리를 피해 들
 어온 사람들이 세상일 잊고 평화롭게 살고 있는 도화원에 가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陶
 淵明集 卷6 桃花源記》

1038 목란선(木蘭船) : 향목(香木)인 목란(木蘭)으로 만든 배라는 뜻으로, 배에 대한 미칭(美稱)
 이다.

1039 무릉(武陵) : 전설상에 존재하는仙境(仙境)인 무릉도원(武陵桃源)을 가리킨다.

금릉수(金陵守)¹⁰⁴⁰ 조씨(趙氏)【성(愷)】에게 부쳐 주다

寄贈金陵守趙【愷】

낙양(洛陽)의 재자(才子)인 청운(靑雲)의 선비 ¹⁰⁴¹	洛陽才子靑雲士
형승으로 이름난 호남 고을에 수령으로 나왔네	出宰形勝湖中縣
호랑이와 용처럼 웅크린 옛 금릉 ¹⁰⁴²	虎踞龍蹲古金陵
푸른 산과 맑은 물이 비단처럼 선명하네	靑山白水明如練
추제(推擠)와 결과(結課) ¹⁰⁴³ 는 여사(餘事)에 부치고서	推擠結課付餘事
시 읊조리고 거문고와 술 즐기며 회포를 스스로 달래네	嘯咏琴樽懷自遣

1040 금릉수(金陵守) : ‘금릉(金陵)’은 옛날 전라도 강진현에 속해 있던 군 이름이다. 《新增東國輿地勝覽 卷37 全羅道 康津縣》

1041 낙양(洛陽)의……선비 : ‘청운(靑雲)의 선비’는 높은 벼슬에 오른 선비를 말한다. 조성(趙愷)이 서울 출신으로서 벼슬에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듯하다.

1042 호랑이와……금릉 : 원문은 ‘호거용준(虎踞龍蹲)’이다. 지형이 몹시 험준한 것을 형용한 말이다. 제갈량(諸葛亮)이 오(吳)나라 도읍인 건업(建業)에 와서 산천의 형세를 살펴본 뒤에 “중산은 용이 서린 듯하고, 석두산은 범이 웅크린 듯하니, 이곳은 제왕이 거할 곳이다.[鍾山龍盤 石頭虎踞 此帝王之宅]”라 한 데서 유래한 말이다. 《古今事文類聚 續集 卷1 吳都形勢》 건업의 옛 이름이 ‘금릉’으로 전라도 금릉과 이름이 같기 때문에 이러한 고사를 사용한 것이다.

1043 추제(推擠)와 결과(結課) : ‘추제(推擠)’는 소식(蘇軾)의 <오잠령조동년야옹정(於潛令刁同年野翁亭)>에, “야옹(野翁)에게 묻노니 무엇을 즐거워하여 삼 년 동안 떠나지 않아 번거롭게 밀어내게 하는가.[問翁何所樂 三年不去煩推擠]”라 한 데서 유래한 말인데, 이에 대해 이만홍(李德弘)은 <고문전집질의(古文前集質疑)>에서 “추제(推擠)는 손으로 밀어서 가게 하고 밀쳐서 없어지게 하는 것이다. 수령된 자가 문서를 작성하고 정령(政令)을 시행하는 사이에 자주 상관의 힐책을 당하며 혹은 어리석은 백성들로부터 원망과 비방을 받는 것이 마치 남으로부터 밀쳐내는 욕을 당하는 것과 같으므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以手推而去之 擠而仆之也 爲守令者 簿書期會之間 屢遭上官詰責 或爲頑民怨謗 如受人推擠之辱故云]”라는 말로 ‘번추제(煩推擠)’를 설명하였다. 《良齋集 續集 卷4 古文前集質疑》 또 ‘결과(結課)’는 공치규(孔稚圭)의 <북산이문(北山移文)>에, “거문고와 노랫소리가 이미 끊기고 술과 시 짓는 것을 계속하지 못하여, 항상 결과(結課)에 마음이 매여 있고 매양 옥사(獄事)를 판단하느라 어지럽다.[琴歌既斷 酒賦無續 常縹縹於結課 每紛紛於折獄]”라 한 데서 유래한 말인데, 이에 대해 이만홍은 <고문후집질의(古文後集質疑)>에서 “무릇 일을 끝마친 것을 ‘결’이라 하며, 날마다 규식(規式)을 헤아리는 것을 ‘결’이라 하니, 관사(官事)에 ‘결’이 있고 ‘과’가 있음을 말한 것이다.[凡事了畢謂之結 日計程式謂之課 言官事有結有課]”라고 설명하였다. 《良齋集 續集 卷4 古文後集質疑》 즉 ‘추제’와 ‘결과’는 모두 지방 수령으로서 행해야 하는 번다한 공무를 뜻하는 말이다.

황강(黃岡)의 시인은 대나무 자라기 좋음을 읊고¹⁰⁴⁴ 黃岡騷客詠宜竹
 직하(稷下)의 제생(諸生)은 책을 다투어 집네¹⁰⁴⁵ 稷下諸生爭執卷
 그대 오경(五經)의 상자를 다 보는 것이 사랑스러우니¹⁰⁴⁶ 憐君閱盡五經筭
 당송(唐宋)의 시명(詩名)을 옥의 값 구하여 파네¹⁰⁴⁷ 唐宋詩名求玉銜
 수주(隨州)로 떠나는 행색 제갈각(諸葛覺)과 같으니 隨州行色許諸葛
 바다에 들어가 용 찾는 모습 장차 볼 수 있을 것이네¹⁰⁴⁸ 入海探龍將可見
 바람과 달을 읊조리는 것 정신을 상쾌하게 할 만하니 咳風嗽月足暢神
 독을 사다가 구슬을 감추어 두는 것¹⁰⁴⁹ 또한 사랑할 만한 일이니

1044 황강(黃岡)의……. 읊고 : ‘황강(黃岡)’은 중국 호북성(湖北省) 황주부(黃州府)의 별칭이며, ‘황강의 시인’은 송(宋)나라 왕우칭(王禹偁)을 가리킨다. 왕우칭이 황주 태수가 되었을 적에 황주의 특산물인 큰 대나무를 베어다가 기와 대신에 지붕을 덮어 누각을 짓고 직접 <황주죽 루기(黃州竹樓記)>를 지어 그 사실을 자세히 설명하였는데, 그 기문 첫머리에 “황강 지역에 대나무가 많아 큰 것은 서까래만 하다.[黃岡之地多竹 大者如椽]”라 하였다. 《古文眞寶 後集 卷6 黃州竹樓記》

1045 직하(稷下)……. 집네 : ‘직하(稷下)’는 전국 시대 제나라의 도성인 임치(臨淄)의 직문(稷門) 부근 구역을 이르는 말이다. 제 선왕(齊宣王)이 학사와 유세하는 선비를 좋아하여 직문에 학관(學館)을 지어 놓고 추연(鄒衍)·순우곤(淳于髡)·전병(田駢)·접자(接子)·신도(慎到)·환연(環淵) 등 76인의 선비를 초빙하여 집을 주고 상대부(上大夫)로 삼아 직무 없이 토론만 하게 하였다고 한다. 《史記 卷74 孟子荀卿列傳》

1046 그대……. 사랑스러우니 : 이는 한(漢)나라 문인 변소(邊韶)의 고사에서 취해 온 구절이다. 변소는 자가 효선(孝先)으로, 문학으로 이름나 수백 명의 학생을 가르쳤다. 하루는 그가 낮잠을 자고 있는데 한 제자가 그를 조롱하기를, “변효선은 배가 뚱뚱하여 글 읽기는 싫어하고 잠만 자려고 한다.[邊孝先 便便腹 懶讀書 但欲眠]”라 하였다. 그러자 변소가 대꾸하기를, “뚱뚱한 내 배는 오경의 상자이고, 잠만 자려고 하는 것은 경을 생각하기 위함이다.[腹便便 五經筭 但欲眠 思經事]”라 하였다. 《後漢書 卷80 文苑列傳 邊韶》

1047 당송(唐宋)의……. 파네 : ‘옥의 값을 구하여 판다’는 것은 자신의 재능을 세상에 펼치는 것을 의미한다. 《논어》 <자한(子罕)>에, 자공(子貢)이 공자에게 묻기를 “여기에 아름다운 옥이 있다면, 상자에 넣어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좋은 값을 구하여 파시겠습니까?”라 하니, 공자가 “팔아야지, 팔아야지! 나는 좋은 값을 기다리는 사람이다.[有美玉於斯 韞櫝而藏諸 求善賈而沽諸 子曰 沽之哉 沽之哉 我待賈者也]”라 한 데서 유래한 말이다. 조성이 당나라와 송나라의 시풍을 추구하여 당대에 이름이 났음을 말한 것이다.

1048 수주(隨州)로……. 것이네 : 조성의 학문과 식견이 앞으로 매우 깊고 넓어질 것이라는 뜻이다. 당나라 한유(韓愈)가 수주(隨州)로 독서하러 떠나는 제갈각(諸葛覺)을 전송하며 지은 <송 제갈각왕수주독서(送諸葛覺往隨州讀書)>에, “바다에 들어가 물고기와 용을 볼 수 있을 것이요, 날개를 쳐서 황곡도 따를 수 있을 것이다.[入海觀魚龍 矯翮逐黃鵠]”라 한 데서 취해 온 말이다.

1049 독을……. 것 : 자신의 재능을 세상에 펼치지 않고 감추어 두는 것을 뜻한다. 《논어》 <자한(子罕)>에, 자공(子貢)이 공자에게 묻기를 “여기에 아름다운 옥이 있다면, 상자에 넣어 두시겠습니까

買櫝藏珠須亦戀

명부(明府)¹⁰⁵⁰의 맑은 시 혹은 얻을 수 있겠는가
멀리 부쳐서 시를 가득한 나의 마음 풀어 주시기를

明府清詩倘可得
遠寄開我情婉轉

중제에게 부쳐 주다 【해영(海英)¹⁰⁵¹이다. 호는 광곡자(廣谷子)다.】

寄贈從弟【海英號廣谷子】

그대는 보지 못하였는가 위왕(魏王)의 박이 통처럼 커서 君不見魏王之瓠大如樽
구름 돛단배가 떠오르고자 해도 강호가 좁은 것을¹⁰⁵² 雲帆欲舉江湖窄
또 보지 못하였는가 공명(孔明)의 사당에 있는 잣나무 언덕이나 산처럼
무거워 又不見孔明廟栢邱山重
만 마리 소가 고개를 내젓고서 끝내 버려둔 것을¹⁰⁵³ 萬牛回頭終棄擲

니까, 아니면 좋은 값을 구하여 파시겠습니까?”라 하니, 공자가 “팔아야지, 팔아야지! 나는 좋은 값을 기다리는 사람이다.[有美玉於斯 韞櫝而藏諸 求善賈而沽諸 子曰 沽之哉 沽之哉 我待賈者也]”라 한 대목을 참고한 구절이다.

1050 명부(明府) : 지방관에 대한 경칭으로, 군수(郡守)나 현감(縣監) 등을 일컫는 말이다.

1051 해영(海英) : 김만영의 중제 김해영(金海英)을 가리킨다. 자세한 사항은 미상이다.

1052 위왕(魏王)의……것을 : 이는 다음과 같은 고사에서 취해 온 구절이다. 장자(莊子)의 친구 혜자(惠子)가 일찍이 장자에게 말하기를, “위왕이 나에게 큰 박씨 하나를 보내 주므로 이것을 심었더니 닳 심들이 박이 열렸는데, 그 속에다 음료수를 채워 놓으니 무거워서 들 수가 없었고 다시 두 쪽으로 쪼개어 바가지를 만들었으나 너무 넓어서 쓸 수가 없었네. 속이 텅 비어 크기는 했지만, 나는 아무 소용이 없어 부수어 버렸네.[魏王貽我大瓠之種 我樹之成 而實五石以盛水漿 其堅不能舉也 剖之以爲瓢 則瓠落無所用 非不鳴然大也 吾爲其無用而措之]”라 하였다. 그러자 장자가 말하기를, “지금 자네에겐 닳 심들이 바가지가 있었는데, 어찌하여 그것을 큰 통으로 만들어 강호가 띄울 생각은 하지 못하고, 그것이 너무 커서 쓸데가 없다고 격정만 하는가[今子有五石之瓠 何不慮以爲大樽而浮乎江湖 而憂其瓠落無所容]”라 하였다. 《莊子 逍遙遊》 또 ‘구름 돛단배’의 원문은 ‘운범(雲帆)’으로, 이백(李白)의 <행로난(行路難)>에, “거센 바람에 풍랑 헤쳐 나갈 기회가 오거든, 곧장 구름 돛 걸고 큰 바다를 건너려다.[長風波浪會有時 直掛雲帆濟滄海]”라 한 데서 유래한 말이다. 김해영의 재능이 몹시 뛰어남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1053 공명(孔明)의……것을 : ‘공명(孔明)’은 촉한(蜀漢)의 승상 제갈량(諸葛亮)을 가리킨다. 사천성(四川省) 금관성(錦官城)에 있는 그의 사당에는 거대한 잣나무가 있다. 두보(杜甫)의 <촉상(蜀相)>에, “승상의 사당을 어느 곳에서 찾을꼬, 금관성 밖에 잣나무가 늘어진 곳이다.[丞相祠堂何處尋 錦官城外栢森森]”라 한 대목이 보인다. 또 ‘만 마리 소가 고개를 내젓

구기자나무와 가래나무 병들고 늙어 한 척이 썩었고¹⁰⁵⁴ 杞梓病老一尺朽
 큰 용광로에서 주머니 속의 철을 다투어 거두네¹⁰⁵⁵ 洪鑪競收囊中鐵
 지인(至人)의 마음속에 본래 다른 사물 없으니¹⁰⁵⁶ 至人胸中本無物
 세상 밖의 부침을 어찌 말할 것이 있겠는가 世外浮沉安足說
 풍운처럼 변화하는 모습을 사람들은 공교롭게 여기는데 風雲變態人所巧
 눈과 달 같은 정신은 내가 스스로 부족하게 여기네 雪月精神吾自拙
 옛날에 내가 그대와 어린 시절¹⁰⁵⁷을 함께하였는데 昔我與君同髫鬢

고서 끝내 버려두었다'는 것은 두보의 <고백행(古柏行)>에, “큰 집이 무너질 때 들보를 쓰러
 했더니, 산처럼 무거워 만 마리 소가 끌다 힘에 부쳐 고개 내젓누나.[大廈如傾要棟樑 萬牛回
 首丘山重]”라 한 데서 유래한 말로, 나무가 몹시 크고 무거움을 뜻한다. 김해영의 재능이 몹
 시 뛰어난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1054 구기자나무와……썩었고 : ‘구기자나무와 가래나무’는 대들보감으로 쓸 수 있을 정도로 크
 고 반듯하게 자라는 나무로, 뛰어난 자질을 지닌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이 구절은 춘
 추 시대 노(魯)나라의 자사(子思)가 “성인이 사람을 관리로 등용하는 것은 장인이 나무를 사
 용하는 것과 같아서 그 장점은 취하고 단점은 버립니다. 이 때문에 구기자나무나 가래나무가
 몇 아름이 될 정도로 크면, 몇 자 정도 썩은 부분이 있어도 훌륭한 장인은 이를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夫聖人之官人 猶匠之用木也 取其所長 棄其所短 故杞梓連抱而有數尺之朽 良
 工不棄]”라 한 데서 취해 온 것이다. 《資治通鑑 卷1 周紀1 安王 25年》

1055 큰 용광로에서……거두네 : 원문의 ‘홍로(洪鑪)’는 대로(大鑪)와 같은 말로, 만물을 만들
 어내는 큰 용광로라는 뜻이다. 천지(天地)·조물(造物) 등에 대한 비유로 쓰인다. 《장자(莊
 子)》〈대종사(大宗師)〉에, “지금 한결같이 천지(天地)를 큰 용광로로 삼고 조화옹을 큰 대
 장장이로 삼는다면 어디에 간들 안 될 것이 있겠는가.[今一以天地爲大鑪 以造化爲大冶 惡
 乎往而不可哉]”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또 ‘주머니 속의 철’은 ‘낭중지추(囊中之錘)’와 통
 하는 말이다. 전국 시대 조(趙)나라 평원군(平原君)이 문객인 모수(毛遂)에게 “현사의 처세
 는, 마치 송곳이 주머니 속에 들어 있어 그 끝을 당장 볼 수 있는 것과 같은데, 지금 당신이
 나의 문하에 있는 3년 동안 아무도 당신을 칭송한 것이 없으니, 이는 당신에게 특별한 것이 없
 어서이다.[夫賢士之處世也 譬若錘之處囊中 其末立見 今先生處勝之門下三年於此矣 左
 右未有所稱誦 勝未有所聞 是先生無所有也]”라 하자, 모수가 “내가 진작 주머니 속에 들
 어갈 수만 있었다면 송곳 자루까지 다 나왔을 것이요, 그 끝만 보일 뿐이 아니었을 것이다.[使
 遂蚤得處囊中 乃穎脫而出 非特其末見而已]” 한 뒤에, 평원군과 함께 조(楚)나라에 가서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여 크게 인정을 받은 고사에서 유래하였다. 《史記 卷76 平原君列傳》
 조물주가 김해영과 같이 훌륭한 인재를 낳았음을 말한 것이다.

1056 지인(至人)의……없으니 : ‘지인(至人)’은 도덕적 수양이 자극한 경지에 이른 사람을 가리킨
 다. 《순자(荀子)》〈천론(天論)〉에, “천인의 분별에 밝으면 지인이라 할 수 있다.[明於天人之
 分 則可謂至人矣]”라 하였다. ‘다른 사물 없다’는 것은 마음에 잡념이 존재하지 않음을 말
 한다.

1057 어린 시절 : 원문의 ‘초흔(髫鬢)’이다. 다박머리에 이를 갈 시기의 어린아이로, 곧 7, 8세 정도
 의 아이를 말한다.

책과 칼 고개를 숙이고서 배우려 하지 않았네 ¹⁰⁵⁸	書劍不肯低頭學
중년의 지기(志氣) 무지개 ¹⁰⁵⁹ 를 토해 내니	中身志氣吐虹霓
장대한 마음으로 곧장 하늘의 해를 부지하고자 하네	壯心直欲扶天日
근년 이래로 나는 몇 이랑의 밭을 경작하는데	年來我耕數畝田
그대는 붓을 쥐고서 ¹⁰⁶⁰ 아이들을 향해 따라가네	弄觚君向羣兒逐
요즈음 듣건대 그대 예라(禮羅) ¹⁰⁶¹ 에서 빠졌다고 하니	此日聞君漏禮羅
한 번 웃고서 다시 청산(靑山)의 바위에 눕네	一笑更臥靑山石
누가 알겠는가 웃음 속에 품은 바 있어	誰知笑中有所懷
산골 아이에게 술잔 속의 좋은 술 ¹⁰⁶² 따르기를 재촉하는 줄을	山童催酌盃中綠
금강(錦江) ¹⁰⁶³ 이 비껴 흐르는 수백 리	錦江橫流數百里

1058 책과……않았네 : ‘책과 칼’은 선비가 이루어야 할 문(文)과 무(武)를 상징한다. 당나라 맹호연(孟浩然)의 시 <자락지월(自洛之越)>에, “삼십 년을 허둥지둥, 글과 칼 다 못 이뤘네.[遑遑三十年 書劍兩無成]”라 한 데서 유래한 말이다. 또 ‘고개를 숙이고 배운다’는 것은 어떠한 것을 집중해서 익힌다는 뜻이다. 한탁이 작자보다 어리지만 작자보다 뛰어나서 고개를 숙여 배우려 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1059 무지개 : 원문은 ‘홍예(虹霓)’다. 강개한 의기(義氣)를 뜻하는 말이다. 참고로 삼국 시대 위(魏)나라 조식(曹植)의 <칠계(七啓)>에, “옷소매를 휘날리면 구주(九州)에 바람이 일고, 강개한 마음 품으면 그 기운이 무지개를 이룬다.[揮袂則九野生風 慷慨則氣成虹霓]”라 한 대목이 보인다.

1060 붓을 쥐고서 : 원문은 ‘농고(弄觚)’다. ‘고(觚)’는 붓을 뜻하는 말로, 진(晉)나라 육기(陸機)의 <문부(文賦)>에, “혹은 고를 잡고 빨리 짓는가 하면, 혹은 호를 입에 물고 더디게 짓기도 한다.[或操觚以率爾 或含毫而邈然]”라 하였는데, 그 주(註)에 “고는 나무인데, 옛 사람들이 그것으로 붓을 삼았다.”라 하였다. 《文選 卷17》 즉 ‘농고’는 붓을 잡고 시를 짓는다는 의미다.

1061 예라(禮羅) : 그물로 새나 물고기를 잡듯이 군주가 예(禮)로써 인재(人才)를 맞아들어 등용하는 것을 뜻한다. 당나라 대숙륜(戴叔倫)의 <기선사사화상인(寄禪師寺華上人)>에 “예라 예다 벽옥을 더해 와서, 훌륭한 인재를 천거해 구름과 나란히 올린다.[禮羅加璧至 薦鶚與雲連]”라 하였고, 한유(韓愈)의 <송온조처사서(送溫造處士序)>에 “대부 오공(烏公)이 하양(河陽)에 부임한 지 3개월 만에 석생(石生)을 인재라 하여 예의로 그물을 만들어[以禮爲羅] 그물질하여 막하(幕下)로 데려갔고, 몇 달이 못 되어 온생(溫生)을 인재라 하여 석생을 중매로 삼고 예의로 그물을 만들어 또 그물질하여 막하로 데려갔다.”라 하였다. 당시 김한탁이 과거에서 낙방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듯하다.

1062 술잔……술 : 원문은 ‘배중록(盃中綠)’이다. ‘녹(綠)’은 술의 이칭인 ‘녹의(綠蟻)’를 가리킨다. 술이 익을 무렵 쌀알만한 녹색 기포가 생기는데 그 모양이 마치 개미가 기어가는 것 같아 이를 ‘술개미’라 하고, 그러한 술을 ‘부의주(浮蟻酒)’ 또는 ‘녹의주(綠蟻酒)’라 한다. 즉 여기서의 ‘배중록’은 술잔에 담긴 푸른빛의 좋은 술을 뜻한다.

1063 금강(錦江) : 오늘날의 영산강을 말한다. 나주(羅州)의 옛 이름이 금성(錦城)이므로 영산강을

영해(瀛海)의 삼신산(三神山) ¹⁰⁶⁴ 이 서로 이웃해 있네	瀛海三山相際接
편주(片舟) 위에 뜬 한 조각 달을 미리 털어 놓았으니	預拂片舟一片月
그대와 함께 강굽이에서 실컷 노닐 것이네 ¹⁰⁶⁵	與君爛漫遊江曲
그런 뒤에 뗏목 타고 바다 너머로 나가서 ¹⁰⁶⁶	然後乘桴泛海外
상보(尙父)의 옛 자취를 찾아가 물으리 ¹⁰⁶⁷	往問尙父當年躅

금천(錦川) 또는 금강(錦江)이라고도 부른다.

- 1064 삼신산(三神山) : 중국 전설에 나오는 봉래(蓬萊)·방장(方丈)·영주(瀛州) 세 산을 가리킨다. 중국 동쪽의 발해(渤海) 가운데 있다고 한다.
- 1065 편주(片舟)……것이네 : 김해영이 찾아오면 강에서 즐거운 유람을 할 것이라는 말이다. 이 구절은 이백(李白)의 시 <조춘기왕한양(早春寄王漢陽)>에, “미리 청산의 한 조각 바윗돌의 먼지를 털어 놓았나니, 그대 만나면 며칠 계속 술 마시며 취하리라.[預拂青山一片石 與君連日醉壺觴]”라 한 대목을 참고한 것이다. 《李太白集 卷13》
- 1066 뗏목……나가서 : 《논어》 <공야장(公冶長)>에서 공자(孔子)가 천하의 어지러움을 탄식하며, “도가 행해지지 않으니 뗏목을 타고 바다로나 나갈까 보다.[道不行 乘桴浮于海]”라 하였다.
- 1067 상보(尙父)의……물으리 : ‘상보(尙父)’는 주(周)나라의 태공망(太公望) 여상(呂尙)을 가리킨다. 그는 위수(渭水) 가의 반계(磻溪)에서 낚시질하며 천하에 큰 뜻을 펼 때를 기다리다가 문왕(文王)을 처음 만나 사부(師傅)로 추대되었다. 즉 뗏목을 타고 바다를 건너가 옛적 태공망의 자취를 찾겠다고 말한 것이다.

장계곡(張谿谷)¹⁰⁶⁸의 <세서(洗鋤)>¹⁰⁶⁹ 시에 차운하다

[이 해에 조정에서 대동법(大同法)¹⁰⁷⁰을 반포하였는데, 농민들 가운데 간혹 조세 부담이 심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러므로 시 속에서 언급하였다고 한다.]

次張谿谷洗鋤詩韻【是年朝廷頒大同法，農民往往疑其賦苦。故詩中及之云。】

7월 기망(既望)에 밭일을 마치니
전부(田婦)가 농가의 베풀마¹⁰⁷¹를 빨아 입었네

七月既望田事畢
田婦浣着農布裙

1068 장계곡(張谿谷) : 장유(張維, 1587~1638)를 가리킨다. 계곡(谿谷)은 그의 호. 본관은 덕수(德水), 자는 지국(持國)이다. 1609년 과거에 급제하여 사가독서(賜暇讀書)를 하고 검열·주서 등을 지냈으나 1612년 김직재(金直哉)의 무옥(誣獄)에 연루해 파직되었다. 1623년 인조반정에 가담해 정사공신(靖社功臣) 2등에 녹훈되고 그 뒤 대사간·대사성·대사헌 등을 역임하였다. 1624년 이괄(李适)의 난 때 왕을 공주로 호종한 공으로 이듬해 신풍군(新豐君)에 책봉되었으며 이조 참관·부제학·대사헌 등을 지낸 뒤 대제학에 임명되었다. 이후 대사헌·예조 판서·이조 판서 등을 거쳐 1637년 우의정에 임명되었으나 사직하였다.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문집으로 《계곡집(谿谷集)》이 전한다.

1069 세서(洗鋤) : 이 시는 장유(張維)의 문집인 《계곡집(谿谷集)》 권26에 실려 있는데, 서두에는 다음과 같은 서문이 붙어 있다. “농가에서 김매는 일을 다 끝내고 나서 남녀노소가 한데 모여 먹고 마시는 것을 호미씻이[洗鋤]라고 하는데, 내가 시골에 살면서 그 일을 눈으로 확인했기에 이를 시로 기록하였다.[農家耘事已畢 老少男婦聚飲 謂之洗鋤 余田居目擊其事而記以詩] 원운(原韻)은 다음과 같다. “남정네는 하얀 대오리 갓 머리에 쓰고, 여인네는 푸른 무명 치마. 삶은 밥에 오이 썰어 새우도 듬뿍 올려놓고, 오래 된 웅배기엔 막걸리가 찰랑찰랑. 잔디 덮인 언덕의 뽕나무 그늘 아래, 앉자마자 사방에서 꽃 피우는 농사 얘기. 저쪽은 이쪽보다 김매기가 늦었다느니, 아랫배미가 윗배미보다 벼가 더 잘 됐다느니. 잔 돌리는 청년들에 노인들 거나해져, 짧은 옷 소매 일어나서 춤도 질로 덩실덩실. 일 년 내내 고된 농사 이 날 하루 즐거움, 농촌 들녘 오늘날은 모든 근심 잊으리라. 알다시피 지난해 세금 독촉 아전이 들이닥치자, 바삐 마련하라 사흘 굶기도 하였었지. 농부들 즐거운 일 어찌 쉽게 얻으리요, 가지 말고 천천히 실컷 먹고 취하시라.[田翁白竹笠 田婦青布裙 烹鮑斫瓜薦鰕魚 老瓦盆盛黍酒渾 青莎原頭桑葉陰 坐來四座農談喧 東家耘較西家晚 低田禾比高田繁 少年行酒長老醉 短袖起舞何躑躅 一年作苦一日歡 田家此夕百憂寬 君不見去年吏到索租時 翁姥狂奔三日飢 田家樂事豈易得 勸君醉飽無遽歸]”

1070 대동법(大同法) : 토산(土產)을 원칙으로 한 공물법(貢物法)을 쌀로 종합하여 균등하게 징수하는 수미법(收米法)으로 바꾸어서 선혜청(宣惠廳)에서 거두는 세법(稅法)으로, 광해군 때 경기도부터 실시하여 점차 각지로 확대하였다. 전세(田稅)·삼두미(三斗米) 등과 구별하여 대동미(大同米), 대동포(大同布), 대동전(大同錢) 등으로 불렸으며, 조선 후기 공법(貢法)의 중심이 되었다.

1071 베풀마 : 원문은 ‘포군(布裙)’이다. 베로 만든 치마를 말한다. 한(漢)나라 때 은사인 양홍(梁鴻)의 아내 맹광(孟光)이 가시나무로 만든 비녀에 베풀마[荊釵布裙]만 입었던 데서, 전하여 부

햇보리로 누룩 만들고 햅쌀을 찜고서	新麥麴成新米舂
누런 오이 나물에 거친 미나리를 섞었네	黃瓜菜將麩芹渾
탁주를 거르고 우렁이를 구우니	醞傾濁醪炙田螺
젊은이와 늙은이 다투어 앉아 떠들썩하게 이야기 나누네	少長爭座相喧喧
남녀 모두 술 따라 마셔 저마다 한껏 취하니	男斟女酌各盡醉
습속과 말 소박하여 세련된 모습 없네	俗淳語朴無華繁
질항아리와 나무 술통 예법이 간소하니	瓦樽木榼禮數
손자 안고 아들 손 잡고서 편하게 앉아 있네 ¹⁰⁷²	抱孫携子相箕踞
올해 다행스럽게 작은 풍년이라 저마다 말하니	各言今年幸小豐
생각이 먹고 입는 데 미치지 마음이 조금 풀리네	念及喫着心稍寬
다만 듣건대 관장(官長)이 세 매기는 법을 바꾼다 하니	但聞官長更賦法
풍년에 백성들이 굶주리게 될까 두렵네	樂歲恐見齊民飢
바라노니 장구를 속히 울려 각기 일어나 춤추세	願催長鼓各起舞
이 즐거움 내년에도 돌아온다고 장담하기 어려우니	此樂難保明年歸

중양절(重陽節)에 장병에게 연향을 베푸는 시

重陽饗將士詩

태평한 시대의 천자 한번 용의(戎衣) 입으니 ¹⁰⁷³	昇平天子一戎衣
흰 깃발과 누런 도끼 쥐고서 용퇴(龍堆)에 올랐네 ¹⁰⁷⁴	白旄黃鉞龍堆上

인(婦人)의 검소한 복장을 의미한다.

1072 흰 깃발과……올랐네 : 원문은 '백모황월(白旄黃鉞)'이다. 군대를 지휘하는 의장(儀仗)으로, 군권(軍權)을 뜻한다. 《서경》〈목서(牧誓)〉에, “왕이 왼손으로는 누런 도끼를, 오른손으로는 흰 깃발을 잡고 지휘하였다.[王左杖黃鉞 右秉白旄以麾]”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용퇴(龍堆)’는 서역(西域)의 천산(天山) 남쪽에 있는 사막인 ‘백룡퇴(白龍堆)’를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변방을 뜻하는 말로 사용된다.

1073 가한(可汗) : 왕을 뜻하는 중세 몽골어 ‘khan’의 음역어다. ‘칸[汗]’이라 칭하기도 한다.

1074 왕의 교화를 거부하리오 : 원문은 ‘경왕화(梗王化)’다. ‘경화(梗化)’는 완고해서 교화가 덜 된 나머지 조정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것을 말한다.

긴 창에 가한(可汗) ¹⁰⁷⁵ 의 머리를 높이 거니	長戈高揭可汗頭
승전고로 땅을 울리며 수레를 돌리네	捷鼓殷地回輪鞅
천자께서 쇠고기와 술을 내어 육사(六師)에게 연향을 베푸니	天開牛酒饗六師
이날 맑은 가을이라 하늘이 상쾌하네	此日清秋天宇爽
통일된 산하(山河)에 일월이 밝으니	一統山河日月明
만방(萬邦)에서 옥과 비단을 앞다투어 바치네	萬邦玉帛爭來享
흉악한 오랑캐가 어찌 감히 왕의 교화를 거부하리오 ¹⁰⁷⁶	孽胡豈敢梗王化
한번 노한 천자의 군대 지휘하여 이들을 소탕하였네 ¹⁰⁷⁷	一怒天戈揮掃盪
위엄이 빛나고 매서워 지축(地軸)이 뒤집히고	威靈赫烈地軸翻
갈석(碣石) ¹⁰⁷⁸ 이 무너지려 하여 망량(魍魎) ¹⁰⁷⁹ 을 근심시키네	碣石欲倒愁魍魎
30일로 어찌 완악한 유묘(有苗)만 바로잡으리오 ¹⁰⁸⁰	三旬豈特格頑苗

1075 한번……소탕하였네 : ‘한번 노한 천자의 군대’는 명을 따르지 않는 무리를 정벌하는 천자의 군대를 말한다. 《맹자》〈양혜왕 하(梁惠王下)〉에, “왕이 혁연히 노하여 군대를 정비하였다. [王赫斯怒 爰整其旅]”라는 《시경》〈황의(皇矣)〉의 말을 인용하면서, “문왕(文王)이 한번 노하여 천하의 백성들을 안정시켰다. [文王一怒而安天下之民]”라 찬양한 말이 나온다.

1076 갈석(碣石) : 하북(河北) 또는 열하(熱河)에 있다고 하는 산이다. 《서경》〈우공(禹貢)〉에, “오른쪽으로 갈석을 끼고 돌아서 황하로 들어갔다. [夾右碣石 入于河]”라 하였다.

1077 망량(魍魎) : 산하(山河)를 지키는 귀신이나 도깨비를 가리킨다. 《孔子家語 辨物》

1078 30일로……바로잡으리오 : 순(舜) 임금의 우(禹)에게 유묘(有苗)를 정벌하도록 하였는데, 30일 동안이나 항복을 하지 않았다. 이에 익(益)이 우에게 덕(德)으로써 감동시키기를 권하자 우가 그 말을 옳게 여겨 군대를 철수하였다. 순 임금이 마침내 문덕(文德)을 크게 펴서 간우(干羽)로 동계(東階)와 서계(西階)에서 춤을 추었는데, 70일 만에 유묘가 와서 항복하였다. 《書經 虞書 大禹謨》

1079 만 리의……들어오네 : 천하 만물이 천자의 어진 다스림을 받는다는 말이다. 탕(湯) 임금이 교외로 나갔는데, 사방에 그물을 치고서는 “천하의 모든 것이 내 그물로 들어오게 하소서.”라고 비는 사람을 보았다. 탕 임금은 “아, 모조리 다 잡으려 하는구나.”라 하고, 삼면(三面)에 그물을 쳐 놓고는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 오른쪽으로 가되, 나의 명을 따르지 않는 것만 내 그물로 들어오라. [欲左左 欲右右 不用命 乃入吾網]”라 하였다. 이 말을 들은 제후들은 “탕 임금의 덕이 지극하구나. 그 덕이 금수에게까지 미치다니. [湯德至矣 及禽獸]”라 하였다. 《史記 卷3 殷本紀》

1080 모두(旄頭)가……빛나니 : ‘모두(旄頭)’는 28수(宿) 가운데 하나인 묘성(昴星)을 가리킨다. 오랑캐를 상징하는 별로서, 이것이 환하게 빛나면 흉수가 지고 호병(胡兵)이 전쟁을 일으킨다고 한다. 《史記 卷27 天官書》 ‘상좌(帝座)’는 천시원(天市垣)에 속해 있는 별 이름으로, 곧 황제를 상징한다.

만 리의 금수(禽獸)들이 하늘의 그물에 들어오네¹⁰⁸¹ 萬里禽獸來天網
모두(旄頭)가 다 사라지고 상좌(帝座)가 밝게 빛나니¹⁰⁸² 旄頭滅盡帝座明
옥장(玉帳)¹⁰⁸³ 시원하게 트여 있고 요하(遼河)가 드넓네玉帳敞豁遼河廣
이때는 가을 9월 9일 是時三秋九月九
변방의 하늘 막 개어 시원하고 밝은 기운 가득하네 塞天新晴森爽朗
변경의 바람 더없이 맑고 옥장(玉仗)¹⁰⁸⁴ 높으니 邊風清澈玉仗高
군문에 들어가 엄정하고 분명하게 오랑(伍兩)¹⁰⁸⁵을 배치하네入門嚴明排伍兩
명조(鳴條)¹⁰⁸⁶에서 일 마치고서 <탕서(湯誓)>¹⁰⁸⁷를 열고鳴條事罷啓湯誓
목야(牧野)¹⁰⁸⁸에서 군대 돌아와 군사를 위한 연향을 베풀네牧野師班開武饗
상서(象胥)가 어지러이 모여 이리와 사슴 바치고 象胥雜遯貢狼鹿
방숙(方叔)과 소호(召虎)에게 나란히 관직과 상을 내리네¹⁰⁸⁹ 方召聯翩行爵賞
용안이 잠시 취기로 붉어졌다가 고운 빛이 들어와 떠오르니 龍顏暫醺入彩浮
십 만 군대의 마음 모두 우러르고 사모하네 十萬軍情皆向仰

1081 옥장(玉帳) : 군대에서 원수(元帥)가 거처하는 막사로, 옥처럼 견고하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1082 옥장(玉仗) : 임금의 의장(儀仗)을 가리킨다.

1083 오랑(伍兩) : 고대의 군대 편제 단위다. 5인이 오(伍)가 되고, 5오가 량(兩), 4량이 졸(卒), 5졸이 려(旅), 5려가 사(師), 5사가 군(軍)이 되었다. 《周禮 地官司徒 大司徒》

1084 명조(鳴條) : 중국의 지명이다. 하(夏)나라 걸(桀)이 폭정을 행하자 당시 제후였던 탕(湯)이 군대를 이끌고 하나라의 도움을 공격하여 명조(鳴條)에서 결전을 벌였다. 전투에서 승리한 탕은 걸을 남소(南巢)에 유폐시키고 뒤이어 상(商)나라를 개창하였다. 《書經 仲虺之誥, 伊訓》

1085 탕서(湯誓) : 탕(湯)이 걸(桀)을 정벌하러 갈 때 탕의 국도인 박읍(亳邑)의 백성들이 전쟁을 두려워하므로 정벌의 뜻을 표시한 글이다. 《서경》〈상서(商書)〉의 편명이다.

1086 목야(牧野) : 상(商)나라의 교외 지역으로, 지금의 하남성(河南省) 기현(淇縣) 남쪽에 있다. 주 무왕(周武王)이 주(紂)의 군대와 결전을 벌여 승리를 거둔 곳이다. 《書經 周書 武成》

1087 상서(象胥)가……내리네 : 소식(蘇軾)의 <후석고가(後石鼓歌)>에, “상서(象胥)들 어지러이 모여 이리와 사슴 바치고, 방숙(方叔)과 소호(召虎)는 나란히 홀(笏)과 검은 기장술 하사받았다오.[象胥雜遯貢狼鹿 方召聯翩賜圭鬯]”라 한 데서 취해 온 구절이다. ‘상서(象胥)’는 역관(譯官)으로, 사방 오랑캐의 말에 능통한 자를 말한다. ‘방숙(方叔)과 소호(召虎)’는 주 선왕(周宣王) 때의 현신(賢臣)으로, 각각 형만(荊蠻)과 회이(淮夷)를 평정한 공이 있다. 오랑캐를 평정하여 사방에서 공물을 바치고, 공을 세운 인물들에게 상을 내림을 말한 것이다.

1088 원문(轅門) : 수레의 끝채를 마주 세워 문의 모양을 만든 것으로, 병영(兵營)을 뜻한다.

1089 나라의 운수 : 원문은 ‘보력(寶曆)’이다. 국운(國運) 또는 황위(皇位)의 뜻으로 쓰인다.

들국화를 다투어 가지고서 원문(輓門)¹⁰⁹⁰에서 춤을 추니爭將野菊舞輓門
 만수무강 외치는 소리 천지를 진동시키네 萬壽呼聲動天壤
 변방의 백성 일제히 태평곡(太平曲)을 연주하니 邊民齊奏太平曲
 갑옷 빛이 달에 춤추며 금비늘이 번쩍이네 甲光舞月金鱗晃
 우리 황제 성스러운 무덕(武德) 참으로 하늘이 내려준 것이니 吾皇聖武信天授
 하늘이 내려준 신령한 위덕(威德) 억지로 힘써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네
 天授神威非勉強
 배와 수레 지나는 곳에 밝은 빛 떠올라 있으니 舟車所通戴耿光
 보잘것없는 오랑캐의 비린 기운 속이기 어렵다네 蕞爾腥氛難誣罔
 중천이 만만세토록 크게 밝으니 中天大明萬萬世
 무궁한 나라의 운수¹⁰⁹¹ 천상(天象)¹⁰⁹²에 드리우네 寶曆無算垂乾象
 그대는 보지 못하였는가 연경(燕京)은 오늘날 만사(萬事)가 잘못되어
 君不見燕京今日萬事非
 뜻 있는 선비 가을바람에 비분강개하는 것을 志士秋風悲慨慷

불어난 물을 바라보며

觀漲

어젯밤 곤풍(坤風)¹⁰⁹³이 땅을 휩쓸며 일어나니 昨夜坤風捲地起
 검은 구름 가득하여 용이 들판에서 싸우는 듯하네¹⁰⁹⁴ 黑雲慘慘龍戰野

1090 천상(天象) : 천체의 여러 현상, 즉 천문(天文)을 말한다.

1091 곤풍(坤風) : 남서풍을 가리킨다. ‘곤(坤)’은 방위로 볼 때 남서쪽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1092 용이……듯하네 : 《주역(周易)》〈곤괘(坤卦) 상륙(上六)〉에, “용이 들판에서 싸우니, 그 피가 검고 누렇다.[龍戰于野 其血玄黃]”라 하였다. 1구에서 곤풍(坤風)이 불어온다고 하였으므로 《주역》〈곤괘〉의 이와 같은 구절을 취해 와 이 날의 날씨를 표현한 것이다.

1093 뇌공(雷公) : 전설상의 우레를 맡은 신이다.

1094 해약(海若) : 북해 약(北海若)의 준말로, ‘약(若)’은 바다를 주관하는 신의 이름이다. 《楚辭 卷5 遠遊》

뇌공(雷公)¹⁰⁹⁵이 큰소리로 꾸짖음에 벽력이 진동하고 雷公叱咤霹靂驚
 해약(海若)¹⁰⁹⁶이 어지러이 치달려 바닷물을 몰아 쏟아내네 海若紛騰驅海瀉
 오늘 아침 큰 비로 변하여 내리니 今朝變作大雨來
 말머리에 거위 알 같은 빗방울¹⁰⁹⁷ 하늘에서 내려오네 馬頭鵝卵從天下
 황하(黃河)가 뒤집어지려 하고 태산(泰山)이 무너지니 黃河欲倒泰山傾
 돌 구르고 바위 엎어지며 지붕 기와 날아가네 石走巖翻飛屋瓦
 갑자기 큰 파도가 들판에서 일어나 俄然大浪起原陸
 도랑으로 달려가고 시내에 가득하여 서로 다투네 走瀆豪川相搏射
 어룡(魚龍)은 몸을 숨기고 호표(虎豹)는 달아나니 魚龍隱躍虎豹遁
 쓰러진 돛대와 꺾인 노가 촌사(村舍)에 이르네 傾檣摧楫來村舍
 큰 파도와 거대한 물결 격하게 서로 부딪히니 洪濤巨浪激相舂
 땅 위 생물이건 물 속 생물이건¹⁰⁹⁸ 온전한 것이 없네 羽毛鱗介無全者
 내 의심컨대 황천(皇天)이 오랑캐 누린내를 싫어하여 我疑皇天厭胡羶
 은하수를 부어 말끔히 쓸어냄으로써 決注銀河飛掃灑
 영원히 우리 동방(吾東) 수천 리로 하여금 永使吾東數千里
 비린 기운을 깨끗이 씻어 아아(爾雅)¹⁰⁹⁹를 회복하려는 것인지 淨洗腥氛回爾雅
 그렇지 않으면 하늘 다하고 땅 다한 십이회(十二會)¹¹⁰⁰에 不然天窮地盡十二會

1095 말머리에……빗방울 : 하늘에서 내리는 빗방울의 모양과 크기를 형용한 것이다.

1096 땅……생물이건 : 원문은 ‘우모관개(羽毛裸介)’인데, 문맥을 살펴 ‘관(裸)’을 ‘린(鱗)’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곧 조수(鳥獸)와 어패류를 아울러 말한 것으로, 한유(韓愈)의 <원도(原道)>에, “옛날에 성인이 없었다면 인류가 멸망된 지 오래되었을 것이다. 어찌서인가? 추위와 더위에 적응할 것과 털, 비늘과 껍질이 없으며 음식을 다들 발톱과 이빨이 없기 때문이다.[如古之無聖人 人之類滅 久矣 何也 無羽毛鱗介以居寒熱也 無爪牙以爭食也]”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1097 아아(爾雅) : 아정(雅正)하고 문아(文雅)함으로, 곧 문명(文明)을 의미한다.

1098 십이회(十二會) : ‘일원(一元)’과 같은 말로, 세상이 열린 뒤부터 소멸되기까지의 한 주기를 뜻한다. 송(宋)나라 소옹(邵雍)의 《황극경세(皇極經世)》<관물편(觀物篇)>에, “1원에 12회가 있고, 1회에 30운이 있고, 1운에 12세가 있고, 1세에 30년이 있다. 그러므로 1원은 모두 12만 9600년이다.[一元有十二會 一會有三十運 一運有十二世 一世有三十年 故一元共有十二萬九千六百年]”라 하였다. 즉 한 시대의 종말을 말한 것이다.

1099 혼돈(混沌) : 천지가 개벽하기 전에 원기(元氣)가 나누어지지 않고 한 덩어리로 뭉쳐 있는 상태를 말한다. 《莊子 應帝王》

1100 병자년과 정축년 : 청(淸)나라의 침입을 받아 항복하였던 해인 1636년과 1637년을 말하는 듯

혼돈(混沌)¹¹⁰¹의 물이 길을 가로막아 混沌之水相籠駕
 어둡고 아득하게 긴 밤을 만들었다가 冥冥漠漠作長夜
 병자년과 정축년¹¹⁰² 이후로 조화(造化)를 여는 것인지 子丑以後開造化
 또 의심컨대 삼천 리의 약수(弱水)¹¹⁰³를 동해로 터서又疑三千弱水決東海
 여섯 자라의 삼신산(三神山)¹¹⁰⁴이 서로 베고 누웠는데 六鰲三山相枕藉
 나로 하여금 구천(九天) 너머로 날아오르게 하여 使我飛騰九天外
 세속의 생활과 번뇌¹¹⁰⁵와 이제부터 작별하도록 하는 것인지 烟火塵煩從此謝
 바람이 나의 겨드랑이에 불어오고 깃털이 나의 옷이 되니¹¹⁰⁶ 風吾腋羽吾衣
 곧바로 낭원(閬苑)의 대사(臺榭)¹¹⁰⁷에 오르네 直上閬苑之臺榭
 위로 옥황(玉皇)에게 하소연하여 낭간(琅玕)¹¹⁰⁸을 바치고서 上訴玉皇呈琅玕

하다. 조선은 1636년 12월에 청나라의 침입을 받았는데, 이듬해 1월에 강화도가 함락되고 인조(仁祖)가 삼전도(三田渡)에서 청 태종(淸太宗)에게 항복하였다.

- 1101 약수(弱水) : 신선이 산다는 중국 서쪽의 전설적인 강이다. 길이가 삼천 리나 되며 부력(浮力)이 매우 약하여 기러기의 털도 가라앉는다고 한다. 《서경》〈우공(禹貢)〉에, “약수가 이에 서쪽으로 흐른다.[弱水既西]”라 하였다.
- 1102 여섯 자라의 삼신산(三神山) : ‘여섯 자라’는 바닷속에서 삼신산(三神山)을 머리에 이고 있다는 전설상의 동물이다. 거인국인 용백국(龍伯國)의 어떤 사람이 한 번의 낚시로 이 자라 여섯 마리를 한꺼번에 낚았다고 한다. 《列子 湯問》‘삼신산(三神山)’은 중국 전설에 나오는 봉래(蓬萊)·방장(方丈)·영주(瀛州) 세 산을 가리킨다. 중국 동쪽의 발해(渤海) 가운데 있다고 한다.
- 1103 세속의 생활과 번뇌 : 원문은 ‘연화진번(烟火塵煩)’이다. ‘연화’는 불을 때서 음식을 먹고사는 속인(俗人)이 좋아하는 생활을 뜻하며, ‘진번’은 인간 세상의 번뇌를 뜻하는 말이다.
- 1104 바람이……되니 : ‘바람이 겨드랑이에 불어온다’는 것은 자신도 모르게 두 겨드랑이에 날개가 돌아 신신세계로 날아간다는 것을 말한다. 당나라 노동(盧仝)의 〈주필사맹간의회신다(走筆謝孟諫議寄新茶)〉에, “일곱째 잔은 마실 것도 없이 겨드랑이에 날개 돌아 습습히 청풍이 입을 느끼네.[七椀喫不得也 唯覺兩腋習習清風生]”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또 ‘깃털이 나의 옷이 된다’는 것은 깃털을 입고서 신선이 된 것을 말한다.
- 1105 낭원(閬苑)의 대사(臺榭) : ‘낭원(閬苑)’은 곤륜산(崑崙山) 꼭대기에 있는 낭풍산(閬風山)으로, 신선이 사는 곳을 말한다. ‘대사(臺榭)’는 돌레를 내려다보기 위하여 크고 높게 세운 누각(樓閣)이나 정각(亭閣) 따위를 말한다.
- 1106 낭간(琅玕) : 곤륜산(崑崙山)에 있다는 전설상의 나무로, 열매와 구슬과 비슷하다고 한다. 《포박자(抱朴子)》거혹(祛惑)에, “곤륜산에 주옥(珠玉)이 열리는 나무가 있으니, 사당(沙棠)과 낭간(琅玕)과 벽괴(碧瑰)의 나무가 그것이다.[崑崙有珠玉樹 沙棠琅玕碧瑰之樹]”라 하였다.
- 1107 차하동(紫霞洞) : 신선이 사는 골짜기를 말한다. 도가(道家)에서 신선은 자줏빛 노을을 타고 다닌다고 한다.
- 1108 팽조(彭祖) : 요(堯) 임금 때부터 하(夏)를 거쳐 은(殷)나라 말기까지 8백 년을 살았다는 옛

자하동(紫霞洞)¹¹⁰⁹의 신령한 단약 잠시 동안 빌려다가 紫霞靈丹聊暫借
아래로 우리 백성들과 수명을 팽조(彭祖)¹¹¹⁰와 나란히 하니 下與吾民壽齊彭
세속이 질박한 대도(大道)를 회복하여 속임이 없고 싶네 俗回大朴無欺詐
아, 나의 이러한 뜻 또한 슬퍼할 만하니 嗟我此志亦可悲
사나운 물결 하늘까지 가득하여¹¹¹¹ 나의 곡식을 슬퍼하네 虐浪滔天哀我稼
깊이 신음하고 크게 탄식하다 문득 머리를 돌리니 沉吟太息忽回首
바다에서 불어온 맹렬한 바람에 산의 나무가 쓰러지네 海送癘風山木亞

명주(明珠)¹¹¹²를 읊다

明珠詠

명주 한 알 하늘에서 나왔는데 一顆明珠出自天
잘못하여 만 장(丈)의 진애(塵埃) 속에 떨어졌네 誤落萬丈塵埃中
네가 와서 온갖 세사사 겪은 것 몇 해인가 爾來閱盡幾春秋
모래와 자갈 속에 파묻혀 빛이 흐릿해졌네 汨沒沙礫光矇矓
어젯밤에 맑은 바람 불고 상쾌한 비¹¹¹³ 지나가니 清風昨夜爽雨過

날의 장수한 사람이다. 《神仙傳》

1109 하늘까지 가득하여 : 원문은 ‘도천(滔天)’이다. 홍수가 가득한 모습을 형용한 말이다. 《서경》〈요전(堯典)〉에, “님실대는 홍수가 바야흐로 해를 끼쳐서 도도하게 산을 에워싸고 언덕을 넘어 질펀하게 하늘까지 가득하기에 백성들이 한탄하고 있다.[湯湯洪水方割 蕩蕩懷山襄陵 浩浩滔天 下民其咨]”라 한 데서 유래한 말이다.

1110 명주(明珠) : 인간의 마음을 밝은 구슬에 비유한 것이다.

1111 상쾌한 비 : 원문은 ‘상량(爽兩)’인데, 문맥을 살펴 ‘량(兩)’을 ‘우(雨)’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1112 어떻게……있을까 : 이 구절은 두보(杜甫)의 〈입주행증서산검찰사두시어(入秦行贈西山檢察使竇侍御)〉에서 두 시어사(竇侍御史)의 인품을 일러 “빛나는 마치 만학(萬壑)에서 나온 한 조각 맑은 얼음을 한나라 영풍관 한로관의 옥병에 담아둔 것 같네.[炯如一段清水出萬壑 置在迎風寒露之玉壺]”라 한 데서 취해 온 것이다. ‘영풍궁(迎風宮)과 한로궁(寒露宮)’은 한(漢)나라 진제(晉帝) 때 더위를 피하기 위해 세운 두 전각(殿閣)의 이름이다.

1113 무극옹(無極翁)과 태극옹(太極翁) : ‘무극(無極)’과 ‘태극(太極)’은 송나라 주돈이(周敦頤)가 지은 〈태극도설(太極圖說)〉에 “무극이태극(無極而太極)”라 한 데서 온 말이다. 이 구절에 대해 주희(朱熹)는 “하늘의 일은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지만 실제로는 조화의 중심축이

천지에 가득 쌓인 먼지와 흙을 말끔히 씻어 냈네	洗盡乾坤塵土叢
밝은 빛 내며 옛날의 모습을 문득 드러내니	明光忽發舊時容
상서로운 색 환히 비추며 푸른 하늘에 서려 있네	瑞色輝映蟠靑空
청허(淸虛)한 기상 오묘하여 헤아리기 어려우니	淸虛氣象妙難測
지극히 오묘한 그 속을 어찌 다 알 수 있으리오	至妙中間安可窮
말이 이미 떠오를듯해도 말로 표현할 수 없으니	言之已到不可言
있는 듯 없는 듯하여 시종(始終)이 없네	似有疑無無始終
어떻게 하면 옥병과 얼음 쟁반을 가져다	安將玉壺與冰盤
영풍궁(迎風宮)과 한로궁(寒露宮)에 둘 수 있을까 ¹¹¹⁴	置在迎風寒露宮
아래로는 천고 만고에 변함없는 마음을 비추고	下照千古萬古心
위로는 무극옹(無極翁)과 태극옹(太極翁) ¹¹¹⁵ 을 꿰뚫네	上徹無極太極翁
높은 값으로 인간 세상을 흔들 필요 없으니	不須高價動人間
이 구슬은 사적인 것이 아니라 도리어 공적인 것이라네	此珠非私乃是公

거처를 옮기고서 자술(自述)하다

移居自述

대세(大歲)가 원숭이에 있어 천간이 아직 붉은데¹¹¹⁶ 大歲在猴干尙赤

고 만물의 뿌리이다. 그러므로 ‘무극이면서 태극이다.’라고 말했으니, 태극 밖에 다시 무극이 있는 것이 아니다.[上天之載 無聲無臭 而實造化之樞紐 品彙之根柢也 故曰無極而太極 非太極之外復有無極也]”라 풀이하였다.

1114 대세(大歲)가……붉은데 : 천간(天干)에서 ‘병(丙)’과 ‘정(丁)’은 붉은 색을, 지지(地支)에서 ‘신(申)’은 원숭이를 상징한다. 이해가 ‘붉은 원숭이’에 해당하는 병신년(1656)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대세(大歲)’는 곧 ‘태세(太歲)’로, 그 해의 간지를 말한다.

1115 북두자루가……되었네 : ‘북두자루’는 북두칠성 중에 자루 쪽의 세 별을 말한다. 이 별은 1년 내내 선회하며 달마다 가리키는 방향을 바꾸는데, 9월에는 술방(戌方)을 가리킨다. 즉 ‘북두자루가 누런 개를 가리킨다’는 것은 이 달이 9월임을 말한 것이다. ‘가을의 끝자락 되었네’의 원문은 ‘추회계(秋灰季)’다. 과거에는 각 절기에 해당하는 율관(律管)에 갈대 재(葭灰)를 채워 놓고 율관의 재가 날아 움직이는 모양을 보고 절기(節氣)를 짐작하였다. ‘추회(秋灰)’는 가을철에 날리는 재로, 곧 가을을 가리킨다.

1116 지명은……있네 : ‘도민(道民)’은 과거 전라도 남평현(南平縣)에 속해 있던 고을이다. 《신증

북두자루가 누런 개를 가리켜 가을의 끝자락 되었네 ¹¹¹⁷	斗指黃狗秋灰季
내가 북쪽에서 옮겨 와 남쪽 마을에 거처하니	我移自北居南村
산과 언덕 얕지도 않고 또 깊지도 않네	山原不淺兼不邃
지명은 도민(道民)으로 고현(古縣)이라 일컬어지니	地名道民稱古縣
사실에 대한 고찰은 여지지(輿地誌)에서 밝힐 수 있네 ¹¹¹⁸	考實可徵輿地誌
고로(古老)들은 여전히 상국(相國)의 이름을 전하고	古老猶傳相國名
행인들은 아직도 동문(東門)의 터 ¹¹¹⁹ 를 기억하네	行人尙識東門址
산 뿌리인 서석산(瑞石山) ¹¹²⁰ 수백 리에 뻗었으니	山根瑞石數百里
화악(華岳)과 덕룡산(德龍山) ¹¹²¹ 푸른빛을 품었네	華岳德龍孕蒼翠

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전라도(全羅道) 남평현(南平縣)에, “도민부곡(道民部曲). 현에서 서남쪽으로 16리 떨어져 있다.”라 되어 있다.

- 1117 동문(東門)의 터 : 전라도 나주읍성의 동점문(東漸門) 밖에 남아 있는 석당간(石幢竿)을 가리키는 듯하다. 이 당간은 고려 때 제작된 것으로, 나주의 지세가 배 모양이기 때문에 안정을 빌기 위해 당간을 뒤편 세운 것이라 전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전라도(全羅道) 나주목(羅州牧)에, “석장(石樞). 동문 밖에 있다. 전설에, ‘이 주를 처음 설치할 때 술자(術者)가 이것을 세워 행주(行舟)의 형세를 표시하였다.’ 한다. 문 안에도 목장(木樞)이 있다.”라 하였다.
- 1118 서석산(瑞石山) : 전라도에 있는 무등산(無等山)의 별칭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전라도(全羅道) 광산현(光山縣)에, “무등산. 현의 동쪽 10리에 있는데 진산(鎭山)이며, 일명 무진악(武珍岳) 또는 서석산(瑞石山)이라고도 한다. 하늘같이 높고 큰 것이 웅장하게 50여 리에 걸쳐 있다. 제주도(濟州島)의 한라산, 경상도의 남해(南海)·거제도(巨濟島) 등이 모두 한눈에 들어온다. 이 산 서쪽 양지 바른 언덕에 돌기둥 수십 개가 즐비하게 서 있는데 높이가 백 척이나 된다. 산 이름 서석(瑞石)은 이로 말미암은 것이다. 날이 가물다가 비가 오려고 할 때나 오랫동안 비가 오다가 개려고 할 때에는 산이 우는데 수십 리까지 들린다.”라 되어 있다.
- 1119 화악(華岳)과 덕룡산(德龍山) : ‘화악(華岳)’은 남평 부근에 있던 산으로 추정되나, 자세한 사항은 미상이다. ‘덕룡산(德龍山)’은 전라도 남평현(南平縣)에 있는 산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전라도(全羅道) 남평현(南平縣)에, “덕룡산(德龍山). 현에서 남쪽으로 30리 떨어져 있다.”라 되어 있다.
- 1120 네 샘이……달고 : ‘네 샘’은 남평현 내에 있는 네 개의 샘을 가리키는 듯하다. 김만영이 자신의 은거 공간에 이름을 붙이고 이에 대해 읊은 <구고음(九臯吟)> 서문에, “앞에는 샘이 모두 네 곳 있는데, 당 앞에 있는 것은 ‘소양(少陽)’이라 하고, 감고 앞에 있는 것은 ‘태양(太陽)’이라 하며, 손고 앞에 있는 것은 ‘소음(少陰)’이라 하고, 이고 앞에 있는 것은 ‘태음(太陰)’이라 하였다.[前有泉凡四穴 在堂前者名曰少陽 在坎臯前者曰太陽 巽臯前者曰少陰 離臯前者曰太陰]”라 한 기록이 보인다. 《南圃集 卷4》‘옥례(玉禮)’는 전설에 나오는 선약(仙藥)으로, 곧 맛이 좋은 샘물을 가리킨다.
- 1121 삼광(三光)이……밝히네 : ‘삼광(三光)’은 해, 달, 별을 말한다. ‘시종을 밝힌다’는 것은

북쪽으로 치달리고 남쪽으로 돌아 형세 공교하니	北走南回形勢巧
교외 들판 맑고 평탄하여 넘어지거나 거꾸러지는 일 없네	郊野清平無跌墜
네 샘이 위로 흐르니 옥례(玉醴)처럼 달고 ¹¹²²	四泉上流玉醴甘
삼광(三光)이 아래를 비추어 시종을 밝히네 ¹¹²³	三光下照明終始
여덟아홉 칸의 초가집 ¹¹²⁴ 을 새로 여니	草屋新開八九間
아침 햇빛과 저녁 그늘 연하(烟霞) 속에 있네	朝暉夕陰烟霞裏
구름 뚫고 들려오는 물소리 월궁천(月宮川) ¹¹²⁵ 이요	穿雲水聲月宮川
안개 두른 새 그림자 용문사(龍門寺) ¹¹²⁶ 라네	帶烟鳥影龍門寺
동쪽 이웃과 서쪽 집 늙은 농부의 밭이니	東隣西舍老農圃
호미 메고서 때때로 샘의 근원이 이르는 모습을 관찰하네	荷鋤時覘泉源至
들 이야기 예스럽고 소박하며 예법이 간소하니	野談古朴禮數
쌍나무와 삼에 대해 묻고 답할 뿐 다른 뜻은 없네 ¹¹²⁷	桑麻問答無他意
행동에 얽매인 바 없고 마음에 구애되는 것 없으니	行無所牽心無泥
지팡이 짚고서 먼 경관을 한가롭게 바라보네.	策扶遐觀紆瞻視
개천산(開天山)과 건지산(建地山) ¹¹²⁸ 원근에 비치고	開天建地暎遠近

《주역》〈건괘(乾卦) 단(象)〉에, “시작과 끝을 크게 밝히면 여섯 자리가 때로 이루어진다.[大明終始 六位時成]”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 1122 여덟아홉 칸의 초가집 : 은거하는 공간의 초가집을 말한다. 도연명(陶淵明)의 〈귀전원거(歸田園居)〉에, “네모난 집터는 십여 모쯤 되고, 초가집은 여덟아홉 칸이요. 느릅나무와 버드나무 뒷처마 가리우고, 복숭아나무와 오얏나무 집앞에 늘어서 있네.[方宅十餘畝 草屋八九間 榆柳蔭後簷 桃李羅堂前]”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 1123 월궁천(月宮川) : ‘월궁(月宮)’은 전설에 등장하는 달 속의 궁전으로, 향아(嫦娥)가 살았다고 한다. 광한궁(廣寒宮)이라고도 불린다. 남평현에 있던 어떤 시인의 명칭 혹은 그에 대한 비유인 듯하나, 자세한 사항은 미상이다.
- 1124 용문사(龍門寺) : 남평현에 있었던 절인 듯하나, 자세한 사항은 미상이다.
- 1125 쌍나무와…… 없네 : 도연명(陶淵明)의 〈귀전원거(歸田園居)〉에, “만나면 쓸데없는 말 않고 쌍나무와 삼이 자라는 것만 말하네.[相見無雜言 但道桑麻長]”라 한 데서 취해 온 구절이다.
- 1126 개천산(開天山)과 건지산(建地山) : 원문은 ‘개천건지(開天建地)’다. 김만영의 시 〈구고음(九臯吟)〉에 의하면 ‘개천’과 ‘건지’는 모두 산 이름이라 하였다. 《南圃集 卷4》
- 1127 강어(強圉) : 천간(天干) 정(丁)의 고갑자(古甲子) 이름이다. 당사가 천간 중에 ‘정’이 들어가는 해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여기서는 정유년(1657)을 가리킨다.
- 1128 내가…… 돌아왔네 : ‘익주(翼州)’는 전라도 광산현(光山縣)에 속한 군이다. ‘현웅(玄雄)’은 전라도 남평현(南平縣)의 옛 이름이다. 남평현은 본래 백제의 미동부리현(未冬夫里縣)이었는데, 신라가 현웅(玄雄)이라 고쳐서 무주(武州)의 영현(領縣)으로 하였고, 고려가 남평현으로

일봉산(日奉山)과 월출산(月出山) ¹¹²⁹ 가이한 모습 드러내네	日奉月出呈奇異
평생의 본성 산수를 사랑하였는데	平生素性愛山水
병든 뒤로 멀리 가자니 마음이 오직 부끄럽네	病來遠涉心惟愧
높은 서재에서 맑은 낮에 휘장을 말아 올렸으니	高齋淸晝捲書帷
책상은 창옥(蒼玉)이 아니지만 마치 서로 마주하는 듯	案非蒼玉如相待
남아의 사업엔 만 가지 단서 있으나	男兒事業有萬端
호방하게 물외(物外)에서 지내는 것도 한 가지 일이라네	廓落物表爲一事
마음은 팔황(八荒)을 노닐고 기운은 육합(六合)을 노나니 ¹¹³⁰	心遊八荒氣六合
물아(物我)와 건곤(乾坤)은 두 가지가 아니라네	物我乾坤無二致
그런 뒤에 내가 대장부에 대해 알겠으니	然後吾知大丈夫
한 티럭의 먼지와 흙에도 도리어 부끄러운 마음이 많네	一毫塵土還多恥
누가 백 년 인생은 한 순간인줄 아는가	誰知百年一瞬間
세상에 어떤 사람이 큰 잠에서 깨어나는가	世上何人醒大寐
지금 한 번 웃음 지으며 먼 곳을 상쾌히 바라보니	今成一笑快遠目
우뚝우뚝 산봉우리 말없이 솟아 있네	立立峯巒無語起

두 번째

其二

해가 강어(強圉)¹¹³¹에 있고 달은 묘월(卯月)인데 歲在強圉月惟卯

고쳐서 나주에 소속시켰다. 《新增東國輿地勝覽 卷36 全羅道 南平縣》

1129 장양(長陽) : 봄을 가리킨다. 2월은 양(陽)이 벗인 대장괘(大壯卦)에 해당하는데, 이는 양이 이 미 과반수를 차지해 강성해지는 쾌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1130 태화(太和) : 천지간의 부드럽고 화평한 기운을 말한다. 《주역》〈간괘(乾卦) 단(象)〉에, “건도(乾道)가 변하여 화합에 각기 생명(性命)을 바꾸어 태화를 보합하니, 이에 정(貞)함이 이롭다.[乾道變化 各正性命 保合大和 乃利貞]”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1131 뽕나무와 가래나무 : 원문은 ‘상재(桑梓)’다. 부모가 살던 고향 또는 조상을 뜻하는 말로 사용된다. 《시경》〈소반(小弁)〉에, “부모가 심은 뽕나무와 가래나무도 공경한다.[維桑與梓 必恭敬止]”라 하였는데, 그에 대한 주희(朱熹)의 주에 “선대에서 심은 것이기 때문이다.”라 하였다.

내가 익주(翼州)에서 현웅(玄雄)으로 돌아왔네 ¹¹³² 때는 장양(長陽) ¹¹³³ 을 맞아 만물이 싹 트고 태화(太和) ¹¹³⁴ 의 화평한 기운이 한창 가득하네 오래된 섬들의 늙은 매화 예전의 얼굴이요 쓸쓸한 계단에 자란 난초 숲나무에 의지해 있네 몇 줄기의 붉은 약초 헌창(軒窓)을 마주하는데 헌창은 이미 떨어지고 쇠잔한 꽃잎만 남았네 언덕에서 젊었을 적의 유람 애써 기억하니 정원 가득한 송죽(松竹) 동서로 나뉘어 있네 뽕나무와 가래나무 ¹¹³⁵ 에 눈길 닿자 눈물이 가득 고이니 아득한 하늘 우러름에 심신이 다하였네 촌락과 거리 모두 황폐하니 긴 숲과 무성한 풀 석양 속에 들어있네 띠풀 베어 몇 칸의 집을 손수 엮고 등나무 덩굴을 제거하여 무성히 덮인 것들을 여네 깎은 하늘에 달 뜨자 소나무 잎이 선명하고 맑은 시내에 바람불자 대숲에 옥소리 나네	余自翼州歸玄雄 時當長陽百物茁 太和和氣方融融 古砌梅老昔年顏 荒階蘭茁依林叢 數莖紅藥對軒窓 軒窓已落餘殘紅 邱原強記少日遊 滿園松竹分西東 桑梓觸目孕涕多 仰天冥漠心神窮 村街墟曲盡荒廢 長林豐草斜陽中 誅茅手結數間屋 拔去蘿網開羣蒙 長松拂髻霽天月 密竹戛玉晴溪風
--	---

1132 아침저녁으로……기뻐하네 : 도연명(陶淵明)의 <귀전원거(歸田園居)>에, “만나면 쓸데없는 말 않고 뽕나무와 삼이 자라는 것만 말하네.[相見無雜言 但道桑麻長]”라 한 데서 취해 온 구절이다.

1133 연환체(連環體) : 시의 마지막 구절을 다음 시의 첫 구절로 하여 짓는 시를 말한다. 회문시(廻文詩)라고도 한다. 앞 시구(詩句)의 끝글자를 다음 구의 첫자로 습용해서 내려 읽어도 말이 되고 거꾸로 읽어도 말이 되므로, 시종(始終)이 불분명하여 마치 동그라미가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듯한 시체(詩體)를 말한다. 고리처럼 연하였으므로 연환체라 하기도 하고 다음 구의 첫 자가 위의 구 끝 자에 감추어져 있으므로 장두체(藏頭體)라고 하기도 한다.

1134 봉황……들리네 : 주(周)나라 영왕(靈王)의 태자인 왕자교(王子喬)는 피리를 매우 잘 불어 피리로 봉황새의 울음소리를 낼 수 있었다. 뒤에 신선이 되어 떠난 지 30여 년 만에 하남성(河南省) 구지산(緱氏山) 정상에 백학(白鶴)을 타고 내려왔다가 며칠 머무른 뒤 사람들과 작별하고 다시 떠나갔다고 한다. <列仙傳 王子喬>

1135 뽕나무와 가래나무 : 원문은 ‘상재(桑梓)’다. 부모가 살던 고향 또는 조상을 뜻하는 말로 사용된다. <시경> <소반(小弁)>에, “부모가 심은 뽕나무와 가래나무도 공경한다.[維桑與梓 必恭敬止]”라 하였는데, 그에 대한 주희(朱熹)의 주에 “선대에서 심은 것이기 때문이다.”라 하였다.

찬 매화 다시 옛날의 꽃부리를 품고	寒梅更胚昔日英
계곡의 난초 연전의 향기 다시 풍겨 오네	谷蘭再聞年前香
때에 따라 사물을 느낌에 마음을 가누기 어려우니	仍時感物不自懷
누가 얼굴 가리고 우는 내 심정 알아줄까	掩泣誰識吾心腸
이웃집의 고로(古老) 나의 적적함을 위로해 주니	隣家古老慰余寂
대나무 지팡이로 풀 헤치고 와서 상을 나란히 하네	竹杖披草來連床
상을 나란히 하고 나누는 담소에 농사 이야기도 곱들이니	連床談笑雜農談
아침저녁으로 다만 뽕나무와 삼 자라는 것만을 기뻐하네 ¹¹³⁶	日夕但喜桑麻長
뽕나무와 삼 자라는 곳에 지극한 뜻이 있으니	桑麻長處至意存
지극한 뜻 밝히고자 하다가 서로 말을 잊었네	至意欲辨言相忘
서로 말을 잊은 가운데 또한 많은 맛이 있으니	言相忘裏亦多味
많은 맛 속에 맛 없음이 숨어 있네	多味中間無味臧
분수에 편안한 맑은 거처 달리 얽매인 것 없으니	安分清居外無牽
백년토록 연월(烟月)을 한가로이 소요하리라	百年烟月閒徜徉

연환체(連環體)¹¹³⁷

連環體

하늘의 은하수 흰 명주처럼 맑고 평평하니	天河漢練澄平
두 난간머리에 밤기운이 맑네	二闌頭夜氣清
작은 봉우리에 숨어 빛이 쏘아 나오고	隱小峯光射出

1136 아침저녁으로……기뻐하네 : 도연명(陶淵明)의 <귀전원거(歸田園居)>에, “만나면 쓸데없는 말 앓고 뽕나무와 삼이 자라는 것만 말하네.[相見無雜言 但道桑麻長]”라 한 데서 취해 온 구절이다.

1137 연환체(連環體) : 시의 마지막 구절을 다음 시의 첫 구절로 하여 짓는 시를 말한다. 회문시(迴文詩)라고도 한다. 앞 시구(詩句)의 끝글자를 다음 구의 첫자로 습용해서 내려 읽어도 말이 되고 거꾸로 읽어도 말이 되므로, 시종(始終)이 불분명하여 마치 동그라미가 연쇄식으로 이어져 있는 듯한 시체(詩體)를 말한다. 고리처럼 연하였으므로 연환체라 하기도 하고 다음 구의 첫 자가 위의 구 끝 자에 감추어져 있으므로 장두체(藏頭體)라고 하기도 한다.

넓은 들판과 이어져 그림자 어지럽네	連大野影縱橫
지나가는 선인(仙人) 흔적 없이 찾아오고	經仙人來無跡
봉황 소리 잘 내는 왕군(王君) 떠나갔어도 소리가 들리네 ¹¹³⁸	鳳王君去有聲
눈은 형외(形外)의 부림을 당할 필요 없으니	目不須形外役
자족한 마음 드러내며 나의 삶 보내리라	章自足過吾生

1138 봉황……들리네 : 주(周)나라 영왕(靈王)의 태자인 왕자교(王子喬)는 피리를 매우 잘 불어 피리로 봉황새의 울음소리를 낼 수 있었다. 뒤에 신선이 되어 떠난 지 30여 년 만에 하남성(河南省) 구지산(緜氏山) 정상에 백학(白鶴)을 타고 내려왔다가 며칠 머무른 뒤 사람들과 작별하고 다시 떠나갔다고 한다. 《列仙傳 王子喬》

남포집

제 7 권

사 부
辭 賦

남포집 제7권

부 (賦)

대풍부【즉석의 일을 기록하다.】

大風賦【記卽事也】

거센 바람이 구름을 몰고 오니	大風驅雲兮
구름이 천지에 가득하네.	雲滿天地
초목과 바위, 골짜기 크고 작은 것들이 모두 소리가 나고	草木巖谷大小皆有聲
산림과 천택의 높고 낮은 것들이 모두 구름에 덮여있네.	山林川澤高下咸雲氣
어두침침하게 구름이 많이 끼었는데	陰陰兮靄靄
나뭇가지를 흔들며 ¹¹³⁹ 빠르게 지나가는구나.	刁刁兮條條
한 진의 바람이 만 진의 구름을 에워싸니	一陣風擁萬陣雲
한 조각구름에 천 조각 눈을 품고 있네.	一片雲孕千片雪
무리지어 재빨리 달려가니	羣馳疾速
분주하게 부역을 하는 듯하네.	奔走服役
그 사이에 만약 주재자가 없다면	其間若無主宰者
어찌 이처럼 맹렬히 호령할 수 있겠는가.	安得號令如是烈
그러나 스산한 가운데 생기가 있어	雖然肅殺之中有生氣
어젯밤 우레 소리 ¹¹⁴⁰ 에	昨夜雷聲
만물 모두가 봄기운을 머금었네.	萬品皆得含春意

1139 나뭇가지를 흔들며 : 원문의 ‘조조(刁刁)’는 나뭇가지를 흔들며 지나가는 바람 소리를 형용한 것이다. 《장자(莊子)》 제물론(齊物論)에 “그대는 유독 살랑거리며 지나가는 저 바람의 모습은 보지 못하는가.[而獨不見之調調之刁刁乎]”라는 말이 있다.

1140 우레 소리 : 지뢰복괘(地雷復卦)의 뜻을 가리킨다. 우레가 울린다는 것은 땅 위에서 새로운 시작으로 서서히 봄의 기운이 태동하는 것과 같다.

감흥부

感興賦

소는 밭을 갈고 말은 태워주며
 닭은 새벽을 맡고 개는 밤을 담당하네.
 밭 갈고 태워준 공로가 있는데 몸이 찢겨지고
 새벽과 밤에 임무를 담당했으나 마구 삶겨지네.
 호랑이는 털이 있고 무소는 뿔이 있으며
 조개는 진주를 머금고 소라는 광주리 모양의 껍데기를 깊어졌네.

牛耕兮馬乘
 雞司晨兮犬司夜
 耕乘就功兮遭體解
 晨夜服任兮亂烹煮
 虎有毛兮犀有角
 蚌含珠兮蠹負筐

나를 지킨 것이 곧 나를 죽이게 될지 누가 알겠느냐마는
 영화를 쫓던 것이 결국 재앙이 됨을 비로소 깨달았네. 始覺爲榮者畢竟爲殃
 용은 단비를 내려 사물들에게 은택을 주고
 기린은 때에 응하여 상서로움을 알리는데,
 하나라 조정은 무도하게 신이한 동물을 절여 젓갈을 담고¹¹⁴¹

夏庭無道兮神物殖醢

노나라 교외에서는 사냥을 하여 어진 동물을 죽이네.¹¹⁴² 魯郊有狩兮仁獸傷戕
 나무는 무슨 공로가 있어 진나라 관직을 얻었으며¹¹⁴³ 木有何功兮得秦官
 구슬은 무슨 공덕이 있어 수후에게 은총을 입었나.¹¹⁴⁴ 石有何德兮寵隨侯

1141 하나라 조정은……젓갈을 담고 : 하(夏) 나라 공갑(孔甲) 때에 상제(上帝)가 그에게 네 마리의 용을 선사하였는데, 용 한 마리가 죽자 사육사인 유루(劉累)가 남몰래 소금에 절여 젓을 담근 뒤 공갑에게 먹였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左傳 昭公 29年》

1142 노나라 교외에서는……동물 죽이네 : 노나라 애공(哀公) 14년 봄에 노나라 서쪽 교외에서 사냥을 하다가 숙손씨(叔孫氏)의 거차(車子)가 상서로운 동물이라고 하는 기린을 잡았는데, 처음에 기린인 줄을 모르고 상서롭지 못한 것이라고 하여 산택(山澤)의 관리에게 주었다. 공자가 가서 보고 그것이 기린임을 인정하니, 노나라 사관이 기린을 잡았다고 기록하였다. 《春秋左氏傳》

1143 나무는 무슨……관직을 얻었으며 : 진시황(秦始皇)이 태산(泰山)에 봉선(封禪)하러 갔다가 갑자기 비바람을 만나 소나무 아래로 몸을 피하였는데, 그 소나무가 공이 있다하여 다섯 그루의 소나무를 대부(大夫)로 봉(封)하였다. 《史記 秦始皇本紀》

1144 구슬은 무슨……은총을 입었나 : 원문의 '수후(隨侯)'는 주(周)나라 때 한수(漢水)의 동쪽에 자리 잡은 제후인데, 그는 큰 뱀이 창자가 끊긴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 약을 붙여 주었다.

기둥머리 두공에 산을 새겨 보관한 거북이는¹¹⁴⁵ 진흙탕의 물고기만 못하고
 山節之龜不若沒泥魚
 비단 입고 희생될 제물은 늙은 밭의 소만 못하네. 衣錦之牲不若老田牛
 내가 생명이 있는 만물을 살펴보니 吾觀萬物之有生兮
 천 길의 빛나는 덕을 보는 것만 못하네.¹¹⁴⁶ 莫如覽德千仞之輝

그 후 뱀이 강에서 큰 구슬을 물고 나와 은혜를 갚았으므로 그 구슬을 수후(隋侯)의 구슬이라고 하였다. 《淮南子 覽冥訓》

1145 기둥머리……거북이는 : 절(節)은 기둥 위의 지붕을 받치는 두공(斗栱)이고 산절은 두공에 산 모양을 새겨 넣는 것이다. 《논어》〈공야장(公冶長)〉에, “장문중이 큰 거북을 보관하되 기둥머리 두공(斗栱)에는 산(山) 모양을 조각하고 들보 위 동자기둥에는 수초(水草)를 그렸으니, 어찌 지혜롭다 하겠는가.[臧文仲居蔡, 山節藻梲, 何如其知也?]”라고 하였고, 주희(朱熹)는 《집주(集註)》에서 “절(節)은 기둥머리의 두공이고, 조(藻)는 수초 이름이다.”라고 하였다.

1146 천 길의……못하네 : 한(漢)나라 가의(賈誼)의 〈조굴원부(弔屈原賦)〉에 나오는 “봉황이 천장 높이 날다가 빛나는 덕을 보고 내려왔네.[鳳皇翔于千仞兮, 覽德輝而下之.]”라는 구절을 인용한 것이다. 《史記 卷84 賈誼列傳》

사 辭

일유인사

一幽人辭

은자여 어찌도 그리
우활함과 졸렬함으로 서로 도모하는가.
천지를 보기를 한 몸 같이 여기고
만물을 가리켜 다 똑같다고 하네.
평생의 두 발은 명예를 다투는 곳이라면 들어가지 않았고
평생 한마디 말이라도 과당 짓는¹¹⁴⁷ 고을을 언급하지 않았으니,
하물며 이 한 마음의 기미가
혹 얼음과 숯의 영역으로 나뉘겠는가.¹¹⁴⁸
오직 두어 칸의 초가집
왼쪽에는 푸른 물이 오른쪽에는 푸른 산이 있고,
그 안에서 두어 번 경서를 열람하며
고인의 마음과 모습을 상상하네.
밝고 광활한 근원을¹¹⁴⁹ 들여다보면서

夫何一幽人兮
迂與拙而相謀
視天地爲一體兮
指萬物而同塗
平生二跡兮不入爭名之場
平生一言兮不及黨比之鄉
況此一心之機兮
或分冰炭之壘
惟數楹之茅屋兮
左綠水而右青山
中開數秩經書兮
想古人之心顏
窺昭曠之大原兮

1147 과당 짓는 : 원문의 ‘당비(黨比)’는 봉당을 지어 서로 어울린다는 말이다. 한(漢) 왕일(王逸)의 《구사(九思)》〈민상(憫上)〉에 “뇌물 받고 법을 어긴 이들은 과당을 짓고, 울퉁고 선량한 이들은 고독하다네.[貪枉兮黨比 貞良兮斃獨]”라고 하였다.

1148 혹 얼음과……나뉘겠는가 : 가슴속에서 격렬하게 일어나는 온갖 갈등과 번뇌를 비유한 말이다. 《장자(莊子)》인간세(人間世)에 “기쁨과 두려움 등의 감정이 가슴속에서 싸우는데, 이는 원래 인간의 오장 속에 얼음과 숯이 한데 엉겨 있기 때문이다.[喜懼戰于胸中 固已結水炭于五臟矣]”라는 말이 나온다.

1149 밝고 광활한 근원을 : 원문의 ‘소광지대원(昭曠之大原)’은 밝고 넓은 본원지이다. 즉, 현상

참 진리에 담담히 말을 잊네.	湛忘言於眞
한가한 때에는 예닐곱의 동자와 어른이	閑時童與冠六與七兮
서책 ¹¹⁵⁰ 을 손에 들고 서로 어울렸네.	手黃卷而相從
묵묵히 서로 마주하고 둘 다 말이 없어도	默然相對兩無言兮
저와 내가 잘 어울려 온화하였네.	渾物我而雍容
은자여 어찌하여서	夫何一幽人兮
스스로는 미친 사람이라 하고 남들은 어리석은 자라 하는가.自謂狂生人謂愚夫	
봄바람이 온화하게 펼쳐졌고	春風惠暢
가을 달이 끝없이 비추며	秋月無涯兮
음양과 해·달·별을 거두어 한 구역에 모아서	斂二儀三光兮收一區
소리 높여 노래하고 목 놓아 읊조렸으나	高歌放咏
나의 마음을 펼치기에 부족하여	不足舒吾心兮
집으로 돌아와 입을 다물었네.	歸一室而含默
역리를 탐구하여 ¹¹⁵¹ 도량이 크고 넓으며 ¹¹⁵²	弄丸而休休兮
도량이 크고 넓으니 덕이 높았네. ¹¹⁵³	休休而穆穆

적이고 상대적 세계를 초월한 우주의 절대적 세계를 가리키는 말로, 유교에서 도달하고자 하는 최고의 경지를 뜻한다. 《성리대전(性理大全)》 권44에 주자(朱子)가 말하기를, “지금 공부를 해 보고자 한다면 우선 모름지기 단정하고 장엄한 자세로 존양을 하여 밝고 드넓은 근원의 경지를 홀로 보도록 하여야 할 것이요, 공부를 허비하여 종이 위의 말만 뚫어지게 쳐다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如今要下工夫, 且須端莊存養, 獨觀昭曠之原, 不須枉費工夫, 鑽紙上語.]”라고 하였다.

- 1150 서책 : 본문의 ‘황권(黃卷)’은 책을 가리킨다. 옛날에 종이 슬지 않도록 황벽(黃蘗) 나무의 즙을 짜서 서책에 발랐던 데에서 유래하였다.
- 1151 역리를 탐구하여 : 원문의 ‘농환(弄丸)’은 태극(太極)과 같은 구슬을 가지고 논다는 말로, 역리(易理)를 탐구하는 것을 가리킨다. 소강절(邵康節)의 《격양집(擊壤集)》 권12 〈자작진찬(自作眞贊)〉 말미에 “구슬을 가지고 노는 여가에, 한가로이 왔다 갔다 하노라.[弄丸餘暇, 閑往閑來.]”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주(自註)에 “환(丸)은 태극이다.”라고 하였다.
- 1152 도량이 크고 넓으며 : 원문의 ‘휴휴(休休)’는 《서경(書經)》〈태서(泰誓)〉에 “그 마음이 크고 넓어서 도량이 있는 듯하다.[其心休休焉 其如有容]”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 1153 덕이 높았네 : 원문의 ‘목목(穆穆)’은 《시경》〈대아(大雅) 문왕(文王)〉에 “목목하신 문왕이여, 아, 공경을 계속하여 밝히시도다.[穆穆文王, 於, 緝熙敬止.]”라고 보이는데, 주자는 《집전》에서 목목을 ‘깊고 먼 모습[深遠之意]’이라고 주하였는바, 이는 덕(德)이 높은 모양을 형용한 말이다.

아침에는 이슬 ¹¹⁵⁴ 과 같아서 맑고 맑으며	朝同沆瀣而清淑兮
저녁에는 떠다니는 기운과 펼쳤다가 움츠리네.	暮與游氣而舒蹙
은자여 어찌도 그리	夫何一幽人兮
조화와 합치하여 돌아가 머무는가.	沕造化而歸宿

국슬사

鞠蝨辭

갈관박 ¹¹⁵⁵ 선생은	褐寬先生
양쪽 옷깃이 매추라기를 매단 듯하고, ¹¹⁵⁶	鶉懸兩袵
풀로 양쪽 옷깃을 꿰매면서	草綻雙襟
긴 세월 동안 가난하였지만 ¹¹⁵⁷	蓬門永日
고금의 서책을 한가롭게 읊으면서	古今閑吟
깊은 사고로 묵묵히 이해하네.	玄思默會
자그마한 천지에	天地寸心
홀연히 어떤 한 생물이	忽有一物

1154 이슬 : 원문의 ‘항해(沆瀣)’는 신선이 마신다는 밤사이 내린 맑은 이슬을 뜻하는 말로 쓰인다. 《초사(楚辭)》〈원유(遠遊)〉에 “육기를 먹고 항해를 마시어, 정양으로 양치질하고 아침 노을 머금는다.[飡六氣而飲沆瀣兮 漱正陽而含朝霞]”라고 하였다.

1155 갈관박 : 갈(褐)은 모포(毛布)이고 관박(寬博)은 험렁한 옷으로, 천한 자가 입을 옷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하찮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였다. 《맹자》〈공손추 상(公孫丑上)〉에 증자(曾子)가 자양(子襄)에게 한 말에 “스스로 반성해 보아 바르지 못하다면 비록 천한 사람일지라도 내가 두렵게 하겠으며, 스스로 반성해 보아 바르다면 비록 천한 사람이 있는 곳이라도 나는 가서 대적할 것이다.[自反而不縮, 雖褐寬博, 吾不懼焉; 自反而縮, 雖千萬人, 吾往矣.]”라고 하였다.

1156 매추라기를 매단 듯하고 : 원문의 ‘순현(鶉懸)’은 너털너털 기운 누더기 옷을 이르는데, 매추리는 털이 일룩지고 풍지에 깃이 없으므로 이렇게 비유한다. 《순자(荀子)》〈대략(大略)〉에 “자하가 가난하여 입은 옷이 마치 털 빠진 매추리와 같았다.[子夏貧, 衣若縣鶉.]”라고 하였다.

1157 가난하였지만 : 원문의 ‘봉문(蓬門)’은 ‘봉문필호(蓬門扉戶)’의 줄인 말로 쭈대나 싸리로 만든 문이라는 뜻인데, 집이 가난하고 누추함을 이른다.

그늘진 속에서 나타나	在著裏陰
모이고 모였는데 많기도 많구나.	熒熒集集
그 무리가 아주 많은데	厥醜千億
전갈처럼 가늘며	似蝎而細
개미처럼 하얗고	如蟻而白
부리는 벌의 독침과 같네.	虿若蜂尾
사람의 살갓을 파고들어	砭人膚革
어깨를 넘어 겨드랑이로 내려가고	踰肩下脅
등에서 오금까지 이르면	仍背至臙
짧은 시간 내에	俄頃之內
온 몸이 소름이 돋네.	百體生粟
선생은 이에 정신을 모으고 고요히 앉아	先生乃凝神靜坐
서책을 거두어 덮고는	襲撤方冊
원량 ¹¹⁵⁸ 의 갓옷을 풀어헤치고	披元亮褐
자릉 ¹¹⁵⁹ 의 갓옷을 벗으며	解子陵裘
나무토막을 갖추어 솥을 태우면	具櫝燎炭
입에서 곧 거품이 흘러내리네.	口正沫流
숨에서부터 가선까지	從絮至緣
옷깃에서 시작하여 옷단까지	始領及裔
터럭이나 실을 세세히 분석하여	毫分縷析
크고 작은 것 가리지 않네.	莫有巨細
이미 그 어미를 잡고	既執其母

1158 원량 : 도잠(陶潛, 365~427)으로, 자는 원량 또는 연명(淵明)이니, 스스로 오류선생(五柳先生)이라고 하였다. 동진(東晉) 때의 저명한 문학가로 항상 전원생활을 그리워하였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귀거래사(歸去來辭)> 등이 있다.

1159 자릉 : 《후한서(後漢書)》 권83 <엄광열전(嚴光列傳)>에 보면 “엄광은 자가 자릉(子陵)이고, 다른 이름은 준(遵)이다. 어렸을 때부터 명성이 자자하였고 광무제(光武帝)와 함께 공부하였다. 광무제가 황제가 된 뒤에 그를 등용하고자 백방으로 찾았으나 그는 이름을 바꾸고 은신한 채 나타나지 않았다. 뒤에 제(齊)나라에서 상언(上言)하기를 ‘어떤 남자가 양 갓옷을 입고 연못에서 낚시를 하고 있다.[有一男子 披羊裘釣澤中]’ 라고 하였다.”라는 구절이 있다. 따라서 ‘양 갓옷’은 은자 혹은 은거 생활을 일컬을 때 쓰인다.

또 그 동생까지 잡고는
 평상 아래에 펼쳐놓고
 이에 그 죄를 따지네.
 “너는 천지에서
 가장 작은 생물로
 구차하게 모발에서 목숨을 연명하고
 살갓에 기생하며
 잠복하면서 알까지 기르는데
 무리와 벗들까지 끌어 들이구나.
 내 어찌 너를 저버리겠느냐마는
 나의 고혈을 빼앗아가고
 게다가 나의 몸과 살갓은
 부모님께서 남겨주신 것이니
 어찌 기꺼이 두려워하며
 너에게 해를 당하겠느냐.
 매우 넓은 천지에서
 생물들이 살고 있는데
 커다란 곤붕¹¹⁶⁰은
 백성들에게 은택을 내리고
 인지의 교화는¹¹⁶¹
 성인의 상서이다.
 작은 벌이나 개미도

又獵其弟
 布列床下
 乃目厥罪
 曰汝天地
 爲物最微
 假息毛髮
 寄生膚肌
 涵淹卵育
 引類連朋
 余何負汝
 浚我膏血
 况余體膚
 父母所遺
 安肯佞心
 爲汝所殃
 天地至廣
 物無不生
 鯤鵬之大
 澤霖于氓
 麟趾之化
 惟聖之禎
 蜂蟻之微

1160 곤붕 : 《장자(莊子)》의 우화에 나오는 큰 물고기와 새의 이름이다. 장자가 말하기를 “북쪽 바다에 물고기가 있으니, 그 이름이 곤(鯨)이다. 곤의 크기는 몇 천 리나 되는지 알 수 없다. 그것이 변하여 새가 되니, 그 이름이 붕(鵬)이다. 붕의 등[背]은 몇 천 리나 되는지 알 수 없다. 이 새가 남쪽 바다로 갈 때 9만 리를 날아올라 여섯 달을 가셔야 된다.”라고 하였다. 《莊子 逍遙遊》

1161 인지의 교화는 : 《시경》〈관저〉의 소서(小序)에 “〈관저〉와 〈인지(麟趾)〉의 교화는 왕자의 풍(風)이기에 이것을 주공에 연계시켰다.[關雎麟趾之化 王者之風 故繫之周公]”라는 말을 인용하였다.

그 의리를 숭상할 만하고 ¹¹⁶²	其義可尙
가는 지렁이나 거미도	蛭蛛之細
그 재주가 빼어나도다.	其巧可長
하늘이 만물을 낳음에	天生萬物
또한 각각의 쓰임이 있는데	亦各有用
어찌하여 너라는 생물은	胡乃爾生
유독 그 종이 무리를 이루느냐.	獨醜厥種
이미 가두거나 갈아버렸는데도	既鎖而屠
그 무리를 다 없애버리기 어렵고,	難盡其類
아침에 네 조상을 벌하였는데도	朝刑乃祖
저녁이면 그 자손이 보이구나.	暮見其孫
높으신 손님이 문에 있으면	至若尊賓在門
죽은 꿩으로 ¹¹⁶³ 예를 갖추고	死雉禮具
주인이 단정히 홀을 들고 있으면	主人端笏
동쪽 계단을 향하여 종종걸음하며	從東階趨
읍양을 하며 당에 올라 ¹¹⁶⁴	揖讓升堂

1162 작은 벌이나……숭상할 만하고 : 벌과 개미에게는 본디 군신(君臣)의 의리가 있다는 데서 온 말이다. 《중용혹문(中庸或問)》 상권(上卷)에 “범과 승냥이에게 부자간의 친함이 있고, 벌과 개미에게 군신간의 의리가 있고, 승냥이와 수달이 조상에게 제사할 줄을 알고, 징정이에게 암수의 분별이 있는 것으로 말하자면, 그 형기가 한편으로 치우친 반면에 또 의리의 얻은 바를 보존한 것이 있다.[至於虎狼之父子, 蜂蟻之君臣, 豺獮之報本, 雉鳩之有別, 則其形氣之所偏, 又反有以存其義理之所得.]”라고 하였다.

1163 죽은 꿩으로 : 《의례(儀禮)》〈사상견례(士相見禮)〉에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예물(擘)로 겨울에는 죽은 꿩(雉)을 사용한다.[擘 冬用雉.]”라고 한 것에 대하여 정현의 주에는 “사(士)가 예물로 꿩을 사용하는 것은 꿩의 군세고 강직한 성정을 취한 것으로, 꿩은 교미하는 것에 때가 있고 헤어져도 윤서(倫序)가 있다. 반드시 죽은 것을 사용하는 것은 산 채로는 길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士擘用雉者, 取其耿介, 交有時, 別有倫也. 雉必用死者, 爲其不可生服也.]”라고 하였다.

1164 읍양을……올라 :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에게 양보하는 예교의 풍속을 말한다. 《논어》〈팔일(八佾)〉에 “군자는 다투는 것이 없으나 반드시 활쏘기에서는 경쟁을 한다. 상대방에게 읍하고 사양하며 올라갔다가 활을 쏜 뒤에는 내려와 벌주를 마시니, 이러한 다툼이 군자다운 다툼이다.[君子無所爭 必也射乎 揖讓而升 下而飲 其爭也君子]”라고 한 데서 유래한 말인데, 다만 여기서는 활쏘기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도를 논하고 옛날 일을 이야기하도다.	論道談古
너희들은 이러한 때에	爾於此時
가슴과 배를 멋대로 휘저으니	肆縱芻肚
나로 하여금 굽게 하여	使我把搔
갑자기 예모를 잃게 하구나.	頓失禮貌
한가로운 마루를 깨끗이 쓸고	及夫淨掃閒軒
책상은 단정히 하며	几案端詳
삼분오전 ¹¹⁶⁵ 은 오른쪽에 있고	墳典在右
《주문지결(朱門旨訣)》 ¹¹⁶⁶ 은 평상에 펼쳐 놓고는	旨訣鋪床
아득한 옛날 것에 마음을 노닐며	遊心邃古
뜻을 거슬러 헤아리니 정신이 신묘한데,	沂意神妙
너희들은 이러한 때에	爾於此時
나의 정돈된 틈을 타서	乘我整暇
분주하게 바삐 돌아다니며	奔走馳騁
정수리부터 발꿈치까지 이르구나.	自頂及踝
세상일이 비록 많아	世事雖多
왕맹 ¹¹⁶⁷ 처럼 겨를이 없으니	王猛不遑
하물며 나는 오묘한 이치에 대해	况我隱奧
어느 겨를에 상세히 터득할까.	暇得其詳

1165 삼분오전 : 원문의 ‘분전(墳典)’은 삼분오전(三墳五典)의 약칭인데, 전설 중에 나오는 옛날 책 이름이다. 《문선(文選)》〈동경부(東京賦)〉에 “옛날에 항상 삼분오전(三墳五典)이 없어서 위로 염제(炎帝)와 제괴(帝魁)의 아름다운 의표를 보지 못하여 한스러워하였다.”라고 하였는데, 설중(薛綜)의 주에 “삼분(三墳)은 삼황(三皇)의 글이고, 오전(五典)은 오제(五帝)의 글이다.”라고 하였다.

1166 《주문지결(朱門旨訣)》 : 성혼(成渾)이 《주자대전(朱子大全)》과 《주자어류(朱子語類)》의 각종 서신들과 대화들 및 주자의 행장(行狀)에서 주자의 사상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문장들을 뽑아서 초학자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을 선집해서 출간한 서적이다.

1167 왕맹 : 오호십육국(五胡十六國) 시대 전진(前秦)의 승상을 지낸 인물로, 자가 경략(景略)이고 북해(北海) 사람이다. 젊은 시절 동진(東晉)의 대장(大將) 환온(桓溫)을 찾아가 만나는 자리에서 여유롭게 이(理)를 잡으면서 유창하게 천하를 담론했을 정도로 기백이 뛰어났다고 한다. 《晉書 卷114 王猛列傳》

그리고 가나긴 밤 ¹¹⁶⁸ 에	又如永夜長漏
범중엄처럼 걱정이 많아 ¹¹⁶⁹	仲淹多憂
주공을 꿈꿀 수가 없었고, ¹¹⁷⁰	周公不夢
군실처럼 잠 못 이루며 ¹¹⁷¹	君實無寐
계속해서 이리저리 뒤척거리니	脈脈反側
하찮은 것이 창자와 폐에 엉켜있네.	寸結腸肺
너희들은 이러한 때에	爾於此時
더욱 그 독성이 왕성하여	益逞其毒
나의 손과 발로 하여금	使我手足
밤새도록 반복해서 굽게 하네.	終夜反復
이것은 대강이니	此其梗槩
자세한 것은 다하기도 어렵도다.”	難悉委曲
이에 그 무리들을 몰아서	於是欲驅其醜
장차 맹렬한 불길에 나아가게 하니	將赴烈焰

1168 가나긴 밤 : 원문의 ‘장루(長漏)’는 긴 밤을 말한다. 진여원(陳汝元)의 《금련기(金蓮記)·동몽(同夢)》에 “침상을 나란히 하여 함께 잠을 잤고 서쪽 창가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긴 밤을 지새웠다.[連床共宿, 話西窗同銷長漏.]”라는 말이 있다.

1169 범중엄처럼 걱정이 많아 : 범문정공(范文正公)이 말하기를 “내가 밤에 잠자리에 들 때에 곧 하루 동안 음식으로 봉양한 비용과 한 일을 스스로 헤아려 보고 과연 자신을 봉양하는 데 든 비용과 한 일이 걸맞으면 코를 골면서 푹 잤다. 혹 그렇지 않으면 밤새도록 편안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내일 반드시 들어맞게 하기를 구하였다.[吾遇夜就寢 卽自計一日飲食奉養之費及所爲之事 果自奉之費與所爲之事相稱 則鼾鼻熟寐 或不然 則終夕不能安眠 明日必求所以稱之者]”라고 하였다. 《言行龜鑑 卷2 德行門》 문정공은 범중엄(范仲淹)의 시호이다.

1170 주공을……없었고 : 《논어(論語)》〈술어(述而)〉에 “내가 너무도 쇠하였구나. 오래도록 꿈속에서 주공을 다시 뵈지 못하였으니.[甚矣 吾衰也 久矣 吾不復夢見周公]”라고 말이 나온다.

1171 군실처럼……이루며 : 군실은 송나라 사마광(司馬光, 1019~1086)의 자이다. 정자(程子)가 말하기를 “군실이 항상 생각이 어지러움을 걱정하여 더러는 밤중에 일어나 아침까지 자지 못했다고 하니 잠으로 스스로 험했다고 하겠다.……그러나 도리어 한 꾸러미의 구슬을 세는 것만 못하다. 밤이든 몸을 편히 하고 잠이 오면 눈을 감을 것이지 괴롭게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 수가 없다. 다만 마음으로 주를 삼지 못하기 때문이다.[君實常患思慮紛亂, 有時中夜而作, 達朝不寐, 可謂良自苦.……却不如與一串數珠之愈也. 夜以安身, 睡則合眼, 不知苦苦思量箇甚. 只是不以心爲主.]”라고 하였다. 《心經附註 卷3》

뒹굴음치며 물러나 두려워 벌벌 떨고 ¹¹⁷²	逡巡覈觫
원망한 듯 우는 듯하구나.	如怨如泣
이미 입술과 혀도 없어	既無唇舌
청컨대 마음을 대신 헤아렸네.	請代以臆
“내 비록 지극히 미천하지만	我雖至微
이 또한 천하의 생물이고	亦是天物
비록 그대에게 의지하여 살았지만	雖憑子生
또한 그대가 스스로 취한 것이네.	亦子自取
내 그대에게 분명히 말하니	我明語子
청컨대 그대는 살펴보아라.	請子咨諏
크고 넓은 집 아래	廣廈之下
고운 털 담요 위	細氈之上
서늘한 고운 삼베 ¹¹⁷³	絺絡之涼
순면의 솜	純綿之纒
제나라의 비단 ¹¹⁷⁴ 과 촉나라의 비단 ¹¹⁷⁵	齊紈蜀錦

1172 두려워 벌벌 떨고 : 원문의 ‘곡속(覈觫)’은 두려워하는 모양이다. 전국 시대 제(齊)나라 선왕(宣王)이 새로 주조한 종에 소의 피를 칠하기 위해 소를 끌고 가는 자를 보고 말하기를, “농이주어라. 나는 그놈이 벌벌 떨면서 죄 없이 죽을 곳에 나아가는 것 같은 모습을 차마 보지 못하겠노라.[舍之。吾不忍其覈觫，若無罪而就死地.]”라고 했던 데서 온 말이다. 《맹자(孟子)》 1권 〈양혜왕 상(梁惠王上)〉

1173 고운 삼베 : 원문의 ‘치락(絺絡)’은 치(絺)는 고운 갈포(葛布)를, 낙(絡)은 면주(綿紬)를 말하는데 누에고치에서 뽑아낸 실, 또는 그 실로 짠 비단을 말한다.

1174 제나라의 비단 : 원문의 ‘제환(齊紈)’은 제(齊)나라에서 생산되는 비단을 뜻하는데, 보통 둥근 부채(團扇)를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한 성제(漢成帝)의 궁인(宮人) 반첩여(班婕妤)가 시가(詩歌)에 능하여 총애를 받다가 나중에 허 태후(許太后)와 함께 조비연(趙飛燕)의 참소를 받고는 물러나 장신궁(長信宮)에서 폐위된 태후를 모시고 시부(詩賦)를 읊으며 슬픈 나날을 보냈는데, 단선시(團扇詩)를 지어서 여름철에는 사랑을 받다가 가을이 되면 버려지는 부채에 자신의 처지를 비유한 추선(秋扇)의 고사가 있다. 《문선(文選)》 권27에 〈원가행(怨歌行)〉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가 수록되어 있는데, 그 첫머리에 “지금 막 제나라의 흰 비단을 자르니, 희고 깨끗하기가 서리와 눈 같아라. 재단하여 합환의 부채를 만들었나니, 둥글고 둥근 것이 밝은 달과 같아라.[新裂紈綺素 皎潔如霜雪 裁爲合歡扇 團圓似明月]”라는 말이 나온다.

1175 촉나라의 비단 : 사천(四川)에서 생산되는 채색의 비단을 지칭한다. 염색한 숙사(熟絲)로 짜서 만드는데, 색채가 화려하고 재질이 질기다. 삼국(三國) 시대 위(魏)나라 조비(曹丕)의 〈여군신론(與群臣論蜀錦書)〉에 “전후로 매번 촉금(蜀錦)을 얻을 때마다 자못 가당치 않아

영롱하며 휘황찬란한 빛 ¹¹⁷⁶	陸離輝煌
가득한 고량진미	膏粱所充
향기로운 옥 같은 살갓	玉膚芳香
내가 바라지 않은 것은 아니나	我非不欲
부여잡을 길이 없으니	無路攀援
지금 그대는 백 번 기운 겹겹의 옷과	今子百結重裳
십년 된 해진 갓으로	十年蔽冠
팽택령처럼 무릎이나 들어갈 만 한 집 ¹¹⁷⁷ 에 살고	容彭澤膝
사마광처럼 찢어진 이불 ¹¹⁷⁸ 을 덮는다.	破司馬衾
광문처럼 비록 가난하고 ¹¹⁷⁹	廣文雖貧
법조처럼 허리가 크지만 ¹¹⁸⁰	法曹腰大
낙토여 낙토여	樂土樂土
이에 내 살 곳으로 얻었으니 ¹¹⁸¹	爰得我所

의아할 뿐이었고, 선비(鮮卑)도 다시금 좋아하지 않았다.”라고 하였다.

- 1176 영롱하며 휘황찬란한 빛 : 원문의 ‘육리휘황(陸離輝煌)’은 찬란육리(燦爛陸離)와 같은 말로 영롱한 빛이 휘황찬란하게 빛나는 모양을 나타낸다.
- 1177 팽택령처럼……집 : 도연명이 팽택령(彭澤令)으로 있다가 <귀거래사(歸去來辭)>를 읊고는 고향의 전원으로 돌아와 소나무와 국화를 심고 한가롭게 살았다. <귀거래사>에 “술잔을 가져다 스스로 따르고 딸의 나뭇가지를 돌아보며 얼굴을 편다. 남쪽 창에 기대 오만함을 부치고 무릎이 용납하기 쉬움을 알겠다.[引壺觴以自酌 眴庭柯以怡顏 倚南窓以寄傲 審容膝之易安]”라고 하였다.
- 1178 사마광처럼 찢어진 이불 : <사마온공포금명(司馬溫公布衾銘)>은 범진(范鎰, 1008~1089)이 사마광에게 준 베 이불에 대해 범순인(范純仁, 1027~1101)이 명을 지은 것으로, 베 이불을 소재로 검소(儉素)의 덕을 권면하는 내용이다. 사마광은 늙어 병이 깊어지자 심의(深衣)와 베 이불을 가지고 시신을 염(殮)하라고 유언하였다고 한다.
- 1179 광문처럼 비록 가난하고 : 광문은 본디 당 현종(唐玄宗) 때의 문인으로 광문관 박사(廣文館博士)를 지낸 정건(鄭虔)을 가리킨다. 그는 일찍이 현종의 특별한 배려로 한직(閑職)인 광문관 박사에 임명되었으나, 몹시 빈한(貧寒)한 데다 술을 매우 즐겼으므로, 두보(杜甫)가 장난삼아 그에게 <회간정광문戲簡鄭廣文>이라는 시를 지어 주기도 했다. [杜少陵詩集 卷3]
- 1180 법조처럼 허리가 크지만 : 한유의 <정군증집(鄭君贈簾)>이란 작품에서 “법조참관 말직에 아무나 함부로 대하는 자리, 허리와 배 부질없이 크니 어찌하면 좋겠는가.[法曹賤衆所易 腰腹空大何能爲]”라 하였다. 이 작품은 가난한 한유가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 하고 있다.
- 1181 낙토여……얻었으니 : 《시경》 <석서(碩鼠)>에 “큰 쥐야, 큰 쥐야. 내 기장을 먹지 말지어다. 3년 동안 너와 알고 지냈거늘 나를 즐겨 돌아보지 않을진댄 떠나서 장차 너를 버리고 저 낙토로 가리라. 낙토여, 낙토여. 이에 내 살 곳을 얻으리로다.[碩鼠碩鼠, 無食我黍. 三歲貫女, 莫

어찌 안을 돌아보지도 않고	胡不內顧
도리어 나와 원수가 되느냐.	反我爲讎
선생은 이에 수심에 차 기쁘지 않은 듯	先生乃蹙然不悅
안석에 기대어 누워 있네.	隱几而臥
이에 동자에게 손을 저어 물리가게 하니	乃使童子麾而却之
곁에 있던 객이 다음과 같이 말하네.	傍有客曰
“지금 비록 하나를 들었지만	今雖聞一
도리어 세 이치를 알게 되었네. ¹¹⁸²	理可反三
유방의 법 ¹¹⁸³ 이 문란하지 않으니	劉綱不紊
위나라 적 ¹¹⁸⁴ 이 마음으로 따랐고	魏賊腹心
당나라가 법을 멋대로 하지 않으니	李法不橫
번진 ¹¹⁸⁵ 도 멋대로 하지 못하네.	藩鎮不橫
임금이 성스럽고 신하가 어지니	主聖臣良
귀신이나 괴기한 것이 능히 멋대로 하라	鬼怪能逞
송나라 임금이 임금답지 못하니	宋辟不辟
간사하고 아첨한 자가 뜻을 얻었네.	奸諛得志

我肯顧。逝將去女，適彼樂土。樂土樂土，爰得我所。】”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1182 지금……되었네 : 《논어》〈술이(述而)〉의 “마음속으로 통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열어주지 말며, 애태워하지 않으면 말해주지 말되, 한 귀통이를 들어줌에 이것을 가지고 남은 세 귀통이를 반증(反證)하지 않으면 다시 더 일러주지 않는다.[不憤不啓，不排不發，舉一隅，不以三隅反，則不復也。]”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1183 유방의 법 : 약법삼장(約法三章)이라고 하는데, 한 고조 유방(劉邦)이 진(秦)나라의 가혹한 법을 폐지하고 세 조항으로 줄여서 새로 만든 법이다.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하며, 남에게 상해를 입힌 자와 도둑질한 자에 대해서는 그 범죄 정도와 상응하는 처벌을 한다.[殺人者死，傷人及盜抵罪。]”라고 하였다. 《史記 卷8 高祖本紀》

1184 위나라 적 : 제갈량(諸葛亮)의 〈후출사표(後出師表)〉에 ‘선제(先帝)는 한나라와 역적은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先帝慮漢賊不兩立]’에 나오는 말로 적(賊)은 위(魏)나라 조조(曹操)를 가리킨다.

1185 번진 : 당나라 초기에 중요한 주(州)에 도독부(都督府)를 두고, 예종(睿宗) 때 절도대사(節度大使)를 두고, 현종(玄宗) 때 또 변경의 10개소에 절도사를 두었는데, 이를 통틀어 ‘번진’이라고 한다. 처음에는 각 지역의 군정(軍政)만 담당하다가 나중에는 권력이 점차 커져 민정(民政)과 재정(財政)까지 담당하였다.

스스로 치면 남들도 치게 되니¹¹⁸⁶
 성인이 경계하셨네.”
 선생은 옷깃을 여미고 다시 앉아
 엄숙히 다시 책을 읽는데
 낭랑한 맑은 소리가
 마치 금석에서 나온 듯 하였네.¹¹⁸⁷

自伐人伐
 惟聖之戒
 先生斂衽更坐
 肅然復讀
 琅琅清韻
 若出金石

1186 스스로……되니 : 《맹자》〈이부 상(離婁上)〉에 “사람은 반드시 스스로 업신여긴 뒤에 남이 그를 업신여기며, 집안은 반드시 스스로 패가(敗家)한 뒤에 남이 그를 패가하며, 나라는 반드시 스스로 공격한 뒤에 남이 공격하는 것이다.[夫人必自侮然後 人侮之 家必自毀而後 人毀之 國必自伐而後 人伐之]”라는 말이 나온다.

1187 금석에서……하였네 : 글 읽는 소리가 카랑카랑하여 쇠소리와 석경(石磬)소리와 같음을 말한다. 《장자(莊子)》〈양왕(讓王)〉의 “공자의 제자 증자(曾子)가 위(衛)나라에 머물 적에 해진 옷은 너덜거리고 얼굴은 부어서 푸석푸석하며 손발이 모두 트고 갈라져 있었다. 3일 동안이나 밥을 짓지 못하였고 10년 동안 옷을 새로 만들어 입지 못하였다. 또 갓을 바로 쓰려 하면 갓 끈이 끊어지고 옷깃을 여미려 하면 옷이 찢어져 팔뚝이 보였으며 신을 신으면 신의 뒤축이 터져버렸다. 그런데도 신발을 끌면서 《시경》의 상송(商頌)을 노래하면 소리가 하늘과 땅에 가득 하여 마치 금속에서 나오는 듯하였다.[聲滿天地, 若出金石.]”라고 한 고사를 인용한 것이다.

남포집

제8권

소疏

남포집 제8권

소(疏)

인조의 분묘(墳墓)에 달려가 곡을 한 후 국사에 대해 논한 상소 山陵奔哭後言事疏

삼가 아뢰옵니다. 신은 삼가 상서(祥瑞)도 기뻐할 것이 없고 재이(災異)도 두려울 것이 없으며 외적도 걱정할 것이 없다고 여깁니다. 크게 두려울 만한 것은 수천 리 나라 안에 잠복하여 막고자 하여도 잡을 수 있는 형체가 없고, 보고자 하여도 찾을 수 있는 자취가 없어서 헤아릴 수 없는 변화에 국가가 전복되고 멸망하는 화가 지극히 은미한 사이에 몰래 숨어있고 공경대부(公卿大夫)·사서인(士庶人)의 위에서 멋대로 유행하는 것이라 생각되오니, 이것의 실체는 바로 ‘인심(人心)’입니다. 《서경(書經)》【아마도 《시경(詩經)》인 듯하다.】에 말하기를 “은(殷)나라가 대중을 잃지 않았을 때에는 능히 상제에게 짝했었다. 마땅히 은나라를 거울로 삼을지어다. 큰 명을 보존하기가 쉽지 않다.”¹¹⁸⁸라 하였고, 이어 《대학(大學)》에서 말하기를 “대중을 얻으면 나라를 얻고 대중을 잃으면 나라를 잃음을 말한 것이다.”¹¹⁸⁹라고 하였습니다. 이른바 대중을 얻는다는 것은 대중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대중의 마음이 하나로 정해지고, 분산되거나 배반하여 떠나지 않은 뒤에 하늘의 명(命)과 짝하고 국가를 보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주(紂)임금은 억만 명의 신하를 두었으나 억만 가지 마음을 가졌고, 무왕(武王)은 삼천의 신하를 두었으나 마음은 하나이다.”¹¹⁹⁰라고 하였습니다.

1188 “은(殷)나라가……쉽지 않다 : 《시경》〈대아(大雅) 문왕(文王)〉에 보인다. 이것은 주나라周公(周公)이 문왕의 공덕을 아름답게 여겨 찬미한 것이다.

1189 “대중을 얻으면……말한 것이다.” : 《대학장구(大學章句)》 권 10장을 인용하였다.

1190 “주(紂)임금은……하나이다 : 《서경》〈태서 상(泰誓上)〉에 “수는 억만의 신하를 두었되 마

이 때문에 인심이 순일(純一)해진 뒤에 천명이 일정해지고 천명이 일정해진 뒤에 국가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위로는 삼대(三代)로부터 아래로는 진(秦)·한(漢)·당(唐)·송(宋)에 이르기까지 흥하려 할 때는 인심이 하나가 아니었던 적이 없었고, 쇠퇴하려 할 때는 인심이 흩어지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역사서를 살펴보면 해와 달을 보듯 분명히 알 수 있으니 속일 수가 없습니다.

신이 삼가 보건대 우리나라의 인심이 둘로 갈라져 하나로 정해지지 못한 지가 백 년이 되어 가는데, 광해군(光海君) 시대에 이르러 둘로 갈라졌던 인심이 또 나뉘어 대여섯의 마음이 되었고, 대여섯의 마음이 억만의 마음이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때문에 광해군이 나라를 망치게 하였으니, 이는 온 나라 사람들도 보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행히도 우리의 어질고 성스러우며 신성한 조종(祖宗)의 대왕이 하늘의 아름다운 명에 응하여 중통(宗統)을 크게 계승하니 인심이 나뉘어 억만의 마음이 되었던 것이 하루아침에 합쳐져 하나가 되어 무궁한 왕업이 다시 중흥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선왕께서는 성스럽고 신성하며 문무(文武)의 덕으로 많은 왕들 중에 탁월하여 마음을 바로잡아 조정을 바르게 하고 만민의 마음을 바르게 하였으니¹¹⁹¹ 오늘날 인심이 하나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이 일찍이 나라 사람들의 면모를 살펴보고 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생각해보니, 인심이 분열될 실마리가 여전히 지금까지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사롭게 품고 있던 생각은 초목처럼 자라나서¹¹⁹² 보이지도

음이 억만 가지로 흩어져 있고, 나는 삼천의 신하를 두었으되 마음은 하나이니라.[受有臣億萬 有億萬心 予有臣三千 惟一心]”라고 한 데서 인용한 말이다.

1191 마음을……하였으니 : 전한(前漢)의 동중서가 무제(武帝) 즉위 초에 올린 대책문(對策文)에서 “임금은 자기 마음을 바로잡아 조정을 바르게 하고, 조정을 바로잡아 백관을 바르게 하고, 백관을 바로잡아 만백성을 바르게 하고, 만백성을 바로잡아 사방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爲人君者 正心以正朝廷 正朝廷以正百官 正百官以正萬民 正萬民以正四方]”라고 하였다. 《漢書 卷56 董仲舒傳》

1192 초목처럼 자라나서 : 《서경》〈탕고(湯誥)〉에 “상천(上天)이 진실로 하민(下民)들을 돕기에 죄인이 쫓겨나 굴복하니, 천명은 어긋나지 아니하여 초목처럼 뚜렷이 드러나 있다. 이 때문에 만백성이 번성하는 것이다.[上天孚佑下民 罪人黜伏 天命弗僭 賁若草木 兆民允殖]”라고 하

않고 들리지 않는 가운데에서 싹트고 언어와 행동 사이에서 발로(發露)되어 조정에서는 공론이 행해지지 않고, 여항(閭巷) 안에서는 여론¹¹⁹³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혹은 동(東)으로 혹은 서(西)로 자취가 나뉘어져¹¹⁹⁴ 어질고 어리석다고 여기는 것과 간사하고 바르다고 여기는 것에 대한 시비(是非)가 상반됩니다. 한 나라의 마음이 둘로 나뉘어져 한 번 나아가고 한 번 물러나는 것을 가지고 승부를 결정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면서 임금을 섬기고 시국을 걱정하는 데 대한 생각은 도리어 부차적인 일로 여기고 있습니다.

간혹 정직한 마음가짐과 공평한 의론을 지니고서 인심을 안정시키고 나라의 일에 힘쓰고자 하는 사람이 그 가운데서 나오면 무리지어 괴이하게 여겨 비웃으며 그 사람을 가리켜 ‘함호(含胡, 애매모호하다.)’라 하고, 【다른 판본에는 ‘함호(含糊)’로 되어 있다.】 둘 다 옳다고 하는 사람은 배척하며 ‘마음에 주장한 바가 없는 사람’이라 하면서 결국에는 일개 버려진 물건 취급을 받은 뒤에 그칩니다. 인심이 이와 같은데 나라가 다스려질 수 있겠습니까?

신이 앞서 ‘크게 두려울 만한 것은 수천 리 나라 안에 잠복되어 있고 재앙과 외적은 걱정할 만한 것이 못 된다.’고 말씀드렸으니, 이것이 무슨 말이라면 인심이 하나로 정해지고 천명이 일정해지면 재앙은 사라지고 외적은 방어하기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선왕의 어진 마음과 어진 명성이 사방에 젖어들어 억만의 백성들이 부모처럼 우러러보니 요순(堯舜)과 같은 지극한 다스림이 머지않아 이뤄질 수 있었는데, 백성들이 복이 없고 하늘이 보살피지 않아 성상의 교화가 다 퍼지기도 전에 임금께서 멀리 떠나니¹¹⁹⁵ 깊고 궁벽한 산골짜기 백성들도 울

었다.

1193 여론 : 원문의 ‘물의(物議)’는 어떤 사람의 처사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논평하는 상태이다. 물론(物論)이라고도 하며, 여기에서는 여론을 뜻한다.

1194 혹은……나뉘어져 : 1575년(선조8)에 인사권과 인론권이 집중된 이조 정랑의 자리를 놓고 심의겸(沈義謙)을 따르는 동인(東人)과 김효원(金孝元)을 따르는 서인(西人)으로 당파가 나뉘게 되는데, 이를 을해붕당(乙亥朋黨)이라고 한다. 동인은 허엽(許曄)을 영수로 해서 이황(李滉)과 조식(曹植)의 문인들이 많았고, 서인은 박순(朴淳)을 영수로 해서 이이(李珣)와 성혼(成渾)의 제자들이 많았다.

1195 임금께서 멀리 떠나니 : 기축년(1649) 5월에 인조(仁祖)가 승하한 것을 가리킨다.

부짚으며 통곡하지 않음이 없었고, 온 나라 사람들은 놀라 두려운 마음이었 습니다. 이러한 때에 백성들의 뜻을 진정시켜서 따르게 하고 천명을 이어 계 승하여 위로는 이백 년 종묘사직의 기틀을 편안하게 하고, 아래로는 억만 백 성들의 놀라 두려운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은 그 책임이 전하에게 있지 않겠 습니까? 치란(治亂)의 기미와 흥망의 갈림길이 또한 오늘에 달려 있지 않겠 습니까?

전하께서는 어찌 확연(廓然)히 경계하며 두려워하고 분연(奮然)히 떨쳐 일 어나 백관(百官)을 통솔하고 기강을 엄숙히 하며, 현명하고 재능 있는 사람 을 맞아들이고 힘써 민심을 기쁘게 하여서¹¹⁹⁶ 일체 인심을 하나로 정하는 것 을 급선무로 삼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인심이 하나로 정해질 수 있겠습니까? 이는 오직 전하의 마음이 올바르냐 올바르지 않느냐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임금의 마음이 하나로 정해지면 온 천하 사람들의 마음도 하 하나로 정할 수 있는데, 하물며 한 나라 사람들의 마음이야 말할 필요가 있겠 습니까? 한 나라 사람들의 마음도 하나로 정할 수 있는데, 하물며 궁궐의 섬들 아래와 조정 위의 신하들의 마음이야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때문 에 한 나라 사람들의 마음이 진실로 두려워할 만한 것입니다. 두려워할 만한 것에는 또 나라 사람들의 마음보다 심한 것이 있으니, 또한 전하의 한 마음 에 달려있습니다.

대개 마음이란 것은 진실로 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을 잡아서 얻느냐 놓아 서 잃어버리느냐의 문제는 진실로 내 분수 안의 일입니다. 그러나 붙잡으면 보존되고 놓으면 잃어서 나가고 들어옴이 일정한 때가 없는 것¹¹⁹⁷ 또한 내 마음이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점이 있어서입니다. 진실로 경(敬)하여 마음

1196 현명하고……하여서 : 등우가 광무제(光武帝)를 처음 만나서 건의한 내용 중에 “영웅을 맞 아들이고 민심을 기쁘게 하기를 힘쓰라.[延攬英雄, 務悅民心]”고 하였다. 《후한서(後漢書)》 〈등우열전(鄧禹列傳)〉

1197 붙잡으면……없는 것 : 《맹자》〈고자 상〉에 “공자가 말하기를 잡으면 보존되고 놓으면 잃어 서 나가고 들어옴이 일정한 때가 없으며 그 방향을 알 수 없는 것은 오직 사람의 마음을 두 고 말한 것이다.[孔子曰 操則存 舍則亡 出入無時 莫知其鄉 惟心之謂與]”라고 하였다.

을 끈게 하면¹¹⁹⁸ 온갖 선(善)이 따르는 법이요, 만약 경(敬)¹¹⁹⁹으로 하지 않고 외물에 이끌리면 온갖 사특함이 한번 잘못 생각하는 짧은 순간에 모여들어 뜻이 정성스럽지 못하고, 마음이 바르지 못하며, 몸이 닦이지 못하여 국가와 천하도 그를 따라 전복됩니다. 그 기미는 지극히 은미한데 그 재앙은 헤아릴 수 없으니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우선 한 마음의 근본부터 확립하여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커다란 하늘과 밝은 태양처럼 지극히 공정하여¹²⁰⁰ 천하 만물로 하여금 내 마음의 밝고 지혜로운 점을 모두 비출 수 있게 한 뒤에 백관(百官)을 선택하여 노련하고 덕행이 숙련되며 마음가짐이 공명정대하여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사람을 얻어 보좌하게 하여 중화(中和)¹²⁰¹의 정치를 활짝 열고 공명정대한 교화를 우뚝 정립해야 합니다. 내 마음으로 하여금 천하 가운데에 환히 밝게 내걸어 봄기운이 사사로이 후대(厚待)함이 없고 해와 달이 사사로이 비춤이 없는 것 같이 하면 나라 사람들 중에 위로는 공경대부(公卿大夫)부터 아래로는 여항의 필부까지 모두 전하의 지공(至公)하고 지중(至中)한 인자함에 감동하고 흥기하여 옛날에 시기하고 의심하며 과격하고 집요하며 공정하지 않고 적절하지도 않는 습관을 완전히 혁파하여 한결같이 바른 곳으로 나아가고 동료끼리 협동하고 공손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런 뒤에도 만약 옛 그대로 사사로운 마음을 품고 있어 시종일관 개혁하

1198 경(敬)하여……하면 : 《대학장구》에 “마음이 없으면 봐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먹어도 그 맛을 알지 못한다.[心不在焉 視而不見 聽而不聞 食而不知其味]”라고 하였다. 이에 대한 주희의 주석에서 “마음이 보전되지 못함이 있으면 그 몸을 검속(檢束)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군자는 반드시 이를 살펴서 경(敬)하여 마음을 끈게 하니, 그러한 뒤에야 이 마음이 항상 보존되어서 몸이 닦아지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心有不存 則無以檢其身 是以 君子必察乎此 而敬以直之 然後 此心常存 而身無不修也]”라고 하였다.

1199 경(敬) : 원문의 ‘주일(主一)’은 정이(程頤)가 성학(聖學)의 요체인 경(敬)을 설명한 말이다. 《근사록》 권4 <존양(存養)에 “하나를 주장함을 ‘경’이라 하고,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음을 ‘일’이라 한다.[主一之謂敬 無適之謂一]”라고 하였다.

1200 지극히 공정하여 : 원문의 ‘대중지정(大中至正)’은 유가에서 말하는 지극히 공명정대한 도리를 가리킨다. 《朱子語類 卷83》

1201 중화(中和) : 《중용장구》 제1장에 “희로애락의 감정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를 ‘중(中)’이라 하고, 그러한 감정이 발생하여 모두 절도에 맞는 것을 ‘화(和)’라 한다.[喜怒哀樂之未發 謂之中 發而皆中節 謂之和.]”라고 하였다. 곧 체(體)가 중정하고, 용(用)이 화평한 중용(中庸)의 덕을 가리킨다.

지 않은 사람은 사망의 변방으로 내쫓아 나라 안에서 함께 거처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하께서 먼저 정직하고 공명정대한 마음을 확립하지 못한 채 단지 아랫사람들은 마음을 함께 하거나 공정함을 지키지 못한다고 의심하여 믿지 못하는 생각이 먼저 마음속에 굳게 자리 잡아 현명하게 비추지 않고 도리어 사사로운 지혜와 생각으로 막고자 한다면 사림(士林)에게 끼치는 재앙 또한 반드시 가뻐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내 마음의 지극히 공정함을 먼저 밝혀서 천하의 아픔답고 추함과 부정하고 정직함이 나의 밝은 감식안에서 벗어나지 않은 뒤에야 한 나라의 마음이 하나로 정해질 수 있고 종묘사직의 복은 무궁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전의 관습이 돌이 되어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갈려져 순일(純一)하지 못하여 동서로 각각 나뉘는 채 세월이 더욱 오래되면 이른바 ‘억만의 마음이 멸망의 길로 저절로 나아간다.’라는 것도 조만간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신은 우리나라를 멸망하게 하는 것이 외적에 있지 않고 나라의 수천 리 안에 있다고 한 것이니 전하께서는 어찌 두려워하고 깊이 생각하여 서둘러 인심을 하나로 정하는 일을 힘쓰지 않습니까?

신은 매우 미천한 신분인데 외람되어 은혜롭게 벼슬을 받아 두 조정¹²⁰²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번 인조(仁祖)의 인산(因山)하는 날에 감히 제 집에 물러나 있을 수가 없어 천리의 길을 급히 달려와¹²⁰³ 교외에서 통곡하고 이제 장차 물러나 초야로 돌아가 생을 마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이 일찍이 사람들의 마음이 의심하고 탄마음을 품어 나라의 형세가 나날이 외로워짐을 목격하고는 보잘것없는 마음¹²⁰⁴을 헤아리지 못한 채 【다른 판본에는

1202 두 조정 : 인조(仁祖)와 효종(孝宗)을 말한다.

1203 급히 달려와 : 원문의 ‘포복(匍匐)’은 모든 일을 체쳐 두고 급히 달려가는 것을 말한다. 《예기》〈단궁 하(檀弓下)〉에 “상사(喪事)가 나면 부복(扶服)해서 도와주어야 한다.”라고 하였는데, 부복은 엎어지고 자빠지면서도 급히 가야 한다는 포복의 뜻과 같다. 한편 《예기》〈문상(問喪)〉을 보면 “포복해서라도 가서 곡(哭)을 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1204 보잘것없는 마음 : 원문의 ‘촌근(寸芹)’은 하찮은 것이라도 임금께 생각하여 바치고자 하는 아랫사람의 정성을 가리킨다. 옛날 마나리 맛이 기막히다고 윗사람에게 바쳤다가 조소를 당한 헌근(獻芹)의 고사와, 따뜻한 햇볕을 임금에게 바치면 중상(重賞)을 받을 것이라며 기뻐했다는 헌폭(獻曝)의 고사가 있다. 《列子 楊朱》

‘격(激)’으로 되어 있다.] 충성을 다하려는 마음¹²⁰⁵이 간절하였습니다. 지금 만약 초야¹²⁰⁶로 돌아가 종신토록 침묵한다면 하찮은 저의 구구한 마음을 견딜 수가 없겠기에, 감히 대궐 아래에서 절하며 짧은 상소를 올리고 곧장 물러나 돌아옵니다. 삼가 생각건대 성상께서 살펴주십시오.

만언소

【기해년(1659) 봄 효종의 뜻에 응하여 상소를 지었는데 시초점이 불길하여 감히 올리지 못하였다.】

萬言疏 【己亥春應旨製疏，以筮不吉不果上.】

삼가 아뢰입니다. 신은 남쪽 변방의 일개 미천한 포의(布衣)¹²⁰⁷의 신분으로 초야에 몸을 은거하고 은거지에서 분수를 지키며 힘써 밭 갈고 공리(公理)를 받들면서 생을 마치기를 기약하였습니다. 그러나 뜻밖에 지난 선왕(先王 인조(仁祖))의 조정에서 황송하게 복록을 얻었고, 성상의 교화에 무뎠어 본 직함에 특별히 제수되었습니다. 신은 외람되어 미천한 신분인데 두 조정에서 은혜를 받아 비록 마음속으로 감격했지만 분골쇄신하여도 갚기가 어려워 스스로 재주가 없음을 헤아리고 들녘으로 물러나 농사를 지은 지 이제 10년이 지났습니다.

1205 충성을……마음 : 원문의 ‘향일(向日)’은 ‘향양(向陽)’과 같은 말로 임금에게 충성을 다한다는 뜻이다. 해바라기는 항상 해를 향해 피므로, 이로 인하여 임금에게 충성을 바치고자 하는 정성을 뜻한다. 《삼국지(三國志)》 권19 〈위서(魏書) 진사왕식전(陳思王植傳)〉에 이르기를 “해바라기가 꽃잎을 해를 향하여 기울이는 것과 같으니, 태양이 비록 해바라기를 위하여 빛을 돌리지는 않으나, 해바라기가 해를 향하는 것은 정성인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1206 초야 : 원문의 ‘구학(邱壑)’은 일구일학(一邱一壑)의 준말이다. 이는 동진(東晉)의 화가 고개지(顧愷之)의 고사와 관련이 있다. 고개지는 사곤(謝鯤)이 암석 사이에 있는 그림을 그렸다. 이에 사람들이 그 까닭을 묻자 “사곤이 구학에 뜻을 둔 것은 자신이 유량(庾亮)보다 낫다고 한 것이니, 그 사람은 마땅히 구학에 두어야 한다.[謝云一邱一壑，自謂過之，此子宜置邱壑中.]”라고 했다. 이로부터 ‘구학’은 은자의 거처로 인식되었다.

1207 포의(布衣) : 베로 만든 옷이니, 곧 서민(庶民)이 입는 옷이므로 벼슬이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근래에 삼가 들건대 요임금과 순임금이 세상을 다스림에 고요(皋陶)와 기(棄)에게 지위를 내리고¹²⁰⁸ 거리낌 없이 간언하는 문을 크게 열어 천하【다른 판본에는 ‘일세(一世)’로 되어 있다.】의 선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조정에서는 선한 말을 간언하는 깃발을 열었고¹²⁰⁹ 시장에는 비방의 나무¹²¹⁰를 세웠으며 여대(輿儻)¹²¹¹·부녀자·농부·야인들 각자 자신들의 일을 하고 충직한 말을 올려 아뢰니 화락(和樂)한 풍모는 팔방에 가득 넘쳤고, 오변(於變)의 교화¹²¹²는 사방에 빛나게 펼쳐졌습니다.¹²¹³ 미천한 신이 초야에 엎드려 있는데 성스러운 세상을 만나 즐기니 강구요(康衢謠)¹²¹⁴와 격양가(擊

1208 요임금과……내리고 : 《서경》〈순전(舜典)〉에 의하면, 순(舜) 임금이 우(禹)를 사공(司空)으로, 기(棄)를 후직(后稷)으로, 설(挈)을 사도(司徒)로, 고요(皋陶)를 사(士)로, 수(垂)를 공공(共工)으로, 익(益)을 우(虞)로, 백이(伯夷)를 질종(秩宗)으로, 기(夔)를 전악(典樂)으로, 용(龍)을 남언(納言)으로 삼았다.

1209 조정에서는……열었고 : 원문의 ‘진선지정(進善之旌)’은 요임금이 나라의 정치를 바르게 하기 위해 사통팔달의 네거리에 깃발을 단 깃대를 세워놓고, 정사에 유익한 말을 할 사람은 그 아래에 서 있게 하였다. 《사기(史記)》 10권 〈효문본기(孝文本紀)〉에, “옛날 천하를 다스릴 때 조정에는 선한 말을 간언하는 깃발이 있었다.[古之治天下, 朝有進善之旌.]”라고 하였다.

1210 비방의 나무 : 원문의 ‘비방지목(誹謗之木)’은 백성이 정치의 잘못을 써 놓도록 길에 세워 놓은 나무로, 순(舜) 임금이 이를 통해 정치의 잘못을 반성하였다고 한다. 방목(謗木)으로 줄여 쓰기도 한다. 《대대례(大戴禮)》 3권 〈보전(保傳)〉에 “옳은 것을 말하는 깃발이 있고, 비방하는 나무가 있으며, 감히 간하는 북이 있었다.[有進善之旌, 有誹謗之木, 有敢諫之鼓.]”라고 하였다.

1211 여대(輿儻) : 《춘추좌씨전》에서 사람의 신분을 왕(王), 공(公), 대부(大夫), 사(士), 조(阜), 여(輿), 예(隸), 요(僚), 복(僕), 대(儻) 등 열 가지 계층으로 분류하였는데, 그 가운데 아래 등급의 천민 계급을 말한다. 《春秋左氏傳 昭公7年》

1212 오변(於變)의 교화 : 백성들을 변화시켜 화목하게 만드는 교화를 이른다. 《서경》〈요전(堯典)〉에 “만방을 화합하여 융화하게 하시니 백성들이 아! 변하여 이에 화목해졌다.[協和萬邦, 黎民於變時雍.]”라고 하였다.

1213 사방에 빛나게 펼쳐졌습니다 : 《서경》〈요전(堯典)〉에 “옛 제요(帝堯)를 상고하건대 공이 크시니, 공경하고 밝고 문채롭고 생각이 편안하시며, 진실로 공손하고 능히 겸양하여 광채가 사표에 입혀지며 상하에 이르렀다.[曰若稽古帝堯 曰放勳 欽明文思安安 允恭克讓 光被四表格于上下]”라는 구절에서 인용하였다.

1214 강구요(康衢謠) : 격양가(擊壤歌)를 의미한다. 강구(康衢)는 사통오달(四通五達)의 큰길을 말한다. 요(堯) 임금이 천하를 다스린 지 50년이 되었을 때, 친히 미복 차림으로 강구에 나가서 살펴보니 한 노인(老人)이 배불리 먹고 배를 두드리며 이룬바 〈격양가(擊壤歌)〉를 부르기를, “해가 뜨면 나가서 일하고 해가 지면 들어가서 쉬도다. 우물 파서 물을 마시고 밭 갈아서 밥을 먹거니, 임금의 힘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으랴.[日出而作, 日入而息. 擊井而飲, 耕田

壤歌)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저는 그것을 직접 보았는데 삼가 금일에 일어난 혹독한 천재지변이 요순¹²¹⁵ 같은 큰 교화의 날에 거듭 나타나니 두려워하며 간언을 구하는 교서가 초야에 버려진 선비에게도 욱되어 내려졌습니다.

아! 황천(皇天)이 성상을 인애(仁愛)하는 마음과 성상이 황천을 경외하는 진심이 위아래에서 부합되니, 장차 지극한 다스림이 열리는 것이 진실로 여기에서 비롯될 것입니다. 신은 비록 미천하고 졸렬하지만 감히 어리석은 견해¹²¹⁶를 다하여 삼가 보잘것없는 의견¹²¹⁷을 올리니 바라옵건대 자애로운 성상께서 살펴주십시오.

신이 들건대 제왕의 정치는 반드시 도(道)에서 근본하고 제왕의 도는 반드시 마음에서 근본 하니 마음을 다스리는 요체는 이치를 궁구하는데 있고 이치를 궁구하는 요체는 거경(居敬)¹²¹⁸에 있습니다. 대체로 제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제왕의 도를 회복하고 제왕의 정치를 펼치고자 한다면 이런 마음을 버리고 어찌하겠습니까? 옛날을 살펴보니 요임금은 천하를 순임금에게 주었고, 순임금은 천하를 우임금에게 주었습니다. 천하라는 것은 천하의 큰 그릇[大器]인데 천하의 큰 그릇으로 사람에게 전하였으니, 대개 천하에서 말할 만한 일들이 어찌 작겠습니까마는 정일집중(精一執中)¹²¹⁹ 네 글자라고 하는

而食, 帝力何有於我哉!”라고 했다 한다. 《論衡 藝增》

1215 요순 : 원문의 ‘훈화(勳華)’는 요임금과 순임금을 말하는데, 요임금을 방훈(放勳)이라고 하고 순임금을 중화(重華)라고 한 데서 온 것이다.

1216 어리석은 견해 : 원문의 ‘일득지우(一得之愚)’는 천 번을 생각하여 하나를 얻는 어리석음이라는 말로 자신의 견해에 대한 겸사이다. 《사기(史記)》 권92 <회음후열전(淮陰侯列傳)>에 “지혜로운 사람도 천 번 생각에 반드시 한 번쯤의 실수가 있고, 어리석은 사람도 천 번 생각하면 반드시 한 번은 얻는 것이 있다.”라고 하였다.

1217 보잘것없는 의견 : 원문의 ‘추요지헌(芻蕘之獻)’은 《시경(詩經)》 대야(大雅) 판(板)에, “선현들이 말씀하시되 나무꾼에게도 물으라고 하셨다.[先民有言 詢于芻蕘]”고 한 데서 나온 말로, 나무꾼같이 미천한 사람이 올리는 말로 여겨 주기 바란다는 뜻이다.

1218 거경(居敬) : 마음의 잡념을 없애고 몸을 바르게 가지는 것을 말하는데, 주자(朱子)의 수양법 가운데 하나이다. 주자는 “학자의 공부는 오직 거경과 궁리 두 가지 일에 달려 있으니, 이 두 가지 일은 상호 발명된다. 궁리를 하면 거경 공부가 날로 더욱 진전되고 거경을 하면 궁리 공부가 날로 더욱 치밀해질 것이다.”라고 하였다. 《心經 卷4》

1219 정일집중(精一執中) : 순수한 일념으로 중도(中道)를 지키는 것을 말한다. 순(舜) 임금이 말하기를 “인심은 위태롭고 도심은 은미하니 순수한 일념으로 중도를 지켜야 할 것이다.[人心

데 불과하였습니다. 성·탕·문·무(成湯文武)는 만고의 성스러운 왕으로 전장(典章)·법도·예악·문물의 칭송할 만한 것 또한 어찌 작했습니까마는 덕(德)·인(仁)·경(敬)이라고 하는데 불과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제왕의 다스림은 정사의 지엽적인¹²²⁰ 것에서 구해야 합니까? 아니면 은미한 마음에서 근본 해야 합니까?

신이 생각건대 천하는 비록 크고 온갖 일이 비록 많지만 행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 하나도 살피지 못하면 비록 총명하고 통달한 한 고조(漢高祖), 인자하고 조용한 한 문제(漢文帝), 위엄 있고 용감한 한 무제(漢武帝), 영민하고 용맹스러운 당 태종(唐太宗)·송 태조(宋太祖)가 있을지라도 천하의 지극한 다스림은 회복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공자(孔子)께서 정사를 논함에 선(善)을 밝히고 자기의 몸을 성실하게 하는¹²²¹ 것을 구경(九經)¹²²²의 근본으로 삼았고, 자사(子思)가 《중용(中庸)》을 저술함에 계신공구(戒愼恐懼)와 신독(愼獨)¹²²³을 천지가 자리를 편안히 하고 만물이 길러지는 근본으로 삼았으며, 증자(曾子)가 《대학(大學)》을 저술함에 격물치지(格物致知)와 성의정심(誠意正心)을 천하 국가의 근

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라고 하였다. 《書經 大禹謨》

1220 정사의 지엽적인 : 원문의 ‘사위지말(事爲之末)’은 《논어(論語)》 선진(先進)의 제25장 대주에 “저 세 사람이 정사의 지엽적인 것에 급급한 것에 견주어 보면 그 기상이 같지 않다[視三人規模於事爲之末者, 其氣象不侔矣.]”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1221 선(善)을……하는 : 원문의 ‘명선성신(明善誠身)’은 《중용장구(中庸章句)》 제20장과 《맹자》〈이루 상(離婁上)〉에 보이는 ‘불명호선 불성기신(不明乎善不誠其身)’을 이룬 것으로, 선을 밝게 알아야 진실로 선을 행할 마음이 자신에게 있게 된다는 말이다.

1222 구경(九經) : 유가(儒家)에서 말하는 천하를 다스리는 데 필요한 아홉 가지 준칙으로, 자신의 몸을 닦는 것[修身], 어진 사람을 높이는 것[尊賢], 친척을 친애하는 것[親親], 대신을 공경하는 것[敬大臣], 신하들의 마음을 깊이 살피는 것[體群臣], 백성을 자식처럼 사랑하는 것[庶民], 모든 장인들을 오게 하는 것[來百工], 먼 지방 사람을 어루만져 주는 것[柔遠人], 제후를 은혜로 품어 주는 것[懷諸侯]을 이른다. 《中庸章句 第20章》

1223 계신공구(戒愼恐懼)와 신독(愼獨) : 원문의 ‘계구근독(戒懼謹獨)’은 계신공구(戒愼恐懼)와 신독(愼獨)을 가리킨다. 자사가 말하기를, “도라는 것은 잡기도 떠날 수 없으니, 떠날 수 있으면 도가 아니다. 이런 까닭으로 군자는 보지 않는 것에도 경계하고 삼가며 듣지 않는 것에도 두려워한다. 숨은 것보다 드러나는 것이 없으며 작은 것보다 나타나는 것이 없으니, 그러므로 군자는 그 홀로를 삼간다.[道也者 不可須臾離也 可離非道也 是故 君子 戒愼乎其 所不睹 恐懼乎其所不聞 莫見乎隱 莫顯乎微 故君子愼其獨也.]”라고 하였다. 《中庸章句 首章》

본으로 삼았으니 그 본원을 다하고 바로잡는 가르침이 지극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 하늘이 이 사람을 낳음에 앞서 이 성(性)이 있었는데 곽(桀)·주(紂)·요(堯)·순(舜)도 똑같이 이런 이치에서 얻었으니 구함에 멀리 있지 않고 나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대개 어찌하여 진한(秦漢) 이후로는 이 마음을 밝히는 자가 있지 않아 신한(申韓)¹²²⁴·황로(黃老)¹²²⁵를 가리켜 지극히 다스리는데 긴요한 도(道)라고 하였고 요(堯)·순(舜)·공(孔)·맹(孟)을 배척하여 우월하고 텅 빈 담론이라 하였으며, 부국강병을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의 으뜸가는 방도라 하였고 예의염치를 쓸모없는 텅 빈 도구라 하였으니 한심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신은 변방의 궁벽한 먼 곳에 있고 도시와의 소식이 단절되어 전하께서 학문이 깊은지 얕은지, 마음 다스림이 소원한지 주밀한지 알지 못합니다. 근래에 삼가 전하께서 마음을 비우고 자신을 낮추며 옆으로 앉아¹²²⁶ 현인을 구하고 준수한 인재를 등용하여 여러 자리에 배치시키며 다스리는 방도를 강구하고 밝혀 정밀하고 은미한 곳에서도 극진히 한다고 들었으니 진한 이후에는 어찌 이런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팔도가 즐겁고 태평성대 누리기를¹²²⁷ 기약하니 이것으로 미루어보면 전하의 학문이 반드시 심오한 경지에 이르렀고 마음 다스림이 이미 정밀하고 은미한 경지에 들어갔음을 멀리서도 헤아릴 수 있습니다.

1224 신한(申韓) : 전국 시대의 정(鄭)나라 사람 신불해(申不害)와 한(韓)나라 사람 한비자(韓非子)를 아울러 일컫는 말이다. 이 두 사람은 모두 형법학(刑法學)의 창시자들이다.

1225 황로(黃老) : 도가(道家)에서 시조로 삼는 황제(黃帝)와 노자(老子)의 병칭으로 도가를 말한다.

1226 옆으로 앉아 : 원문의 '측석(側席)'은 공손히 현인을 기다리는 것을 가리킨다. 《후한서(後漢書)》 권3 <장제기(章帝紀)>에 “짐이 정직한 선비를 생각하며 기다리느라 옆으로 앉아 특별한 소식을 듣는다.[朕思遲直士 側席異聞]”라는 구절이 있다. 여기에 이현(李賢)이 주(注)를 달기를, “측석은 똑바르게 앉지 못한 것이니 현명하고 어진 사람을 기다리기 때문이다.[側席 謂不正坐 所以待賢良也]”라고 하였다.

1227 태평성대 누리기를 : 원문의 '수역(壽域)'은 인수지역(仁壽之域)의 준말로, 일반적으로 태평성대를 뜻한다. 《한서(漢書)》 권22 <예악지(禮樂志)>에 “구례를 찬술하고 왕제를 밝혀서 온 세상의 백성들을 이끌어 인수의 지역에 오르게 하면, 풍속이 어찌 주나라 성왕과 강왕 때의 태평 시절 같지 않겠으며 수명이 어찌 은나라 고종 때와 같지 않겠습니까.[述舊禮明王制, 驅一世之民, 躋之仁壽之域, 則俗何以不若成康, 壽何以不若高宗.]”라고 하였다.

대개 50리의 등(滕)나라에서 어진 문공(文公)이 왕도 정치를 행한 지 몇 달이 채 안 되어 쟁기를 짊어지고 백성이 되려는 자가 멀리서부터 이르렀는데 하물며 이 수천 리의 나라는 조종(祖宗)의 아름다운 풍속을 잇고 남기신 어진 풍습을 인습하여 요순이 되고자 한다면 요순이 될 수 있고, 탕무(湯武)가 되고자 한다면 탕무가 될 수 있으니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오직 전하께서 마음을 다스리는지 다스리지 않은 지에 달려있을 뿐입니다.

매우 넓은 구주(九州)¹²²⁸와 엄청 큰 홍수를 잘 다스린 사람은 우(禹)임금이었고, 주(紂)임금의 포악함이 천하에 넘치고 신하 억만이 있었지만 잘 이겨낸 사람은 무왕(武王)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사방으로 1치[一寸] 정도이니 이겨내고 다스리는 방도에 힘을 쏟지 않아도 또한 이미 다스려져서 천하가 그 은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명한 전하께서는 어찌 이것을 모르십니까? 알고서 실행하지 않은 것과 모르는 것은 같은 것이니 이점을 전하께서 마땅히 깊이 유념해야 합니다.

대개 말과 행동이라는 것은 마음의 그림자와 메아리입니다. 그림자를 보고는 형체를 알고 메아리를 듣고는 소리를 안다면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고는 그 사람의 심성이 다스려졌는지 다스려지지 않았는지, 바른지 바르지 않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임금의 한 몸은 비록 깊은 궁궐에 거처하여 사람들 모두가 바라볼 수 없지만 임금께서 한 마디 말을 하고 하나의 명령을 내며 움직이거나 고요하더라도 사방 밖의 깊고 궁벽한 산골짜기 사람들 모두 자기의 일인 듯 일의 후박(厚薄)과 천심(淺深)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금의 은미한 마음이 비록 이처럼 지극히 은밀할지라도 사람들은 임금 보기를 푸른 하늘처럼 우러러보고 해와 달처럼 봅니다.

어떤 일은 올바르고 어떤 일은 부정한 것은 마음을 다스림이 반드시 어떠한지에 달려있으니 매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시경(詩經)》에

1228 구주(九州) : 중국 고대의 9개 지방 행정구역이다. 우(禹)는 도로와 물길을 정비하고 산림을 측량하여 전국을 기주(冀州)·연주(兗州)·청주(靑州)·서주(徐州)·양주(揚州)·형주(荊州)·예주(豫州)·양주(梁州)·옹주(雍州)의 9개로 구획하고 공물(貢物)을 규정하였다. 흔히 우공구주(禹貢九州)라고 부르는 이 내용은 《서경(書經)》〈우공(禹貢)〉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중국을 천하와 동일시하는 본문의 사고방식은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투영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말하기를 “비록 깊이 잠겨 있으나 또한 환히 다 보이네.”¹²²⁹라고 하였고, 또 《시경》에 말하기를 “드러나지 않는 덕을 제후들이 본받는다.”¹²³⁰라고 하였으니 바로 이것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질고 준수한 자들이 자리에 있고 성상[효종(孝宗)]의 학문이 대단히 높으니 눈과 귀로 보고 들은 바를 미루어보면 전하께서 은미한 마음으로 찌꺼기를 이미 정화하고¹²³¹ 많은 이치를 다 밝혔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교화가 행해지지 않고 백성들은 곤궁하며 자연 재해와 당시에 변란이 거듭 나타나니 전하의 마음이 은미한 사이에서 전체(全體)와 대용(大用)¹²³²이 아마도 다스림에 미진한 점이 있는 듯합니다.

신이 이미 이야기의 실마리를 다 꺼내놓았는데 감히 어리석은 충정이라도 간절히 다하지 않겠습니까? 교화가 행해지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대개 선비의 풍조는 국가의 원기(元氣)가 있는 곳으로 예의의 본원입니다. 선비의 풍조가 바른 뒤에 교화가 행해지고 풍속이 아름다우며, 인심이 안정되고 세도(世道)가 편안하며, 공정한 도리가 행해지고 시비(是非)가 분명하며, 예의와 겸양(謙讓)이 일어나고 속임수가 사라집니다. 명예와 이익의 자리가 한 번 열리면 천하의 마음이 빠져 들어가 장보관(章甫冠)을 쓰고 선비 복장¹²³³을 한 무리들이 입으로는 성현의 서책을 암송하면서 마음으

1229 비록……보이네 : 《시경》 〈정월(正月)〉에 “물고기가 못에 있으니 또한 즐거울 수가 없구나. 비록 깊이 잠겨 있으나 또한 환히 다 보이네.[魚在于沼, 亦匪克樂. 潛雖伏矣, 亦孔之炤]”라고 하였다.

1230 드러나지……본받는다 : 《시경》 〈열문(烈文)〉에 “드러나지 않는 덕을 제후들이 본받는다.[不顯惟德 百辟其刑之]”라는 말이 나오는데, 《중용장구》 제32장에서 성인의 경지를 설명하면서 이 구절을 인용하고 있다.

1231 찌꺼기를 이미 정화하고 : 《논어(論語)》 〈태백(泰伯)〉 제8장의 주에 “사람의 성정을 함양하며 간사하고 더러운 것을 깨끗이 털어내고 찌꺼기를 말끔히 정화시킨다.[可以養人之性情, 而蕩滌其邪穢, 消融其查滓.]”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1232 전체(全體)와 대용(大用) : 《대학장구》 전(傳) 5장 주희(朱熹)의 주에 “그리하여 힘쓰기를 오래해서 하루아침에 확연하게 관통하는 데 이르게 되면, 모든 사물의 표리와 정추가 이르지 않음이 없게 되고 내 마음의 전체와 대용이 밝지 않음이 없게 될 것이니, 이것을 ‘물격’이라 이르며, 이것을 ‘앎의 지극함’이라고 이른다.[至於用力之久而一旦豁然貫通焉, 則衆物之表裏精粗無不到, 而吾心之全體大用無不明矣, 此謂物格, 此謂知之至也.]”라는 내용이 보인다. 여기서는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과 길으로 드러난 행위를 말한다.

1233 선비 복장 : 원문의 ‘청금(靑衿)’은 청색으로 깃을 두른 옷으로 선비의 복장을 가리키는데,

로 부귀의 욕심을 품고, 임금 섬기는 것을 명분으로 삼으면서 권력자에게 아부하는¹²³⁴ 것을 일삼으며, 현인(賢人) 높이는 것을 명분으로 삼으면서 자신 일으키는 것을 일삼으니 엮치는 잃어버리게 되었고 순박한 풍속은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명분을 나누어 대립한 채 시기하고 질투하며 위로는 도성으로부터 아래로는 향(鄉)·읍(邑)까지 한 배 안에서도 적국처럼 나누니 신은 이런 것이 어찌 선비의 풍조인지 모르겠습니다.

《시경(詩經)》에 말하기를 “많고 많은 훌륭한 선비여 문왕이 이들 때문에 편안하도다.”¹²³⁵라고 하였는데 이런 상황을 편안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선비의 풍조가 사라지고 풍속은 쇠락되는데 교화가 행해졌다는 것을 신은 아직까지 들어본 일이 없고, 임금의 마음이 한결갈게 올바른데 선비의 풍조가 올바르지 않는다는 것을 신은 또한 아직까지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신은 이 때문에 전하 마음의 전체(全體)와 대용(大用)이 아마도 다스림에 미진한 점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백성이 곤궁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지금 백성들의 피폐하고 병든 삶을 남산의 대나무 모두를 깎아서 기록해도 끝이 없습니다.¹²³⁶ 신은 우선 호남 백성들의 폐해 중 이목(耳目)에 크게 기억될 만한 것을 거론하여 한 두 가지 말해보겠습니다. 호남은 정유재란(1597, 선조30) 때 파탄난 뒤부터 지금까지 60여 년이나 지나면서 병자년과 정축년의 재앙¹²³⁷을 다행스럽게도

전하여 선비를 지칭하는 말로 쓰인다. 《시경》에 학교가 폐한 것을 풍자한 시에 “푸르고 푸른 그대의 옷깃이여, [青青子衿]”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詩經 鄭風 子衿》

1234 권력자에게 아부하는 : 원문의 ‘미조(媚寵)’는 권력자에게 아부하는 일을 말한다. 위(衛)나라의 실권자인 왕손가(王孫賈)가 “아랫목 귀신과 같은 왕에게 잘 보이려 하기보다는, 차라리 부엌 귀신처럼 실력이 있는 자기에게 잘 보이라. [與其媚於奧 寧媚於竈]”라는 뜻으로 공자에게 말하자, 공자가 “하늘에 죄를 지으면 빌 곳이 없다. [獲罪於天 無所禱也]”라고 대답하였다. 《論語 八佾》

1235 많고……편안하도다 : 《시경》〈대아(大雅) 문왕(文王)〉에 나온다. 이 시는 주나라 주공(周公)이 문왕의 공덕을 아름답게 여겨 찬미한 것이다.

1236 남산의……없습니다 : 죄가 이루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많다는 뜻이다. 이밀(李密)이 수양제(隋煬帝)의 죄악을 날날이 열거하는 격문에 이르기를 “남산의 대나무를 모두 깎아서 기록한다고 해도 그의 죄는 끝이 없고, 동해의 물을 쏟아서 흘러내리게 한다 해도 그의 죄는 다 씻기가 어렵다. [罄南山之竹 書罪無窮 決東海之波 流惡難盡也]”라고 하였다. 《舊唐書 卷 53 李密列傳》

1237 병자년과 정축년의 재앙 : 원문의 ‘병정(丙丁)’은 병자호란(丙子胡亂)을 말한다. 병자호란이

겪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므로 인물들이 극도로 많아져서 토지는 협소해지니 비록 대대로 부유하게 살았던 사람들도 논밭이 백 마지기에 불과했습니다. 더군다나 서민이나 미천한 사람들은 한 마지기의 밭도 소유한 자가 드무니 일 년 내내 부지런히 일하여도 먹고 입는 것을 자급할 수 없어 이리저리 떠돌아 다니며 인간의 도리를 이룰 수도 없는데 그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공물과 부세는 번거롭고 무거우며 대대로 선량한 관리¹²³⁸도 없는데 다만 채촉하는 명령만 보이니 어질고 사랑스러운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마주보고 있는 산성으로 봄가을이면 곡식을 운반하는데 굶고 얼어 죽는 백성이 도로에 널려 있으니 근심하고 원망하는 소리와 낮빛이 사람들의 눈과 귀에 가득하였습니다. 병사 다스리는 법이 없으니 군졸들은 정예가 못되었고, 중들은 지나치게 많아져 떠돌아다니면서 먹는 경우가 거짚 반이었으며, 종종 길가에서는 도적들이 절도를 일으키곤 합니다. 이에 백성들이 피폐하고 병들이 이처럼 극심하였는데 임금께서 한번이라도 어진 정치를 펼치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보호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서경(書經)》〈하서(夏書) 오자지가(五子之歌)〉에 말하기를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튼튼해야 나라가 편안하다.”라고 하였고, 전(傳)에 말하기를 “독실하게 공경함에 천하가 화평해진다.”¹²³⁹라고 하였는데 신은

병자년(1636)에서 정축년(1637)까지 이어졌으므로 ‘병정’이라 일컫는 것이다.

1238 선량한 관리 : 원문의 ‘순리(循吏)’는 법을 지키고 이치를 따르는 관리라는 뜻으로 백성에게 선정(善政)을 베푼 지방관을 말한다. 《사기(史記)》〈태사공자서(太史公自序)〉에 “법을 받들고 이치를 따르는 관리는 공로를 자랑하고 능력을 과시하지 않아 백성의 칭송이 없지만 또한 잘못된 행적도 없다. 그러므로 순리 열전(循吏列傳)을 짓는다.[奉法循理之吏, 不伐功矜能, 百姓無稱, 亦無過行, 作循吏列傳.]”라고 하였다

1239 독실하게……화평해진다 : 《대학혹문》 “대개 이 마음이 이미 서서 이로 말미암아 격물하고 치지하여 사물의 이치를 극진히 하면 이른바 덕성을 높이고 학문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성의(誠意)하고 정심(正心)하여 수신하면 이른바 먼저 원대한 것을 세움에 작은 것이 빼앗을 수 없는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제가하고 치국하여 평천하에 미치면 이른바 자기 몸을 닦아 백성을 편안히 하며 자신을 독실하게 공경함에 천하가 평정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모두 애초에 하루라도 경(敬)에서 떠날 수 없으니 그렇다면 경이라는 한 글자가 어찌 성학(聖學)의 시종의 요체가 아니겠는가.[蓋此心既立, 由是格物致知, 以盡事物之理, 則所謂尊德性而道問學, 由是誠意正心, 以修其身, 則所謂先立其大者, 而小者不能奪, 由是齊家治國, 以及乎天下, 則所謂修己以安百姓, 篤恭而天下平. 是皆未始一日而離乎敬也, 然則敬之一字, 豈非聖學始終之要也哉?]”라고 하였다.

예나 지금으로부터 임금의 마음이 한결같이 올바르면 조정만 올바르게 되고 백성들은 편안하지 못한다는 것을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신은 이 때문에 천하 마음의 전체(全體)와 대용(大用)이 아마도 다스림에 미진함 점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신이 삼가 대략 마음 다스리는 방법을 아뢰어 우러러 성상의 밝으신 감식안을 더럽히려고 합니다. 대개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으면 많은 욕심이 해로움을 끼칩니다. 삼가 옛 임금들을 살펴보면 속으로는 욕심이 많으면서 겉으로는 인의(仁義)를 베푸는 경우가 있었고, 겉으로는 어진 신하를 공경하면서 속으로는 음약과 여색을 즐기는 경우가 있었으며, 마음으로는 지극한 다스림을 찾으나 말 타고 내달려 사냥하는 경우가 있었고, 뜻이 거칠고 기상은 호방하나 심성(心性)에 다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으니 그 종류가 매우 많아 일일이 거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큰 요지는 모두 뜻을 세움에 독실하지 못하고 마음을 다스림에 정밀하지 못하여 비록 한 때는 올바른 마음이 있었지만 쉽게 외물에 이끌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에서 생겨나 정사에 해를 끼치고 정사를 일으키다가 천하에 해를 끼치니¹²⁴⁰ 그 짝은 매우 은미하지만 그 해로움은 매우 광대했습니다. 이 때문에 ‘정밀하다.’라는 것은 은미한 짝조차 살피는 것을 이르고, ‘한결같다.’라는 것은 오랫동안 지키면서 잃지 않는 것을 이룹니다.

마음은 지극히 은미하여 천하와 매우 관련이 없는 것 같으나 증자(曾子)가 말한 ‘명덕(明德)을 천하에 밝힌다.’¹²⁴¹라는 것은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을 우선으로 삼았고,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곳은 천하의 만물과 서로 밀접하지 않은 것 같으나 자사(子思)가 말한 ‘위육(位育)’¹²⁴²이라는

1240 마음에서……끼치니 : 《맹자(孟子)》〈공손추 상(公孫丑上)〉에 “‘무엇을 지언(知言)이라고 합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편벽된 말에서 그의 마음이 가려 있는 바를 알며, 정도에 지나친 말에서 마음이 빠져 있는 바를 알며, 부정한 말에서 그의 마음이 도와 멀리 떨어져 있음을 알며, 회피하는 말에서 논리가 궁함을 알 수 있으니, 마음에서 생겨나 정사에 해를 끼치며 정사에 발로되어 일에 해를 끼치나니 성인이 다시 나오셔도 반드시 내 말을 따르실 것이다.’[何謂知言? 曰：詖辭知其所蔽，淫辭知其所陷，邪辭知其所離，遁辭知其所窮，生於其心，害於其政；發於其事，聖人復起，必從吾言矣。]”라는 구절에서 인용하였다.

1241 명덕(明德)을 천하에 밝힌다 : 《대학장구(大學章句)》경(經) 1장에 보인다.

1242 위육(位育) : 《중용장구》 제1장의 “중과 화의 지극한 경지를 이루면 천지가 제자리를 찾아 편

것은 존양성찰(存養省察)¹²⁴³을 근본으로 삼았으니 신은 전하께서 이것을 깊이 살피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마음 다스리는 방법이라면 서책에 실려 있어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약이니 우리의 병폐를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의 덕을 보필하고 인도하면서 임금의 그릇된 마음을 바로잡는데 가르치며 보필하는 일을 맡길만한 사람이 지금 세상에서는 어찌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하겠습니까? 신은 전하께서 시종일관 한결같은 마음으로 독실하게 보좌하는¹²⁴⁴ 신하들을 의심하지 말고 함께 지극한 다스림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말을 다 아뢰었으나 신은 삼가 앞서 아뢰었던 백성들의 폐단 3가지로 우러러 성상께 번거롭게 아뢰 것 아니 삼가 바라옵건대 자애로운 성상께서 살피주십시오.

세 가지 항목이라는 것은 첫째, 부역이 무겁고 번다한 폐단이고 둘째, 산성에서 쌀을 운반하는 폐단이며 셋째, 병사 다스리는 법이 없는 폐단입니다. 부역이 무겁고 번다한 폐단에 대해 살펴보면 신이 먼 변방의 외진 곳에 있어서 경사(京司, 도성 관청의 총칭)에 바치는 공물¹²⁴⁵이 각각 어떤 명목인지를 알 수 없으나 농민들이 일 년 동안 소출(所出)한 것을 임금에게 일 년 동안 바친 부역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호남에서 밭 한 섬이 비록 일등의 땅이라도 반드시 풍년을 든 뒤에 겨우 20, 30섬을 세금으로 내고, 척박한 땅은 10여 섬에 불과한데 깊어져야 할 수량은 혹 1결(結)이 넘습니다.¹²⁴⁶ 1결은 일 년 동안 바쳐야 할 것으로 상포

안하고 만물이 제대로 길러질 것이다.[致中和 天地位焉 萬物育焉]라는 말에서 나왔다.

1243 존양성찰(存養省察) : 존양은 마음을 보존하여[存心] 성을 기른다[養性]는 뜻이며, 성찰은 자신의 사욕을 살피는 것이다. 《중용장구》 제1장에 “군자는 보지 못하는 데에도 삼가며 듣지 못하는 바에도 두려워한다.[君子 戒愼乎其所不睹 恐懼乎其所不聞]”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정(靜)할 때의 존양공부를 말한 것이며, 이어 “군자는 홀로 있을 때를 삼간다.[君子 慎其獨也]”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동(動)할 때의 성찰 공부를 말한 것이다.

1244 독실하게 보좌하는 : 원문의 ‘독비(篤斐)’는 임금을 독실하게 보좌하는 것을 말한다. 《서경(書經)》〈주서(周書) 군석(君奭)〉에 주공(周公)이 소공(召公)에게 말하기를, “임금을 독실하게 보좌할 사람은 나와 그대 두 사람뿐이다.[篤斐 時二人]”라고 하였다.

1245 바치는 공물 : 원문의 ‘진공(進供)’은 공상(供上)과 같은 말로 조선시대 때 그 지방의 토산물(土產物)을 상급 관청이나 고관(高官)에게 바치던 일이다

1246 깊어져야……넘습니다 : 이것은 결부법(結負法)을 의미한다. 수확을 기준으로 하는 토지 계산 단위이다. 토지 면적의 단위로서의 결(結)은 원래 벼의 수확량을 말하는 것으로서, 벼 1만

(常布, 품질이 낮은 무명) 20필에 해당한다면 백성들은 먹고 남는 것이 거의 없을 테니 어찌 백성들이 굶주리거나 도둑질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옛날 제도에는 수령들이 모두 일정한 봉급이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조종(祖宗)의 제도에는 단지 아록(衙祿)¹²⁴⁷ 및 상평창(常平倉)¹²⁴⁸에서 모곡(耗穀)¹²⁴⁹으로 거둬들인 벼 10분의 1을 수령들이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임진왜란 뒤 상평창의 곡식도 고갈되어 모곡(耗穀)으로 거둬들인 벼 10분의 1조차 이미 먹을 것이 없게 되자 급박하여 어쩔 수 없이 별도로 하나의 창고를 세워 ‘관창(官廳)’이라고 이름 하였습니다. 대개 관창도 백성들에게 받아서 먹고 사는데 축적된 폐단을 그대로 따라서 점점 재물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흰 쌀이나 정조(正祖, 털 없는 결 벼)에 대한 세금이 비록 작은 고을이라도 대부분 700~800섬에서 내리지 않았고, 기타 전답에서 나는 곡물·유밀(油蜜, 약과)·물고기와 소금·채소와 과일 등 일일이 기록할 수 없는 각종 여러 공물 모두는 민결(民結, 백성들이 소유한 논밭의 결복(結卜))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일시에 독촉하여 거둬들이기 때문에 가을철과 겨울철에 노약자들은 공물 마련에 애쓰다가 지쳐 눈인지 코인지 분간할 수 없게 되었고, 장성한 자들은 운송하는 곳에 동원되어 태반이 성에 있게 되니 백성들의 곤궁함은 무엇이 이보다 심각한 것이 있었습니까?

즘을 뜻하는데, 한 줌[一握]이 1파(把), 10파가 1속(束), 10속이 1부(負), 1백 부가 1결(結)이 되므로 1결은 1만 파가 된다. 이에서 그 의미가 전변(轉變)되어 벼 1만 줌을 생산할 수 있는 전도의 면적을 1결로 일컫게 되었고 또 나아가서는 조세의 부과 단위로도 표시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같은 결부법을 사용하여 수조(收租)하고 양전(量田)할 경우, 전도의 비옥도(肥沃度)에 따라 1결의 면적은 다르게 나타날 것이 당연하므로, 전품(田品)의 책정과 이에 따른 면적의 대소(大小) 내지는 수조의 다과(多寡)가 계산·규정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로부터 조선 말에 이르기까지 결부법을 사용하였으므로, 농경(農耕)의 발달 여하에 따라 전품의 책정과 결부의 산정(算定)이 수시로 변경되어 왔다. 《국역 우서(迂書) 제권》

1247 아록(衙祿) : 지방의 원과 벼슬아치들에게 주는 녹봉을 가리키는데, 아록전(衙祿田)을 주어 백성들로부터 그 결세를 받아쓰게 하였다.

1248 상평창(常平倉) : 곡식의 값을 조절하는 기관을 말한다. 흉년에 곡식의 값이 귀해지면 곡식을 헐값으로 내보내고, 곡식의 값이 떨어지면 곡식을 비싼 값으로 사들여 곡가를 안정시켰다.

1249 모곡(耗穀) : 각 고을 창고(倉庫)에 저장한 양곡(糧穀)을 봄에 백성에게 대여(貸與)했다가 추수(秋收) 후 받아들일 때 말(斗)이 촉나거나 창고에서의 손실을 보충하기 위하여 10분의 1을 첨가하여 받는 곡식이다.

수령들이 먹는 것은 예전 그대로 아록(衙祿), 모조(耗租), 관전(官田)으로 관청(官廳)에 바친 바인데 밖에 쌓아둔 곡식은 가득 넘쳐흐르니 왕공(王公, 왕과 귀족)과 견줄 정도로 부유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춥고 배가 곡주려 언덕과 골짜기에 엎어지고 자빠지니 이 무슨 일입니까? 만약 가의(賈誼)가 이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어찌 통곡하는데 그치고 말겠습니까?¹²⁵⁰ 애통하지 않겠습니까? 애통하지 않겠습니까?

다행스럽게도 전하께서 이와 같은 폐단에 대해 몹시 징계하여 특별히 대동법(大同法)¹²⁵¹을 베풀었으니 신이 삼가 살펴보건대 대동법은 천하의 좋은 법이고 백성들에게는 큰 복이었습니다. 이 시대를 구원하는 방책으로 무엇이 이보다 뛰어났겠습니까? 그러나 신은 이 대동법이 기전(畿甸)¹²⁵²과 가까운 지역에서는 매우 편리하나 먼 고을에는 시행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말하면 사방 모두의 풍습이 다르고 천 리의 풍기(風氣)가 다른데¹²⁵³ 반드시 한 종류의 법으로 강제로 몰아붙이면 일이 서로 어긋날 테

1250 가의(賈誼)가……말겠습니까 : 가의는 서한(西漢) 초의 문학가이자 정치가로서, 20세에 문제(文帝)의 부름을 받아 박사(博士)가 되었고 곧이어 태중대부(太中大夫)가 되었다. 복색, 제도, 관명, 예악 등을 정비하는 데에 많은 의견을 올렸다. 당시의 사세(事勢)를 근심하여 상소를 올리면서 “통곡할 만한 일이 한 가지요, 눈물을 흘릴 만한 일이 두 가지요, 장탄식할 만한 일이 여섯 가지입니다.[可爲痛哭者一, 可爲流涕者二, 可爲長太息者六.]”라고 한 일이 있다. 《漢書 卷48 賈誼傳》

1251 대동법(大同法) : 조선 후기에 공납제(貢納制)를 폐지하고 대신 제정하여 실시한 재정제도이다. 조선 전기 농민이 호역(戶役)으로 부담하였던 온갖 세납(稅納), 즉 중앙의 공물(貢物)·진상(進上)과 지방의 관수(官需)·쇄마(刷馬) 지방에 공무를 위해 마련된 말) 등을 모두 전세(田稅)로 통합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징수된 세미(稅米)를 중앙 및 지방에 배분하여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의 대가를 지불하도록 한 것으로서, 다양한 공물 및 진상을 바치는 각종 폐단을 제거하기 위한 혁신적인 조치였다. 1608년(광해군 즉위년) 경기도에 처음 실시된 이후 1623년(인조1) 강원도, 1651년(효종2) 충청도, 1658년 전라도의 해읍(海邑), 1662년(현종3) 전라도의 산군(山郡), 1666년 함경도, 1678년(숙종4) 경상도, 1708년(숙종34) 황해도 순으로 100년 동안에 걸쳐 확대 실시되어, 1894년(고종31)의 세계개혁 때 지세(地稅)로 통합되기까지 약 3세기 동안 존속하였다

1252 기전(畿甸) : 서울을 중심으로 하여 사방으로 뻗어나간 가까운 행정 구역을 포괄한 지역으로 대략 경기도(京畿道) 지역을 말한다.

1253 천 리의 풍기(風氣)가 다른데 : 《소학》〈가언(嘉言)〉 주석의 진씨(陳氏) 말에 “천 리 떨어져서도 풍기(風氣) 같지 아니하므로 그 기질에 강한 자와 부드러운 자가 있고, 백 리 떨어져서도 사회 풍속이 다르므로 그 습속에 선한 자와 악한 자가 있다.[千里不同風, 其氣有剛柔, 百里不同俗, 其習有善惡.]”라고 하였다. 여기서는 천 리나 떨어진 땅은 풍토와 자연환경이 같지 않

니 억지로 부합시키려 해도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삼대의 제도에서 도비(都鄙)와 향수(鄉遂)¹²⁵⁴에는 조법(助法)과 공법(貢法)을 달리 하여 기전 안에서는 공법을 시행하였고, 교외 시골에서는 조법을 시행하였으니¹²⁵⁵ 대개 안과 밖이 마땅히 다르고 먼 지역과 가까운 지역의 편리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동미(大同米)를 1년에 2번 거두어 전세(田稅)와 함께 3번을 1년 안에 배로 수송하는데 연안의 여러 고을은 개인 소유의 배를 빌려 신고 있어서 선박이 너무 많아 귀신처럼 수송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물가 주변의 사대부를 찾아서 감관(監官)¹²⁵⁶으로 삼으며 양민을 격졸(格卒, 배를 끄는 사람)로 삼아 풍랑이 치는 천리 길 앞에 생사를 맡기니 사람들이 이 뱃길을 보고는 마치 귀신의 문에 들어가는 것과 같이 하고, 부모와 처자식은 서로 껴안고 배를 구르며 통곡하면서 영결하는 듯합니다. 종종 사람들이 도망가면 이웃과 종족에게 계속해서 징수하고¹²⁵⁷ 마구 매질도 합니다. 해마다 이와 같으니 연안 마을은 반드시 텅 비게 될 것입니다. 전세(田稅)를 운반하는 선박 수에 이르러 대동미를 비교하면 감소하여 절반도 안 될 것인데 지금은 중도에 배가 부서지는 경우가 해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배가 많아져 거센 바람이 부는 바다에 떠 있으면 일일이 잘 건너게 하는 것도 반드시 기약할 수 없습니다. 배가 부서진 뒤에 만약 불문(不問)에 붙인다면 국가

고 다르다는 말이다.

1254 도비(都鄙)와 향수(鄉遂) : 도비는 도시와 시골을 말하고, 향수는 주(周)나라의 천자(天子)가 국성(國城)의 밖에 설치한 구역 제도를 말한다. 즉 국성 또는 왕성(王城)에서 백 리까지를 향(鄉)이라 하여 이를 육향(六鄉)으로 나누었고, 1백 리에서 2백 리까지의 사이를 수(遂)라 하여 이를 육수(六遂)로 나누었다.

1255 도비(都鄙)와……시행하였으니 : 《맹자》〈등문공 상(滕文公上)〉 주자의 주에 “향수(鄉遂)에는 하(夏)나라의 공법(貢法)을 사용하여 10부마다 구(溝)를 두고, 도비(都鄙)에는 은(殷)나라의 조법(助法)을 사용하여 여덟 집에 정(井)을 함께하였다. [鄉遂用貢法, 十夫有溝, 都鄙用助法, 八家同井.]”라는 구절이 있다.

1256 감관(監官) : 조선시대 각 관이나 공방에서 금전출납을 맡아보거나 중앙정부를 대신하여 특정업무의 진행을 감독하던 관직인데, 각 지방의 곡식을 색리(色吏)와 함께 서울로 운송하는 경우, 배를 타는 감관을 영선감관(領船監官)이라 한다.

1257 이웃과……징수하고 : 인정(隣徵)과 족징(族徵)을 의미한다. 인정은 부역자를 대신하여 이웃에게 역을 지우는 것이며, 족징은 그것을 친족에게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의 경비는 부족할 뿐만 아니라 후대에 속고 속이는 풍조가 되니 어찌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거듭 징수하며 죄로 다스리면 다만 백성들은 먹을 것을 마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무고한 백성을 참혹하게 고문하며 때리는 것에 몰아붙이니 어찌 차마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신이 또 살펴보건대 대동법은 곧 당나라의 양세법(兩稅法)¹²⁵⁸입니다. 당나라 덕종(德宗) 때 번다하고 무거운 부역을 걱정하여 백성들이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자 국가가 먼저 사용할 것을 헤아려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정하였으니 일 년에 두 번 내는 것 이외에는 다른 부세가 결코 없었습니다. 그러나 천하에 어떤 일이 발생하여 재물과 곡식이 부족하면 날로 달로 더욱 거두어 끝내는 몇 곱절에 이르러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 떨어지고 쓰러지게 되었으니 이것은 이미 경험하였던 일로 살펴보고 경계해야 할 바입니다. 하물며 법을 정함에 일 년의 지출을 먼저 헤아려 일 년의 수입으로 삼는 것은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신은 옛날에 재물을 사용하는데 수입을 헤아려 지출로 삼는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지출을 헤아려 수입을 삼는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만일 이 법에 두어 가지의 폐단이 없더라도 예전의 부역과 비교해보면 백성들에게 더 많은 이익이 있지 않습니다. 속담에 “진실로 열 배의 이익이 없다면 새로운 것으로 옛 것을 바꾸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신이 생각하건대 법을 다시 만들 필요가 없고 재물을 다시 모을 필요가 없으니 진실로 선왕의 도를 사용한다면 백성들은 편안해지고 나라는 태평해질 것입니다.

신은 원컨대 전하께서는 요임금께서 띠로 지붕을 잇고 흙으로 계단 만든 것으로¹²⁵⁹ 마을을 삼고, 우임금께서 나지막한 궁실에 살며 보잘것없는 음식

1258 양세법(兩稅法) : 각 가호(家戶)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재산을 조사하여 그 정도에 따라 1년에 두 차례 여름과 가을에 세금을 곡물(穀物)이나 전(錢)·직물(織物) 등으로 징수한 세법(稅法)을 말한다. 이 세법은 당(唐)나라 말기에 안사(安史)의 난(亂)으로 조(租)·용(庸)·조(調) 체제가 무너지자 그 대안(代案)으로 마련되어 대체로 오대(五代) 후량(後梁) 때 정착되기 시작해서 송(宋)에 계승된 것으로 추정된다.

1259 띠로……것으로 : 원문의 ‘모자토계(茅茨土階)’는 모자불전(茅茨不剪)과 토계삼등(土階三等)의 준말로, 모자불전은 곧 띠로 지붕을 이고 끝을 가지런히 베지 않은 것이고, 토계삼등은 곧 흙으로 쌓은 계단이 세 계단이라는 뜻으로서, 즉 요임금의 검소한 생활을 말한다. 《한서(漢書)》〈사마천전(司馬遷傳)〉에서 요순(堯舜)의 덕행(德行)을 말한 가운데 “요순은 당의

먹었던 것으로¹²⁶⁰ 법을 삼으면서 올려 바치는 각종 공물 중 임금에게 무익하고 백성들에게 해로운 것을 하나하나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러한 뒤에 조정의 신하 중 충청(忠淸, 충성과 청렴)하면서 정직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면서 나라를 걱정하는 선비를 골라 뽑아 삼가 성상의 뜻을 받들어 여러 도(道)에 나누어 보내 임금부터 올려 바치는 공물을 없애고자 한다는 뜻을 깨우쳐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州)·부(府)·군(郡)·현(縣)의 녹봉을 자세하게 결정하여 녹봉의 수를 별지(別紙)에 써서 옥새를 찍어 여러 고을에 분포하여 잘 지켜 받들어 시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옥새 찍은 문서는 철권(鐵券)¹²⁶¹으로 봉하고 수령을 교체할 때 부인(符印, 위임장과 도장 따위)과 함께 올리면 상사(上使)가 새로운 수령에게 그것을 주며 그 법을 중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한 이후에 아주 작은 것이라도 백성들에게 함부로 더 거둬들이는 자는 간장(奸贓)¹²⁶²을 논하여 큰 범죄로 다스린다면 위에서는 급하지 않는 공물을 줄일 것이고 아래서는 독하게 세금을 거둬들이는 해악이 제거되어 별도의 대동법 설치를 기다리지 않아도 백성들은 살 곳을 찾게 되고 나라는 편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더라도 오직 임금의 마음은 한결같이 올바름이 있어야 합니다. 전하의 한 마음이 만약 한결같이 올바르지 않으면 법을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신은 전하께서 이점을 깊이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높이가 석 자였고, 흙으로 쌓은 섬들은 세 단이었으며, 지붕을 인 띠 풀은 가지런히 자르지 않았고, 서까래는 별채한 대로 쓰고 다듬지 않았다.[堂高三尺, 土階三等, 茅茨不翦, 采椽不斲.]”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1260 나지막한……것으로 : 공자(孔子)는 《논어(論語)》〈태백(泰伯)〉에서 이르기를, “우 임금에 대하여서는 내가 흠잡을 데가 없다. 음식을 보잘것없이 하시면서도 귀신에게는 효도를 다하고, 의복은 초라하게 하시면서도 불면(黻冕)에는 아름다움을 다하며, 궁실은 나지막하게 하면서도 붓도랑을 파는 일에는 힘을 다하였다. 우 임금에 대하여서는 내가 흠잡을 데가 없다.[子曰 禹 吾無間然矣 菲飲食而致孝乎鬼神 惡衣服而致美乎黻冕 卑宮室而盡力乎溝洫 禹 吾無間然矣]”라고 하였다.

1261 철권(鐵券) : 임금이 공신에게 하사하던 쇠로 만든 패(牌)로, 원래는 한(漢)나라 고조(高祖)가 공신들을 봉하는 데에 사용한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1262 간장(奸贓) : 사사roi 뇌물을 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축적하거나 관물(官物)을 횡령하는 행위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산성에서 쌀을 운반하는 폐단에 대해 살펴보면 산성의 미곡이 다달이 더해져 해마다 넘쳐 그 수량이 대단히 많아 본 고을의 백성들이 출납(出納)을 감당할 수 없어 이웃 고을까지 수고로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봄에 곡식을 내주었다가 가을에 거둬들이는 것을 해마다 일정한 법으로 삼아 수백 리 밖에서 남자는 짊어지고 여자는 머리에 이며 소와 말로 수송하는데 봄에 곡식을 내주니 밭 갈고 김을 매는 일에 방해가 되고 가을에 곡식을 거둬들이니 농사를 겨우 마칠 지경입니다. 곤궁한 백성들은 쉬지도 못하고 있는데 올려 바쳐야 할 지방 토산물¹²⁶³로 겁박하고 수령은 관수미(官需米)¹²⁶⁴로 매질하며 여러 고을은 환곡(還穀)¹²⁶⁵으로 독촉하니 백성들의 삶은 너무 시달려 먹고 쉬는 것조차 겨루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때에 산성에서 운송하라는 명령이 성화(星火)¹²⁶⁶처럼 빠르니 백성들은 어찌 이마를 찡그리지 않겠으며 국가는 어찌 명맥이 손상되지 않겠습니까?

봄에 줄 때는 으레 마땅히 흠비가 내리고 가을에 저장할 때는 형세 상 겨울 추워서 사람들은 고통스러워하며 말은 피폐해져 종종 쓰러지거나 죽게 되니 심지어 고아나 과부의 집과 늙거나 쇠약한 백성들의 경우는 스스로 수송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을 사서 대신 수송하면 한 섬 운송하는데 그 가격이 한 섬으로 만약 천 섬을 수송하려면 백성들은 이천 섬이나 소모하니 백성들의 힘이 어찌 고갈되지 않겠으며 백성들의 재물이 어찌 다하지 않겠습니까?

1263 토산물 : 원문의 ‘방물(方物)’은 그 지방에서 생산되는 토산물이다. 《서경(書經)》〈여오(旅獒)〉에 “원근을 막론하고 전부 방물을 바쳤다.”라고 하였는데, 채침(蔡沈)의 집전(集傳)에 “방물은 본지에서 생산되는 물건이다.”라고 하였다.

1264 관수미(官需米) : 원문의 ‘관수(官需)’는 ‘관수미(官需米)’를 뜻하는 것으로, 대동미(大同米)의 유치미(留置米)에 속한다. 관수미의 범위는 수령의 봉급을 의미하는 경우, 여기에 제반 짐물가(什物價), 포진가(鋪陳價), 보수비(補修費), 신구 영송비(新舊迎送費), 염(鹽)·장(醬)·치(雉)·계(鷄)·시탄(柴炭)·빙(氷) 값을 합한 것을 의미하는 경우, 다시 여기에 유(油)·청(淸)·지지(紙地)·감사지공(監司支供)·사객지공(使客支供) 등을 합한 것을 가리키는 경우가 있었다. 관수미는 대읍(大邑), 중읍(中邑), 소읍(小邑), 잔읍(殘邑)에 따라 그 때어 주는 양이 규정되어 있으며, 그것을 12개월로 나누어 그달의 것만 지출하고 다른 달의 것을 당겨쓰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

1265 환곡(還穀) : 예전에 각 고을에서 흉년이나 춘궁기에 빈민에게 곡식을 대여하고 추수기에 이를 환수하는 제도나 그 곡식을 이르던 말이다.

1266 성화(星火) : 운성이 떨어지듯 몹시 급한 일의 비유한 것이다.

《대학(大學)》에서 말하기를 “재물이 모이면 백성들이 흩어진다.”라고 하였고, 《대학》에서 또 말하기를 “재물이 도리에 어긋나게 들어온 것은 또한 어긋나게 나간다.”라고 하였습니다.¹²⁶⁷ 옛 사람의 말을 망령된 말이라고 여기면 그만이지만 만약 망령되지 않다고 한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대개 산성이란 위급한 상황에 나라를 건고하게 해주는 것인데 원망이 쌓인 채 부역을 일으키면 난리가 일어나기도 전에 백성들은 다치게 되니 만약 다른 날에 뜻밖의 생각지 못했던 급한 일이 생긴다면 백성들이 어찌 임금에게 친애하고 위 사람을 위해 기꺼이 죽겠습니까?¹²⁶⁸ 신은 예전에 증험된 일로 말해보겠습니다. 지난 병자호란 때 무신(武臣)이 백만의 무리로 북지왕(北地王)¹²⁶⁹처럼 산성에 주둔하였으나 적의 기병이 내달려 공격하니 마치 사람이 없는 지역에 쳐들어온 것과 같았습니다. 남쪽 지방에서는 장졸들이 각각 산성을 지키며 변란에 대비하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밤에 소리를 지르니 놀라 당황하고 동요되어 지키고 있던 장수조차 먼저 달아나 텅 빈 성만 홀로 서 있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남한산성은 하늘이 만든 험난한 곳으로 임금을 보호하며 지킬 수 있고 종묘사직을 보존할 수 있으니 다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신이 남한산성을 살펴보니 당시에 성이 고립되어 임금께서 위기일발의 처지에 놓였는데¹²⁷⁰ 임금의 가장 믿을만한 신하들이 기발한 계책을 내어 진평(陳平)

1267 《대학(大學)》에……하였습니다 : 《대학장구(大學章句)》 전 10장에 나오는 말이다.

1268 임금에게……죽겠습니까 : 원문의 ‘친상이사장(親上而死長)’은 아랫사람들이 윗사람을 친근하게 여기고 어른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을 말한다. 《맹자(孟子)》〈양혜왕 하(梁惠王下)〉의 “임금께서 어진 정치를 행하기만 한다면 이 백성들이 그 윗사람을 친근하게 여기고 어른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바칠 것이다.[君行仁政 斯民 親其上 死其長矣]”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다.

1269 북지왕(北地王) : 삼국 시대 촉한(蜀漢)의 후주(後主) 유선(劉禪)의 아들인 유심(劉禪)을 가리킨다. 촉한이 위(魏)나라 장군 등애(鄧艾)의 침공을 받고 수도인 성도(成都)가 함락될 위기에 처하자 유선은 항복할 것을 결심하였는데, 유심은 항복하지 말고 끝까지 싸울 것을 주장했다. 유선이 듣지 않자 그는 유비(劉備)의 사당에 가서 통곡하고 처자(妻子)를 죽인 다음 자결하였다. 《三國志 卷33 後主傳》

1270 성이……놓였는데 : 청 태종은 1636년 12만 대군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 조선을 침략했다. 인조는 미처 강화도로 가지 못하고 수구문(水口門)으로 빠져나가 남한산성을 향해 떠났으

이 백등산(白登山)에서 풀려난 것처럼¹²⁷¹ 임금의 근심을 풀어주지도 못하였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수들은 한 번 적개심을 뿔어내어 이성(李晟)이 봉천성(奉天城)을 지켰던 것처럼¹²⁷² 하늘이 만든 험난한 곳에 올라 적을 물리치지도 못하였습니다. 장수와 재상들이 부화뇌동하여 마침내 하나의 계책을 마련했는데 성 아래에서 적에게 절하는 것에 불과하였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일을 생각하면 한밤중에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립니다. 산성이 백성과 국가에 이처럼 보탬이 안 된다는 것을 전하께서도 그 일을 목격하셨을 텐데 어찌하여 근본을 다스리지 않으며 지엽적인 것을 일삼아서 백성들의 삶이 흠더미가 무너지는¹²⁷³ 것과 같은 형세에 이르게 하십니까?

신은 매우 원통합니다. 그러나 이미 축조된 성이니 어찌 내버려 둘 수 있겠으며, 이미 쌓아놓은 곡식이니 어찌 부질없이 흩어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만두지 말고 말해보라면 한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성 안의 곡식을 본 성에서 해마다 수송할 필요가 없이 산재(散在)한 이웃 고을에 봄에 내주었다가 가을에 거둬들이는데 만일 국경에 위급한 일이 생기면 일시에 실어 들여와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말하냐면 호남 지역을 세간에서는 복있는 땅이라 말합니다. 을묘년(1555)에 왜놈들의 재앙에도 겨우 영암(靈巖)

며, 최명길(崔鳴吉)은 적의 선봉장을 만나 시간을 끌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청군의 선봉은 물밀듯이 쳐들어와 남한산성을 포위했고, 각지에서 지원군이 모두 패전하자 남한산성은 고립무원이 되었다. 인조는 강화도 함락 소식을 듣고 나서 소현세자와 함께 남한산성 서문으로 나와, 삼전도(三田渡)에서 청나라 황제에게 신하의 예를 올렸다.

1271 진평(陳平)이……것처럼 : 한 고조(漢高祖) 유방(劉邦)이 직접 군대를 인솔하고 흉노의 목탁 선우(冒頓單于)를 치기 위해 출정하였다. 목탁 선우가 패주하는 척하면서 정병을 매복시켰는데, 적정을 탐지할 목적으로 파견한 사신 유경(劉敬)의 간언을 듣지 않고 공격했다가 복병에 걸려 평성(平城) 부근의 백등산(白登山)에서 7일 동안이나 흉노의 30만 대군에게 포위를 당하였다. 이때 진평(陳平)이 꾀를 내어 선우의 부인 알지(閼氏)를 설득해서 포위가 풀렸다. 《史記 卷99 劉敬列傳》

1272 이성(李晟)이……것처럼 : 이성은 당나라 덕종(德宗) 때의 명장이다. 역적 주자(朱泚)가 장안(長安)을 함락하고 덕종이 봉천성(奉天城)으로 파천(播遷)하였을 때 주자를 토벌하고 장안을 수복하니, 덕종이 기뻐하면서 “하늘이 이성을 낳은 것은 사직을 위해서이지 집(朕)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新唐書 卷154 李晟列傳》

1273 흠더미가 무너지는 : 일의 상황이 수습할 수 없는 혼란한 지경에 빠지는 것을 뜻한다. 《사기》 권6 <진시황본기(秦始皇本紀)> 반고(班固)의 논평에 “진나라는 이미 오랫동안 쇠퇴하여 흠더미가 무너지는 듯하고, 기와장이 풀어지는 듯하였다.[秦之積衰, 天下土崩瓦解.]”라는 표현이 나온다.

에까지 이르렀다가¹²⁷⁴ 요망하며 더러운 행태가 곧바로 사라졌습니다. 임진왜란으로 나라가 커다란 난리를 당한 지 6년이나 지속되었는데 호남 지역은 단지 정유년(1597) 9월 10일에만 병란을 겪었을 뿐입니다. 심지어 병자호란의 참혹한 재앙에도 백성들은 병란조차 몰랐습니다.

대체로 우리나라의 병란은 매년 동쪽이나 북쪽에서 일어나 호남이 침략을 받더라도 반드시 맨 나중에 있게 되니 때에 임해서 곡식을 수송하더라도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만 한다면 백성들의 마음은 평소에 편안할 것이고 군량은 병란의 때에도 부족하지 않을 테니 어찌 편리하면서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삼남(三南, 영남·호남·충청)은 촉(蜀)나라의 형주(荊州)·익주(益州)¹²⁷⁵와 같아서 나라의 근본이 모두 이곳 삼남에 있습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전하께서는 부역 때문에 민심을 잃지 말고 마땅히 믿음과 의리로 굳게 단결시켜 은혜와 사랑으로 위로하며 구휼해야 합니다. 조간자(趙簡子)가 진양(晉陽)에 했던 것처럼¹²⁷⁶ 은혜와 위엄으로 임하고 절조(節操)와 의리로 책임을 지면 훗날의 바람은 반드시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심을 굳게 단결시키고 믿음과 의리로 서로 의지하는 것은 전하의

1274 을묘년(1555)에……이르렀다가 : 1555년(명종10) 왜구가 전라도 남부 지역에 침입한 을묘왜변(乙卯倭變)을 말한다. 1510년 삼포왜란(三浦倭亂)이 일어난 이래 조선 정부가 일본에 대한 세전선(歲遣船)을 감축하여 교역량을 줄임으로써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 쓰시마 섬(對馬島) 등지의 왜인들이 1555년 5월 11일 배 70여 척을 타고 전라도 영암(靈巖)의 달랑포(達梁浦)와 이포(梨浦)에 상륙하여 노략질을 했다.

1275 촉(蜀)나라의 형주(荊州)·익주(益州) : 유비(劉備)가 제갈량(諸葛亮)을 세 번째로 찾아갔을 때 제갈량이 그에게 패업(霸業)을 성취할 계책을 일러 주면서, 형주와 익주(益州)를 차지하고 있다가 천하에 변란이 생겼을 때 그 군병을 이끌고 나아가면 된다고 말하였다. 형주는 물자가 풍부하고 인구가 많으며 중원(中原)으로 나가기 좋은 위치에 있고, 익주는 수비하기 좋은 천연 요새의 지형이기 때문이었다. 《三國志 卷35 蜀書 諸葛亮傳》

1276 조간자(趙簡子)가 진양(晉陽)에 했던 것처럼 : 춘추 시대 진(晉)나라의 정경(正卿)인 조 간자(趙簡子)가 윤탁(尹鐸)을 진양의 수령으로 임명하였을 때 윤탁이 “견사(繭絲)를 위주로 할까요, 아니면 보장(保障)을 위주로 할까요?”라고 물으니 조 간자가 “보장을 위주로 하라.”라고 하자, 윤탁이 세금 내는 호수를 줄여서 백성의 생활이 여유롭도록 다스렸다고 한다. 《通鑑節要 卷1 周紀 威烈王》 ‘견사’는 누에고치의 실을 끝까지 뽑듯이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어 세금을 많이 걷는 가혹한 정사를 이르고, ‘보장’은 제방을 쌓아 보호하듯이 백성들의 생활을 넉넉하게 보장해 주는 관대한 정사를 이른다.

한 마음이 한결같이 정해짐에 달려있습니다. 신은 전하께서 이점을 깊이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병사를 다스리는데 법이 없는 폐단에 대해 살펴보면 신이 일찍이 옛날 역사서를 고찰하면서 천하의 형세를 연구하고 중화(中華)와 오랑캐의 상황도 헤아려보니 굳세고 씩씩한 병사와 말이 우리나라보다 뛰어났던 것이 없었습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말하냐면 우리나라의 형세는 북쪽으로는 오랑캐와 인접해 있고, 남쪽으로는 큰 바다와 근접해 있으며 중부 지방에 펼쳐있는 널따란 들판에 강물이 얽혀있으며 산이 서려 있어 진실로 무력(武力)을 사용할 만한 곳입니다. 북쪽 사람들은 굳세며 용맹스러워 추위와 고통을 잘 견디니 연(燕)나라와 조(趙)나라의 풍조¹²⁷⁷가 있어 용맹스러우면서 사나움이 그들보다 뛰어났고, 남쪽 사람들은 건장하고 호방하여 더위와 장기(瘴氣)¹²⁷⁸를 잘 견디고 바다에 출몰하여 바닷길에도 익숙하니 오(吳)나라와 초(楚)나라의 풍조¹²⁷⁹가 있어 사나우면서 강인함이 그들보다 뛰어납니다. 중부 지방의 사람들은 산과 들판에 드나들면서 내달리고 돌진하는데 뛰어나며 강렬한 활이나 매서운 화포처럼 불가한 바가 없으니 한(韓)나라와 위(魏)나라의 풍조가 있어 날렵한 기상이 그들보다 뛰어납니다. 이처럼 형세가 빼어난 땅에서 이와 같이 겸비한 병졸들을 동원하면 남과 북으로 정벌하여 천하를 위엄으로 뒤덮을 수 있는데 잇따라 실패를 보이니 이처럼 천하에서 심히 웃음거리가 된 것은 어찌서이겠습니까?

신이 생각하건대 인의(仁義)가 배풀어지지 않아서 장수는 알맞은 사람을 얻을 수 없고 병사 가려 뽑는 법이 없어서 병사들은 재주를 펼칠 수가 없습

1277 연(燕)나라와 조(趙)나라의 풍조 : 연나라와 조나라 지역에는 기개(氣概)가 꺾이지 않고 강개(慷慨)하며 격양(激昂)하는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었으므로 ‘연조풍(燕趙風)’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다. 그중에서도 특히 형가(荊軻)가 연 태자(燕太子) 단(丹)의 원수를 갚기 위해 진왕(秦王)을 죽이려고 떠날 때 “바람이 쌀쌀하니 역수가 차도다. 장사는 한 번 떠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風蕭蕭兮易水寒 壯士一去兮不復還]”라고 노래한 <역수가(易水歌)>가 대표적이다. 《史記 卷86 刺客列傳 荊軻列傳》

1278 장기(瘴氣) : 더운 지방의 산과 숲, 안개가 짙은 곳에서 습열(濕熱)이 위로 올라갈 때에 생기는 나쁜 기운을 말한다.

1279 오(吳)나라와 초(楚)나라의 풍조 : 중국의 남쪽 장강(長江) 중·하류 일대로 수부(水夫)들이 많고 날래었다.

니다. 장수가 알맞은 사람을 얻을 수 없다고 한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신이 삼가 살펴보니 장수를 쓰는 품평에는 세 가지 등급이 있는데 어진 장수가 첫 번째이고, 지략 있는 장수가 다음이며, 용맹스러운 장수가 그 다음입니다.

이른바 어진 장수는 도덕이 몸에 쌓여 기량이 넓고 중후하니 사람을 사랑하여도 사람들이 친압하지 않으며 사람을 죽여도 사람들이 원망하지 않습니다. 적국의 사람들도 부모와 같이 우러러보아 감히 서로 싸울 수 없는 자가 어진 장수가 되니 주(周)나라 강태공(姜太公)¹²⁸⁰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한(漢)나라의 제갈공명(諸葛孔明)¹²⁸¹, 그 다음이라 할 수 있는 자는 위(魏)나라의 무기(無忌)¹²⁸²와 송(宋)나라의 조빈(曹彬)¹²⁸³이었습니다.

이른바 지략 있는 장수는 귀신같은 책략으로 변화무쌍하게 출몰하여 더러는 약함을 보이면서 강함을 취하고, 더러는 위엄을 펼치면서 적을 겁박하며 음양(陰陽, 나타났다가 숨었다함)과 기정(奇正)¹²⁸⁴으로 풍운(風雲)과 회

1280 강태공(姜太公) : 주(周)나라 초기의 현자(賢者)로 성은 강(姜)이고 씨는 여(呂)이며 이름은 상(尚)인데, 위수(渭水) 가에서 낚시질을 하다가 문왕(文王)을 만나 국사(國師)가 되고, 무왕(武王)을 도와 은(殷)나라의 폭군인 주왕(紂王)을 멸망시켜 도단에 빠진 백성을 구제하고 제(齊)나라에 봉해졌다. 《史記 卷32 齊太公世家》

1281 제갈공명(諸葛孔明) : 제갈량(諸葛亮, 181~234)을 가리킨다. 중국 삼국 시대 촉한(蜀漢)의 정치가로, 공명은 그의 자이다. 와룡(臥龍)이라는 별명으로도 불렸다. 세력이 미약했던 유비(劉備)가 제갈량의 지혜가 뛰어나다는 소문을 듣고 삼고초려(三顧草廬)하여 초빙하였다. 유비가 대규모 군대를 조직하고 촉한을 창건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1724년에는 유교의 성인(聖人)으로 추존되었다.

1282 위(魏)나라의 무기(無忌) : 위(魏)나라의 신통군(信陵君)으로, 전국 시대 4공자(公子) 중의 한 사람이다. 진 소왕(秦昭王)이 군대를 보내 조(趙)나라 한단(邯鄲)을 포위하자, 신통군이 위왕(魏王)의 병부(兵符)를 훔친 다음에, 10만 군대를 거느리고 있던 진비(晉鄙)의 진영(陣營)으로 가서 진비를 죽이고 그 군대를 인솔하여 끝내 조나라를 구원해 준 고사가 있다. 《史記 卷77 魏公子列傳》

1283 송(宋)나라의 조빈(曹彬) : 931~999. 송(宋)나라 영수(靈壽) 사람으로, 자는 국화(國華), 시호는 무혜(武惠)이다. 송 태조(宋太祖)를 도와 천하를 안정시켰다. 촉(蜀)을 정벌하고 남당(南唐)을 이겼으나 한 사람도 함부로 죽이지 않았다. 노국공(魯國公)에 봉해졌고 죽은 뒤에 제양군왕(濟陽郡王)에 봉해졌다. 《宋史 卷258 曹彬列傳》

1284 기정(奇正) : 병법(兵法)의 용어로서, 정면으로 접근을 벌이는 것을 '정(正)'이라 하고 매복(埋伏)이나 기습(奇襲) 등의 방법을 쓰는 것을 '기(奇)'라고 한다.

합하여 호걸들을 굴복시킵니다. 사졸들을 자식처럼 사랑하여 적들이 감히 우리들의 허상과 실상을 엿보아 헤아릴 수 없게 하는 자가 지략 있는 장수입니다. 옛날 역사서를 찾아보니 각 시대마다 그러한 사람이 있었는데 전국시대에는 손무(孫武)와 오기(吳起)¹²⁸⁵, 한(漢)나라에는 한신(韓信)¹²⁸⁶, 당(唐)나라에는 이세적(李世勣)¹²⁸⁷과 곽자의(郭子儀)¹²⁸⁸ 같은 사람들이 그런 부류였습니다.

용맹스러운 장수라는 것은 바람과 우레와 같이 내달리는 기상과 강과 바다와 같은 웅장한 뜻이 있어 큰 소리로 꾸짖으면 삼군(三軍)¹²⁸⁹은 낮이 나가며, 포효하며 큰 소리로 지휘하면 사방의 적들이 놀라 두려워하니 초(楚)나라의 항적(項籍), 촉(蜀)나라의 관우(關羽)와 장비(張飛) 같은 사람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이 생각하건대 어진 장수는 세상에 드물어 얻기가 어려우며 용맹스러운 장수는 패배를 많이 해서 성공하기 어려우니 지금 세상에서 맡겨 의지할 만한 자는 지략 있는 장수일 것입니다. 이른바 지략 있는 장수는 지금 세상에서 인물을 살펴봐도 얻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옛날의 이름난 장수들 모두가 초목이 우거지거나 세속의 가운데에서 나왔는데 만약 성스럽

1285 손무(孫武)와 오기(吳起) : 원문의 ‘손오(孫吳)’는 춘추 시대의 손무(孫武)와 전국시대의 오기(吳起)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모두 저명한 병법가이고 장수이다. 《순자(荀子)》〈의병(議兵)〉에 “손오(孫吳)를 등용한다면 천하에서 무적이 될 것이다.[孫吳用之 無敵於天下]”라고 하였다.

1286 한신(韓信) : 용병술에 뛰어난 한(漢)나라의 명장으로, 한 고조(漢高祖)의 천하통일에 가장 공이 컸던 삼걸(三傑) 중의 하나이다.

1287 이세적(李世勣) : 594~669. 조주(曹州) 사람으로 본래 이름은 서세적(徐世勣)이었다. 당나라 고조의 신임을 받아 조국공(曹國公)에 봉해지고 이씨(李氏) 성을 하사받았다. 후에 당나라 태종(太宗) 이세민(李世民的) 휘(諱)를 피하여 이름을 한 글자인 적(勣)으로 고쳤다. 능연각(凌煙閣)에 모셔진 24공신 중의 한 사람이다. 《舊唐書 卷67 李勣列傳》

1288 곽자의(郭子儀) : 697~781. 당나라 화주(華州) 사람으로, 숙종(肅宗) 때 안녹산(安祿山)과 사사명(史思明)의 난을 평정할 때 이광필(李光弼)과 함께 뛰어난 공을 세워 왕실 중흥의 공으로 분양왕(汾陽王)에 봉해졌고, 덕종(德宗) 때에는 상보(尙父)라는 호를 받았다. 《新唐書 卷137 郭子儀列傳》

1289 삼군(三軍) : 주(周)나라 제도에, 제후의 대국(大國)에 삼군(三軍)을 두는데 중군(中軍)이 가장 높고, 상군(上軍)이 그 다음이고, 하군(下軍)이 또 그 다음이라고 한다. 1군은 1만2천5백 명이니, 삼군이면 3만7천5백 명이다.

고 어진 군자가 당시에 나오지 않았다면 여상(呂尙, 강태공)과 한신(韓信)은 물고기나 잡는 한갓 노인에 불과하였을 것입니다. 제갈공명이 몸소 농사나 짓다가 죽고 곽자의가 군대에서 생을 마쳤다면 저잣거리의 어린아이나 마을의 노파들 모두가 그들을 업신여기고 모욕했을 테니 누가 그 가슴에 《육도(六韜)》¹²⁹⁰를 감추고서 경세제민(經世濟民,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함)의 뜻을 품고 있을 줄 알겠습니까?

신이 삼가 지금에 인재 등용하는 것을 살펴보니 어질거나 어리석음을 가리지 않으며 재주 있거나 졸렬함을 구분하지 않으면서 가문이 높은 사람은 지위가 높고 지위가 높은 사람은 명망이 두텁습니다. 거대한 장수들은 재물 있는 자제들에게 많이 나오며 변방 성곽의 수장들도 모두 부귀를 누리는¹²⁹¹ 문객(門客)이어서 가렴주구(苛斂誅求)를 일삼고, 엮어 묶어 수탈하는 것에만 힘쓰니 병졸들 훈련에는 다만 형식적으로 응하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 초야에서 빼어난 자가 있어 간혹 그 사이에서 나오면 감사(監司)는 전(殿, 맨 아래 등급)으로 폄훼(貶毀)하고 어사(御史)는 탄핵으로 장계를 올리며 으레 이런 무리들로 책임을 모면하려는 바탕으로만 삼고 있으니 초야 아래에서 걸출하며 호방한 재주를 지닌 채 숨어 있는 자가 어찌 전하에게 등용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장수 선발할 때 오로지 활쏘기와 말 타기 같은 작은 기술로 당락을 결정한다면 대개 검을 어루만지며 노려보고 뛰어올라 활만 쏘 테니 이것은 필부가 군대에 편입되어서 행하는 바입니다. 장수는 만인을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을 익혀 군막에서 계책을 세워 천 리 밖에서 승부를 결정하는¹²⁹² 일을 하니 어찌 하나의 활과 하나의 화살에 달려있을 뿐이겠습니까? 옛날에 오

1290 《육도(六韜)》: 주(周)나라 강태공(姜太公)이 지은 중국 고대의 저명한 병법서(兵法書)로, 《수서(隋書)》〈경적지(經籍志)〉에 처음 보인다.

1291 부귀를 누리는: 원문의 ‘중정(鍾鼎)’은 상고 시대의 보기(寶器)로, 그 표면에 공신들의 이름이나 공적을 새겨 넣은 데서 조정에 올라 부귀를 누린다는 뜻을 지니게 되었다. 두보(杜甫)의 시 〈청명(淸明)〉에 “중정과 산림의 생활이 각기 천성이 있으니, 탁주와 거친 밥 먹으며 살아도 아랑곳하지 않노라.[鍾鼎山林各天性, 濁醪糲飯任吾年.]”라고 하였다.

1292 군막에서……결정하는: 한 고조(漢高祖)가 천하를 통일한 뒤에 “장막 속에서 작전 계획을 수립하여, 일천 리 밖에서 승부를 결정지은 것은 자방의 공이다.[運籌策帳中, 決勝千里外, 子房之功也.]”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史記 卷55 留侯世家》

기(吳起)가 장수였을 때 칼 한 자루를 오기에게 준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오기는 받지 않고 말하기를 “장수 된 자의 도(道)는 칼 한 자루에 있지 않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고급의 병법가들이 대장군의 바탕을 깊이 터득하였다고 인정하였으니 이것이 장수된 자가 본받아 취해야 할 일입니다.

신이 원컨대 전하께서 명령을 내려 정승¹²⁹³에서부터 아래로는 지위가 낮은 관리¹²⁹⁴에 이르기까지 문반(文班)·무반(武班)·남반(南班)¹²⁹⁵ 및 음관(蔭官)을 막론하고 도량이 깊으면서 두터우며 풍도가 늙름하면서 굳센 자를 골라 뽑는데 출신이 높고 낮음과 품계가 높고 낮음을 따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날을 따져 순번을 돌아가면서 병조(兵曹)에 모여 무경(武經)¹²⁹⁶을 강론하면 위로는 삼대(三代)부터 아래로는 송(宋)·원(元)까지 병법가들의 승패와 장수들의 득실이 눈과 마음에 환히 보이고 중국의 산천·오랑캐 도로가 험한지 중요한지 좁은지 막혔는지의 형세와 우리나라 산야·군현 요충지의 도로가 분리되었는지 연결되었는지 험난한지 평탄한지의 형세 모두를 마음속에서 헤아릴 수 있으니 그 재능과 기량에 따라 장수의 직책을 맡겨야 합니다. 수령과 변방의 장수를 서경(署經)¹²⁹⁷할 때 병조에서는

1293 정승 : 원문의 ‘구첨지위(具瞻之位)’는 《시경(詩經)》〈소아(小雅) 절남산(節南山)〉의 ‘赫赫한 사운을 백성들이 함께 우러른다.[赫赫師尹 民具爾瞻]’에서 온 말로 정승의 지위를 이르는 말로 쓰인다.

1294 지위가 낮은 관리 : 원문의 ‘일명지사(一命之士)’는 아주 낮은 관계(官階)에 있는 관원을 말하는데, 보통 9품관을 가리킨다. 《주례(周禮)》〈대종백(大宗伯)〉에 의하면 일명에서 구명(九命)까지의 관직이 있다.

1295 남반(南班) : 고려 초기부터 있던 제도로, 동반(東班, 문신)·서반(西班, 무신) 외에 남반이라 하여 주로 내료직(內僚職)에 있던 반열이다. 처음에는 4-6품관(品官)까지 허용하였으며 문종(文宗) 때 정7품인 내전승반(內殿崇班)을 최고위로 삼았으나, 의종(毅宗) 이후 환관의 득세로 차츰 권력을 쥐었다. 《高麗史 卷73·74 選舉志》

1296 무경(武經) : 병법(兵法)에 관한 책으로서 곧 주(周)나라 손무(孫武)의 《손자(孫子)》, 전국시대 위(魏)나라 오기(吳起)의 《오자(吳子)》, 제(齊)나라 사마양저(司馬穰苴)의 《사마법(司馬法)》, 주나라 위료(慰繚)의 《울료자(尉繚子)》, 당(唐)나라 이징(李靖)의 《이위공문대(李衛公問對)》, 한(漢)나라 황석공(黃石公)의 《삼략(三略)》, 주나라 여망(呂望)의 《육도(六韜)》등을 말한다.

1297 서경(署經) : 이조와 병조에서 관리의 임명, 승진 등의 인사행정을 시행할 때에, 해당자의 출신 성분에 대한 기록을 사헌부와 사간원으로 보내서 해당자에게 하자가 없음을 확인받은 뒤에 고신(告身)을 발급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서경이라고 한다.

무경을 시강(試講)¹²⁹⁸하여 과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팔도에 명령을 내려 만약 기개가 있어 얽매이지 않는 선비가 빠르게 내달리는 재주까지 있는데 기이한 능력과 재주를 품고 산천의 사이에서 진귀함을 감추고 있는 자라면 귀한 지 천한지를 따져서는 안 됩니다.

생원과 진사·전직 관리·생도·무관출신¹²⁹⁹·군대에 숨겨진 자 중에 만약 원대한 뜻과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책략은 있으나 당시 그 재주를 펼칠 수 없는 자를 군현(郡縣)으로 하여금 전부 찾아 모아서 병조에 올리게 하여 그 재주와 지혜를 시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서(武書)를 보고 익히는데 만약 이미 능통하여 환히 깨달아 감히 적용할 수 있는 자라면 직부(直赴)¹³⁰⁰를 허락하여 관계(官階)의 차례를 밟지 않고 등용해야 합니다. 만일 재주와 기량은 불만하지만 단련하여 재주를 완성하지 못한 자는 병조에 머물게 하여 가르쳐 길러서 성취하게 해야 합니다. 기량과 재주를 헤아려 각각 크고 작은 쓰임에 알맞게 하면 곽외(郭隗)를 스승으로 삼아 낙의(樂毅)·극신(劇辛)도 얻을 수 있습니다.¹³⁰¹ 이른바 동해(東海)의 늪은이¹³⁰²와 가량이 밑에서 재주 있는 자¹³⁰³가 어찌하여 오늘날에는 반드시 없다고 말씀하

1298 시강(試講) : 시관(試官)이 응시자에게 읽은 글을 외게 하여 시험하는 일이다.

1299 출신 : 문·무과(文科) 또는 잡과(雜科)에 급제하고 아직 출사(出仕)하지 못한 사람으로 주로 무과 급제자를 지칭한다.

1300 직부(直赴) : 조선시대에 정규 과거가 아닌 경우에 시험절차상 특혜를 주었던 제도이다. 전강(殿講)·절일제(節日製)·황감제(黃柑製)·통독(通讀)·외방별과(外方別科)·권무과(勸武科) 등에 합격한 사람에게도 정규 과거의 복시(覆試)나 전시(殿試)에 응할 자격을 주었다.

1301 곽외(郭隗)를……있습니다 : 훌륭한 인재를 초치(招致)하려면 그보다 못한 사람부터 후대해야 한다는 비유이다. 《전국책(戰國策)》〈연책(燕策)〉에 다음과 같은 고사(故事)가 전한다. 곽외는 전국 시대 연(燕)나라 사람인데, 연 소왕(燕昭王)이 자기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하여 현자들을 초빙하려 하자 곽외가 말하기를, “천리마(千里馬)를 구하기 위하여 천금을 싸 들고 간 자가 있었는데 가 보니 그 말이 이미 죽은 뒤여서 그 뼈를 오백 금에 사 들고 왔더랍니다. 그 뼈를 어디에 쓸 것이냐고 왕이 노하자, 말을 구하려 갔던 자의 대답이 ‘죽은 말도 이렇게 사 오는데 하물며 살아 있는 말이겠습니까? 천리마가 금방 오게 될 것입니다.’라고 했는데, 그로부터 1년이 못 되어 천리마 세 필이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왕께서 현사를 초빙하시려면 우선 이 곽외부터 예우를 하십시오.”라고 하니, 소왕은 기뻐하여 그를 위해 궁(宮)을 짓고 스승의 예로 대우했다. 아울러 황금대(黃金臺)를 지어 현자를 초빙하니 낙의(樂毅)·추연(鄒衍)·극신(劇辛) 등의 인재들이 다투어 찾아와 국력이 부강해졌다.

1302 동해(東海)의 늪은이 : 강태공을 가리키는데 동해(東海) 사람이어서 이렇게 표현하였다.

1303 가량이……자 : 원문의 ‘과하(胯下)’는 가량이 밑이라는 뜻으로, 한나라 개국 공신으로서 삼

십니까? 어찌하여 병사들은 재주를 펼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신이 삼가 살펴보건대 병법가는 병법을 단련하여 대부분 정밀하게 하길 힘쓰고, 적임자를 장수로 발탁하여 군병이 진실로 매우 정예롭게 되면 적은 사람으로도 많은 사람을 복종시킬 수 있는 것이 필연적인 형세입니다. 옛날에 원소(袁紹)가 십만의 병사로 관도(官渡)를 막았는데 조조(曹操)가 일 만의 병사로 이겼고¹³⁰⁴, 광무제(光武帝)가 곤양(昆陽)에서 8000의 무리로 왕망(王莽)의 백 만 군사를 모조리 죽였으며¹³⁰⁵, 사현(謝玄)이 이 만의 사람으로 부견(苻堅)의 백 만 무리를 회수(淮水)에서 격파했으니¹³⁰⁶ 옛날에 이미 증험된 일을 일일이 거론할 수는 없습니다. 정자(程子)가 비유를 취하여 말하기를 “두 사람이 서로 상대함에 한 사람의 몸은 매우 크고 다른 한 사람의 몸은 가벼워 날렵하니 살이 썩 굵든 자는 반드시 가벼워 날렵한 자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과 같다.”¹³⁰⁷라고 하였으니 이 말은 가장 좋은 비유입니다.

신이 삼가 살펴보건대 오늘날 병적(兵籍)은 너무 번잡한데, 거짓된 것이 많고 진실한 것은 적습니다. 한 집안 내에 부모와 형제 중 3, 4명 혹은 5, 6명

결(三傑)의 하나인 한신을 비유한 말인데, 그가 회음(淮陰) 땅에서 한 청년의 가랑이 밑을 엉금엉금 기어서 태연히 빠져나온 고사에서 유래한 것이다.

1304 원소(袁紹)가……이겼고 : 원소는 삼국 시대의 유력한 무인 정치가이다. 그는 화북(華北) 지역에서 조조와 대립하여 강력한 세력을 이루고 있었으나 결국 관도(官渡)에서 벌어진 결전에서 조조에게 대패하여 분사(憤死)했다. 《後漢書 卷74上 袁紹列傳》

1305 광무제(光武帝)가……죽였으며 : 곤양(昆陽)은 후한의 광무제(光武帝) 유수(劉秀)가 왕망(王莽)의 100만 대군을 격파했던 곳이다. 왕망의 군대가 곤양을 겹겹이 포위하자 군사들과 장수들이 모두 전의를 상실하였으나, 유수가 직접 나가서 적과 싸워 연속하여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를 보고 군사들이 모두 합세하여 대항해 왕망의 군대가 궤멸되었다. 이때 때맞추어 천둥과 큰바람이 일어 기와가 모두 날아가고 장대비가 퍼부어 치천(滙川)이 범람하니, 맹수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었고 수많은 적군이 빠져 죽었다고 한다. 《後漢書 卷1 光武帝紀》

1306 사현(謝玄)이……격파했으니 : 사현은 동진(東晉) 때의 명장으로, 전진(前秦)의 부견(苻堅)이 백만 대군을 거느리고 쳐들어오자 8만의 군사로 비수(肥水)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던 중 기계(奇計)를 써서 전진의 군사를 잠시 물리게 한 틈을 타 강을 건너가 대승을 거두었다. 《晉書 卷79 謝安列傳》

1307 두 사람이……같다 : 《하남정씨유서(河南程氏遺書)》 권2 상에 “한 사람의 몸이 매우 크고 다른 한 사람은 가벼워 날렵한데 두 사람이 서로 상대하면 중기가 있는 자는 느리고 둔해서 가벼워 날렵한 자가 좌우로 출입하면 필시 괴로움을 겪을 것이다.[一人軀幹極大，一人輕捷，兩人相當，則擁腫者遲鈍，爲輕捷者出入左右之，則必困矣.]”라는 말에서 인용하였다.

모두 군적(軍籍, 군역 부담자의 장적(帳籍))에 편입되었는데 간혹 두어 가지 역(役)이 중첩된 채로 가포(價布)¹³⁰⁸를 징수합니다. 포 1필은 으레 값이 상포(常布) 6필이고, 한 사람의 가포로 으레 2필을 거둬들이니 한 집안의 다섯 부자는 일 년간 바치는 것이 50~60필에 이릅니다. 그러니 남자가 농사를 지어도 배불리 먹지 못하고 여자가 옷을 짜도 입지 못하니 사민(四民, 사(士), 농(農), 공(工), 상(商))들은 오직 병역으로 몹시 초췌해지고 있습니다.

만약 당번을 나누어 수자리에 나아가면 변방의 장수는 훈련에 힘쓰지 않고 오로지 감시하는 일만 일삼아 토목공사를 감독하며 어염업(漁鹽業)에 내몰아 마구 매질을 하니 어깨와 등에 벌레가 생길 지경입니다. 만약 집으로 돌아오면 부역이 번거롭고 가혹하여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놀라 식은땀이 나며 얼굴은 검게 되고 몸이 피로하니 팔은 활도 못 들 지경이 됩니다. 만약 위급한 일이 발생하여 이 무리들을 내몰아 전쟁터로 나아가게 하면 마치 병든 양천 마리로 사나운 호랑이 한 마리도 감당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의 백성들을 내몰아 물과 불속에 빠뜨립니다. 오패(五伯)의 무리는 삼척동자도 말하기 부끄러워했습니다.¹³⁰⁹ 말이 여기에 이르니 춤지도 않은데 피부에 소름이 돋습니다.

신이 원컨대 전하께서는 군병 단련에 공자 무기(公子無忌)의 방법을 법으로 삼아 아버지와 자식 모두가 군대 안에 있으면서 아버지가 늙고 자식이 건장하면 아버지를 집으로 돌려보내고 아버지가 건장한데 자식이 약하면 자식을 집으로 돌려보내며, 형제 모두가 군대 안에 있으면서 형이 늙고 동생이 건장하면 형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동생이 약한데 형이 건장하면 동생을 집으

1308 가포(價布) : 국가에 일정한 신역(身役)을 치러야 할 사람이 동원되어 나가지 않고 그 신역의 대가로 바치는 포목(布木)을 말한다.

1309 오패(五伯)의……부끄러워했습니다 : 《맹자》〈양혜왕 상(梁惠王上)〉에 맹자가 “중니(仲尼)의 문도(門徒)들은 제환공(齊桓公)과 진문공(晉文公)의 일을 말한 자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후세에 전해진 것이 없어, 신(臣)이 아직 듣지 못하였습니다.[仲尼之徒 無道桓文之事者 是以 後世無傳焉 臣未之聞也]”라는 구절의 주자집주에 한(漢)나라 동중서(董仲舒)가 “중니(仲尼)의 문하(門下)에는 오척 동자(五尺童子)들도 오패(五伯)를 칭하기를 부끄러워하였으니, 이는 그 속임수와 무력을 앞세우고 인의(仁義)를 뒤로 하였기 때문이다.[董子曰 仲尼之門 五尺童子 羞稱五伯 爲其先詐力而後仁義也]”라고 한 말을 인용하였다.

로 돌려보내야 합니다.¹³¹⁰ 한 집안의 부자와 형제가 5명이면 3명은 병역을 지고 2명은 농사를 짓게 하며, 3명이면 2명은 병역을 지고 1명은 농사를 짓게 해야 합니다.

병영(兵營)과 수영(水營)은 각각 보장(堡長)¹³¹¹이나 진장(陣長)에 소속된 병사 모두 일정한 수를 정하여 번거롭거나 불필요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다음에 병사를 골라 뽑는데 매우 정밀하게 하고 훈련시키는데 매우 엄하게 하여 침탈(侵奪)¹³¹²해서도 안 되고 멋대로 놀게 해서도 안 됩니다. 해마다 어사(御史)를 파견하여 군졸을 점검하는데 예전 그대로 파리하고 초책하며 무예가 정밀하지 않는다면 더욱 질책하고 벌을 주어야 합니다. 만약 군대의 위용이 정돈되고 엄숙하며 재주가 용감하고 날랜 자는 더욱 포상해줘야 합니다. 이와 같이 3년을 하면 백성들은 원망하는 말이 없고 병사들은 훈련에 익숙해져 반드시 용맹한 군사가 대오(隊伍)에 펼쳐 있게 되가는 곳마다 대적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병졸을 정밀하게 가려 뽑는 것은 장수에게 달렸으나 책임자를 장수로 발탁하는 것은 전하의 마음이 올바른지 올바르지 않은지에 달려있을 뿐입니다. 신은 전하께서 이점을 깊이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은 매번 군국(軍國)의 일을 생각할 때면 또한 애통하고 가여운 마음이 있습니다. 신이 이미 어리석은 견해를 아뢰었으니 감히 이에 숨김없이 다 논하겠습니다. 대개 우리나라의 육지에는 육군이 있고 해상에는 수군이 있어 난리가 일어나면 육군의 장수는 육군을 거느리고 수군의 장수는 수군을 거느려

1310 공자 무기(公子無忌)의……합니다 : 공자 무기가 진(秦)나라 소왕(昭王)의 침입을 받은 조(趙)나라를 구원하러 갈 적에 군중에 영을 내리기를 “부자(父子)가 함께 군중(軍中)에 있는 자는 아버지가 고향으로 돌아가고, 형제가 함께 군중에 있는 자는 형이 돌아가서 부모를 봉양하며, 형제 없는 외아들은 전장에 가지 말라.[父子俱在軍中者父歸 兄弟俱在者兄歸奉養 獨子無兄弟者不赴]”라고 하였다. 《史記 卷77 魏公子列傳》

1311 보장(堡長) : 보(堡)는 대개 소수의 군사를 배치하고 하급 지휘관을 임명하여 지휘하도록 했으며, 일부는 군사만 배치했다. 본래 보는 흙이나 돌로 쌓은 작은 성(城)을 뜻한다. 때로는 돌로 쌓은 것을 성이라 하고, 흙으로 쌓은 것을 보라 하여 구별하기도 했지만 조선시대의 보는 대부분 석성이었다. 보장은 보의 지휘관을 말한다.

1312 침탈(侵奪) : 원문의 ‘침어(侵漁)’는 그물로 고기를 잡듯이 백성의 재물을 침탈(侵奪)하는 것을 말한다.

서 각자 속한 바를 통솔하게 됩니다. 어떤 이는 천 리 밖 먼 곳에서 싸우고, 어떤 이는 도성을 막아 지키는데 나머지 늙고 젊으며 건강하고 약한 유민(流民, 직업이 없는 백성)들은 각자 그 집안 식구들을 이끌고 산림에 숨어버리니 수령은 혼자 텅 빈 고을을 지키느라 손쓸 방법조차 없게 됩니다. 일이 매우 급박하여 어쩔 수 없이 처자식들을 데리고 백성들과 함께 풀숲 사이에 숨어버립니다. 많은 백성들이 함께 산택(山澤)으로 들어가니 산천은 이미 협소한데 백성들까지 너무 많아 비록 잠복하여 병란을 피하려고 하여도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이러한 때에 나라가 혼란스러워 백성들은 흩어지고 도성의 길은 끊겨 호령(號令)이 통하지도 않는데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고 여자들을 겁탈해도 금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간혹 산골짜기를 출입하는 떠돌아다니는 적이나 막고 있는 병사를 갑자기 만나면 하나의 적만 쳐들어와도 많은 사람들을 도륙(屠戮)하고 이리저리 때리며 노략질해서 천 리의 길에 피가 흘러도 막아낼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임진년(1592)의 변고와 병자년(1636)의 재앙에 온 나라가 일제히 함정에 빠져 하나같이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된 것도 대개 이 때문입니다.

신이 삼가 생각하건대 우리나라는 해상과 육지의 군정(軍丁) 이외에 위로는 학교의 사대부부터 아래로는 미천한 중, 승려, 공인, 상인의 무리에 이르기까지 군액(軍額)¹³¹³의 10분의 7, 8을 더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이 삼가 청컨대 군액 이외에 각종 유민(遊民)과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 늙은이나 젊은이, 장성한 자나 약한 자를 통틀어 모두 수령에 소속시켜 ‘향병(鄉兵)’이라 부르고 평상시에는 사(士)·농(農)·공(工)·상(商)이 각자 본업을 하면서 조금도 수고롭거나 동요할 필요도 없이 다만 각자 활과 화살, 병장기만 갖추게 해야 합니다.

봄가을 농한기 때에 수령은 한결같이 향사례(鄉射禮)를 본받아 고을의 백성들을 모두 모이게 하여 무예 강론과 시험을 일 년에 2차례만 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급한 일의 경고가 있게 되면 수령이 통솔해서 선비는 사병(士

1313 군액(軍額) : 병역의 의무인 군역(軍役)의 대상이 되는 양민(良民)의 수효를 이른다. 조선조에서는 양반과 천민은 군역의 의무를 지지 않고 오직 양민들만이 이를 부담하였는데, 평시에는 군포(軍布)로 대납하였다.

兵)을 두고 농민은 농병(農兵)을 두며, 공인·상인·승려 각각의 병사를 두어 일부분을 비장(裨將)이 각각 거느려 관할하게 합니다. 그리고 처자식과 가족들을 이끌어 험하고 궁벽한 곳에 들어가 웅거하면서 늙름하게 하나의 진을 이루어서 수령이 장수가 되어 엄하면서 분명하게 호령하면 저절로 서로 혼란스럽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진을 쳐서 웅거하던 곳은 그 고을의 경계를 넘나들 수 없게 하며 각 고을의 진은 십 리에서 서로 바라보고 성세(聲勢)로 의지하다가 적과 만나게 되면 혹은 견고하게 지키거나 혹은 좁고 막힌 곳으로 나가게 하여 불의의 일격을 하면 떠돌아다니는 적이나 가로막는 병사들이 깊이 들어와 우리 백성들을 해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비록 외적인 큰 진영이라도 또한 감히 멋대로 쳐들어와서 도성을 급격히 침범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진에 있는 향민(鄉民)이 비록 국가를 위하여 충성을 바치려는 뜻이 없을지라도 반드시 마음과 힘을 다해 막고 지키게 됩니다. 그러한 뒤에 처자식들은 도륙을 면하게 되니 누군들 목숨을 바쳐 힘써 싸우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가까운 옛날의 백성들도 모두 병사였고, 관아의 창고는 모두 재정의 방도였으니 해상과 육상의 대장군은 나라에 나아가 충성을 다하였고, 각 고을의 향병(鄉兵)은 스스로 부모와 형제를 지키며 충성과 효모두를 겸비하니 임금과 신하 모두가 온전하였습니다. 비록 뜻하지 않는 급한 일이 있을지라도 스스로 견고한 너럭바위처럼 서 있게 되었습니다.

말을 다 아뢰었으나 또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옛날에 한 고조(漢高祖)가 말 위에서 팔 년간을 동쪽에서 넘어지고 서쪽으로 달아나면서도 끊임없이 병사를 조련(調練)하고 군량을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게 하여 결국 대업을 이루게 된 것은 어찌서이겠습니까? 이것은 소하(蕭何)가 관문을 견고하게 지키면서 조금의 땅도 잃지 않아서이니 뿌리인 근본이 견고하게 되면 가지와 잎사귀는 마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장군이 한 번 밖을 나가면 여러 고을의 백성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텅 비게 되고 수령은 손을 모으며 한갓 실권 없는 벼슬자리만 쥐고 있으니 비록 군량을 옮기고 병사를 조련하여 패배할 때마다 돕고 싶더라도 어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지금 만일 향병(鄕兵)을 설립한다면 일이 없을 때에는 미리 지키는 계책을 강구하고 난리가 일어날 때에는 어린아이의 백성도 감히 지키고 있던 땅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유독 분주하게 살길을 찾아 어떤 한 곳에 성벽을 견고하게 하고 진영을 설치하여 스스로를 지키는데 위아래 사람이 서로 보호하고 주(州)·군(郡)이 서로 이어져 한편으로는 조정의 명령에 통하고 한편으로는 병사들의 식량을 계속해서 옮겨준다면 뿌리와 가지는 서로 지키며 군대와 백성들은 서로 편안해져 주나라 제도가 거의 회복되니 거처하면 비(比)·려(閭)·족(族)·당(黨)¹³¹⁴처럼 주·군이 이웃이 되고, 나가면 오량(伍兩)·군사(軍師)¹³¹⁵의 법이 됩니다. 그러나 전하께서 평상시에 만약 마음을 바르게 하고 뜻을 성실하게 한데 백성들의 마음에 평소 믿음을 주지 못하면 비록 집집마다 명장(名將)이 가득하고 큰 진을 설치하더라도 반드시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것에는 도움이 없을 것입니다. 신은 전하께서 이점을 깊이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은 학문이 거친데 말은 많고, 뜻은 장구한데 글이 줄렬하니 대체로 말한 바가 성상의 감식안을 더럽히기에는 부족하나 다만 보잘것없는 의견을 올릴 기회를 만나¹³¹⁶ 야인의 정성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삼가 앞에서 말한 것은 우리러 성상의 마음공부에 만분의 일이라도 보탬이 되게 하려는 것이었고, 뒤에 말한 것은 백성들을 당시 폐단에서 구원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다만 생각하건대 대동법으로 국가가 이미 안정되었고, 산성의 한

1314 비(比)·려(閭)·족(族)·당(黨) : 향리(鄕里)의 이웃끼리 결속하여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서로 돕도록 한 제도를 가리킨다. 《주례(周禮)》〈지관(地官) 사도(司徒)〉에 “5가(家)가 비(比)가 되는데 서로 보호해 주도록 하고, 5비(比)가 려(閭)가 되는데 서로 받아 주도록 하며, 4려(閭)가 족(族)이 되는데 서로 장사(葬事)를 지내 주도록 하고, 5족(族)이 당(黨)이 되는데 서로 구원해 주도록 한다.”라고 하였다.

1315 오량(伍兩)·군사(軍師) : 고대의 군대 편제 단위를 말한다. 5인이 오(伍)가 되고, 5오가 량(兩), 4량이 졸(卒), 5졸이 려(旅), 5려가 사(師), 5사가 군(軍)이 되었다. 《周禮 地官 大司徒》

1316 보잘것없는……만나 : 본문의 ‘근폭(芹曝)’은 의견 또는 물건 등을 윗사람에게 올릴 때 쓰는 겸사로 ‘헌근(獻芹)’과 ‘폭헌(曝獻)’을 합친 말이다. 이 상소문은 효종의 명에 의하여 지은 것이지만 미천한 자신의 의견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만난 것으로 표현하였다.

가지 일도 조정의 계책으로 이미 완성되었는데 또 올곧은 뜻으로 소신껏 말을 하여 논한 바가 당시의 일을 건드리게 되었습니다. 신은 진실로 신이 올린 상소가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모으며 백성들에게는 보탬이 없고 저에게는 해로움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이 일찍이 선유(先儒) 정자(程子)의 말을 읽었는데 “하급 관원도 진실로 만물 사랑하는 데 마음을 두면 사람들에게 대해서 반드시 구제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¹³¹⁷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신은 외람되어 미천한 신분인데 일찍이 이름 있는 관직 한 자리를 차지하여 은혜를 품고서 스스로를 돌아보며 항상 진실로 백성들을 이롭게 하려는 생각을 지니면서 머리털과 피부조차 아끼려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근래에 영영우는 어린아이가 가어서 우물에 들어가는데 하늘이 경계하여 꾸짖어서 임금이 놀라 두려워하는 것을 보니 측은한 마음이 지극한 정에서 일어난 것이지 감히 일어난 마음이 향당에서 영예(榮譽)를 요구하려는 뜻이 아닙니다.

어리석고 비루함을 헤아리지 못하고 분수에 넘치게 말을 하였으나 삼가 진하게서 미천한 나무꾼¹³¹⁸으로 여겨 사람 때문에 말을 내버리지 마시고¹³¹⁹ 마음을 수양하는 공부에서 구하여 백성을 기르고 병사를 기르는 효과에 나타내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경계하고 살펴서 종류에 따라 점점 확대하면¹³²⁰ 정성스럽고 밝은 마음은 위에서 순일(純一)해질 것이고 만백성은 아래에서 즐거워할 것이니 하늘에 넘치는 재앙과 적지(赤地)¹³²¹의 재앙을 요

1317 하급……것이다 : 위 글은 《근사록(近思錄)》〈정사(政事)〉과〈소학(小學)〉〈가언(嘉言)〉에 나오는 말이다.

1318 나무꾼 : 원문의 ‘추요(芻蕘)’는 나무꾼처럼 식견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시경》〈판장(板章)〉에 “선민의 말이 있으니, 나무하는 무식한 자에게도 물어보라 하였다.[先民有言, 詢于芻蕘.]”라고 한 말에서 유래하였다.

1319 사람……마시고 : 《논어》〈위령공(衛靈公)〉에 “군자는 말만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높이 평가하지 않고, 그 사람이 형편없다고 해서 그 사람의 좋은 말까지 버리지는 않는다.[君子不以言譽人, 不以人廢言.]”라고 한 공자의 말이 나온다.

1320 종류에 따라 점점 확대하면 : 원문의 ‘촉류점장(觸類漸長)’은 어떤 한 가지 일의 원칙을 좇아 같은 부류의 일로 확대시켜 나아가는 일을 이르는 말로, 《주역》〈계사전 상(繫辭傳上)〉의 “이끌어 퍼며 유에 따라 확장하면 천하의 능사가 다할 것이니, 도를 드러내고 덕행을 신묘하게 한다.[引而伸之, 觸類而長之, 天下之能事畢矣, 顯道, 神德行.]”라는 구절에서 인용한 말이다.

1321 적지(赤地) : 흉년이 들어서 아무 것도 거둘 것이 없는 땅을 말한다. 《한비자(韓非子)》〈십과(十過)〉에 “진(晉)나라가 큰 가뭄이 들어서 적지(赤地)가 된 지 3년이 된다.[晉國大旱 赤地

(堯)·탕(湯) 같은 지금의 태평성대 시절에 걱정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삼가 성상께서 살피주시기를 바랍니다.

三年¹⁾”라고 하였다.

남포집

제9권

서
책

남포집 제9권

서(書)

우산¹³²²에게 올린 질의서

[이때에 우산 안방준이 <우산답문>이라는 글을 지었는데, 그 의론이 편벽되었다.

그러므로 선생이 변론을 지어 질의하신 것이다.]

上山山質疑書【時安牛山邦俊作牛山答問書，其論偏僻，故先生作辨以質疑】

삼가 <우산답문(牛山答問)>이라는 글을 살펴보니, ‘우리 조선 수백 년 동안에 명현(名賢)이 이어져 나왔으나, 그 진유(眞儒)를 논해보자면 겨우 몇 사람뿐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삼가 생각건대, 우리 동방은 단군(檀君)과 기자(箕子) 이후로 고려(高麗) 말까지 수백 년 동안 문장(文章)과 절의(節義)로 이름난 자들이 많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사도(斯道)의 큰 책임을 맡아 선현을 잇고 후학을 인도하여 특히 도학(道學)의 으뜸이 되는 자에 이르러서는 오직 정 오천(鄭烏川)¹³²³만을 일컬을 수 있을 뿐이라고 여깁니다. 우리 조선에 와서는 여러 현인(賢人)이 성대하게 일어나 사도를 제창하여 밝혔으니, 동쪽 땅을 개벽한 뒤로 이전에는 들어보지 못한 바입니다. 대개 그 걸출하게 매우 뛰어나고 밝고 밝아 일컬을 만한 통기(統紀)를 들

1322 우산(牛山) : 안방준(安邦俊, 1573~1654)으로, 우산은 그의 호이다. 본관은 죽산(竹山), 자는 사언(士彦), 또 다른 호는 은봉(隱峰)이다. 성혼(成渾)을 사사(師事)하였다. 임진왜란·정묘호란·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일으켜 싸웠다. 사헌부 지평, 장령을 거쳐 공조 참의를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은봉전서(隱峯全書)》·《항의신편(抗義新編)》·《호남의록(湖南義錄)》·《혼정편록(混定編錄)》·《기묘유적(己卯遺蹟)》 등이 있다.

1323 정 오천(鄭烏川) : 정몽주(鄭夢周, 1337~1392)이다. 오천은 연일(延日)의 옛 이름으로, 정몽주의 본관이므로 이른 말이다. 자는 달가(達可), 호는 포은(圃隱),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공민왕 때 문과에 급제하여 예문관 대제학(藝文館大提學)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포은집(圃隱集)》이 있다. 목은(牧隱) 이색(李穡), 야은(冶隱) 길재(吉再)와 함께 삼은(三隱)으로 일컬어진다.

어 논해보자면, 오천의 학문은 야은(冶隱)¹³²⁴에게 전해졌고, 야은이 재차 전하여 일두(一蠹)¹³²⁵와 한훤당(寒暄堂)¹³²⁶에게 전해졌고, 한훤당이 정암(靜菴)¹³²⁷에게 전하였으며, 그 뒤에 회재(晦齋)¹³²⁸와 퇴계(退溪)¹³²⁹가 흥기하였으며, 율곡(栗谷)¹³³⁰ 또한 그 전함을 이을 수 있었습니다. 오직 퇴계 선생만이 회암(晦庵)¹³³¹의 학문을 산일된 책과 끊어진 글 속에서 얻어 체(體)와 용(用)을 통틀어 들고 내면과 외면을 모두 수양하는 것으로 사도의 표준을 삼았으며, 율곡이 그 통서를 이었습니다. 지금에 와서도 사인(斯人)들이 왕도(王道)를 귀하게 여기고 패도(霸道)를 천하게 여기며, 이단(異端)을 배척하고 오도(吾道)를 부지할 줄 알게 한 것은 어찌 퇴계와 율곡 두 선생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전후로 도통(道統)을 서로 전한 것이 이처럼 성대하

1324 야은(冶隱) : 길재(吉再, 1353~1419)로, 야은은 그의 호이다. 본관은 해평(海平), 자는 재보(再父)이다. 이색, 정몽주의 문인이다. 1386년(우왕12) 문과에 급제하여 청주목 사록(淸州牧司錄), 문하 주서(門下注書) 등을 역임하였다. 1390년(공양왕2)에 고려가 망할 것을 예측하고 벼슬을 버리고 선산(善山)의 금오산(金烏山) 아래에 은거하였다. 조선이 개국한 뒤인 1400년(정종2)에 태상 박사(太常博士)에 임명되었으나, 두 왕조를 섬길 수 없다는 사직소를 올리고 선산으로 돌아갔다. 저서로는 《야은집(冶隱集)》이 있다.

1325 일두(一蠹) : 정여창(鄭汝昌, 1450~1504)으로, 일두는 그의 호이다. 본관은 하동(河東), 자는 백옥(伯岳), 시호는 문헌(文獻)이다. 점필재(沾畢齋) 김종직(金宗直)의 문인이다. 저서로는 《일두집(一蠹集)》이 있다.

1326 한훤당(寒暄堂) : 김굉필(金宏弼, 1454~1504)로, 한훤당은 그의 호이다. 본관은 서흥(瑞興), 자는 대유(大猶), 시호는 문경(文敬)이다. 유일(遺逸)로 천거되어 벼슬이 형조 좌랑에 이르렀다. 김종직의 문하에 들어가 《소학(小學)》을 배운 계기로 평생 《소학》을 읽으며 스스로 소학동자(小學童子)라 칭한 인물이다. 저서로는 《한훤당집(寒暄堂集)》, 《경현록(景賢錄)》 등이 있다.

1327 정암(靜菴) : 조광조(趙光祖, 1482~1519)로, 정암은 그의 호이다. 본관은 한양(漢陽), 자는 효직(孝直), 시호는 문정(文正)이다. 한훤당 김굉필에게 수학하였다. 부제학, 대사헌 등을 역임하였다. 사람과의 영수로 중종의 신임이 두터웠으나,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하다가 훈구파인 홍경주(洪景舟), 남근(南袞) 등의 무함을 받아 기묘사화(己卯士禍)에 능주(綾州)로 유배되었다가 사사(賜死)되었다. 선조 때 신원(伸冤)되어 영의정에 추증되고 문묘(文廟)에 배향되었다.

1328 회재(晦齋) : 이언적(李彦迪, 1491~1553)으로, 회재는 그의 호이다. 본관은 여주(驪州), 자는 복고(復古)이다. 1514년(중종9) 문과에 급제한 뒤로 이조 판서·의정부 좌찬성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회재집(晦齋集)》 등이 있다.

1329 퇴계(退溪) : 이황(李滉, 1501~1570)을 말한다.

1330 율곡(栗谷) : 이이(李珣, 1536~1584)를 말한다.

1331 회암(晦庵) : 주희(朱熹)이다.

니, 그렇다면 모두 일반적으로 현자의 무리라고 이를 수 있으니, 참으로 도학을 터득한 선비가 아니겠습니까. 이미 어질다고 하였다면 반드시 이는 선비인 것이니, 어찌 어질지 못한 선비가 있겠으며, 또한 어찌 선비가 아닌데 어진 자가 있겠습니까. 만일 ‘현유(賢儒)’라고 함께 일컬을 수 있다고 하면서 그 기품(氣稟)의 고하(高下)와 행실의 천심(淺深)에 있어 혹 우열(優劣)이 있다고 한다면 괜찮지만, 명확하게 현자(賢者)와 유자(儒者)로 따로 명목(名目)을 세워 두 가지로 여긴다면 알지 못하겠으나, 어떠합니까?

학문과 절의를 가지고 명현(名賢)과 진유(眞儒)를 분별하는 대목¹³³²에 이르러서는 더욱 의혹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노론(魯論)》 20편¹³³³과 《추론(鄒論)》 7편¹³³⁴ 속의 말은 바로 공자와 맹자가 도를 전수한 종법(宗法)이요, 《중용(中庸)》과 《대학(大學)》 두 책은 바로 증자(曾子)와 자사(子思)가 도를 밝힌 지결(旨訣)인데, 절의를 가지고 학자가 공력을 쓸 급선무로 삼은 것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고, 송(宋) 나라 선유(先儒)들이 공자와 맹자가 미처 발명하여 전하지 못한 것을 발명한 것이 많게는 천 마디 만 마디에 이르는데, 절의를 가지고 학문하는 데 있어 공력을 쓸 요점으로 삼은 내용이 있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만일 절의가 있는 자를 진유라고 하면서 학문은 귀하게 여길 것이 못 된다고 한다면 자사자(子思子)¹³³⁵가 이른바 ‘나라에 도가 있을 때에는 그 말이 충분히 흥기시킬 수 있고, 나

1332 학문과……대목 : <우산답문(牛山答問)>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인다. 명현과 진유가 차이가 있느냐는 객의 질문에 안방준이 그렇다고 대답을 하자, 객이 어떠하여야 명현이라 이를 수 있으며 어떠하여야 진유라고 이를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안방준이 “학문은 넉넉한데 절의가 부족한 사람도 있으며, 학문은 부족한데 절의가 유여한 자가 있다. 학문이 넉넉하고 절의가 부족한 자보다는 학문은 부족하더라도 절의가 넉넉한 자가 낫다. 명현과 진유의 차이는 학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절의에 있을 뿐이다.[有學問有餘而節義不足者, 有學問不足而節義有餘者. 與其學問有餘而節義不足, 不若學問不足而節義有餘者. 名賢眞儒之異, 不在於學問, 而在於節義而已.]”라고 한 것을 가리킨다.

1333 《노론(魯論)》 20편 : 《논어》를 가리킨다. 《논어》는 한(漢) 나라 이후로 공자의 옛집에서 나온 고론(古論), 노(魯)나라에 전해진 노론(魯論), 제(齊)나라에 전해진 제론(齊論) 셋으로 나누어 전해졌는데, 현재 전해오는 《논어》가 바로 노론이다.

1334 《추론(鄒論)》 7편 : 《맹자》를 가리킨다.

1335 자사자(子思子) : 자사(子思)에 대한 존칭으로, 자사는 공자의 손자인 공급(孔伋)의 자(字)이다. 《중용(中庸)》의 저자로 알려져 있다.

라에 도가 없을 때에는 그 침묵이 충분히 그 몸을 용납할 수 있다. 이미 밝고 또 밝아 그 몸을 보전한다’¹³³⁶는 군자는 모두 진유가 될 수 없고, 강하고 굳세어 모서리가 드러나고 뿔이 두드러지듯이 하여 한 가지 선(善)으로 이름을 이루어 시퍼런 칼날을 무릅쓰면서 돌아보지 않는 자만이 유독 진유가 된다는 것입니까. 퇴계선생이 정암의 행장을 지으면서, ‘우리 동쪽 나라의 선정(先正) 중에는 도학에 대하여 비록 문왕을 기다리지 않고도 흥기한 자가 있다. 그러나 그 귀결은 끝내 절의와 장구(章句)와 문사(文辭)의 사이에 있었으니, 위기(爲己)의 학문¹³³⁷만을 오로지 일삼아 다만 참으로 실천하는 것만을 학문으로 삼은 자를 찾아본다면, 오직 한훤당만이 그러하였다. 공은 험난함을 무릅쓰고 그를 스승으로 섬겼다.’¹³³⁸라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우리 유학의 대중(大中)하고 지정(至正)한 학문은 결코 자질구레한 절의나 장구와 문사를 참으로 알고 실제로 실천하는 공효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릇 이른바 학문이란 어떠한 일입니까. 율곡이 말하기를, ‘이른바 학문이란 평범하지 않은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다. 이는 다만 아버지가 되어서는 자애로워야 하며 자식이 되어서는 효도하여야 하며 신하가 되어서는 충성하여야 하며 부부간에는 분별이 있어야 하며 형제간에는 우애하여야 하며 나이가 적은 자는 어른을 공경해야 하며 붕우 간에는 신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니, 다 일상의 생활하는 모든 사이에 일에 따라 각기 그 마땅함을 얻는 것일 뿐이다.’¹³³⁹라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이른바 학문이란 학문을 하는 것의 하나의 큰 총체적인 명칭인 것입니다. 어찌 학문을 도외시하고서 진유가

1336 나라에……보전한다 : 《중용장구(中庸章句)》 제27장에 나온 말이다. 참고로, 원문의 ‘既明且哲, 以保其身.’은 《시경(詩經)》을 인용한 말이다.

1337 위기(爲己)의 학문 : 오직 자신을 위한 학문으로,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공부하는 ‘위인(爲人)의 학문’과 상대되는 말이다. 《논어》〈헌문(憲問)〉에 “옛날의 학자들은 자신을 위한 학문을 하였는데, 지금의 학자들은 남에게 보여 주기 위한 학문을 한다.[古之學者爲己, 今之學者爲人.]”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1338 우리……섬겼다 : 《靜菴集 附錄 卷6 行狀》, 《退溪集 卷48 行狀 靜庵趙先生行狀》에 보인다. 참고로, 비록 문왕을 기다리지 않고도 흥기 할 자가 있다는 것은 《맹자》〈진심 상(盡心上)〉에 “문왕을 기다린 뒤에 흥기하는 자는 일반 백성이니, 호결의 선비로 말하면 비록 문왕 같은 성군(聖君)이 없더라도 흥기한다.[待文王而後興者, 凡民也. 若夫豪傑之士, 雖無文王猶興.]”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1339 이른바……뿐이다 : 율곡 이이가 지은 《격몽요결(擊蒙要訣)》〈서문(序文)〉에 나오는 말이다.

되는 자가 있겠습니까. 성현이 도를 전수한 법을 헤아려보고 우리나라 선정들의 가르침을 상고해 보건대, 이른바 학문과 절의를 가지고 명현과 진유가 다르다고 분변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겠으나, 어떠합니까?

답문(答問)한 글에 또 말하기를, ‘그 학문을 논해보자면 양촌(陽村)이 포은(圃隱)보다 훨씬 뛰어나다.’라고 하였는데, 저는 양촌의 학문이 포은보다 뛰어나다는 것이 어떠한 학문인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귀와 눈이 보고 기억하는 것을 가지고 살펴보면, 양촌의 학문은 언어(言語)나 문사(文辭)의 사이에 불과할 뿐입니다. 일찍이 그의 문집을 살펴보니, 평생 지은 것은 대부분 불경(佛經)의 서(序), 발(跋)이나 불가(佛家)를 받드는 내용의 상소문뿐이었습니다. 《입학도설(入學圖說)》¹³⁴⁰이라는 한 책은 조금 발명한 것이 있기는 하나, 또한 퇴도(退陶)의 억지로 끼워 맞추고 끝어다 붙였다는 의론¹³⁴¹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른바 포은보다 뛰어나다고 한 것은 알지 못하겠으나, 어떠한 것입니까?

답문한 글에 또 말하기를, ‘도를 행하는 자를 진유라고 하고 도를 행하지 않은 자를 명현이라고 한다.’라고 하였으니, 그 뜻은 대개 도를 행하는 것을 절의라 여기고 절의가 있는 자를 진유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만일 도를 행하는 것을 절의라고 한다면 삼대(三代) 이전에 이윤(伊尹)과 부열(傅說), 주공(周公)과 소공(召公)처럼 도를 행한 성현과 및 삼대 이후의 공자

1340 《입학도설(入學圖說)》: 양촌 권근이 초학자들을 위하여 저술한 성리학 입문서이다. 26종의 도설이 실려 있는 전집(前集) 단간본과 14종의 도설을 첨가한 전후집(前後集) 합간본이 있다.

1341 퇴도(退陶)의……의론: 퇴도는 이황을 말한다. 《퇴계집(退溪集)》 권2의 <한거차조사경구경서김순거권경수제인창수운(閑居次趙士敬具景瑞金舜舉權景受諸人唱酬韻)> 제11수에 “양촌의 입학도설 참으로 기이하여, 천인합일의 때를 형상하였네. 다만 두려운 것은 억지로 끝어당겨 폐낸 것 많으니, 나의 시 정정할 참된 안목 없음을 한하네. [陽村圖說儘爲奇, 狀到天人合一時. 祇恐猶多強牽綴, 恨無眞眼訂吾詩.]”라고 하였는데, 그 주에 “《입학도설》은 도리를 설명한 것이 모두 세밀하다. 다만 ‘심(心)’이라는 글자만으로 천인합일의 이치를 형상하였으니 공교롭기는 공교로우나, 억지로 끼워 맞추고 끝어다 붙인 병통을 면치 못할 듯하다. [入學圖說, 說道理儘細密. 但以心字, 狀天人合一之理. 巧則巧矣, 恐未免杜撰牽合之病.]”라고 한 내용을 가리킨다. 참고로, 원문의 ‘杜撰’은 확실한 근거 없이 마음대로 기술하거나 자신의 논리를 위해 끝어다 붙이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 송(宋)나라 때 두목(杜默)이 시를 짓는데 거의 율(律)에 맞지 않았으므로 이른 말이라고도 하고, 도가(道家)의 5천여 서적 중 《도덕경(道德經)》 2권을 빼고 나면 모두 두광정(杜光庭)이 지은 것으로 허탄(虛誕)한 소리가 많았으므로 이른 말이라고도 한다.

와 맹자, 정자(程子)와 주자(朱子)처럼 도를 행하고자 항상 황급하고 연연해했던 성현들을 모두 절의의 선비라고 지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자사자가 말씀하기를, ‘천하와 국가를 균평하게 다스릴 수 있으며 흰 칼날을 밝을 수 있으며 작록(爵祿)을 사양할 수 있으나 중용(中庸)은 잘할 수 없다.’¹³⁴²라고 하였으니, 이를 가지고 살펴보면, 유가(儒家)에서 대단히 공력을 들이는 곳은 전적으로 자질구레한 사위(事爲)의 말단에 있지는 않을 듯합니다.

길재 선생(吉再先生)을 양웅(揚雄)¹³⁴³의 무리라고 한 대목¹³⁴⁴에 이르러서는, 이는 또한 명교(名敎)에 관계된 것이 매우 크고 중요한 부분이라, 처음 학문하는 후생(後生)이 더욱 그 사이에 입을 놀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정의 일을 찬미한 대목¹³⁴⁵에 이르러서는 다만 말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 호원(胡元)¹³⁴⁶이 오랑캐로서 중화(中華)를 변화시켰으니, 패역함이 이보다 큰 것이 없었습니다. 대송(大宋)의 절의를 지킨 신하인 사방득(謝枋得)¹³⁴⁷이 재상에게 상서(上書)하기를 ‘위대한 원나라가 세상을 다

1342 천하와……없다 : 《중용장구》 제9장에 나오는 말이다.

1343 양웅(揚雄) : 한 성제(漢成帝) 때의 학자로 덕망이 높았는데, 후에 왕망(王莽)이 왕위를 찬탈하여 세운 신(新)의 대부가 되었다. 주희(朱熹)는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에서 “왕망의 대부 양웅이 죽었다.[莽大夫揚雄死]”라고 썼다. 양웅이 한나라의 신하이기도 하였으나 왕망의 대부라고 칭하고, 이름을 쓰고, ‘졸하였대卒’가 아닌 ‘죽었다[死]’라고 쓴 것은 절의를 저버린 그에 대해 폄하하는 의미를 담은 것이다. 《資治通鑑綱目 卷8》

1344 길재……대목 : <우산답문(牛山答問)>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인다. 객이 안방준에게 “주인이 택당에게 준 편지에 또 야은 길재를 ‘양웅의 무리’라고 하였다고 하는데, 그러한 일이 있습니까? [主人與澤堂書, 又以治隱吉再, 爲楊雄之徒云, 然耶?]”라고 하자, 그렇게 한 사실이 있다고 대답하고는 야은의 계사의 내용 등을 들면서 그렇게 말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였다.

1345 우리……대목 : 정암 조광조, 율곡 이이, 중봉(重峯) 조헌(趙憲, 1544~1592) 등을 열거하면서 이들은 도를 행하지 못하였더라도 도를 행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하면서 찬미하고는 그 말미에 야은 길재를 양웅의 무리라고 비판하였는데, 이 대목을 가리키는 듯하다.

1346 호원(胡元) : 몽고(蒙古)가 세운 원(元)나라를 폄하하여 일컫는 말이다.

1347 사방득(謝枋得) : 원문은 ‘榭枋得’인데, 《송사(宋史)》 권425 <사방득전(謝枋得傳)>에 근거하여 인명을 바로잡아 ‘榭’를 ‘謝’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사방득은 자는 군직(君直), 호는 첩산(疊山)이다. 1275년 그가 신주(信州)를 맡았을 때에 원나라 군대가 침공하여 성이 함락을 당하자, 당석산(唐石山)에 은둔하여 제자를 가르치며 살았다. 송(宋)나라가 망한 뒤, 원나라 조정에서 누차 출사를 권하였으나 절의를 지켜 사양하고 나아가지 않았다. 원나라 지방관이 억지로 호송하여 복경에 억류해 두었으나, 굴복하지 않고 단식하다가 죽었다. 저서로는 《첩산집(疊山集)》이 있다. 《宋史 卷425 謝枋得列傳》

스리자 백성과 만물이 다시 새로 거듭났습니다. 송나라의 도망한 신하인 저는 다만 아직도 죽지 못하고 있습니다.’¹³⁴⁸라고 하면서 심지어는 요(堯) 임금과 순(舜) 임금, 탕왕(湯王)과 무왕(武王)을 원나라의 조상이라고 일컫고 소보(巢父)와 허유(許由), 백이(伯夷)와 숙제(叔齊)로 스스로를 비유하기까지 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위대한 원나라의 인자함은 하늘과 같습니다.’¹³⁴⁹라고 하고 또 초야(草野)에 사는 선비의 직함을 궁궐에 통할 수 없다¹³⁵⁰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의 말이 이와 같았으나, 그 두 성(姓)씨의 조정을 섬기지 않으려는 뜻이 해와 달처럼 환하여 변치 않았으니, 어찌 차마 이를 양웅의 무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후세 사람들의 공론이 첩산(疊山)을 문산(文山)¹³⁵¹과 나란히 하여 아름답게 여겼고, 사씨(史氏)는 그의 죽음을 특별하게 적기를 마치 주부자(朱夫子)가 진(晉)나라 징사(徵

1348 위대한……있습니다 : 《첩산집》 권2 <상정설루어사서(上程雪樓御史書)와 <여참정위용제서(與參政魏容齋書)에 나오는 말이다. 다만 《첩산집》에는 ‘大元制世, 民物一新. 宋室孤臣, 只欠一死’라고 되어 있어 원문에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1349 위대한……같습니다 : 《첩산집》 권2 <여참정위용제서(與參政魏容齋書)에 나오는 말이다. 다만 《첩산집》에는 ‘皇帝慈仁如天’이라고 되어 있다.

1350 초야(草野)에……없다 : 《첩산집》 권2 <상정설루어사서>에 “선한 이를 드러내는 것은 하늘을 따르는 것이요, 어진 이를 천거함은 나라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집사께서 임금을 위하여도 모하신 것은 충성스럽기는 합니다만, 연경으로부터 오천리 떨어진 상요에 이르렀으니, 집사께서 선비를 천거하는 때에 아무게 어머니의 상이 있을 줄을 어찌 아셨겠습니까. 최질의 복장은 공문에 들일 수 없고, 초사의 직함은 궁궐에 통할 수 없습니다.[揚善者, 順天. 薦賢者, 報國. 執事爲君謀, 亦忠矣. 自燕京至上饒五千里, 當執事薦士時, 豈知有某母之喪. 衰絰之服, 不可入公門. 草土之御, 不可徹殿陛.]”라고 하였다.

1351 문산(文山) : 문천상(文天祥, 1236~1282)으로, 문산은 그의 호이다. 자는 송서(宋瑞)·이선(履善)이다. 이종(理宗)과 익왕(益王)을 섬겼고, 임안이 함락된 뒤에도 송나라 단종(端宗)을 받들고 근왕군을 일으켜 원군(元軍)과 싸웠으며, 위왕(衛王) 때 조양(潮陽)에서 패전하여 원군의 포로가 되어 연경에 3년 동안 억류되었다. 원나라의 온갖 회유에도 굴하지 않고 <정기가(正氣歌)>를 지어 자신의 충절을 나타내고 죽었다. 《宋史》卷418 文天祥列傳》

士)의 죽음을 적었던 법¹³⁵²과 같이 하였던 것입니다. 야은의 계사(啟辭)¹³⁵³도 첩산의 상서와 비슷한데, 첩산은 송나라의 절의를 지킨 인물이고 야은은 우리나라의 양웅이라는 것입니다. 신조(辛朝)에 처음 벼슬한 일로 말하자면, 이는 본래 자운(子雲)¹³⁵⁴의 일과는 매우 다릅니다. 자운은 한(漢)나라의 낭관(郎官)이었는데 도적의 대부(大夫)가 되었으니, 임금을 배반하고 원수를 섬긴 죄가 혹 극에 달한 것입니다. 그러나 야은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적돈(賊屯)¹³⁵⁵이 죽임을 당한 것은 홍무(洪武) 신해년(1371, 공민왕20)이고, 위우(僞耦)¹³⁵⁶가 선 것은 홍무 을묘년(1375)입니다. 그 사이가 4, 5년의 오랜 시간인데 공민왕(恭愍王)은 우(禡)를 자신의 아들로 대우하였고 조정의 신하들은 우를 왕의 아들로 섬겼습니다. 공민왕이 시해를 당하자, 목은이나

1352 주부자(朱夫子)가…법 : 주부자는 주희를 말한다. 주희가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에 도잠(陶潛)의 죽음을 두고 “진나라의 정사 도잠이 졸하다.[晉徵士陶潛卒.]”라고 쓴 것을 가리킨다. 도잠은 본래 동진(東晉) 사람으로, 동진이 망한 뒤인 송 문제(宋文帝) 원가(元嘉) 4년, 북위 태무제(北魏太武帝) 시광(始光) 4년 11월에 죽었으므로, 통상적으로는 송이나 북위를 언급해야 하나, ‘진나라의 정사’라고 써서 그의 절의를 찬명(闡明)하였다. 도잠은 저작랑(著作郎)으로 부름을 받고도 나아가지 않았으며, 글을 지을 때 반드시 연월(年月)을 기록했는데, 남조(南朝)의 송이 건국된 이후로는 간지만을 씌으로써 자신이 동진 사람임을 항상 드러내었다고 한다. 《南史 卷75 陶潛列傳》 참고로, 정사란 학행(學行)이 있는 선비로서 조정의 부름을 받고도 끝내 나가지 않고 은거(隱居)한 사람을 의미한다.

1353 야은의 계사(啟辭) : 야은이 태종(太宗)에게 상서하기를 “저는 신씨의 조정에서 급제하여 처음 벼슬하였습니다. 왕씨가 복위하자, 즉시 고향으로 돌아가 그대로 몸을 마치려고 하였습니다.[再於辛朝，登第筮仕。及王氏復位，卽還于鄉，若將終身。]”라고 하고, 정종(定宗)에게 상서하기를 “신은 본래 한미한 탓에, 신씨의 조정에서 벼슬하여 문하주서 벼슬에 이르렀습니다. 신이 들으니 여자에게는 두 자아버가 없고 신하에게는 두 군주가 없다고 합니다. 바라건대,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하시어 신하는 두 성을 섬기지 않는 뜻을 이루고, 효도하며 노모를 봉양하면서 여생을 마칠 수 있게 해 주십시오.[臣本寒微，仕於辛氏之朝，至門下注書。臣聞女無二夫，臣無二君。乞放歸田里，以遂臣不事二姓之志，孝養老母，以終餘年。]”라고 한 것을 가리킨다. 이 내용은 <우산답문(牛山答問)에 실려 있다. 《治隱先生言行拾遺 卷中 附錄 輿地勝覽》

1354 자운(子雲) : 양웅으로, 자운은 그의 자이다.

1355 적돈(賊屯) : 신돈(辛屯, ?~1371)을 가리킨다. 고려 말기의 승려로, 자는 요공(耀空), 법명은 편조(遍照)이다. 공민왕에게 등용되어 국정을 장악하고, 전제를 개혁하는 등의 정책을 폈으나, 후에 왕을 시해하려다 발각되어 처형되었다.

1356 위우(僞耦) : 고려 제32대 임금인 우왕(禡王)을 폄하한 호칭이다. 이성계가 우왕은 공민왕의 아들이 아니라 신돈의 아들이라 하여 폐가립진(廢假立眞)을 주장하였으며, 우왕은 아들 창왕과 함께 폐위되어 죽음을 당하였다.

포은처럼 어진 조정의 신하들도 한 마디도 서로 다투는 말없이 우를 그 뒤를 잇는 임금으로 삼아 14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때를 당하여 야은은 초야의 선비로서 처음 벼슬하였으니, 어찌 그 우가 공민왕의 아들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서 섬기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와 창(昌) 부자의 형적(形迹)이 이미 드러난 뒤에야 황제가 하유(下諭)하기를, ‘다른 성으로 세워야 한다.’라고 하였고, 나라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진실로 왕실의 자손이 아니다.’라고 하였으며, 목은이나 포은처럼 어진 분들도 한 마디도 서로 따지는 말없이 그를 폐위하였으니, 야은이 ‘신조(辛朝)’라고 일컬은 것이 어찌 야은의 사사로운 말이었겠습니까. 야은의 출처가 이처럼 환히 드러났으니, 그 절의와 충정(忠貞)의 뜻은 백대(百代) 뒤라도 가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저처럼 전조(前朝)의 일을 비난 하였던 양촌도 길재 선생의 절조에 이르러서는 그 시문집(詩文集)에 서문을 지어 찬미하고¹³⁵⁷ 태종(太宗)에게 상서(上書)하여 정려문을 세워 주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퇴계선생은 그 정려문에 시를 적어 ‘나라를 부지함은 이미 가망 없었으나, 절개를 세움이어 길이 단단하고 완전하다.[扶持已無及, 植立永堅完.]’¹³⁵⁸라는 글귀를 남겼고, 월정(月汀) 윤공(尹公)¹³⁵⁹은 경상도 관찰사로 있으면서 글을 지어 그를 제사하기를 ‘오직 공이 우뚝 서서 홀로 충심을 간직하셨으니, 천지에 묻더라도 어찌 두 마음 있었으랴.[特立維公, 獨抱精忠. 質之天地, 豈敢或二.]’¹³⁶⁰라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두 노선생(老先生)을 또한 양옹의 무리를 부지하였다고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무릇 이 다섯 가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밤낮으로 외고 생각해 보았으나 끝내 그 의혹스러운 점을 풀 수 없었습니다. 이는 처음 학문하는 사람이

1357 양촌도……찬미하고 : 《야은집(冶隱集) 야은선생언행습유(冶隱先生言行拾遺)》 권하(卷下) <찬영제시(讚詠諸詩)에 실린 병서(并序)에 보인다.

1358 나라를……완전하다 : 《퇴계집》 권1 <과길선생려(過吉先生閭)에 보인다.

1359 월정(月汀) 윤공(尹公) : 윤근수(尹根壽, 1537~1616)이다.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해평(海平), 자는 자고(子固), 호는 월정(月汀),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1558년(명종13) 문과에 급제한 후 경기도 관찰사·황해도 관찰사·형조 판서·대사헌·이조 판서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로 《월정집(月汀集)》·《월정만필(月汀漫筆)》 등이 있다.

1360 오직……있었으랴 : 《월정집》 권7 <제야은길선생문(祭冶隱吉先生文)에 보인다.

라, 지려(志慮)가 혼매하고 지식이 천박하여 의리(義理)의 사이에 환히 깨닫지 못한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에 감히 침묵하고 있지를 못하고 편지에 절하고서 진품(陳稟)하노니, 이는 저의 견해를 유달리 고집하여 선진(先進)과 선정의 말에 이견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부디 하나하나 밝히고 차근차근 가르쳐서 이 우물 안 개구리의 의혹을 넓혀주신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고명(高明)하신 그대를 범하여 외람되이 번독하게 하는 것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마땅히 죄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진년(1652, 효종3) 동지. 근배(謹拜).

맹교를 대신하여 한퇴지의 ‘명’이라는 글자에 관한 송서¹³⁶¹에 답한 편지

代孟郊答退之鳴字序書

저는 아립니다. 대체로 천하의 어떤 물(物)이든 울지 않는 것이 없으니, 위에서 하늘이 울면 천뢰(天雷)가 되고 아래에서 땅이 울면 지진(地震)이 됩니다. 하늘이 우는 것은 만물을 고무시켜 이 세상에 내리는 목적이니, 그 울음이 상서롭습니다. 그러나 선달에 있어서 울면 그 울음이 상서롭지 못합니다. 땅이 우는 것은 그 우는 것이 화평함을 얻지 못한 뒤에야 읍니다. 그러므로 《춘추(春秋)》에도 상서롭지 못한 울림으로 이를 기록하였던 것입니다.¹³⁶² 큰 천치로도 그 우는 것이 울리기를 잘하면 상서롭고 울리기를 잘하지 못하면 재앙이 되는데, 하물며 그보다 못한 것에 있어서이겠습니까.

주(周)나라 때에는 봉황(鳳凰)이 울었으니,¹³⁶³ 그 울음이 상서로웠고, 송(宋)나라 때에는 두견(杜鵑)이 울었으니,¹³⁶⁴ 그 울음이 재앙이 되었으며, 들팽이 상(商)나라에서 울자 중흥하였고¹³⁶⁵ 원거(爰居)가 노(魯)나라에서

1361 한퇴지(韓退之)의……송서(送序) : 한퇴지는 한유(韓愈)이다. 여기에서의 송서는 <송맹동야서(送孟東野序)>를 가리킨다. 《韓昌黎集 卷19》《古文眞寶後集 卷3》

1362 《춘추(春秋)》에도……것입니다 : 《춘추》에는 지진(地震)이 일어난 것을 반드시 기록하였는데, 이는 지진을 큰 재앙으로 보아 상서롭지 못하게 여겼기 때문에 기록한 것인 듯하다.

1363 주(周)나라……울었으니 : 《국어(國語)》<주어 상(周語上)>에 “주나라가 흥성할 무렵 봉황이 기산에서 울었다.[周之興也, 鸞鷟鳴於岐山.]”라고 하였다.

1364 송(宋)나라……울었으니 : 송나라 때 일찍이 낙양(洛陽)의 천진교에서 두견새 울음소리가 들리자, 소용(邵雍)이 몹시 안 좋은 기색으로 말하기를 “2년이 못 가서 남쪽 선비가 재상이 되겠으니, 천하가 이때부터 다사해질 것이다.” 하니, 후자가 그 연유를 묻자, 대답하기를 “천하가 다스러지면 지기(地氣)가 북에서 남으로 가는 것이고, 천하가 혼란해지면 지기가 남에서 북으로 가는 것인데, 지금 남방에 지기가 이르렀기 때문이다.” 하였는데, 과연 뒤에 남쪽 사람인 여혜경(呂惠卿)이 재상이 됨으로부터 천하가 크게 혼란해졌다. 《宋元學案 卷9》

1365 들팽이……중흥하였고 : 고종(高宗)이 상나라의 시조인 성탕(成湯)에게 제사를 지낼 때 팽한마리가 날아와 제기(祭器)인 정(鼎)의 귀에 앉아 울자 사람들은 불가하다고 생각하였다. 당(唐)나라 공영달(孔穎達)은 한(漢)나라 유흠(劉歆)의 말을 빌려, 발이 세 개 있는 정(鼎)은 삼공(三公)의 형상이며, 정(鼎)의 귀[耳]는 막대기를 끼워 정을 들고 가는 것으로, 들새가 날아와 정(鼎)의 귀에 앉은 것은 소인이 삼공의 지위를 차지하여 종묘의 제사를 끊을 것을 상징한다고 하였다. 결국 고종은 덕을 닦으면 화를 면할 수 있다는 조기(祖己)의 말을 듣고 이를 따라 행하여 마침내 중흥을 이루었다. 《書經 高宗彤日 序》《尚書注疏 商書 高宗彤日 孔穎達疏》

울자 참람된 제사를 지냈으니,¹³⁶⁶ 새의 울음이란 진실로 마음이 없는 짐승의 울음일 뿐인데도 그 우는 것이 울리기를 잘하면 길조가 되고 울리기를 잘하지 못하면 괴이한 일이 생기니, 하물며 사람에게 있어서이겠습니까.

금(金)·석(石)·사(絲)·죽(竹)·포(匏)·토(土)·혁(革)·목(木)이 잘 우는 것¹³⁶⁷에 대해서는 되지도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여덟 가지가 이제 삼왕(三帝三王)의 시대에 울리면 예의(禮儀)에 맞는 울음이 되고 진(秦)나라와 한(漢)나라 이후의 시대에 울리면 음일(淫佚)한 울음이 되며, 행단(杏壇)에서 울리면 중화(中和)의 울음이 되고¹³⁶⁸ 자로(子路)에게서 울리면 북쪽 변방의 울음이 됩니다.¹³⁶⁹ 악기(樂器)가 우는 것에 있어서도 그 울음에 울리기를 잘하고 잘하지 못함이 있으니, 하물며 도(道)에 있어서이겠습니까. 그러므로 복희(伏羲)·신농(神農)·황제(黃帝)·요(堯)·순(舜)·우(禹)·탕(湯)·문(文)·무(武)는 도를 가지고 윗 자리에서 울리기를 잘한 자들이고, 고요(皐陶)·기(夔)·후직(后稷)·설

1366 원거(爰居)가……지냈으니 : 원거는 해조(海鳥)의 일종이다. 이 새가 노(魯)나라 동문(東門) 밖에 3일간 앉아 있자 장문중(臧文仲)이 신(神)이라 하여 그 새를 정중히 모셔다가 종묘(宗廟)에서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 순(舜) 임금의 소악(韶樂)을 연주하고 소·양·돼지 고기의 요리로 대접하였지만, 새는 눈이 부시고 근심과 슬픔이 교차하여 고기 한 점도 먹지 못하고 술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한 채 3일 만에 죽고 말았다고 한다. 《莊子 至樂》 이를 두고, 《국어(國語)》〈노어 상(魯語上)〉에는 “해조 원거가 일찍이 노나라 동문 밖에 날아와서 3일 동안을 머무르자, 장문중이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그 새한테 제사를 지내게 하였으니, 그것이 새인 줄을 모르고 신으로 여겼던 것이다.[海鳥爰居止魯東門外三日, 臧文仲使國人祭之, 不知其鳥, 以爲神也.]”라고 하였다.

1367 금(金)……것 : 여덟 가지는 악기를 만드는 재료이다. 금은 종(鐘)과 같은 것이고 석(石)은 편경(編磬), 사(絲)는 현악기(絃樂器), 죽(竹)은 관악기(管樂器), 포(匏)는 생황(笙簧), 토(土)는 질나발(埗), 혁(革)은 북, 목(木)은 목탁 같은 것을 말한다.

1368 행단(杏壇)에서…되되 : 행단은 공자(孔子)가 학문을 강학(講學)하던 곳이다. 《장자(莊子)》〈어부(漁父)〉에 “공자가 치유의 숲 속에서 노닐며, 행단 위에 앉아서 휴식을 취하였는데, 제자들은 글을 읽고 공자는 거문고를 타며 노래를 불렀다.[孔子遊乎緇帷之林, 休坐乎杏壇之上, 弟子讀書, 孔子絃歌鼓琴.]”라고 하였다.

1369 자로(子路)에게서……됩니다 : 자로가 용맹이 지나치고 중화(中和)가 부족한 탓에 비파를 타면 그 소리가 살벌했던 데서 온 말이다. 《논어》〈선진(先進)〉에 공자가 이르기를, “중유의 비파를 어찌하여 나의 문에서 연주하는가.[由之瑟, 奚爲於丘之門.]”라고 하였는데, 그 주(註)에 “《공자가어》에 이르기를, ‘자로(子路)가 비파를 타며 북쪽 변방의 살벌(殺伐)한 소리가 있었다.’ 하였으니, 이는 그 기질이 굳세고 용맹하여 중화에 부족하였으므로 그 소리에 나타남이 이와 같았던 것이다.”라고 하였다.

(契) · 주공(周公) · 소공(召公) · 공자(孔子) · 안자(顔子) · 자사(子思) · 맹자(孟子)는 도를 가지고 아랫자리에서 울리기를 잘한 자들입니다. 퇴지는 하나의 ‘명(鳴)’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줄기를 삼아 성현들의 울음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노담(老聃) · 장주(莊周) · 순경(荀卿) · 양주(楊朱)의 울음을 공자와 맹자의 울음과 뒤섞어서 분별함이 없었으니, 이들은 선택하기는 하였으나 정말하지 못한 울음이 아니겠습니까.¹³⁷⁰

오호라. 진나라는 병혁(兵革)으로 울렸고 한나라는 잡패(雜伯)¹³⁷¹로 울렸고 위진(魏晉) 이하는 음와(淫哇)¹³⁷²로 울렸습니다. 오직 우리 대당(大唐)만이 당우(唐虞)와 삼대(三代)가 윗자리에서 울리고 아랫자리에서 울린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고요 · 기 · 주공 · 소공의 울음을 스스로 기약할 수 없단 말입니까. 원결(元結) · 두보(杜甫) · 이백(李白) 여러 사람이 시로 울렸으니, 그 울린 것이 잘 울렸다고 이를 만한 것은 과연 퇴지가 말한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고요 · 기 · 주공 · 소공의 울음과 비교해 본다면 무엇이 울리기를 잘한 것이고 무엇이 울리기를 잘하지 못한 것이겠습니까.

지금의 때를 당하여 고요 · 기 · 주공 · 소공의 울음으로 아랫자리에서 스스로를 기약하는 자는 퇴지와 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퇴지와 저는 진실로 하늘이 우리에게 준 것과 공자와 맹자가 우리에게 전한 것으로 이 세상에 크게 울리기를 잘하여, 당우와 삼대의 울음을 기대하는 우리 군주의 바람에 부응하는 것은 지금이 그 적당한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울리기를 잘하는 퇴지도 고요 · 기 · 주공 · 소공처럼 사도(斯道)로 크게 울리지는 못하고, 동서로 쫓겨 다니며 아침에는 나물을 먹고 저녁에는 소금을 먹으면서 항상 그 화평하지 못한 데서 오는 울음으로 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1370 이들은……아니겠습니까 : 참고로, 한유(韓愈)의 <원도(原道)>에 “맹자가 죽은 뒤로는 그 진함을 얻지 못하였다. 순자와 양옹은 선택하기는 하였으나 정말하지 못하였다.[軻之死不得其傳焉。荀與揚也，擇焉而不精.]”라고 하였다.

1371 잡패(雜伯) : 왕도(王道)에 패도(霸道)를 뒤섞어서 국가를 다스리는 것을 말한다. 한(漢)나라 선제(宣帝)가 “우리 한나라의 제도는 본래 패도와 왕도를 합친 것이니, 어떻게 덕의 교화에만 완전히 맡겨서 주나라의 정사처럼 하겠는가.[漢家自有制度，本以霸王道雜之，奈何純任德教，用周政乎.]”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漢書 卷9 元帝紀》

1372 음와(淫哇) : <주남(周南)>이나 <소남(召南)>과 같은 순정(純正)한 악성(樂聲)에 대비되는 말이다. 음란하고 부정한 속요(俗謠) 등을 일컫는 말이다.

번에 길을 나선 것도 도를 크게 울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니, 그렇다면 제가 어찌 주(晝) 땅을 나가면서 기뻐하지 않는¹³⁷³ 울림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퇴지도 오히려 스스로 그 집정(執政)의 문에서 머리를 들고 슬피 우는 것을 면치 못하는 처지이니,¹³⁷⁴ 또한 어찌 저의 화평하지 못한 데서 오는 울음을 풀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울리기를 잘하느냐 잘하지 못하느냐는 저에게 달려 있고, 제가 울리기를 잘하게 하느냐 잘하지 못하게 하느냐는 하늘에 달려 있으니, 하늘에 달려 있는 것은 제가 어찌할 수 없다지만 저에게 달려 있는 것은 제가 어찌 애써가며 힘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퇴지는 힘쓰소서. 저는 재배(再拜)합니다.

1373 주(晝)……않는 : 《맹자(孟子)》〈공손추 하(公孫丑下)〉에 “내가 사흘 밤을 유숙한 뒤에 주(晝) 땅을 나갔으나 내 마음에는 오히려 빠르다는 생각이 들었다.[予三宿而後出晝，於予心猶以爲速.]”라고 하였다. 이는 맹자가 제(齊)나라에서 도를 행할 수가 없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제나라를 떠나면서 혹시라도 제나라 왕이 마음을 바꿔 자신을 불러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주(晝) 땅에서 3일 밤을 묵은 다음에야 나간 것인데, 그때까지도 아무런 소식이 없자 맹자가 비로소 홀연히 떠나갔다고 한다. 《孟子 公孫丑下》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은 맹자가 제나라를 떠날 적에 충우(充虞)가 “부자께서는 기쁘지 않은 기색이 계신 듯합니다.[夫子若有不豫色然.]”라고 묻은 것을 인용한 말인 듯하다.

1374 퇴지도……처지이니 : 한퇴지도 등용되기를 구하여야 하는 어려운 처지라는 말이다. 한퇴지는 과거에 급제하고도 벼슬길이 순탄치 못하자, 그의 나이 28세 때인 당 덕종(唐德宗) 정원(貞元) 11년 정원부터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당시 재상인 가담(賈耽)과 노매(盧邁)에게 글을 올려 관직을 요청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

나[두삼]태서의 별지에 답하다

【나두삼이 예에 대해 물었으므로 선생이 답한 것이다.】

答羅【斗三】台瑞別紙【羅斗三問禮 故先生答之】

허침고족(虛簷高足)은 그 뜻이 자세하지 않다. 그러나 다만 문세(文勢)를 가지고 옛말을 참고하여 살펴보면, 고문(古文)에는 모립(帽笠)에 가장자리가 있는 것을 ‘침(簷)’이라고 하였으니, 이는 대개 지붕에 처마가 있는 것과 같기 때문일 것이다. 생각건대 옛날에 관을 만드는 자가 보기에 아름답게 하려고 위에는 허침(虛簷)을 두고 아래에는 고족(高足)을 설치한 듯하다. 그러므로 이것으로 경계한 것일 것이다.

서견침의(舒絹疊衣)¹³⁷⁵는 그 뜻이 자세하지 않다. 그러나 다만 문세(文勢)를 가지고 상고해 보건대, 서견(舒絹)이란 명주옷의 안팎을 평평하게 펴서 주름이 지거나 접히지 않게 한다는 말과 같고, 침의(疊衣)란 여러 벌의 옷을 펴 늘어 놓은 다음 포개어서 대략 베개 모양과 비슷하게 한다는 말과 같을 것이다. 이러한 부분은 활간(活看)¹³⁷⁶하여야 하고, 모름지기 너무 심오하게 보아 따로 의혹을 품어서는 안 될 듯하다.

‘벽령각참부관일촌(辟領各攬負版一寸)’이라고 한 것은 참(攬)은 옥편(玉篇)에 ‘초(楚)와 어(御)의 반절음(反切音)이요, 꿩고 바느질한다는 뜻이다.’라고 되어 있다. 대개 후활중(後闊中 뒷고대)은 8치이고 좌우의 적(適)¹³⁷⁷이 각기 4치이니 합하여 1자 6치이고, 부판(負版)¹³⁷⁸은 넓이가 1자 8

1375 서견침의(舒絹疊衣) : 소렴(小斂)의 절차 가운데 일부이다. 《가례(家禮)》〈상례(喪禮)〉에 “시신을 소렴상 위로 옮겨 먼저 베개를 치우고, 비단으로 만든 겹옷을 펴서 머리를 권다.【遷于小斂牀上，先去枕，而舒絹疊衣，以藉其首。】”라고 하였다. 이 해석에는 크게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뉜다. 하나는, ‘명주와 겹옷을 펴서’이고, 또 하나는, ‘명주를 펴고 옷을 겹쳐서’이다.

1376 활간(活看) : 글을 볼 때에 어떤 글자나 글귀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의 뜻을 널리 보아 본의를 파악하는 것을 의미한다.

1377 적(適) : 상복의 옷깃 양쪽의 어깨 부위에 붙어 있는 너비가 4촌인 네모진 베 조각을 말한다. 벽령(辟領)이라고도 한다.

1378 부판(負版) : 상복(喪服)의 등쪽에 붙어 있는 너비가 1척 8촌인 네모진 베 조각을 말한다. 부(負)라고도 한다. 《의례(儀禮)》의 주(注)에 “효자(孝子)의 복(服)은 앞에는 쇠(衰)가 있고 뒤에는 부판이 있다.” 하였고, 소(疏)에는 “그 슬픔을 등에 짊어진 것이다.”라고 하였다.

치이다. 부판으로 엮어서 1자 6치 되는 벽령¹³⁷⁹의 아래에다 꿰어 바느질하면 부판의 넓이가 좌우 적의 양쪽에 남는 것이 각기 1치인 것이다.

승중(承重)하는 자¹³⁸⁰의 아내는 시어머니가 살아 계시면 조부에 대한 복을 입지 않는다고 한 것은 《가례》에 아내는 남편의 복을 따른다고 분명히 말하였고 시어머니가 살아 계시면 조부에 대한 복을 입지 않는다는 글은 없다. 그러므로 《상례비요(喪禮備要)》¹³⁸¹를 따른다.¹³⁸² 예는 후하게 하는 쪽을 따라야 하는 법이니, 《통전(通典)》¹³⁸³은 따를 수 없을 듯하다.

망건(網巾)¹³⁸⁴은 명(明)나라 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상(喪)에 임하여 쓰기도 하고 쓰지 않기도 하는데, 예에 명확한 글이 없으니, 후학이 어찌 감히 설을 세우겠는가.

아버지가 살아 계시면 어머니 상에 머리를 풀어헤치지 않는다고 한 것은 《가례》에는 남자가 남의 후사가 되었거나 여자가 시집을 간 뒤에는 머리를

1379 벽령(辟領) : 원문은 ‘領辟領’인데, ‘領’을 연문으로 보아 빼고 번역하였다.

1380 승중(承重)하는 자 : 아버지가 죽은 적장손(嫡長孫)이 조부모의 상을 당했을 때 상주(喪主)가 되는 것을 말한다.

1381 《상례비요(喪禮備要)》 : 원래는 조선 초기의 학자 신의경(申義慶)이 주희(朱熹)가 지은 《가례(家禮)》의 원문을 위주로 하고 고금의 여러 예설(禮說)을 참고하여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서술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후대에 김장생(金長生)이 증보하여 간행하였고, 그 아들 김집(金集)이 다시 수정하고 증보하여 간행하였다. 여기에서는 김장생의 《상례비요》를 가리킨 듯하다.

1382 《상례비요》를 따른다 : 김장생은, 고례(古禮)에서는 부인이 남편의 친족을 위해 입는 복은 모두 한 등급 낮추어 입게 되어 있지만, 송대 이후 논의가 바뀌어 며느리는 남편을 따라 시부모를 위해 참복(斬衰) 삼년복, 자취(齊衰) 삼년복을 입어야 하며, 승중한 손자와 그 처도 조부모를 위해 똑같이 입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 설을 따르겠다는 말이다.

1383 《통전(通典)》 : 당(唐)나라 두우(杜佑, 735~812)가 총 200권으로 편찬한 책으로, 중국의 전장 제도(典章制度)를 총망라한 통사(通史)이다. 시기로는 당우(唐虞)의 전설 시대부터 당나라 때까지이며, 분야로는 식화(食貨), 선거(選舉), 직관(職官), 예(禮), 악(樂), 형(刑), 주군(州郡), 변방(邊防) 등 여덟 개 항목으로 나누어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후대 정초(鄭樵)의 《통지(通志)》, 마단림(馬端臨)의 《문헌통고(文獻通考)》와 합쳐 삼통(三通)이라 한다.

1384 망건(網巾) : 말총으로 망(網)을 만들어 머리털을 싸매는 것이다. 명 태조(明太祖)가 아직 등극하기 전에 신락관(神樂觀)에 가서 도사(道士)가 실로 망을 엮어 머리털을 싸매는 것을 보고 매우 기뻐하다니, 그 뒤에 명하여 천하에 그것을 행하도록 하였다. 만력(萬曆) 연간에 이르러 비로소 빠진 말총으로 실을 대신하였다.

조선 시대 때 성인 남자가 상투를 틀 때 머리털을 위로 건어 올리기 위해 이마에 쓰는 건(巾)을 말한다. 말총을 직사각형으로 엮어서 만드는데, 윗부분을 당, 아랫부분을 편자라 하며, 망건에 달아 상투에 동여매는 줄을 당줄이라고 한다.

풀어헤치지 않는다고는 하였는데, 아버지가 살아 계시면 어머니를 위하여 머리를 풀어헤치지 않는다는 글은 없는데다가 달리 상고할 것이 없다.

제사를 지내야 할 때에 상을 들은 경우에 대해 말한 것은 《예기》〈증자문(曾子問)〉에 “대부의 제사에 정조(鼎俎)를 이미 진열하고 변두(籩豆)를 이미 늘어놓았는데도 예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는 몇 가지나 됩니까?” 하고 물으니, 공자가 대답하기를 “아홉 가지이다. 천자가 봉어했거나, 황후의 상을 당했거나, 국군이 서거했거나, 국군 부인의 상을 당했거나, 임금의 태묘(太廟)에 화재가 났거나, 일식이 있거나, 삼년상을 당했거나, 자취(齊衰)와 대공(大功)의 상을 당했을 때는 모두 중지하는데, 외상(外喪)은 자취 이하일 경우에는 제사를 행한다.”라고 하였고, ‘사(士)의 경우에는 시마복(總麻服)의 상을 당해서도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그러나 죽은 자가 제사 지내는 자에 대해서 복(服)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제사를 지낸다.’¹³⁸⁵ 고 하였으니, 이것으로 살펴보면 자취 이하는 내외의 상을 구분하여 대처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내상(內喪)은 대문 안에 함께 사는 이의 상이고, 외상은 대문 밖에 따로 거쳐하는 이의 상이니, 만일 복이 없으면 비록 내상이라 하더라도 또한 제사를 지내지 않아야 할 듯하다.¹³⁸⁶

시체를 잃어버린 경우에 제주(題主)¹³⁸⁷에 관해 말한 것은 이러한 경우 등의 변례(變禮)는 예에 근거할 것이 없으니, 어찌 감히 창작하여 스스로 설을 세우겠는가. 다만 사람의 자식이 갑자기 이러한 변을 만난 경우는 혹 전쟁하다 죽었거나 혹 바다에 빠진 것이니, 이미 시체를 찾을 수 없다면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가. 정리(情理)로 미루어 보건대, 그 남긴 의복을 거두어다가 혹 손톱이나 모발 등으로 설위(設位)하여 제사를 지내고, 장기(葬期)¹³⁸⁸의

1385 죽은……지낸다 : 《예기(禮記)》〈증자문(曾子問)〉에는 “제사 지내는 대상자가 죽은 자에 대해서 복(服)이 없는 경우에는 제사를 지낸다.[士總不祭, 所祭於死者無服則祭.]”라고 되어 있다.

1386 제사를……듯하다 : 원문은 ‘恐亦當祭’인데, 문맥에 근거하여 ‘祭’ 앞에 ‘不’을 보충하여 번역하였다.

1387 제주(題主) : 장사를 지낼 때 사용하는 신주에 죽은 이의 관함을 쓰고, 그 옆에 상주(喪主)의 방주를 쓰는 것을 말한다.

1388 장기(葬期) : 상(喪)을 당(當)한 날로부터 장사(葬事)를 치르는 날까지의 기간(期間)을 말한다.

날이 되면 정침(正寢)에 제주(題主)하는 것이 온당할 듯 하기는 하나,
옳은지는 알지 못하겠다.

별폭

【이름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의심스러운 예에 대해 질문한 것이다】
別幅【未詳名何人之問疑禮】

혹독한 질병으로 휴식을 한 뒤에 상에 임하여 성복(成服)하는 자는 《가례(家禮)》 분상조(奔喪條)에 ‘만약 할 수 없으면’ 이하의 예절과 같을 듯합니다. 상(殤)의 요질(腰絰)¹³⁸⁹은 그 띠를 목지 않고 대공(大功)이하는 흠어 드리운다는 뜻으로 미루어 본다면 이는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강쇄(降殺)한 것일 것입니다.

기제(忌祭)를 지내기 하루 전날이 속절 묘제(俗節墓祭)를 지낼 날이면 자제들에게 묘제(墓祭)를 행하도록 하여야 할 듯합니다. 만일 자제가 없거나 묘소가 먼 경우에는 고인(古人)들이 사당을 중요시하고 묘소를 가볍게 여기던 뜻으로 미루어서 묘제는 혹 폐하여도 될 듯합니다.

묘제를 지낼 때에 천둥이 치고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예기》〈증자문(曾子問)〉의 일식(日食)이 일어나면 제사를 중지한다는 글로 미루어 보면 근거로 삼을 만합니다. 서인(庶人)은 다만 부모에게만 제사를 지내니, 열자(孽子)는 장방(長房)으로 체천(遞遷)¹³⁹⁰할 수 없을 듯합니다.

어떤 이가 사계(沙溪)에게 묻기를 “외숙의 처에 대해서는 복(服)이 없는데 국제(國制)에는 시마복을 입으니, 어느 복을 따라 입어야 합니까?”라고 하자, 답하기를 “외숙의 아내를 외숙모라고 한다. 옛날의 예는 미루어 볼 수 없고, 《개원례(開元禮)》¹³⁹¹와 국제에는 모두 시마복을 입도록 하였으니, 후

1389 상(殤)의 요질(腰絰) : 원문은 ‘殤之絰’이다. 문맥에 근거하여 ‘絰’을 ‘經’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1390 장방(長房)으로 체천(遞遷) : 장방은 최장방(最長房), 곧 4대 이내의 자손 중에 항렬과 나이가 가장 높은 사람으로, 봉사손(奉祀孫)에게 대수(代數)가 다한 신주를 모셔다가 제사를 받드는데, 이를 체천이라고 한다.

1391 《개원례(開元禮)》 : 《대당개원례(大唐開元禮)》를 말한다. 당(唐) 나라 초기에 태종(太宗)이 방현령(房玄齡)을 명하여 수(隋) 나라의 예에 의하여 예문(禮文) 1백30편을 편수하여 《정관례(貞觀禮)》를 만들고, 고종(高宗)이 또 장손무기(長孫無忌)를 명하여 거듭 편찬하여 《현경례(顯慶禮)》 1백30권을 만들고, 현종(玄宗)이 또 서견(徐堅), 이에(李銳)를 명하여 거듭 1백50권으로 찬정(撰定)해서 《개원례》를 만들어 시행하였다. 내용은 서례(序例)로 나누어 길례(吉

한 쪽을 따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듯하다.”라고 하였습니다.

“봉양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진설하기를 모두 평소와 같이 한다.”라고 하였고, 선정(先正)¹³⁹²이 말하기를, “사람이 막 죽었을 때에는 예로써는 그 새로운 것을 따를 겨를이 없고, 정으로써는 옛것을 다 바꾸지를 못한다. 그러므로 찬장에 남아있던 포와 육장을 제수를 올린 뒤에 올린다.”라고 하였으니, 이 말로 살펴보면 《가례(家禮)》에 “습례(襲禮)를 행한 뒤에 전(奠)을 설치하며 성복(成服)한 뒤에 상식(上食)을 베푼다.”고 한 것은 차례와 조리(條理)에 있어 반드시 깊은 뜻이 있을 것입니다. 지식이 얇은 후학(後學)이라 미처 선정의 예제(禮制)의 본뜻을 깊이 궁구하지 못하였으니, 우선 그 이미 이루어진 절목(節目)에 따라야 할 것이요, 그리하여 스스로 학문이 진보되고 식견이 투철해지게 되는 날을 기다린다면 그 은미한 뜻이 반드시 제 마음에 밝게 드러날 것이니, 어찌 굳이 먼저 천착(穿鑿)을 하겠습니까.

무릇 사당에서 신주를 모시고 나올 때에는 각기 한 상자씩을 사용하여 모시니, 기제(忌祭)에 한 신위(神位)만 모시고 올 때에도 독에서 신주를 꺼내어 받들어서 상자에 담아가지고 와도 될 듯합니다. 그러나 정자(程子)의 함께 제사 지낸다는 설을 따라 후하게 하여야 할 듯합니다.¹³⁹³

제사에는 기름으로 지진 음식은 쓰지 않는 것이 비록 옛날의 예이기는 하나, 세속의 사람들이 이 예를 쓴 지가 오래되었으니, 갑자기 변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그러나 예를 좋아하는 선비가 용감한 뜻으로 옛날의 예를 따르는 것이 또한 어찌 불가하겠습니까.

주부재배(主婦再拜)는 주인(主人)에 대한 글을 이어받았으니, 사배(四

禮), 빈례(賓禮), 군례(軍禮), 가례(嘉禮), 흉례(凶禮)까지 있다. 《唐會要 三十七 五禮篇目》

1392 선정(先正) : 방각(方愷, ?-?)을 가리킨다. 방각은 자는 성부(性夫), 송나라 동려(桐廬) 사람으로, 《예기집해(禮記集解)》를 지은 인물이다.

1393 무릇……듯합니다 : 《송자대전(宋子大全)》 권102 <답이백첨(答李伯瞻)>. 우암은 당시 ‘병제고비(並祭考妣)’의 설과 ‘제일위(祭一位)’의 설이 있으니, 고비에 모두 제사 지내는 것이 옳다면 신위가 각기 다른 독(櫝)에 모셔져 있더라도 두 독을 함께 받들고 나음을 의심할 것이 없고, 일위(一位)에만 제사를 모셔야 한다면 합독(合櫝)이라 할지라도 한 분의 신위만 따로 빈 독에 모셔 나음을 꺼려할 것이 없는데, 주자의 《가례》에는 합독이 정식이므로 이를 어길 수 없다고 하면서 예를 아는 자에게 다시 물어야 한다고 결론을 유보하였다.

拜)로 바로잡아야 할 듯합니다. 여러 형제들이 이미 주인과 함께 애곡(哀哭)을 한 뒤에 또 주인과 함께 배례(拜禮)를 행하는 것은 불가하지 않을 듯합니다.

윗옷의 앞쪽 옷깃을 끼운다는 것은 《가례》의 주(註)에 ‘삼상임(扱上衽)이란 윗옷의 앞쪽 깃을 띠에 끼우는 것을 이른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윗옷의 앞쪽 깃을 띠에 끼우는 것인 듯합니다.

분묘(墳墓)에 화재가 난 경우에 대해서, 예에 사당을 지나면 수레에서 내리고 묘소를 지나면 경의를 표한다고 하였는데, 모든 묘제(廟祭)와 묘제(墓祭)에 어떤 일이 생기면 모두 강쇄(降殺)함이 있으니, 묘소와 사당에 화재가 났을 때에도 강쇄하는 것이 분명할 듯하나, 어떠한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참배(參拜)하는 예와 사신(辭神)¹³⁹⁴에 대해서, 《가례》〈참례의(參禮儀)〉에 신주를 꺼낸다는 문장은 있고 신주를 거둔다는 조항은 없으니, 상세하지 못한 듯합니다. 우제(虞祭)에는 먼저 신주를 거둔 뒤에 절한다고 말한 것을 따르는 것이 온당할 듯합니다.

발인(發引)하는 날 아침에 상식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문공가례(文公家禮)》의 주에 ‘묘소가 멀면 머무는 곳마다 조석으로 상식을 올린다.’고 하였으니,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발인은 평조(平朝) 뒤에 있으니 그 전에 아침에 상식을 올릴 조항이 없었습니다. 조효(早曉)에 발인을 하게 되면 미처 상식을 하지 못하니, 묘소가 멀면 길에서 상식하는 때에 널 앞에도 자리를 마련하고 상식의 예절을 행하여야 할 듯합니다. 그러나 어떠한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동자(童子)가 제사를 주관하는 것에 대해서, 비록 동자라도 축판(祝板)에 이미 자명(子名)을 썼으면 자식이 초헌(初獻)을 행하여야 합니다. 형의 상(喪)에 형의 아내가 살아 있는 경우에 대해서, 그 아내가 살아 있으면 아우가 제사를 받들어서는 안 됩니다.

아우에게 고하고 아들에게 고하는 것에 대해서, 아내는 ‘상향(尙饗)’을

1394 사신(辭神) : 제사를 마치고서 신주를 거두어 신주를 넣어 두는 케인 주독(主櫃)에 넣는 일이다.

써야 하고 아우와 자식은 써서는 안 될 듯합니다. 《상례비요(喪禮備要)》의 내용이 이와 같으니, 의심할 만합니다.

죽은 자가 자기와 대등한 자 이하이면 전(奠)을 올리며 절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내는 절하여야 하고 자식과 아우는 절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분묘에 흙을 돋우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식의 지극한 정으로는 옛날의 예를 따를 겨를이 없을 듯합니다.

개장복(改葬服)을 입는 기간 내에 제사를 지내는 것에 대해서, 옛날에는 복을 입은 사람이 장례 전에는 감히 상차(喪次)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감히 흉(凶)을 지니고 길(吉)을 제사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개장과 초상(初喪)이 같지 않아 시제(時祭)를 지내지 않으니, 어떠한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다시 상세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 년이 지나 장례를 지내는 자가 초기(初忌)가 되었을 경우에 대해서, 사람의 정으로 헤아려보건대, 이미 초기가 되었으면 비록 장례를 지내지는 못했 다 하더라도 이날을 차마 그냥 보낼 수는 없을 듯합니다. 간략하게나마 전 의(奠儀)를 베푸는 것은 예에 비록 이에 관한 글은 없으나 정을 폐할 수 있 겠습니까. 이러한 일은 자식의 지극한 정으로 미루어 보아야 합니다.

심경문목【물은 사람이 누구인지 자세하지 않다】

心經問目【夫詳問子何人】

《심경(心經)》의 차서(次序)는 《서경(書經)》이 가장 처음이고, 《시경(詩經)》·《주역(周易)》·《논어(論語)》가 그다음이며, 《중용(中庸)》·《대학(大學)》·《예기(禮記)》·《악기(樂記)》·《맹자(孟子)》가 그다음입니다. 이 차서는 학문에 나아가는 차례로 선후(先後)의 순서를 삼은 것입니까. 성현이 지은 시기로 순서를 삼은 것입니까. 만일 지어진 시기의 선후로 순서를 삼은 것이라면 《중용》이 《대학》의 뒤에 있어야 하고, 학문에 나아가는 차례를 순서로 삼은 것이라면 더욱 주자(朱子)의 설을 따라 《대학》을 가장 먼저 하여야 하니,¹³⁹⁵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서산(西山)¹³⁹⁶은 무슨 연유로 《중용》을 대학보다 먼저 차례한 것입니까.

또 《대학》의 경일장(經一章)은 바로 공자(孔子)의 문하에서 심법(心法)을 전수한 것으로, 체용(體用)과 본말(本末)의 맥락이 분명합니다. 심학(心學)의 요체가 여기에서 벗어남이 없는데, 서산은 다만 전이장(傳二章)만을 취하고 경일장은 취하지 않았으니, 그 뜻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어떤 이는 말하기를 ‘경일장은 천하와 국가를 겸하여 말하였으므로 《심경》에 취하여 들이려 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중용이란 도를 닦는 가르침이요, 천지가 편안히 제자리를 잡고 만물이 제대로 길러지는 극치(極致)이니,¹³⁹⁷ 천하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의 지극한 공력이 아니겠습니까. 심체

1395 주자(朱子)의……따라 : 주자가 학문에 있어 《대학》을 가장 먼저 읽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가리킨다. 《주자어류(朱子語類)》 권14에 “먼저 《대학》을 읽어서 그 규모를 정하여야 한다.[先讀大學，以定其規模.]”라고 하였고, 또 “《대학》은 바로 학문을 하는 강목이니, 먼저 《대학》을 읽어 강령을 세워 정하면 다른 책은 모두 잡설로 이 안에 들어 있다. 《대학》을 통달한 다음 다른 경서를 보면 이것이 격물·치지의 일이며, 이것이 성의·정심의 일이며, 이것이 수신의 일이며, 이것이 제가·치국·평천하의 일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大學，是爲學綱目。先讀大學，立定綱領，他書，皆雜說在裏許。通得大學了，去看他經，方見得此是格物致知事，此是誠意正心事，此是修身事，此是齊家治國平天下事.]”라고 하였다.

1396 서산(西山) : 《심경(心經)》을 편찬한 진덕수(眞德秀, 1178~1235)의 호이다. 자는 경원(景元),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1397 천지가……극치(極致)이니 : 《중용장구(中庸章句)》 제1장에 “중과 화를 지극히 하면 천지가

(心體)가 지극히 넓어지면 천지와 만물이 진실로 일체(一體)가 되는 법이니, 지엽적인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를 이유로 근본이 되는 명덕(明德)을 빠트려서는 안 될 듯합니다. 알지 못하겠으나, 이 말이 어떠한가.

노재 왕씨(魯齋王氏)가 말하기를, “대개 ‘원자(原字)’는 밖으로부터 미루어 들어오는 것이니, 본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미묘하다고 말하였고, ‘생자(生字)’는 물(物)에 감응하여 동한 것이니, 본래 없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태롭다고 말한 것이다. ‘정자(正字)’와 ‘사자(私字)’는 모두 외면에 나타나기 때문에 인심(人心)을 인욕(人慾)이라고 이를 수 없는 것이다.”¹³⁹⁸라고 하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망령되어 ‘원(原)’이라는 말은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성명(性命)이 발동(發動)하는 곳이 곧 도심(道心)이니, 이는 근원이 시작되어 나온 곳이 곧 물줄기인 것과 같습니다. 물의 근원은 안에 있는데 그 물줄기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니, 그렇다면 ‘원자(原字)’는 밖으로부터 미루어 들어온다고 말해서는 안 될 듯합니다. 이기(理氣)가 사람에게 품부됨에 진실로 말할 수 있는 선후의 순서가 없으니, 이(理)가 있으면 곧 기(氣)가 있고, 기가 있으면 곧 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 기를 가지고 있어서 인심이 동하면 곧 이 안으로부터 나오니, 인심의 근원은 또한 본래부터 있는 물사(物事)이므로, 성명의 바름이 안으로 말미암아 밖으로 나타날 리가 전혀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되고, 형기(形氣)의 사사로움은 밖에서 동하여 안에 나타나므로, ‘정자(正字)’와 ‘사자(私字)’를 또한 모두 밖에 나타난다고 말해서는 안 될 듯합니다. 그러나 반복하여 생각해

제자리에 편안히 있고, 만물이 잘 생육될 것이다.[致中和 天地位焉 萬物育焉]”라고 하였다.

1398 노재 왕씨(魯齋王氏)……것이다 : 주희(朱熹)가 “마음의 허령지각(虛靈知覺)은 하나일 뿐인데 인심(人心)과 도심(道心)의 다름이 있다고 한 것은, 혹은 형기(形氣)의 사사로움에서 생겨나고[生] 혹은 성명(性命)의 바름에서 근원[原]하여 지각하는 것이 똑같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혹은 위태로워[危] 편안하지 못하고 혹은 미묘하여[微] 보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이 형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가 없으므로 비록 상지(上智)의 사람이라도 인심(人心)이 없을 수 없고, 또한 이 성(性)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가 없으므로 비록 하우(下愚)의 사람이라도 도심(道心)이 없을 수 없다. 인심과 도심 두 가지가 방촌(方寸 마음)의 사이에 섞여 있어서 다스릴 방도를 알지 못하면 위태로운 것[人心]은 더욱 위태로워지고 미묘한 것[道心]은 더욱 미묘해져서 천리(天理)의 공(公)이 마침내 인욕(人慾)의 사(私)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라고 한 데 대하여 한 말이다.

보아도 그 뜻을 알 수 없으니, 나아가 질정(質正)하고자 합니다.

〈인심도심도(人心道心圖)〉는 ‘정자(正字)’가 형기(形氣)의 위에 있고 ‘미자(微字)’가 성명(性命)의 아래에 있으며 ‘사자(私字)’가 형(形)에 속해 있고 ‘위자(危字)’가 기(氣)에 속해 있으니, 그 지의(指意)의 소재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삼가 밝게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역》의 〈건괘 문언전(坤卦 文言傳)〉 육이효(六二爻)에 “경(敬)과 의(義)가 확립되면 덕(德)이 외롭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외롭지 않다고 한 것은 깊이 음미하여야 할 말인 듯한데, 《심경부주(心經附註)》에는 충분히 설파(說破)해 놓지 않았습니니다. 정전(程傳)¹³⁹⁹을 살펴보면, “경과 의가 확립되면 그 덕이 성해진다.”라고 하였고, 《주역본의(周易本意)》¹⁴⁰⁰에는 “외롭지 않다는 것은 큼을 말한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대략적으로 말한 것일 뿐입니다. 저의 생각에는 ‘고(孤)’는 ‘고편(孤偏, 한쪽으로만 치우침)’이라는 말과 같은 듯합니다. 한갓 안을 곧게 하는 것[直內]에만 중사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사위(事爲)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홀히 한다면 의로 방박을 방정하게 하지 못할 것이니, 이는 덕이 끝내 한쪽으로만 고립되는 것이요, 한갓 밖을 방정하게 하는 것[方外]만을 일삼고 경을 잡아 지키는 것[持敬]을 소홀히 한다면 밖을 중시하고 안을 경외시하는 잘못이 있게 될 것이니, 이는 덕이 또한 한쪽으로만 고립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경과 의를 양쪽에 끼고 잡아 지키며 안과 밖을 모두 기른 뒤에야 이 덕의 전체(全體)와 대용(大用)이 양쪽 모두 수양되고 둘 다 진보되어 한쪽으로 고립되는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는 것이 옳은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각헌 채씨(覺軒蔡氏)가 “정할 때의 주일(主一)이 그 태극(太極)의 경계(境界)일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삼가 ‘태극의 본체(本體)’라 하여야 하는데 경계라고 한 것은 어째서인가. 이는 감히 단정하여 말하지는 못하고 그 말에 대해 의문을 가진 말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대개 상수(象數)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 그 이(理)만 갖추어진 상태를 태극(太極)

1399 정전(程傳) : 송나라 정이(程頤)의 《이천역전(伊川易傳)》을 가리킨다.

1400 《주역본의(周易本意)》 : 주희(朱熹)가 지은 것이다.

이라고 하고,¹⁴⁰¹ 사단(四端)이 아직 발하기 전에 온갖 이치가 구비되어 있는 상태를 정일(靜一)이라고 합니다. 정일이란 바로 내 마음의 태극의 전체인데, 만일 태극의 경계라고 한다면 정일이란 태극의 경계를 나누는 변경(邊境)인 것이니, 정일에 앞서서 또 따로 태극의 전체가 있는 것이 어찌 가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보는 것이 옳은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여자약(呂子約)¹⁴⁰²이 “듣는 것이 없고 보는 것이 없는 것이 미발(未發)이다.”라고 하였는데, 주자(朱子)가 이를 매우 비난하였습니다.¹⁴⁰³ 《중용》에서는 보지 않는 바와 듣지 않는 바를 가지고 아직 발하지 않았을 때의 본체를 존양(存養)하는 것으로 삼았습니다.¹⁴⁰⁴ 이른바 듣는 것이 없고 보는 것이 없다는 것은 바로 보지 않고 듣지 않는다는 것과 어세(語勢)가 서로 부합되는 듯한데, 주자가 매우 비난한 것은 어째서입니까. 그 사이에 반드시 은미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없고 보는 것이 없다고 할 때의 문(聞)과 견(見)은 이목(耳目)의 차원에서 말한 것이고, 보지 않고 듣지 않는다고 할 때의 도(觀)와 문(聞)은 심성(心性)의 차원에서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뜻이 절로 같지 않은 것입니다. 부디 일전어(一轉語)¹⁴⁰⁵를 해주시어 저의 몽매함을 깨우쳐 주십시오.

1401 대개……하고 : 주희(朱熹)가 지은 《역학계몽(易學啓蒙)》에 나오는 말이다.

1402 여자약(呂子約) : 여조검(呂祖僉, 1137~1181)으로, 자약은 그의 자이다. 호는 대우(大愚), 시호는 충(忠)으로 동래(東萊) 여조검(呂祖謙)의 아우이다.

1403 여자약이……비난하였습니다 : 정좌하고 있을 때에 앞에 지나가는 사물을 “보아야 하는가 보지 말아야 하는가(還見, 不見)”라는 질문을 받고, 정자(程子)가 제사(祭祀)와 같은 대사(大事)가 있을 때에는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아야 하겠지만(不見不聞)’, 만약 일이 없을 때에는 ‘눈은 마땅히 보아야 하고 귀는 마땅히 들어야 한다(目須見, 耳須聞)’라고 대답하였는데, 이에 대해 여자약(呂子約)이 “듣는 것이 없고 보는 것이 없는 것이 미발이다.[未有聞未有見, 爲未發.]”라고 하자, 주자가 정문(程門)의 문고 기록한 자에게도 책임이 있고, 후인들 역시 제대로 읽지 못하는 병폐가 있다고 비평한 일을 가리킨다.

1404 《중용》에서는……삼았습니다 : 《중용장구(中庸章句)》 제1장에 “도란 잡시도 떠날 수 없는 것이니, 떠날 수 있으면 도가 아니다. 그러므로 군자는 그 보지 않는 바에도 경계하고 삼가야 하고, 그 듣지 않는 바에도 두려워해야 한다.[道也者, 不可須臾離也, 可離, 非道也. 是故君子戒慎乎其所不睹, 恐懼乎其所不聞.]”라고 한 것을 가리킨다.

1405 일전어(一轉語) : 원래는 불교의 참선에서 참선자가 미혹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하는 말을 이른다. 여기에서는 사람들이 크게 깨달을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말씀이라는 뜻이다.

이사원(李士元)【문석(文碩)】에게 주는 편지

贈李士元【文碩】書

완성(完城) 이사원(李士元)이 남쪽 고을에 수령으로 온 부친¹⁴⁰⁶을 모시며 나를 따라 쑥대와 초목 우거진 곳에서 종유한 것이 몇 년이었는데, 일찍이 밤낮으로 경계하고 반성하는 도구로 삼을 만한 한 마디 말을 청하였다. 나는 “부족하고 못한 자라 아는 것이 없어 자신도 오히려 돌보지 못하는데 어느 겨를에 남을 위해 도모하겠습니까? 그러나 현공(賢公)과는 정(情)과 의리가 오랫동안 서로 부합한 사이라 또한 감히 도외시하여 끝내 부탁을 저버릴 수 없으니, 감히 한 마디 말을 하겠습니다.”라 하고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인심(人心)이 바른 길로 가기를 좋아하지 않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온 세상에 유자(儒者)의 옷을 입고 유자의 관을 쓴 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마는, 천하 사람들을 이끌고 어지럽고 화려한 명리(名利)의 길에 함께 달려갈 뿐 저쪽에서 나와 이쪽으로 들어오는 자는 천백에 한둘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현공은 조급히 벼슬에 나아가는 데 담담하게 마음을 끊고 탄탄하고 긴 길 위에 바른 걸음을 세우고자 하니, 제가 비록 어리석고 망령되지만 감히 들은 것을 가지고 기꺼이 고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비록 그러하나 현공의 자질을 보면 순수하나 유약하고 현공의 기운을 살펴 보면 맑으나 연약하니, 순수하면 의(義)를 듣고서 반드시 따르지만 유약하면 외물에 의해 옮겨 가기 쉽고, 맑으면 이치를 보는 것이 반드시 정밀하지만 연약하면 오래도록 지키기에 어렵습니다. 무릇 사람의 본성은 선하지 않음이 없으나 기질에 병통이 있으면 본성이 그에 따라 가려지게 되니, 반드시 먼저 기질 위에 있는 병통을 고치고 새롭게 한 뒤에야 비로소 학문하는 것을 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옛날 부자(夫子)께서 학문을 논하실 적에 지(知)·인(仁)·용(勇) 세 가지를 학문하는 절도로 삼고서, “아무리 유약한 사람

1406 남쪽……부친 : 이문석의 부친 이정(李晟)을 가리킨다. 정은 1656년 남평 현감(南平縣監)에 제수되었다. 《承政院日記 孝宗 7年 閏5月 12日, 6月 11日》

이라도 반드시 강해지고,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반드시 현명해진다.” 라는 말로 결론지으신 것입니다.¹⁴⁰⁷

지금 현공은 자질이 순수하고 기운이 맑으니 지(知)의 공부에 있어 바랄만한 점이 있을 듯하나, 유약하고 연약한 병통이 있으니 이른바 ‘인(仁)의 지킴’ 과 ‘용(勇)의 강함’ 이라는 것에 대해 용감하게 나아가고 확고하게 지키기를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유약함을 변화시켜 강하게 만들고 연약함을 변화시켜 굳세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정신을 온전하게 길러 외물이 다가와도 빼앗기지 않는다면 유약함이 거의 변하여 강함이 되고, 의(義)를 모아 확충하여¹⁴⁰⁸ 부지런히 힘쓰고 쉬지 않는다면 연약함이 또한 변하여 굳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가지를 합하여 그 요점을 말하자면 아마도 ‘경(敬)’ 일 것입니다. 경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외적 측면에서 말하자면 단정하고 엄숙한 태도를 지니는 것[莊整齊肅]¹⁴⁰⁹이 이것ियो, 내적 측면에서 말하자면 마음을 전일하게 하고 언제나 깨어 있는 것[主一惺惺]¹⁴¹⁰이 이것입니다. 단정하고 엄숙한 태도를 지니며 마음을 전일하게 하고 언제나 깨어 있어 안팎이 서로 바르고 동(動)할 때나 정(靜)할 때나 어긋나지 않아, 하루 이틀 사이에도 끊어짐이 없고 함께 거처하든 홀로 거처하든

1407 옛날……것입니다 : 《중용장구(中庸章句)》 제20장에 “학문을 좋아함은 지에 가깝고, 힘써 행함은 인에 가깝고, 부끄러움을 앎은 용에 가깝다.[好學近乎知 力行近乎仁 知恥近乎勇]” 라 하였고, “남이 한 번에 능하거든 나는 백 번을 하며, 남이 열 번에 능하거든 나는 천 번을 해야 하니, 과연 이 도리를 능히 한다면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반드시 현명해지고, 아무리 유약한 사람이라도 반드시 강해진다.[人一能之 己百之 人十能之 己千之 果能此道矣 雖愚必明 雖柔必強]” 라 하였다.

1408 확충하여 : 원문은 ‘확(擴) 인데, 문맥을 살펴 ‘확(擴)’ 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1409 단정하고……것 : 경(敬)을 행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다. 《회암집(晦菴集)》 <답방경도뢰(答方耕道來)>에, “정부자(程夫子)께서 말씀하신 ‘경(敬)’ 이라는 것 또한 ‘의관(衣冠)’을 바루고 생각을 전일(專一)하게 하며, 단정하고 엄숙한 태도를 지니고 속이지 말고 태만하지 말라.’ 고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若程夫子所謂敬者 亦不過曰正衣冠 一思慮 莊整齊肅 不慢不欺而已]” 라 한 데에서 나온 말이다.

1410 마음을……것 : 경(敬)의 개념을 풀이한 말이다. 《이정수언(二程粹言)》 권상(卷上)에 “마음을 전일하게 하는 것을 ‘경(敬)’ 이라 하고,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감이 없는 것을 ‘일(一)’ 이라 한다.[主一之謂敬 無適之謂一]” 라고 한 정이(程頤)의 말이 나오고, 《심경부주(心經附註)》에 “경은 마음이 언제나 깨어 있게 하는 법이다.[敬是常惺惺法]” 라고 한 사랑좌(謝良佐)의 말이 나온다.

가는 곳마다 공경하지 않음이 없다면 앞에서 말한 기질의 병통을 어찌 근심 하겠습니까? 기질이 이미 변하였다면 현공의 맑고 밝은 자질로 순(舜) 임금 처럼 되기를 바라건 안연(顔淵)처럼 되기를 바라건¹⁴¹¹ 어디를 간들 얻을 수 없겠습니까? 바라건대 현공은 힘쓰십시오. 저 또한 이로부터 스스로 경계하고 살필 것입니다. 서로 돈독히 허여한 사이인지라 주제넘고 경솔함이 여기에 까지 이르렀으니, 몹시도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경자년(1660, 37세) 4월 하순 남촌(南村)의 농사짓는 늙은이는 절하고 쓰다.

1411 순(舜) 임금처럼……바라건 : <등문공 상(滕文公上)>에, “순은 어떤 사람이며, 나는 어떤 사람인가? 본받아서 행하기만 하면 또한 그와 같이 될 수 있다.[舜何人也 予何人也 有爲者亦若是]”라고 한 안연(顔淵)의 말이 나온다.

신씨(愼氏)¹⁴¹²【성필(聖弼)】에게 답하는 편지

답愼【聖弼】書

장암(場巖)에서 한번 모셨을 때는 몹시도 경황이 없었는데, 헤어진 뒤에 고요히 조섭하시는 체후는 어떠하십니까? 이전 편지에서 말씀드린 예(禮)에 대한 의문점은 비록 직접 뵈 자리에서 대략 논하였습니다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하였습니다. 다시 상세히 생각해보니, 정자(程子)께서 말씀하신 “비록 6, 7대라도 현재의 종자(宗子)와 상의하여 결정한다.”라는 것¹⁴¹³은 장방(長房)으로 체천(遞遷)한 종자¹⁴¹⁴가 여전히 장방의 별묘(別廟)에서 주인이 됨을 말한 것은 아닌 듯합니다.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미 대종자(大宗子)가 되었으면 비록 고조(高祖)의 사당이 헐려서 6, 7대에 이르렀더라도 온 집안이 모두 종통(宗統)으로 받들어 종법(宗法)을 그에게 부친다고 말씀하신 것인 듯합니다. 주자(朱子)께서 말씀하신 “고조의 사당이 헐리면 다시 종통으로 받들지 않는다.”라는 것¹⁴¹⁵은 고조의 신주가 이미 봉사(奉祀) 대수가 다하지 않은 방(房)으로 옮겨지면 봉사 대수가 아직 다하지 않은 손자 가운데서 그 종통을 별도로 세우고 대종(大宗)의 봉사 대수가 다한 자는 다시 종통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뜻으로 보건대 정자의 설

1412 신씨(愼氏) : 신성필(愼聖弼)을 가리킨다. 자는 여뢰(汝賚), 호는 경암(敬庵)이다. 감사를 지낸 신희남(愼喜男)의 5세손으로, 아버지는 성균관 생원 신광익(愼光翊), 형은 참봉 신성운(愼聖尹)이다.

1413 정자(程子)께서……것 : 《이정유서(二程遺書)》 권17에, “무릇 소종(小宗)은 5대로 법을 삼아 봉사(奉祀) 대수가 다하면 친족은 흩어진다. 만약 고조(高祖)의 아들이 아직 살아있어서 그 아버지의 제사를 지내고자 한다면, 현재 종자(宗子)가 된 자가 비록 6, 7대라도 또한 모름지기 현재의 종자와 상의하여 결정하고, 그런 뒤에 그 아버지의 제사를 지낸다. 이는 종자에게 군주의 도가 있기 때문이다.[凡小宗以五世爲法 親盡則族散 若高祖之子尙存 欲祭其父 則見爲宗子者 雖是六世七世 亦須計會今日之宗子 然後祭其父 宗子有君道]”라 하였다.

1414 장방(長房)으로 체천(遞遷)한 종자 : ‘체천(遞遷)’은 봉사(奉祀) 대수(代數)가 다한 선조의 신주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보통 최장방(最長房)의 집으로 옮기는데, 최장방은 4대 이내의 자손 가운데 향렬이 가장 높은 연장자를 말한다.

1415 주자(朱子)께서……것 : 《회암집(晦庵集)》 권51 <답동숙중(答董叔重)에, “고조의 사당이 헐리면 이 사당을 함께 하는 자는 단문(袒免)의 친척이 되니, 다시 종통으로 받들지 않는다. 이것이 이른바 ‘5대가 되면 옮긴다.’는 것이다.[高祖廟毀 則同此廟者 是爲袒免之親 不復相宗矣 所謂五世而遷也]”라 하였다.

은 종법의 총론(統論)이요 주자의 말은 제법(祭法)의 세목으로, 각기 주장하는 바가 있지만 장방이 제사를 주관하는 데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대개 5대까지 제사를 지내는 것은 예에 있어 참람된 것이니 지금 마땅히 신주를 묻어야 합니다. 그러나 방계(傍系) 손자의 봉사 대수가 아직 다하지 않아 차마 제사를 지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제사를 대신 주관하는 것입니다. 종자된 자는 복(服)이 다하고 정(情)이 다하여 감히 그 사당에서 참람되어 제사를 지낼 수 없으니, 또한 어찌 감히 참람되어 방친(傍親)의 사당에서 주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인정(人情)과 천리(天理)로 볼 때 분명하여 의심할 것이 없을 듯한데,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고명하신 그대의 뜻은 어떠하십니까?

대저 예라는 것은 천리의 절문(節文)¹⁴¹⁶이니, 천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절문이 상세하지 못합니다. 우리들은 평소 큰 근본을 세우고 의리를 밝히지 못하여 미발(未發)하였을 때 전체(全體)가 중(中)에 맞지 않고 이발(已發)한 뒤에 대용(大用)이 조화롭지 못하여¹⁴¹⁷ 범상한 일에도 아는 것이 모호하니, 세세하고 정미한 절문과 의도(儀度), 지극히 정밀한 성현(聖賢)의 말뜻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밝게 헤아려 지극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때문에 우리들이 해야 할 오늘날의 급선무는 모두 ‘경(敬)에 처하여 근본을 세우고, 이치를 궁구하여 앎을 지극히 한다.[居敬立本窮理致知]’라는 여덟 글자에 있습니다. 여덟 글자의 지름길이 종이 위에 있으니 말하는 자가 마음 위의 길에서 돌이켜 구하여 종이 위와 마음 위를 합쳐서 하나로 만든다면, 이

1416 천리의 절문(節文) : 《논어》〈학이(學而)〉에 “예를 적용할 때는 차분하고 각박하지 않게 하는 것이 귀중하다.[禮之用 和爲貴]”라 하였는데, 주희(朱熹)는 이를 해설하면서 “예라는 것은 천리에 의해 차등적으로 매겨진 등급이자 인간사에서 마땅히 준수해야 할 법칙이다.[禮者 天理之節文 人事之儀則也]”라 하였다.

1417 전체(全體)가……못하여 : 《대학장구(大學章句)》 전 5장에, “대학에서 처음 가르칠 때 반드시 배우는 자들로 하여금 모든 천하의 사물에 나아가 그 이미 알고 있는 이치를 가지고 더욱 궁구해서 그 지극함에 이르는 것을 구하지 않음이 없게 한다. 힘쓰기를 오래해서 하루아침에 돌연히 관통하게 되면 모든 사물의 표리와 정조가 이르지 않음이 없게 되고 내 마음의 전체(全體)와 대용(大用)이 밝지 않음이 없게 될 것이니, 이것을 ‘격물(格物)’이라 이르며, 이것을 ‘지지지(知之至)’라 이른다.[大學始教 必使學者 卽凡天下之物 莫不因其已知之理而益窮之 以求至乎其極 至於用力之久 而一旦豁然貫通焉 則衆物之表裏精粗無不到 而吾心之全體大用無不明矣 此謂物格 此謂知之至也]”라 한 데서 온 말이다.

것을 천지만물에까지 미루어 어디를 가든 천리의 질문에 합치되지 않음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고금의 예설(禮說)에 대한 책은 책상 문서 위에 겹겹이 쌓여 한갓 뜻을 상하게 하는 완물(玩物)¹⁴¹⁸이 될 뿐일 것입니다.

비루한 저는 이러한 점에 대해 견해가 있으나 아직 미치지 못한 사람입니다. 뜻을 같이 하는 이에게 질정을 구하고자 하므로 이전 편지의 질문으로 인하여 아울러 언급하는 것이니, 그대¹⁴¹⁹는 다시 상세히 궁구하여 만약 합치되지 않는 점이 있다면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1418 뜻을……완물(玩物) : 쓸데없는 물건을 가지고 노는 데에 몰두한 나머지 소중한 자기의 본심을 잃어버린다는 뜻의 ‘완물상지(玩物喪志)’에서 취한 말이다. 《서경(書經)》〈여오(旅獒)〉에,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하찮게 여기면 덕을 잃고, 좋아하는 사물에 빠지면 뜻을 잃는다.[玩人喪德 玩物喪志]”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1419 그대 : 원문은 ‘여뢰(汝賚)’다. 신성필의 자다.

신씨(愼氏)【성필(聖弼)]에게 답하는 편지

답愼【聖弼]書

겨울에 칩거하며 병을 다스린 것이 마치 호흡을 멈춘 거북¹⁴²⁰과 같았습니다. 이러한 때에 정다운 안부를 전해주는 인편이 이르렀으니, 상을 나란히 하고 조용히 이야기 나누면서 마음의 곡절을 세세히 논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 가운데 ‘거경(居敬)’ 한 대목은 벗들과 떨어져 쓸쓸히 지내는¹⁴²¹ 저의 비루함을 계발(啓發)해 주며, ‘이치를 궁구하며 단정히 앓는다.’는 말씀은 은연중에 못난 저의 병통에 들어맞으니, 도와주고 깨우쳐주는 어진 마음으로 성대하게 가르침을 내려주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만 도수(度數)를 깊이 연구하는 것이 또한 이치를 궁구하는 것이라는 말씀¹⁴²²은 정자(程子)의 뜻의 외면적인 부분을 대략 살피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정자(程子)께서는 경(敬)을 위주로 하는 공부가 《소학(小學)》에서 빠진 것을 보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는 말¹⁴²³을 가지고 보자면 격물치지(格物致知)하기 전에 어찌 근본을 세우는 공부가 전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자사(子思)는 존양(存養)을 성찰(省察)의 앞에 두었고 덕성(德性)을

1420 호흡을 멈춘 거북 : 도가(道家)에서는 호흡을 거북처럼 하면 먹고 마시지 않고도 장생(長生)할 수 있다고 한다. 일설에는 거북은 잠잘 때 숨을 귀로 내뿜는데, 이로 인하여 장생하는 것이라 한다.

1421 벗들과……지내는 : 원문은 ‘삭거(索居)’다. 《예기(禮記)》〈단궁 상(檀弓上)〉에, 자하(子夏)가 “내가 벗을 떠나 쓸쓸히 홀로 산 지가 오래이다.[吾離群而索居 亦已久矣]”라 한 데서 유래한 말이다.

1422 도수(度數)를……말씀 : 송나라 유학자 정이(程頤)는 학문에 있어 특히 ‘거경궁리(居敬窮理)’를 강조하였는데, ‘거경’은 내적 수양 방법으로서 마음을 성찰하여 성실하게 기거동작(起居動作)을 절제하는 것을 말하며, ‘궁리’는 외적 수양 방법으로서 널리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여 정확한 지식을 획득하는 것을 말한다. 신성필이 보낸 편지 가운데, 도수(度數)를 깊이 연구하는 것이 곧 ‘궁리’의 방법이 된다고 한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423 정자(程子)께서는……말 : 《소학집주(小學集註)》〈총론(總論)〉에, “진씨(陳氏)가 말하기를, ‘정자께서는 경(敬)을 위주로 하는 공부가 《소학(小學)》에서 빠진 것을 보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경을 위주로 하면 방심(放心)을 거두어 큰 근본을 세울 수 있으니, 큰 근본이 이미 선 뒤에 대학(大學) 공부도 순서를 따라 나아가면, 가는 곳마다 통하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陳氏曰 程子說主敬工夫 可以補小學之闕 蓋主敬 可以收放心而立大本 大本既立 然後大學工夫循序而進 無往不通]”라 한 대목이 보인다.

문학(問學)의 앞에 두었으니,¹⁴²⁴ 그 뜻이 어찌 알겠습니까? 우리 어진 그대와 다시 이 뜻을 궁구하기를 바랍니다.

천박하고 고루함을 헤아리지 않고 말이 문득 이러한 데까지 이르렀으니, 몹시도 두렵고 부끄럽습니다. 하나의 양(陽)이 처음 생겨나는 이때¹⁴²⁵에 고요하고 묵묵하게 단정히 수양하시어 복이 끝없이 이어지기를 우리러 바랍니다.

1424 자사(子思)는……두었으니 : 《중용》은 공자의 손자인 자사(子思)가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용장구(中庸章句)》 제1장에, “군자는 그 보지 않는 바에도 경계하고 삼가며 그 듣지 않는 바에도 두려워한다.[君子 戒慎乎其所不睹 恐懼乎其所不聞]”라 하고, “숨겨진 것보다 드러남이 없으며 작은 일보다 나타남이 없으니, 그러므로 군자는 혼자만 아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삼가는 것이다.[莫見乎隱 莫顯乎微 故君子慎其獨也]”라 하였는데, 주희(朱熹)는 이를 “존양성찰의 요점[存養省察之要]”이라 해석하여 ‘존양’을 ‘성찰’의 앞에 두었다. 또 《중용장구》 제27장에는 “군자는 덕성을 높이며 문학을 말미암는다.[君子尊德性而道問學]”라 되어 있어, 덕성을 문학의 앞에 두었음을 알 수 있다.

1425 하나의……이때 : 동지(冬至)를 가리킨다. 《주역》〈복괘(復卦)〉의 공영달(孔穎達) 소(疏)에, “동지에 하나의 양이 생기니, 이는 곧 양은 움직여서 용사하고 음은 고요함으로 돌아가는 것이다.[冬至一陽生 是陽動用而陰復於靜也]”라 한 데서 온 말이다.

신씨(愼氏)【성필(聖弼)】에게 부치는 편지

寄愼【聖弼】書

사도(斯道)가 불행하여 성암(惺菴) 문장(文丈)¹⁴²⁶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으니, 부고를 듣고서 저도 모르게 신위(神位)를 설치하여 통곡하고 이어서 애도하였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문하(門下)이자 지친(至親)으로서 은혜와 의리가 모두 지극하시니, 도(道)를 위해서든 정(情)을 위해서든 무너지고 찢어지는 마음을 어찌 감당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돌아보건대 이 외로운¹⁴²⁷ 몸은 병으로 궁벽한 들관에 버려진 탓에 비록 함장(函丈)¹⁴²⁸의 사이에서 계속해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하였지만 만년에 사우(師友)의 교분으로 외람되어 지극한 기대를 받았는데, 어찌 오늘날의 흉한 소식이 전해질 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몹시도 애통하고 슬픕니다.

지난번 집안 조카 문봉의(文鳳儀)가 받들어 전해준 정다운 안부 편지¹⁴²⁹ 가운데 건강이 좋지 못하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근래의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저 또한 숙질(宿疾)이 여름에 다시 발생하였습니다. 가을 초에 날씨가 시원해져 혹 병이 낫게 된다면 성암의 상차(喪次)¹⁴³⁰에 달려가 곡하고 이어 모시고서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병으로 인해 할 말을 모두 적지 못합니다.

1426 성암(惺菴) 문장(文丈) : 이수인(李壽仁, 1601~1661)을 가리킨다. 성암(惺菴)은 그의 호. 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유안(幼安)이다. 1633년 과거에 급제하여 전적, 병조좌랑, 정인 등을 역임하였다. 1642년 재차 전적에 제수되었으나 사은한 뒤 바로 전리(田里)로 내려갔으며, 이후로도 여러 차례 벼슬에 제수되었으나 모두 나가지 않았다. ‘문장(文丈)’은 제주가 높고 덕이 뛰어나면서 나이가 많은 사람에 대한 존칭이다.

1427 외로운 : 원문은 ‘고로(孤露)’다. 어릴 때 부모를 잃어 의지할 데가 없는 것을 말한다.

1428 함장(函丈) : 한 길(丈)을 용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스승과 강론하는 자리를 의미하며, 스승을 뜻하는 말로도 쓰인다. 《예기(禮記)》〈곡례(曲禮)〉에, “만약 음식을 대접하는 손님이 아니고 스승과 강론하는 자리이면 자리를 펴도 한 길쯤 되는 공간을 띄운다.[若非飲食之客 布席 席間函丈]”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1429 집안……편지 : 《남포집(南圃集)》〈남교일기(南郊日記)·신축(辛丑)〉에, 1661년 5월 25일에 집안 조카 문봉의(文鳳儀)가 영암(靈巖)에서 돌아와 신성필(愼聖弼)의 편지를 전해주었다는 내용이 보인다.

1430 상차(喪次) : 상중에 상주가 거처하며 집상(執喪)하는 곳을 말한다.

신씨(愼氏)【성필(聖弼)】에게 답하는 편지

답愼【聖弼】書

일전에 소은공(素隱公)¹⁴³¹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서 소미성(小微星)이 빛을 숨기는 아픔¹⁴³²을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흑서와 질병으로 인해 아직까지 편지 한 통을 올려 위로를 드리지 못하였는데, 이렇게 손수 쓰신 편지를 먼저 받게 되니 열어서 읽고 난 뒤 부끄러운 마음 끝이 없습니다. 하늘이 어찌 유독 우리 호남에만 이렇게까지 액운을 내리신단 말입니까? 학문이 우리나라에 크게 행해진 뒤로 훌륭한 인재(才士)들이 호남에 많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정자(程子)와 주자(朱子)의 가법(家法)을 마음에 둔 사람은 존재(存齋)¹⁴³³ 한 분 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00년 사이에 다행히 성암(惺菴)¹⁴³⁴이 나왔으니, 후학들의 기대가 어떠하였습니까?

1431 소은공(素隱公) : 신천익(愼天翊, 1592~1661)을 가리킨다. 소은(素隱)은 그의 호. 본관은 거창(居昌), 자는 백거(伯舉)다. 1612년 과거에 급제하여 홍문관 정자, 이조 참의를 지냈는데, 광해군의 실정을 보고 사직하여 전라남도 영암에 은거하였다. 인조반정 후 홍문관·사간원의 요직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1654년에 다시 나와서 홍문관 부제학, 대사간, 이조 참의, 이조 참판, 한성부 우윤 등을 역임한 뒤 관직을 버리고 귀향하였다.

1432 소미성(小微星)이……아픔 : ‘소미성(小微星)’은 처사(處士)를 상징하는 별이다. 이 별이 희미해지거나 떨어지면 인간 세상의 처사(處士)가 죽는다고 한다. 진(晉)나라 사부(謝敷)는 자가 경서(慶緒)인데, 성품이 맑고 욕심이 없어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고 태평산(太平山)에 10여 년 동안 은거하였다. 하루는 달이 소미성을 범하자 점치는 사람이 “처사가 죽을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당시 명망이 높았던 대규(戴逵)가 죽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사부가 죽었다고 한다. 《晉書 卷94 隱逸列傳 謝敷》

1433 존재(存齋) : 기대승(奇大升, 1527~1572)을 가리킨다. 존재(存齋)는 그의 호. 본관은 행주(幸州), 자는 명언(明彦), 다른 호는 고봉(高峯)이다. 이황(李滉)의 문인이다. 1558년 과거에 급제하여 홍문관 부수찬, 병조 좌랑, 이조 정랑, 사헌부 지평, 홍문관 교리, 사헌부 헌납 등을 역임하였고, 1567년 선조가 즉위하자 조광조(趙光祖)·이언적(李彦迪)에 대한 추증을 건의하였다. 이후 대사성, 대사간, 공조 참의 등을 지낸 뒤 벼슬을 그만두고 귀향하던 도중에 고부(古阜)에서 객사하였다. 《주자대전(朱子大全)》을 발췌하여 《주자문록(朱子文錄)》을 편찬하는 등 주자학에 정진하였다. 이황과 서한을 주고받으면서 사단칠정(四端七情)을 주제로 논란을 편 일이 유명하다.

1434 성암(惺菴) : 이수인(李壽仁, 1601~1661)을 가리킨다. 성암(惺菴)은 그의 호. 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유안(幼安)이다. 1633년 과거에 급제하여 전직, 병조좌랑, 정언 등을 역임하였다. 1642년 재차 전직에 제수되었으나 사은한 뒤 바로 전리(田里)로 내려갔으며, 이후로도 여러 차례 벼슬에 제수되었으나 모두 나가지 않았다.

그러나 우러러볼 곳을 잃은 아픔¹⁴³⁵이 농부가 가을 추수를 바라는 듯이 하는 날에 갑자기 일어났으니, 이른바 하늘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또 생각건대 선생께서 의발(衣鉢)을 전해주신 것이 불행히도 더욱 드무니, 마음으로 전하신 뜻을 계승하여 선생의 명성을 영원히 실추시키지 않을 자는 또한 현공(賢公) 형제 중에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부터 현공께서 자임(自任)하실 중임은 평소 함장(函丈)¹⁴³⁶을 가까이서 모실 때와 크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라건대 현공께서는 힘쓰십시오.

보내주신 편지를 자세히 읽어 보니, 슬프고 애통하며 간절하고 애처로운¹⁴³⁷ 말에서 저를 비루하다고 하여 외면하지 않는 뜻을 충분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주재념고 경솔하게 이러한 점을 언급하였으니, 도리어 두렵고도 부끄럽습니다. 너그러이 헤아려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1435 우러러볼……아픔 : 원문은 ‘안양지통(安仰之痛)’이다. 훌륭한 스승이 죽은 데 대한 슬픔을 말한다. 공자가 세상을 떠나기 일주일 전에 “태산이 무너지는구나. 대들보가 꺾이는구나. 철인이 시드는구나.[泰山其頽乎 梁木其壞乎 哲人其萎乎]”라 노래하였는데, 자공(子貢)이 이 노래를 듣고는 “태산이 무너지면 우리가 장차 어디를 우러러보며, 대들보가 꺾이고 철인이 시들면 우리가 장차 어디에 의지하겠는가.[泰山其頽 則吾將安仰 梁木其壞 哲人其萎 則吾將安放]”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禮記 檀弓上》

1436 함장(函丈) : 한 길(丈)을 용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스승과 강론하는 자리를 의미하며, 스승을 뜻하는 말로도 쓰인다. 《예기(禮記)》〈곡례(曲禮)〉에, “만약 음식을 대접하는 손님 아 니고 스승과 강론하는 자리이면 자리를 펴되 한 길쯤 되는 공간을 띄운다.[若非飲食之客 布席 席間函丈]”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1437 애처로운 : 원문은 ‘측(測)인데, 문맥을 살펴 ‘측(側)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이 정언(李正言)¹⁴³⁸【수인(壽仁)】에게 답하는 편지

答李正言【壽仁】書

신군(愼君) 형제¹⁴³⁹가 연이어 방문하여 이를 통해 훌륭한 소식을 가득 얻었으니, 조금이라도 만나서 조용히 이야기 나누고 싶었으나 그러지 못하였 습니다. 그런데 천금과 같이 귀한 편지를 멀리 텅 빈 골짜기¹⁴⁴⁰로 보내주실 줄 어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로 인하여 도(道)를 닦으시는 체후가 맑고 평안하심을 알았으니 몹시 마음이 확 트입니다.

다만 생각건대 선진(先進)이 후진(後進)을 이끌어 나아가게 하는 데 있어 서는, 차근차근 순서를 두어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곳에 이르고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에 이르러 발꿈치를 세워 정하고서¹⁴⁴¹ 실제적인 힘을 점차 쓰도록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보내주신 말씀 가운데 ‘남쪽 너머에서 우뚝하다’, ‘도의(道義)를 창도하였다’는 등의 몇 마디 말은 비록 초학자를 격동시켜 광대한 전지(田地)에 나아가게 하고자 하는 두터운 뜻이지만, 비루한 저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몇 마디 말들은 비록 노사(老師)나 숙유(宿儒)에

1438 이 정언(李正言) : 이수인(李壽仁, 1601~1661)을 가리킨다. 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유안(幼安), 호는 성암(惺菴)이다. 1633년 과거에 급제하여 전적, 병조좌랑, 정언 등을 역임하였다. 1642년 재차 전적에 제수되었으나 사온한 뒤 바로 전리(田里)로 내려갔으며, 이후로도 여러 차례 벼슬에 제수되었으나 모두 나가지 않았다.

1439 신군(愼君) 형제 : 김만영과 교유하던 신성필(愼聖弼) 형제를 가리키는 듯하다. 신성필은 성균관 생원 신광익(愼光翊)의 아들로, 형은 신성운(愼聖尹), 아우는 신성망(愼聖望)이다.

1440 텅 빈 골짜기 : 원문은 ‘허빈(虛牝)이다. 사람이 살지 않는 텅 빈 골짜기를 뜻하는 말로, 여기서는 자신이 은거하는 곳을 가리킨다. 한유(韓愈)의 <증취립지평사(贈崔立之評事)> 시에, “가련하다. 쓸데없이 정신만 허비할 뿐, 황금을 텅 빈 골짜기에 던지는 것과 같다. [可憐無益費精神 有似黃金擲虛牝]”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韓昌黎集 卷4》

1441 발꿈치를 세워 정하고서 : 원문은 ‘입정각근(立定脚跟)이다. ‘각근’은 기초·기본·근지를 의미하는 말로, ‘발꿈치를 세워 정한다’는 것은 곧 학문의 기초·기본을 튼튼히 다진다는 뜻이다. 《소학집주(小學集註)》 총론에서 주희(朱熹)가 “지금은 모두 소학의 공부를 놓치고 지나쳐 버려 다시 돌아가 공부할 수 없으니, 다만 지금의 처지에 의거하여 곧바로 머물러 발꿈치를 세워 정하고 공부해야 한다. 30세에 깨달았다면 곧 30세부터 발꿈치를 세워 정하고 공부를 하며 곧 나이 8, 9살 세에 깨달았다면 또한 마땅히 현재 처한 상황에서 공부해야 한다. [今都蹉過了 不能更轉去做 只據而今地頭 便筈住立定脚跟去做 如三十歲覺悟 便從三十歲立定脚跟去做 便年八九十歲覺悟 亦當據現在筈住去做]”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게 해당시키더라도 반드시 두려워하며 움츠리고 물러나 감히 자처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물며 비루하고 못난 저와 같은 사람에 있어서이겠습니까? 편지지를 앞에 두고서 망연(茫然)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영악(靈岳)에서의 기이한 유람은 평소 꿈에 그리던 것이었으며 도(道)가 높으신 분을 받들어 모시는 것 또한 하나의 성대한 일이니, 한 번에 두 가지를 획득하는 것은 좀처럼 얻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속세의 번거로움에서 깨어나지 못하여 잡다한 일로 인해 기회를 잃고 말았으니, 마시고 쪼아 먹는 데에도 또한 운수가 있음을 비로소 알겠다. 남쪽을 바라봄에 서글픈 마음이 지극하였다.】

이 전한(李典翰)【수인(壽仁)】에게 답하는 편지

答李典翰【壽仁】書

삼가 생각건대 산재(山齋)가 깨끗하고 밝으며 지금의 날씨가 맑고 화창하여 보중(保重)하시는 가운데 도(道)를 음미하시는 일이 날로 참다울 것이니, 우러러 바라보는 마음이 어느 날인들 간절하지 않겠습니까? 연전에 나아가 보였을 때 올 봄에 산방(山房)에 조용히 나아가겠다는 뜻으로 말씀하셨으니, 기대한 지 오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듣건대 거듭 병을 앓으시어 성상의 소명(召命)이 여러 차례 이르렀음에도 달려가지 못하셨다고 하니, 예사로운 산방의 모임을 어찌 할 수 있겠습니까? 저 또한 평소 앓던 풍眩(風眩)¹⁴⁴²이 봄이 되자 다시 일어나 여름 전에 한 번 인사드리는 일을 점칠 수 없을 듯하니, 우러러보며 서글퍼하는 마음을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덕이 높은 분을 외람되어 모시고 깨우침과 가르침을 받드는 일을 이미 쉽게 이룰 수 없게 되었으니, 편지 한 통을 올려 지극한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여 고질적인 병통을 바로잡는 도구로 삼고자 생각하였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주 제념고 비루하다고 하여 굳게 거부하지 마시고 답장을 보내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어린 나이 때부터 비루하고 못한 자질을 헤아리지 않고 망령되어 이 일에 뜻을 두었으나 어리석어 힘을 쓸 방도를 알지 못하였으니, 마침내 이 학문의 본말과 오묘함이 지극히 심오하고 지극히 높아서 아득하여 헤아리기 어려운 가운데에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발꿈치를 하학(下學)의 일상적인 곳에 두지 않아¹⁴⁴³ 성정(性情)이 고원하여 행하기 어려운 지경으로 서

1442 풍眩(風眩) : 몸이 허한 때에 풍사(風邪)가 머리에 침습하여 생기는 어지럼증의 일종이다.

1443 발꿈치를……않아 : 원문의 ‘각근(脚跟)은 기초·기본·근저를 의미하는 말로, ‘발꿈치를 하학(下學)의 일상적인 곳에 두지 않았다.’는 것은 곧 학문의 기초·기본을 튼튼히 다지는 데 힘쓰지 않았다는 뜻이다. 《소학집주(小學集註)》 총론에서 주희(朱熹)가 “지금은 모두 소학의 공부를 놓치고 지나쳐 버려 다시 돌아가 공부할 수 없으니, 다만 지금의 처지에 의거하여 곧바로 머물러 발꿈치를 세워 정하고 공부해야 한다. 30세에 깨달았다면 곧 30세부터 발꿈치를 세워 정하고 공부를 하며 곧 나이 8, 9십 세에 깨달았다면 또한 마땅히 현재 처한 상황에서 공부해야 한다.[今都蹉過了 不能更轉去做 只據而今地頭 便筈住立定脚跟去做 如

로 치달려 저도 모르게 물외(物外)에 마음을 풀어놓는 노장(老莊)이나 텅 비고 적막한 데에서 마음을 노니는 불가(佛家)로 점차 흘러 들어갔습니다. 옆길과 굽은 길을 지나느라 발이 부르토고 허벅지에 알이 배겨 10여 년의 정력(精力)을 허비하고 강건한 시절을 흘려보내고 말았습니다. 나이가 점차 연로해지고 기운이 점차 쇠약해짐에 이른 뒤에야 ‘날은 저무는데 갈 길은 멀다’는 탄식¹⁴⁴⁴이 일어 비로소 병주(並州)는 실로 나의 고향이 아님을 깨닫고서¹⁴⁴⁵ 머리와 발걸음을 돌린 지 몇 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밝은 스승과 힘이 있는 벗으로서 앞장서서 지휘해 줄 사람이 없어 묵은 서적과 해진 종이만을 고집스레 지키고서 얻는 바가 없으니, 한밤중에 스스로 생각함에 저도 모르게 등에서 땀이 흐릅니다.

일찍이 듣건대 배움이 넓지 못한데 먼저 자기 몸을 단속한다면 선가(禪家)로 흐르고, 자기 몸을 단속하지 않고서 한갓 널리 배우기만 한다면 잡학(雜學)으로 흐른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여러 책을 널리 배우고 여러 이치에 모두 이르고자 하는데 총명함이 미치지 못하고 법도가 서지 않아 어지러운 생각이 쌓여 본원(本源)이 도리어 거칠어지니, 이러한 폐단을 징치(懲治)하여 실제적인 곳에 귀결시켜 지극히 고요한 경계에 오로지 힘을 쓰고자 한다면 체(體)는 있으나 용(用)은 없는 데로 흘러가기 쉬울까 염려스럽습니다. 어떻게 하면 잡학에 빠지지 않고 또 자기 몸을 단속하기만을 고수하지 않아 동정(動靜)이 서로 길러지고 본말이 서로 의지하여 전날의 더러운 습관을 통렬히 씻어내고 날로 새로워지는 걸음에 넉넉히 들어가 중도에서 해매

三十歲覺悟 便從三十歲立定腳跟做去 便年八九十歲覺悟 亦當據現在筭住做去”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1444 날은……탄식 :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시간이 없는 상황을 비유하는 말이다. 《사기(史記)》 권 66 <오자서열전(伍子胥列傳)에, 초나라 사람 오자서가 자신의 가혹한 복수를 질책하는 신 포서(申包胥)에게 “날은 저무는데 갈 길은 멀기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일을 거꾸로 행하며 하늘의 뜻에 반하는 일을 하였다.[吾日莫途遠 吾故倒行而逆施之]”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1445 병주(並州)는……깨닫고서 : 당(唐)나라 시인 가도(賈島)의 <도상건(渡桑乾)에, “병주의 나 그네살이 십 년이 지나도록, 밤낮으로 고향 함양에 돌아가고 왔어라. 무단히 다시금 상건수 물을 건너니, 돌아보매 병주가 바로 고향처럼 느껴지더라.[客舍并州已十霜 歸心日夜憶咸陽 無端更渡桑乾水 却望并州是故鄉]”라 하였다. 본래 타향이라도 오래 살아 정이 들면 고향처럼 느껴짐을 비유할 때 흔히 인용되는 대목인데, 여기서는 자신이 해 오던 학문 방식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깨달았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다가 알려지지 못하고 죽는 일을 면할 수 있으겠습니까? 바라건대 한 마디 번뜩이는 밝은 말¹⁴⁴⁶을 내려서 중요한 길을 열어 보여주신다면 종신토록 마음에 새겨 두겠습니다. 비록 그러하나, 먼저 병통에 걸린 이유를 안 뒤에 증상에 맞는 약제를 내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때문에 전후로 구구절절 숨김없이 다 말씀드린 것입니다. 살펴 헤아려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1446 한……말 : 원문은 ‘일전명언(一轉明言)’으로, 곧 ‘일전어(一轉語)’를 뜻한다. 일전어는 선가(禪家)에서 유래한 말로, 깨달음의 계기를 제공해 주는 한마디의 번뜩이는 어구를 말한다.

별록【당시 선생이 《심경(心經)》에 대해 질문한 내용을 덧붙임】

別錄【附時先生以心經質問】

전에 여쭙던 몇 가지 조목에 대해서는 꼭진하게 내려주신 정성스러운 가르침을 삼가 받들었습니다.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신 것이 마치 나침반이 남쪽을 가리키는 것과 같이 정확하였으니, 감사드리는 마음을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다만 그 사이에 한두 가지 다시 여쭙는 것이 있어 감히 번거롭게 해드립니다.

내려주신 성대한 가르침에서 ‘경(經) 1장은 비록 성현(聖賢)의 지극한 논의와 격언을 말하였으나 마음을 다스리는 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요지가 없다.’라 하셨으니, 이 부분은 참으로 그러합니다. 그러나 후학들이 융통성 있게 보지 못하여 혹 격치(格致)와 성정(誠正) 밖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요지를 별도로 구할까 두려우니, 이는 작은 병통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모르겠습니다.

그 깊은 부분에 나아가 논하자면, ‘명덕(明德)’이라는 것은 곧 《중용(中庸)》에서의 ‘하늘이 명한 성(性)’¹⁴⁴⁷이요, ‘명명덕(明明德)’이라는 것은 곧 ‘성을 따르는 것’¹⁴⁴⁸을 말함이며, ‘신민(新民)’은 곧 ‘도(道)를 품절(品節)해 놓은 가르침’¹⁴⁴⁹의 효험이고, ‘격치’라는 것은 곧 성찰(省察)하는 일로서 순(舜) 임금의 말한 ‘유정(惟精)’이요, ‘성정’이라는 것은 곧 존양(存養)하는 공부로서 순 임금이 말한 ‘유일(惟一)’입니다.¹⁴⁵⁰ 또 《중

1447 《중용(中庸)》에서의……성(性) : 《중용장구》 제1장에 “하늘이 명한 것을 성(性)이라 한다.[天命之謂性]”라 하였다.

1448 성을 따르는 것 : 《중용장구》 제1장에 “성(性)을 따름을 도(道)라 이른다.[率性之謂道]”라 하였다.

1449 도(道)를……가르침 : 《중용장구》 제1장에 “도(道)를 품절(品節)해 놓음을 교(教)라 이른다.[修道之謂教]”라 하였다.

1450 격치라는…… ‘유일(惟一)’입니다 : ‘성찰(省察)’은 자신의 사욕을 살펴 이를 막는 것을 이르며, ‘존양(存養)’은 마음을 보존하여 성을 기르는 것[存心養性]을 이른다. 《중용장구》 제1장에, “군자는 보지 않는 데에도 삼가며, 듣지 않는 데에 두려워한다.[君子 戒慎乎其所不睹 恐懼乎其所不聞]”라 하였는데 이는 정(靜)할 때의 존양공부를 말한 것이며, “숨겨진 것보다 드러남이 없으며 작은 일보다 나타남이 없으니, 그러므로 군자는 혼자만 이는 마음속에서 일

용》의 ‘중(中)과 화(和)의 지극한 경지를 이루면 천지가 제자리를 찾고 만물이 제대로 길러진다.’는 것¹⁴⁵¹은 곧 《대학(大學)》의 ‘평천하(平天下)’의 지극한 공입니다. 그러나 경 1장의 마음을 다스리는 요지가 《중용》 첫 장과 일체 차이가 없어 위로 요순(堯舜)의 뜻에 부합하는 것을 이와 같이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서산(西山)¹⁴⁵²이 취사한 뜻에 우연히 의문 나는 점이 있었으므로 지난번에 우러러 여쭙었던 것인데 내려주신 성대한 가르침에 “별도의 요지가 없다.”고 말씀하셨으니, 저의 의혹이 한층 깊어짐을 더욱 면치 못하겠습니다. 이는 자신에게 있는 큰 근본이 밝지 못하여 이치를 살필 때에 보는 것이 투철하지 못하므로 이와 같이 의아해 하는 병통이 있게 된 것에 불과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가르침을 내려 저의 어리석은 의혹을 해소해 주심이 어땠겠습니까?

내려주신 성대한 가르침에, “순 임금의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이치를 아셨기 때문에¹⁴⁵³ ‘집중(執中)’이라는 두 글자를 가지고 전하셨으나, 우(禹) 임금은 배워서 이치를 아신 성인(聖人)¹⁴⁵⁴이기 때문에 공력(功力)을 쓰는 차례를 가지고 전하신 것이다.”¹⁴⁵⁵라 하신 말씀은 참으로 이전 사람들이 밝히지

어는 생각을 삼가는 것이다.[莫見乎隱 莫顯乎微 故君子慎其獨也]라 하였는데 이는 동(動)할 때의 성찰공부를 말한 것이다. 주희(朱熹)는 이 부분을 “존양성찰의 요점(存養省察之要)이라 해석하였다. 또 ‘유정(惟精)’과 ‘유일(惟一)’은 정밀하게 살피고 전일하게 행해야 한다는 뜻으로, 순 임금이 우(禹)에게 제위를 선양하며 “인심은 위태하고 도심은 은미하니, 정밀하고 전일해야 진실로 그 중도를 잡을 것이다.[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書經 大禹謨》

1451 《중용》의……것 : 《중용장구》 제1장에 “중과 화의 지극한 경지를 이루면 천지가 제자리를 찾아 편안하고 만물이 제대로 길러질 것이다.[致中和 天地位焉 萬物育焉]”라 하였다.

1452 서산(西山) : 송나라 학자 진덕수(眞德秀, 1178~1235)를 말한다. 서산(西山)은 그의 호. 자는 경원(景元),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심학(心學)의 요지가 되는 성현의 격언을 모아 《심경(心經)》을 편찬하였다.

1453 태어나면서부터……때문에 : 원문은 ‘생지(生知)’다. 태어나면서부터 이치를 아는 성인(聖人)의 자질을 말한다. 《중용장구》 제20장에, “어떤 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이치를 알고, 어떤 이는 배워서 알고, 또 어떤 이는 많은 노력을 한 뒤에야 안다.[或生而知之 或學而知之 或困而知之]”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1454 배워서……성인(聖人) : 원문은 ‘학이지지성(學而知之聖)’이다. 배움을 통해 이치를 깨달아 성인(聖人)의 경지에 오른 인물을 말한다.

1455 순 임금은……것이다 : ‘집중(執中)’은 중도(中道)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순 임금은 태어나면서부터 이치를 안 성인이기 때문에 요(堯) 임금이 그에게 제위를 선양하면서 ‘집중(執中)’

못하였던 바이니, 몹시도 흠양하고 탄복합니다. 다만 ‘집중’이라고 한 것이 또한 ‘선(善)을 택하여 굳게 지킨다.’는 말 뒤에 있으니,¹⁴⁵⁶ 요 임금이 순 임금에게 고하신 것¹⁴⁵⁷은 유독 공력을 쓰고 힘써 행하는 일이 아닙니까?

근래 생각을 거듭하여 또 하나의 설을 얻었으니,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천도(天道)의 지극히 정성스러움은 곧 성(性)의 큰 근본이요 전체입니다. 이른바 미발(未發)하였을 때의 혼연한 하나의 이치는 실로 힘쓰기를 생각하고 공력을 쓴다고 해도 미칠 수 없는 곳이므로 성인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막 발(發)한 뒤에 이르러 인심(人心)과 도심(道心)의 기미가 이에 나누어지니, 이른바 ‘정일(精一)’과 ‘집중(執中)’의 공력이 여기에 이르러 배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순이 말하여 움직이는 때의 공력을 쓰는 처음을 따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대저 성인이 학문을 말씀하실 적에 말하여 움직이는 곳을 따라 공력을 더한 부분이 많으니, 공자(孔子)가 안자(顏子)에게 ‘극기복례(克己復禮)’로 고해 주신 부분¹⁴⁵⁸이 또한 그 증거입니다. 깊이 생

이라는 말만을 전수하였고, 우 임금은 배워서 이치를 안 성인이기 때문에 순 임금이 그에게 제위를 선양하면서 공력을 쓰는 차례를 가지고 전수한 것이라 말한 것이다. 《중용장구》 서문에, “경(經)에 보이는 말 중에 ‘진실로 그 중(中)을 잡으라.’라 한 것은 요 임금이 순 임금에게 전수(傳授)해 주신 것이요, ‘인심(人心)은 위태롭고 도심(道心)은 은미(隱微)하니, 정밀하게 하고 한결같이 하여야 진실로 그 중을 잡을 수 있다.’라 한 것은 순 임금이 우 임금에게 전수해 주신 것이다. 요 임금이 한 마디가 지극하고 극진한데 순 임금이 다시 세 마디를 보탠 것은, 요 임금이 한 마디는 반드시 이와 같이 한 뒤에야 실천할 수 있음을 밝히기 위함이다.[其見於經 則允執厥中者 堯之所以授舜也 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者 舜之所以授禹也 堯之一言 至矣盡矣 而舜復益之以三言者 則所以明夫堯之一言 必如是而後可庶幾也]”라 한 대목이 보인다.

1456 집중이라고……있으니 : 《중용장구》 서문에, “천명(天命)·술성(率性)이라 말씀하신 것은 도심(道心)을 이룸이요, 택선(擇善)·고집(固執)이라 말씀하신 것은 정일(精一)을 이룸이요, 군자(君子)·시중(時中)이라 말씀하신 것은 집중(執中)을 이룬다.[其曰天命率性 則道心之謂也 其曰擇善固執 則精一之謂也 其曰君子時中 則執中之謂也]”라 하여, ‘집중’을 ‘선(善)을 택하여 굳게 지킨다[擇善固執]’는 말 뒤에 둔 것을 말한다.

1457 요 임금이……것 : 요 임금이 순에게 제위를 선양하며, “아, 너 순아, 하늘의 역수(曆數)가 너의 몸에 있다. 진실로 중(中)을 잡을지이다. 사해가 곤궁하면 하늘의 복록이 영원히 끊어질 것이다.[咨爾舜 天之曆數在爾躬 允執其中 四海困窮 天祿永終]”라 한 것을 말한다. 《論語堯曰》

1458 공자(孔子)가……부분 : 안연(顏淵)이 인(仁)에 대하여 묻자, 공자가 이르기를 사욕을 극복하여 예로 회복하는 것이 인을 행함이니, 하루라도 사욕을 극복하여 예로 회복한다면 천하가 그 인을 허여할 것이다.[克己復禮爲仁 一日克己復禮 天下歸仁焉]”라 한 것을 말한다. 《論

각하여 이와 같은 견해에 이를 수 있었는데, 이러한 설에 과연 병통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그 본뜻에 가깝겠습니까?

또 생각건대, 주자(朱子)께서는 “《대학》의 도는 비록 태어나면서부터 이치를 아신 옛날 대성인(大聖人)이라도 또한 여기에서 배우지 않은 적이 없었으니, 요순이 제위를 서로 주고받을 적에 ‘정밀하고 전일해야 진실로 그 중도를 잡을 것이다.[惟精惟一允執厥中]’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라 하셨습니다.¹⁴⁵⁹ 이를 통해 미루어보건대, 비록 태어나면서부터 이치를 알아 편안히 행하는¹⁴⁶⁰ 성인이라 하더라도 또한 일찍이 선(善)을 택하여 굳게 지키는 학문에 마음을 쓰지 않은 적이 없었던 것입니까?

내려주신 성대한 가르침에, “애공(哀公)이 정사(政事)를 물은 것은 대개 치도(治道)가 어떠한지 물은 것이었고 공자의 대답 또한 천하와 국가를 다스리는 방법을 가지고 말한 것이니,¹⁴⁶¹ 어찌 안연(顏淵)이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을 물은 것¹⁴⁶²을 보지 않는가?”라 하셨으니, 이는 참으로 그러합니다. 다만 안자의 물음에 대해서는 다스림의 대개가 이와 같음을 범범하게 논하셨을 뿐이니, 군신(君臣) 간의 정사에 대한 문답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범범하게 논해서는 안 될 듯합니다. “과인(寡人)은 실로 고루하여 이것을 행하기에 부족합니다.”¹⁴⁶³는 등의 말뜻을 통해 보건대 당시에 행할 만한

語 顏淵》

1459 주자(朱子)께서는……하셨습니다 : 《회암집(晦庵集)》 권13 <계미수공주차 일(癸未垂拱奏筭一)에 나오는 대목이다.

1460 편안히 행하는 : 원문은 ‘안행(安行)’이다. 태어나면서부터 이치를 알아 편안한 마음으로 행하는 성인(聖人)의 자질을 말한다. 《중용장구》 제20장에, “어떤 이는 편안히 행하고, 어떤 이는 이롭게 여겨서 행하며, 어떤 이는 억지로 행하지만, 공을 이루는 점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이다.[或安而行之 或利而行之 或勉強而行之 及其成功 一也]”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1461 애공(哀公)이……것이니 : 《중용장구》 제20장에 노(魯)나라 애공(哀公)이 정사(政事)에 대해 묻자 공자가 대답한 내용이 보인다.

1462 안연(顏淵)이……것 : 《논어》 <위령공(衛靈公)에, “안연(顏淵)이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을 물었는데, 공자께서 말씀하기를 ‘하나라의 달력을 사용하며 은나라의 수레를 타며 주나라의 면류관을 쓴다.’ 하였다.[顏淵問爲邦 子曰 行夏之時 乘殷之輅 服周之冕]”라 한 부분을 말한다.

1463 과인(寡人)은……부족합니다 : 《중용장구》 제20장 주석에, 《공자가어(孔子家語)》의 “애공(哀公)이 말하기를 ‘선생의 말씀이 아름답고 지극하나, 과인은 실로 고루하여 이것을 이루기에 부족합니다.’ 하였다.[公曰 子之言 美矣至矣 寡人實固 不足以成之也]”라는 부분이 인

일로 고하였음을 더욱 알 수 있습니다. 알지 못하겠습시다만 어떻게 생각하
십니까?

용되어 있다.

이생(李生)【유인(有仁)】에게 주는 편지

與李生【有仁】書

누추하고 궁벽한 곳에 거듭 방문해주시고 또 지은 글을 보여 주시니, 배움에 대한 뜻이 두텁고 논의가 넓음을 흠모하고 공경합니다. 기본이 이와 같으니, 수립하는 것의 어려움을 어찌 근심하겠습니까? 몹시 탄복할 따름입니다. 다만 세상에서 이 일을 하는 자는 두 가지 병통이 있습니다. 마음 지키기만을 전적으로 하는 자는 문자를 천하게 여기고 언사(言辭)를 풍부하게 하는 자는 본체를 소홀히 여기니, 이는 고금의 공통되는 근심입니다. 초학자는 다만 마땅히 옛 사람이 이루어 놓은 법을 준수하고 법도를 어기지 않아 견문을 넓히고 몸소 실천하며 몸소 실천하고 마음과 몸을 밝게 한 뒤에야 말을 하고 글을 이루어 선현(先賢)들에 부합하고 후세에 모범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육경(六經)의 전술(傳述)이 천하를 두루 방문한 뒤에 이루어졌고¹⁴⁶⁴ 두 책의 장구(章句)가 기유년(1189년)에 지어졌던 것¹⁴⁶⁵이니, 도(道)가 무르익고 덕(德)이 이루어진 때에 말을 세운 것은 도가 행해지지 않은 뒤에 지은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한 글자라도 혹 잘못되어 후세 사람을 그르칠까 염려하였기 때문입니다. 비루하고 못한 견해로 평소 정한 것이 이와 같기 때문에 이에 감히 대략 언급하였습니다.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어진 그대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말에 병통이 있다면 깨우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대가 지은 글 가운데 두세 군데 의문이 있는 곳에 모두 먹을 칠하여 표시하거나 각주를 달아 두었습니다. 비루한 견해가 맞는지 틀린지를 또한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찾아와 주신 데 감격하여 광망함과 경솔함이 이러한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니, 몹시도 부끄럽습니다. 봄이 저물기 전에 혹 직접 만나서 물을 수 있겠습니까?

1464 육경(六經)의……이루어졌고 : ‘육경(六經)’은 유가(儒家)의 여섯 가지 경서를 말한다. 곧 《시경(詩經)》·《서경(書經)》·《예기(禮記)》·《악기(樂記)》·《역경(易經)》·《춘추(春秋)》로, 공자가 천하를 주유한 뒤인 말년에 편찬하였다고 전해진다.

1465 두……것 : 주희(朱熹)가 60세 되던 1189년에 《대학장구》와 《중용장구》를 완성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주희는 《대학장구서》와 《중용장구서》를 각각 1189년 2월과 3월에 작성하였다.

문생(文生)¹⁴⁶⁶【사고(師古)】에게 주는 편지

與文生【師古】書

눈 속을 헤치고 찾아와 주신 일이 마치 어제의 일과 같습니다. 가르쳐 주시고 돌아봐 주시는 사이에 봄날이 이미 화창해졌는데, 이러한 때에 또 안부를 묻는 편지를 받고서 산 위의 높은 재(齎)에서 날마다 맑은 수양이 있음을 알게 되었으니 저로 하여금 머리를 들고 정신이 향하도록 합니다.

말씀하신 성복(成服)¹⁴⁶⁷하였을 때의 제사는 예(禮)에 비록 별도로 마련된 글이 없기는 하나 조전(朝奠)은 습속을 따라 설행하더라도 정리(情理)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듯합니다.

어육(魚肉)을 날것으로 쓰는 문제는 아마도 울곡(粟谷)을 따르는 것이 옛 뜻에 부합하는 것일 듯한데, 사계(沙溪)¹⁴⁶⁸와 같은 분계서도 또한 습속이 오래되어 바꾸기 어렵다는 뜻을 면치 못하셨으니,¹⁴⁶⁹ 하물며 그 아래에 있는

1466 문생(文生) : 문사고(文師古, 1637~1701)를 가리킨다. 본관은 남평(南平)이다. 부모의 상(喪)에 효성을 다하였으므로 효자로 이름이 났으며, 학문에도 힘을 쏟았다.

1467 성복(成服) : 상례에 있어서 대렴(大斂)을 마친 다음 날 복(服)에 따라 상복(喪服)을 입는 것을 말한다.

1468 사계(沙溪) : 김장생(金長生, 1548~1631)을 가리킨다. 사계(沙溪)는 그의 호. 본관은 광산(光山), 자는 희원(希元)이다. 이이(李珣)의 문인이다. 1578년에 학행(學行)으로 천거되어 창릉 참봉(昌陵參奉)이 된 뒤 정산 현감(定山縣監), 호조 정랑, 안성 군수(安城郡守), 형조 참관 등을 역임하였다. 예학(禮學)에 조예가 깊어 《상례비요(喪禮備要)》, 《가례집람(家禮輯覽)》, 《전례문답(典禮問答)》, 《의례문해(疑禮問解)》 등의 저술을 남겼다.

1469 어육(魚肉)을……못하셨으니 : 《사계전서(沙溪全書)》〈의례문해(疑禮問解)·시제(時祭)〉에, “《주자가례(朱子家禮)》에서 말한 어육(魚肉)은 생어육입니까? 울곡(粟谷)은 생어육을 썼는데, 이를 따라서 행해도 무방합니까? [家禮 魚肉是生魚肉否 粟谷用生 遵此行之 無妨否]”라는 송준길(宋浚吉)의 물음에 대해, 김장생이 “《주자가례》에서 이른바 어육은 생어육이 아니라 바로 어탕(魚湯)과 육탕(肉湯)이네. 울곡이 생어육을 쓴 것은 비록 《서의(書儀)》에 근거한 것이지만, 《의례》饋食禮와 다르기에 일찍이 집안 어른께 질문하고 우계(牛溪)께도 질문하였더니, 답하기를, ‘생어육과 숙어육(熟魚肉)을 함께 섞어 쓰는 것이 비록 고례이기는 하지만, 《주자가례》에 이르러서는 주자께서, 「연기(燕器)로써 제기(祭器)를 대신하고, 상잔(常饌)으로써 조육(俎肉)을 대신한다.’라 하셨으니, 생어육을 쓰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하였네. [家禮所謂魚肉 非生魚肉也 乃魚湯肉湯也 粟谷之用生 雖本於書儀 儀饋食禮不同 嘗質于家庭 問于牛溪 答曰 參用生熟 雖是古禮 至於家禮 則朱子曰 以燕器代祭器 常饌代俎肉 則不用生 明矣]”라 하여, 제사에서는 생어육을 쓰지 않는다고 답한 내용이 보인다. 다만 그가 생어육을 쓰는 문제에 대해 습속이 오래되어 바꾸기 어렵다고 한 내용에 대

자에 있어서이겠습니까?

기름으로 지진 음식은 예를 따라야 함을 의심할 것이 없으니¹⁴⁷⁰ 예를 좋아하는 선비가 속세의 논의에 흔들리지 않는다면 누가 감히 시비하겠습니까?

홀(笏)을 잡는 예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옛날에 선비는 대나무 홀을 사용하였으니 임금과 어른을 섬길 때 항상 이를 사용하였습니다.¹⁴⁷¹ 지금 세속에서는 부모를 섬길 때 살아계실 적에 이미 이러한 의절(儀節)이 없으므로 율곡께서 간략함을 따르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축문(祝文)을 사르는 문제는 마땅히 주자(朱子)를 따르는 것이 옳으니, 《집설(集說)》을 따라서는 안 될 듯합니다.¹⁴⁷²

어제 선친의 기일에 곡을 하였기에 병든 정신이 다 소모되고 마음이 아득합니다. 급하게 쓰느라 격식을 갖추지 못합니다.

해서는 미상이다.

1470 기름으로……없으니 : 《의례주소(儀禮注疏)》〈기석례(既夕禮)〉에, “전물(奠物)로 쓰는 가루 음식[糗]은 모두 기름으로 지지지 않는다.[凡糗不煎]”라 하였고, 이에 대한 주에 “기름으로 지지면 지저분하게 되므로 공경하는 것이 아니다.[以膏煎之 則褻非敬]”라 한 내용이 보인다.

1471 홀(笏)을……사용하였습니다 : ‘홀(笏)’은 천자 이하 제후·대부·사가 조복을 입거나 제례 등을 올릴 때 손에 드는 판이다. 《예기(禮記)》〈옥조(玉藻)〉에 홀의 제도를 말하면서 “천자는 옥을 사용하고, 제후는 상어를 사용하며, 대부는 물고기 수염으로 꾸민 대나무를 사용하고, 사(士)는 밑을 상어로 꾸민 대나무를 사용한다.[天子以球玉 諸侯以象 大夫以魚須文竹 士竹本象 可也]”라 하였다.

1472 축문(祝文)을……듯합니다 : 《주자가례(朱子家禮)》〈통례(通禮)·사당(祠堂)〉에, “무릇 축판은 길이가 1척, 높이가 5촌 되는 판을 사용해 만드는데, 종이에 글을 써서 그 위에 붙이고, 의식이 끝나면 떼어 내어 불에 태운다.[凡言祝版者 用版長一尺 高五寸 以紙書文 黏於其上 畢則揭而焚之]”라 하였다. ‘집설(集說)’은 명나라 풍선(馮善)이 지은 《가례집설(家禮集說)》을 가리키는 듯하다.

정처직(鄭處直)¹⁴⁷³에게 부치는 편지

寄鄭處直帖

요즈음 평소 한가하게 지내시는 체후를 진중히 하고 계십니까? 듣건대 어제 공들이 거문고를 가지고 함께 노래 부르며 월연대(月延臺) 위에서 성대한 모임을 가지셨다고 하니,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과연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까? 국상(國祥)¹⁴⁷⁴이 바로 이 달에 있어 군부(君父)께서 아직 담복(禫服)¹⁴⁷⁵을 입고 계신데, 신민(臣民)이 된 자가 높은 곳에 올라 음악을 연주한다면 온당치 못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처(私處)에 있더라도 오히려 해서는 안 될 일인데, 하물며 전패(殿牌)¹⁴⁷⁶를 봉안하는 읍부(邑府)에 있어서 이겠습니까? 해서는 안 될 일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공들은 평소에 원래 마음을 다하고 독실하게 행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나이가 이미 연로하였으니, 말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재(齋) 안의 신진(新進)으로서 배움에 뜻을 둔 사람들이 반드시 공들을 모범이 되는 선진(先進)으로 여길 것이요, 이러한 일 또한 반드시 본보기로 삼을 것이니, 이는 경계하고 두려워할 지점이 아니겠습니까? 비루한 제가 공들에 대해 소회가 있어 굳이 이와 같이 고하였으니, 바라건대 주제님과 경술한 점에 대해 노여워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1473 정처직(鄭處直) : 정지(鄭檣)를 가리킨다. 자세한 사항은 미상이다.

1474 국상(國祥) : 국상(國喪)의 소상(小祥)이나 대상(大祥)을 뜻하는 말로, 여기서는 효종(孝宗)의 대상을 가리킨다.

1475 담복(禫服) : 대상(大祥)을 치른 다음 달 하순의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에 지내는 담제(禫祭) 때 입는 옷을 말한다.

1476 전패(殿牌) : 각 고을의 객사(客舍)에 봉안한 '전(殿)' 자를 새겨 세운 나무패다. 임금을 상징하는 것으로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관리 전부가 모여 배례(拜禮)하였다. 훼손이나 모독하면 불경(不敬)으로 처리되어 당사자는 물론이고 수령(守令)과 그 고을까지 처벌당하였다.

정씨(鄭氏)【세륜(世綸)】에게 답하는 편지

답鄭【世綸】書

그대의 나이가 아직 성동(成童)이 되지 않았는데 몸을 가다듬고 마음을 바르게 하여 부모를 섬기고, 그 부모를 섬겨 천지가 사람에게 부여한 이치에 도달하며, 더구나 부모가 질병에 걸린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책망하고 스스로 경계하여 배움을 두터이 하고 몸을 바로 세우는 근본으로 삼을 줄 아니, 기질의 아름다움과 심지(心志)의 순수함을 아름답게 여기고 훌륭하게 여길 만한 것이 이와 같습니다. 이로 인하여 뜻을 세우고 배움을 부지런히 하고 힘써 행하여 원대한 데까지 이른다면, 성현(聖賢)이 되는 일은 이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요 경공(卿公)이 되는 일 또한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대는 힘쓰십시오.

만약 이러한 자질을 가지고서 배움에 힘쓰지 않고 이러한 뜻을 가지고서 행하기를 부지런히 하지¹⁴⁷⁷ 않는다면 반드시 시골의 수준 낮은 사람이 됨을 면치 못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세월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다려 주지 않으니,¹⁴⁷⁸ 그대는 힘쓰십시오.

마음을 평안히 하고 기운을 고르게 하여 그 자질을 고요히 기르고 책상자를 짊어지고서 학문을 이룬 이에게 속히 의탁하기를 저는 날마다 바랍니다.

임인년(1662, 39세) 12월 20일, 남교(南郊)의 병든 이는 쓰다.

1477 부지런히 하지 : 원문은 ‘동(動)’인데, 문맥을 살펴 ‘근(勤)’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1478 세월은……않으니 : 《논어》〈양화(陽貨)〉에, “세월은 흘러가는 것이라 나를 위해 기다려주지 않는다.[日月逝矣 歲不我與]”라 하였고, 주희(朱熹)의 〈권학문(勸學文)〉에, “오늘 배우지 않고 내일이 있다고 말하지 말며 올해 배우지 않고 내년이 있다고 말하지 말라. 세월은 흘러가는 것이라 나를 기다려 주지 않으니, 아, 늙었구나, 이것이 누구의 허물인가.[勿謂今日不學 而有來日 勿謂今年不學 而有來年 日月逝矣 歲不我延 嗚呼老矣 是誰之愆]”라 하였다.

윤군(尹君)【선삼(先三)】 및 문생(文生)【팔주(八柱)], 조카 정씨(鄭氏)【세경(世經)】 등에게 주는 경계의 편지
與尹君【先三】暨文生【八柱】鄭侄【世經】等戒書

그대들은 시골 사람과 어울려 살고 서로 접하여 일찍이 이 일을 한 적이 없었으니, 오늘부터 시작하여 삼가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향당(鄉黨)에서는 화목함을 위주로 삼고 남을 대할 때는 공경함을 위주로 삼아야 하니, 화목하면 습속이 점차 충후(忠厚)해지고 공경하면 남들 또한 나를 공경하게 됩니다. 함께 있을 때 비록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나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노기를 얼굴에 드러내거나 말에 성난 기운을 드러내어 한 고을 안의 풍광을 격하게 이루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과 마음을 풀어놓고¹⁴⁷⁹ 희학(戲謔)을 일삼아서는 안 되며, 또한 다른 사람과 다름을 너무 드러내서도 안 됩니다.

편지를 쓸 때는 서로 논란(論難)하기를 힘쓰고 한가할 때에는 함께 좋은 이야기를 해야 하니, 세상의 일을 언급하고 시비를 다투어 논하여 남에게 이기기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서책과 필묵 및 침구류 따위에 이르러서도 또한 각자 자신의 것을 단속해야 하니, 다른 사람들의 것과 섞어서 함께 두어 혐의의 단서를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음식이 비록 혹 극진하지 않더라도 또한 스님들을 대뎌¹⁴⁸⁰ 꾸짖거나 성을 내서는 안 됩니다.

왕래할 때에는 고삐를 나란히 하고 채찍을 함께하여 질서정연하게 차례를 두어야지, 앞서거나 뒤처지거나 하여 거리가 떨어지거나 나란하지 않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몇 마디의 말은 모두 아끼는 지극한 정에서 나온 것이니, 높고 졸렬하며 쓸모없는 사람의 헛소리라 치부하지 말고 깊이 단속하여 행한다면 그

1479 풀어놓고 : 원문은 '경(敬)' 인데, 문맥을 살펴 '방(放)' 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1480 대뎌 : 원문은 '거(據)' 인데, 문맥을 살펴 '거(遽)' 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대들의 실제 행동에 또한 작은 도움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편지를 정 처직(鄭處直) 군에게도 전해 드려 임인년(1662, 39세)의 일을 기억하도록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¹⁴⁸¹

을사년(1665, 42세) 6월 그믐날 쓰다.

1481 이……있겠습니까 : ‘정처직(鄭處直)’은 정지(鄭檣)를 가리킨다. 김만영은 정지가 효종의 국상(國祥)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벗들과 월연대(月延臺)에 올라 음악을 즐긴 일을 알고 편지를 보내 그를 책망한 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남포집》 권4 〈기정처직첩(寄鄭處直帖)〉 참조.

원문
原文

南園集

卷之首

南圃集 卷之首

南圃先生集後序[金裕憲]

箕子洪範言無偏無黨。言無有淫朋。蓋三致意焉。東人祖箕子。史稱仁賢之化。而朋黨之論。莫盛於我國。滔滔一國。殆無出於平蕩正直之路者。抑獨何哉。錦城金君明叟示其先祖南圃先生遺集。集僅二冊。詩文書疏記事若干篇。而其言議之公正。氣像之廣大。殆近世文字之所未見。嗚呼。先生真可謂特立豪傑之士矣。孝顯之際。黨論益橫。賢者亦未免褻裳而趨之。先生於是時。講道林樊。華聞大彰。各立門戶者。無不欲藉公左右而輕重焉。先生挺然獨立。不偏不倚。論議之間。惟正是與。不知者譁然如見蜀日。而公論亦以此多之。公卿大夫交口尉薦之。弓旌之招。累及衡門。盛矣哉。非廓然大公無一毫私好。惡有以服人之心者能如是乎。其存心如是。故發之詩文者。皆悠然自得。與物熙熙。有沂水舞雩之氣像。經世通典。簡要而廣大。纖悉而均平。上可追周官六典之意而下不失爲府衛兵農之制。萬言一疏。尤惓惓於民生之休戚。而其究則以君上一心。爲位天地育萬物之本。雖其遇遯嘿嘿。緘封骨髓。而芻中所存。槩可見矣。嗚呼。言者心之發而文尤其著者也。此心一蔽於偏黨則是非闇而議論狹。雖粉飾藻繪以揜之。具眼者豈有不卞者哉。周子曰明則通公則溥。先生其庶幾乎。先生雖不用於時。先生之書。必傳於後。明叟其俟之。辛卯孟夏。知製教石陵金裕憲謹書。

南圃先生集新刊跋[韓用幹]

昔司馬遷作伯夷傳。歎由光義至高。文辭不可概見。曰巖穴之士。趨捨有時。若此類名湮沒而不稱悲夫。韓昌黎送徐無黨南歸序。亦嘆學者慕古聖賢。勤一世而盡心文字之間。終歸於泯滅爲可悲。余以爲斯言皆因激感於高人志士之沒世名不稱而發也。未嘗不喟然歎也。余間佩綿城紱。赴任未幾。金承宣稚問馳書於余曰。故洗馬南圃金先生。當顯肅之間。藥泉相公繡衣時。別單褒薦。其後自上問人才於藥泉相。對以前薦金某尚未用。卽除教官。明齋集亦亟稱誦。本集中南遊記聞及送林士駕序可按也。仍送南圃先生五世孫亮國甫曰。此雅亦絕佳如玉。殆南來所未見之人。要其款接。余遂揖迎金雅。紱寒暄畢。金雅手擎南圃先生遺集二局屬余以序跋。余跪而受。盥手敬玩。繙閱其首末。其詩溫雅簡淡。有濂洛風雅之意。其文典重華瞻。有歐蘇巨麗之風。其經術本之考亭而間多發前未發。其經綸觀乎萬言一疏。殆類賈生之治安策。惓惓於君心之正時弊之求。婉曲惻怛之意。溢於辭表。至於經世通典。亦類周禮之六典。井井有條。鑿鑿中窾。其南郊日記。無非存心養性修身潔行之自警編。而其論朋黨之偏曰文如韓，范。學如程，朱。若或拘繫於今之偏黨。其人不足觀。於此可知其爲高世卓立之君子也。然而逸士山潛。隱居行義。雖有旌招而尙志不起。奚但爲一鄉之善士。可以爲後世之師表。而遯跡遐陬。藏名陋巷。未克顯揚。可慨也已。先生曾覽圃隱集。自歎其生於海隅偏鄉。百年之後同歸於草木之泯滅。而感圃隱立不朽之名。余於是知先生之悲者。最在於不能傳名。故爲紱子長，退之之言而略書先生志行文字之槩。以歸于金雅。且以一語復于金雅曰。泉有本則必達。玉有蘊則必輝。先生之名。待斯集之刊行。知其必彰。子盍謀其剗剗。以彰先生之名。子其勉諸。辛卯端月下澣。綿城宰韓用幹謹跋。

南圃先生集舊跋[李玄逸]

湖南徵士南圃先生金公既沒二十有八年。其門人羅諫議晚成訪余于京邸。致其遺文三卷。既又述其平生行義事終始而言曰。先師資稟勁特。氣調清爽。年才毀鬣。言語舉止異凡兒。年十二三。受大學中庸。日有開益。一日稟於其父松湖公曰士之責任甚大。豈可營營名利間。斲而少之。古人有言曰寧學聖人而不至。不以一善成名。此最可法也。遂作圖若說。揭之左右以自警省。及年十四五。長老見之者。莫不稱歎。目之以成德君子。朝紳之銜命過州境者。亦多就見之。家世不幸。病瘵死者十餘人。松湖公又嬰其疾。先生涕泣晝夜侍。不解衣視湯。及松湖公沒。事有至難。不可以常理言者。先生於是未能卽乎其心之安。先生既獨子無兄弟。時年才十八歲矣。平生以爲至痛。常曰吾賦命奇薄。遭喪不能盡吾心。天地間一罪人也。不如爲農圃以沒世。因寓居南平之先墓下。扁其堂曰明農。自號南圃病逸。潛心聖賢書。有會心處。輒書之冊。有時閉目默坐。做存養謹獨之工。鄉里少年有來學者。各因其才。諄諄教誨。嘗語學者曰人能收拾身心。不爲外物所誘奪。則自然志氣清明。聖賢樂處可尋。學者所務。豈在記誦詞章間耶。先生尊信退陶先生之學。持身一以居敬爲主。嘗曰孔顏所授受。乃在視聽言動之間。制乎外所以養其中也。安有外放肆而內靜專者乎。時有安邦俊者。以僻學左見袒臂號於一世。分節義道學爲兩歧。著牛山問答數千言。譏斥先賢不遺餘力。游其門者翕然信之。先生憂其說之肆行。乃作質疑書以明其不然。邦俊心嚙之。其徒譁然攻斥不已。先生雖杜門却掃。未嘗求知於人。而華聞日彰。旌招累至。先生皆不就。己亥春孝廟下教求言。先生擬上一疏。本之以誠意正心。推之以及當世之務。揆著不吉而止。自是除命屢下而終不起。鄉中子弟來學者甚衆。闢三齋以處之。嚴立科條。倣白鹿洞遺意。出入門下者。亦多異論。家子弟或請謝遣之則曰。經傳是聖賢公言。我幸先得其糟粕。以誠心來學。何忍拒之。時號宗匠儒林者。來在近境。欲與相見。辭以病終不往。其門生子弟嫉惡之已甚。飛

言造謗。勒成罪案。使不得容身。先生喟然曰此輩啣憾有素。誣毀人若是。吾當謹避之。遂挈家來居于羅州故里。杜門屏跡。益無意於當世。而州中來學者踵相尋。亦不謝遣。立科程教誨之一如南平時。先生襟懷坦蕩。未嘗有崖異之行。而趨時赴勢之徒。自相廝捱排擯傾軋。無所不至。先生不以爲意。好學之篤。終始如一日。教授生徒。亶亶忘倦。座隅置一張琴。有時揮絃度曲。悠然有三代上想。處稠人廣坐中。風標俊爽。論議英發。雖麤悍凡流。每對之未嘗不斂衽起敬。於書無所舐滯。雖肯綮難解處。人或就正。莫不渙然冰釋。於當世之務。亦皆經心理會。嘗著經世通典一部書。論士農工商兵僧措置之宜。亦可見其未嘗忘世也。蓋其平生所樹立。章章如是。而世道日下。知德者稀。又爲不悅者所齟齬。使是非邪正。幾於溷殺。不有君子稱述而表章之。其何以昭示來世。覆露其後嗣哉。茲敢再拜以請于執事。惟公幸哀而賜之一言。則泉壤之下。必將訢然而笑。以爲世界有知我者矣。玄逸生並一世。清濁異流。雖未及識公。据其狀讀其書。亦足見其立心制行之高。好學樂善之誠。扶正議接後進之功。方欲摭其實。直書其事。適會此禡。削職投荒。不敢更有意筆硯間。迺者獲蒙恩宥。撤棘南遷。公之外孫羅君景聖一再見訪。復申羅諫議前日之請。余惟諫議之狀。該悉明白。不必更着佛頭之糞。且余罪戾之餘。疾病摧頽。無復心力可供此役。惟是兩君勤懇之意。不可以不答也。因書此于行狀之後以歸之。上之二十四年戊寅正月十八日甲午。載寧李玄逸書。

南園集卷之一

五言絕句

五言絕句

主靜

主靜方虛一。虛生萬事初。存心一日效。似讀十年書。
一作勝讀五車書。

有感

天命我爲人。人具性中理。理本明在我。我胡自暴棄。

其二

獨立乾坤外。茫然世不知。團團頭上月。千古自盈虧。

離親寓懷

白雲丹桂北。西日錦城南。獨鳥蒼江上。憂勤夙夜心。

夜坐口號

月白山無語。風微竹有聲。夜深成獨坐。誰識我心情。

看山

萬古青山上。浮雲幾去來。孱顏終不變。無語立崔嵬。

暝作

此地是何地。我亦如何人。茫茫一夢裏。非假亦非真。

酬寄龍湖主人

百匝雲山裏。清溪小洞濱。幽居間花竹。却似避秦人。

和東溟鄭君平題僧軸韻

水底暎天心。天心亦水心。莫看心二本。面壁坐禪林。

謝尹生先夔携酒見過

歲暮清江上。乾坤病此生。故人携酒過。相送若爲情。

毀二齋後謝送諸生

我心明若水。天意竟如何。好將方寸志。歸去莫重過。

贈別諸生

大丈夫心事。乾坤與日月。是以古之人。不作兒女別。

用行字韻示吳侄

處困方能亨。須期學業成。啖齋君莫苦。畫粥古猶行。

和陶元亮止酒詩

崇酒滅其性。何殊刃剩腹。敬將此一語。刻我靈臺曲。

次韻高晴沙贈梅栢丈人詩示文伯

梅仙與酒老。相對眼俱青。古栢今猶在。清陰滿舊庭。

與同宗兄弟共飲宗基梨樹下

井上雙梨樹。枝枝白雪堆。六七人兄弟。開心花下杯。

題僧軸 二首

海上山如戟。危峯勢若飛。巖間我舊跡。僧踏白雲歸。

其二

春雪寒猶重。庭梅多病枝。山僧雖乞句。何處詠新詩。

題黑邊桃花翁先生年十四詠此詩。

竹含山雨黑。雲帶夕陽紅。中開風一陣。借取鬼神功。

留別金仲源爲後期

醉後忘身世。高謔媿典墳。明年春雨霽。佳柬在江濱。

題日記

謝絕人間事。邇來三四月。日持小冊子。記作閒中說。

巡相沈公澤使人問安

蓬華有何貴。相公來問之。唯餘殘菊在。怱悴傍疎離。

閒吟

此世如何世。今吾何等人。雲山千萬岫。滿目一般春。

早春

歲去無眞得。春來更有愁。還慙階下草。生意茁已抽。

自號夢軒

夢中多好事。人世足辛酸。不若倚高枕。頽然臥竹欄。

有事

天豈虛生我。地無吾可居。何年雲水地。手結一茅廬。

睡罷書事

謝絕人間事。閒眠水上亭。江天春日午。鳴鶴夢初醒。

天地吟 三首 ○有感而作

天地一何窮。此生今已矣。愀然望世外。山色雲間翠。

其二

獨坐一無語。青山相對高。細思今古事。天地亦秋毫。

其三

我來天地裏。蒼海一輕鷗。舉首無窮界。太虛萬萬秋。

南山石謠

節彼南山石。峨峨且高潔。如何造物者。使爾無唇舌。

閒興

竹外茶烟碧。梅邊酒味香。客來問所事。聊指一書床。

田間鷲粟

綠袖掩紅顏。微香生雨後。芳心空向日。可惜依園畝。

題墨梅

老龍竊造化。神術硯泓間。前宵行墨雨。染盡玉梅顏。

雨後有得

凍雨前郊過。南山洗面青。從來好氣像。殊勝雨前形。

十月曉起有感

昨日霜華重。無風葉自飛。庭餘殘菊在。憔悴向朝暉。

快意 三首

落落男兒事。龍泉八尺長。長鯨不可斬。斬我室中賊。

其二

萬里天無極。三椽屋一生。從來上下隔。風月一般清。

其三

世外烟霞地。園林數畝田。清風千古志。明月一襟邊。

長城道上

溪邊雙白鶴。朝露濕衣裳。羨爾閒無事。臨流仙睡長。

歸田園居

原陸昏歸慎。簷端起暮烟。倦投疎屋裏。松月入牀邊。

大樹吟

大樹高千尺。去天盈幾寸。風霜盡苦枯。留待春光嫩。

雨後

急雨洗炎熱。小村生夕烟。誰能洗亂霧。快看霽清天。

偶書壁上

脫落人間世。優遊郊野田。心如千里鶴。高舉大鵬天。

有懷

十載渾成醉。生涯夢裏過。今朝方始覺。秋日照澄波。

雪夜

密雪從窓隙。潛投衣領中。似將天上意。傳與主人公。

野鶴

六翮非摧病。雙翎雪素輝。雲鵬從可逐。月六共南飛。

和詠月韻

月豈有心者。無心祇自臨。方塘秋水靜。更覺聖賢心。

漫吟

雪塞村前路。雲深屋後簷。閒來成一律。凍筆却生尖。

恨無酒

地白風如割。蕭然弊草廬。陶生賦述酒。奈此一樽虛。

寬無酒

酒豈忘憂物。還憂伐性靈。世憂誠可解。屈子必无醒。

窮冬大雪。閉塞經旬。畏寒悚悚。首不出門。使僮子乞酒隣村。不得而還。戲題二絕。一恨一寬。亦可爲無聊中一笑具也。

書壁

外物皆外物。千金我千金。須知至寶在。一一誓吾心。

閏六月初七日戲吟

歲法無餘閏。銀橋此日橫。天孫今夜怨。想必在容成。

夜坐

黑夜闇如漆。乾坤雜瘴雲。明燈茅屋下。獨坐對天君。

賈客

海曲多風雨。山高易蔽陽。孤舟何處客。片帆入滄浪。

曉起

風露灑脩竹。鶴驚清夢回。依然松樹下。殘月入蒼苔。

贈孤鴈

萬里秋空外。孤飛何處歸。天高滄海闊。一點爾何微。

鴈答余

渭水人曾去。江禽恥舊盟。孤飛東海上。欲訪魯連生。

暮雲

日暮南天闊。孤雲倦獨歸。不憂前路遠。今夜宿巖扉。

除夕

守歲終難守。明朝又一春。還思百年後。竟作如何人。

晏起

困眠日已高。宜念形如橋。遙聞窗外鳥。遠若天邊號。

詠山

碧玉三千丈。扶撐天地東。何須憂杞國。萬古矗層空。

留宿龍村有懷

脉脉不成寐。盈盈秋夜長。多情山上月。流照入西廊。

感物言志

雨霽碧天闊。白雲生遠山。孤村日欲暮。林末鳥知還。

自解曰雨霽天闊。則知道體之廣大。雲生遠山。則知生意之無窮。孤村日暮。則知此生之易老。林末鳥還。則覺此心之歸宿。此詩蓋仍寓目之物。自不覺心會句成。而深思之。又有味如此。此詩之發於性情而性情之本於天理者也。可謂妙乎妙矣。

秋懷二絕示堂侄履相

萬山秋雨後。何草不離披。所恃猶松栢。開新舊業衰。

其二

菊有寒香晚。多裁隱士家。年來花卉品。同列牡丹花。

看書

碧淨秋天霽。微風生太虛。蕭然蓬華下。無事臥看書。

觀易圖說

易外無天地。義文畫影形。須從天地裏。點檢畫中名。

自序。蓋大易之道。流行於天地之間。一草一木一禽一獸。遠之古今。近而瞬息。無一物一時之非易。則易之全體寓於天地。而彼義之畫文之辭。特畫出其影形而已。上智之士。不待畫與辭而固可默識在天之易矣。中智以下之士。亦可因其辭而知畫。考其畫而知天矣。

靜坐

靜坐對南山。山靜我亦靜。默然兩無言。其中何所省。

明星從窓隙入懷有感

夜臥當窓隙。明星映入懷。何能仰不愧。起坐撫殘骸。

送春

今古人多意。啣盃共惜春。誰知天地裏。無日不春仁。

雨後奇形

造物工於畫。江天似翠屏。織雲三四陣。寫出數峯青。

送春有懷

錦里春將晚。芳洲花信衰。王孫青草恨。報與白鷗知。

讀書

入海探明月。尋山採夜光。歸來一室上。長夜永輝煌。

暮景

遠岫生雲氣。長風引晚潮。帆過烟浦樹。僧度夕陽橋。

江上漫吟

我是江山主。江山我謂賓。風月雙清裏。佳賓賢主人。

嘲陷中虎

世豈真讎汝。班文禍崇深。寧被羊犬鞫。抱得雛虞心。

嘲籠中鶴

俯視人間世。徘徊雲外天。網羅猶未免。嗟爾有塵緣。

山中卽事

庭空鳥悲號。竹懶風不起。採藥日暮歸。憇眠青松裏。

白鳳山

青山名白鳳。白鳳下人間。人間吾老矣。可與爾同閒。

書事

格格水禽語。清音響暮天。空江風不起。人倚獨歸船。

獨酌

世道至如此。人心嗟已矣。閒將山郭酒。笑向東林醉。

清曉聞鶉

曉月庭前樹。鶉聲第幾枝。幽人一片夢。欲覺未醒時。

夢覺後追次夢中相別詩

玉人相別處。精爽兩分飛。覺來簷雨滴。淒冷響前扉。

南園集卷之二

五言律詩

五言排律

五言律詩

獨坐

山雲雨外捲。夕照在空庭。秋入楓林紫。烟回竹塢青。虫聲暮更促。
蘭氣晚多馨。眼看天時變。虛度愧吾形。

漫成

天地如開口。山巒似齒牙。雲霞備漱滌。風雨足喧譁。萬古吞元氣。
三光轉輔車。寄形唇頰裏。寥廓此生涯。

山居謝客

入山多勝事。離世意超然。夢罷青宵鶴。心閒白晝鶻。牽蘿成臥榻。
剡竹引鳴泉。却恐塵間客。穿雲訪睡仙。

夜坐有感

夢覺窓櫺靜。庭空鶴未眠。夜寒虫語拙。天闊鴈聲圓。戒慎無聞見。
端思入妙玄。却慚朝晝事。齊告愧前賢。

次尹侯宗之寄詩韻以呈

春郊微雨霽。佳興在鳶魚。柳岸風來夕。梧階月上初。庭看生意草。
床有養神書。敬服瓊琚什。殷勤問索居。

贈堂侄履相

汝年成一紀。能解古今書。學業須知博。心源務復初。治身要至篤。
立志慎毋踈。在我非真實。何由得令譽。

贈上人三勤 并序

智異山僧三勤者。來示詩軸。請余續貂。原韻乃白軒相公作。白江潛谷諸相暨一時名流皆和之。余平生夢想長入嶺東山水而病未得遊者。仍三勤而請和諸公詩。援筆成句。以書其東嶺之山水。覽余詩意。或有招我歸來之興否耶。

嶺外神仙界。平生病未探。逢僧說勝地。愧我臥郊菴。洗耳雲霞語。醒心山水談。何年一竹杖。遊盡海東南。

用韓昌黎扇對體書懷

去年春苦旱。民色采青黃。今歲麥無苗。斯民饘有糠。人心何慊慊。天意竟茫茫。沮溺雖忘世。賈生涕自滂。

寄江舍翰墨諸老

山亭長夏午。高枕聽鳴泉。激切晨門石。和平岱啓絃。回雲天上弄。流水世間傳。寄語江邊老。何如洞裏仙。

酬羅子整襟晚休堂韻

晚休人世事。高臥暝棲時。海色連平檻。潮聲入短籬。渚風鷗夢促。沙月鶴眠遲。箇裏多真樂。何須澤畔悲。

寄贈金陵使君趙惺

邑有金陵號。巉巖似石頭。東南臨大海。觀望起高樓。日月三山近。乾坤萬里浮。羈愁君莫恨。豪興此中求。

春日寄從弟英仲

西郊晚雨霽。小屋更清和。詩興因風起。鄉愁見月多。桃花思錦里。春水憶龜波。何日沙巖畔。手開數畝窩。

書懷示從弟英仲

近得書中趣。方知世味艱。酸喙長三尺。吟肩聳二山。博學心多廣。
勤耕食不慳。林泉無限意。都付谷中蘭。

清和微雨泛舟藍江

世外清江上。冠童六七人。水連盃上淨。山入鏡中新。岸草蘭兼芷。
洲花荇與蘋。天公如有意。微雨洗汀濱。

聞朝報紀事

世道升虞夏。羣賢足廟堂。衣冠回禮制。用黨變肝腸。賦用均輸法。
兵行編戶方。歲飢何用慮。愚拙合農桑。

夢入大成殿奠爵仍作此律覺而記之

聖廟在形勝。堂壇近竹籬。詩書絃誦日。文武憲章時。禮樂當年事。
樽罍萬古儀。薰蒿如在上。肅穆拜軒墀。

夏日甚炎戲題

地近東南海。山開瘴霧中。況當炎暑日。恒起爛蒸風。土有瘡難合。
天多漏不窮。虫蛇床下結。深羨臥雲翁。

其二

昔我來何自。今爲此地人。瘴氛腥海外。香露玉樓濱。久煮塵間火。
空慚鶴上身。幾年斯夢覺。仙圃有餘春。

龜江勝遊 並小序

乙巳孟夏既望。余信宿于龜江枕碧亭。翊日散步于江磯水石之間。是
時江樹嫩綠。岸草芬芳。天氣清爽。微風藹和。澄潭若鏡。錦鱗游
泳。仰觀俯察。有物我相忘之樂。遺世出塵之思矣。俄有數客携壺與

琴而至。列坐江上高臺。酒數行琴數曲而日已晡矣。諸客不知余心之樂其樂。或放歌叙氣。或爭酒喧譁。余支頤倚石。回望蒼江。夕風乍動。萬匣銀鱗。步出汀洲。仍成韻語而志其事云。

坐倚潭邊石。開樽芳草間。江山遺世態。天地養吾閒。烟渚看銀鯽。沙汀採玉蘭。琴鳴三四曲。風起水紋斑。

夏雲奇甚有人傳有神韻遂效嘖而成

評曰雲變爲山。山變爲雪。雪變爲瓊壁。瓊壁變爲晚風亦奇也。

人間大夏中。天上雪成峯。萬壁藏青壑。千瓊沒翠松。巖邊應有寺。地遠豈聞鍾。俄頃歸虛幻。長空掃晚風。

自怡

至人愛幽靜。自與世人違。養性神常淨。無言學不疑。風來助爽氣。山靜覺真機。庭空塵不起。散步下階遲。

逍遙吟

世外青山小。山中事亦無。松篁三徑裏。天地一身孤。落日宜眠石。芳草可佩壺。熙熙似太古。誰識此夫夫。

聽鸞聲戲效詠物體

有鳥鳴喬木。曉窓初霽時。入天雲欲駐。來壑玉疑墮。王子休笙聽。鄒生斂律噓。方知造物者。神巧至如斯。

自遣

世事復何恨。百年如一朝。况吾性寡合。末路誠殊調。幽思鶴同睡。機心烟共消。此間竊亦樂。深巷有簞瓢。

挽崔從兄雲路

兩姨兄及弟。相篤孔懷情。慈惠由天稟。淳和任自成。將期享大耋。
豈意掩重城。餘慶留蘭玉。克家擬後榮。

挽徐上舍晉明

節孝晚升聞。文聲早播人。賦期司馬達。才屈伯牛貧。世厚通家義。
嘗蒙獎學仁。相携二秀玉。痛訣兩先親。

挽人

世好情何限。相知祖子孫。遽然成此別。安得不消魂。寂寞雙溪水。
荒涼一夜村。他時倘相過。焉忍倚荆門。

挽羅雲峯衲

至孝種先德。雙蘭共蒂開。方伸千里驥。終屈百里雷。石刻三州績。
年纔五紀回。東方無野史。良吏傳誰裁。

五言排律

孝宗大王輓辭

海宇近中土。乾坤生聖人。維新受大命。司牧小邦民。周武承文緒。
商宗繼祖仁。虞庭賢俊立。箕甸教化新。地下伸冤魄。天涯返逐臣。
韓邦期壽域。遼塞指清塵。大道望回古。斯文庶復真。蒼生祿不厚。
黃道日沉淪。海旭扶桑曉。湘烟楚樹濱。窮民哀考妣。遺澤痛臣隣。
荒僻雖踈遠。葵心尙向春。郊原披宿草。慟哭邦龍輶。

己亥十月二十九日。乃大行大王下玄宮日也。出伏郊外。瞻望龍輶。
哭行拜禮。謹錄成韻語。粗如喪之懷云。

挽羅同知緯素

至孝開餘慶。明公蔭百年。深憂冠闕立。通籍桂兼蓮。太寺欽郊峙。
橋門接道筵。聖勞分六府。恩數逮三泉。貳秩榮還錦。期髦考順天。
門開歸鳥背。軒倚出雲邊。洛社傾冠蓋。平泉享福田。北辰虧甲籍。
南曜斂丁躔。屐齒留蘋渚。笳音隔蕙阡。石城藏寶舄。蘭玉慶諸賢。
幸辱孀家屬。仍蒙眷遇全。平生一掬淚。灑向暮江烟。

挽李惺庵壽仁

湖南無正學。千載有存翁。絕緒誰能繼。先生大有功。初年登桂籍。
中歲悟眞衷。易究先天學。心存未發中。鉤玄從格致。造妙自磨礱。
許國非無意。誠身序有工。恩綸頻赴谷。篤志竟安窮。斯道運將晦。
哲人今遽終。惺惺心上事。忽忽化中空。怵下年前拜。殷勤爲發蒙。
山齋重討約。雲斂太虛風。獨向塵編裏。迷塗立瞽聾。哀詞成短闕。
更覺涕凝瞳。

南園集卷之三

五言古詩

五言古詩

感興 先生年十四作

有人在空谷。 嘗吞愁萬斛。 所憂如之何。 終身非一夕。 仰思太極初。
二氣相關。 陽氣上而清。 陰質下而濁。 眞精自此合。 萬化由是折。
人生與品物。 乃得其所極。 人爲最貴者。 虛靈誠不測。 所貴在甚事。
只是道與德。 斯道本在天。 彌漫於六合。 生於天地先。 萬古無或息。
羲農初得之。 唐虞正光赫。 三代久淵源。 聖聖相傳得。 穆穆魯文宣。
汲汲鳴木鐸。 尼丘日月明。 洙泗乾坤廓。 春秋筆已絕。 六經空歷歷。
沂水浩氣發。 陋巷春光碧。 一貫傳曾氏。 聖孫乃得續。 巖巖浩然子。
能言拒楊墨。 吾道運乃窮。 狂秦烟火塞。 漢唐久淪沒。 莓苔生竹帛。
天造遠不衰。 宋德何嶷嶷。 斯文運再昌。 一脉傳濂洛。 河南道氣新。
關閩風旆奕。 天生晦庵翁。 得接前聖跡。 道源復此明。 炳炳星日白。
瑤琴絕絃續。 寶匣塵埃滌。 嫡統賴不墜。 並駕鄒魯績。 先生一去後。
世情多翻覆。 寥寥千載間。 慾浪波怒激。 永夜不復曙。 沉沉長寂寂。
間或有作者。 坐禪多學陸。 有頭失其尾。 誰能明本末。 又有駁雜徒。
舍根取枝葉。 草廬暗生愁。 猶且不免失。 紛紛頭緒多。 無地竟歸宿。
况此萬里外。 海隅一孤域。 遑遑逐利祿。 無暇修天爵。 禮義已充塞。
舉世皆荒屋。 圃翁鳳出鷄。 佔畢追其蹟。 蔚蔚六七賢。 陶叟承迺適。
嗟矣漢禁錮。 慘矣宋僞學。 鵬騰颺毋挫。 蘭茁霜先落。 餘香絕已久。
大霖當時澍。 沉澗及今日。 路歧無南北。 俛俛失道人。 出戶復忘入。
所以余小子。 日夜長感感。 感感竟無得。 志意徒局束。 斯道信何物。
願一見其的。 吾觀古聖書。 道本如菽粟。 行於日用間。 藏諸吾心曲。
求之必得之。 何用常鬱抑。 求之奈如何。 放志收斂克。 得之亦如何。
先清心上黑。 爲善力眞積。 自然消其惡。 古有作善人。 兩器豆白赤。
初多赤滿器。 久見多積白。 立志當如此。 可以防外賊。 堯人我亦人。
有爲皆是若。 主一無適字。 操約其施博。 原始又返終。 至密猶鎖鑰。

無頭何所戴。有足方不蹶。二者一不偏。外方而內直。有過貴速改。
琢石可見玉。惟狂可作聖。鷄鳴須得覺。吾言信不妄。在爾能切琢。
嗟吾黨小子。勉勉復勸勸。

夜坐

曉窓鷄數聲。落月臨殘夢。欲覺心先起。圓珠轉復弄。寂寂小床頭。
露草虫響動。

睡起

睡覺百慮滅。獨坐虛室中。四體若無物。一心如懸空。默到真境界。
喚起主人翁。

其二

病睡乍交睫。開眸日向夕。微涼生晚郊。岵雲間青赤。閒坐倚踈櫺。
鳥鳴人寂寂。

語山鳥

我本小言語。我本無耆好。踈拙似山僧。淡泊如野老。世皆謂我愚。
棄之如泥土。山鳥爾何故。與我從之遊。天地廣而大。與爾終悠悠。

山鳥答

世人好彈丸。巧發多射影。世人好張羅。平地生機穽。鵬斂升天翼。
龍沉駕雲鱗。所以余色舉。飛從山外人。

快意

大臥天地中。天地中男子。廣居闊無邊。日月昭昭矣。所以方寸中。
明珠淡若水。六合亦不遠。三光唯一理。毫末不爲少。萬物不爲彼。
貴賤與生死。浮雲太虛爾。

夜坐漫成

清露自天降。點滴庭邊草。微香生嫩葉。春意初回早。中有一片心。暗向清夜好。至妙存其間。欲言不能道。點點對天君。率率仰蒼昊。悠然忽忘言。肫肫而浩浩。

漫賦

田園在世外。十日未見人。多病恒蒔藥。投閒累賞春。鳥窺簷裏隙。苔蝕石上塵。鶴驚風鳴竹。林暝雨和烟。靜中無所事。自道古天民。

天命吟

天命我爲人。天命我塗窮。爲人不偶然。塗窮何忡忡。望天天不極。望地地亦洪。吾身雖至微。有命天相通。百年一瞬息。四序何怱怱。羣物易爲宰。耳目多被蒙。屋子荒不理。主人宜擴充。人間百萬事。夢覺還成空。我吟天命吟。浩蕩遊蒼穹。

有感

天既大無窮。地亦廣而厚。既大且廣厚。萬物無不有。明者爲日月。濁者爲山阜。大而爲鯨鵬。細而一塵垢。從來無內外。本豈有先後。俯仰成感歎。嗟爾世上友。

月下吟

暝雲破微陰。青山戴素月。人間有目者。孰不仰圓潔。一一散清光。萬方如白日。無限塵埃界。化作瓊瑤窟。置我玉境中。森然萬象列。

春日雨後對客有懷紀事

甘雨下春空。草木生異香。鳥有迎新響。山添霽後光。池魚似相賀。踊躍游揚揚。顆結花方謝。柳老絲更長。林粧青黛葉。峯抽翠劍芒。中開一茅窩。竹牖初向陽。茗煙巖際起。一路橫遠岡。鶴飛曳孤霞。

客到挽脩篁。主人好清淨。世事都相忘。對客兩無言。山水空蒼蒼。

冬日吟

十一月將半。天無一點雪。虫蛇不藏蟄。蠅蚋飛不絕。桃李欲開萼。
和雨地恒泄。天威一時怒。北風吹勃勃。飛花百萬片。搖落千巖窟。
黑鴉飢欲死。赤狐凍欲滅。山川千里地。松栢獨也潔。嗟爾八路民。
自此安所穴。

自然吟

吾聞古賢師。自然外無天。地道亦自然。自然對天圓。自然天地中。
品物皆自然。人亦稟自然。自然吾丹田。惺惺自然翁。自然應一元。
若會自然意。吾心自然全。如何昧自然。自然自棄焉。

夏日讀書爲阜蠅所困有作

我愛夏日長。六十增一刻。微風爽几案。唔咿對簡策。至意方欲會。
萬緒初向析。營營有何物。簇簇來其側。集睚探其液。向唇得餘瀝。
仍吸入喉吻。趁汗趁庭額。口噤不能讀。兩手煩搗斥。徒能費筋力。
不能盡揮逐。有時集方策。使訛前聖蹟。添雙水作冰。點一日成目。
紛紜文字間。糢糊失其的。然後莫能支。襲冊撤床席。退臥倚踈櫺。
只覺 一作徒切 思憾憾。天何生此物。使我一至厄。所以古之人。歎
其瑕白玉。何日嚴霜降。殺盡無餘族。

次金仲源見寄

數疊青山裏。中蟠一成峯。峯前多祜竹。歲晚長綠叢。主翁閉窓坐。
月明秋堂空。安能開竹戶。敬納玉壺容。夜久獨自立。露滴井上桐。

南園集卷之四

七言絕句

七言絕句

題壁上

一室無塵湛若虛。床頭數帙古今書。欲知大丈夫心事。霽後秋天月上初。

寓意 兒時作 先生時年十三

昨夜江湖霹靂驚。狂風驟雨一時行。俄然日出纖雲盡。天地山川次第明。

秋菊

人間勝節最三秋。天下名香菊是優。一室茅茨兼二樂。此翁身世更無憂。
秋天初霽。時菊揚芳。一室無塵。塊然獨坐。不知此身落在紛埃中。

日晏

瞑目終朝坐兀然。方知靜裏有先天。日高窗外開簾看。雲際青山列百千。

冬至

夜半天心啓九闈。一聲雷起動千門。誰知九十春消息。始向今宵妙處存。

閒中有感

至人心術似洪鈞。一氣流行萬物勻。若有纖毫偏倚處。紫桃蒼竹不同春。

幽居三勝

落落蒼髯千丈高。暮天風雨鐵姿豪。昏鴉莫向枝間啄。恐污仙禽白雪毛。

一歲寒子一

古巷南頭玉萬叢。晚風吹戛碧玲瓏。瓊枝不許凡禽宿。爲有琅玕結此中。

一蕭灑君一

冰玉精神臆後姿。金銀香契歲寒期。二君貞節誰題品。付與閒人獨自知。

一雪枝霜葩一

用安性初天圓韻

天君高拱立丹田。日月分明箇裏天。雨霽雲收天宇淨。匣中銅鏡正團圓。

贈友

山翁久與溪翁別。深林幾度雲生滅。谷蘭渚竹暮天秋。兩邊霽月何清潔。

贈別李生文碩

知覺無差在正心。正心要法敬爲箴。他年倘得真消息。千里知心只兩襟。

其二

南郊寂寞一茅廬。淡泊生涯數帙書。從此王孫相別後。無人來叩弊荒居。
李生卽世宗大王五世孫。故云王孫。

贈堂侄履相 履相時年十二

太華初發玉芙蓉。秀色橫分十二峯。知爾天香終不變。勉渠期作歲寒松。

回文詩

人閒此日山齋靜。靜默存心一氣和。身外世情無物事。晚窓晴岵遠峨峨。

其二

黃鳥啼時春樹綠。白雲歸處暮山青。涼堂小雨微風晚。灑灑清陰竹下亭。

自述

人間回首足風塵。洗耳何人過灑濱。世道若將終不合。西山期守伯夷賓。

其二 時自永平移居錦濱

藏踪斂跡笑談閒。養性頤神自在閒。憂樂更無關世慮。百年歸宿好容顏。

感天恩

竹掩荆門古巷幽。烟霞深鎖碧山頭。那知一夕天書至。感激洪恩涕自流。

其二

辭謝天恩非有因。自知無術輔明神。傍人不識余心在。將謂投閒少室人。

秋日齋居

天顏圓淨氣清新。秋雨前宵洗點塵。萬里祥光嚴且正。草堂終日對凝神。

秋夜

一天秋氣露凝空。星漢森然不起風。回首碧江江水淨。萬山同立月明中。

族會敘懷

九秋清興動江扉。菊下芳樽晚更醅。細話連床荆棣樂。不辭成醉倒牛衣。

二月初二日 始開北窓封紙 敞然有伸蠖之意 仍書此以志之

北窓重揜過三冬。今日逢春闢舊封。慶雨和風從此始。四溟催起蟄中龍。

詠鷺

白心烏背且雙尾。三月和風蹴水飛。寒往暑來乘氣化。屈伸從處諳天機。

雪後夜坐 辛丑

大雪寧風霽若掃。一輪明月輒空虛。乾坤靜淨雲無跡。萬點星辰拱帝居。

醉中自悼

晚年身世托劉伶。盃酒中間隱姓名。若道丹田真樂地。亂雲消盡月生明。

醒後自嘲

精金百鍊鑄龍泉。隙月斜明影射天。斫破滿樽清竹葉。免教荒却下丹田。

大龜來伏堂下感而作

君是四靈中一物。聖王生世爾爲祥。如何來拜書生室。欲獻吾君頌耿光。
詠山

物外青山分外青。白雲千里望中平。君毋浪泄天機秘。奇巧當年琢玉成。

看鏡贈影

病滯沈吟又一茲。想君顏面較前衰。今朝鏡裏開丰宇。白髮蒼髯勝昔時。

夜坐偶吟

微月墜西爛衆星。寒燐熠燿度階庭。誰回千斛明河水。洗盡天顏萬里青。

草將軍 卽大黃也

桓桓八尺草將軍。廓烈神功似孟賁。何不擊清關內賊。天君臺上樹奇勳。

玉錢子

雙扇翩翩粉翅香。透林穿樹爲誰忙。道人階上無妖艷。去訪長安桃李牆。

詠新月

誰將白玉圓明鏡。半入青天露半邊。從此直之三五夜。十分光景遍山川。

香菊盛開

三秋物色可園林。滿砌清芬菊意深。縱被前宵霜露急。十分香節在花心。

將歸江上舊庄 留別隱逸貞友

主翁孤興在清幽。草屋新開錦水頭。歲晚芳心君自保。好藏香艷月明秋。

憐落花

飛花一點落長枝。無限東風任所之。中有暗香吹不盡。幽人窗外日相隨。

雨後

甘霖新晴麥已秋。滿園芳草氣清幽。靜看萬物生生意。還向吾心一理求。

野鶴

玄裳素衣一仙童。特立蘭汀霽後風。俄向白雲飛去遠。碧天無際海無窮。
聞特命復軍職感而有作 己亥十二月
聖代遺民合老農。十年耕鑿伴村傭。誰知天日重回照。病起田園祝華封。

雪晴 己亥十二月

雪霽雲消天氣明。太陽垂曜散光晶。山川歷歷如開鏡。萬象澄虛百感平。

臨農失牛 賣馬買牛 戲成一絕

少年肝膽太愚狂。櫪上風騾志四方。今日賣渠還買犢。從茲便欲老農庄。

曉思

元氣淋漓露濕天。白雲飛重倚巖邊。世人尙緣牽情夢。惟有晨鷄迭唱傳。

其二

露氣淒淒天地空。山川虛曠起微風。何人識得吾心曲。獨立茫茫大海東。

飲茶

栢葉煎茶氣作霞。一盃濃色似丹砂。丹心本自丹如渥。更染丹砂勝百邪。

服松葉

凜凜貞心雪裏顏。後凋勁節歲寒間。千年直氣吾能服。萬古風霜自等閒。

田家歲樂

大小金鉦長短。高低清濁雜成聲。田夫自有田間樂。祖述周儺戲歲正。

冬日閒意

三冬風雪閉門深。乘興何人世外尋。始會一陽生昨夜。小盆梅萼漏春心。

春日吟

淨帚階庭引晚風。簾垂空庭落花紅。閒扶一杖逍遙立。山鳥飛歸日影中。
宿先塋下村有感 辛卯正月 以改窆事 留金崖盤之谷
舊壠松楸三百年。暮雲衰草鎖寒烟。邱山應記先人面。觸目無非意愴然。

其二

村人迎謂金居士。故老猶知朴政承。日暮陰崖山下宿。宿雲應識我心情。
朴相公思庵。乃先生五代祖上舍公之宅相也。嘗參謁於此。故老猶有汲見
之者故言。

其三

故山宿草三千日。人子哀情十二時。天遠地長無限思。金溪水月也應知。

夏夜翫月忽爲浮雲所蔽

明月高高星斗躔。浮雲只在半空前。但能掩得人間目。難遮清光九萬天。

有懷

心如白日揭中天。南北東西照不偏。滿目山川俱是樂。一般天地蕩無邊。

其二

沙泥濁處泉隨濁。天氣明時月亦明。試向此中看得徹。泰山喬嶽分毫輕。

己亥大饑 丐民盈路 感而有作

破囊鶉衣立巷門。滿顏黎黑口無言。讀書萬卷知何用。未使斯民躋飽溫。

朝霞

蜀羅初染掛梢頭。絳色騰空氣欲浮。俄有爽風吹萬片。錦章飛散碧天秋。

祈雨 庚戌

一帶長江兩岸峯。安知深處不藏龍。腐儒所祝無他願。願灑甘霖澤我農。

謝雨 庚戌

錦水盤旋繞錦峯。中藏貝闕宅神龍。微誠默符風雲感。甘澍流膏潤大農。

江行

江山如畫畫中遊。物外清閒我自收。醉倚白鷗洲上月。一聲橫笛水西流。

書小窓

敬對詩書千聖心。薰爐清晝坐沉潛。紙窓山日明如鏡。照我靈臺戶牖深。

夢作

辛亥春。瘴疫遍于南中。死亡者相繼。余家亦罹此患。挈老妻出寓村間。未免躬自樵蘇之勞。親屬隣里不肯相過數月。暮春初十日夜夢。忽吟一絕。覺罷記之。余半生病癘。世事之不入人心者五十年且老矣。起句之意自然相感耶。文章二字。或作功名。并序。

文章 一作功名 盖世徒爲累。富貴薰天亦自勞。何似白雲明月裏。百年無事臥江臯。

其二 己酉十一月十八日夢 余從竹籬下歸來 仍聳身高飛 快似登天然 乃詠此絕 覺後記之。

江村日落正依微。竹下歸來露滴衣。高鴈一聲山月出。廓然飛度海東圻。

戀美人詞 此亦夢作

秋夜長長曉色遲。薄寒應惹玉膚肥。誰將海上初生旭。照作深宮十日曦。

紀夢 並序

半日閒談一夜經。浮生身世十年情。不知千載歸來後。更有何人慰此生。
余亡從兄浩亭漢英氏。天姿豪邁。文章宏達。年纔十八。以大策鳴世。若
天假數年。其成就向量。不幸弱冠而沒。與其不可傳者逝矣。余每痛悼。
寤寐不置。歲己丑十二月十三日夜夢。與從兄同往先塋下碧松堂。入夜明
燭。談論經史。明朝余獨歸家而從兄尙留。余作此詩以贈之。覺而記之。
泫然垂泣。余之心緒。殆將神明知之矣。

曉吟

晨鷄高唱瑞霞融。萬斛銀潢浴日紅。地下漸昏天下白。八方民物共春風。

九臯吟 并序

余所居四方有臯。凡入墩相對。北岸四臯自西北而至東曰乾坎艮震。南岸
四臯自東南而至西曰巽離坤兌。家在艮臯之南。面巽離之間。震兌艮坎
暨乾臯在四畔相對。前有泉凡四穴。在堂前者名曰少陽。在坎臯前者曰太
陽。巽臯前者曰少陰。離臯前者曰太陰。合北岸四臯曰陽儀。南岸四臯曰
陰儀。家後有圓臯曰太圓臯。卽太極。并八卦之墩爲九臯。立圓臯之前。
四顧遠望。自無等歷開天月出至錦城皆山名。大小峯巒凡六十四。皆名之
以六十四卦。無等爲天根之復。月出爲月窟之姤。錦城爲秋分之遯。開天
爲春分之臨。余家居于其中。余惟天地之理。皆自然之化。而余亦稟無極
二五自然之化。受生于兩間。今偶占棲伯之地。有此自然山水之應。不待
智謀巧計安排牽合。而自然相符於大易之位數。余朝暮倘佯於其間。欣然
於吾心。至有人不及知之妙。而自適夫至靜之中者。遂逐臯賦律歌一絕。
以爲閑中吟詠之具云。

一邱圓淨氣冲融。含得真元妙不窮。三十六宮春意足。主翁心事暗相通。

—右太圓臯—

小邱西北號乾邱。位間金天肅氣秋。萬物靜觀皆斂固。自家鷄犬放知收。

—右乾臯—

正中陽氣得乾元。萬化根柢此裏存。名命小墩知有意。前泉活水有靈源。

—右坎臯—

幽居東北艮成邱。下有源泉不舍流。山澤固知通一氣。含輝自媚玉藏收。

—右艮臯—

一陽初動闢天門。藹藹春光日向暄。單袂幅巾塵始拂。傍花隨柳趁清源。

—右震臯—

山回建地自開天。我屋東南巽作巔。最是晚春時雨後。好風開霧露蒼璇。

—右巽臯—

月出名山對日封。小邱佳氣接雙峯。文明自是司南紀。時起雲霞澤我農。

—右離臯—

太陰泉畔是坤邱。澤潤山蒸正氣浮。南闢紙窓相對靜。自無虛想結閒愁。

—右坤臯—

萬象歸根兌作門。閉藏元氣節寒暄。每當秋日登高望。大化流行不見痕。

—右兌臯—

錦里草舍二十三詠

琢玉前山兩點奇。截然橫出大江湄。何人種得琅玕寶。長對軒窓雪後姿。

—右前山翠竹—

青山一麓枕江頭。萬樹蒼松近碧洲。最愛清宵風水韻。爽然消盡世間愁。

—右後麓蒼松—

潮退江心露白沙。一鸞眠鷺傍蒹葭。眠時想有醒時意。夢入湖夫趁落霞。

—右沙汀宿鷺—

青烟如帶起江村。紅蓼汀洲一抹痕。沙際白鷗眠意足。小風波處別乾坤。

—右烟渚眠鷗—

浦漘陰陰日落時。海天無際鳥歸遲。江郊牧豎催還意。牛背歌聲隙水奇。

—右莎坪牧謳—

捲網歸來魚滿船。老翁真樂靜中天。移船晚擊汀邊竹。一曲長歌巖底眠。

—右竹浦漁歌—

前潮纔落後潮生。百丈危灘大浪驚。自是漁人輕性命。扁舟出沒任舫傾。

—右溯灘輕棹—

極目長江波正平。晚風吹過玉鱗生。巨航何處歸來晚。千尺高帆一縷輕。

—右引風歸帆—

突兀雄蟠嶺海中。四時佳氣接層穹。頂頭常有雲霓住。爲結甘霖潤海東。

—右瑞岳濃雲—

江上亭亭玉一簪。迥然端秀插天心。殘霞片片丹如綺。藏得螺鬟霧半岑。

—右白山殘霞—

觀瀾有術聖流言。萬頃分波只一源。輕理小舟浮短棹。爲尋真派沂清瀆。

—右理艇觀瀾—

幽懷寂寂獨盤桓。行趁巖崖採谷蘭。柱杖小蹊回首立。碧山無語出雲端。

—右柱杖看山—

水村山郭老天民。漁釣生涯寂寞濱。種粟成園秋有實。先生從此不全貧。

—右粟林收實—

滿谷蒼松壁萬莖。繞軒凝翠滴簷楹。微風不動黃花老。採得精華爲攝生。

—右松塢採花—

帶月侵晨獨荷鋤。爲尋泉脉過山渠。谷中知有靈源在。西事須占灌溉初。

—右疏渠灌稼—

雨浥輕塵春意長。萬林何草不芬芳。穿泥爲種庭前菊。知爾貞心晚節香。

—右帶雨種菊—

萬事從他造化權。此心專主鏡中天。開簾直納清江月。閒弄瑤徽三兩絃。

—右開簾撫琴—

紙窓明淨揜鑪薰。塊坐忘言到日曛。靜裏十分真樂地。肅然開卷事天君。

—右閉戶看書—

江路斜連松下扉。客來聊爲問寒饑。欣然爲酌瓦樽酒。賓主無言忘是非。

—右啓扉延賓—

玩物江天役此心。不無虛想到芻豢。歸來瞑目塊然坐。明鏡無痕止水深。

—右瞑目存心—

霽後流澌沒岸流。濕雲初散白鷗洲。長江點點高飛鴈。亂落江灘趁去舟。

—右滄洲落鴈—

小亭新霽月生明。徙倚軒窓百慮平。野鶴一聲來遠澗。此身如化羽衣輕。

—右遠澗叫鶴—

水落灘平兩岸沙。橫江長網遮魚蝦。貪看不覺歸來晚。紅蓼汀邊日已斜。

—右蓼岸觀魚—

龜巖書室八詠

何年神斧斲堅頑。刻出玄夫萬古顏。無復羲文三九畫。吐雲清曉護松關。

—右龜巖曉雲—

金鰲千尺壓鯨波。遠引纖霞抹碧螺。海外蓬壺從可接。十洲何日泛靈槎。

—右鰲嶺晚霞—

有無山色入江村。渚竹汀蘭接巷門。何處數聲漁子笛。夜深乘月到幽軒。

—右竹浦漁笛—

林窓睡覺出軒前。萬境無聲月在川。山外小鍾鳴歷耳。默然深感到先天。

—右松庵梵鍾—

雨後山軒特地閒。四圍雲☐碧粧鬟。萬莖蒼玉排簷宇。春在先生几案間。

—右北麓晴松—

雨洗涼秋月一輪。碧天空闊霽光新。分明直照山人室。庭豁曾無一點塵。

—右東亭霽月—

舜文明瑞再難翔。歌鳳清聲發楚狂。千載德輝迷去影。碧山依舊暎朝陽。

—右鳳岳朝暎—

歸潮上急晚風生。蘭浦雲收宿鷺驚。一曲棹歌何處客。半帆高舉溯空明。

—右猪灘暮帆—

龜潭勝景十詠

山勢平成水上臺。廓然高出世風埃。軒窓直納乾坤大。大丈夫心自可開。

—右浩然亭—

小亭高壓大江平。水月巖風世不爭。堪笑潁川煩洗耳。不如閒臥洗心情。

-右枕碧亭-

晴天氣象藹江濱。日暖風和萬物春。若見杏壇時雨後。一聲瑤瑟咏歸人。

-右詠高亭-

亭下澄瀾似鏡明。水邊沙石盡冰清。不須憔悴江潭客。慢濯塵纓污淨泓。

-右濯清亭-

石作平臺俯碧潭。瑩如新鑑啓銀函。虛明本自澄無累。能照天光雲影涵。

-右光影臺-

何年造化鍊金精。盤磚潭心萬古情。清濁淺深隨隱見。玉如天質更堅貞。

-右隱見巖-

六鰲當日失三山。一點西流落此間。滿峯瓊樹濃層翠。露滴巖邊芳草灣。

-右滴翠峯-

養鶴高人骨已仙。西湖風物月千年。此中名命寧無意。長恨梅亭鎖暮烟。

-右西湖-

平郊一帶小溪頭。纔到亭前便合流。最愛夜深明月下。灘聲曲曲玉鳴球。

-右東溪-

清江南畔小汀沙。紅蓼青莎間野花。岸上幾家烟細起。平鋪一抹帶青霞。

-右南洲-

題鳩湖精舍八景 從弟海英 寓居朗州鳩林云

澄湖千頃月三更。鏡面微風靜不驚。九萬秋天晴倒景。一宵贏得分外清。

-右西湖秋月-

日墮龍頭返照斜。江天風起曳纖霞。俄然萬丈紅雲舉。扶送羲輪納海涯。

-右龍山落照-

雨洗西湖玉鏡天。江村日暮細生烟。遙知漁父垂絲罷。欣煮蓴鱸楚竹然。

-右江村暮烟-

草屋人間斷世思。窓簾風靜日西遲。一犁春雨前郊外。萬草千花各逞奇。

-右前郊春興-

石崖西畔小軒東。飽占烟霞子不窮。夜半一聲啼杜宇。默然深省省吾躬。

—右東園聽鶉—

小園芳草節清明。霽後纖風送巧鷲。聲裏始遷喬木意。不堪幽思令人驚。

—右南陌聞鷲—

纖雲一帶引風回。遠抹螺鬟立紫嵬。中有一雙千古鶴。大鵬天外獨徘徊。

—右鶴嶺歸雲—

半壁天南碧海長。入雲峯下小書床。巖崖日晚風微起。吹惹幽人製芟裳。

—右龜峯晚風—

題鳴玉軒 軒主卽吳上舍以井

觸石泉絃戛玉鳴。鳴絃泱泱繞前楹。這間那得閒中趣。活水原頭淡淡清。

—右泉—

附原韻

循除泱泱小溪鳴。茅屋蕭然竹作楹。綠樹蔭庭苔蘚老。方塘上下十分清。

其二

風細方塘鏡面開。朝來山影靜嵬嵬。一般生意知何許。露潤巖邊長碧苔。

—右朝—

附原韻

滿壑雲霞晚始開。亂山當戶碧崔嵬。幽人食罷閒無事。步到溪邊坐綠苔。

其三

山窓晚闢好風來。巖瘦松筠石老苔。萬物流形皆自得。水因流急碎成瑰。

—右晝—

附原韻

山扉日晚少人來。古徑幽深長綠苔。小瀑淙淙巖下落。靜看飛沫散瓊瑰。

其四

雲罷青林暎落暉。飛歸山鳥各知依。幽人獨步循溪下。滿壑風霞沾草衣。

—右暮—

附原韻

漠漠平郊淡夕暉。江村野店共依依。耽看直到黃昏後。庭樹生陰露滴衣。

其五

烟霞襲骨夜清冷。步月溪邊徑草青。箇裏自然真境界。安排何用喚心惺。

—右夜—

附原韻

寒溪月照水冷冷。杜宇一聲山更青。閒弄玉琴無語坐。此心虛靜自惺惺。

其六

體道空心子獨欽。花中隱逸我同襟。繁華莫向紅塵陌。桃李溪邊一路深。

—右種菊竹—

附原韻

菊弟馨香我所欽。此君風味更同襟。如今共作風霜契。歲暮相期託義深。

其七

翠幹亭亭半畝塘。日看新葉展新長。光風來處花初綻。甘露零時吐異香。

—右君子塘—

附原韻

小澗潺潺細入塘。蓮芽透水漸看長。何時霽月光風夕。獨立閒庭聞遠香。

其八

碧峯高拔霽天秋。下有寒川日夜流。融結初年真實事。欲談無語舌尖頭。

—右匏石峯—

附原韻

雄蟠特峙鬱磅礴。氣勢遠分瑞石流。更愛夜深山雨歇。冰幹直上最高頭。

其九

零雨絲絲淡若濃。小溪流急玉相舂。最憐霽後斜陽外。露出分明綠萬峯。

—右夕陽踈雨—

附原韻

踈雨漫空細濛濛。斜陽輝暎紫光舂。須臾起滅無方所。來撿江郊更遠峯。

其十

千曲高低尖削玉。霽雲初罷遠嶙峋。誰知造化心無限。頃刻烟霞萬態新。

—右龍龜霽景—

附原韻

千點螺鬟散縹緲。晴空秀出碧嶙峋。雲霞朝暮多奇態。更愛青光雨後新。

其十一

一抹殘雲野外堆。暮天無際鶴飛回。晴川歷歷明沙白。百練澄光十里開。

—右長洲遠望—

附原韻

十里明沙白雪堆。晴川一帶望中回。誰能剗却青山谷。輸與幽人眼豁開。

其十二

湛湛寒淵一鑑明。金波清影碧層生。這間輸得無邊意。太乙中天夜午更。

—右水月奇景—

謝贈南校理時南公九萬以暗行御史來訪故云

晝掩蓬蒿斷外人。滿庭青草自生春。誰知驄馬從天客。爲訪慙勲問逸民。

酬尹使君宗之寄詩韻

岸邊霜竹谷中蘭。繞屋青松老歲寒。三月閉門無剝啄。喜聞召父報平安。

次成石田輅睡後韻

養性頤神道氣濃。閒眠倚枕小堂空。此間睡味人誰識。庭樹鳥啼來晚風。

寄贈永平諸生卽金振華等

刻苦工夫如鍊金。誰知磨杵可成鍼。有時西望晴江月。便是相思一片心。

次松石亭梁君韻

微雨前宵春水生。谷蘭汀芷摠新情。幅巾單袂潭邊過。行趁清源到月明。

其二

雨後澄江綠正漪。一天風物畫中詩。此間無限真消息。楊柳汀邊月上時。

江亭次主人韻留別

鳶飛魚躍大江湄。造化真機未易窺。三日沉吟無一語。別時忘却後來期。

戲贈江上諸老

爲言江上一沙鷗。戛玉清音響碧洲。幸報蘭汀雙白鶴。別調毋惜海山秋。

贈金仲源

小年神契鍊精金。湖海相離老已深。二友堂前梅上月。至今分照故人心。

玉岫庵次朴煙波韻以寓景仰之懷 煙波名漑 卽思庵之兄 庚戌

緣江石逕入翠微。立立層巖恠欲飛。鶴去西湖仙影斷。白雲空濕白鷗衣。

附原韻

小屋高懸近紫微。月邊僧影渡江飛。西湖居士來相宿。東岳白雲沾草衣。

送從弟海英應舉之京

男子行裝禮與宜。一毫才智未爲奇。近聞京洛多儒者。須抱遺經問所疑。

其二

雨洗良秋八月天。淡雲消盡水如烟。佳君匹馬華陽路。行近三清紫塞邊。

題淳淨上人軸

雪衲新磨山水間。詩囊兼帶白雲還。竹軒清律開塵慮。從此郊居夢也閒。

山人熙綯訪余于九臯養正齋 求詩甚勤 慢題以贈

僧自白雲山上歸。白雲隨錫到郊扉。郊扉亦有無心老。心與白雲忘是非。

其二

海上青山號白雲。白雲形勝我曾聞。遙知雪衲歸吟地。石角連雲細路分。

寄題鄭處直檣精舍

三間精舍數株梅。淨帚空庭不起埃。爲問主人何所事。一床書史好懷開。
其二

前宵落盡一庭梅。柳醉花迷占風埃。客到不須閒說話。只看階菊向秋開。

示裴生命錫

蔬糲盤中知至味。聖賢經上有珍膏。莫須心外求他道。無價明珠不在高。

寄金生倩菊

三秋已暮氣淒涼。野外無聞隱者香。採得東籬風露葉。寄來須慰病柴桑。

寄龍湖主人

湖上園亭節晚春。礪花林鳥管幽人。遙知獨酌微醺後。閒倚琴樽興不貧。

酬慎汝賚 聖弼號敬庵

郊居寥落病相迫。久隔情人雪月姿。何幸一聯詩上語。却醒孤索臥吟時。
其二

荒居輪鞅寂隨迫。華戶頽然臥病姿。有約故人逢未易。最憐佳菊月明時。

附原韻

惟兄高義邈難迫。秋水精神玉屑姿。病廢由來門掩久。德音親奉在何時。

次廣谷子韻 廣谷 卽從弟海英也 ○庚戌

蕭然茅屋倚孤峯。何日江湘起臥龍。霹靂一聲前夜雨。強排蓬戶曳長筇。

次李公端相韻贈大明人林寅等

大漢衣冠何處來。塞雲燕草路誰開。穆陵前夜三更月。石老貞魂飲泣迴。

題尹使君宗之遊天冠山詩錄後

大鵬天外六鰲頭。當日秦皇未泛舟。誰識南昌仙老伯。竹輿催駕到瀛洲。

許相國積送書

三月柴門晝不開。庭生翠草徑生苔。人傳相國送書至。竹外斜陽山鳥迴。

按廉御史閔公鼎重來訪 仍紀一絕。

庭蘭初秀柳開黃。門巷無人鳥徑長。深謝使君回駟騎。訪來愿憲病窮鄉。

讀退溪先生陶山序 不覺爽然 因成一絕。

白石清溪光霽間。天教夫子養真閒。百年遺馥餘芬在。卷裏精神若對顏。

和成石田輅田家雜興

雨後微風起午眠。小床寥落古詩篇。踈籬日永園鷄叫。閒向南郊看稻田。

答高生溥金韻

早升蘭室襲餘風。深荷明公識呂蒙。俯仰十年今古別。雪晴沙上恨難終。

又答高生

忠孝傳家乃世風。出天真性自顛蒙。白頭湖海漁樵老。堪愧初心舛厥終。

贈僧

尋真佳境病難能。回首仙山問幾層。青鶴洞天雲水地。此心空付一歸僧。

寄宗兄文伯

鵝含蜀淚歸秦樹。鴈帶燕雲入楚天。隴西惟有能言鳥。獨愛江南暖氣先。

答鄭生韻

松竹原頭古巷南。草廬新築架椽三。煩若有意重來玩。臺下澄江玉潤涵。

贈諸族兄

世外湖山掩竹扉。一床尊酒菊含醅。縱然微雨沾巾帶。猶勝山陰雪滿衣。

與鄭生楮

男子無成頭已白。半生空讀五車書。誰知回也貧而樂。陋巷簞瓢意廓如。

呈宗兄

老炎新處霽清霄。昨夜天關響斗杓。明日玉河知有約。恨無晨鵲駕靈橋。

酬金陵趙侯惺

江潭騷客抱脩能。臨海千篇玉萬層。餘事風謠閒吠犬。近聞官舍靜如僧。

其二

沮溺元非濟世能。愛看雲岫碧層層。太平耕鑿知吾分。門外時回物外僧。

戲題寄錦里諸兄

錦江銀鯽玉生鱗。丙穴安得獨擅珍。寄語西巖漁釣子。幸分啖薺採薇人。

贈惠上人 并序

惠師之師性師。爲牧牛子起一樓。扁降鶴。今惠師遠來請記文于余。余辭不就。師又請得一絕以證此行。是時也秋晴氣淨。對山人不禁山水之興。信筆書贈。仍以五言絕寄題降鶴棲云。己酉秋。白鳳山翁。

道人元自入山人。雲裏羣山摠不貧。何事出山來見我。我心如水鏡無塵。

酬金上舍宗亮

辭含風雪字騰蛇。遠寄幽人水竹涯。山鳥亂啼如解意。羣飛驚向主翁家。

謝金仲源活兄

龜江爽塏似剡中。四月清和勝雪風。灑然一棹山陰老。興盡何須見戴翁。

贈山僧

山人熙綯從余于九臯書齋之養正齋久。年前入白雲。又來訪余求詩甚勤。廓然索然。仍居物外之思。漫題以贈之也。

人間隨事齒生酸。半畝田園亦不安。羨爾白雲高臥志。我從今欲製黃冠。

次金丈而慎韻題吳君小軒

新營小屋水雲間。靜對高山萬古顏。從此肯構君可占。百年吾與爾同閒。

贈南銀臺九萬

九天祥鳳下人寰。下界眞班此日還。病鶴十年湖海志。悵然回首望雲間。

贈學徒

荒草田間一老農。形神寂寞似枯松。慚却君輩來從學。導率乖方失禮容。

寄堂侄履相

門前細澗向西流。日夜潺湲到錦洲。洲上青山吾故宅。却將離思寄沙鷗。

其二

迎春百物向陽開。惟有詩癡病若灰。數朶寒梅無世態。暗香頻訪小窓來。

寄復初堂

南國佳人志一初。貞蘭脩竹意如初。東方高士能相憶。梅下芳盟暗記初。

其二

山前淨舍是吾初。幾歲迷塗漸失初。從此故鄉還作主。並州歧路認非初。

其三

檣裏明珠湛一初。重磨不變降衷初。分明識取吾家路。雲盡天心月上初。

陪諸兄信宿言志

土房溫暖竹窓明。兄弟心談一夜情。門外不知窮歲律。滿天風雪下江城。

廣谷主人令童子數三棹艇邀余 余於舟中 口占一律

白衫青杖細駸冠。一棹扁舟下錦灘。灘上小亭人似玉。爲邀相伴採汀蘭。

次金剛韻

仙山四萬八千丈。立立銀光面勢同。何日最高巔上立。手扶明旭倚雲紅。

題道民舊居壁上

秋盡南郊處士家。小園殘竹抹青霞。凌霜獨有庭前栢。猶拂蒼髯對晚花。

寄題龜巖書室

江上青山分外奇。一床書史世情虧。薰窓點易研朱盡。露滴簷松第幾枝。

其二

數疊雲山擁小齋。烟霞朝暮鎖松階。諸生日講詩書訣。寶俸珍編滿案排。

用諸生韻

山下荆扉閉過冬。雪封庭竹與園松。慙慙夜夜清空月。輒出窓東第一峯。

寄筆諸生

白面書生隱竹山。竹山環翠閉雙關。今朝拂拭抽黃髮。往訪書生水石間。

題三學齋

青山西麓野東頭。有翼高齋占別區。箇裏莫傳塵外事。自今絃誦剩千秋。

戲題桃花扇 先生時年十九

白雲初出桃花洞。洞裏桃花染白雲。雲過楚江湘女竹。竹間猶帶舜風薰。

惺菴 余作惺庵挽詩 人有疑其過稱許 故於此言之

惺菴學問我能知。稱美元非阿所私。世路紛紛無智眼。璞中良玉衆相疑。

題紙窓

一幅紙窓明且潔。因風自閉又自開。更因日影來相照。光淨絕無徧點埃。

題畫鶴壁上

草屋蕭然倚大江。白雲青嶂擁林窓。主翁閒趣人知否。松竹源頭鶴一雙。

從弟有約不至

一樽春酒待君開。酒盡樽空君不來。閒撫玉琴深夜坐。月邊孤鴈意難裁。

與諸生和朱子冬至吟

隱隱中宵何處雷。蟄龍門戶始推開。明年九十春消息。暗向無中點化來。

用諸生讀書韻

五畝田園一茅廬。理荒朝出夜看書。箇中自有無窮意。農有秋時意復初。

清秋泛舟砥江

水面澄明湛若空。巖巒奇古畫圖中。草衣三四人相對。閒倚長竿溯晚風。

其二

清流一帶翠如羅。白石蒼松間碧莎。輕理小艇浮鏡裏。霽天秋豁水無波。

詠雪

天上神工斲玉山。誤將飛屑落人間。看來清妙難具盡。但覺書窓一味寒。

看梅東臯

聞道東山已放梅。一筇閒步穿莓苔。無人識得尋芳興。滿袖清香獨自回。

閒行

問柳尋花錦水邊。一樽終日俯長川。欣然醉臥春風裏。看取鳶魚上下天。

有人寄西菰戲題

色似秋天初霽後。形如太極未分前。碎破丹心甘露滑。相如從此懶尋泉。

春帖 辛亥立春 偶成此絕 是年五月 先生別世

一源心上乾坤靜。萬卷書中日月閒。百歲烟霞山水裏。此身無事臥松關。

冬至吟

瞑目緘三定氣機。閉關終日坐龜暉。問渠箇裏真心事。妙到天人合一幾。

望德龍山雲而有作

數疊青山玉作鬢。青雲一帶出山間。明知山氣爲雲氣。山上雲如雲上山。

雨後曉吟

漉漉簷雨響淋鈴。敬枕終宵和夢聽。夢覺鷄鳴天亦霽。此心無累但惺惺。

閒興

處士幽居江上村。茗烟深鎖小柴門。門前綠水風波靜。明月芳洲一帶雲。

朝霞詠

曉來風露藹乾坤。化作朝霞擁小軒。不辨洞門尋丈地。但聞人語在前村。

夜坐

銀漢澄清秋夜涼。萬聲岑寂月西岡。小堂風露人無寐。何處漁歌韻更長。

春日

林下春回梅路開。一天和氣在腓胎。小齋晝靜焚香坐。消却人間百念灰。

蘆磯閒釣

寒蘆花落小磯間。月照澄江映斷山。百尺長絲垂鏡裏。細風微動水痕斑。

詠梅

素服何人立落暉。良珠爲佩璧爲衣。吾知玉色程明道。滿面春風總德輝。
庭有古梅一樹。端直整束。甚肖丈人君子之象。當春早發。萬枝明珠。有芝蘭襲人之氣。遂援筆感歎而書。

秋夜仰見明河練白

上界何人練素絹。平鋪一道掛長天。若爲染作黃龍袞。裁補吾王五色線。

泛菊

白酒樽前人白衣。陶然終日倚山扉。盃心亂泛丹心菊。下染丹田色不違。

晚渡銅雀 己丑國憾仍山之時 先生奔哭而歸

濛濛微雨灑征襟。雲暗津頭碧浪深。回首清明山色裏。却憐秋日照歸心。

朝踰車嶺

水曲山回透幾重。倚天飛棧亂橫縱。何能得借五丁力。剗却巉巖與削峯。

曉發楊江

秋風驚起葉初飛。遠客歸邊野路微。千里南州山水地。一輪明月照征衣。

暮歸田園

多病平生守靜邊。虛名終誤世人傳。天門拜謝君恩重。林下還耕一頃田。

大風

本是眞君變化功。萬生同囿吹中。如何不作南薰解。楠樹堂前慢折衷。

聞北奇言志

平生恨不學孫吳。倚劔崆峒快一呼。時聽北風多怒氣。暗看霜刃發長吁。

晏起

春惱成懶懶成慵。睡起林窓日已紅。山鳥亂啼如有惜。一枝花落下東風。

讀漢史有感

漢文皇帝好馳馬。馬上艱難不自知。當日巖廊人幾許。竟推袁氏進微辭。

其二

漢文皇帝欲太平。五帝神祠始經營。仁義自是王者事。不須辛苦幸汾陽。

月夜聞笛

露氣清冷十二樓。危欄曲曲月明秋。一聲玉簫隨風便。王子乘鸞過九衢。

饑民盈路感而有作

天下蒼生我弟兄。寒溫飢飽亦同情。讀書萬卷終何用。安上流民畫未成。

宿山寺

兀然端坐夜更深。月照蒲團冷氣侵。步出方塘風不起。蕭然無語對天心。

庚寅正月

顏回三十已成仁。靜默從容契聖神。而我今年二十七。竟將何事齒諸人。

霽後有感

風拂驚塵宇宙迷。暝暝虎嘯雜猿啼。須臾霎雨天開霽。依舊前溪月色低。

公堂鶯

知爾無知一羽虫。寄身端合草林中。如何來此朱樓上。慢使啣泥污畫龍。

閒居

紙窓明淨小軒幽。一室清虛萬事休。靜默不言泥僦坐。只看山日照床頭。

謾題

天地無心而有心。人生有心還無心。欲知有心無心際。須察吾身一箇心。

夜起翫花下

飛花點點暗香微。露下空階濕草衣。人靜夜深風不起。滿庭明月一筇歸。

九月日夕

秋晚前山叫暮鴻。夕陽斜入錦林紅。長天四達無幽碍。惟有微風過碧空。

階前晚菊

菊有寒香霜下開。晚天春意獨栽培。莫恨後時難自立。滿園松竹共無猜。

誌樂

野穫稻粱足免饑。園收芋栗代甘肥。床頭亦有西山訣。養性頤神攻四非。

月下吟

花影初移月下陰。淡霜微降濕衣襟。靜想淵明醉酒後。葛巾橫帶撫長琴。

眠鳥

反背藏尖倚小枝。微風吹起羽毛披。默然會爾心中事。夢趁蜻蜓繞竹籬。

閒居省察 四首

芻中別立一朝廷。主客君臣分義明。萬品同朝咸聽命。一堂無事但虛靈。

—右心統萬事—

終朝苦戰戰無功。起滅紛紜似亂蓬。勝敗興亡猶未判。操存方略在元戎。

—右理欲交戰—

麒麟閣上畫功臣。志帥勳名第一人。自此昇平方可占。作詩賡詠舊邦新。

—右志以御氣—

萬官朝覩大庭空。臺上深宮瑞日紅。那裏欲知真箇意。玉淵千仞淡無風。

—右事過物去—

久霖

陰霖踰月地怕瘵。天意茫茫我豈知。終日竹窓無語坐。一篇洪範對支頤。

其二

頑雲陰雨動寧風。不見天光月已窮。遙想半天雲雨外。分明白日正當中。

偶吟

衆宿共歸三四斗。千花終結兩三顆。若從沙磧尋金玉。明鏡先須十分磨。

夜坐

禪窓午夜夢初醒。星漢西流欲水聲。徒倚小軒山寂寂。滿庭明月石泉鳴。

書懷

大丈夫心水鏡清。五官無累氣常平。若論芻裏真消息。霽後秋天月正明。

看書

古人論學在西東。草木昆虫貌不同。若向不同求至合。萬頭千面一元中。

其二

吾知人世事皆虛。頃刻浮雲任卷舒。終日竹窓無箇物。兀然閒對一床書。

閱參同契 莫究其妙 仍種菊起感。

余平生多病。凡藥餌修鍊之方。無不窮考。嘗聞魏伯陽參同契之術。而僻地無可求。戊申年間。邂逅南雲路令公話及之。南許以相倩。己酉春。千里遠傳。披閱歲餘。莫究其妙。今仍種菊而忽念及焉。以寓其意也云。

九轉金丹術未傳。鼎中龍虎竟難煎。啜英寧學陶彭澤。醉臥東籬亦是仙。

病已偶書

心上剩存天上事。眉間不掛世間愁。一區茅屋清江上。似臥重城十二樓。

始皇

始皇當日欲愚民。天下兵成十二人。誰識傭耕農畝者。荷鋤蜂起竟亡秦。

落花

飛花無意信遊風。纔過西郊又向東。蝴蝶暗隨香一縷。上穿高枝下枝叢。

詠栗

森森戈戟擁三峯。子母城中窆厥封。含得生生無限意。忍穿風雪過隆冬。

道民村

文公鄉裏白公治。千載休聲野老知。猶有古槐三四樹。絲陰依舊影參差。

秋夜獨坐無眠

永夜無眠對上穹。小軒高若接星空。俯窺人生人千億。貴賤同沉一夢中。

口號嘲責頑兒輩

山靜林深日又遲。一床書史到嚙時。和靖處士閒中事。不學擔糞與着碁。
其二

南洲春色最此時。無限花光各在枝。行過前川高興足。不須終日對瓢碁。

舉家絕粒戲成一絕

渾室休糧欲學仙。直過三日鼎無烟。從今可見劉安宅。犬吠鷄鳴雲岫邊。

雲峯

天嫌洋海闊無邊。巨鰐長鯨接後先。移却崑崙千萬疊。截然高插濟羅天。

鷺

乾坤中色得金聲。朱鳥南時便化生。啼送萬端無限意。綠陰高處最多情。
其二

黃金橫帶感天恩。口舌循循數萬言。曾昔三冬林下志。直從今日語溫溫。

鷺

去以何心來亦何。從知動靜不留他。北風雨雪君能遠。天地陽和得意過。

雲

羊角扶搖起白衣。九天顏色蔽無幾。不遮畏日遮冬日。品物何由見德輝。

楊柳吟

數株楊柳種門前。綠葉新生雨後天。細幹長絲條暢日。主翁須記此詩篇。
其二

野居新卜傍清漪。種柳成行繞短籬。何日垂絲成翠幕。好風藏得語黃鸝。

久雨謝人送酒

老夫多病臥荒村。風雨漫空獨閉門。賴有情人送美酒。強扶愁疾倚南軒。

曉

金鷄喔喔啓明辰。四海春光一夜晨。想見東溟初出日。紫波千丈浴紅輪。

縣人括軍丁 挽僮僕而去 笑成一律

數間方宅寄郊田。浮世塵聲到耳邊。何處碧山雲水地。一區烟月送餘年。

家後長松

千里湖山亂草生。斷立殘隴一望平。安將萬仞千干直。共戴蒼天白日明。

有懷

大鵬舒翼立中天。揮灑甘霖澤四邊。南溟北海俱無擇。若木扶桑詎後先。

題座隅

紛紛毀譽我何嘸。谷裏烟霞且不貧。紙上故人相對靜。此心無累氣常伸。

南平倅宋時杰 與營將遊龜潭

山顏玉潔似高人。一面澄潭鏡不塵。聞道此間來俗子。想應江鳥反啼唇。

夜雨朝晴

昨夜茅茨布一衾。滿天風雨夢中心。朝來試覺微開眼。依舊明窓日正臨。

暝作

天何高也地何卑。我何人也物何時。冥冥我坐冥冥裏。杳然心事杳然知。

戲題雨中海棠示兒輩

仙娥初罷五雲宮。香夢翻驚漢使通。翠袖半遮丹粉頰。一行殘淚帶臙紅。

清夜吟

夜氣淋漓天地中。結成珠露下層空。魂清不作牽情夢。高臥蒼茫大海東。

三月晦日沽酒不至

沽酒人歸何太遲。花村微雨夕陽移。吾非酒渴如司馬。爲送春光在此時。

秋晴夜坐

霜落風林已九秋。霽大清爽月成鉤。始識乾坤真面目。一塵無碍映雙眸。

夢作

琉璃寶殿水精宮。瑞日祥雲隱暎中。催駕玉麟朝玉帝。九天香露滴花叢。

覺和夢中韻

五雲深處紫微宮。法坐昭然寶殿中。下土微臣清夢覺。此心長繞瑞花叢。

冬日甚溫有懷

地高西北東南下。四序溫涼判不同。歷法只宜中國用。降霜驚蟄適其中。

九日孤懷

自生天地到今秋。更有何人似我愁。頭上仰看天不極。默然含笑倚危樓。

其二

幽懷多小不堪秋。野菊殘花傍獨愁。回首碧山無限好。一天清爽在西樓。

辛卯元日

一年三百六旬日。來往無非可愛時。人向此時多所感。一年三百此中移。

覺後

夢中身似一毛輕。九萬長天自在行。覺來八尺塵間骨。獨臥西窓殘日明。

清和泛舟 并小序

四月清和初八日。蘭舟輕泛錦江流。前身認是神仙侶。喜作湖山物外遊。

其二

扁舟一棹下滄洲。泛泛中流漫浪遊。歎息回頭天地老。此生今日等蜉蝣。

其三

江山融結自開天。萬古興亡爾宛然。前世何人閒似我。一舟長泛月明邊。
庚戌四月初八日。午潮方平。余與昆季數人。泛小舟發尤老浦。中江容與。任其所之。小泊于洗心亭下。由藏春亭至石串亭。舍舟登岸。同行數子畏風皆伏河曲中。余獨上下巖徑。或戲押眠鷗。或手激清湍。步芳洲而折瓊草。立石角而望天表。吟哦自得。無限意思。實非傍人所及知。而真妙契於太虛者存焉。日晚歸來。仍成浪吟。回睚身世。亦有感慨隨之。

前郊農夫 盡日耕耨解牛

半日勤耕十畝田。解犁旋放草深阡。農家功業渠爲首。不伐閒眠傍野泉。

見田蛙游弄有作

珠宮貝闕龍王殿。綠水青苔蛙子廬。若道真閒無所事。龍宮不如一蛙居。

見大鳥逡巡於田間有作

素衣如雪襲玄裳。貌似青田鶴背長。六翮不無天外翼。草郊何事久彷徨。

紀夢 并小序

戊申夏。余寓居白鳳山之佛舍。卽我先隴之齋所也。靜居無慮。日有好

意。向念世間事。脫若無物。忽於五月十一日曉夢。自吟一絕。覺能識得。辭意清異。殊亦奇也。但起句難曉。翊日慢紀之。

人間朝夕似春秋。夏葛冬裘不可無。萬岫青山雲水裏。好藏圓淨一明珠。
其二 己酉十一月初四日 夢有人贈我邊天眠三韻 余次其韻 覺能記之
有客來尋寂寞邊。白雲青嶂大江天。莫傳塵世煩擾事。衰病年來困睡眠。

言志

擬將養得中宵鶴。學種西湖千樹梅。素心非欲羣禽鳥。更向乾坤首自回。

浪吟

人之自在活潑通脫氣像。當於上下四方。周流無滯。若呂仙之詩則可矣。和之以見意。看者以意迓志可也。

北海蒼梧朝暮遊。洞庭湖與岳陽樓。人間形勝周觀盡。然後飄然到十洲。

大樹吟

大樹參天百萬尋。曲枝長幹自成陰。看來只恨根元少。樹立千秋恐未深。

長虹

秦皇昔日駕滄溟。畢竟神功恨未成。上訴真宰天亦感。長橋直向到蓬瀛。

閒意

小窓南闕日正明。閒倚書籠百感平。耳目見聞無一物。有時山鳥向簷鳴。

其二

一區耕鑿世人間。語笑憂歡任往還。誰識此中真意在。有時無語對青山。

寄宗兄漢章嘲不送銀鯽

此時僉履問何如。一別由來斷絕書。從昔故江情大厚。不慳傳信小雙魚。

用兒輩韻

孤鳳隨風野外棲。白雲清露夢山溪。何年逸翮連天舉。屹立崑山山上啼。

其二

人世非關知不知。此翁無事好棲遲。閒中至樂真消息。最是天心月上時。

其三

半世閒吟郊野中。詩情餘在晚山風。今朝一倍無邊興。雨後青峯碧似空。

其四

十年無事閉荆扉。世上那知有是非。時把釣竿隨白鳥。夜深空帶月明歸。

白鷺

霜翎雪翮爾何孤。煙月汀洲獨自呼。從此連翔三島鶴。海天飛盡到瀛壺。

久雨喜見無等山

我屋東頭瑞石山。兩旬封裹雨雲間。今朝幸值天開霽。露出層峯碧滿顏。

雨後青山

海天初霽濕雲濃。鎖盡窓南幾碧峯。日午微風清灑掃。亂山無數露青松。

挽李惺庵壽仁

正道無傳已百年。先生心學起先天。可憐安靜烟霞洞。從此何人閱古編。

挽浩歌亭丈人

一曲長江抱一村。幾年無事對清尊。浩歌亭上三更月。留得夫公一片魂。

挽隣老

幾年松竹限東西。論說桑麻共策藜。何忍明春時雨後。獨過南畝問鋤犁。

挽人

十里長江數疊山。暮烟疎雨夕陽殘。野堂無主松篁老。惟有閒碁一局寒。

其二

曾數年前水上亭。一盃相屬話丁寧。荒詩猥被平生託。此日能禁涕自零。

其三

夏冒炎熱冬冒雪。幾年來往問郊翁。郊翁已老君歸早。獨立長呼大海東。

挽鄭生楹

昔我壯年君尚孩。我頭猶黑君先摧。人生斯世有如斯。淚亦不下心不衰。

其二

君昔爲人痛早孤。親顏願欲見斯須。今歸縱別慈闈速。地下應歡鯉對趨。

挽羅雲峯神

雙親鶴髮尙高堂。共蒂荆枝樂未央。何忍先歸遺至痛。老天無語思茫茫。

南園集卷之五

七言律詩

七言律詩

仁智吟

仁智俱全性分中。中含動靜妙無窮。須從靜處知天意。纔向動時宜做工。卓立崑峨千丈直。周流活潑萬波通。自餘外物皆虛耳。山水何曾贊至功。

呈飛來閣主人 主人卽林承旨棟 先生兒時作 時年十四

令公多病投簪笏。藥竈新開錦水西。滄海百年鴻遠舉。碧梧千仞鳳高棲。門前綠水通心淨。檻外青山與氣齊。最是主翁真樂處。月明磯畔一絲低。

寄題宗兄永思齋 宗兄卽漢章

翠錦江邊白鳳山。松楸傳數百年間。邱原遍戴先公跡。澗曲應知舊代顏。結屋摠仍追孝思。窮經豈爲慕榮班。推誠遠勸同宗係。嚴立程科莫過閑。

用程伯子打乖吟韻 仍效其體

打乖非是欲潛身。耕稼還甘渾俗塵。數畝田園知自足。一簞蔬食不全貧。圖中宛爾窩中樂。詩上依然座上春。千載英豪難可接。白頭深愧晚鄉人。

酬鄭使君之虎見寄

別來山月幾虧盈。風雨凄然歲已行。野老閑懷非世意。天民生計在深耕。滿園修竹幽居趣。擁砌寒梅雪後貞。惠好何人携手者。獨能端坐到三更。

贈別南承旨九萬

郭外青山深復深。一區蕭寺倚雲林。幸逢天上三清客。輸盡人間十載心。梵宇香烟留兩袂。禪窓殘燭照雙襟。明朝匹馬相分後。後會何年再繼今。

酬羅上舍禕江上寓所

雨洗秋江江月明。澄波十里湛然平。山翁靜界能慳意。漁父滄浪可濯纓。誰向玉階鳴寶軫。爭携金契倒深觥。感君誠孝根天性。霜露仍時總至情。羅詩有離親思慕之意。故末句及之。

與同宗兄弟泛舟

好占烟霞物外遊。月波雲浪泛輕舟。樽含萬古青山色。杯吸千秋碧水流。四座歡情兄及弟。一江清興鷺將鷗。閑憑短棹歸來晚。孺子聲中意更幽。

和朴思菴相公韻

百年人去有青山。山下猶餘谷裏蘭。往事蒼茫雲漠漠。羈懷搖蕩水漫漫。輕舟信放遊風泛。樽酒聊防夜氣寒。醉戴清江江上月。咏歸閑溯白鷗灘。

次慎汝賚聖弼韻

主敬工夫在積真。輔仁忠告貴朋親。須知靜裏還含物。却認行時亦有神。賢聖心傳唯一字。頑愚汨喪幾千人。偃偃半世終無得。爲何吾君勉日新。

其二

交貴知心心貴真。形親終不似心親。郊居十里雖違面。靜裏雙襟各會神。野竹千竿高臥志。寒梅一枝病吟人。何時默對薰爐坐。共事天君

舊染新。

復用前韻自述

涵養中間妙守真。一心真處氣兼親。圓明積裏珠無玷。方畝塘中鏡有神。此日秋天收斂意。去年春水詠歸人。明窓點檢西山訣。忘覺沉疴體若新。

高晴沙集中 讀清陰金相公詩有感 步其韻

萬里蒼溟碧似空。水天相盪杳難窮。倘非侯服忠誠至。安得風濤道路通。聖帝恩波青海上。穆陵衰草暮山中。林窓默對朝京集。悵憶當年一軌同。

仁祖大王因山日。出寓沙巖寺書懷。

綠江一逕入青山。山下禪居特地閑。秋老嶺邊殘葉裏。月生巖際暮雲間。三千里外南州遠。九萬天涯獨自還。遙憶蒼梧山色晚。楚烟湘雨揔愁顏。

己丑八月。奔哭闕下。以病徑歸。故五六及之。

次玄鶴亭韻

男子須要出世塵。暫來形勝喚醒人。雨添秋浪初開鏡。天爲巖松剩借春。老鶴影從雲裏沒。輕鷗色向霽邊新。歸來寄語溪山面。從此襟期與爾親。

題從弟洗心亭

少年肝膽晚成衰。草屋閑開錦水湄。山勢端尊如正士。野形平闊似圍碁。頭仍望遠巾頻岸。耳爲聽潮枕屢欹。洗盡半生心上累。月明中夜臥支頤。

題岫雲亭 亭在州南榮江上 卽羅慶州緯素棲息之所

翼然高閣海山東。迥壓蓬瀛氣勢雄。鶴舉西湖千古月。鵬搏南極九天風。
登臨抖覺神魂爽。俯瞰還驚宇宙空。攬舊不須興感慨。此身如寄此囊中。
久病呈尹使君宗之

一天秋雨洗江城。事罷公堂世累輕。吏散訟庭琴韻澈。風高虛室鶴音清。
湖山剩占南昌興。樓閣閑開北海觥。却恨愿生貧病久。未陪仙伯賞新晴。

用金生韻

山下長江繞郭流。輕舟穩泛任天遊。巖楓染紫霜前日。野菊粧黃雨後秋。
寶鏡新開銀匣鍊。錦刀初拂玉鱗浮。箇中自有尋真興。不是風光蕩意收。

寄靈巖倅洪鍾韻

山水名鄉子有緣。田園邱壑我塊然。茅簷寂歷門垂席。畫閣玲瓏錦作筵。
丹筆訟冤凌後漢。朱砂點易筭先天。莫言子午勝丁卯。陸老漁樵亦是仙。

其二

清空靈岳去無緣。羨子時登意豁然。神琢碧瓊排案俎。雲連滄海接華筵。
氣吞溟渤南徙翼。目極函秦北望天。休道衡山非可翫。醉翁風彩亦神仙。

聞尹使君宗之遊天冠山寄呈

天南東角最名區。地接蓬瀛萬里途。秦藥不來滄海闊。魯桴無跡怒濤呼。
人間波浪千層起。物外青山一點孤。深羨使君乘逸興。竹輿催駕到方壺。

次龜江精舍韻示金仲源浯

天開有是好江山。幾箇詩豪咏此間。郭外雲霞朝暮態。水邊巖石古今閒。沙禽并翼隨波轉。野鶴孤飛帶月還。二十一年來復往。獨憐汀水舊容顏。

聞從弟將構小亭于莎巖山下 謾筆以寄

野闊江盤繞碧山。青莎巖畔小磯間。天慳勝地寧無意。人欠幽棲獨厚顏。灘送怨聲誚遠客。鳥含清思恨詩班。寄言芰製荷衣子。肯許分君半世閒。

酬尹使君宗之韻

睡起虛堂飽勝情。十分山色雨新晴。烟光細抹孤飛鳥。風力輕搖嫩舌鷺。荊玉入懷神欲富。寶珠拱壁室生明。羞將燕石酬瓊玖。却恨離愁便築城。

酬金陵使君趙惺

天地東南碧海頭。危欄千尺一高樓。詩豪醉墨丹青壁。舟子漁歌遠近洲。轉日扶桑紅靄曉。運溟鵬翼白雲秋。遙知仙尉登臨罷。乘興扁舟任沂流。

贈李堪輿啓玄

木下男兒生海圻。一心天地啓玄扉。神遊山水清冷窟。妙到風雲變化幾。觀盡金剛千萬像。智窮璇玉四三機。須知大丈夫行事。名教中間自在歸。

次金仲源韻

松窓泐寂晝猶陰。覆載乾坤入朗吟。殘菊有香知歲暮。敗荷無藕覺秋深。林邊老鶴千年志。物外閑鷗萬里心。若道吾儕胷裏事。一天秋月

照雙襟。

其二

商飈高起掃頑陰。萬竅秋聲各自吟。蘭瘦玉溪香更遠。葉藏山路谷還深。故交書裏平生意。知舊詩中一片心。歲晚相期幽竹下。白雲流水好開襟。

次金丈而慎韻酬金居士

問柳尋花趁水源。郊居寂寂謝塵喧。人間孰識窮詩老。世外常關蔽華門。二白苦吟連伯仲。三紅巧法教兒孫。想當盤礴成佳句。肩聳山時意十分。

次羅子整晚休堂韻

玉立青山錦水南。人兼風月好成三。世情說盡言全苦。閒興嘗來味更甘。數畝良田知已飽。盃醇酒覺微酣。隔江時有漁翁至。對打農談雜古談。

附原韻

夢湖之北曲江南。隔岸蕭然家兩三。堂以晚休身且老。村爲尺谷水猶甘。鴈沓山外秋聲早。魚戲蘆邊釣興酣。往事如今那忍說。新詩聊與故人談。

見朝報有感

聖主孜孜致太平。堯庭次第進豪英。曾聞北海還收釣。今見南陽又輟耕。里巷歌謠同老少。山林經濟異功名。野夫所望無餘事。江漢風波永不驚。

聞徐監司必遠按節

海東南地蜀荊州。天府名疆冠八區。秦俗願輕阡陌法。唐民不喜兩輪

謀。孺文何惜清河守。高子將除成都侯。從此湖鄉村巷路。關門中夜吠聲休。

和李相公敬輿韻

蠻鄉烟雨濕征裾。秋盡長沙日落初。湘水有情連客帆。楚雲無事夢幽居。東山寂寂空藏妓。南海悠悠謾上書。天末不須憂鵬鳥。聖朝仁化信豚魚。

寄尹忠義長勳山室

滿壑烟霞擁翠邱。石泉鳴玉繞軒流。雙枝棣萼雲同榻。兩樹荊花月一區。石角細開叢竹逕。潭間微築小蘭洲。青山何處無幽室。友愛深情世罕覩。

贈示吳再發卽聘侄也

君家世澤遠流源。忠孝芳聲貽乃孫。學士高名馳翰院。先生義烈出乾坤。鄴侯博業書千卷。張氏門風忍一言。勸爾勉旃思忝厥。立身修行兩無昏。

答金仲源語

嘗築防胡萬里城。千鈞鍾鼎一毫輕。冰生玉閣連空冷。月入寒溪澈底清。歲去方知酸透齒。寒來惟喜酒浮觥。他時若訪剡中興。共待湖山雪後晴。

謝李使君晷來訪

使君投暇物外遊。物外田園向九新。銀櫛含嚙延杜母。鐵官乘醉拜刀侯。苔庭踏裂仙覺鳥。草屋初停阜蓋輜。人去江城留勝跡。白雲依舊擁林邱。

寄從弟海英山堂 戊戌年

小亭新築向陽東。迥壓湖天氣勢雄。門納錦光千曲水。窓含羅濟六鰲風。迷津楚舶黃龍舫。繞郭吳潮白練紅。不下小亭三尺地。子長形勝可收功。

漫吟

明明朝日決層陰。睡起東窓愛邵吟。萬象畢開天氣豁。一川初霽露華深。蘭仍霜重多虧葉。梅爲陽生暗漏心。元亮豈無求世志。却憐詩酒好披襟。

其二

蒼松南畔小梅軒。半世浮名獨閉門。天道古今流水謝。人情朝暮亂雲翻。不如意事皆由命。莫我知歎須勿言。近聞溪上春歸盡。早擬尋眞活水源。

古查盆梅

樵斤餘擊蠹餘叢。奇巧仍兼造化工。三尺短查題品外。一區封域別寰中。千年瘦鶴閒垂翼。萬古仙彭老鞠躬。莫道形容憔悴久。大羹將和有神功。

題道洞山齋

齋居端的一心明。萬像澌虛百慮平。雲鎖洞門深寂寂。水鳴泉狔細丁丁。千年興廢山無語。十世松楸我有情。從此擬營方畝宅。滿林烟月送餘生。

長至日有感

一陽來復是天根。半夜雷聲啓九門。三十六宮春次第。萬千家戶氣貞元。人間但見馳風雪。地下誰知動暖暄。此日書生深有意。小梅窗外

暗生魂。

看鏡

我面入鏡鏡入眼。鏡中人作眼中人。我面鏡中及眼中。一身忽然爲三身。俄而斂鏡藏匣裏。鏡中眼中俱無塵。三身合爲一身存。一身由來都是春。

己亥春 應旨筮疏 遇得屯遯不進 感而作

傷時哀淚暗垂襟。一幅封章寫寸忱。難免隔溪高士笑。不禁傾日野葵心。賈誼交淺言空切。晦老疏焚意亦深。盡日竹窓空北望。乾坤回首結層陰。

閒興

幽齋晝靜閒眠罷。一杖逍遙細澗潄。戲打啼鸞挽遠樹。更隨飛鶴上雲岑。山林獨樂雖真趣。鳥獸同羣詎本心。日暮歸來松下路。滿牀書史月庭心。

暮春 三月三日

寒食風光屬暮春。暮春三日最佳辰。東君大闢乾坤戶。品物欣迎雨露仁。生意先歸庭下草。此心新拂鏡中塵。尋芳不必採花柳。花柳芬芳亦在人。

觀漲

海神翻倒洞龍宮。千丈飛波駕半空。不待衛公三滴點。坐看崇伯九川通。鯨鯢得路馳平陸。鸞鳳傾巢寄棘叢。漂墊沙虫非足惜。也憐猿鶴大濤中。

其二

昔聞水鳥巢官樹。今驗飛鴻陸地翔。半夜甕嬰鳴隙竅。平朝鰲鰲闖門墻。頓驚吳楚東南坼。却訝蓬萊日月長。從此欲從三島去。不愁來歲

困飢荒。

庚寅除夕

非野非山古巷頭。一荒茅屋小如舟。親年六十餘來歲。子道三時有至憂。每讀古書慚孝績。常思職分愧賢由。青陽况逼更新舊。最愛光陰若逝流。

感時吟

世外山林無事身。烟霞天地一閒人。春來飽得風花富。歲暮長輸雪月貧。爽氣却生三伏日。清懷益暢九秋濱。若傳靜裏真消息。雨後長江百草新。

生朝感懷 先生初度日 乃二月十七日

甲子仲春十七日。今成二十九年迴。親顏久隔三泉下。子道終懷萬世哀。覆載何容吾四體。人間慚舉一枯顛。萱扉况復殘西照。回首乾坤膽欲摧。

閒中書懷

數間茅屋傍青林。林下常開一古琴。思入碧天還不極。道同蒼海闊無濶。東西日月臨窓近。上下乾坤透戶深。欲識男兒真箇事。死生榮辱不關心。

三學齋示諸生

人而不學馬牛襟。所以新齋創自今。五教規模遵白鹿。六經工業望青衿。道存禮樂三千字。仁在吾身一箇心。更勸諸君勤用力。聖賢要法敬爲箴。

其二

齋舍新成淨且淳。諸生講會屬昏晨。槐庭秩秩冠章甫。榭几循循說禮

仁。良璧須除瑜上點。寶琴重拭匣中塵。諸生慎用瑳磨力。無價明珠只在人。

閒居戲題

人間世事薄春冰。百歲光陰轉曉燈。不必風塵談屑屑。好看雲岫立層層。玉屏窗外裁青錦。瑤草階前織翠綾。此去三山脩幾許。壯心將擬駕溟鵬。

霞

青霞一陣起山根。鎖盡江干近岸村。隔水但聞人語響。連蹊不見竹籬藩。雲中吠犬劉安宅。樹外啼鸞元亮園。俄送晚風開宿霧。數家松竹掩柴門。

暮春花盛 風雪甚烈 令侍童呼韻戲題

地連遼左氣恒陰。天假昏氛日久霖。亂雪飛花迷遠目。寒冰芳草妬春心。香消寶萼蜂愁轉。風掣瓊枝鳥恨深。此夕幽人茅屋下。不勝端坐苦呻吟。

詠風土

我在南鄉三十年。土風人俗習相傳。民心酷好私朋屬。世道偏宜許自賢。山近瘴江多毒虺。地仍低濕鮮蘭荃。曾聞三島連東國。便欲携丹去學仙。

詠勝地

有人曾宰居昌縣。爲道伽倻勝地誇。萬點紅流橋上月。一鸞青鶴洞中花。巖崖面面神仙字。石隙層層隱士家。千載孤雲無去影。玉岑依舊帶飛霞。

日暮書事

西日陰陰沒遠岑。纖雲低曳抹青林。烟橫野店鳴歸犢。暝入山村響小砧。人汲澗泉穿竹去。鳥窺簷角隱松吟。靜看衆動皆思靜。還點吾身一箇心。

小亭臨江 微山橫障 景像奇勝 信筆戲題。

前江一曲隱前山。山盡江頭遠近間。帆影每從巖隙出。櫓聲時向樹邊還。誰將流峙分天巧。更幻青蒼錯地斑。此裏却添光霽富。百年身世足盤桓。

看雲

一片浮雲細若絲。青天萬里去遲遲。須臾風起如喬嶽。倏忽烟消似畫眉。自是卷舒無定位。從知離合有其時。看來不覺心神爽。回首林窓月已虧。

重遊竹林寺

二十年今此重尋。谷蘭林鳥若知音。川開鏡面迎歸路。山豁孱顏向客襟。竹有琅玕棲鳳處。雲留松桂宿鸞岑。禪窓三日焚香坐。靜默還如入定心。

幽居效四實體

五月南州大麥黃。渚浦輕泛晚風涼。烟深細柳千絲弱。雨過新筠萬壁長。泉入小塘留鑑影。草連微路剩春光。幽鷺亦好山林靜。啼向茅茨近竹牀。

除夕書懷自悼

人間今日可傷神。送往迎來在此辰。天向一宵分乙丙。地從三夜限冬春。原桑忍見陽和至。寸草難堪節序新。三樂誰能無所感。怡怡兄弟

共親親。

先生桑梓永感。棖花無依。年踰三十。且無血胤。故詩意如此悲悼。
天向一作年向。地從一作時從。

金梭歎

造物兒郎智巧多。洪勻冶出一金梭。曾辭帝女河邊織。慢向漁夫釣上波。
萬縷花成紅蜀錦。千絲柳作翠齊羅。大東今日空杼杵。田婦看渠幾咄嗟。

道民古縣 先生寓居地

古縣千年基尚遺。山川佳氣鬱參差。能怀昔日文丞相。曾記當時道國師。
幾歲天慳留勝地。固知神秘待男兒。如今倘遂誅茅計。長占烟霞護竹籬。

聞中原多亂

四海干戈二十年。男兒頭上愧蒼天。中宵吐氣虹霓發。白日長吟雲霧連。
周凱亭邊誰拭淚。孔明隴上但耕田。焉知渭北垂絲者。萬古經綸獨自專。

詠蒲扇

不必唐宗閣裏風。元規自未污塵蒙。趙盾威虐寧知畏。永叔佳篇謾見工。
回也曲肱君有用。廣文無席爾成功。堯庭倘遂平生志。指佞招賢汝我同。

九日獨酌有感

九日芳樽獨自開。數根殘菊近忱栽。回頭天地殘生老。舉眼軒楹酒蟻來。
人道醉中多壯志。我知盃裏有悲懷。忘憂欲學陶靖節。強引頭巾向醞醅。

階邊翠栢下有海棠 紅綠相暎 仍起感而題

翠栢階邊樹海棠。分明紅綠出尋常。露腮丹臉風前嫩。雪態蒼髯雨後長。錦水臥龍如可接。惠州仙子若相望。二公氣槩今千載。對爾沉吟興有傷。

讀三略書

男子心膂女子容。王喬身世許夔龍。初平天下師黃石。晚遂功名友赤松。漢楚興亡三寸舌。秦韓讎怨一長鋒。寒齋閱盡當年訣。不覺乾坤壯氣從。

閒行

踏盡蘭皋與碧苔。行尋春色上層臺。逕連芳草香生屐。人倚青松翠入盃。十里波光搖案俎。一山花氣惹樽罍。薰然醉對東風面。萬白千紅自在開。

除夕

三百六旬第六日。庚寅此夕外無零。天心已動梅腮白。帝意將春柳眼青。和氣先來幽士室。惠風徐到野人亭。閒中默數平生事。二十八年空醉醒。

病懷

病榻風寒門不開。披衣亂髮臥蒿萊。簷邊啼鳥自春意。靜裏一心如死灰。固是閒人交若水。明知窗外已生苔。庭梅不負年前好。風引微香枕上來。

移居

造物何年孕小邱。却留千載待吾遊。男兒不必棲巖壑。農老何曾別野溝。山帶碧簪呈寶瑞。水含玄酒奏瓊球。烟霞朝暮漱牙頰。齒舌清涼

爽氣收。

有人言三神山皆在我國 吾所居地是仙圃 仍題此而起興
家住扶桑碧海頭。五雲深處是青邱。大鵬天外仙凡限。青鶴峯前日月浮。
香惹玉芝春不老。露滋瓊草客無收。階邊白鹿閒眠起。跨向三清洞裏遊。

春日清江晚興

清遊佳景草芃芃。滿目無非造化工。春樹影潛溪水碧。落霞歸帶夕陽紅。
渚蒲芽白朝前雨。山杏花飛午後風。江上釣叟何事有。一絲高掛暮烟中。

族會

山近江頭石作臺。登臨佳節百花開。江山萬古渾無禁。花柳三春笑不猜。
人自白鷗洲上至。酒從紅杏洞中來。連床况是皆兄弟。箇裏歡情不自裁。

中庸

聖人傳道聖人孫。萬理分明總一元。查滓不存昭日月。至誠無息體乾坤。
爲山九仞知真積。達海百川有本源。濂洛新安今寂寞。鳶飛魚躍孰能言。

大學

聖門參也得其宗。八目三綱次第通。天下國家治有本。小人君子道無同。
修身可見新民效。慎篤方知入德功。誠意關中誰是主。靈臺臺上一惺翁。

論語

乾坤精氣素王生。玉振金聲集大成。禮樂威儀牆內備。典章文物室中明。敦仁博義天人立。孝父忠君家國平。河洛圖書雖未見。秋陽江漢至今清。

孟子

浩然之氣秋天像。孕出鄒邦亞聖姿。力排楊朱墨翟徒。志復文武唐虞治。齊宣梁惠言無用。平仲夷吾矢不爲。人欲已消天理正。至今功德後人知。

雨後

烟雨荒村開竹扉。陰陰老木護籬圍。鳥呼簷裏隣翁過。鷄唱園邊野客歸。風入雲端吹浩氣。雲收山角映暉微。閒中只喜桑麻長。巷外何須問是非。

日暮過郊外 偶見鷓鴣羣噪

我語林間衆鷓鴣。羣飛簇簇竟曛朝。籬根但識爭魚蟻。雲外何知有鳳鵠。黃鶻翼邊回白日。大鵬頭上戴層霄。吾知羽族君爲小。莫向青天浪自驕。

書壁上

堪笑吾生計已非。十年農圃老柴扉。奴收黃豆編茅束。婢染青絲傍竹晞。門外日懼催租吏。室中時課織布機。小床賴有西山訣。安分知幾樂忍飢。

冬日記所見

輕輕飛雪舞風前。點點微雲散復連。幾箇暮鴻嘶遠浦。何年別鶴度長天。烟依遠岵粧新髻。水咽流泉續舊絃。摠是閒中題品了。欲言真意便忘筌。

月下有懷

光霽雖無有好期。天心水面小人知。清生高閣踈楹直。明透虛室曲檻危。最愛梧桐懷裏照。多情楊柳岸邊吹。中間若道真消息。三百仲秋玉鏡時。

吟雪

歲暮江天雪正雱。乾坤盡入水晶囊。飄零碧海銀龍動。飛落丹山玉鳳翔。萬樹梨花誇素艷。千竿竹葉失青光。梁園賦雪才雖短。灞水尋梅興更長。

挽洪掌令鍾韻

妙年龍匣駕雲螭。鷄舌恩榮近鳳池。三府分銅甘旨日。兩臺端笏正辭時。輸忠許國人方企。感孝終身我豈知。回首四旬塵世事。可嗟陳迹在丹墀。

挽從兄震英

吾兄心事我知之。九地何年暝目時。秋晚暮天椿欲老。春青蘭室蕙如衰。生前夙抱王祥恨。身後終懷鄧子悲。最是鵠原無限痛。默然無語淚漣洏。

挽羅雲峯紳

種德爲基世有敦。永傳餘慶贈諸孫。雙蘭共蒂稱金友。二璧連珍見玉昆。人惜良駒沉下邑。天收仙鳥返雲門。季方獨抱無窮痛。泣奉晨昏暗斷魂。

挽尹忠義長勳內喪

利川家世係箕宗。坡貫名門著海封。壺德貞淳知有自。閨儀淵塞豈無從。神疇五福稱頤壽。婦道三從貴禮恭。總結嘉徵遺後業。玉枝瓊樹滿庭穠。

輓李和伯改葬

仁何不祐善何咎。天亦無言白日高。名祖義聲扶宇宙。孱孫遺業滯蓬蒿。重披宿草開雙穴。更向新阡祭共牢。惟有一孤蒙總經。泣終抆血徹蒼號。

挽永平蔡侯忠立

殘鄉編戶失憑生。杜母仁車遽棄城。政用鞭皮方惠。衣無充棺始知清。湖山驛路修千里。寂寞魂輿表一旌。酌彼齊州盃上水。絳謳三唱送公行。

蔡侯斂相時。布被短袴之外。衙無所藏云。故詩中及之。

挽尹養老堂保

郭外雲山鎖暮秋。礪泉明邃谷蘭幽。林扉此日禽啼咽。巖老前宵鶴夢收。靜榻憶陪雙白髮。空櫺若接兩青眸。臨軒獨灑無窮淚。滿砌松篁摠帶愁。

挽外從叔文丈玩

瀛海靈氛降異靈。遺昆派貫渡玄城。千年神像傳無墜。一代清閒獨自成。六十人間非不壽。二蘭香葉摠爲榮。精魂九地餘何憾。鼓缶今辰從此行。

挽鄭太醫後啓

歧秦心法秘東方。近代惟稱許與楊。傳鉢孰能開妙鍵。拖紳公得入崇廊。邊塵十載陪龍御。內局三朝襯日光。離旻不須嗟大耋。滿庭蘭茁剩餘芳。

挽金生日章

道山山水好田園。松竹桑麻繞古軒。霜落荊枝哀隻鴈。秋殘蘭塢泣孤鴛。輦前二玉號攀紉。旌下雙珠哭奉繫。人世六旬身後事。獨留餘慶

贈諸孫。

代人輓隣婦

貞靜閨儀後孟光。齊眉三十二年強。霜摧玉樹山哀紫。風掣瓊芝谷怨香。五朵芳蘭花始茁。一枝叢桂葉初長。從知此日無窮恨。鶴髮悲號鳳失凰。

挽尹忠義徽

忠勳世業滯鄉山。友愛家聲叔仲間。數畝田園隣孝悌。半生雲水占幽閒。壽星天上收餘照。溪月林邊掩弊關。可惜冰巖仙洞裏。一枝荊樹影偏孱。

代人挽

吾家宗法孝爲基。餘慶當須蔭本支。豈意吾兄無後託。固知天道竟難期。湖山寂寞閒人宅。梅竹淒涼處士籬。惟有白頭衰老弟。倚門長慟寫哀詞。

南園集卷之六

七言古詩

七言古詩

讀宋史熙豐元祐紀

皇宋垂尾黨論起。洛蜀羣哲分西東。河中先生繼往聖。眉翁亦豈凡羣蒙。片言相角大罨開。坐使宗社奔波同。廟堂分啓楚漢勢。屈伸翻覆爭雌雄。流波起滅久不平。年深歲舊多陰風。睢盱朝暮鵲蚌成。衣冠班列心兵戎。同趨胡越許心腹。異趣兄弟殊徵宮。蕙操蘭姿變菘蒹。奴顏婢膝爲賢忠。雙旌七旒出大藩。九命三錫爲卿公。問之何以至若此。得遇同志專天工。周公召公掉舌上。吉甫山甫隨頤中。邦家興替等閒事。富貴功名榮乃躬。儒林紛紛隨涵濁。山林高義誰能崇。河間空老座上春。洛中久蠖深衣翁。共生天地氣化中。同根一理相流通。民吾同胞物吾與。况乃聯簪朝四聰。公心協志輔華勛。太平三五和冲融。臯夔稷契共天職。元凱顛夭成厥功。都兪吁咈一堂上。八路民物回豐隆。如何正路舍不由。窘步顛疲如病癰。唾彼章蔡不足道。平分過宜皆均洪。猜疑偏復變殺氣。殺氣召眚紛倥傯。寒暖失節四序錯。風雨不調天道窮。國本於民本本農。農既失實餘皆空。兵戈土木又從興。賦役煩重民忡忡。安危雖有大臣在。葵藿豈無傾天衷。詩成暗拭賈生淚。忠戀但切張公恫。君不見靖康大禍黨罨啓。推原罪在於元豐。

七夕歎

天清地重奠高下。黃赤二道分日月。穹隆磅礴赫弘敞。法像尊嚴安可褻。星躔的歷位數明。一日周行三百六。如何人世喜淫巧。瀆天慢紀行詖說。錢禮作俑歲時記。鵲橋更誕淮南子。詞壇幾箇小兒輩。比興高唱流千祀。客星荒辭誤漢使。明河陋作淫周紀。人間幾歲七月七。天上明星含愧恥。誰注銀河水萬斛。洗盡千載荒唐說。願借陶公大赤電。爲斬今古如簧舌。明輝夜夜九天上。照臨四海無欠缺。

行路難

禮門仁宅久榛蕪。正路一脈煙生寒。爭將達道變蜀道。九疑三危方寸端。羊腸牛坂一翻手。白日平陸生風湍。昔自軒皇造舟車。道通天下平而寬。刊開民巖作坦塗。君舟利涉回奔瀾。重華大麓雷雨霽。夏禹山川洺水安。堯天已暮桀日喪。忿山慾壑爭嶮巒。情田突起百步坂。太行巫峽排層蠻。要津氣浪接宦海。智水靈淵愁欲乾。龍驤千斛尚難濟。浮海乘桴嗟可歎。殷輅無賴舞交衢。嚙膝垂耳雙眉攢。塗窮何處可問津。泣盡朱淚空斑沬。安得夸娥兩力士。剗却巉巖平屈蟠。西山木石費精衛。灑灑成陸無危灘。王良挾策六轡組。水曲禽左調和鑿。中行端爲美人導。平步義路明衣冠。不然歸臥水雲間。東海閒垂漁父竿。却笑詩酒老調仙。苦吟平生行路難。

觀月出 時庚寅九月十五夜

庚寅九月十五夜。玉宇淨掃纖雲滅。乾端軒豁地軸靜。白露橫空飛木末。幽人此夜倍清神。一塵不起階宇豁。陶詩一闕快詠過。玉壺清冰罽裏潔。悠然步出竹下逕。立向東天看月出。素綃千丈射碧天。輾上銀輪光透徹。長河斂影北斗沒。萬里山川瓊作窟。水面生白淡似鏡。孱顏鍊玉光疑雪。長郊十里鋪瓊沙。遠岵千巖披玉屑。娑娑庭影竹枝瘦。艷浥階香蘭聞發。林疎斜暎宿鳥眠。更向幽窓光入室。天三地四一色中。照我靈臺同一轍。彼明此明本非二。徹上徹下無分別。三才一理浩渺邊。至妙天機誰與說。沉吟還倚竹窓邊。玉溪雲生橫一抹。

憶舊遊行 寄宗兄文伯 名漢倬 晚築孤月亭 與一代諸賢 詩酒自娛

萬古靈江水碧流。北連方丈南瀛洲。一作州 沿江琢出玉芙蓉。鏡上翠錦名千秋。其間產發幾英雄。百年一夢成浮沤。嗟余降生幸此地。龍鳳已去餘蜉蝣。哀懷無與泄長虹。一嘯暮天魂夷猶。蘭撓百尺擊萬頃。滿載兄弟浮長洲。黃金萬斛浴玉蟾。碧玉一片流銀鈎。巴人郢客奏白雪。惠連康樂輸青眸。乾坤一點一小盃。日夜滄海團團浮。吾人藐然寄寰中。夢幻身世逍遙遊。千年往事付大笑。一杓流霞同子酬。別來山月已虧盈。勝遊江頭陳迹留。滄浪兄擬濯華纓。石室弟獨披雲裘。良秋佳勝屬

兩月。禮羅高揭鳴天球。願曬郝生腹萬卷。揮却醉翁長杠頭。仍回竇使入奏車。來訪浣花溪居幽。扁舟同載滿眼黏。一帆更泛清江流。聞道碧海西岸是東齊。往聞魯連蹈海邱。

其二

崑山北脉又東流。流作青邱三百州。三京不獨擅佳麗。二南雄都鳴幾秋。錦江形勝甲嶺湖。有若轂渦隣微漚。數三豪俊稟地靈。秋生蟋蟀陰蟪蛄。鄭相功業冠東韓。式遵大路行猶猶。君山霽月接錦南。東岳白雲連滄洲。松老文章妙入室。思翁心學窮深鉤。前賢已往水空逝。葉落空山花亂眸。風花雪月孰品題。一點閒鷗波上浮。年前勝覽豈無意。野鳥却訝吾清遊。曾將燕石銜寶肆。猥荷良璞來相酬。鸞翔玄圃衆仙下。鳳去緱山清韻留。仍思江上舊遊處。一竿何日披羊裘。波連清漢練素綃。潮打奇巖鳴玉球。蘆洲鷗鷺夢豈圓。佇望吾行頻舉頭。窮山病鶴滯林臯。蜀魄一聲山更幽。幽懷閒理不繫舟。再趁桃花春水流。兄須艤待木蘭楫。武陵豈獨爲仙區。

寄贈金陵守趙惺

洛陽才子青雲士。出宰形勝湖中縣。虎踞龍蹲古金陵。青山白水明如練。推擠結課付餘事。嘯咏琴樽懷自遣。黃岡騷客詠宜竹。稷下諸生爭執卷。憐君閱盡五經笥。唐宋詩名求玉銜。隨州行色許諸葛。入海探龍將可見。咳風嗽月足暢神。買櫝藏珠須亦戀。明府清詩尙可得。遠寄開我情婉轉。

寄贈從弟 海英號廣谷子

君不見魏王之瓠大如樽。雲帆欲舉江湖窄。又不見孔明廟栢邱山重。萬牛回頭終棄擲。杞梓病老一尺朽。洪鑪競收囊中鐵。至人胷中本無物。世外浮沉安足說。風雲變態人所巧。雪月精神吾自拙。昔我與君同髫鬢。書劍不肯低頭學。中身志氣吐虹霓。壯心直欲扶天日。年來我耕數畝田。弄觚君向羣兒逐。此日聞君漏禮羅。一笑更臥青山石。誰知笑中有所懷。山童催酌盃中綠。錦江橫流數百里。瀛海三山相際接。預拂片舟一片月。與君爛漫遊江曲。然後乘桴泛海外。往問尙父當年躅。

次張谿谷洗鋤詩韻 是年朝廷頒大同法 農民往往疑其賦苦 故詩中及之云
七月既望田事畢。田婦浣着農布裙。新麥麩成新米舂。黃瓜菜將鹿芹
渾。醜傾濁醪炙田螺。少長爭座相喧喧。男斟女酌各盡醉。俗淳語朴無
華繁。瓦樽木榼禮數簡。抱孫携子相箕蹲。各言今年幸小豐。念及喫着
心稍寬。但聞官長更賦法。樂歲恐見齊民飢。願催長鼓各起舞。此樂難
保明年歸。

重陽饗將士詩

昇平天子一戎衣。白旄黃鉞龍堆上。長戈高揭可汗頭。捷鼓殷地回輪
鞅。天開牛酒饗六師。此日清秋天宇爽。一統山河日月明。萬邦玉帛爭
來享。孽胡豈敢梗王化。一怒天戈揮掃盪。威靈赫烈地軸翻。碣石欲倒
愁魍魎。三旬豈特格頑苗。萬里禽獸來天網。旄頭滅盡帝座明。玉帳敞
豁遼河廣。是時三秋九月九。塞天新晴森爽朗。邊風清澈玉仗高。入門
嚴明排伍兩。鳴條事罷啓湯誓。牧野師班開武饗。象胥雜還貢狼鹿。方
召聯翩行爵賞。龍顏暫酌入彩浮。十萬軍情皆向仰。爭將野菊舞轅門。
萬壽呼聲動天壤。邊民齊奏太平曲。甲光舞月金鱗晃。吾皇聖武信天
授。天授神威非勉強。舟車所通戴耿光。蕞爾腥氛難誣罔。中天大明萬
萬世。寶曆無算垂乾象。君不見燕京今日萬事非。志士秋風悲慨懷。

觀漲

昨夜坤風捲地起。黑雲慘慘龍戰野。雷公叱咤霹靂驚。海若紛騰驅海
瀉。今朝變作大雨來。馬頭鵝卵從天下。黃河欲倒泰山傾。石走巖翻飛
屋瓦。俄然大浪起原陸。走瀆豪川相搏射。魚龍隱躍虎豹遁。傾檣摧楫
來村舍。洪濤巨浪激相春。羽毛裸介無全者。我疑皇天厭胡羶。決注銀
河飛掃灑。永使吾東數千里。淨洗腥氛回爾雅。不然天窮地盡十二會。
混沌之水相籠駕。冥冥漠漠作長夜。子丑以後開造化。又疑三千弱水決
東海。六鰲三山相枕藉。使我飛騰九天外。烟火塵煩從此謝。風吾腋羽
吾衣。直上閼苑之臺榭。上訴玉皇呈琅玕。紫霞靈丹聊暫借。下與吾民

壽齊彭。俗回大朴無欺詐。嗟我此志亦可悲。虐浪滔天哀我稼。沉吟太息忽回首。海送甯風山木亞。

明珠詠

一顆明珠出自天。誤落萬丈塵埃中。爾來閱盡幾春秋。汨沒沙礫光矇矓。清風昨夜爽兩過。洗盡乾坤塵土叢。明光忽發舊時容。瑞色輝映蟠青空。清虛氣象妙難測。至妙中間安可窮。言之已到不可言。似有疑無無始終。安將玉壺與冰盤。置在迎風寒露宮。下照千古萬古心。上徹無極太極翁。不須高價動人間。此珠非私乃是公。

移居自述

大歲在猴干尚赤。斗指黃狗秋灰季。我移自北居南村。山原不淺兼不邃。地名道民稱古縣。考實可徵輿地誌。古老猶傳相國名。行人尚識東門址。山根瑞石數百里。華岳德龍孕蒼翠。北走南回形勢巧。郊野清平無跌墜。四泉上流玉醴甘。三光下照明終始。草屋新開八九間。朝暉夕陰烟霞裏。穿雲水聲月宮川。帶烟鳥影龍門寺。東隣西舍老農圃。荷鋤時覘泉源至。野談古朴禮數簡。桑麻問答無他意。行無所牽心無泥。策杖遐觀紆瞻視。開天建地暎遠近。日奉月出呈奇異。平生素性愛山水。病來遠涉心惟愧。高齋清晝捲書帷。案非蒼玉如相待。男兒事業有萬端。廓落物表爲一事。心遊八荒氣六合。物我乾坤無二致。然後吾知大丈夫。一毫塵土還多恥。誰知百年一瞬間。世上何人醒大寐。今成一笑快遠目。立立峯巒無語起。

其二

歲在強圉月惟卯。余自翼州歸玄雄。時當長陽百物茁。太和和氣方融融。古砌梅老昔年顏。荒階蘭茁依林叢。數莖紅藥對軒窓。軒窓已落餘殘紅。邱原強記少日遊。滿園松竹分西東。桑梓觸日孕涕多。仰天冥漠心神窮。村街墟曲盡荒廢。長林豐草斜陽中。誅茅手結數間屋。拔去蘿

網開羣蒙。長松拂髯霽天月。密竹戛玉晴溪風。寒梅更胚昔日英。谷蘭再聞年前香。仍時感物不自懷。掩泣誰識吾心腸。隣家古老慰余寂。竹杖披草來連床。連床談笑雜農談。日夕但喜桑麻長。桑麻長處至意存。至意欲辨言相忘。言相忘裏亦多味。多味中間無味臧。安分清居外無牽。百年烟月閒徜徉。

連環體

天河漢練澄平。二闌頭夜氣清。隱小峯光射出。連大野影縱橫。經仙人來無跡。鳳王君去有聲。目不須形外役。章自足過吾生。

南園集卷之七

辭賦

賦

大風賦 記卽事也

大風驅雲兮。雲滿天地。草木巖谷大小皆有聲。山林川澤高下咸雲氣。陰陰兮鬢鬢。刁刁兮倏倏。一陣風擁萬陣雲。一片雲孕千片雪。羣馳疾速。奔走服役。其間若無主宰者。安得號令如是烈。雖然肅殺之中有生氣。昨夜雷聲。萬品皆得含春意。

感興賦

牛耕兮馬乘。鷄司晨兮犬司夜。耕乘就功兮遭體解。晨夜服任兮亂烹煮。虎有毛兮犀有角。蚌含珠兮蠹負筐。誰知衛我者便是殺我。始覺爲榮者畢竟爲殃。龍興雨兮澤物。麟應時兮告祥。夏庭無道兮神物菹醢。魯郊有狩兮仁獸傷戕。木有何功兮得秦官。石有何德兮寵隨侯。山節之龜不若沒泥魚。衣錦之牲不若老田牛。吾觀萬物之有生兮。莫如覽德千仞之輝。

辭

一幽人辭

夫何一幽人兮。迂與拙而相謀。視天地爲一體兮。指萬物而同塗。平生二跡兮不入爭名之場。平生一言兮不及黨比之鄉。况此一心之機兮。或分冰炭之壚。惟數楹之茅屋兮。左綠水而右青山。中開數秩經書兮。想古人之心顏。窺昭曠之大原兮。湛忘言於真。閒時童與冠六與七兮。手黃卷而相從。默然相對兩無言兮。渾物我而雍容。夫何一幽人兮。自謂狂生人謂愚夫。春風惠暢。秋月無涯兮。斂二儀三光兮收一區。高歌放咏。不足舒吾心兮。歸一室而含默。弄丸而休休兮。休休而穆穆。朝同沆瀣而清淑兮。暮與游氣而舒蹙。夫何一幽人兮。勿造化而歸宿。

鞠蟲辭

褐寬先生。鶉懸兩衽。草綻雙襟。蓬門永日。古今閑吟。玄思默會。天地寸心。忽有一物。在著裏陰。舐舐集集。厥醜千億。似蝎而細。如蟻而白。觜若蜂尾。砭人膚革。踰肩下脅。仍背至臙。俄頃之內。百體生粟。先生乃凝神靜坐。襲撤方冊。披元亮褐。解子陵裘。具檟燎炭。口正沫流。從絮至緣。始領及裔。毫分縷析。莫有巨細。既執其母。又獵其弟。布列床下。乃目厥罪。曰汝天地。爲物最微。假息毛髮。寄生膚肌。涵淹卵育。引類連朋。余何負汝。浚我膏血。况余體膚。父母所遺。安肯佻佻。爲汝所殃。天地至廣。物無不生。鯤鵬之大。澤霖于氓。麟趾之化。惟聖之禎。蜂蟻之微。其義可尙。蚕蛛之細。其巧可長。天生萬物。亦各有用。胡乃爾生。獨醜厥種。既鎖而厲。難盡其類。朝刑乃祖。暮見其孫。至若尊賓在門。死雉禮具。主人端笏。從東階趨。揖讓升堂。論道談古。爾於此時。肆縱胷肚。使我把搔。頓失禮貌。及夫淨掃閒軒。几案端詳。墳典在右。旨訣鋪床。遊心邃古。泝意神妙。爾於此時。乘我整暇。奔走馳騁。自頂及踝。世事雖多。王

猛不遑。况我隱輿。暇得其詳。又如永夜長漏。仲淹多憂。周公不夢。君實無寐。脉脉反側。寸結腸肺。爾於此時。益逞其毒。使我手足。終夜反復。此其梗槩。難悉委曲。於是欲驅其醜。將赴烈焰。逡巡覘觫。如怨如泣。既無唇舌。請代以臆。我雖至微。亦是天物。雖憑子生。亦子自取。我明語子。請子咨諏。廣廈之下。細糶之上。絺絺之涼。純綿之纈。齊紈蜀錦。陸離輝煌。膏粱所充。玉膚芳香。我非不欲。無路攀援。今子百結重裳。十年蔽冠。容彭澤膝。破司馬袞。廣文雖貧。法曹腰大。樂土樂土。爰得我所。胡不內顧。反我爲讎。先生乃蹙然不悅。隱几而臥。乃使童子麾而却之。傍有客曰今雖聞一。理可反三。劉綱不紊。魏賊腹心。李法不橫。藩鎮不橫。主聖臣良。鬼怪能逞。宋辟不辟。奸諛得志。自伐人伐。惟聖之戒。先生斂衽更坐。肅然復讀。琅琅清韻。若出金石。

南園集卷之八

疏

疏

山陵奔哭後言事疏

伏以臣竊以爲祥瑞不足喜。災異不足懼。外賊不足憂。所可大畏者。伏於數千里邦域之中。欲禦則無形可捉。欲見則無跡可求。變動不測。覆家喪邦之禍。潛藏於至微至隱之間。橫流於公卿大夫士庶人之上。曰人心也。書 恐作詩 曰殷之未喪師。克配上帝。儀監于殷。峻命不易。繼之者曰道得衆則得國。失衆則失國。所謂得衆者。得衆人之心也。衆人之心定于一。無渙散背戾之失。然後能配天之命而國家可保也。故曰紂有臣億萬人。惟億萬心。武王有臣三千人。惟一心。是以人心純一。然後天命可常。天命可常。然後國家可守。上自三代。下及秦漢唐宋。其將興也。未有人心之不一。其將廢也。亦未有人心之不散。考諸史牒。昭昭若日月之可見。難可誣矣。臣伏觀我國人心之判而爲二。不能定于一者。其將百年。至于光海之日。人心之判而爲二者。又分而爲五六。五六而至於億萬心。光海以是亡國。國人之所見也。幸惟我仁聖神祖大王應天休命。丕承宗統。人心之分而爲億萬者。一朝而合而爲一。而無疆之業。復得中興矣。惟我先王聖神文武。卓出百王。正心以正朝廷而正萬民之心。則今日人心。不可謂不一矣。雖然臣嘗觀察國人之面目。深考國人之心術。携貳之端。尙今未一。懷私之念。賁若草木。萌於不覩不聞之中。發於言語事爲之間。朝廷之上。公論不行。閭巷之中。物議角立。或東或西。形迹判然。賢愚邪正。是非相半。一國之心。分作兩端。一進一退。定其勝負者。爲第一義。而事君憂國之念。反在第二段矣。其間或有持心中正。持論公平。欲定人心。務盡國事者。出於其中。則衆怪羣笑。指之謂含胡 一作糊 兩可之人。斥之謂中無所主之人。終歸於一箇棄物然後已焉。人心若此而國可爲乎。臣向所謂大可畏者。伏於數千里邦域之中。而災異外賊不足慮者此也何者。人心既定于一而天命惟常。則災異可消而外賊不難禦也。惟我先王仁心仁聞。決

于四方。億萬生靈。仰若父母。唐虞至治。指日可待。赤子無祿。皇天不吊。聖化未究。龍御遠駕。深山窮谷。莫不號慟。舉國人心。驚攝疑懼。當此之時。鎮服輿情。迓續天命。上而安二百年宗社之基。下以定億萬民驚懼之心者。其責不在於殿下乎。治亂之幾興亡之判。亦不在於今日乎。殿下其可不廓然警惕。奮然振起。統率百官。震肅紀綱。延攬賢能。務說民心。一切以人心之定于一爲急務也。然則如之何而人心可定于一也。惟在殿下之心之正不正如何耳。人君一心定于一。則天下之心。可定于一。况一國歟。一國之心。可定于一。况殿陛之下朝廷之上之心乎。是以一國之心固所可畏者。其可畏者。又有甚於國人之心者。又在於殿下之一心矣。夫心者固吾之心。其操縱得失。固吾分內事。然其操舍存亡出入無時者。亦有吾心之所不能自制者存焉。苟能敬以直之。則萬善從焉。若不能主一。牽於外物。則羣邪蠅集於一念俄頃之失。而意不誠心不正身不修。國家天下又從而顛覆焉。其幾至微。其禍不測。其可不畏歟。伏願殿下先立一心之本。大中至正。如天之大于日之明。使天下萬物。皆得照于吾心之明睿然後。擇於庶官。得老成熟德持心公正不偏不倚之人爲之輔佐。洞開中和之政。特立大公之化。使吾之心。赫然昭揭于天下之中。若春氣之無私厚。日月之無私照。使一國之人。上自公卿大夫。下至閭巷匹夫。皆感動興起於殿下至公至中之仁。豁然革去舊日猜疑偏愎不公不中之習。使之一就於正。同寅協恭然後。如有依舊懷私。終始不革者。迸之四裔。不與同國中可也。雖然殿下不能先立一心之中正至公至明。而只以羣下不能同心守中爲疑。不信之念。先硬于中。不以明睿所照。而反欲以智意防閑。則其貽禍於士林。亦必不輕矣。必也先明乎吾心之至公。使天下之妍媸曲直。莫逃於吾明鑑。然後一國之心。可定于一。而宗社之福。無窮基矣。不然從前之習。二而不一。歧而不純。一東一西。歲久日深。則所謂億萬其心。自就於亡滅者。可立而待也。是以臣以爲我國之亡。不在於外賊而在於邦域數千里中也。殿下其可不惕然動念。急急以人心之定于一爲務歟。臣以至微至賤。獲添恩拜。至於兩朝。今此因山之日。不敢退在私室。匍匐千里。

慟哭郊外。今將退歸畎畝。以終其身。臣嘗目見人心疑貳。國勢日孤。不揆寸芹之微。一作激 嘗切向日之誠。今若一歸邱壑。喑默終身。則犬馬區區之懷。無以自勝。敢拜短疏于闕下。經自退歸。伏惟聖慈睿察焉。

萬言疏 己亥春應旨製疏 以筮不吉不果上

伏以臣南荒一賤布衣。潛身畎畝。守分邱壑。力耕奉公。期以卒歲。不意往在先朝。獲忝祿秩。逮沐聖化。特拜本啣。臣猥以微賤。受恩兩朝。雖懷感激。糜粉難報。自揣非才。退耕田野。今過十年。茲者伏聞堯舜御世。臯棄布位。大開不諱之門。招延天下 一作一世 之士。朝開進善之旌。市豎誹謗之木。輿儻媚孺農夫野人。各執其事。進陳忠言。熙熙之風。盈溢八方。於變之化。光被四表。臣賤伏邱壠。樂逢聖世。以爲康衢之謠。叩腹之歌。幸於吾身將親見之。伏遇今者。天災地變之酷。疊見於勛華大化之日。恐懼求言之教。辱降於草莽遺淪之士。嗚呼。皇天仁愛聖上之心。聖上寅畏皇天之哀。上下誠符。將啓至治。實兆於此矣。臣雖賤拙。敢竭一得之愚。謹効芻蕘之獻。伏惟聖慈垂鑑焉。臣聞帝王之治。必本於道。帝王之道。必本於心。治心之要。在於窮理。窮理之要。在於居敬。夫居帝王之位。欲復帝王之道。開帝王之治。舍是心何以哉。曰稽于古。堯以天下授舜。舜以天下授禹。天下者。天下之大器也。以天下之大器傳之人。凡天下可言之事。豈其小哉。不過曰精一執中四字而已。成湯文武。萬古之聖王也。其典章法度禮樂文物之可稱者。亦豈小哉。不過曰德曰仁曰敬而已。然則帝王之治。其求之於事爲之末耶。抑本之於一心之微耶。臣以爲天下雖大。萬事雖衆。其所以行之者一也。一之不察。雖有漢高之明達。文帝之仁默。武皇之威勇。唐宗宋祖之英武。天下之至治。不可復矣。是以孔子之論政。以明善誠身。爲九經之本。子思之作中庸。以戒懼謹獨。爲天地位萬物育之本。曾子之作大學。以格致誠正。爲天下國家之本。其窮原正本之教。可謂至矣。嗚呼。天生是人。先有是性。桀紂堯舜。同得是理。求之不遠。在吾方寸。夫何秦漢以降。莫有明是心者。申韓

黃老。指謂至治之要道。堯舜孔孟。斥謂迂遠之空談。富國強兵。爲治平之首筭。禮義廉恥。爲無用之虛器。可不寒心哉。今臣邈在荒僻。耳絕都市。未知殿下學問之深淺。治心之疎密如何也。近者伏聞殿下虛心下己。側席求賢。登崇俊良。布列庶位。講明治道。極盡精微。秦漢以下。豈有此事。八路歡欣。期躋壽域。以此推之。則殿下之學問必造深奧。治心已入精微。可以遠付矣。夫以五十里之滕。文公之賢。治行王道未數月也。負耒爲氓者自遠而至。况此數千里之國。踵祖宗之美俗。襲仁賢之遺風。欲爲堯舜則可爲堯舜。欲爲湯武則可爲湯武。惟在殿下之心之治不治如何耳。九州至廣。洪水至大。能治之者禹也。紂惡滔天。其衆億萬。能克之者武王也。人之一心。其方一寸。克治之道。無所費力。亦既克之。天下蒙其澤。殿下之明。豈不知此。知而不行。與不知等。此殿下所宜深念也。夫言行者。一心之影響也。見影知形。聞響知音。則見其人之言行。知其人之心性治不治正不正也。是以人君一身。雖深居九重。人皆不可得而望見。一言之發。一令之出。一動一靜。四方之外。深山窮谷之人。皆得以測其厚薄淺深如其已事。然則人君一心之微。雖若至隱。人之見之。若仰青天觀日月也。曰某事直某事曲。其治心必如何也。其可不懼之甚耶。詩曰潛雖伏矣。亦孔之昭。又曰不顯惟德。百辟其刑之。此之謂也。目今賢俊在位。聖學極高。以耳目之所聞見推之。可以知殿下之心之微。查滓已融。庶理具明。而以教化之難行。民生之困瘁。天災時變之層出見之。殿下之心之際隱微之間。全體大用。恐有所未盡其治也。臣既發言端。敢不竭盡其愚衷哉。何謂教化之難行。夫士習者。國家元氣之所在而禮義之本原也。士習正然後教化行而風俗美。人心定而世道安。公道行而是非明。禮讓興而欺詐息。式自名利之場一開。天下之心陷溺。冠章甫而衣青衿之徒。口誦聖賢之書。心懷富貴之欲。以事君爲名而以媚竈爲業。以尊賢爲名而以發身爲業。廉恥倒喪。淳風頹蔑。又且分名角立。猜刻媚嫉。上自國都。下至鄉邑。同舟之內。分一敵國。臣未知此何等士習耶。詩曰濟濟多士。文王以寧。此可謂以寧乎。士習蔑滅。風俗頹薄而教化能行。

臣未知聞也。君心一正而士習不正。臣亦未知聞也。臣是以知殿下之心之全體大用。或有所未盡其治也。何謂民生之困瘁。方今民生之癯瘠。罄南山之竹。不可盡書也。臣姑舉南中民弊耳目可記之大者一二言之。南中自丁酉兵燹蕩破之後。今至六十餘年。丙丁之災幸未及焉。故人物極煩而土地狹窄。雖富民之有世業者。阡陌不過百畝。况小民賤漢鮮有一畝之田。終歲勤勞。衣食不給。流涉轉移。不成人理。其故何哉。貢賦煩重。世無循吏。徒見促迫之令。未蒙仁愛之惠。又且山城相望。運穀春秋。飢民凍卒。枕藉道路。愁怨聲色。塞人耳目。治兵無法。軍卒不精。緇徒過盛。遊食居半。往往道途。盜賊竊發。斯民癯瘠。如此其至。而未聞自上發一仁政。愛護赤子。書曰民惟邦本。本固邦寧。傳曰篤恭而天下平。臣未聞自古及今。君心一正。以正朝廷而民不安也。臣是以知殿下之一心全體大用。或有所未盡其治也。臣謹略陳治心之術。仰塵聖明之鑑焉。盖心之不治。衆欲害之也。竊觀古之人君。有內多欲而外施仁義者。有外敬賢臣而內嗜聲色者。有心求至治而馳騁弋獵者。有志鹿氣豪而未肯盡心性者。其類至衆。未可盡舉。而大要皆立志不篤。治心不密。雖有一時之正。易爲外物之牽。發於其心。害於其政。發於其政。害於天下。其萌甚微。其害甚廣。是以其所謂精者。察其微萌之謂也。所謂一者。久守不失之謂也。一心至微。似不甚關於天下。而曾子之論明明德於天下。以正心爲先。不覩不聞之地。似與天地萬物不相接。而子思之論位育。以存養省察爲本。臣願殿下之深察於此也。若其治心之法。載在方策。一字一藥。可醫吾病。至於輔導君德。格君非心。倚師輔之任者。方今之世。豈無其人。臣願殿下之終始一心。篤斐無疑。共成至治也。言之既卒。臣謹以前所陳民瘼三款仰瀆焉。伏惟聖慈垂鑑焉。所謂三款者。一曰賦役煩重之弊。二曰山城運米之弊。三曰治兵無法之弊。所謂賦役煩重之弊者。臣僻在荒遐。京司進供之物。未能各知名目。然以農民一年之出。上供一年之賦觀之。南中一石之田。雖一等之土。必值樂歲然後僅出租二三十石。薄土則不過十餘石。而其負數則或過一結。一結一年之納。可充常布二十疋。則民之所食所

餘者無幾。奈之何民不飢且盜也。古制守令皆有常俸。我國則不然。祖宗之制。只有衙祿及常平倉穀耗租十分之一。爲守令所食。壬辰亂後。倉穀蕩盡。十分耗租。既無所食。迫不得已。別立一倉。名曰官廳。略俸於民。爲其所食。積弊仍循。漸至貲息。至於今日則白米正租。雖小縣多不下七八百石。其他田穀油蜜魚塩蔬果等種種雜物。不可勝記。皆出民結。一時督捧。故秋冬之際。老弱困於辦供。眼鼻莫卞。壯者立於運輸。強半在城。生民之困。孰有甚於此者哉。守令所食則依前衙祿也耗租也官田也官廳所納也。充溢露積。富擬王公。而斯民凍餒。顛沛邱壑。此何等事耶。若使賈誼生於此時則豈止於慟哭而已哉。可不痛哉。可不痛哉。幸惟殿下深懲如此之弊。特設大同之法。臣謹按大同之法。天下之良典而生民之大福也。救時之策。誰過於此。雖然臣以爲此法至便於畿甸近地。而難行於遠邑也。何以言之。四方皆異習。千里不同風。必欲強驅以一種之法。事相支牾。難可牽合。是以三代之制。都鄙鄉遂。助貢異法。以貢法行於畿內。助法行於外野。蓋以內外殊宜。遠近異便故也。今夫大同之米。一歲兩收。通田稅三次。船運於一年之內。沿邊列邑賃載私船。船隻既衆。難可神輸鬼運。必搜水邊士夫爲監官。良民爲格卒。千里風濤。死生在前。人視此路。若入鬼門。父母妻子相提頓足。慟哭永訣。往往逃避則收隣連族。鞭扑狼藉。歲歲若此。則沿邊邑里。必至空虛。至於田稅船數。視於大同。不啻減半。而中路敗船。比歲相踵。况此許多船帆。縱風浮海。箇箇利涉。必不可必。船敗之後。若置之不問。則非但國用不足。後來欺詐之風。何以防之。若再徵治罪則非但民食無資。無辜之民。驅之桎掠之慘。豈可忍哉。臣又按大同之法。卽唐朝兩稅之法也。唐之德宗患賦役之煩重。民不料生。先計國家之用。定稅于民。一年兩輸之外。更無他賦。及其天下有事。財穀不給。則日添月增。終至倍蓰。生民塗炭。以至顛覆。此則已驗之事。所可監戒也。况其爲法。先量一年之出。以爲一年之入。臣聞古之用財者。量入而爲出。未聞量出而爲入也。設使其法無此數者之弊。較之前日之賦。未有倍利於民。諺曰苟無十倍之利。毋以新革舊。臣以爲

法不改設。財不改聚。苟用先王之道。民安而國泰也。臣願殿下以堯之茅茨土階爲心。以禹之卑宮室菲飲食爲法。各種進供之無益於上有害於民者。一一蠲除。然後擇廷臣之忠清正直愛民憂國之士。祇奉聖旨。分往諸道。諭以自上蠲除進供之意。而州府郡縣詳定俸祿。俸祿之數。書于別紙。印以御璽。分頒列邑。遵守奉行。御璽之紙。緘以鐵券。守令交遞。與符印同上。上使以授新守。以重其法。然後一毫濫捧於民者。論以奸贓。律以大罪。則不急之貢省於上。聚斂之毒除於下。不待大同之別設。民得其所而國賴安矣。雖然法不徒行。惟在君心之一正。殿下之一心。若不正于一則法不可行矣。臣願殿下之深念于此也。所謂山城運米之弊者。山城米穀。月增歲剩。厥數至煩。本邑之民。不堪出納。分勞隣邑。數百里外。春糶秋糶。歲爲常式。男負女戴。牛輸馬運。春糶則防於耕耔。秋糶則農務甫畢。困民未息。恻之以進供方物。鞭之以守令官需。督之以列邑還穀。民生奔走。食息未遑。方於此時。山城運輸之令星火急速。民額安得不蹙。國脉安得不傷。春給例當霏雨。秋藏勢在冬寒。人殛馬疲。往往顛死。至於孤寡之家老殘之民。不能自輸。買人代運。則一石之運。其價一石。若運千石則費民二千石。民力安得不竭。民財安得不盡哉。傳曰財聚則民散。又曰貨悖而入者。亦悖而出。以古人之言。爲妄言也則已。若曰不妄。可不懼哉。夫山城者。所以固國於緩急之警也。而築怨興僇。損傷斯民於未亂之前。若使他日脫有不虞之急。民豈肯親上而死長哉。臣以已往之驗言之。往在丙丁之祲。將臣以百萬之衆。屯于北地山城。而賊騎衝突。如入無人之境。南方將卒各守山城以待變。至一夫夜呼。驚惑振動。守將先遁。空城獨立。南漢之城。天設之險也。乘輿保守。社稷賴存。可謂幸矣。雖然以臣之愚見之。當日孤城。主危一髮。而股肱之臣。未有能出一奇謀。以解主憂。若陳平之解白登。干城之將。未有能出一敵愾。乘天險而却賊。若李晟之衛奉天。將相雷同。竟辦一計。不過曰城下拜賊而已。至今思之。不覺涕流中夜。山城之無補於人國若此。此殿下之所日擊其事。而奈之何本根不治。枝葉是事。以致民生土崩之勢耶。臣切痛

焉。雖然已築之城。豈可廢置。已積之穀。豈可空散。無以則有一焉。城內之穀。不必歲輸於本城。散在隣邑。春出秋入。設有邊警。一時輸入。亦非晚也。何以言之。湖南一境。世稱福地。己卯倭奴之禍。甫及靈巖。妖腥輒息。壬辰兵火。國被巨劫。六年之久。而湖南內地則只於丁酉九月一旬被兵而已。至於丙丁慘禍。民不知兵。蓋以我國兵禡。每起東北。湖南受兵。必在於後。臨時運糧。萬無難事。若然則民心可安於平日。軍餽不乏於亂時。豈不便當乎。且我國三南。猶蜀之荊益。國家根柢。皆在於此。伏惟殿下不以賦役失其民心。當以信義固結。惠愛撫恤。臨之以恩威。責之以節義。若趙簡之於晉陽。他日之望。必有大効矣。雖然固結人心。信義相仗。在殿下一心之定于一。臣願殿下之深念于此也。所謂治兵無法之弊者。臣嘗考稽前史。揣摩天下之勢。斟酌華夷之形。士馬強壯。無出我國之右。何以言之。我國之勢。北接胡虜。南邊大海。中開廣野。水絡山盤。真用武之地也。北人勁猛。耐寒茹苦。有燕趙之習而勇鷙過之。南人健豪。耐暑勝瘴。出沒洋海。慣於水路。有吳楚之風而悍毅過之。中土之人。出入山野。才長馳突。強弓烈炮。無所不可。有韓魏之俗而銳氣過之。以如此形勝之地。用如此兼備之卒。可以南征北伐。威襲天下。而敗績相望。爲天下笑若此之甚何也。臣以爲仁義不施而將不得其人。揀兵無法而士不得施才也。何謂將不得其人。臣竊觀用將之品。其等有三。仁將爲上。謀將次之。又其次勇將也。所謂仁將者。道德積躬。器量弘重。愛人而人不狎。殺人而人不怨。使敵國之人。望若父母。不敢交兵者爲仁將。周之姜太公其人也。其次漢之諸葛孔明。抑可以爲次者。其魏之無忌。宋之曹彬乎。所謂謀將者。神籌鬼算。變化出沒。或示弱而取強。或張威而恟賊。陰陽奇正。會合風雲。顛倒豪傑。子愛士卒。使敵人不敢窺測我之虛實者。謀將也。求之古史。代各有人。若戰國之孫吳。漢之韓信。唐之李世勣。郭子儀之類是也。所謂勇將者。氣驅風雷。志雄河海。喑啞叱咤。三軍奪魄。指揮咆哮。四敵落膽。若楚之項籍蜀之關張之徒是也。臣以爲仁將絕世難得。勇將多敗罕成。居今之世。所可依任者。其謀將乎。

所謂謀將。以今世人物觀之。亦似難得。雖然古之名將。皆出於草棘塵埃之中。若使聖君賢主不出於當時。則呂尚，韓信止於漁釣一老而已。諸葛死於躬耕。子儀終於行伍。市童村婆皆得以侮辱之。孰能知其芻蕘六韜志吞經濟也哉。臣竊觀今之用人。不擇賢愚。不分才劣。門高者位尊。位尊者望重。劇將巨帥多出於金帛子弟。邊堡守長。盡是鍾鼎門客。誅求是事。漁括是務。鍊兵訓卒。徒應文具而已。若有從草茅挺出者。或出於其間。則監司之殿貶。御史之彈啓。例以此輩爲塞責之地。豪才傑然潛踵於林莽之下者。安得爲殿下所用哉。若其選將之際。則專以弓馬小技。辨其立落。夫按劍疾視。鳴弓跳躍。乃匹夫之編於行伍者之所爲也。學萬人之敵。運籌帷幄。決勝千里者之所事。豈在於一弓一矢而已哉。昔者吳起爲將。人有以一劍遺之者。起不受曰爲將之道。不在於一劍。古今兵家。許其深得大將之體。此爲將者之所可取法也。臣願殿下令自具瞻之位。下至一命之士。勿論文武南班及蔭官。擇其器量深重。風儀凜烈者。不問世類之高下官資之崇卑。輪番計日。會于兵曹。講論武經。上自三代。下及宋元。兵家勝敗。將道得失。瞭然於心目。及其中國山川。外夷道路險要隘塞之勢。我國山野。郡縣要害。道路離合難易險平之形。皆得領量於芻中。隨其才器任以將職。守令邊將署經之時。兵曹以武經試講而遣之。且下令八路。如有不羈之士奔踈之才。懷奇抱藝。潛珍於山澤之間者。不問貴賤。或生進或前銜或生徒或武弁出身或沉於卒伍者。如有遠大之志經濟之略而不得逞才於當時者。使郡縣窮搜極募。上貢兵曹。試其才智。講閱武書。如其已能通曉。可堪適用則許以直赴。不次登用。如其才器可觀而未及鍛鍊成才者。留于本曹。教養成就。量器揣才。各適大小之用。則師事郭隗樂劇。可得所謂東海之叟胯下之才。豈可謂必無於今日乎。何謂士不得施才。臣竊觀兵家鍊兵。務精不無多。將得其人。兵苟極精。以寡服衆。必然之勢也。昔者袁紹以十萬阻官渡。而曹操以一萬取之。光武以昆陽八千之衆。殲盡王莽百萬之軍。謝玄以二萬人。折苻堅百萬之衆于淮上。古昔已驗。不可殫舉。程子取譬曰猶兩人相當。一人躬幹極大。一

人輕捷。肥鈍者必爲輕捷者所困。此言最善譬喻也。臣伏觀今日兵籍太冗。多虛而小實。一家之內。父子兄弟或三四或五六人。皆入軍籍。或疊數役。徵其價布。布一疋例直常布六疋。一人價布例捧二疋。一家五父子則一年所納。至於五六十匹矣。夫耕不飽。婦織不裳。四民之中。惟兵甚悴。若分番赴戍則邊將不務訓練。專事督役。董之以土木。驅之以漁鹽。鞭扑狼藉。肩背生虫。若其還家則賦役煩急。奔走駭汗。面黑體疲。臂不勝弓。脫有緩急。驅此輩以赴戰場。不啻病羊千羣。當一猛虎。驅我赤子。陷之水火。五伯之徒三尺之童。所羞言也。言之至此。不寒膚粟矣。臣願殿下鍊兵以公子無忌兵法爲規。父子具在軍中而父老子壯則父去。父壯子弱則子去。兄弟具在軍中。兄老弟壯者兄去。弟弱兄壯者弟去。一家父子兄弟五人。則三人爲兵。二人爲農。三人則二人爲兵。一人爲農。兵水二營。各堡陣長所屬之兵。皆定額數。不得煩冗。然後選兵極精。訓練極嚴。毋得侵漁。毋得慢遊。歲遣御史。點視軍卒。依前羸瘁。武藝不精。則重加譴罰。若其軍容整肅。才貌勇銳者。重加賞典。若此三年則民無怨言。士有夙飽。必見貔貅布伍。所向無前矣。雖然兵卒精選。在於將帥。將帥得人。在於殿下之心之正不正如何耳。臣願殿下之深念于此也。臣每念及軍國之事。又有痛惜哀憫者。臣旣啓愚喙。敢此竭論而無隱焉。夫我國陸有陸軍。水有水軍。及其臨亂則陸將將陸軍。水將將水軍。各統所屬。或遠鬪千里。或扞衛京師。而其餘遊民老少壯弱。各挈其家。草伏林隱。守令獨守空郡。手足莫措。迫不得已携其妻子。與百姓同竄於草藪之間。衆兆之民。同入山澤。山澤旣狹。民衆極繁。雖欲潛伏而避兵。不可得也。况當斯時。國亂民散。京師路絕。號令不通。弱肉強食。相恟女子而莫有禁斷。或遊賊遮兵出入澗谷者。猝然遇之。一賊之來。千人魚肉。轉輾擄掠。血流千里而莫有能禦之者。壬癸之變。丙丁之禍。舉國同陷。一就亡滅者。蓋以此也。臣伏念我國水陸軍丁之外。上自學校士夫。下至賤隸僧徒工商之輩。視於軍額十剩七八矣。臣伏請軍額之外。各種遊民。通上下老少壯弱。皆屬守令。號曰鄉兵。在於平時則土農工商。各執其業。小

無勞搖。但各具弓矢兵戎之器。春秋農隙之際。守令一倣鄉射之禮。咸聚一邑之民。講武試藝。一年二次而已。及有緩急之警。則守令統率。士有士兵。農有農兵。工商僧屬各爲其兵。部分裨將各有統屬。而率其妻孥家眷。入據險僻之地。凜成一陣。守令爲將。號令嚴明。無得自相爲亂。其據陣之場。無得越其郡境。各邑之陣。十里相望。聲勢相依。及其遇賊。或堅守牢固。或出其隘塞。不意狙擊。則遊賊遮兵。不得深入以害吾民。而雖大陣亦不敢肆意衝突。猝犯京師矣。且鄉民之在於其陣者。雖無爲國効忠之志。必竭心力扞守。然後其妻孥免於殺戮。則孰不効死力戰哉。如此則庶近古者百姓皆兵。府庫皆財之道。而水陸大將赴國盡忠。各邑鄉兵自衛其父兄。忠孝雙兼。君臣兩全。雖有不虞之急。自有盤石之固矣。言之既終。又有一說。昔者漢高八年馬上。東顛西走。而兵調不絕。食繼不乏。竟成大業者何也。以蕭何固守關中。不失尺寸。根本以固。枝葉不枯故也。今則不然。大將一出之外。列邑之民。四散空虛。守令斂手。徒擁虛器。則雖欲轉糧調兵。隨破隨補。安可得也。今若設立鄉兵。無事之時。預講保守之策。臨亂之日。一民尺童。不敢棄其地守。獨奔求生。堅壁一處。設營自守。上下相保。州郡相連。一以通朝家之命令。一以繼兵食之運給。則根枝相衛。行居胥便。庶復周制。居則爲比閭族隣州郡。出則爲伍兩軍師之法矣。雖然殿下其在平時。若不正心誠意。素孚於民心。則雖家充名將。戶設大陣。必無補於固國。臣願殿下之深念于此也。臣學荒言陋。意長文拙。凡所稱說。不足上塵於聖鑑。但遇芹曝。不禁野人之誠。謹以前所稱者。仰補聖上心學之萬一。後所稱者。欲蘇生民一時之弊瘼。但念大同一法。國是已定。山城一事。廟筭已成。又且意讜言危。觸論時事。臣固知臣言一上。衆怒具集。無補於民。有害於己。然臣嘗讀先儒程子之言。有曰一命之士。苟存心於愛物。於人必有所濟。臣猥以微賤。嘗叨一職之名。含恩撫躬。常懷苟利斯民。無愛髮膚之心。今者日見赤子嗷嗷。匍匐入井。上天警譴。君父驚懼。惻然之念。發于至情。非敢萌要譽鄉黨之志也。不揆愚陋。越分發言。伏乞殿下不以芻蕘爲賤。以人廢言。求

之於養心之工。而發之於養民養兵之効。仍此警省。觸類漸長。誠明之心純一於上。而萬方之民熙熙於下。則滔天之災赤地之眚。豈足憂於堯湯之日哉。伏惟聖慈垂省焉。

南園集卷之九

書

書

上牛山質疑書 時安牛山邦俊作牛山答問書 其論偏僻 故先生作辨以質疑 謹按牛山答問書。有曰我朝數百年間。名賢相繼而出。至論其真儒則纔數人而已。某竊惟我東方。自檀箕以下。至麗季數千百載之間。以文章節義聞者。不爲不多。而至於任斯道之大責。繼往開來。特爲道學之首者。唯稱鄭烏川一人而已。至于我朝。羣賢蔚起。倡明斯道。自關東土以降。所未前聞也。蓋舉其傑然絕倫。昭昭可稱之統紀論之。烏川之學。傳之冶隱。冶隱再傳而傳之一蠹，寒暄。寒暄傳之靜菴。其後有晦齋，退溪之作興。而栗谷亦得以接其傳也。惟退溪先生得晦菴之學于遺編斷簡之中。以體用統舉。內外交養。爲斯道準的。而栗谷得以接其統。至于今使斯人知貴王賤霸斥異端扶吾道者。豈非二先生之力哉。前後以道統相傳者。若此其盛。則皆可謂泛然名稱之賢流。非眞得道學之儒歟。既曰賢矣。必是儒者。安有不賢之儒者。亦安有非儒之賢者哉。若曰俱稱賢儒。而其氣稟之高下。踐履之淺深。或有優劣則可矣。斷然以賢者儒者。別立名目而爲二則未知何如歟。至於以學問節義。爲名賢眞儒之辨。尤有惑焉。魯論二十鄒論七篇中言語。迺孔孟傳道之宗法。庸學二書。迺曾思明道之旨訣。而未見有以節義爲學者用工之先務。有宋先儒氏發孔孟未發之傳者。多至千言萬語。而未聞有以節義爲學問用工之骨脉矣。今若以節義爲眞儒。而學問爲不足貴。則子思子所謂邦有道其言足以興。邦無道其默足以容。既明且哲。以保其身之君子。皆不得爲眞儒。而行行决决圭露角發。一善成名。冒白刃而不顧者。獨爲眞儒歟。退溪先生狀靜菴實錄。有曰我東國先正之於道學。雖有不待文王而興者。然其歸終在於節義章句文辭之間。求其專事爲己。直以眞踐實履爲學者。唯寒暄爲然。公冒險難而師事之。然則吾儒大中至正之學。决不可以區區節義章句文辭之間。爲眞知實踐之效矣。夫所謂學問者何事也。栗谷曰所謂學問者。非異常別件事物也。只是爲父當慈。爲子當孝。爲臣當忠。爲夫婦當別。爲兄弟當友。爲少者當敬長。爲朋

友當有信。皆於日用動靜之間。隨事各得其當而已。然則所謂學問者。爲學之一大總名也。安有外學問而爲真儒者哉。稽之聖賢傳道之法。考之東方先正之訓。所謂以學問節義。辨名賢真儒之異者。未知何如耶。答問書又曰論其學問則陽村過圃隱遠矣。愚未知陽村之學問。所以過圃隱者何學歟。以耳目之所覩記觀之。陽村之學。不過言語文辭之間而已。嘗考其文集。平生所製。率多佛經序跋奉佛疏文而已。至於入學一書。小有發明。然亦未免退陶牽合杜撰之論。然則所謂過於圃隱者。未知如何耶。答問書又曰行道者謂之真儒。不行道者謂之名賢。其意蓋以行道爲節義。節義爲真儒也。若以行道爲節義。則三代以上伊傅周召行道之聖賢及三代以下孔孟程朱棲棲惓惓之聖賢。皆可目之曰節義之士乎。子思子有言曰天下國家可均也。白刃可蹈也。爵祿可辭也。中庸不可能。以此觀之。儒家大段用工着力處。恐不專在於區區事爲之末矣。至於以吉先生再爲楊雄之徒云云。此又名教所係至大甚重處也。後生初學。尤不可容喙於其間。然至於贊美我朝之事則唯有可言者。昔者胡元以夷變夏。逆莫大焉。大宋節義之臣榭枋得上書宰相曰。大元制世。民物再新。宋室逋臣。只欠一死。至於以堯舜湯武稱元祖。而巢由夷齊自比。又曰大元慈仁如天。又以草土之銜。不可徹殿陛爲言。其言若此。而其不事二姓之志則昭然若日月而不變。安忍以此爲楊雄之徒歟。故後世公論以疊山並美於文山。而史氏特書其卒。若朱夫子書晉徵士法。冶隱啓辭。與疊山相類。而疊山爲宋室之節義而冶隱爲東國之楊雄歟。若夫筮仕辛朝之事則自與子雲之事大相別。子雲以大漢郎官。爲賊大夫。反君事讎之罪。容可極哉。冶隱則不然。賊肫之誅。在洪武辛亥。僞耦之立。在洪武乙卯。其間四五年之久。恭愍以己子待耦。朝臣以王子事耦。及恭愍之終。在廷之臣以牧隱，圃隱之賢。無一言相爭。以耦爲嗣。至于十四年之久。人無異議。當是時。冶隱以草萊之士。初試爲仕。豈能明知其非恭愍之子而不事乎。至於耦昌父子形迹已露。然後皇帝下旨曰當立他姓。國人皆曰實非王氏。以牧隱，圃隱之賢。亦無一言相詰而廢之。則冶隱稱之以辛朝者。豈冶隱之私言哉。冶隱出處如此昭

著。而其節義貞忠之志。難揜於百代之下。故以陽村非陷前朝之事如彼。而至於先生之節則序其詩集而贊美之。上書太宗而棹楔之。退溪先生題詩其間。有扶持已無及。植立永堅完之句。月汀尹公按節嶺南。爲文祭之曰。特立維公。獨抱精忠。質之天地。豈敢或二。然則二老先生亦可謂扶植楊雄之徒歟。凡此五箇未解處。晝誦夜思而終不能釋其所惑。此不過初學之人。志慮昏愚。知識淺短。義理之際。未能透得故也。茲敢不容含默。拜書陳稟。非所以別執己見。立二於先進先生之言也。伏惟一闡發。循循教諭。廣此坐井之惑則幸甚。干冒高明。濫瀆至此。俟罪萬萬。壬辰長至日。謹拜。

代孟郊答退之鳴字序書

郊復。大凡天下之物。莫不有鳴。在上天鳴之爲天雷。在下地鳴之爲地震。天之鳴所以鼓萬物而生之者。其鳴也爲祥。然在乎臘而鳴之則其鳴也爲不祥。地之鳴。其鳴也不得其平然後鳴。故春秋以不祥之鳴筆之。以天地之大。其鳴也善鳴則爲祥。不善鳴則爲災。况乎其下者乎。周之時鳳鳴之。其鳴爲祥。宋之時鶡鳴之。其鳴爲災。野雉鳴于商而爲中興。爰居鳴于魯而爲僭祀。禽鳥之鳴。固無心之鳴。其鳴也善鳴則爲瑞。不善鳴則爲異。况乎人乎。金石絲竹匏土革木之善鳴者。退之之云然矣。然此八者。鳴于二帝三王之時則爲禮義之鳴。鳴于秦漢以下之時則爲淫佚之鳴。鳴于杏壇則爲中和之鳴。鳴于由也則爲北鄙之鳴。在于樂器之鳴。其鳴也有善鳴有不善鳴者。况於道乎。是故伏羲神農黃帝堯舜禹湯文武。以道善鳴于上者也。臯夔稷契周召孔顏思孟。以道善鳴于下者也。退之以一鳴字爲統而歷數聖賢之鳴。以老莊荀楊之鳴。渾于孔孟之鳴而無分別。無乃擇焉不精之鳴歟。嗚呼。秦以兵革鳴。漢以雜伯鳴。魏晉以下。以淫哇鳴。唯我大唐。以唐虞三代鳴于上。鳴于下者。顧不可以臯夔周召之鳴自期耶。元結杜甫李白數子以詩鳴。其鳴也可謂善鳴。果如退之之云。然較之臯夔周召之鳴。其孰爲善鳴孰爲不善鳴者耶。當今之時。以臯夔周召之鳴自期于下者。非退之與郊歟。然則退之

與郊。固當以天之與我者及孔孟之傳我者。大善鳴于斯世。應吾君唐虞三代之鳴。此非其時歟。然以退之之善鳴。不能大鳴以斯道若臯夔周召之鳴。蹙蹙東西。朝齏暮塩。常鳴其不平之鳴。而郊之此行。亦非所以大鳴之道。則郊安得無出晝不豫之鳴歟。退之猶自不免其仰首哀鳴於執政之門。亦安得解郊不平之鳴歟。雖然吾之善鳴與不善鳴在吾。使之善鳴與不善鳴在天。在天者吾末如之何也。在吾者吾何能不苦心以勸哉。退之其勉之。郊再拜。

答羅斗三台瑞別紙羅斗三問禮 故先生答之

虛簷高足。其義未詳。但以文勢。參以古語而見之。古文以帽笠之有垂邊者謂之簷。蓋以若屋之有簷也。意古之治棺者。有爲觀美。上有虛簷。下設高足。故以此戒之耶。

舒絹疊衣。其義未詳。但以文勢考之。舒絹猶言平舒衣絹之內外。勿令皺摺也。疊衣猶言重鋪累衣以疊之。略似枕形而已。如此等處。恐當活看。不須看得太重。別生疑惑。

辟領各攬負版一寸云云。攬玉篇楚御切。貫刺也。蓋後闊中八寸。左右適各四寸。合一尺六寸也。負版則廣一尺八寸也。以負版綴而貫刺於領辟領一尺六寸之下。則負版之廣。剩於左右適之兩傍者各一寸也。承重者之妻。姑在不服云云。家禮明言從夫服。而無姑在不服之文。故喪禮備要仍之。禮宜從厚。通典恐不可從。

網巾之出。自明始製。臨喪着不着。禮無明文。後學安敢立說。

父在母喪不披髮云云。家禮言男爲人後。女子已嫁皆不披髮云。而無父在爲母不披髮之文。他無所考。祭時聞喪云云。禮曾子問。曰大夫之祭。鼎俎既陳。籩豆既設。不得成禮廢者幾。孔子曰九。天子崩后之喪。君薨夫人之喪。君之太廟火，日食，三年之喪，齊衰大功皆廢。外喪自齊衰以下行也。士總不祭。所死於祭者無服則不。以此見之。齊衰以下。恐當分內外喪處之可也。內喪大門內同居之喪。外喪大門外異居之喪也。若無服則雖內喪。恐亦當祭。

亡失尸體題主云云。如此等變禮。禮無所據。何敢創自立說。但人子之卒遇是變者。或戰亡或溺海。既不得尸則何以處之乎。以情理推之。收其遺衣服。或爪髮等。設位祭之。及葬期之日。題主於正寢。似爲便當。未知可否。

別幅 未詳名何人之問疑禮

厲疾止息後。人臨成服者。似與奔喪條若未得以下之儀同。殤之經不紵其帶。以大功以下散垂之義推之。爲其未成人。故殺之耶。

忌祭前一日。值俗節墓祭。則似當令子弟代行墓祭。而若無子弟而墓遠。則以古人重廟輕墓之義推之。墓祭或似可廢耶。

墓祭雷雨。以曾子問日食廢祭之文推之。似有可據。庶人只祭考妣則擊子恐不可以長房遞遷。

或問于沙溪曰舅之妻無服。國制總。當從何服。答云舅之妻謂之舅母。古禮推不去。開元禮及國制皆總。從厚恐不妨云云。

奉養之具。皆如平昔云云。先正有言曰人之始死。以禮則未暇從其新。以情則未盡易舊。故以閣上所餘脯醢。爲奠於既奠之後。以此言觀之。家禮自襲後設奠。成服後設上食。次第條理。必有深意。後學識淺。未及深究先正禮制之本意。則姑當從其已成之節目。以待自己學進見透之日。則其微意必逞露於吾心矣。何必經先穿鑿也。

凡奉主出廟。各用一筭奉之。則忌祭一位奉來。恐可奉主出櫝。奉之以筭而來。然當從程子并祭爲厚。

膏煎不用。雖是古禮。世俗襲用已久。恐難卒變。然好禮之士。勇意從古。亦何不可。

主婦再拜。蒙主人之文。恐當以四拜爲正。

衆兄弟既與主人同叙哀哭。則又與主人同行拜禮。恐無不可。扱衣前襟云云。家禮註云扱上衽。謂扱衣前襟之帶。恐是衣之前襟帶。

墳墓火云云。禮過廟則下。過墓則式。而凡廟祭墓祭。皆有降殺。則墓火廟火。亦似有殺明矣。未知如何。

參禮辭神云云。家禮參禮儀。有出主之文而無斂主之節。似欠詳盡。倣虞祭先斂後拜云者。恐爲便當。

發引之日。朝奠上食云云。文公家禮註云若墓遠則每舍朝夕奠上食。以此推之。發引在平朝之後。則其前烏可無朝奠上食之節也。發引在早曉。未及上食。而墓遠則似當於道上食時。設座於柩前而行上食之節。未知如何。

童子主祀云云。雖童子祝板既用子名。則子當行初獻。兄喪妻在云云。其妻在則弟不當奉祀。

告弟告子云云。妻則似當用尚饗。弟與子。似不當用。而備要如此可疑。

死者敵已以下。奠而拜云云。妻則當拜。子與弟不當拜。墳墓不培云云。人子至情。似不暇從古禮。

改葬服內行祭云云。古者服人未葬之前。不敢遠離喪次。故亦不敢冒凶祭吉。今改葬與初喪不同。不行時祭。未知如何。更詳之。

周而葬者初忌云云。規之人情。既遇初忌。雖未克葬。似不忍虐過此日。略設奠儀。禮雖無文。情可廢乎。如此等事。當推以人子之至情。

心經問目 夫詳問子何人

心經次序。書以首之。詩易論語次之。庸學樂記孟子次之。是次序以進學次第爲先後之序歟。聖賢所著之時爲序歟。若以時之先後爲序。中庸當在大學之後。以進學爲序。尤當從朱子之說以大學爲先。未知西山何以而以中庸先於大學歟。

又按大學經一章。是孔門傳授心法。體用本末。脉絡分明。心學之要。無出於此。而西山只取傳二章而不取經一章。其意安在歟。

或曰經一章。兼天下國家而言。故不肯摭入於心經。愚意以爲中庸修道之教。位育之極。非治天下之極功歟。心體至廣。天地萬物。固爲一體。則不可以治平之末而遺明德之本。未知此言如何。

魯齋王氏曰盖原字自外推入。知其本有。故曰微。生字感物而動。知其

本無。故曰危。正字私字。皆見于外。故人心不可謂之人慾云云。愚意妄以爲原之爲言源也。性命發動處便是道心。猶源始發底便是流也。水源在內。其流發外則原字恐不可以自外推入爲言也。理氣之賦於人。固無先後之可言。有理卽有氣。有氣卽有理。既有是氣而人心之動。便從這裏出。則人心之源。亦本有底物事也。恐不可謂之全無性命之正。由內而發外者也。形氣之私。動於外而發於內者也。正字私字。亦恐不可謂之皆見于外者也。反復思惟。未得其義。願就正焉。

人心道心圖。正字在形氣之上。微字在性命之下。私字屬于形。危字屬于氣。未知其指意所在。伏願明教。

易坤之六二。敬義立而德不孤。不孤云者。似當深味。附註未有十分說破。按程傳曰敬義立而其德盛矣。本義曰不孤大也。盖大槩言之矣。愚意以爲孤猶孤偏也。徒然從事於直內。而忽於言動事爲之間則義不方矣。此德終孤於一偏也。徒事方外而忽於持敬。則有重外輕內之失而此德又孤於一偏矣。必也敬義夾持。內外交養。然後此德之全體大用。兼脩并進。無孤於一偏之弊矣。如是看得。未知是否。

覺軒蔡氏曰云云。靜之主一。其太極之境界歟。愚竊以爲當曰太極之本體。而曰境界何也。不敢質言。疑之之辭也。盖象數未形。其理已具。謂之太極。四端未發而衆理具足。謂之靜一。靜一卽吾心太極之全體。若謂之境界則靜一是太極分界之邊境。而靜一之先。又有太極之全體。烏可乎哉。如是看得。未知是否。呂子約謂未有聞未有見。爲未發。朱子甚非之。中庸則以所不覩所不聞。爲存養未發之體。所謂未聞未見者。卽與不覩不聞。語勢似相合。而朱子甚非之何歟。其間必有微意。聞見就耳目上言。覩聞就心性上言。故其旨自不同歟。幸賜一轉語。以發蒙蔽。

贈李士元文碩書

完城李士元。陪嚴府之倅于南。從余遊於蓬蒿草棘之間有年矣。嘗請一言以爲日夕箴省之具。余謂拙劣者無所知。自身猶不恤。何暇爲人謀

耶。然於賢公情義久相孚。亦不敢自外。竟孤所囑。則敢有一說。曰人心不好正路而行者久矣。舉一世衣儒冠儒者何限。而率天下同趨於紛華聲利之途。出彼入此者。千百未見其一二矣。今賢公湛然絕意於躁進。欲立正步於坦衢長途之上。愚雖昏妄。敢不樂告以所聞哉。雖然看賢之質粹而弱。察賢之氣清而軟。粹則聞義必從。而弱則易爲物遷。清則見理必精。而軟則艱於久守。凡人之性無不善。而氣質有病則性從而蔽。必也先從氣質上病痛革新之然後。方可以論爲學。故昔者夫子之論學。以知仁勇三者。爲爲學之節度。而結之曰雖柔必強。雖愚必明。今賢質粹而氣清。則於知上工夫。似有可望。而有弱與軟之病則所謂仁之守勇之強。難保勇進而確守也。然則如之何而變弱爲強。變軟爲剛歟。完養精神。物來而不爲奪則弱庶變爲強。集義橫充。勉勵而不息則軟亦可變爲剛矣。二者合而言其約則其敬乎。夫敬者何謂也。從外而言。莊整齊肅是也。從內而言則主一惺惺是也。莊整齊肅。主一惺惺。內外交正。動靜不差。一日二日。無所間斷。羣居獨處。無往不敬。則何憂乎前所謂氣質之病乎。氣質既變則以賢清明之資。希舜希顏。何往而不可得耶。惟賢君勸之哉。吾亦從此自警省焉。相與之厚。僭率至此。慚罪慚罪。庚子清和下浣。南村農老拜稿。

答慎聖弼書

場巖一奉。殊甚草草。未知別後靜養何似。前書禮疑。雖略面論。終未歸宿。更詳思之。程子所謂雖六世七世。計會今日之宗子者。恐非謂遞遷長房之宗子。尙爲主人於長房之別廟也。細看語意。似謂既爲大宗子。則雖高祖廟毀而至於六七世。一家皆宗之而宗法寓焉者也。朱子所謂高祖廟毀。不復相宗者。高祖之主。既遷於親未盡之房。則別立其宗於親未盡之孫。而大宗親盡者不復爲宗也。作此意看之。程子之說。宗法之統論也。朱子之言。祭法之細目也。各有所主。而不害其爲長房之主祭矣。蓋祭及五世。在禮爲僭。今當埋主而支傍之孫親既未盡。不忍不祭。故遞主其祭。爲宗子者。服盡情盡。不敢僭祀於其廟。則亦安

敢僭爲主人於傍親之廟哉。人情天理。的似無疑。未知於高意如何。大抵禮者。天理之節文也。天理未明則節文未詳。吾輩平日不能立大本明義理。未發之前。全體未中。既發之後。大用未和。尋常事爲。所見糊塗。則至於節文儀度之纖悉深微。聖賢言意之至精至密。以何者而照鑑得至歟。是以吾輩今日急務。全在於居敬立本窮理致知八字上矣。八者蹊徑。在於紙上。說話者反而求之心上路脉。紙上心上合渾爲一。則以此推之天地萬物。無往而不合於天理之節文矣。不然則古今禮說簡冊。堆疊於案牘。徒爲喪志之玩物矣。鄙人有見於此而未及者也。欲求正於同志。故仍前書之問而并及之。汝資更加詳究。如有不合者。幸許相教。

寄慎聖弼書

斯道不幸。惺菴文丈奄棄經學。聞訃不覺設位而痛哭。繼之以悼念。伏惟師門至親。恩義備盡。爲道爲情。摧裂何堪。顧此孤露之生。病廢窮原。雖未能源源際晤於函丈之間。晚歲師友之託。猥有至望。豈意今日凶聞經至哉。痛悼痛悼。頃者家甥文鳳儀奉傳情問書中。有愆度之眚。未知近況如何。某亦宿疾夏中更作。秋初氣爽。倘得蘇歇。當哭惺庵喪次。仍擬奉展。病不備悉。

答慎聖弼書

凍蟄調病。若閉息之龜。此時情問便至。何異連床靜對。細論心曲。其中居敬一款。起發索居之陋。而窮理端坐之語。暗中拙者之病。輔警之仁。深荷盛賜。但研窮度數之亦爲窮理。程子之意。非不粗窺其皮毛。而以程子主敬工夫可以當小學云云之語看之。格致之前。豈容專無立箇根本之工歟。子思以存養居省察之前。以德性在問學之首。其意豈淺淺哉。願與吾賢更究此旨。不揆淺陋。言忽至此。悚愧悚愧。一陽初生。仰惟靜默端養。延福無極。

答李正言壽仁書

慎君兄弟相繼來尋。是用飽得蘭聞。思欲少奉從容而不可得也。何意千金珍札。遠投虛牝。仍審道履清迪。伏豁伏豁。第念先進之引進後進。當旋旋有序。自近及遠。由下至高。使之立定脚跟。漸用實力。來喻南表之特道義之倡數語。此雖激動初學。使之進步於廣大田地之厚意。然鄙意以爲此數等語。雖使老師宿儒當之。必慄慄退縮而不敢處也。况陋劣者耶。不勝臨紙愴然。靈岳奇遊。夙日夢想。承接道宇。亦一盛事。一發兩獲難得之舉。而塵煩未幻。冗故有奪。始知飲啄亦有數也。南望悵然之至。

答李典翰壽仁書

伏惟山齋淨明。時日清和。保練之中。味道日真。瞻望之懷。何日不馳。年前晉拜之時。教以今春穩就山房之意。企待久矣。頃聞重致愆和。未赴聖召之稠至。則等閑山房之會。安可爲也。萬英亦素患風眩。當春更發。夏前一拜。似未可卜。瞻悵之情。難以名言。叨陪德宇。獲承警誨。既未易辦。則思奉一書。願得至教。以爲砭刺痼病之具。伏惟毋以僭陋堅拒。而辱覆之如何。萬英盖自幼少之年。不揣其質之陋劣。妄有意於此事。而昏不知施力之方。遂意此學之源委要妙。至玄至高。而在冥冥難測之中。於是脚跟未住於下學平常之地。而情性交馳於高遠難行之上。不自覺其駸駸然流入於放懷物表之莊老。游心虛寂之幻釋。傍蹊曲徑。足胼股胝。而枉費十許年精力。送了強壯中日月。至於年漸向老大。氣漸垂凋弊然後。有日暮道遠之歎。而始覺並州實非我故鄉。回頭反踵。有餘年矣。而既無明師疆輔先路而指揮。陳編敗紙。膠守而無得。中夜自思。不覺背汗矣。盖嘗聞之。學不博而先約則流於禪。不約而徒博則流於雜。今欲博學羣書。該格衆理則聰明不及。權度不立。亂想委積而本源反荒。欲懲是弊而歸宿於實地。專用力於至靜之界則恐易流於有體無用之歸。何以則既不失乎雜。又不固於約。動靜交養。本末相須。而痛湔前日之染。優入日新之步。以免偃偃中塗。無聞而死

也。幸垂一轉明言。開示要路則當終身服膺焉。雖然必先知受病之由然後。當下對症之劑。故前後縷縷。悉陳而無隱。伏惟鑒裁。

別錄 附時先生以心經質問。

前者所稟數條。謹承曲加勤誨。開發聾瞽。的若盤鍼之指南。感佩何量。但其間有一二更稟者。敢瀆焉。盛教曰經一章雖云聖賢至論格言。而於治心之法。別無要旨云云。此一欸固然矣。然後學不能活看。恐或於格致誠正之外。別求治心之要旨則不是細病。未知如何。蓋即其奧而論之。其曰明德。即中庸天命之性也。其曰明明德。即率性之謂也。新民即修道之教之效也。其曰格致。即省察之事而舜之所謂惟精也。其曰誠正。即存養之功而舜之所謂惟一也。中庸之致中和位育。即大學平天下之極功。則經一章治心要旨。與中庸首章。一體無間。上而合乎堯舜之旨者。明的可見如此。而西山取舍之意。偶有所疑。故頃發仰稟之端。而盛教以別無要旨爲喻。則尤未免賤惑之愈深焉。此不過在我之大本未明。見理之際。看得不透。故有如此疑訝之病。伏惟垂教。以破愚惑如何。盛教曰舜既生知。故以執中二字傳之。而禹乃學而知之聖。故以用工次第傳之云者。實前人之所未發。欽服欽服。但執中云者。亦在擇善固執之後。則堯之告舜。獨非用工勉行底事歟。近者思索。又得一說。以爲天道之至誠者。乃性之大本也全體也。所謂未發之前。渾然一理。固思勉用工之所不及處也。故聖人不言之。及其纔發之後。人心道心之幾。於是焉分。則所謂精一執中之工。至此可施。故堯舜從其發動之際用工之始以言之矣。大抵聖人言學。多從發動處加工。孔子之告顏子以克己復禮。亦其驗也。竊思得到如此見解。未知此說果無病。而或庶幾於其本旨歟。又按朱子曰大學之道。雖古之大聖人生而知之者。亦未有不學乎此者。堯舜相授。惟精惟一。允執厥中者此也云云。以此推之。雖生知安行之聖。亦未嘗不用意於擇善固執之學歟。盛教曰哀公之問政。槩問治道之如何。孔子之對。亦以治天下國家答之。胡不看顏淵之問爲邦云云。是固然矣。但顏子之問。是泛論爲治之大槩如斯而已。

至於君臣爲政問答。恐不可如是之泛論。以寡人實固。不足以行之等語意見之。尤可見其以當日可行之事告之矣。未審如何。

與李生有仁書

重臨陋僻。又辱眎所製文篇。欽尙向學意篤。論議廣博。根基若此。何患樹立之難也。傾服傾服。但世之爲此事者有二病。專內守者賤文字。富言辭者忽本體。此古今之通患。初學但當遵守古人成法。不違繩墨。聞見博而踐履實。踐履實而心體明。然後吐言成章。可以有符於往哲。垂法於來世。是以六經傳述。成於歷聘之後。二書章句。述於己酉之年。蓋以言立於道熟德成之日者。非徒不行而後作也。亦恐一字或舛。以誤後人也。鄙拙之見。素定如此。故茲敢略及。未知賢意以爲如何。其言有病。幸相箴可也。賢述文字二三所疑處。皆以墨抹以標之。或有註脚。鄙見得失。亦可回教。感惠顧之勤。狂率至此。愧仄萬萬。春未暮。或可面扣耶。

與文生師古書

雪裏來訪。如昨日事。指顧之間。春日已和。此時又承存問。知山上高齋。日有清修。令人首擡而神馳也。所喻成服之奠。禮雖無別設之文。仍朝奠從俗設行。似無大妨於情理耶。魚肉生用。恐從粟谷。爲得古意。而以沙溪亦未免習久難變之意。況出其下者耶。膏煎之物。從禮無疑。好禮之士。砥柱於俗論。則誰敢非是哉。執笏之禮。古者士用竹笏。事君事長之常用也。今俗事親。生旣無此節。故粟谷從簡耶。焚祝當從朱子爲正。集說恐不可從矣。昨哭先忌。病神頓喪。志意茫然。走草不一。

寄鄭處直帖

此日雅况珍齋。聞昨日公輩。携琴與歌。高會月延臺上云。未知果然耶。國祥未經本月。君父尙在服禫之中。爲臣民者登高作樂。無乃未安

耶。在於私處。猶爲不可。况邑府殿牌奉安之地乎。决知其不可爲也。公輩平日。元非苦心篤行之人。而年已老矣。不足云矣。齋中新進向學之人。必以公輩爲先進表率之人。如此等事。亦必爲準式。則此非警懼處乎。鄙人於公輩。有懷必告如此。幸怒僭率如何。

答鄭世綸書

爾年尙未成童。能知脩身正心以事父母。事其父母。以達於天地賦人之理。又况仍其疾病。乃知自責自警。以爲篤學立身之根本。氣質之美。心志之純。可嘉可善若此。仍此立志。勤學力行。以至遠大。則爲聖爲賢。自此可始。爲卿爲公。亦不外此矣。爾其勗哉。若有此質而學不力。有此志而行不動。則必不免鄉里下品之人。可不畏哉。日月逝矣。歲不我延。爾其勗哉。平心調氣。靜養其質。負笈擔書。速歸成學。余日望焉。壬寅十二月二十日。南郊病夫書

與尹君先三暨文生八柱，鄭侄世經等戒書

諸君與鄉人羣居相接。曾無此事。今日爲始。不可不慎。鄉黨以和爲主。接人以敬爲主。和則俗漸忠厚。敬則人亦敬我。同處之中。雖有不如意人不如意事。不宜怒形於色。言形於悖。激成一鄉中風浪。切不宜與人敬情恢謔。亦不宜表之異衆。著書則務相論難。乘閑則共打好話。不宜談及世事。爭論是非。取勝於人。至於書冊筆墨及衾枕之類。亦可各自端束。不宜與衆人相雜共置。以起嫌疑之端。飲食雖或未盡。亦不宜據加叱怒於僧輩。至於往來之際。連轡共鞭。秩然有序。不宜或先或後。間斷不齊可矣。凡此數語。皆出於相愛之至情。幸毋置之老拙無用之空談。而熟加裁制而行之。則於諸君之實行。亦不無小補云。此紙仍呈鄭君處直。記得壬寅年事否。乙巳六月晦日書。

역자

나 상 필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일반연구위원
주 다 감 원광대학교 문학박사
정 용 건 고려대학교 박사수료
장 진 영 성균관대학교 박사수료

호남 선현문집 국역총서 4

남포집

발행 2020년 1월 20일
발행처 (재)한국학호남진흥원(원장 이종범)
62383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 152번길 53-27, 4층
전화 062-603-9600 팩스 062-941-6705
홈페이지 <http://hiks.or.kr>

저자 김만영,
역자 나상필, 주다감, 정용건, 장진영

편집제작 (유)공감
58558 무안군 삼향읍 삼향공단길 77
전화 061-279-3610 팩스 061-279-3611

비매품

ISBN 9791196800628 93910

본 도서는 문화체육관광부 2019년 호남학한국학진흥 사업의 지원으로 발간되었으며,
이 책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한국학호남진흥원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전제할 수 없습니다.